

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14호, 2024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차례

[지식과 교육]

■ 김묘정 ■

대학 교육의 AI 활용 가능성 탐색: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전비평론> 교과목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13

■ 김지은 ■

대학 영작문 교과목에서 자동번역기 활용법 개선을 위한 연구 39

■ 박고운·고혜림 ■

대학 토론대회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71

■ 박돈하·장수철 ■

대학 교양으로서 일반생물학 수업에서 '기후 변화' 교육 99

■ 배유나·강주현·이주혁 ■

가상현실 플랫폼 <로블록스>를 활용한 앙트러프리너십 기반 문제해결 콘텐츠 제작 교육 사례 연구 123

■ 성은혜 ■

교육과정의 계속성을 고려한 글쓰기 상담 개선 방안 연구 157

■ 오세섭·이아람찬 ■

청소년 영화교육 정책에 관한 고찰
: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의 흐름과 전환에 관하여 183

■ 이내관 ■

만화자료 활용을 통한 지역 민주의거 교육의 확산 전략 제언
: 『만화로 보는 3·8민주의거, 불꽃』을 중심으로 215

■ 전영옥·강옥희 ■

대학 고전읽기 교육의 교육목표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S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249

■ 정옥희·김혜경 ■

시스템 사고 적용 미술 수업 방안 연구
: 청소년의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중심으로 291

■ 최지연·김상철·주영효·김희규 ■

싱가포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탐색.... 325

■ 함현경 ■

공감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극교육의 가치 연구
: ‘즉흥극 만들기’의 경험 구조를 중심으로 369

[지식과 문화]

■ 김영윤·조준희 ■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특성 연구
: 국내 AI 공연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397

■ 김정선 ■

해녀 표상과 로컬리티: 서양화가 임호의 <해변>을 축으로 425

■ 백낙천 ■

조선 시대 한글의 사용 양상..... 449

■ 장지은 ■

대규모 재난 시기 발현되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 연구
: 대구성서공동체FM <코로나19 특별 생방송>을 중심으로 477

■ 최진아 ■

조선시대 설행된 여제(厲祭)의 제장 연구
: 한성부(漢城府)의 여단(厲壇)을 중심으로 509

■ **홍태한** ■

황해도 진오기굿 <수왕제석거리>의 의미 541

[지식과 사회]

■ **김창길** ■

단위학교 소방안전교육 인식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세종시교육청 교직원을 중심으로 567

■ **남철우·채진** ■

대형화재 피난안전의 영향요인 실증분석 597

■ **박윤자** ■

위탁 어린이집 원장의 현실과 대안 모색 619

■ **송현동·김광환·김문준·박아르마** ■

웰에이징 연구경향과 과제 643

[지식과 과학]

■ **박유진·김보애** ■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배아 독성 및 항염 효능 평가 663

■ **오상훈** ■

Chat GPT의 원리, 활용, 한계와 업무효율화 687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투고 규정 713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심사 규정 723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연구윤리 규정 727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738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14. 2024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TABLE OF CONTENTS

[Knowledge and Education]

■ Kim, Myo Jung ■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using AI in college major education: Focus on the course <Classical Korean Literary Criticism>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Dankook University 13

■ Kim, Ji Eun ■

A Study on the Use of Automatic Translators in English Writing Class for Korean College Students..... 39

■ Park, Ko Woon·Koh, Hye Lim ■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University Debate Contest 71

■ Park, Don Ha·Chang, Soo Chul ■

On Teaching ‘climate change’ in general biology classes as part of liberal education..... 157

■ Bae, Yuna·Kang, Ju Hyun·Lee, Ju Hyuk ■

A Case Study on Problem Solving Content Production Education Based on Entrepreneurship using Virtual Reality Platform <ROBLOX> 123

■ Seong, Eun Hye ■

A study on ways to improve writing counseling considering the continuity of the curriculum 157

■ Oh, Se Seop·Lee, Aramchan ■

A Study on Youth Film Education Policy in South Korea: Focusing on KOFIC Policy..... 183

■ Lee, Nae Kwan ■

Proposal for a Strategy to Spread Local Democratic uprising Education through the use of Cartoon materials: Focus on *The 3·8 Democratic Movement Seen Through Cartoons, Fireworks* 215

■ Jeon, Young Ok·Kang, Ok Hee ■

A Study on the Educational Objectives and Management Plan of University Classics Reading Education: Focusing on S University's <Reading Masterpieces>.....249

■ Jeong, Ok Hee·Kim, Hye Kyung ■

A Study on the Art Instructional Method of System Thinking: Focusing on the phenomenon of reclusive loner adolescents291

■ Choi, Ji Yeon·Kim, Sang Cheol·Joo, Young Hyeo·
Kim Hee Kyu ■

Exploring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to support Singapore teachers' AI and digital competencies325

■ Ham, Hyun Kyoung ■

A study on the value of theater education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empathy: Focusing on the experience structure of 'improvisational play creation'369

[Knowledge and Culture]

■ Kim, Yung-Yoon·Cho, Joon Hui ■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AI Collaborative Creation Performing Arts: Focused on Korean AI Performing Artworks397

■ Kim, Jung Sun ■

The Study on Representation of Haenyeo and locality: Focused on Lim Ho's <The Beach>425

■ Baek, Nak Cheon ■

On the use and spread of Hangeul in Joseon dynasty449

■ Jang, Ji Eun ■

A Study on the Role of Community Media in Large-Scale Disasters : Focusing on Daegu Seongseo Community FM <COVID-19 Special Live Broadcasting>477

■ Choi, Jin-A ■

A Study on the ritual space of Yō-je in Joseon Dynasty
: Focusing on Yō-dan in Hanyangbu509

■ Hong, Tea Han ■

An Implication of <Suwangjeseok-geori>, Hwanghae-do Jinogi-gut.....541

[Knowledge and Society]

■ Kim, Chang Gil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Fire Safety Education in Unit Schools
and Improvement Measures: Faculty and staff of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567

■ Nam, Chul Woo·Chae, Jin ■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evacuation safety in large-scale
fires597

■ Park, Yun Ja ■

Looking for the reality and alternatives of the director of the foster daycare
center619

■ Song, Hyeon Dong·Kim, Kwang Hwan·Kim, Moon Joon
·Park, Arma ■

Well-Aging Research Trends and Tasks643

[Knowledge and Science]

■ Park, Yu Jin·Kim, Bo Ae ■

Evaluation of Embryo Toxicity and Anti-inflammatory Efficacy of Rumex
crispus L. Root Extract.....663

■ Oh, Sang Hoon ■

The Principles, Applications, Limitations, and Business Efficiency of Chat
GPT.....687

대학 교육의 AI 활용 가능성 탐색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전비평론> 교과목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김묘정**

목 차

1. 들어가며
2. AI 기반 교과 활용 수업의 도입 배경
3. <고전비평론> 수업에서의 AI 기반 교과목 운영 양상
 - 1) 고전비평론 소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D-ESK 활용
 - 2) Chat GPT와 DaQ를 활용한 지식축적 및 지식공유
4.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디지털 중심 시대를 맞이하여 AI 기반 대학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특히 인문학의 경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기반의 다양한 대학 교육 방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필자는 국어국문학과 전공필수 교과목인 <고전비평론>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 AI, Big data, Metaverse 등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동시에

* 이 글은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EduAI에서 주최한 2023년도 대학혁신지원 사업 <EduAI 기반 교과 활용 모델 개발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교육에 접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에 필자는 전공 교과목이 지니는 특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전통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AI 기반 대학 전공 교육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AI 기반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2020년 정부가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기한 이후로 학습 대상 측면에서 대학보다는 초중고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이 글에서 주목한 국어 교육과 관련된 AI 활용 양상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문제로 AI와 국어 교육이 접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고찰한 선행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김태호(2023)는 AI가 국어과 교육의 대상인가를 탐색하는 동시에 국어과 교육에서 AI가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한 국어 수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백목원·권순희(2021), 최창원(2023)은 AI를 활용한 국어 수업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김윤경(2022)은 AI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AI 기반 융합 미래 교육으로 국어 교육의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종합해보면, 대체로 초중고로 대별되는 학교 교육에서의 AI 융합 교육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AI를 활용해 국어 역량을 재고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대학 교육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글을 통해 대학 교육에서 AI 활용이 가능한가? 혹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필자는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그리고 전공별로 길러주어야 하는 역량에 부

합하는 차원에서 AI 기반 교과 활용 수업이 진행되어야 함에 주안점을 두어 교과목을 설계·운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AI가 의사소통 도구, 사고 도구, 의사소통의 대상, 매체 문화, 교수·학습 방법(EduTech)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성을 염두하여(김태호, 2023) 대학 교육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기술 혁신이 미래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나, 결국 해당 교과목이 지니는 본연의 의미를 잃는다면 대학 교육 자체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므로, 이에 주의하여 AI 기술을 접목한다면 가능한 방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두 번째로는 대학 교육에서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적용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AI 기반 교과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논의에 앞서 기존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 전종희(2023)가 대학 교육의 Chat GPT 대응 현황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김상철(2023)과 한형종(2023) 역시 대학에서의 생성형 AI(Chat GPT) 활용 가이드라인 현황 및 설계 방향성 모색하는 동시에 Chat GPT 통합 활용을 위한 수업 설계 전략을 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현시점에서 급변하는 대학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에 필자 역시 시도적인 측면에서 교수·학습 방법(EduTech) 구축에 AI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EduAI 플랫폼을 사용해 교과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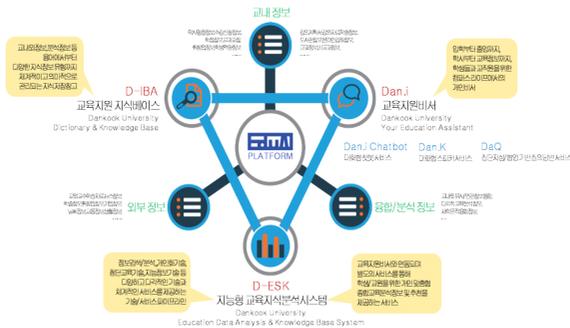
2. AI 기반 교과 활용 수업의 도입 배경

이 장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AI의 개념을 살펴보는 동시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단국대학교 교과목을 중심으로 AI 기반 교과 활용 연구를 진행하

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AI의 개념을 살펴보면, Nilsson(2009)은 기계가 환경에 대해 예측하고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전념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사전적으로 AI는 인간의 인지·추론·판단 등의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혹은 그 연구 분야 등을 총칭하는 용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두산백과). 범주를 좁혀 교육계에서 이해되는 AI의 개념을 살펴보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홍선주 외, 2020; 김성훈 외, 2021)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AI는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로 연구되고 또 논의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학에서도 AI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데, 단국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에서는 EduAI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AI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추후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때 AI가 교수자를 보조할 수 있는 교육조교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림 1] EduAI 플랫폼 체계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보고서, 2023)

이와 관련해 [그림 1]에 제시된 AI 기반 교과 활용 모델 교과목 운영을 위해 활용된 단국대학교 교내 EduAI 플랫폼¹⁾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단국대학교의 경우 교내의 모든 전공, 비교과, 진로 등에 필요한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범용적인 교육 지식정보 분석 및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왔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각 교과목에 특화되고 교육 지원이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단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보고서).

플랫폼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대별되는데, 첫 번째는 D-IBA 교육지원 지식 베이스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교외 단국대학교 강의계획서, 강의 자료, 학술 정보 등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며, 교외 무료 온라인 강의, 공개된 교수학습 자료, 취업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²⁾ 두 번째는 D-ESK 지능형교육지식분석시스템을 들 수 있다. 교수자의 교과목 분석 정보, 교과 설계, 학과 정보, 교내외 주요 교육 및 진로 관련 분석 정보, 통계 현황 정보 등이 제공된다.³⁾ 이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를 위한 시스템으로 분석된 교육 정보를 토대로 강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세 번째로 Dani 교육지원비서 플랫폼을 살펴보면 대화형 Chatbot, 질의응답서비스인 DaQ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⁴⁾ 이는 단국대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 플랫폼으로 교육 관련 AI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필자는 단국대학교의 EduAI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과목을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교과목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는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전공필수 교과목인 <고전

1) 단국대학교 Dani, <http://i.dankook.ac.kr/mydesk/dashBoard>

2) 단국대학교 D-IBA, <http://i.dankook.ac.kr/lectures/subject>

3) 단국대학교 D-ESK, <http://i.dankook.ac.kr/desk/idesk/dashboard>

4) 단국대학교 DaQ, <http://i.dankook.ac.kr/daq>

비평론>이라는 과목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맞춰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고전비평론>의 경우 한국 고전 문학의 비평 자료를 통사적으로 고찰해 고전비평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실제 비평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필자는 고전비평 이론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친 뒤 소논문 작성 과정에서 D-IBA와 D-ESK를 활용하는 방법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주차 후반기부터 AI 기반 전공 교육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EduAI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전비평론> 교과목의 핵심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표 1] 단국대학교 전공필수 <고전비평론> 교과목 핵심역량

혁신인재		능동인재
창의적문제해결 (Creative problem-solving)	지식융합 (Knowledge convergence)	지식활용 (Knowledge application)
부역량(25%)	부역량(25%)	주역량(50%)

<고전비평론> 교과목의 핵심역량으로 표기된 창의적문제해결(Creative problem-solving), 지식융합(Knowledge convergence), 지식활용(Knowledge application)의 경우 능동적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함양 가능한 부분이므로 EduAI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지식축적(Knowledge Accumulation)과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과정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주역량인 지식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 D-IBA와 D-ESK를 기반으로 학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논문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부역량인 지식융합 능력을 갖추도록 교수·학습설계안을 수립하였다. 나아가 질의응답 서비스인 DaQ와 Chat GPT를 활용하여 부역량인 창의적문제해결(Creative problem-solving)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였는데, 실시간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서로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3. <고전비평론> 수업에서의 AI 기반 교과목 운영 양상

이 장에서는 EduAI를 활용한 <고전비평론> 교과목 운영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2023년 2학기 단국대학교 <고전비평론>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AI 활용이 가능한 소논문 작성 과정과 발표 및 질의응답에서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AI 기반 대학 전공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도록 하겠다.

1) 고전비평론 소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D-ESK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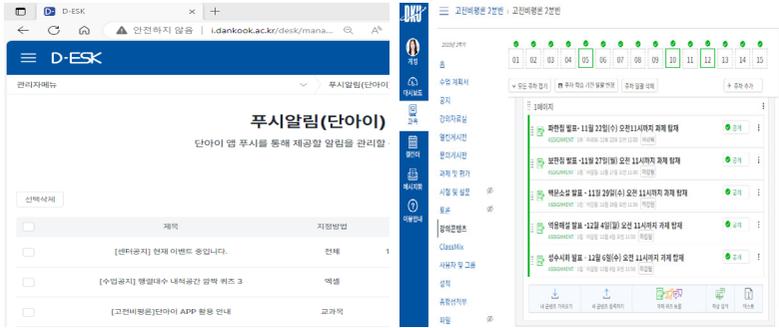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공필수 교과목인 <고전비평론>은 고전비평의 사적 추이에 대한 이해와 비평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안목을 토대로 각 시기별 확인되는 비평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단국대학교 고전비평론 강의계획서, 2023). 이에 1~10주차까지는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의 비평사에 대한 전공 심화 강의가 제공되며, 이후 11주차부터 발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소논문 작성과 발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공 심화 지식 습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는 AI를 활용법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11주차부터 진행된 <AI 기반 모델 단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AI 기반 <고전비평론> 교과목의 단계별 강의계획서 개발 예시

AI 기반 모델 단계	수업 내용
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교과목 운영 방법 안내 • 단국대학교 EduAI 플랫폼 소개 • Dan.i 사용 방법 안내
1단계 프로젝트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논문 작성을 위한 토픽(Topic) 안내 (파한집, 보한집, 백운소설, 역옹패설, 성수시화)
2단계 프로젝트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 쓰기 방법 안내

3단계 프로젝트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논문 작성
4단계 발표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논문 발표 및 교수자의 피드백 제공 • DaQ를 활용한 학습자 질의 시행 • DaQ를 활용한 학습자 간의 답변 유도, 교수자 답변 서비스 제공, Chat GPT를 활용한 답변 시도

강의계획서를 살펴보면, OT 과정에서 AI 기반 교과목 운영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단국대학교 EduAI 플랫폼을 소개함으로써 Dan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기별 비평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토픽(Topic)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 주제를 상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림 2] AI 기반 <고전비평론> 강의에서의 D-ESK 서비스 활용

기본적으로 <고전비평론> 과목에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D-ESK 서비스 활용하여 푸시 알림을 통해 공지사항을 등록함으로써 EduAI 기반 강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AI 기술을 확인하는 작업과도 연계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학습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파한집·보한집·백운소설·역용패설·성수시화’라는 5개의 토픽(Topic)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가 하나의 토픽을 선정하고 그와 유관한 다양한 형태의 소논문을 작성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그림 3] AI 기반 <고전비평론> 강의에서 제공한 주차별 토픽(Topic)

EduAI 기반 강의를 설계함에 있어서 1단계 프로젝트 수행계획 부분에서는 주차별 토픽(Topic) 기반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그림 3]의 우측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수자가 시스템에서 주차별로 연구 토픽을 등록·관리하였으며, 토픽과 관련하여 RISS에 탑재된 연구 논문도 함께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D-ESK에는 교과목과 관련된 강의 자료 및 연구자료가 자동적으로 추천되므로 이러한 기능도 함께 활용하고자 하였다.

The screenshot shows the D-ESK interface. On the left, there are search filters for '연구 주제' (Research Topic), '연구자' (Researcher), and '연도' (Year). The main area displays a list of research articles. On the right, a green box titled '백운소설 토픽(Topic) 관련 작성 주제 모아보기' (Collecting related writing topics for Baekun Novel Topic) lists several related top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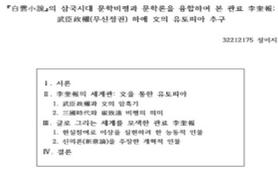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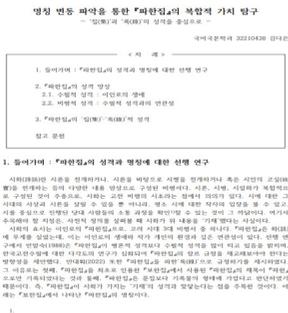
- 영주전 - 이규보의 통합적 창작관-시 창작 과정의 구체화를 중심으로
- 백만서 - 이규보의 주거적 문학관과 그것의 철학적 기저
- 성미지 - 백운소설의 삼국시대 문헌비평과 문헌론을 융합하여 본 관료 이규보: 무신장관 학예 문의 유포니아 주구
- 손지수 - 이규보 문학론 탄생 배경 연구
- 송수민 - 백운소설에 나타난 이규보의 물질-그려후기의 불교를 중심으로
- 안효정 - 문인 이규보의 문학관에 대한 고찰 -작품 백운소설을 중심으로
- 유수희 - 백운소설과 이규보의 시론 연구 -논시중미지역연에서 나타난 문학과 비평론을 중심으로
- 유지관 - 백운소설에 드러난 이규보의 비평 이론과 실제의 비교 -본질론과 창작론을 중심으로

[그림 4] D-ESK 제공 논문 연구 자료 및 학습자가 수렴한 소논문 주제 예시

[그림 4] 좌측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국대학교 D-ESK 서비스는 교수자가 연구 토픽(Topic)을 제공하는 성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연관토픽 정보와 논문 정보가 제공되므로 학습자가 토픽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상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그림 4]의 우측 그림과 같이 '백운소설'이라는 하나의 토픽을 기점으로 각기 다양한 소논문 주제를 추출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주제 상정과 더불어 2단계 프로젝트수행 단계에서는 소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병행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스스로 선정한 주제를 글로 구현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규보의 문학과 시론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백운소설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교수자가 D-ESK에 제시한 토픽 관련 선행 연구를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 연구와 다른 지점에 착안하여 본인의 견해를 논문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림 5] D-ESK 기반 <교전비평론> 소논문 작성 예시

이에 해당 주차 별로 각 연구 토픽에 대한 안내, 그리고 토픽과 관련한 학습자의 소논문 작성 및 발표, 소논문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가 하겠다. 그 결과 3단계인 프로젝트완료 단계에서는 해당 토픽(Topic)마다 대략 8명의 학습자가 각기 다른 주제로 글을 작성함으로써 총 39편의 소논문을 완성하였다. 각각의 학습자가 10페이지 미만 분량의 소논문을 작성하였으므로 대략 400페이지에 달하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발표를 통해 해당 토픽을 다양한 지점에서 조망할 수 있었다.

이에 AI 학습 지원 시스템 중 하나인 단국대학교 EduAI 플랫폼을 활용한 교과목 운영의 장점을 논해보자면, EduAI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가 편리하게 지식·정보 수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기존 강의 방식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하고 학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표 3] 가장 도움이 된 단국대학교 EduAI 서비스 메뉴에 대한 설문조사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보고서, 2022)

응답내용	응답률(%)
Dani(대시보드/분석토픽 등)	9.2
DaQ(질의답변)	52.7
학습(교과/비교과/무료강의/연구 등)	15.3
진로(채용/취업 등)	3.8
학과라운지	0.0
단아이 챗봇	3.8
객관식 질문(단아이 챗봇 질의)	5.3
캠퍼스 라이프(게시판 분석, 주변 검색)	2.3
D-Guide	0.0
공지 알림 및 PUSH 알림	5.3
기타	2.0
합계	100.0

이와 관련해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교과목 학습과 관련된 항목인 분석토픽, 학습(무료강의, 연구자료) 등이 유용했다는 응답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전비평론> 소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D-ESK 활용은 전공 지식 함유라는 대학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면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AI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된다.

2) Chat GPT와 DaQ를 활용한 지식축적 및 지식공유

AI 기반 <고전비평론> 교과목 운영에서는 학습자 간, 교수자 학습자 간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Chat GPT와 DaQ를 활용하여 학습자 간의 답변을 유도하는 동시에 교수자가 직접 답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이 작업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향후 AI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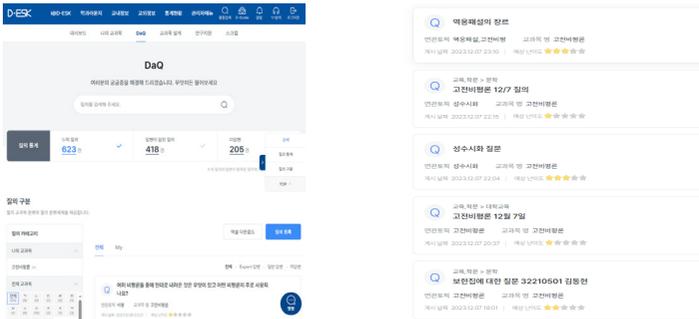
대신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AI와 교육의 융합을 논의하면서 Chat GPT는 항상 논의의 화제가 되어 왔는데, 이는 Open AI가 2022년 11월 30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Open 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3.5’ 언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두산백과). 아울러 Chat GPT는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생성형 AI로, AI 스스로 학습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텍스트를 생성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겠다(반병현, 2023). 그런데 대학 교육 과정에서 Chat GPT가 과연 학습자의 질문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대학 교육 가운데 인문학 계열의 경우 질문과 답변이 다층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하나의 답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 교육에서 Chat GPT가 교수자의 보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 장에서는 실제 대학 교과목 운영에서 활용한 DaQ 서비스와 Chat GPT 기능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그림 6] EduAI DaQ 서비스 체계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보고서, 2023)

이에 단국대학교에서는 [그림 6]과 같이 EduAI DaQ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대학 교육에서의 질문과 응답이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형태로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국대학교 DaQ 서비스는 아직 시범 단계에 있지만, 질문과 답변이 누적되어 해당 교과목에 대한 전공 지식이 축적된다면, 전공 심화 수준의 답변이 가능한 생성형 AI가 구축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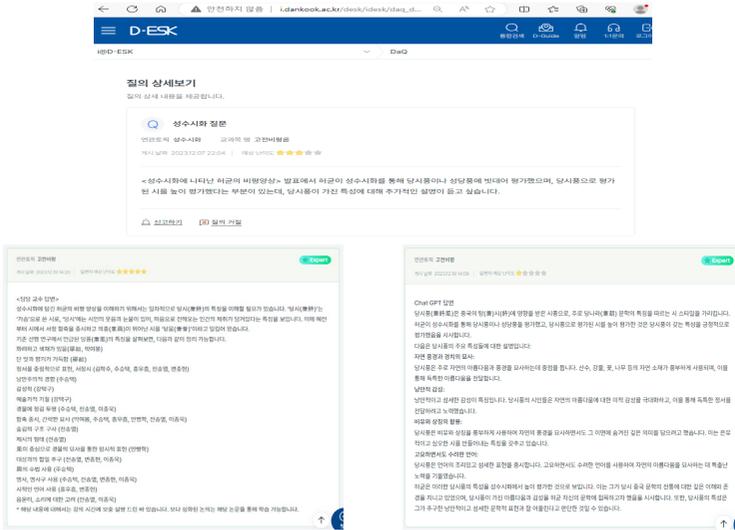


[그림 7] <고전비평론> DaQ 서비스 활용 양상

이에 <고전비평론> 수업에서는 토픽(Topic)에 대한 발표가 끝난 이후에 DaQ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토픽과 관련한 질문을 생성하도록 독려함으로써 EduAI DaQ의 실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7]을 살펴보면,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질문을 DaQ 서비스 창에 올리면 질문이 순차적으로 등록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질문은 교과목명으로 다시 분류되어 교과목마다 생성된 다양한 질문들이 단국대학교 재학생 전체에게 모두 공개된다.

나아가 학습자가 질문을 등록하면 교수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학습자들끼리 서로 답변을 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해당 발표자에게 소논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전비평론> 교과목에 적용했을 때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모든 학습자가 올린 질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에 동일 질문이 발생한 경우 쉽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림 8] <고전비평론> DaQ 질의응답 활용 양상

이에 DaQ 서비스를 활용해 진행된 질의응답 예시를 살펴보면, [그림 8]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고전비평론> 교과목에서 DaQ 질의응답 시스템을 사용해본 결과 질문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 결과값이 다양하게 추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후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교수자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여러 층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첫 번째는 DaQ에 학술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보편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이 등록된 경우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답변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되는 지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표 4] <고전비평론> DaQ 질의응답 예시(1)

학습자가 DaQ에 등록한 질문	Chat GPT 답변
<p>고전비평을 배우며 비평론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여러 비평론 중에 현대론 내려온 것은 무엇이 있고 어떤 비평론이 주로 사용되나요?</p>	<p>고전비평은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전통적인 비평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현대비평은 고전적인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이론과 방법을 도입하여 미학과 문학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현대비평은 다양한 이론과 접근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p> <p>구조주의 (Structuralism): 구조주의는 문학 작품이나 언어의 구조에 중점을 둔 비평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Ferdinand de Saussure와 Claude Lévi-Strauss가 영향을 주었습니다.</p> <p>마르크스주의 비평 (Marxist Criticism): 마르크스주의 비평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작품 내에 사회적 계급 간의 갈등과 부조리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p> <p>이러한 비평 이론들은 종종 혼합되어 사용되며, 작품에 따라 적합한 이론이나 접근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비평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므로 이 목록은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현대비평에서는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p>

위 [표 4]는 학습자가 <고전비평론> 교과목의 가장 핵심인 ‘비평 이론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Chat GPT의 답변을 가져온 것이다. DaQ 시스템의 경우 아직 Chat GPT와 연동되지 않아 교수자가 직접 Chat GPT를 사용하여 답변을 생성하였는데, 위 질의응답 예시(1)에서 주목할 부분은 생성형 AI의 답변이 질문을 해결할만한 수준의 적절한 지식을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물론 비평 이론 전체를 다 설명하지는 못했으나 현대 비평 이론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비평 이론이 사용됨을 안내하였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질문한 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본다면,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향후 미래의 대학 교육, 그리고 전공 심화 교육에서 제공하는 이론에 대한 교육 및 질의응답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두번째로는 전공적인 측면에서 심화된 지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한

경우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 <고전비평론> DaQ 질의응답 예시(2)

<p>학습자가 DaQ에 등록한 질문</p>	<p><성수시화에 나타난 허균의 비평양상> 발표에서 허균이 성수시화를 통해 당시풍이나 성당풍에 빗대어 평가했으며, 당시풍으로 평가된 시를 높이 평가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풍이 가진 특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p>
<p>Chat GPT 답변</p>	<p>당시풍(唐詩風)은 중국의 당(唐)시(詩)에 영향을 받은 시풍으로, 주로 당나라(唐朝) 문학의 특징을 따르는 시 스타일을 가리킵니다. 허균이 성수시화를 통해 당시풍이나 성당풍을 평가했고, 당시풍으로 평가된 시를 높이 평가한 것은 당시풍이 갖는 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당시풍의 주요 특성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연 풍경과 경치의 묘사, 낭만적 감성, 비유와 상징의 활용, 고요하면서도 수려한 언어 당시풍은 언어의 조리있고 섬세한 표현을 중시합니다. 고요하면서도 수려한 언어를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특출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p>
<p>교수자 답변</p>	<p>성수시화에 담긴 허균의 비평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당시(唐詩)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唐詩)'는 '가슴'으로 쓴 시로, '당시'에는 시인의 웃음과 눈물이 있어, 마음으로 전해오는 인간의 체취가 담겨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에 예전부터 시에서 서정 함축을 중시하고 의흥(意興)이 뛰어난 시를 '당음(唐音)'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당풍(唐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정서 위주의 표현(김학주, 주승택, 홍우흠, 전송열, 변종현), 낭만주의적 경향(주승택), 함축 중시(막여봉, 주승택, 홍우흠, 안병학, 전송열, 이종묵), 시적인 언어 사용 중시(홍우흠, 변종현), 소리 중시(전송열, 이종묵) 그러나 당풍에 대한 이해는 위와 같은 이론적인 학습에서 나아가 실제 작품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풍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 작품 분석은 강의 시간에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p>

[표 5]를 살펴보면, 이는 '성수시화'라는 토픽(Topic)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작성한 <『성수시화(惺叟詩話)』에 나타난 허균의 비평 양상>이라는 소논문 발표를 듣고 파생된 의문점을 질문으로 생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질문을 살펴보면 학습자는 소논문 발표를 통해 허균이 성당풍(盛唐風)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파악한 뒤 당풍(唐風)에 관한 전공 심화 지식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Chat GPT의 답변이 기본적인 당풍의 특징

을 잘 정리하고 있으나, 선행 연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정보의 출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공 심화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당풍에 대한 이해는 위와 같은 이론적인 학습에서 나아가 실제 작품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염두한다면, Chat GPT의 답변만으로는 실제 비평 측면에서 학습자가 직접 작품을 읽고 당풍의 면모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구축된 생성형 AI는 전공 심화 과정에서 교육 및 질의응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세번째로는 DaQ에 등록된 특정 질문의 경우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부재로 전혀 다른 답변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보인다.

[표 6] <고전비평론> DaQ 질의응답 예시(3)

학습자가 DaQ에 등록한 질문	Chat GPT 답변
<p><역옹패설의 집필 배경과 성격 연구>에서 이제현은 신의와 용사 중에서 신의에 조금 더 주목했다고 하였는데, 신의에 초점을 맞춘 까닭과 용사에 어떻게 접근하였는가 궁금합니다.</p>	<p>역옹패설(역랑패설)은 조선시대 이종호(李宗鎬)의 저술로, 전란(戰爭)을 경험한 무인(武人)들의 군사 경험을 기록한 글입니다. 이제현은 역옹패설을 통해 신의와 용사에 대한 관점을 밝혔는데, 이는 그의 시대적인 맥락과 개인적인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략)...</p>

[표 6]의 경우 학습자는 <역옹패설의 집필 배경과 성격 연구>라는 소논문 발표를 듣고 이제현이 신의(宸意) 창출을 중시한 이유를 묻고 있는 동시에 그의 작품에서 용사(用事)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는지 혹은 용사 자체를 부정하였는지 수용하였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궁금증을 담아냈다. 그런데 Chat GPT는 『역옹패설(櫟翁稗說)』이라는 작품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고려 말기 1342년에 이제현이 지은 이 작품을 조선시대 이종호(李

宗鎬)의 저술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위 내용을 통해 Chat GPT는 때로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생성하기도 할 수 확인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Chat GPT 답변의 다음 단락으로 “이제 현은 역용패설을 통해 신의와 용사에 대한 관점을 밝혔는데…”라는 부분이다. Chat GPT는 『역용패설』의 저자를 잘못 고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등록한 질문을 기반으로 이제현이 신의와 용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식의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각별한 검증 절차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네번째로는 특정 발표자의 세밀한 논의에 대한 질문이 발생했을 때 현재 수준의 Chat GPT가 답변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표 7] <고전비평론> DaQ 질의응답 예시(4)

학습자가 DaQ에 등록한 질문	Chat GPT 답변
<p>손지수 학우님의 <이규보 문학론 탄생 배구 연구> 논문에서 이규보의 작품 <次韻空空上人贈朴少年五十韻>이 동성애를 다룬 고려시대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자료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학우님께서 이 시를 통해 이규보의 대담한 성격을 추측해주셨는데, 해당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와 당대 사회에 끼친 영향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한 여쭙보고 싶습니다.</p>	<p>아쉽게도, 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손지수" 학우와 "이규보 문학론 탄생 배구 연구"라는 특정 논문 또는 그 작품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次韻空空上人贈朴少年五十韻"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기반에서는 해당 작품이나 논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p> <p>그러나 만약 이규보의 작품 중에서 동성애를 다룬 작품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는 고려시대에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있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동성애에 대한 탐구와 표현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p> <p>이규보의 작품이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면, 이는 당시 사회의 성숙도 및 열린 마음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작품이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른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p>

[표 7]을 살펴보면, 학습자가 <이규보 문학론 탄생 배구 연구>라는 소논문 발표를 듣고, 이규보라는 작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등록한 것이다. 발표자는 소논문을 통해 이규보의 작품 한 수를

두고 동성애적인 면모가 확인됨을 주장한 바 있는데, 질문을 제기한 학습자는 이러한 작품이 지니는 문화사적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Chat GPT 답변의 경우 이규보의 작품인 <次韻空空上人贈朴少年五十韻>에 대한 데이터의 부재로 질문 자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현재까지 구축된 Chat GPT는 학습 데이터 속에서만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뿐, 그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한계를 보인다고 하겠다.

종합해보다면 대학 교육, 그리고 전공 심화 교육에서 생성형 AI의 역할은 한정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생성형 AI가 학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이에 단국대학교 DaQ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Chat GPT가 아닌 교수자 혹은 학습자가 직접 답변을 달아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지식 활용과 지식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DaQ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보고서, 2022)

응답내용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합계
응답률(%)	1.1%	4.5%	39.3%	39.3%	15.7%	100%

이와 관련해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DaQ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필요’, ‘매우 필요’라고 응답한 학습자의 총합이 55%로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39.3%에 달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지점

이 있다고 하겠다. <고전비평론>이라는 대학 전공 교과목을 운영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단국대학교 DaQ 서비스를 비롯해 Chat GPT 시스템이 전공 심화 지식에 대한 의문을 모두 해소할 만큼 명확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단국대학교 DaQ 서비스는 교수자의 성실한 답변 축적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시스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미흡한 지점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Chat GPT 시스템이 대학 교육에서 다루는 심화된 지식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단국대학교에서 구축하고 있는 DaQ 서비스는 기존의 생성형 AI가 지니는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바이다.

4. 나오며

이 글은 단국대학교 <고전비평론>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전공 교육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교육 방법과 성과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된 것이다. 특히 인문학의 경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기반의 다양한 대학 교육 방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전공 교과목이 지니는 특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전통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AI 기반 대학 전공 교육을 시도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먼저 2장에서는 AI의 개념을 살펴보는 동시에 단국대학교 교과목을 중심으로 AI 기반 교과 활용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였다. 그에 따라 AI 기반 교과 활용 모델 교과목 운영을 위해 활용된 단국대학교 교내 EduAI 플랫폼 체계인 D-IBA 교육지원 지식 베이스, D-ESK 지능형교육지식분석시스템, Dani 교육지원비서 플랫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EduAI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전비평론> 교과목의 핵심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설계하였음을 밝힘으로써

AI 기반 교과 활용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2023년 2학기 단국대학교 <고전비평론>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고전비평론 소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D-ESK 활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기본적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D-ESK 서비스 활용하여 푸시 알림을 통해 공지사항을 등록함으로써 EduAI 기반 강의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교수자가 주차별로 시스템에서 연구 토픽(Topic)을 등록·관리하고 토픽과 관련하여 RISS에 탑재된 연구 논문을 제공한 과정을 공유하였다. 이에 결과물 측면에서 EduAI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가 편리하게 지식·정보 수집함으로써 토픽마다 대략 8명의 학습자가 각기 다른 주제로 글을 작성함으로써 총 39편의 소논문을 완성하였음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Chat GPT와 DaQ를 활용한 지식축적 및 공유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I 기반 <고전비평론> 교과목 운영에서는 학습자 간, 교수자 학습자 간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Chat GPT와 DaQ를 활용하여 학습자 간의 답변을 유도하는 동시에 교수자가 직접 답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고 운영하였음을 밝혔다. 이 작업은 현재의 생성형 AI의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층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이 글은 큰 틀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앞에 놓인 대학 교육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을 살피는 동시에 변화를 목전에 둔 인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고찰한 연구라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아울러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AI, Big data, Metaverse를 교육에 접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대학 교육에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일정부분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

해 EduAI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교육지원비서(Educational Assistant), 대화형 인터페이스(Dialogue Interface), 챗봇(Chatbot) 서비스, 교육에서의 개인비서(Personal Assistant) 서비스로 발전할 다양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실제 대학 교육에 AI기술을 접목한 결과 AI를 활용하여 편리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AI가 고등 교육인 대학 교육의 전문성, 전공 심화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대학 전공 교육에서 AI를 활용하여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과 학문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고도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이 글은 시도적인 측면에서 일정부분 의미를 지니나 시스템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점에서 여전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시스템 개발 자체가 향후 다양한 대학 교과목에서의 시범 적용 사례 축적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작업임을 염두한다면, 이 글이 지니는 작은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여긴다.

■ 참고문헌

- 김상철, 「대학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현황 및 설계 방향 연구: 생성형 AI(챗 GPT)를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13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3, 11-44쪽.
- 김성훈·김우진·장연주·김현철, 「설명 가능한 AI학습 지원 시스템 개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4권 1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1, 107-115쪽.
- 김윤경, 「AI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국어교육의 탐색- 'AI 기반 융합 혁신 미래교육'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1권,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22, 121-149쪽.
- 김태호, 「국어과 교육에서 AI의 수용 방향」, 『청람어문교육』 93호, 청람어문교육학회, 2023, 7-27쪽.
- 김현주·이진영, 「Chat GPT를 활용한 대학 교육 방안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10권 1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4, 71-79쪽.
- 단국대학교 Dani, <http://i.dankook.ac.kr/mydesk/dashBoard>.
- 단국대학교 D-ESK, <http://i.dankook.ac.kr/desk/idesk/dashboard>.
-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서」, 단국대학교, 2023.
- 단국대학교 이러닝캠퍼스, <https://nlms.dankook.ac.kr/>.
-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6027&cid=40942&categoryId=32845>, 2023.12.04.
- 반병현, 『챗 GPT: 마침내 찾아온 특이점』, 생능북스, 2013.
- 백목원·권순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어 수업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84호, 청람어문교육학회, 2021, 7-39쪽.
- 전종희, 「대학교육의 챗 GPT 대응 현황 및 방안 연구」, 『문화교류와 다

문화교육』12권 4호, 한국국제교류학회, 2023, 517-548쪽.

최창원, 「초등 국어과 ai 리터러시 융합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76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23, 434-458쪽.

한형종, 「대학 교육에서의 Chat GPT 통합 활용을 위한 수업 설계 전략 개발」, 『교육문화연구』 29권 4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3, 243-275쪽.

홍선주·안태연·이상민, 「예비교사를 위한 맞춤형 수업설계 시스템 개발 및 적용」, 『교사교육연구』 59권 4호,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20, 643-646쪽.

■ 국문초록

이 글은 디지털 중심 시대를 맞이하여 단국대학교 <고전비평론> 교과목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AI 기반 대학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이에 2장에서는 AI의 개념을 살펴보는 동시에 단국대학교 교과목을 중심으로 AI 기반 교과 활용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고전비평론>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고전비평론 소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D-ESK 활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기본적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D-ESK 서비스 활용한 EduAI 기반 강의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교수자가 주차별로 시스템에서 연구 토픽(Topic)을 등록·관리하고 RISS에 탑재된 연구 논문을 제공한 과정을 공유하였다. 이에 결과물 측면에서 EduAI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가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총 39편의 소논문을 완성하였음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Chat GPT와 DaQ를 활용한 지식축적 및 공유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I 기반 <고전비평론> 교과목 운영에서는 Chat GPT와 DaQ를 활용하여 학습자 간의 답변을 유도하는 동시에 교수자가 직접 답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고 운영하였음을 밝혔다. 이 작업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보여주는 가능성과 한계점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인공지능(AI), EduAI, Chat GPT, 대학 교육, 고전비평론

■ Abstract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using AI in college major education: Focus on the course <Classical Korean Literary Criticism>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Dankook University

Kim, Myo Jung
/ Dankook University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I-based university major education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Dankook University's <Classical Korean Literary Criticism> course in the current digital-oriented era. Accordingly, the concept of AI is first examined an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conducting research are discussed on the use of AI-based education centering on Dankook University subjects. Next, discussion focuses on the case of the course <Classical Korean Literary Criticism>, where the use of D-ESK in the process of writing a thesis on classical criticism is first examined. Basically, in terms of method, the possibility of EduAI-based lectures using D-ESK services is explored, for which the instructor registers and manages research topics in the system each week and shares the process of providing research papers mounted on the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In terms of the results, it is first revealed that a total of 39 thesis papers were completed by conveniently collecting knowledge · information through the EduAI platform. Second, knowledge accumulation and sharing aspects using Chat GPT and DaQ are discussed. From the operation of the AI-based <Classical Korean Literary Criticism> course, Chat GPT and DaQ were found to be used to induce answers between learners and to provide answer services directly by instructors. This work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current generative AI models at the same time.

Keyword • Generating AI, Art education, Chat GPT, Aesthetic experience

■ 논문투고일:2024.02.13. ■ 심사완료일:2024.03.19. ■ 게재확정일:2024.03.20. ■

대학 영작문 교과목에서 자동번역기 활용법 개선을 위한 연구

김지은*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및 논의
5. 결론

1. 서론

온라인 자동번역기는 2006년에 구글 번역기(Google Translate)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2016년에 인공지능기술을 사용한 딥러닝 기법이 도입되며 번역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기업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번역기인 파파고(Papago)가 출시되면서 자동번역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 이용이 더욱 일반화되었다(주영재, 2017). 특히 학교 현장에서 번역기 사용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이윤재, 이동주, 2020),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이 빈번해지며 학생들이 전자기구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과 활동에

* 서울시립대학교 객원교수

익숙해진 것도 그 한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습자에게 자동 번역기는 사전처럼 익숙한 기본적인 학습 도구가 되고 있으며(Murtisari, Widiningrum, Branata, & Susanto, 2019) 학습자는 주로 단어와 짧은 구를 번역하며(김혜경, 한수미, 2021) 특히 영작문 활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어 학습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자동번역기의 사용이 당연한 현상이 되고 있지만, 교수자의 자동번역기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데 이를 어휘와 문법 등의 오류를 점검하는 유용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는 반면 학생들이 기계 번역에만 의존하게 되어 외국어 학습을 방해하는 도구이므로 교과 활동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심지어 일부 교수는 학생들이 과제 수행이나 수업 활동에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여기고 언어학습에 지장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Prichard, 2008; Stapleton, 2005) 번역기 사용을 학습 현장에서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허가해야 할지는 교수자에 따라 다르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자동번역기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은 당연하며 각종 온라인 기기와 프로그램이 학습 도구로 활용되는 현시점에서 자동번역기의 단점만을 고려하여 이를 학습 현장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심지어 영어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서 번역기의 결과물을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이라는 의견(윤여범, 2020; 임완철, 2017; Jin & Deifell, 2013)이 대두하고 있으므로 번역기를 학습 현장에서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이를 좀 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학습자에게 번역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학습 향상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동번역기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다양한 자동번역기 활용법을 시도하여 이를 유

용하고 의미 있게 학습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학습자의 자동번역기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파파고 번역기를(이윤재, 이동주, 2020) 활용한 영작문 학습 활동을 제안하여 그 만족도와 학습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 도구로서 유용한지 점검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계 번역 도구의 발전은 외국어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Groves & Mundt, 2015), 기계 번역 기술은 언어 번역 시 문법과 어휘의 정확성을 지속해서 향상시켰고 인공지능영향을 활용한 구글 번역기가 등장하며 그 사용이 더 활발해져 이와 관련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Azer & Aghayi, 2015; Dhakar, Sinha, & Pandey, 2013; Ghasemi & Hashemian, 2016).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파파고가 출시된 이후 그 사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례로 출판계에서는 인간 번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번역속도와 대량 처리 능력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계번역을 거친 후 그 결과물을 수정하는 사후교정 직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진용주, 서보현, 김순영, 2018). 이렇듯 번역기의 사용이 가속화되며 번역기와 공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으므로(Koponen, 2016), 영어교육 분야에서도 번역기 사용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영어교육과 관련한 번역기의 활용방법을 제시하거나 학습 도구로서의 가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영어교육과 번역기에 관한 연구는 약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번역기가 영어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한 문헌적

고찰, 둘째 번역기 사용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 마지막으로 번역기 사용 전후의 문장, 문법, 작문의 질을 분석한 논문이다.

우선 번역기의 영어교육에 대한 영향을 고찰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완철(2017)이 2030년에는 인간 뇌의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외부 매체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며 번역기의 비약적 발전이 영어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윤여범(2020) 역시 인공지능 기반인 파파고를 분석하여 영어교육 분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는데, 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문장을 번역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 외에는 어려운 어휘와 복잡한 구조의 문장도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므로 영어교육에 효율적인 학습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한편 자동번역기의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로는 임희주(2017)와 정미애(2020)의 최근 연구가 대표적이며, 임희주(2017)는 자동번역기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작문을 실시하고 활동과정에서 느낀 번역기 사용에 대한 장단점을 설문과 인터뷰로 조사하였다. 166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번역기를 영작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며 편리하고 신속한 교정과 피드백,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작문을 실시한 후 학생들은 내용의 완성도와 어휘, 표현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하였으나 문법과 오류 감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임희주는 교수자가 시대적 흐름상 학생들의 번역기 사용을 인정하고 무조건적 제한보다는 올바른 사용법을 유도해야 하며, 초급 학습자의 경우 영어 쓰기 과업에서 번역기는 참고용이나 마지막 점검을 위한 보조도구로 이용하도록 하고 피드백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문화적 배경이 포함된 표현의 경우 번역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미애(2020)는 설문 조사와 성찰 에세이 분석을 통하여 58명의 한국 대학생들의 번역기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 대부분은 평소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어휘, 문장 구조, 문법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번역기가 영작문을 완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는 의문을 표시하였고, 이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자동번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사용 전략과 훈련에 관한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외 번역기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로 김혜경과 한수미(2021)는 1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글 번역기, 파파고, 그램머리(Grammarly)에 대한 학습효과 인식 및 도구별 장단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글과 파파고는 어휘, 문법, 문장 구조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지만, 그램머리는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해 준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동번역기 사용 전후 학습자의 작문 수준(quality)을 오류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과 같다. 이윤재와 이동주(2020)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번역기 활용 여부에 따른 오류 변화와 오류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 173명 중 80%가 넘는 학생이 영작문 시 파파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번역기를 사용한 작문과 미사용한 작문의 코퍼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류의 종류는 흡사하나 오류 빈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 자동번역기의 유용성과 교육적 활용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Lee & Cha(2019)는 1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역기를 사용하여 2가지 방법으로 작문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한글 작문을 사전에 이용하여 영어로 번역 후 자동번역기를 활용하여 수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한글 작문을 자동번역기만을 사용하여 바로 번역하여 작문하는 것이다. 그 결과, 첫 번째 방법은 768개의 영어 문장 중 310

개만이, 두 번째 방법은 780개 중 391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통계 결과 두 번의 과정(사전과 번역기)을 거친 방법이 결코 효과적으로 정확한 영어 문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후 설문결과에서 학생들은 어휘, 문법, 문장 구조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자동번역기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자동번역기의 효율성을 증명하였다.

Sangmin-Michelle Lee(2020) 역시 자동번역기가 작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학생들은 먼저 한국어(L1)로 작문을 한 다음 자신이 스스로 영어(L2)로 번역을 한 것(1)과 자동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어로 번역한 것(2)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오류 분석(error analysis)을 통하여 (1)과 (2)를 분석한 결과, (1)의 작문 수준이 (2)의 작문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로 작문하는 것보다 자동번역기를 통해 영어 작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학생의 수준에 따라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해외 논문의 경우, Groves & Mundt(2015)는 EFL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국어 작문을 온라인 번역기를 활용하여 번역하였을 때 오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오류의 수준이 외국인 학생이 다수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정도이며 앞으로 온라인 번역기가 더욱 발전할 것을 고려하면 학술적 목적의 언어 학습(EAP)에 학생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Chandra & Yuyun(2018)은 EFL 글쓰기에서 구글 번역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사하였는데, 인도 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묘사글을 작문하며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을 녹화하고 인터뷰를 통해 어떤 영역에서 번역기를 자주 활용했는지를 확인하였다. 영어의 4가지 영역 중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작문에 학생들은 번역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전을 대용으로 단어를 빈번하게 검색하고 구(phrase)와 문장 단위까지 다양하게 번역기를 사용하였다. 스펠링과 문법도 검색했으나 단어와

어휘 검색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빈도는 단어, 구, 문장 순이었다. 이들은 번역기를 보조 기구 정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록 논란은 있지만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번역기에 관한 연구는 번역기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번역기를 사용하였을 때 작문의 질 향상과 오류 감소, 그 효율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대체로 학습자는 어휘 선택에 있어서 번역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오류 점검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의견이 많으며 번역기를 사용하였을 때 작문의 오류가 감소하고 그 수준은 향상된다고 보고하여 번역기의 유용함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번역기 사용 방법을 학습자의 자율에 맡겨 번역기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번역기 사용 전과 후 작문의 질과 오류를 비교하여 작문 결과물에 번역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나, 번역기가 교육적 도구로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번역기의 학습적 활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번역기 사용을 매우 당연히 여기는 외국어 학습자에게 번역기 사용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그 효과와 만족도를 알아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제 대학생의 번역기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새로운 번역기 활용 방법을 시도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 학습자의 평소 번역기 사용실태와 특히 대학 영작문 과제 시 사용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외국어 학습을 위해 새롭게 제시한 번역기 사용 방법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작문 학습이 이루어졌고, 그 만족도는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필수 교과목인 영작문을 수강하는 141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남학생 100명과 여학생 41명이 참여하였고 이들 중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은 6명으로 극소수였다. 자신이 평가하는 본인의 영작문 실력은 자신이 있다는 응답이 54건과 자신이 없다는 응답이 87건으로 약 62%의 학생이 자신의 영작문 실력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응답으로 초중고 시절 영작문을 거의 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31명, 주로 문장 단위로만 작문을 해보았다는 응답이 54명으로 영작문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어 참여자가 영작문 경험이 거의 없고 초급 수준의 영작문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차 설문에는 141명이 답변해 주었고, 자동번역기(파파고)를 활용한 영작문 활동과 2차 설문에는 이 중 121명이 참여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과정

본 연구는 평소 번역기 사용실태에 대한 1차 설문, 번역기를 활용한 영작문 활동, 작문 활동 후 만족도와 학습 효과에 대한 2차 설문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인 1차 설문은 총 20문항으로, 번역기 사용에 대한 동기, 사용 목적, 장단점, 만족도와 인식에 대한 문항과 실제 대학에서 과제를 할 때 번역기 활용 실태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임희주(2017)와 정미애(2020)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2단계인 번역기 활용 활동은 영작문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자동번역기를 활용하여 에세이의 서론 단락을 작문해 보았다. 수업 작문 과제 주제인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students' 또는 'Most people think students who have good

grades are successful’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락을 작성했다. 작성 전에 연구자가 번역기 사용 순서를 제시하여 4단계에 걸쳐 작문을 하였는데, 먼저 번역기를 배제하고 학생 스스로 영어로 초본을 작성하고(1) 이를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 번역본을 수정 및 보충하여(2) 다시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해 영어로 번역하고(3) 이 영어 번역본을 자신의 영어 초본(1)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4). 자신의 힘으로 최초 작성한 영어 초본(1)과 번역기를 통해 여러 과정을 거친 번역본(3)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본(4)을 완성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영어 표현과 문법, 문장의 유창성을 익히고 학습하도록 하였다. 2단계 활동인 새로운 번역기 사용 방법은 [표 1]에 요약하였다. 자동번역기는 1단계 설문의 답변에서 84%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파파고를 이용하였다.

[표 1] 번역기를 활용한 작문 활동

	활동 순서	활동 내용
1	최초 영어 작문	번역기 없이 학생 스스로 영어로 초본을 작성함
2	한글 번역본 (파파고 사용)	파파고로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 후 한글 번역본을 통해 자신이 의도한 대로 영어 작문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수정하고 보완함
3	영어 번역본 (파파고 사용)	다시 한번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하여 한글을 영어로 번역함
4	최종 영어 작문	3단계 영어 번역본과 자신 최초 영어 작문(1단계)을 비교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여 영어 작문을 완성함

이 연구에서 제시한 번역기 활용방법은 Sangmin-Michelle Lee(2020)를 참조하여 학습 도구로써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고안하였는데, 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하도록 하여 자신의 작문에 대해 여러 번 수정하며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이 번역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스로 다양한 표현과 문법을 찾아 작성하기보다는 편리함 때문에(임희주, 2017) 유창한 한글로 작성하고 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스로 영어로 작문할 기회를 포기해 버려 학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면, (1)번 과정을 통해 스스로 영어로 작문하는 기회를 갖고 (2)번으로 자신의 영어 작문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되었는지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스스로 작문한 (1)번과 (3)번을 비교하여 어휘와 표현, 문법과 문장 구성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여 최종본을 완성할 수 있어 학습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단계인 2차 설문에서는 2단계 영작문 활동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번역기를 사용한 후 그 만족도와 영어 학습의 어떤 영역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답변하도록 하였다. 1차 설문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흔히 번역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한국어로 단어, 문장, 문단 단위로 작성 후 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다수의 학생에 따르면 편리함과 시간 단축에는 만족하지만 의존이 심해지고 영어 학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에, 2단계 활동을 통해 새로운 번역기 활용법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차와 2차 설문은 Microsoft forms를 이용하여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작문 활동은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하여 영어에서 한국어,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진행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1차 설문은 평소 번역기 사용상태에 관한 응답과 대학 영작문 과제 수행 시 번역기 사용상태에 관한 응답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2단계인 파파고를 활용한 영작문 활동은 참여자 작문의 최초 영어 초본과 최종 완성본의 대표적인 예시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활동의 만족도와 학습 효과에 관한 2차 설문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1) 자동번역기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태

1차 설문에서는 141명의 참여자가 총 20개 문항에 답변하였으며, 그 중 1-10번인 번역기 사용에 대한 동기, 사용 목적, 만족도, 장점 및 단점, 평소 인식에 대한 답변을 [표 2]에 정리하였다. 대학 영작문 과제 시 번역기 사용 실태(11-20번)는 [표 3]에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표 2]를 요약하면, 참여자의 63%가 영작문 시 온라인 사전과 함께 자동번역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1번), 75%의 학생이 중고교 시절에 번역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초등학교부터 사용한 학생도 무려 22%에 달했고(4번),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이용했다는 의견이 66%로(3번) 상당수의 학생이 번역기 사용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번역기는 네이버 파파고로 84%이며(6번), 어휘와 표현(33%) 및 문장 구조(35%)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하며(7번), 그 사용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이 66%인데 반해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4%에 그쳤다(8번). 이들이 번역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이지만(9번, 109명) 번역 결과가 부정확하고 그 결과를 재검토해야하며(56명) 번역 결과가 맞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17명) 점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의존이 심해지며(32명)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0번).

[표 2] 번역기 사용 실태 (N=141)

번호	문항	답변	응답자 수 (%)
1	영작문 시 사용 도구	온라인 사전만 사용	25 (22%)
		자동번역기만 사용	22 (18%)
		사전과 번역기 동시 사용	89 (63%)
		그 외 도구를 사용	5 (4%)
2	그 외 도구 (주관식)	영작문 잘 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음	2명
		구글에서 예문을 검색	2명
		사용하지 않음	1명

3	초중고 자동번역기 사용 경험	매우 자주 사용	38 (27%)
		자주 사용	55 (39%)
		조금 자주 사용	36 (25%)
		거의 사용하지 않음	10 (7%)
4	자동번역기 처음 사용 시기	전혀 사용하지 않음	2 (1%)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6 (4%)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26 (18%)
		중등부터	56 (40%)
		고등부터	50 (35%)
5	자동번역기 사용 계기 (주관식)	대학부터	3 (2%)
		과제를 위해	43 (30%)
		해석과 번역을 위해	40 (28%)
		영작문을 위해	14 (10%)
6	주로 사용하는 자동번역기	그 외 (수업활동, 호기심, 해외여행)	45 (32%)
		네이버 파파고	119 (84%)
		구글 번역기	20 (14%)
7	자동번역기 사용 용도	그 외 (사용하지 않음)	2 (1%)
		어휘 및 표현	47 (33%)
		문장 구조	50 (35%)
		문법	11 (8%)
		영어로 번역	29 (21%)
8	자동번역기 만족도	내용 보충	2 (1%)
		매우 만족	16 (11%)
		대체로 만족	77 (55%)
		보통	42 (30%)
		대체로 불만족	6 (4%)
9	장점 (복수 답변)	매우 불만족	0 (0%)
		빠르고 편리	109 (77%)
		번역 품질 우수	8 (2%)
		자연스러운 표현	16 (11%)
		내 문장이 정확한지 확인	50 (35%)
10	단점 (복수 답변)	영어학습 도움	10 (7%)
		번역 결과 부정확	30 (21%)
		번역 결과를 재검토해야함	56 (40%)
		의존이 심해짐	32 (23%)
		번역 결과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음	17 (12%)
		영어 학습에 도움이 안 됨	6 (4%)

실험 참여자인 대학 신입생들이 중고등 학생 시기부터 파파고를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는 네이버가 파파고를 공개한 시기인 2016년에 이들이 대

부분 중학생으로서 본격적으로 영작문 과제를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초등부터 사용했다는 답변으로 볼 때 이전부터 구글 번역기에 익숙한 학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번역기로 도움을 받는 것이 문법보다 어휘와 문장 구조라고 답한 것은 임희주(2017)와 정미애(2020)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일치하여 적절한 어휘를 활용하여 완전한 영어 문장을 완성하는데 가장 많이 번역기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초급 수준의 학생들은 번역기를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 같이 학생들은 번역기의 도움을 받은 자신의 작문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의존적이고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번역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지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대학생으로서 현재 수강하는 영작문 수업의 과제를 할 때 번역기 사용실태와 인식에(1차 설문 11-20번) 대해 응답한 결과는 [표 3]에 요약하였다. 영작문 과제를 수행할 때 번역기를 사용한 학생은 80%에 달했으며(11번), 이들은 문장 단위로 가장 많이 번역하고(27%) 한 두 문장을 번역하거나(21%) 단어나 어휘를 번역할 때(13%) 번역기를 이용하였다(12번). 번역기를 사용하여 완성한 과제를 스스로 다시 점검했다는 답변이 과반수 이상(77%)이었으며(13번), 사용 후 매우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49%로 보통(27%)과 불만족 한다는 의견(6%)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14번). 과제의 대부분을 번역기를 사용해 완성하였다는 학생은 25%에 달했으며, 과제의 반은 번역기를 사용했다는 의견이 24%, 약간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50%로 참여자의 절반은 과제 수행 시 번역기에 상당 비중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번). 이들이 번역기를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때 기대한 것은 작문의 전반적인 완성도의 향상이 가장 컸으며(35%) 작문을 의도한대로 번역하는 것(21%), 어휘와 표현(18%), 문법

(16%), 오류 감소(11%) 순이었다. 번역기가 영작문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5%, 약간 도움이 된다가 40%, 도움이 안된다가 25%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다(17번). 특히 어휘와 표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41%) 전반적인 영작문에 도움을 받는다는 의견도 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18번). 번역기를 사용이 당연한지에 대한 물음에 당연하다는 의견이 67%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당연하지 않다는 의견이 34%였다(19번). 대학생으로서 영작문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으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95%로 단 7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요하다고 답해 주었다(20번).

[표 3] 대학 영작문 과제 시 번역기 사용실태 (N=141)

번호	문항	답변	응답자 수 (%)
1	영작문 과제에서 사용 여부	사용	113 (80%)
		미사용	28 (20%)
2	과제 시 사용 용도	전체 글을 영어로 번역	10 (7%)
		문장 단위로 번역	38 (27%)
		한 두 문장 번역	30 (21%)
		단어나 표현 검색	18 (13%)
		최종 점검	23 (16%)
		미사용	22 (16%)
3	번역기 사용 후 점검 여부	다시 점검	108 (77%)
		미점검 (그대로 제출)	9 (6%)
		미사용	24 (17%)
4	과제 시 사용 후 만족도	매우 만족	5 (4%)
		대체로 만족	64 (45%)
		보통	38 (27%)
		대체로 불만족	8 (6%)
		매우 불만족	1 (0%)
5	과제 시 사용 정도 (비율)	미사용	25 (18%)
		거의 대부분 사용	9 (6%)
		대부분 사용	27 (19%)
		절반 정도 사용	34 (24%)
		약간 사용	24 (17%)
	거의 사용하지 않음	47 (33%)	

6	사용 시 기대한 것	작문 완성도 향상	49 (35%)
		정확한 문법	22 (16%)
		다양한 어휘와 표현	25 (18%)
		오류 감소	16 (11%)
		의도한 대로 정확한 번역	29 (21%)
7	영작문 학습 도움 여부	매우 도움	10 (7%)
		대체로 도움	40 (28%)
		약간 도움	57 (40%)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29 (21%)
		전혀 도움이 안 됨	5 (4%)
8	영작문 학습에 도움을 받는 영역	어휘	35 (25%)
		세련한 표현	23 (16%)
		내용의 구성	17 (12%)
		문법	20 (14%)
		전반적 영작문	26 (33%)
9	자동번역기 사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매우 당연	13 (9%)
		대체로 당연	28 (20%)
		약간 당연	53 (28%)
		별로 당연하지 않음	42 (30%)
		전혀 당연하지 않음	5 (4%)
10	대학생으로서 영작문 능력은 필요한지?	매우 필요	46 (33%)
		대체로 필요	62 (44%)
		약간 필요	26 (18%)
		거의 필요하지 않음	7 (5%)
		전혀 필요 없음	0 (0%)

다시 말해, 설문에 참여한 대학 신입생들은 영작문 과제 시 거의 대부분 번역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문장 단위로 번역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어휘와 표현에 가장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번역기를 사용하여 완성한 과제를 대부분 다시 점검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번역기 사용 결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번역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그렇지 않다가 반반 정도로 교수자처럼 번역기 사용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는 대학생으로써 영작문 실력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번역기를 활용한 학습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1차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참여자 대부분은 번역기 사용이 일상화되었으며 실제 과제를 수행할 때도 대다수가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편리함에 있어 만족감을 느끼고 어휘 선택에 도움을 받았지만 번역기를 사용하여 작문한 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이를 검증할 능력이 없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번역기 사용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아 번역기 사용은 대학생들에게 일상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번역기 사용에 익숙한 참여자에게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 작문 활동에서 새로운 번역기 사용 방법을 제시하여 영어 단락을 작성해 보았다.

2) 번역기를 활용한 영작문 활동

1차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대학생 참여자들은 자동 번역기 사용에 매우 익숙하고 영작문 과제에도 자주 사용하므로 이들에게 좀 더 학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번역기 활용방법을 제시하였다. 1차 설문 답변자 141명중 121명이 작문 활동에 참여하였고 작문 시 학생 개개인이 마음대로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단락을 작성하였다. 먼저 학생 스스로 영어로 초본을 작성하고(1), 번역기를 통해 자신의 영어 작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자신이 의도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2), 다시 번역기를 통해 영어로 번역하고 수정하여(3), (1)과 (3)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 작문(4)을 완성하였다.

[표 4] 번역기를 활용한 작문 활동의 순서 (학생 예시)

활동 순서	활동 예시
1 Write an introduction in English.	What is a successful student? Successful student means someone who does well in school for many different reasons. And after graduating school, he or she could get a better job and dream a better future. For the better future, we should become a successful student. Then what does it take to become a successful student?
2 Translate your English introduction into Korean.	성공한 학생이란 무엇인가? 성공적인 학생은 많은 다른 이유로 학교에서 잘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 그 혹은 그녀는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성공적인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3 Translate the Korean version into English and compare it with the original version(1).	(1) What is a successful student? <u>Successful student</u> means someone who does well in school for many different reasons. And after <u>graduating school</u> , he or she could get a better job and <u>dream</u> a better future. <u>For the better future</u> , we should become a successful student. Then what does it take to become <u>a successful student</u> ? (3)What is a successful student? <u>A successful student</u> means someone who does well in school for many different reasons. And after <u>graduating from school</u> , he or she could get a better job and dream of a better future. <u>For a better future</u> , we should <u>be successful students</u> . <u>So</u> , what does it take to become a successful student?
4 Final version	What is a successful student? <u>A successful student</u> means someone who does well in school for many different reasons. <u>In addition</u> , after <u>graduating from school</u> , he or she could get a better job and <u>dream of</u> a better future. <u>For a better future</u> , we should become a successful student. Then what does it take to become a successful student?

한 학생의 대표적인 예시 [표 4]에서처럼 참여자들은 순차적으로 번역기를 활용하여 단락을 완성하였다. 위의 예시에서 이 학생은 우선 '성공한 학생의 특징'에 관한 서론 단락을 영어로 작성하고(1) 이를 파파고 번역기를 활용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여(2) 자신이 영작문이 의도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한 후 자신이 쓴 초본과 비교하여(3) 최종본을 완성하였는데(4), 자신의 영어 초본과 번역기를

통해 여러 과정을 거친 번역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관사와 전치사를 보강하고 (successful student → a successful student, graduating school → graduating from school), 적절한 어휘 표현으로 수정(and → In addition) 하여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이 예시처럼 다른 참여자들도 초본과 최종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번역기를 사용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며 고심하고 수정한 결과이다. 다른 참여자들의 영어 초본과 여러 과정을 거친 최종본을 검토하여 대표적으로 수정한 부분의 예시를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5] 영작 초본과 번역기를 통해 수정한 최종본의 예시 비교

분류	최초 영작문의 표현	번역기 활동을 통해 수정한 표현
단어 및 표현	A Like Ron Michaels' quote, "Sometimes"	As Ron Michaels said, "Sometimes"
	Making their own goals hears to easy.	Setting your own goals sounds easy.
	We commonly call a student who achieved him or her dreams a successful student	We often refer to students who achieved their dreams as successful students ...
	C The word successful is very relative so, we can't define it to everyone's satisfaction.	The word success is so relative that it cannot be defined to satisfy everyone.
D Successful students have something that normal students who don't have.	They have something that ordinary students don't have.	
관사	E For the better future , we should become a successful student.	For a better future , we should be successful students.
	F School is place that teach students social life and etiquettes.	School is a place where students are taught social life and manners.
	G Every students have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All students have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H Most of successful students achieve their desired goals after graduation.	Most successful students achieve their desired goals after graduation.

	I	But I think students who hasn't good grades also achieve their life successfully.	However, I think students with poor grades can't live their lives successfully.
연결어 접속사 관계 대명사	J	But I disagree with this thinking. I think that students that have grown up themselves with many experiences are sruly successful.	However, I disagree with this idea because students who have grown up on their own with many experiences are truly successful.
	K	There are successful students while not successful students .	Some students are successful, while others are not .
	L	There are successful students do well in school.	There are successful students who do well in school.
to 부정사	M	They say it is very important for students that they do their best in their studies.	They say that it is very important for students to do their best in their studies.
주어 동사 일치	N	Some people says that sutdents who have good grades are successful. many salary	Some people say that students with good grades are successful. huge salary
	O	Students study very hard to get a good grade because of going to higher university to succeed. So most people ... Success is not siple to define.	Students study hard to get good grades because they go to top universities to succeed. Therefore , most people Success cannot be defined simply by grade .
문장 구성	P	We call the person who gets good grade and actively participates in a number of activits in school successful student. Because successful students are likely to be successful in society....	A successful student is someone who gets good grades and is actively involved in a variety of activities at school . It is important to do well in school because successful students are more likely to succeed in society.
	Q	The grad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having a job .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getting a job is grades .

우선 1차 설문에서 참여자들이 답했던 것처럼 단어와 표현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시 A (Like Ron Michaels' quote, → As Ron Michaels said,)처럼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또는 예시 D (normal students → ordinary students)처럼 문맥에 맞는 적절한 단어로 교체하였다. 단어와 표현 외에 다양한 부분의 문법 수정도 있었는데, 오사용한 관

사를 바르게 수정하거나 (E: For the better future → For a better future) 적절한 관사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F: School is place → School is a place). 오사용한 연결어를 바르게 표현하거나 (I: But I think → However, I think) 삽표를 추가하여 문법적으로 접속사를 바르게 수정하고(K: while not successful students → ..., while other are not) 알맞은 관계 대명사를 추가 (L: students do well in school →.... students who do well)하기도 하였다. to 부정사를 바른 어법으로 사용(예시 M)하여 자신이 작성한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번역기의 도움으로 문법적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완성하였다. 지역적인 문법 외에 문장 전체의 구조를 수정한 경우도 있었는데, 문장의 원래 의미는 유지하면서 능동에서 수동으로(예시 P), 동명사 구조를 절로(예시 O), 주어와 목적어를 교체(예시 Q)하여 의미 전달이 좀 더 명확하고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재구성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렇듯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단어와 표현, 세부적인 문법, 전체 문장 구조를 수정하여 좀 더 자연스럽게 문맥에 맞는 영어다운 표현으로 최종본을 완성한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번역기 사용 방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문장과 글의 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한글 작문을 번역기로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어 원본과 번역기를 통한 수정본을 비교하여 완성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고심하여 단어, 문법, 문장을 보강하거나 수정하여 기억에 오래 남고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러한 과정이 학습에 연결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3) 자동 번역기 방법 제안 후 만족도 및 학습 효과

2차 설문은 작문 활동에 참여한 121명의 학습자가 새롭게 제시한 방법으로 번역기를 사용하여 작문을 했을 때 느낀 만족도와 학습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었다. 총 14문항에 대해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응답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요약하였다. 총 11개의 객관식 문항과 3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객관식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약간 그렇다(3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공하였다. 주관식 문항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번역기 작문 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 제안할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6] 새로운 번역기 활용법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 효과 설문

번호	문항	평균 (M)	표준 편차(SD)
1	내가 쓴 영작문을 번역기로 번역한 한글 작문을 보니 내가 의도한 대로 작문이 되었다.	3.87	0.77
2	번역기를 사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내 영작문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4.07	0.75
3	번역기를 사용하여 내용을 좀 더 보충할 수 있었다.	4.02	0.84
4	번역기를 사용하여 어휘나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15	0.80
5	번역기를 사용하여 어휘나 표현에 도움을 받으니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17	0.78
6	만약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작문을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학습한 어휘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3.91	0.89
7	번역기를 사용하여 내 영작문의 문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14	0.80
8	번역기를 사용하여 문법에 도움을 받으니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익히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08	0.73
9	만약 다음에 똑같은 문법이나 문장구조를 사용하여 작문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학습한 문법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3.95	0.86
10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번역기를 사용하면 영작문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37	0.70
11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번역기를 사용하면 나의 영어 학습과 실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4.07	0.77
		4.07	0.79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쓴 영어 작문을 번역기를 통해 한글로 바꾸어

본 결과 자신의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평균 3.87로 ‘대체로 자신의 의도가 반영되었다’에 약간 못 미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의도한 내용으로 영작문을 할 수 있는 실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영작문의 질과 내용 보충에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4.07과 4.02의 평균으로 ‘대체로 그렇다’ 보다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어 번역기를 통해 여러 단계로 수정한 방법을 통해 작문의 질과 내용 보충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휘와 표현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평균 4.15로 번역기를 통해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분야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4.17로 모든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어 본 실험을 통해 활용한 번역기 사용법이 학습과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 익힌 어휘를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물음에 평균 3.91을 보여주어 어느 정도는 학습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어휘를 기억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법과 문장 구조 개선 도움에는 4.14, 문법 학습에 도움은 4.08, 익힌 문법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는 3.95를 보여주어 문법 학습 역시 어휘 학습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나의 영작문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4.37, 영어 학습과 실력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4.07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주어 오늘 소개한 방법을 통해 어휘, 문법, 영작문 전체에 대한 학습과 실력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이 이번 작문에서 새로운 번역기 사용 방법에 대해 느낀 긍정적인 점을 자유롭게 서술해 준 답변을 보면 객관식 답변을 뒷받침해 준다. 그 중에서도 38명의 학생은 자신이 생각한 단어, 어휘, 표현과 번역기가 제안해 준 것을 비교하여 다양한 표현을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15명의 학생이 문법과 문장 구조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22명의 학

생은 여러 단계를 거쳐 번역기를 사용하여 작문하는 실험 방법이 작문을 하는 동안 자신의 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주었고 검토하는 단계를 갖게 되어 영어 작문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내가 쓴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한글 번역본의 어색한 부분을 살펴보고 나의 최초 영어 표현이 어떻게 어색한지 생각할 수 있어 영작문 실력에 도움이 된다.” “처음부터 한글로 작성하여 번역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서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내 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평소와 다르게 이런 방법으로 하니 문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어 신중하게 작성할 수 있었다” 라는 의견이 있어 평소 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작문을 할 때와는 다르게 학습 보조 도구로 자신의 주도하에 영작문을 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이번 작문에서 번역기 사용 방법에 대해 느낀 부정적인 점으로는 의도한 바와 다르게 번역될 때도 있다고 답변한 학생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이 10명, 번역기에 의존하게 될 것 같다는 의견이 6명과 번역기를 통해 수정한 것과 자신의 표현이나 문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 4명이었다. 예를 들어, “번역기는 편리하게 작문하려고 쓰는 건데 번거롭다”라는 의견과 “나의 영어 원본과 번역기의 수정본을 비교하여도 뭐가 더 좋은지 알 수 없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있어 아직 영어 실력이 부족한 초급 학습자보다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번역기를 학습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방법 외에 번역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작문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안을 하지 않아 학습 도구로서 번역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교수자의 역할로 좀 더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 학습자의 자동번역기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번역기를 활용하여 영작문을 한 후 번역기의 학습 만족도와 학습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1차 설문을 통해 대학생 참여자의 번역기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중교교 시절부터 번역기 사용에 익숙한 이들은 현재 대학의 과제에도 대부분 번역기를 사용하였으며 과제 수행 시 빠르고 편리함에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어휘 사용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았지만, 의존이 심해지고 번역 결과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번역기 사용 당위성에 스스로 의문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번역기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자의 영작문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학습 도구로서 가치가 있는 활용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학습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차 설문의 내용은 기존의 연구들(임희주, 2017; 정미애, 2020)과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전 연구들에서 번역기를 왕성하게 활용한 시점이 고교시절이 가장 많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중등 시절부터 활발한 사용을 보여주었으며 이미 초등 시절부터 번역기에 노출되어 있어 번역기 사용이 학생들에게 더욱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 도구로써 유용하게 번역기를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에서, 학생들은 먼저 영어로 작문을 한 후 이를 번역기로 한글로 번역하여 자신의 영작문 내용이 의도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후 다시 번역기를 통해 영어로 번역하였다. 자신의 영어 초본과 번역기의 도움을 받은 최종본을 비교하여 자신이 생각한 최초 표현과 문장 구조를 비교 분석하며 어휘나 문법을 학습할 시간을 갖고, 이를 정리하여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번역기를 사용하여 작문을 하는 것이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

는지를 2차 설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참여자는 전체적으로 영작문의 질과 내용 보충에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어휘와 표현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아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 외에도 문법과 문장 구조 역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영작문의 질에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어휘, 문법, 영작문 전반으로 학습과 실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이러한 방식으로 번역기를 활용하여 작문을 하니 자신의 문장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 번역기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이 힘으로 글을 쓰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속하고 편리한 번역기의 장점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과 자신의 최초 영작문과 번역기를 통한 최종본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어 초급자가 번역기를 사용할 때는 좀 더 세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의 지도가 병행되어야만 하겠다.

본 연구는 온라인 자동번역기가 일상화된 학습자에게 번역기를 학습 도구로서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학습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여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연구들은 번역기 사용법을 온전히 학습자에게 맡기고 그 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번역기 사용 전후의 작문의 질을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그 활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부족했는데, 본 연구를 시작으로 좀 더 다양한 번역기의 학습 도구로서의 활용법이 제안되기를 바란다. 비록 학습 현장에서 번역기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만 학습자에게 이미 번역기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를 학습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임희주, 2017)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번역기 활용법 외에도 구체적인 방법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야 번역기를 교육적 도구로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초급 대학생 학습자

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대상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번역기 활용 전과 후의 단어 및 문법 평가를 추가하여 학습 효과를 진단한다면 좀 더 정확한 학습 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문에 익숙한 고급 수준의 대상자에 대한 번역기 활용법을 제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혜경·한수미, 「AI 기반 영작문 학습도구에 대한 대학생 학습자 인식: Google Translate, Naver papago, 그리고 Grammarly를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22권 4호, 현대영어교육학회, 2021, 90-100쪽.
- 이운재·이동주, 「영어자동번역기 활용이 고등학생 영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과교육』 19권 2호,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2020, 159-180쪽.
- 임완철, 「교육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글로벌 서비스 운영 사례」,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2017』 1집, 한국교육공학회, 2017, 27쪽.
- 임희주, 「교양영어 수업에서 영어자동번역기 사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연구」, 『교양교육연구』 11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727-751쪽.
- 윤여범, 「알파고와 파파고: 인공지능과 영어교육의 관계」, 『한국초등교육』 13권4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0, 213-224쪽.
- 정미애, 「한국 대학생 EFL 학습자의 영어 자동번역기 사용에 대한 인식」,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5권 3호, 글로벌영어교육학회, 2020, 411-438쪽.
- 주영재, “네이버 파파고, 구글 번역기와 맞짱”, <경향신문>, 2017.07.18.
- 진용주·서보현·김순영, 「프리에디팅(pre-editing)이 기계번역 품질에 미치는 영향 고찰: 유창성, 충실성, 가독성 비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8, 27-64쪽.
- Azer, H. S.·Aghayi, M. B., “An evaluation of output quality of machine translation (Padideh Software vs. Google Translate)”, *Advances in Language and Literary Studies*, vol. 6, no. 4, AIAC Journals, 2015, pp.226-237.

- Chandra, S. O.·Yuyun, I., “The use of Google Translate in EFL essay writing”, *LLT Journal*, vol. 21, no. 2, E-Journal USD, 2018, pp.228-238.
- Dhakar, B.·Sinha, S.·Pandey, K., “A survey of translation quality of English to Hindi online translation systems (Google and B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Publication*, vol. 3, no. 1, Semantic Scholar, 2013, pp.1-4.
- Ghasemi, H.·Hashemian, M., “A comparative study of Google Translate translations: An error analysis of English-to-Persian and Persian-to-English translations”,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 9, no. 3, Research Gate, 2016, pp.13-17.
- Groves, M.·Mundt, K., “Friend or foe? Google Translate in language for academic purpos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vol. 37, Science Direct, 2015, pp.112-121.
- Jin, L.·Deifell, E., “Foreign language learners’ use and perception of online dictionaries: A survey study”, *Journal of Online Learning & Teaching*, vol. 9, MERLOT, 2013, pp.515-532.
- Koponen, M.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and effort: Empirical studies on the post-editing proc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elsinki, 2016.
- Lee, J.·Cha, K., “An Analysis of Korean-English Translation Errors in Google Translate”,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vol. 89, The Linguistic Science Society, 2019, pp.221-257.
- Lee, S. M., “The impact of using machine translation on EFL students’ writing”,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 33, no. 3, Taylor & Francis Online, 2020, pp.157-175.
- Murtisari, E.·Widiningrum, R.·Branata, J.·Susanto, R., “Google Translate in language learning: Indonesian EFL students’ attitudes”, *The Journal of Asia TEFL*, vol. 16, no. 3, Asia

TEFL, 2019, pp.978-986.

Prichard, C., "Evaluating L2 readers' vocabulary strategies and dictionary use",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vol. 20, Ferris Women's University, 2008, pp.216-231.

Stapleton, P., "Using the web as a research source: Implications for L2 academic writ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vol. 89, JSTOR, 2005, pp.177-189.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 학습자의 온라인 자동번역기 사용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영어 작문 시 효과적인 번역기 사용법을 제시하여 그 학습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의 한 대학 신입생 141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자동번역기 사용실태에 대한 설문에 답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어 글을 쓴 후 그 학습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었다. 그 결과, 대학생 학습자는 이전부터 번역기 사용에 매우 익숙하며 현재 수강하는 영작문 수업에서 대다수가 번역기를 빈번히 사용하여 과제를 완성하였다. 이들은 어휘 사용에 도움을 받고 신속함과 편리함에 만족하였으나 번역 결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실력이 없고 사용 당위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방법으로 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작문을 실시한 후 참여자는 영작문의 질과 내용 보충에 도움을 받았고 어휘와 표현 및 문법과 문장 구조 학습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자신이 직접 영어로 작문한 후 번역기를 활용하며 수정 과정을 거치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문장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어 자신의 주도하에 번역기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영작문을 완성한 것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자동번역기가 일상화된 학습자에게 번역기를 학습 도구로서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학습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영작문 학습 뿐 아니라 다른 언어 학습 영역에도 적절하고 다양한 번역기의 활용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며 초급 학습자 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대상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고안하여 학습 현장에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온라인 자동번역기, 파파고, 영어 글쓰기, 교양 영어, 대학생 학습자

■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Automatic Translators in English Writing Class for Korean College Students

Kim, Ji Eun

/ 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online automatic translators (ATs) and the effect of ATs on their learning of English writing. A total of 141 university freshmen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by answering two sets of survey questionnaires and writing an English essay with the help of an AT. A method of using an AT during writing an essay was also develop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have been accustomed to using ATs, and most of them even frequently use ATs while doing writing assignments for their English classes at university. Students use ATs because they are satisfied with the speed and convenience of ATs, as well as their helpfulness in the use of vocabulary. Despite their frequent use of ATs, students commented that they are not able to judge the correctness of the translation results and had questions about the justification of its use. After conducting English composition using an AT while following the newly proposed method in this study,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were helped to supplement the quality and content of the essay and also to learn vocabulary, grammar, and sentence structure. With the newly proposed method, they could write the first draft in English on their own, and then they took enough time to think deeply about their essay through the revision process using an A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Ts were confirmed to be effective as an educational tool rather than as a translator itself for students to learn English writing.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various educational methods of using ATs should be devised for other fields of language learning and for other levels of students.

Keyword • online automatic translator, Papago, English writing, Korean EFL learners, university students

■ 논문투고일:2024.02.14. ■ 심사완료일:2024.03.11. ■ 게재확정일:2024.03.20. ■

대학 토론대회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박고운·고혜림*

목 차

1. 서론
2. 대학 교내 토론대회 운영 현황 및 분석
3. 대학 교내 토론대회의 시사점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위한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여겨져 왔던 토론은 현대의 시민사회, 민주사회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다. 대학의 설립 이후, 대학에서의 토론의 중요성 역시 확대되었으며,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대학 내 토론 문화가 자리매김하였다. 대학에서 토론은 주로 교양 혹은 전공 수업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지만, 대회로 개최되기도 한다. 국외 유수의 대학들은 대학생들의 토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 토론대회

* 박고운 (제1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고혜림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주최 및 토론 팀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 토론대회는 1970년대 후반, 대학 연합 토론대회를 시작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초기에는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강화보다 토론의 문법적 형태를 강조하였다. 1990년대 중반 각 대학마다 토론 동아리 혹은 토론대회 등이 조직되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토론대회의 질적 수준도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토론대회 역시 더욱 다양화되었다. 특히 대학 토론대회는 TV방송¹⁾을 통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 토론대회의 대중화는 다시금 돌아와 대학 내 토론대회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졌다.

토론이란 “학생들의 읽고, 쓰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을 활성화하여 핵심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교육”이다(김지윤 외, 2021: 26). 이러한 토론은 대학에서 대회로 개최되었을 때, 토론 수업과 다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 스킬(soft skill)의 함양을 돕는다. 사고를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소프트스킬은 전공 지식 이해의 기반이 된다(김지윤 외, 2021). 둘째, 토론대회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업 내에서의 토론은 일회성 토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토론대회의 경우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생들의 경쟁을 자극하고, 논리적 전략과 역할 분배를 통한 협업의 경험 및 경쟁을 통한 목표 의식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토론대회의 참여는 수업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토론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의사소통 기술을 함양하게

1) tvN방송국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방영한 「대학토론배틀」은 2010년에 첫 시연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토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치열한 토론은 많은 화제가 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방영하였다.

만든다. 셋째, 시의성을 지닌 주제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성을 지닌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수업의 지도 교수가 아닌 전문가에게 독립적인 심사 및 평가를 받음으로써 실제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토론에 함께 참여한 경쟁자의 동료 평가는 자기 평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토론은 소프트 스킬, 경쟁을 통한 실천 경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자기 평가 및 동기 부여를 통한 역량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에서 요구되는 논리적·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역량, 협력, 긍정적 인식과 평가를 통한 자기실현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토론 수업뿐만 아니라, 교내 토론대회의 운영을 통한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토론대회가 수행되고 있는 곳은 한국 내에서도 일부 대학으로, 이에 따라 대학 교내 토론대회에 관한 연구 또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왔다. 관련 선행연구는 대학 토론대회의 연구의 경우 토론대회 운영 사례 연구(신희선, 2012, 2015), 코로나 시기 비대면 토론대회 운영 사례 연구(조용림, 2022; 신희선, 2022), 토론대회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권성욱, 2011, 이선영, 2011), 토론대회 경험 및 효능감 연구(이선영, 2010) 등이 수행되었다. 대학 토론대회 연구의 경우 주로 각 대학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토론대회의 방식, 주제 등에 대한 분석 비교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토론대회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는 과거 10년 전 수행되었으며 최근의 토론대회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교내 토론대회를 진행하는 대학은 대표적으로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단국대학교, 부경대학교, 한밭대학교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교내 토론대회를 10년 이상 진행한 대학으로 교내 토론

대회의 발전된 모델을 제시하면서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대표성을 띠고 볼 수 있는 세 곳 대학을 선정²⁾해서 비교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고에서는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의 교내 토론대회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대학 교육에의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대학의 교내 토론대회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토론대회 운영 실무자와의 인터뷰 및 웹사이트에 게시된 토론대회 자료에 관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현황 조사는 대학 교내 토론대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토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교육적 함의를 재확인하는 등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 교내 토론대회 운영 현황 및 분석

1) 대학 토론대회 운영 현황

대학 교내 토론대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내 토론대회의 운영 목적과 필요성, 운영 배경, 그리고 각 대학별 토론 모형 및 토론대회 진행과 평가 방식, 토론대회의 주제(논제)등을 살펴볼 것이다. 차례대로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의 순으로 보다 면밀히 토론대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기본적으로 세 곳 대학은 자료의 접근성과 투명성과 명확성 및 정확성을 근거로 본고에서 비교연구하고자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산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는 교양과목에서의 교육이 토론대회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어, 정규교과과목과의 연계라는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이에 충남대학교의 경우는 교양과목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으나 역사성을 띠고 기타 두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의 투명성과 접근성 및 담당자와의 즉각적인 연구협력의 부분에서 여타 대학과 비교대상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혀둔다.

(1) 부산대학교 ‘독서토론대회’

부산대학교는 <고전읽기와 토론> 강좌에서 고전 및 명저³⁾ 읽기를 통해 독서 교육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규 학기의 교과와 연관하여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독서 교육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독서토론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독서토론대회는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2014년, 제1회 독서토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교양필수 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매 학기(연 2회) 개최하고 있다.

[표 1] 부산대학교 토론 모형

찬성		반대		비고		
①	갑 입론	5분	②	을 확인질문	4분	4인 1팀으로 구성될 경우 참가자 ‘정’은 자료 조사 및 역할 지원 담당
④	을 확인질문	4분	③	갑 입론	5분	
				숙의 시간 (4분)		
⑤	병 반론		⑥	갑 심문	4분	
⑧	갑 심문		⑦	병 반론	5분	
				숙의 시간 (4분)		
⑩	을 최종발언		⑨	을 최종발언	5분	

부산대학교는 칼 포퍼 토론 형식의 모형⁴⁾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 3) 『고전읽기와 토론』은 부산대학교 대표 교양필수 교과목이다. 부산대학교는 고전 99선을 엄선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전읽기와 토론> 교과에서 강의담당교수의 전공 영역과 관련지어 한 학기 2~3권의 고전 도서를 선정하여 강의에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때 고전 99선은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도서를 고르도록 하여 대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영역의 고전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해당 교과목은 고전 독서를 통해 다양한 사유의 방법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리적 사고에 기초한 고급 독해력을 배양하며, 학문간 융합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신장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에서는 분반(전공)의 특성에 따라 고전 2~3권을 선정하여, 고전 강독, 발표 및 토론, 서평 쓰기로 이어지는 통합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과 연계하여 독서토론대회 출전팀을 선정하여 토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4) 칼 포퍼 토론은 비판적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철학자 ‘칼 포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안된 토론 형식으로 인간의 사고는 정반합의 방식과 유사하게 자신의

일부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 토론 모형은 다음과 같다. 토론의 총 소요시간은 55분이며, 사회자 2명이 토론대회를 진행한다. 2회의 숙의시간을 가지지만 별도의 자유토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부산대학교 독서토론대회는 3~4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4명으로 구성된 팀의 경우 토론에서 발언을 하는 갑, 을, 병과 달리 나머지 인원인 정은 팀을 지원하는 역할로, 숙의시간에 토론에 필요한 자료 전달 등을 담당한다. 긴급한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토론 도중 멤버 교체(대체)는 허용하지 않는다.

부산대학교는 독서토론대회 운영을 위해 매 학기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주제 도서 및 논제 선정, 토론대회 시기와 일정, 장소 등을 결정한다. 2021년부터는 교양필수 교과목과 연계하여 수업 내 토론을 통해 독서토론대회 예선 1차 진출팀을 선발한다. 선정된 예선 1차 진출팀은 칼 포퍼 토론에 대한 특강을 수강하고 주제 도서와 논제를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추천을 통해 대진표가 결정되며 참여 학생들은 예선 1차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예선 1차는 토론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게 된다. 토론 영상 심사를 통해 예선 2차인 16강 진출팀을 선발한다. 이는 참여 인원예 따라 변동이 있지만 부산대학교 독서토론대회는 64강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부산대학교 토론대회 준비 및 진행과정

사고가 깨어지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진실 혹은 진리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후 16강, 8강, 4강, 결승 대회를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논제가 부여된다.⁵⁾ 16강 이후부터는 영상 심사가 아닌, 토론 대회 현장에서 심사가 진행되며 우승팀을 발표한다. 대회가 끝나면, 참가 학생에게는 총장상 및 상금, 그리고 비교과 마일리지⁶⁾가 부여된다.

부산대학교 독서토론대회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론에서 타당한 문제 제기 여부, 개념과 용어 사용의 명확성, 논거의 타당성 및 충분성, 정보와 자료의 적절성, 주제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진행 여부 등으로 평가된다. 반론과 변론에서는 교차질문의 명확성과 구체성, 핵심 쟁점 제기의 정확성, 반론의 타당성과 논거의 충분성, 반론에서 입론의 전제와 함축 지적 여부, 주장의 일관성과 대응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다. 태도와 표현 방식의 영역에 있어 말소리의 크기와 속도, 시선, 자세, 동작의 자연스러움과 시간 활용의 적절성, 토론규칙을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했는지 여부 등이 평가된다. 팀워크 영역에서는 팀별 협의의 충실한 수행 여부, 구성원의 토론 참여 충분성, 시간의 효과적 활용 여부 등이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와 주제와의 연결성, 논거와 사례로서 대상 도서의 활용 여부, 대상 도서를 활용하는 논거와 사례의 타당성과 적절성이 평가 항목이 된다.

5) [표 2] 부산대학교 12회 독서토론대회 논제

구분	논제(주제)
예선 1차	챗 GPT로 작성한 대학 과제물은 표절이다
16강	거대 인공지능의 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8강	챗 GPT는 저자가 될 수 있다.
4강	챗 GPT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결승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것이다.

[표 3] 부산대학교 토론 주제 도서 및 논제

구분	주제도서	논제(주제)
2023년 1학기 12회	· 이시한, 『GPT 제너레이션』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것이다
2022년 2학기 11회	· 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인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022년 1학기 10회	· 신진옥, 『그런 세대는 없다 -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	세대 담론은 개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유용하다
2021년 2학기 9회	· 구본권,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2021년 1학기 8회	· 홍세화, 『능력주의와 불평등』	개인적인 노력의 산물인 능력은 사회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표 3]에서는 부산대학교 본선 논제를 제시하였다. 부산대학교는 매 학기 주제 도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예선-16강-8강-4강-결승까지 하나의 주제 도서에 대해 다른 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폭넓게 탐구하고, 깊게 사고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부산대학교 토론대회의 특징은 화제가 되거나 시의성이 적절한 책을 선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던 2022년에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주제 도서를 선정하였다. 2023년에는 화제를 불러일으킨 챗 GPT에 대한 도서가 2023학년도 1학기 독서토론대회 주제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의성 있는 논제를 제시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토론과 달리, 독서토론은 주제 도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토론 참여자는 주제 도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쟁을 하게 된다.

(2) 숙명여자대학교 ‘숙명토론대회’

숙명여자대학교는 2002년 교양필수 교과목 <비판적 사고와 토론>⁶⁾ 수업의 연장선에서 <숙명토론대회> 비교과 활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토론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의 논리적 분석력과 비판적 합리성 함양을 위한 것으로, 숙명여대를 대표하는 비교과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2019년까지 매년 개최되며, 18회의 긴 역사를 지닌 숙명토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일시 중지되었다가 2022년에 다시 제1회 독서토론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론대회를 재개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는 토론모형과 독서토론의 모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토론모형은 3인 1조, 칼 포퍼 방식을 일부 변형한 아카데미 토론 방식으로 그 모형은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발전해왔다. 1~3회까지는 사회자가 있는 토론 형태로 진행되며, 4~9회까지는 사회자가 없는 아카데미 토론 찬반 대립 방식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10회부터는 자유토론을 포함하는 아카데미 토론 모형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였다(김지윤 외, 2021).⁷⁾ 독서토론대회로 변경된 2021학년도부터는 3인 1팀 구성에서 2인

6) 숙명여자대학교의 <비판적 사고와 토론> 수업은 교양필수 교과목으로서 교내 토론대회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이는 공적 말학기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의사소통의 활동 과정을 이론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직접 훈련하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 발표와 토론의 원리와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숙명여자대학교 기본 토론대회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4]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모형 (2020학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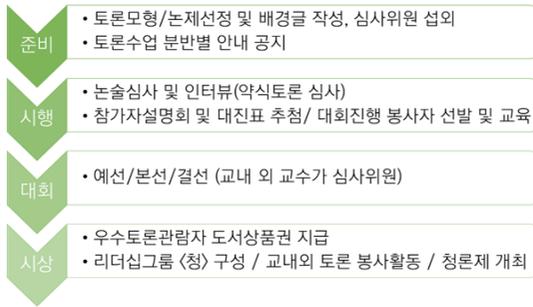
찬성		반대		비고
①	갑 입론 4분	②	을 확인질문 3분	숙의시간 팀별 1회, 1분씩 사용 가능(선택)
④	을 확인질문 3분	③	갑 입론 4분	
⑤	병 제1반론 3분	⑥	갑 확인질문 3분	
⑧	갑 확인질문 3분	⑦	병 제1반론 3분	
고정 숙의시간 (2분)				추가 숙의시간 없음
자유토론 (12-20분)				
고정 숙의시간 (2분)				
⑨	을 제2반론 3분	⑩	을 제2반론 3분	
⑪	병 최종발언 3분	⑫	병 최종발언 3분	

1팀의 구성으로 기존의 토론 모형에서 일부 변경되었다. 하지만 토론에 있어 반론과 심문 시간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한 점, 그리고 상대 팀 주장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칼 포퍼식 토론에 근거하여, 기존의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모형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학년부터는 전체 토론 시간은 총 45분 내외로 시행되며, 특이사항은 자유토론을 병행하면서 사회자가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세부 토론 모형은 다음과 같다(김지윤 외, 2021: 54).

[표 5]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모형 (2023학년도 기준)

찬성		반대		비고	
		① 갑	입론	4분	제1논제 토론
		숙의시간(2분)			
② 을	확인질문	3분	③ 갑	제1반론	
		자유토론(12분)			
④ 갑	입론	4분			제2논제 토론
		숙의시간(2분)			
⑥ 갑	제1반론	3분	⑤ 을	확인질문	
		자유토론(12분)			
		숙의시간(1분)			
⑦ 을	최종발언	3분	⑧ 을	최종발언	3분

숙명토론대회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대회 참가팀은 논술 심사 및 인터뷰를 통해 선발한다. 그리고 예선과 본선, 결선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예선은 논술문 심사 및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 16개팀을 선정한다. 16강에서 결승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찬성과 반대의 경우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즉, 실제 토론은 16강 본선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부산대학교 토론대회 준비 및 진행과정

숙명토론대회의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다. 심사는 복수의 심사위원이 텍스트 이해 및 응용력, 토론 실행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데, 구체적으로 읽기와 분석력(텍스트 이해, 논제 제시 능력), 논증 능력(논거 제시 능력, 논증의 타당성). 비판 능력(반론의 타당성), 문제해결 능력(타인의 논거에 대한 경청,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 의사소통 능력(스피치 능력, 수사학적 표현 능력, 설득 능력), 토론 윤리(상대 존중, 규칙 준수, 토론 예절) 등을 심사한다. 위의 평가를 거쳐 토론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은 해외 탐방 및 교내 리더십 그룹 ‘청(聽)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가진다(김지윤 외, 2021).

[표 6]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주제도서 및 논제

구분	주제도서	논제(주제)
2023년 2회	· 조지 오웰, 『1984』	디지털 사회의 향방을 묻다 - 빅데이터와 빅브라더의 경계에서
2022년 1회 ⁸⁾	·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과학 기술의 진보,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2019년 18회	-	코딩교육, 대학 교양필수 교과에 포함시켜야 한다.
2018년 17회	-	가상화폐, 투기의 대상이다
2017년 16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Gig 경제(Gig Economy), 적극 수용해야 한다

8) 기존의 토론대회를 ‘독서토론대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1회로 시작하였다.

토론대회는 시의성 있는 논제로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4차 산업혁명과 각 경제⁹⁾에 대해 논제를 선정하였다. 2018년 토론대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논제를 다루었으며, 그 외에도 대학 교육에서 요청되는 코딩 교육의 필요성을 논제로 선정하였다. 2022년부터 토론대회는 주제도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눈여겨볼 점은 고전에 해당하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조지 오웰의 《1984》를 선정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디지털 사회에서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토론하였다는 점이다.

(3) 충남대학교 ‘CNU 토론대회’

충남대학교는 2009년, 1회 토론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까지 매년 개최해 왔다. 대학 내 책 읽는 학풍을 조성하고, 독서와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림 3] 충남대학교 토론대회 준비 및 진행 과정

9) 각 경제(Gig Economy)란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전통적 일자리 및 고용 형태가 사라지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임시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경제가 부상하며 개인은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은 거대 조직에서 핵심 역량만 남긴 소규모 조직으로 변모할 것이라 예측된다.

충남대학교 토론대회는 3인으로 구성된 팀이 주어진 논제에 대한 의견 논술문을 제출하고, 논술문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팀의 토너먼트 형태로 대회가 진행된다. 대회 종료 후, 토론대회 우승팀은 충남 권역 대학 연합 토론대회에 충남대 대표로 출전하기도 한다.¹⁰⁾

충남대학교 역시 3대3 토론으로 칼 포퍼 토론의 아카데미 토론 변형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충남대학교의 토론 모형은 43분으로 비교적 짧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충남대학교 토론 모형은 자유토론을 제외하면, 갑, 을, 병이 각 1회의 발언 기회를 가지며 팀 당 1회의 교차 조사를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표 7] 충남대학교 토론 모형

찬성		반대		비고	
① 갑	기조발언	3분	② 갑	기조발언	3분
④ 을	교차조사	3분	③ 을	교차조사	3분
숙의시간 (3분) 자유토론 (20분)				팀 별 논의 가능	
⑤ 병	마무리 발언	2분	④ 병	마무리 발언	2분

충남대학교 토론대회의 평가는 논술문 심사로 시작된다. 논술문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작성하여 표현(분량의 적합성, 어문 규범과 문장의 정확성), 형식(구성의 체계성, 단락의 적절성), 내용(논점의 명료성, 논거의 타당성, 논지 전개와 논리성)의 세 가지 항목에서 평가된다. 토론대회에서는 기조발언, 교차질문,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등의 항목에서 평가된다. 토론대회의 심사에 있어, 언어적 표현의 명료성과 적절성, 토론 규칙 및 토론 예절의 준수, 용어와 논거의 정확성 등이 가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발언 기

10) https://plus.cnu.ac.kr/_prog/_board/?mode=V&no=2330419&code=sub07_0703&sitedvs_cd=kr&menu_dvs_cd=0703&skey=&sval=&site_dvs=&ntt_tag=&GotoPage=2, 2023.12.24.

회의 편중이나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경우, 토론 규칙과 토론 예절, 토론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8] 충남대학교 토론 주제 도서 및 논제

구분	주제도서	논제(주제)
2023년 12회	-	대학 통합은 필요하다
2022년 11회	조세희,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은 시행되어야 한다
2019년 10회	-	1주제 :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2주제: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
2018년 9회	-	1주제 : 낙태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주제 : 현행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7년 8회	-	1주제 : 탈원전 정책, 폐기하여야 한다. 2주제 : 대학성적 상대평가제, 유지되어야 한다.

* 두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주장 중 한쪽 입장을 택하여 작성

연 1회 개최되는 충남대학교 토론대회의 주제는 그 해, 시의성 지닌 주제로 결정된다. 2017년 추진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을 때, 탈원전 정책의 폐기에 대한 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2019년에 노재팬 불매운동이 열풍을 불었을 당시, 불매 운동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제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충남대와 한밭대의 대학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올해, ‘대학 통합은 필요하다’는 논제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대학생으로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논제들이 토론대회의 논제로 선정되었다.

2) 대학 토론대회 운영의 특징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국내의 교내 토론대회는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세 개의 대학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각 대학별로 매년 약 150명 이상의 재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토론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토론대회는 명실공히 대학의 대표적인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 개 대학의 교내 토론대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자면 [표 9]¹¹⁾과 같다.

[표 9] 교내토론대회 운영 현황

구분	부산대	숙명여대	충남대
운영기관	교양교육원	기초교양대학	교양교육센터
토론모형	칼 포퍼식 토론 모형을 변형한 아카데미식 토론		
교과연계	교양필수 연계	교양필수 연계	-
주제도서	선정	선정	선정
토론논제	5개	1개	1개
참가팀 선발	대면 토론 진행	논술문 심사	논술문 심사
참여팀	3~5인, 1팀	2인, 1팀	3인, 1팀
후속 프로그램	-	리더십 그룹 활동 연계	대학 연합 토론 대회 출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토론대회는 운영기관과 토론 모형, 교과 연계, 참가팀 선발 방법, 후속 프로그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부산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그리고 충남대학교 모두 토론대회를 교양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양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고, 명시적 지식이 아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인문학적 상상력' 등을 함양함으로써 지성과 감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론은 가장 오래된 교육의 방법이자 학문 탐구의 방법으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교양교육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신득렬, 2016). 특히 토론대회 과정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수행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함양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내 토론대회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실천적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11)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교내 토론대회 운영 현황을 비교한 것임을 참고.

교내 토론대회는 교양교육의 실천 방법으로서 대학의 토론대회 운영은 각 대학이 지닌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토론 모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세 대학 모두 비판적 논의에 초점을 둔 칼 포퍼식 토론 모형을 변형한 아카데미식 토론에 바탕을 둔다. 칼 포퍼식 토론의 특징은 “비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오류를 계속 교정해 나가면서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강조”한다(김영주 외, 2021: 91). 구체적으로 입론에 비해 반론과 심문 시간에 많은 시간이 할당되어 있으며, 첫 번째 반론을 담당하는 토론자는 상대측 주장에 대해 검증 및 반박할 수 있도록 다른 팀원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므로, 여타의 토론 모형에 비해 무엇보다 상대팀의 주장을 경청하고 검증하도록 한다. 세 개 대학은 모두 토론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전문적 토론 역량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대회의 운영에 있어 부산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는 글쓰기와 토론, 즉 의사소통 영역에 해당하는 교양 필수 교과목과 연계하여 토론대회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반면 충남대학교는 교과목 연계 없이 대학 전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양 필수 교과목과 토론대회를 연계했을 때, 학생들은 수업 내 토론의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교과목 교수자는 학생들의 토론대회 준비를 지원하고 자문할 수 있다. 교과목과 토론대회의 연계는 수업 내 토론이 토론대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일회적 토론이 아닌, 수업 내 토론이 토론대회의 예선과 본선 참가로 이어짐으로써 학생들의 토론 역량의 점진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토론대회의 주제 도서 및 논제는 대학 토론에 적합성을 지니고, 보편성과 시의성을 지닌 논제가 선정되었으며, 공통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직면한 오늘날 인공지능의 위험성, 가상화폐 등의 논제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논제가 선정되어 왔다. 하지만 사

회의 보편적 토론 주제 외에도,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논제를 선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기도 했다. 특히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대학 필수 교과로 코딩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제를 선정하였으며, 충남대학교의 경우 ‘대학 성적’, ‘병역 특례’, ‘대학 통합’ 등의 논제 선정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논제를 선정하였다. 이선영(2010)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본인이 속한 대학 생활과 관련된 현실적 논제 선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학 관련 논제의 선정을 통해 대학은 교육에 대해 직접적 공론의 장을 열 수 있으며, 교내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지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관점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 대학의 토론대회에서 모두 시의성과 공론 가능성을 지닌 논제들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세 개 대학 모두 토론 논제 영역에 있어 문화, 환경, 국제, 건강 등은 매우 비중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논제 선정의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논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토론대회 종료 후,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숙명여자대학교는 수상팀이 대학 내 리더십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남대학교는 수상팀이 교외의 각종 토론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면 부산대학교는 토론대회 수상팀의 후속 프로그램을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후속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생들에게 토론대회에서 겪은 경험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토론대회 참여 학생들은, 동료 학생들에게 토론대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토론대회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토론 리더십 그룹 ‘청’을 구성하여 모의토론, 토론 시연회 등을 개최하여 다음 토론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토론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동료학생들과 공유한다. 또한 충남대학교의 수상 학생들은 교내 토론대회 보다 큰 규모의 토론대회에 도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내 토론대회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리더십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교내 토론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는 부분이다.

3. 대학 교내 토론대회의 시사점

1) 대학 내 토론 문화 활성화

교내 토론대회는 참가 학생에게 토론 방법 및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대학교는 토론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주제 도서 및 칼 포퍼식 토론의 이해를 위한 특강을 제공하며, 충남대학교의 경우 참가 학생들에게 스피치 교육 특강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특강은 교내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본선 대회의 경우, 공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대회 참가자 외 학생들의 참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토론대회 참관은 참관 학생들에게 교양 또는 토론이 요구되는 전공 수업과 연계된 현장 실습으로 활용될 수 있다(김지윤 외, 2021). 토론대회 참관을 통해 학생들은 전체 토론의 진행 과정과 토론에서의 태도, 말하기, 입론의 구축, 확인 질문과 반론의 효과적 방안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김지윤 외, 2021). 또한 해당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토론 동아리, 토론에 관심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에게도 참관을 열어둌으로써 외부 커뮤니티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선 토론대회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학 내 토론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내 토론대회 참가팀은 토론대회 진행 과정에서 동료 학생들과의 상호 평가 및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기반으로 토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다음으로 토론대회 참여학생들이 토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참가 전후 토론 동아리를 형성함으로써 교내 토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

한 토론대회 진행 과정에서 대회 관련 행사나 이벤트는 토론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토론대회는 공적 말하기 및 의사소통 전반에 있어 어려움의 장벽을 해소 등을 통해 교내 학생들의 토론 문화를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2) 세계시민(Global Citizen) 양성

세계시민성이란 세계화 속에서 개인의 복지 또는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수반을 의미한다(Sant et al, 2018). 세계시민성은 교육에서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차원에서 함양될 수 있다. 토론대회는 교육의 비형식적 차원에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방법이 된다. 토론대회는 세계사회, 본인이 속한 세대의 문제, 복지, 법적, 정치적 문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 상호의존성, 전 지구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다양한 공적 또는 사적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관습과 전통, 가치관 등에 의문을 던짐으로써 문제의식을 명료화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쟁점화 함으로써 다양한 담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또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논거와 반론을 구성할 것이다. 문제를 쟁점화하고, 논거 및 반론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토론대회는 많은 시간과 노력, 팀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문제의식을 명료화하고, 문제를 쟁점화하며, 논거와 반론의 구성력 강화,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 경험 등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이하준, 2022). 이는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요청되는 시민성 함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토론대회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대회는 학생들에게 공적 영역의 토론에도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토론대회는 결국 학생들이 공적 말하기 및 활동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진로 선택의 기회 확대

대학의 교내 토론대회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확장하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 먼저 교내 토론대회는 해당 학기 또는 해의 화제가 되는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주제를 토론 논제로 선정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공 혹은 기존의 관심 분야 외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본인의 관심 분야를 확장함으로써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진로 역량이란 진로 탐색 및 준비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율하기 위해 요청되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을 말한다(정지은, 2017). 토론대회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 및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돕는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정체감과 가치관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게 함으로써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토론대회 참여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²⁾ 구체적으로 토론대회는 참가 과정에서 동료 학생, 지도 교수, 심사위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 토론대회는 학생들의 학업 수행과 관련한 성공 경험의 기회를 지원하고, 대학 내 사회적 네트워킹을 형성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들은 토론대회 참가 이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연합 토론대회 참여 혹은 교내 리더십 활동 등을 통해 본인이 지닌 역량을 강화하고, 토론대회의 경험을 공유 및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 및 소통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12) 우영식, 송민옥(2022)에 따르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는 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4.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내 토론대회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교내 토론대회를 10년 이상 운영해 온 세계 대학의 시행 목적, 운영 절차, 토론 모형, 평가 방식, 논제 및 후속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 교내 토론대회 운영은 대학 내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에 기여하며, 토론대회 참여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대학에서 토론대회 운영과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지속해 오면서 교과 연계, 토론 주제의 확대 및 논제의 다양화 등 계속해서 발전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비대면 토론대회로의 일시 전환을 통해 대회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대회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 저하로 인해, 각 대학별 토론대회 참여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 대학 실무자와의 인터뷰에서 종합적으로 학령 인구의 감소로부터 야기된 참여인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예산 감축 등의 요인들로 인해 토론대회의 존립 여부가 검토되고 있음을 고백하기도 하였다 (2023.08.01.).

본 연구에서 탐색한 대학 교내 토론대회의 시사점은 대학 교육의 목표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토론대회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오늘날, 토론대회가 지닌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교내 토론대회 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외 대학의 토론대회 사례를 탐색하고, 국내 대학의 토론대회의 발전 방향성을 탐

구와 논의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내 토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대학 교내 토론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대학의 교수자들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며, 학내 구성원들 역시 토론대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대학의 토론대회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성욱, 「대학생 토론대회의 현황과 개선방안-중앙선거방송위원회 주최 토론대회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51-84쪽.
- 김영주·김인선·김종기·서용태·손남훈·이상룡·이순욱·정대성·정은영·정훈식·조현규·차윤정·학상복, 『열린사고와 표현』, 부산대학교출판부, 2021.
- 김지윤·서정혁·신희선·황영미, 『아카데미토론 배틀: 속명토론대회』, 역락, 2021.
- 박기철, 「바람직한 토론문화를 위한 토론대회의 패러다임 전환 제안」, 『스피치와커뮤니케이션』 14권, 한국소통학회, 2010, 177-212쪽.
- 신득렬, 『교양교육』, 겨리, 2016.
- 신희선, 「의사소통교육으로서의 '토론대회' 사례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0권, 국어교육학회, 2010, 209-244쪽.
- , 「대학 교양교육에서 교내토론대회 운영사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사고와표현』 8권 2호,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15, 7-51쪽.
- ,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 독서토론대회' 운영사례와 학생 참여 촉진요인 고찰」, 『교양학연구』 (18),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2, 169-212쪽.
- 우영식·송민옥,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수준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과 유형별 참여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권 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2, 1417-1432쪽.
- 이선영, 「토론 교육을 위한 논제 선정에 대한 소고(小考) - 국내·외 토론대회 논제 분석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1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10, 241-267쪽.

- , 「토론대회 경험과 토론 효능감에 대한 연구 -고등학교 토론대회 소감문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9권, 2010, 국어교육학회, 403-436쪽.
- , 「국내외 토론대회 현황 분석을 통한 토론 교육 발전 방안 연구」, 『화법연구』 19권, 한국화법학회, 2011, 145-171쪽.
- 이하준, 『교양교육 비판 : 교양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실천적 사유』, 북코리아, 2022.
- 정지은, 『대학생 진로역량과 학생 및 대학 특성의 다층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조용림, 「대학의 교양국어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 방안 연구-비대면 토론대회를 중심으로-」, 『대학교양교육연구』 7권 1호, 배재대학교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22, 79-102쪽.
- Sant, E.·Davies, I.·Pashby, K.·Shultz, 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to key concepts and debates" Bloomsbury Publishing, 2018.; 심정보·조우진·유성상 역, 『세계시민교육』, 다봄교육, 2021.

■ 국문초록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위한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여겨져 왔던 토론은 현대의 시민사회, 민주사회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에서 대학 토론대회는 1970년대 후반, 대학 연합 토론대회를 시작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초기에는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강화보다 토론의 문법적 형태를 강조하였다. 1990년대 중반 각 대학마다 토론 동아리 혹은 토론대회 등이 조직되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토론대회의 질적 수준도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토론대회 역시 더욱 다양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내 토론대회를 10년 이상 진행한 대학으로 교내 토론대회의 발전된 모델을 제시하면서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대표성을 띠다고 볼 수 있는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의 교내 토론대회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대학 교육에의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토론대회는 칼 포퍼식 토론을 바탕으로 교양교육의 실천 방법으로 운영했고, 교양 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점진적 토론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토론대회의 논제는 시의성과 공론 가능성을 지닌 논제를 선정했으며, 학교는 토론대회 수상팀에게 교외 토론 대회 참가 및 리더십 관련 후속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학 토론대회는 대학 내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고 세계시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하며,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독서토론대회, 교양교육, 대학생토론대회, 세계시민, 글쓰기.

■ Abstract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University Debate Contest

Park, Ko Woon·Koh, Hye lim

/ Pusan National University·Pusan National University

Debate, regarded since ancient Greece as one of the important activities for cultivating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modern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society. University debate competitions in Korea expanded in the late 1970s starting with the university union debate competition. However, in the early days, the grammatical form of discussion was emphasized rather than the strength of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Debate clubs or debate competitions were organized in each university in the mid-1990s, and by the 2000s, the quality of the debate competitions was high. Debate competitions for university students nationwide have also become more diversified. Busan National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ankook University, and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re representative universities that have held on-campus debate competitions for more than 10 years. Among them, we would like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by selecting three universities that are historically and educationally representative while presenting an advanced model for on-campus debate competitions as universities that have held such competitions for more than 10 years. As a resul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on-campus debate competitions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to explore implications for university educ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versity's in-school discussion competitions, in this stud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ractitioners of reading discussion competitions at each university and

a content analysis method of discussion competition data posted on their websites was performed. The status survey can provide several improvements such as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university discussion competitions, reminding the importance of discussions in university education, and reaffirming educational implications.

Keyword • Reading debate, Liberal education, College student debate, Global citizens, Writing.

대학 교양으로서 일반생물학 수업에서 '기후 변화' 교육*

박돈하·장수철**

목 차

1. 들어가며
2. 생태학 단원
3. 생태학 단원 이외의 일반생물학 주요 주제와
기후 변화
4. 맺음말

1. 들어가며

기후변화란 기후 위기, 기후 비상사태라고도 하는데 전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을 모두 포괄하여 지칭한다. 현재 우리가 겪는 기후변화는 구체적으로 온실 기체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의미한다. 사회 모든 부문도 그렇지만, 과학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에 출판된 종합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서도 2023년이 가장 뜨거운 해였음을 밝히고

* 이 논문은 연구재단(NRF-2022S1A5C2A04093488)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박돈하(제1저자)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부교수
장수철(교신저자)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부교수

1850년 이후 기온 증가가 섭씨 1.34도인지 또는 1.54도인지에 관한 논란을 소개했다.¹⁾ 어떤 관측 결과가 옳은지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더욱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기온 증가가 자연적 원인이 아닌 인간 활동으로만 일인 규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²⁾

기후변화는 가뭄, 폭염, 태풍, 호우 등 극단적이고 인간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기상 현상을 유발한다. 또 지구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류가 변화하며 해양이 산성화하는 등의 장기적인 영향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정적 특징을 나타낸다. 기후변화는 또 작물 수확량 감소, 감염병 증가, 거주지 파괴 등 직접 인간에게 충격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전 인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교양교육은 학생들의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 형성을 위해 수행하는 교육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기초 학문 분야를 포괄한다. 이렇게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받은 인재가 온 인류가 직면해 있고 풀어야 할 과제인 전지구적 위기³⁾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의미를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양교육으로 무장한 학생일수록 인류 공통의 목표와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을 모색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교양교육 과정

1) P. Voosen, "Is the world 1.3°C or 1.5°C warmer?", *Science*, vol. 383, no. 6682, 2024, pp.466-467.: 이 보고에서 저자는 이 둘 중 어떤 수치이든 이 정도면 심각하게 지구의 기후 변화를 유발했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판단을 소개했다.

2) Velérie-Masson-Delmotte-Panmoa-Zhai, "Preface"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2021, p.v.

3) Hans Rosling·Ola Rosling·Anna Rosling Rönnlund 저, 이창신 역, 『팩트플니스』, 김영사, 2018, 338쪽에서는 팬데믹, 금융 위기, 제3차 세계대전, 기후 변화, 극도의 빈곤 등을 예시한다.

의 어떤 교과목이든 교과 과정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양 교과목으로서 일반생물학 교육에 필요한 점을 찾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생물학 교과 과정에 포함된 생태학 단원은 특히나 기후(변화)와 관련이 매우 크므로 이 교과목 수업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태학 단원은 물론, 그 이외의 단원에서 수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생물학의 주요 주제 또는 일상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으로서 일반생물학 성격의 교과목을 조사하여 수업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과정을 갖출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위기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반생물학은 물론 대학의 교양 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생태학 단원

일반생물학 성격의 교과목들은 크게 다음의 커다란 단원으로 구성된다.: 생물학의 주요 주제와 과학(적 방법), 기초 화학, 세포, 생물에너지학, 분자 생물학, 유전, 진화, 생물 다양성, 식물학, 동물학, 생태학. 이 중에서 기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원은 생태학이다. 이 단원은 대개 생태학 개요, 개체군과 생활사, 군집생태학,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보전 생태학 등의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이 포괄하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생태학 단원을 구성하는 5개 장의 소제목과 주요 주제⁴⁾

장	소제목	주요 주제
생태학 개요	위도와 계절에 따른 지구 기후의 변화	전 지구적인 기후 패턴, 기후에 미치는 지역적, 국지적 영향, 초목의 영향, 미기후
	육상생물군계	기후와 육상생물군계, 일반적인 특징, 교란과 육상생물군계
	수생물군계	수생물군계의 층화 현상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분산과 분포, 생물적 요인, 무생물적 요인
	생태학적 변화와 진화	장기간적 영향, 단기간적 영향
개체군과 생활사	개체군 연구	밀도, 분산, 통계
	지수적 성장 모형	이상적 조건에서 가능한 개체군 성장 모형
	로지스틱형 성장	실제하는 성장 모형
	생식 양상	생활사와 일회결실 또는 반복결실
	성장 조절	밀도 의존적인 개체군 성장 조절, 개체군 동태론, 인간 개체군, 환경 수용력과 생태 발자국
군집 생태계	종간 상호관계	경쟁, 착취, 긍정적 상호작용
	생물 다양성과 영양 구조	종 다양성, 다양성과 군집 안정성, 영양 구조, 영향이 큰 종, 상향식과 하향식 조절
	교란	교란의 특징, 생태적 천이, 인간에 의한 교란
	군집 다양성	위도 구배, 지역 효과, 섬 평형 모델
	병원체와 군집 구조	군집 구조 영향, 질병의 영향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생태계의 물리 법칙	에너지 흐름과 화학적 순환,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 영양 단계
	1차 생산 조절	에너지 수지, 수생 생태계의 1차 생산, 육상 생태계의 1차 생산, 기후 변화의 영향
	에너지 전달 효율	생산 효율, 영양 효율과 생태 피라미드
	양분과 물의 순환	분해와 양분 순환율, 생지화학적 순환
	복원 생태학	생물 정화, 생물학적 복원, 몇몇 복원 사례
보전 생태학	인간 활동의 위협	생물 다양성의 세 단계, 생물 다양성과 인간 복지, 생물 다양성 위협 요소, 절멸된 종의 부활 가능성
	개체군 보전	절멸의 소용돌이, 임계 서식지, 대립되는 요구의 중요성 비교

4) 굵은 글씨는 기후변화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련 정도가 큰 소제목이나 주요 주제를 표시. 다음 책들의 생태학 단원을 참조하여 작성함.: Neil Campbell 등 저, 전상학 외 역, 『캠벨 생명과학 12판』, (주)바이오사이언스출판, 2021, 1212-1311쪽.; Robert Brooker 등 저, 최준호 등 역, 『브루커의 생명과학』, 홍릉과학출판사, 2014, 1032-1106쪽, Scott Freeman 등, “Biological Science, 6th ed.” Essex: Pearson Education Limited, 2017, pp.1114-1205.; David Sadava 등 저, 강해목 등 역, 『생명, 생물의 과학』, (주)라이프사이언스, 1140-1258쪽.; Cecie Starr 등 저, 『Starr 생명과학』, (주)월드사이언스, 2012, 796-905쪽.

경관과 지역 보전	경관 구조와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의 지정, 도시 생태학
인간에 의한 지구 환경 변화	부영양화, 환경 속 독성물질, 온실가스와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 생물권의 미래

1) 전지구적 기후에 관한 소제목

생태학 단원에서 지구의 기후변화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생태학 개요' 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장에 포함된 주제들을 보면 지구에서 전체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관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 있고 위도에 따른 햇빛 세기의 차이와 전 지구적인 대기 순환과 강수 패턴 등으로 계절성을 비롯한 전 지구적 기후의 양상과 다양한 생물군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도 변화, 바람과 강수 패턴, 가뭄과 폭풍 등의 변화에 따른 장기간의 전 지구적 기후의 방향성을 볼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 형성된 다양한 육상⁵⁾과 수생물⁶⁾ 군계의 특징과 종의 분포 등을 알게 된다. 요컨대, 이 '생태학 개요'는 생물과 관련하여 지구의 기후에 관한 기본 개념을 세우는 데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기후 관련 주요 주제

'개체군과 생활사' 장에서 중요하게 간주해야 할 개념은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다. 그 이유는 이 개념이 인간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각 나라에서 소비하는 모든 자원의 생산과 배출하는 폐기물 흡수에 사용하는 육지와 수역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면적으로 표시되며 단위는 지구헥타르(global hectare,

5) 열대 우림, 사막, 사바나, 지중해성 관목지대, 온대초원, 북부 침엽수림, 온대 활엽수림, 툰드라 등이 해당한다.

6) 호수, 습지, 하천과 강, 하구, 조간대, 원양대, 산호초, 해양저서대 등이 해당한다.

gha)이다. 당연히 생태발자국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한가지는 에너지 사용 정도이다. 지금까지는 발전한 국가일수록 화석연료를 과하게 사용하였고 이는 기후변화를 유발하였다. 더불어 연료 사용 결과, 폐기물을 생산하였으므로 생태발자국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장에서는 에너지 수지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개념은 일단 순1차 생산량(net primary production, NPP)이다. 이 생산량은 광합성이나 화학 분자를 이용하여 생성된 에너지, 즉 1차 생산에서 이 생산을 담당한 생물들이 호흡으로 소모한 에너지양을 뺀 값이다. 이는 마치 회사에서 세금을 제한 월급을 받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 개념도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순 생태계 생산량(net ecosystem production, NEP)도 중요하다. NEP는 NPP 계산에 사용했던 1차 생산에서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분해자 등이 호흡 등으로 소모한 에너지양을 뺀 값이다. 생태학자는 NEP를 일정 기간 탄소를 얻었는지 또는 잃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우선 NPP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증가한 온도에 의한 “뜨거운 가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구 온난화 그리고 강수 패턴이 변화하면서 산불과 기생 곤충이 증가하여 많은 숲에서 죽는 나무가 증가하는, 즉 NPP가 감소하는 현상이 알려져 있다. NEP의 척도는 특정 생태계에서 탄소의 축적 또는 손실의 정도로 알 수 있다. 예컨대 기후 온난화로 특정 극지방은 서식하는 미생물의 대사활동이 증가하여 탄소를 저장하였던 기능(탄소 저장고)에서 탄소를 방출하는 기능(탄소 공급원)으로 바뀌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특정 생태계 내에서 생명체들이 얻을 수 있는 탄소가 감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생태발자국, NPP, NEP 등의 개념은 생물(그리고 인간)의 활성을 지표화함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해 그 수치들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를 이해한다면,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알리는 데에 중요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보전 생태학과 기후변화

대개 일반생물학 교과 과정을 끝까지 진행한다면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주제가 보전 생태학이다. 이 장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생태계 변화를 생물 다양성, 개체군 수준과 경관 수준에서 살펴본다. 이 장은 또한 인간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태계와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 더불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태계와 관련하여 인간에 의한 독성물질 증가와 기후변화를 설명한다.

기후변화는 온실 효과 원리로 설명되어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위험성을 제기한다. 또한,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해 지구 온도의 증가가 자연이 아닌 인간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기후변화의 원리와 모델링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이 장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관한 강조는 생물학의 커다란 원리 중의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즉, 생명 현상은 분자에서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 규명될 수 있다는 원리이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세포, 개체, 개체군, 군집 등 여러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생물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한다.⁷⁾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4) 생태학 단원의 의미와 수업

생태학의 5개 장 중 ‘군집생태학’을 제외한 모든 장에서 기후변화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앞의 절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생태학 단원

7) 3.1절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활용 면에서 다시 제시되어 있다.

의 많은 주제에서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생태학의 대상인 생태계의 주요 무생물적 구성 요소가 기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학 단원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기후에 관한 기본 지식을 취득함은 물론 다양한 원리와 구체적인 예를 배우게 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기후변화를 원리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에 판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일반생물학 교재에서 생태학 단원은 7~8개 단원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다.⁸⁾ 이러한 배치가 단원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학에서 생태학 단원은 생략하거나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교과목 제목과 교과 내용을 모두 얻을 수 있었던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대형 국립대와 사립대, 그리고 여러 중소형 사립대를 포함한 17개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에 개설된 일반생물학 성격의 교과목⁹⁾을 비교한 결과, S대1의 ‘생물학’과 ‘생물학2’, Y대1의 ‘현대생명론’과 ‘생물과 인간생활’ 교과목만 생태학 단

8) 캠벨 생명과학은 56개 장 중 51-56장이 생태학 단원이다 (Neil Campbell 등 저, 전상학 외 역, 『캠벨 생명과학 12판』, (주)바이오사이언스출판, 2021, xxi쪽). Brooker 등이 저술한 교재는 60개 장 중, 54-60장(Robert Brooker 등 저, 최준호 등 역, 『브루커의 생명과학』, 홍릉과학출판사, 2014, v쪽), Freeman 등이 저술한 교재는 54개 장 중 49-54장(Scott, Freeman 등, “Biological Science, 6th ed.” Essex: Pearson Education Limited, 2017, pp.17-31), Sadava 등이 저술한 교재는 59개 장 중 54-59장 (David Sadava 등 저, 강해목 등 역, 『생명, 생물의 과학』, (주)라이프사이언스, 2012, iii쪽), Starr 등이 저술한 교재는 49개 장 중 44-49장 (David Sadava 등 저, 강해목 등 역, 『생명, 생물의 과학』, (주)라이프사이언스, 2012, iii쪽, Starr 등, 2012)이 해당한다.

9) D대1: ‘생명현상의 통합적 이해’, ‘생물학 및 실험 1’; D대2: ‘생명과과학실험 1, 2’; G대: ‘생명의 이해’, ‘일반생물학 1,2,3’; F대: ‘생명의 이해’; H대: ‘생물과학의 이해’; I대: ‘일반생물학 및 실험’; K대: ‘대학기초생물학’; M대: ‘생활속의 생명과학’, ‘인간과 생명’; N대: ‘일반생물학’; P대: ‘일반생물과학’; S대1: ‘생물학1’, ‘생물학2’, ‘생물학’; S대2: ‘생명의 기원과 본질’, ‘생명의 과학’; S대3: ‘생물학1’; S대4: ‘일반생물학’, ‘생명과학의 이해’; W대: ‘생활속의 생물’; Y대1: ‘일반생물학 및실험1&2’, ‘공학생물학및실험 1&2’,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생명과학의 세계’, ‘생명과학과 삶’, ‘현대생명론’, ‘생물과 인간생활’; Y대2: ‘생명과학1’, ‘생명과학2’, ‘생명과학실험1’, ‘생명과학실험2’, ‘생명과학의 이해’, ‘생명과학 입문’

원을 포함하였다. 이 결과에 근거해 보면, 대부분 대학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사 대상 17개 대학교 중 생태학 교과목이 따로 개설된 대학과 교과목¹⁰⁾은 모두 2개다. 따라서 학생들은 생물학에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는 점을 알기 어렵다. 다만, 여러 대학에서 기후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들을 개설¹¹⁾하여 생태학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접근을 학습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교양 생물학과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 수 요약

	개설 대학 수	교과목 수
교양으로서 생물학 교과목	17	40
생태학 단원 포함 생물학 교과목	2	4
생태학 교과목	2	2
기후변화 내용 포함 교과목	8	13

교양으로서 생물학을 수강한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 첫째, 일반생물학 성격의 교과목에 생태학을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착된 교과 과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신중하지만,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둘째, 일반생물학에 생태학 단원을 포함하기 어렵다면, 생태학 성격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다면, 이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만약, 생태학 교과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가장 기후변화와 관련 정도가 큰 교과목을 찾아 수강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책이 가능하든 가

10) D대2: '생태계와 환경'; S대2: '생태계와 환경'

11) D대1: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M대: '인간과 환경'; S대1: '지구환경변화', '녹색생활과 소비',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위기와 인류'; S대2: '기후와 문화'; S대3: '기후변화와 자연에너지'; S대4: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Y대1: '기후와 문명', '지구와 환경', '환경과 대기'; Y대2: '녹색성장사회의 이해'

능하지 않은 일반생물학 교과에서는 생태학 이외의 단원에서도 각 단원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위주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콘텐츠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3. 생태학 단원 이외의 일반생물학 주요 주제와 기후변화

1) 생물학의 주요 주제 속의 기후변화

생물학은 크게 다섯 가지의 주요 주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다섯 주제는 미국의 많은 생물학 교수, 교사, 연구자, 행정가들이 교양으로서 대학 생물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광범위한 논의한 <Vision and Change>에서 제안한 것이다.¹²⁾ 여러 일반생물학 교재에서 이 주요 주제가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생물학적 구성 단계와 창발성, 유전 정보의 발현과 전달, 에너지와 물질의 전달과 변환, 다양한 상호작용, 진화 등이 해당한다.¹³⁾ 이 5가지의 생물학 주요 주제에 관한 소개에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예시한다면 학생들은 생물학 수업에서 생명 현상과 기후와의 밀접한 관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시도 중 한 가지는 생물학 교재의 가장 앞 장에 배치된 생물학 구성 단계와 창발성에 관련한 것으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수준별 생명의 특징에 기후변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생물학은 분자, 세포소기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생물권 등의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설명한다. 따라서 여러 수준에서 생물의 특징을 예시할 때 기후변화에 의해 생물의 생존과 번식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12) Brew Carol-Smith Diane, "Vision and Change in Undergraduate Biology Education: A Call to Action",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11, pp.11-14.

13) Neil Campbell 등 저, 전상학 외 역, 『캠벨 생명과학 12판』, (주)바이오사이언스 출판, 2021, 2-26쪽.

지를 포함시켜 제시한다면, 생물학의 주요 주제에 관한 이해는 물론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숙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수준을 다 포괄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분자 수준에서는 효소 반응과 DNA 복제를 변화, 세포 수준에서는 세포분열과 세포내 반응 정도 변화, 개체 수준에서는 기생생물의 번성에 의한 나무들의 손상, 체온 증가에 의한 죽음, 개체군 수준에서는 생존과 번식의 감소에 따른 개체군의 감소, 군집과 생태계 수준에서는 종간 상호작용의 왜곡에 따른 번식의 감소 등을 예시할 수 있다.¹⁴⁾ 또 유용하게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진화이다. 진화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우연적 요소에 의한 생물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대멸종이다. 이는 진화 단원 중 대진화를 다룬 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평시에 계속해서 일정한 정도로 종이 출현하고 없어지는데 대멸종은 이때 일어나는 멸종¹⁵⁾을 규모 면에서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다. 대멸종은 우연적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그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포함한다. 고생대 시작 전에 출현한 눈덩이 지구와 고생대 이후 가장 큰 대멸종이었던 페름기 대멸종은 각각 기후 저하와 화산활동에 의하여 증가한 기온과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다. 특히 페름기 대멸종은 해양동물 종의 90%가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온도 증가로 인해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매우 위협적인 대멸종은 섭씨 6도 정도 기온이 증가한 결과 6만 년 동안 진행되었다.¹⁶⁾ 기후 과학자들은 1850년 이후 현재까지 섭씨 1.44도가 증가했고 현 추세대로라면 80년 후 최대 섭씨 4.7도 상승할 것이라 예상한다.¹⁷⁾ 단 250년 만에

14) 이 논문에서는 Neil Campbell 등 저, 전상학 외 역, 『캠벨 생명과학 12판』, (주)바이오사이언스출판, 2021, 1303-1305쪽.

15) 이를 background extinction(바탕멸종)이라 한다.

16) Peter Ward·Joe Kirschvink 저, 이한음 역, 『새로운 생명의 역사: 지구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밝히는 새로운 근본적인 발견들』, 까치, 2015, 244쪽.

17) Mark Maslin 저, 신봉아 역, 『기후변화』, 교유서가, 2021, 64쪽.

인류는 6만 년 동안 진행된 페름기 멸종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추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생물학의 구성 단계와 진화 등 생물학의 주요 주제에 기후변화를 결합하여 소개한다면, 학생들은 이들 주요 주제를 생물의 존속 여부와 연결함은 물론 생물학 원리에 관한 이해 속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실 속 위협: 광합성량과 식량, 건강

생물학의 주요 주제에 의존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사고를 유도하는 방법도 의미가 충분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관련하여 생물학 주제를 학습하면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생물학에서는 식량과 건강에 관련하여 이러한 시도가 가능하다.

(1) 광합성 - 식량

광합성은 태양이 존속하는 한 지구에 무한대로 공급되는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를 합성한다. 생물학의 매우 큰 주제 중의 하나인 생물에너지학에서 광합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의 에너지 대사는 바로 이 광합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생태학적 의미로 광합성을 수행하는 생물들을 생산자로 간주한다. 이는 생산자가 아닌 거의 모든 생물이 생산자가 제공하는 화학에너지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 파괴에 의한 아마존 수풀의 감소는 인간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물에게 먹거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역할이 중요한 근거는 기후변화에 의한 광합성량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 이변은 농작물에 작지 않

은 피해를 준다. 기후의 규칙적인 변화에 적응한 식물이나 이 식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운영하는 농부들 모두에게 기상 이변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더불어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농업 생산성이 급감한 현상을 연구를 포함하여 온도 증가에 따른 광합성량의 감소에 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¹⁸⁾ 수업에서 이러한 논문의 인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2) 동물 항상성 - 건강

기후 변화와 건강에 관한 수업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주제 중 하나는 항상성이다. 인간은 음식을 섭취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내온동물이자 항온동물이다. 이 경우, 항상성 유지의 기준이 되는 체온의 설정값이 있다. 개와 고양이 등을 포함한 포유류 그리고 조류 대부분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과 저온 정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체온 설정값이 증가함은 물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 수 있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폭염이나 열대야에 의해 각각 온열병이나 노인들의 수면 중 체온 조절의 실패로 치명적인 결과가 유발된다는 최근의 보고는 참고할 만하다.¹⁹⁾ 또한, 50°C의 극한 고온이 발발하는 날도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계는 탈수로 인한 뇌 기능 저하, 혈관 확장에 의한 혈압 저하, 뜨거운 공기 노출에 의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호흡 기능 저하, 수분 공급 감소에 따른 만성 신장병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는 습구온도(wet-bulb temperature)가 35°C 이상이면 증발 때문에 체온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건강한 성인도 6시간 이상 생존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제시하였는데 그 대상 지역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이태

18) Mark Maslin 저, 신봉아 역, 앞의 책, 2021, 135쪽.

19) Mark Maslin 저, 신봉아 역, 앞의 책, 2021, 121쪽.

리, 중동, 미국 동부 등을 꼽았다.²⁰⁾ 그래서 많은 학자는 바야흐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 주장한다.²¹⁾

(3) 기타 위험성

이외에도 표3에서는 일반생물학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피해 내용을 열거하였다. 표처럼, 필요한 몇몇 내용에 관하여 수업에 최신 연구 성과를 제공한다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생물학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수업 시간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몇몇 최근의 참고 문헌도 예시하였다.²²⁾ 이 표에 나열된 주제와 내용 이외에도 일반생물학 교강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얼마든지 더 많은 주제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강조될 수 있는 교양 생물학 수업 주제와 일상 내용

주제	피해 내용	최근 참고 문헌
세포분열	개체 수준의 질병, 곡물 수확량 감소	Lippmann 등, 2019
감수분열	유전되는 질병, 식물 발생 억제	De Storam과 Geelen, 2020
유전학	파충류 성 결정과 기후 위기	
유전자 발현	돌연변이 원인	Waldvogel과 Pfenninger, 2021
동물의 배설	배설물의 종류와 물의 풍족도	

3) 인간 멸종과 인류세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논쟁은 지구에 위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지구의 위기 본질 중 하나가 인류의 종말이다. 인류가 겪게 될 위기의 원인으로 해수면의 상승과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제시되고

20) C. Wong, "Extreme heat harms health-what is the human body's limit?", Nature, published on line: 09 October (2023) news.

21) "It's becoming a do or die situation".

22) 참고문헌이 제시되지 않은 주제는 일반생물학의 해당 장에서 해당 예를 참고할 수 있음.

있다.²³⁾ 기후변화에 의한 인류 종말이라는 주제는 다양한 교과목이 다룰 수 있는 주제이지만, 생물학 수업 역시 이 주제를 주요한 수업 내용으로 부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에 아주 유용한 연구 보고가 있다.²⁴⁾ 이 연구 보고에서 저자들은 아프리카와 비아프리카의 3,154명을 대상으로 유전체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 모형을 작성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인구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약 93만 년에서 81만3천 년 전²⁵⁾에 우연한 원인에 의해 인류는 심각한 인구의 감소가 있었는데 생식 연령대 사람이 약 1,280명 정도만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생존한 인구의 98.7%가 사라지는 거의 멸종 직전까지 상황에 이른 것이었다.²⁶⁾ 이 연구진은 이러한 상태가 약 117,000년 동안 지속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연구진은 인구 급감이 일어난 시기가 주요한 기후변화가 있었던 시기와 일치한 점에 주목하였다.²⁷⁾ 기후변화로 인해 실제로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 환경 변화와 함께 학생들이 수업에서 충분히 논의할 의미가 큰 재료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수업에서 인류세와 관련한 토론도 제안할 수 있다. 인류세 (Anthropocene)란 인류가 지구의 지질, 경관, 호수와 해양, 생태계 등에

23) Mark Maslin 저, 신봉아 역, 앞의 책, 2021, 148쪽.

24) W. Hu 등, “Genomic inference of a severe human bottleneck during the Early to Middle Pleistocene transition”, *Science*, vol. 381, no. 6661 (2023), pp.979-984.; 이들은 자신들의 인구 추정을 화석 연대를 추적하여 확인하였다.

25) *Homo sapiens*는 약 20만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때 인류는 *H. ergaster* 또는 *H. erectus*였다.

26) 이처럼 우연한 원인에 의한 진화를 유전적 부동이라 하는데, 이 중 이와 같은 급격한 개체 수 감소는 병목 현상에 해당한다.; 현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 한다면 78억9500만 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27) 즉, 해당하는 시기가 홍적세 빙하기여서 해수면 수위가 낮아지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가뭄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이후의 지질학적 시대 구분이다.²⁸⁾ 인류세의 주요 특징이 생물 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생물지리학과 야행성 변수, 지리 형태와 층서학의 변화 등인데 이들은 모두 인류 활동으로 인해 변화했다. 인류의 활동은 그 이전의 지질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지구의 특징을 만들어냈고 이대로라면 기후변화로 인해 결국 인간의 종말은 피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인류세를 달기 위해 인류세가 출현한 것 같다. 인류세를 서술하는 데에서도 생물 다양성, 생물지리학 등 생물학적 요소가 있고 기후 위기와 관련성이 매우 커서 일반생물학 수업에서는 이에 대한 인류의 책임감이 반영되어야 한다.

4. 맺음말: 기후 위기를 알리고 대책을 세우는 교육을 위하여

기후변화는 인류 모두가 당면한 문제이자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수행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 없이 너무도 당연하다. 본 연구는 일반생물학 교과에서 가능한 '기후변화' 교육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지구 기후 이해를 위한 원리와 개념을 제공하는 생태학 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교양 교과로서 일반생물학 수업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교과 과정에 생태학 단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은 일반생물학 교과목에 이 단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과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생물학에서 가능한 시도를 모색하였다.

일반생물학 교과 과정에 기후변화의 원리를 소개하는 것 외에도 여러 단원에서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8) C. N. Waters 등, "The Anthropocene is functionally and stratigraphically distinct from the Holocene", *Science*, vol. 351, no. 6269, 2016, pp.1-10.: 이 개념은 생태학 단원과 관련하여 언급할 수도 있지만, 인간 멸종의 관점이 더 의미가 클 것이라 판단하여 이 절에서 포함하였다.

생물학의 주요 주제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를 소개하는 방식 또는 우리 일상과 연결하여 소개하는 방식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몇몇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지만, 일반생물학 담당 교강사들이라면 교과과정 속에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주제와 내용을 쉽게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학교 또는 교강사가 기후변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의미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기후변화는 실재하며 비교적 빠른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위기에 이를 수 있음을 학생들이 알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지금의 기후변화는 지구와 생명 다양성에 변화를 유발하겠지만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처럼 진화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인류의 진화에 영향을 크게 미쳤고 매우 큰 위기도 있었음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 의지,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노력들에 대한 주제를 보충하여 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현재 우리가 겪는 기후 위기의 주범은 인류이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인류라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가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대상이다. 당연하게도, 일반생물학만이 이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일반 화학과 일반물리학에서도 기후 위기 이슈를 본격적으로 포함하여 교육한다면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원리와 응용 측면은 물론 생명과학과 물질과학을 아우르는 입체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의 시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양교육 전체의 시각에서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준비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 각 대학에서 본격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은 물론 빠른 시간 내에 기초적인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 고양을 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한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정한 교양기초교육의 목표에 관한 설명²⁹⁾에 기후변화의 중요성 인식과 해결에 관련된 설명을 한 문장 정도 부가하여 교양교육에서 기후변화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양기초교육’에 글로벌 이슈의 중요성에 관한 항목을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29) <공주대학교-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 https://www.konige.kr/data/general_edu.php

■ 참고문헌

- A.-M. Waldvogel·M. Pfenninger, "Temperature dependence of spontaneous mutation rates", *Genome Research*, vol. 31, no. 9, 2021, pp.1582-1589.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Vision and Change in Undergraduate Biology Education: A Call to Action, Brew Carol, and Smith Dian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11, pp.11-14.
- C. N. Waters·J. Zalasiewicz·C. Summerhayes·A. D. Barnosky, ... A. P. Wolfe, "The Anthropocene is functionally and stratigraphically distinct from the Holocene", *Science*, vol. 351, no. 6269, 2016, pp.1-10.
- C. Wong, "Extreme heat harms health-what is the human body's limit?", *Nature*, published on line: 2, 2023.10.09.: news doi: <https://doi.org/10.1038/d41586-023-02482-z>.
- Cecie Starr·Christine Everse·Ralph Taggart·Lisa Starr 저, 김환규·고병문·김경식·김무열, 박기인·박문국·박종영·선병윤·엄태봉·여읍동·이상명·이용훈·이지현·장광엽·정국현·채종찬·황성수 역, 『Starr 생명과학』, (주)월드사이언스. 2012, vii-xxvii쪽, 796-905쪽.
- David Sadava·David Hillis·Crag Heller·Mary Berenbaum 저, 강해묵·곽한식·권혁빈·배성호·신현철·이도희·이성호·이은주·이준규·이철상·정종우·노용관 역, 『생명, 생물의 과학』, (주)라이프사이언스, 2012, iii쪽, 1140-1258쪽.
- Hans Rosling·Ola Rosling·Anna Rosling Rönnlund 저, 이창신 역, 『팩트폴니스』, 김영사, 2018, 338쪽.
- M. P. González-García·C. M. Conesa·A. Lozano-Enguita·V. Baca-González·B. Simancas·S. Navarro-Neila·M. Sánchez-Bermúdez·I. Salas-González·E. Caro·G.

- Castrillo·J. C. del Pozo “(2023) Temperature changes in the root ecosystem affect plant functionality”, *Plant Communications*, vol. 4. no. 3, 2023, Article 100514 (18pages).
- Mark Maslin 저, 신봉아 역, 『기후변화』, 교유서가, 2021, 64쪽, 121쪽, 135쪽, 141쪽, 148쪽.
- N. De Storme·D. Geelen, “High temperatures alter cross-over distribution and induce male meiotic restitution in *Arabidopsis thaliana*”, *Communications Biology*, vol. 3, no. 1, 2020, pp.1-15.
- Neil Campbell·Liaa Urry·Michael Cain·Steven Wasserman·Peter Minorsky·Rebecca Orr 저, 전상학 외 28인 역, 『캠벨 생명과학 12판』, (주)바이오사이언스출판, 2021, xxi쪽, 2-26쪽, 1212-1311쪽, 1303-1305쪽.
- P. Voosen, “Is the world 1.3oC or 1.5oC warmer?”, *Science*, vol. 383, no. 6682, 2024, pp.466-467.
- Peter Ward·Joe Kirschvink 저, 이한음 역, 『새로운 생명의 역사: 지구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밝히는 새로운 근본적인 발견들』, 까치, 2015, 244쪽
- R. Lippmann·S. Babben·A. Menger·C. Delker·M. Quint, “Development of wild and cultivated plants under global warming conditions”, *Current Biology*, vol. 29, 2019, R1326 - R1338.
- Robert Brooker·Eric Widmaier·Linda Graham·Peter Stiling 저, 최준호 외 공저 역, 『브루커의 생명과학』, 홍릉과학출판사, 2014, v쪽, 1032-1106쪽.
- Scott·Freeman·Kim·Quillin·Lizabeth·Allison·Michael·Black·Greg·Podgoski·Emily Taylor·Jeff·Carmichael, “Biological Science, 6th ed”. *Essex: Pearson Education Limited*, 2017, pp.17-31, pp.1114-1205.

Velérie·Masson-Delmotte·Panmoa·Zhai eds. “Preface”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v쪽.

W. Hu·Z. Hao·P. DU·F. Vincenzo·G. Manzi·J. Cui·Y.-X. Fu·Y.-H. Pan·H. Li, “Genomic inference of a severe human bottleneck during the Early to Middle Pleistocene transition”, *Science*, vol. 381, no. 6661, 2023, pp.979-984.

■ 국문초록

기후변화는 인류 모두가 풀어야 할 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대학 교육, 특히 교양교육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수행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 없이 너무도 당연하다. 본 연구는 생물학에서 가능한 ‘기후변화’ 교육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교양교육 과정의 일반생물학 교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수도권과 지방의 국공립과 사립 대학이 개설한 교양 생물학 교과 주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구 기후 이해를 위한 원리와 개념을 제공하는 생태학 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교양 교과로서 일반생물학 수업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교과 과정에 생태학 단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대학들의 교과 주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대학은 일반생물학 교과목에 이 단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태학 단원 전체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교과 과정에 포함하지 못하더라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5~6 주제를 다른 단원에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몇몇 대학처럼 생태학 교과목을 따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는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다른 과학 교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학생들의 교과목 수강 지도가 필요한데, 수강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한 점은 과제로 남게 된다. 더불어 생물학뿐만이 아닌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여러 교양교육 교과들이 이러한 시도를 함으로써 기후변화라는 과제를 푸는 데에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더불어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제정한 ‘교양기초교육의 목적’에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기후변화, 일반생물학, 생태학, 교양교육

■ Abstract

On Teaching ‘climate change’ in general biology classes as part of liberal education

Park, Don Ha · Chang, Soo Chul
/ Yonsei University · Yonsei University

Climate change is an urgent and important problem that all humanity must solve. Therefore, it is indisputable that climate chang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universities, especially as part of liberal education. This study explored possible climate change education in biology.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general biology curriculum in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and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topics of the general biology curriculum offered by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local regions. As a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general biology classes as a liberal arts subject must, in principle, include an ecology unit in the curriculum. However, most universities in Korea do not include this unit in their general biology curriculum. As a countermeasure, even if the entire ecology unit cannot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for one or two semesters, the class can connect five to six topics related to climate change to other units. Otherwise, like some universities, there is a need to open a separate ecology course. Alternatively, other science courses that include climate change could be offered. In this case, though, guidance is needed for students to take the courses, and the need for climate change education for teachers in charge of course guidance remains an issue. In addition, various other liberal arts education subjects, including not only biology but also natural scienc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hould also make such attempts to help solve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Moreover, we propose adding content on climate change to the ‘Purpose of Liberal Education’ statement established by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Keyword • climate change, liberal education, general biology, ecology unit

■ 논문투고일:2024.02.19. ■ 심사완료일:2024.03.20. ■ 게재확정일:2024.03.21. ■

가상현실 플랫폼 <로블록스>를 활용한 양트러프리너십 기반 문제해결 콘텐츠 제작 교육 사례 연구*

배유나·강주현·이주혁**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1. 서론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적 현실, 세상을 뛰어넘는 세계로 번역이 되곤 한다. 이 메타버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를 통해서다(강주현, 강명선, 2023). 미국의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에서는 2007년 메타버스 로드맵 보고서(Metaverse roadmap: MVR)를 작성하며 메타버스를 라이프로그, 거울세계,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분류하기도 했다(Smart et al., 2007).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21S1A5C2A03086965)

**배유나(제1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강주현(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주혁(공동저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단장

하지만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이 왔다고 할 때 떠올리는 메타버스는 이 모든 유형을 일컫지는 않는다. 가령,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라이프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메타버스를 한다고 잘 말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도로 어떤 지역의 위성 지도를 볼 때도 거울 세계의 메타버스 이용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앞서 말한 ASF의 분류와 우리가 인식적으로 떠올리는 메타버스와 간격이 있는 셈이다. 오늘날 우리가 메타버스를 말할 때는 <제페토>나 <이프랜드>, <로블록스> 플랫폼처럼 가상 공간에 가상 내용이 있는 세계를 떠올리기 적절하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나 메타의 메타 퀘스트, 애플의 비전 프로처럼 고글을 활용한 증강현실 역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디바이스를 활용한 증강 현실을 MR(Mixed Reality), 애플은 XR(Extended Reality)이라는 용어를 쓰지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한국경제신문, 2022). 따라서 메타버스라는 표현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각자 떠올리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의 세계에 가상의 내용을 다루는 플랫폼, 즉 <제페토>, <이프랜드>, <로블록스>, <동물의 숲>, <디센트럴랜드> 등 가상 세계를 주로 메타버스로 표현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게임의 참여는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플랫폼 내의 경제 시스템과 인센티브, 명확한 규칙 등을 통해 늘어날 수 있다(이종한, 뤼나, 2023). 박노일, 정지연, 홍다예(2022)는 <로블록스>와 <제페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가상 세계에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가상 세계에서 타인과 공존한다는 지각을 많이 하고, 상호작용 수준도 높아진다고 했다. 이를 통해 참여 구성원 간 공동체의식도 늘어나며 사회적 관계의 확장도 늘어났다. <제페토> 이용자들의 경우 <로블록스> 이용자들보다 새로운 세상 탐험을 더 좋아하며 이 플랫폼을 통해 인간관계의 확장성도 나타났다.

이 가상 세계 플랫폼을 처음 보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경외감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콘텐츠를 제작해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왜냐면 가상 세계 플랫폼 기업에서 이용자와 콘텐츠 확대를 위해 이용과 제작을 쉽도록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로블록스>의 경우 가상 세계 플랫폼에서 나열한 아이템들 가운데 쉽게 선택해서 배치하고 조합할 수 있다. 그리고 크기 역시 필요한 부분을 늘리고 줄일 수가 있다(Johnson, 2022).

메타버스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보면 중요한 교육 문제는 가상현실 플랫폼을 다룰 수 있는 기술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어떠한 콘텐츠를 구현하느냐가 떠오른다. 이들 플랫폼이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넘어,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면, 메타버스의 가치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떻게 콘텐츠 제작을 접근할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아직 빈약하다.

이 연구는 가상현실 플랫폼에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세스를 접목하고, 그 과정을 고찰해보았다. 앙트러프러너십은 기업가 정신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혁신 역량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한 후, 해결책을 찾아 구현하고자 한다(박수홍 등, 2022). 이러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에 문제 해결 수단으로 가상현실 플랫폼을 연결할 수 있다면 훌륭한 콘텐츠 제작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활용하여 예비 중 1과 예비 중2 학생들에게 콘텐츠 제작 교육을 진행하였다.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공감적 문제 발견 → 원인 분석 → 해결책 → 구현’이라는 단계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구현 단계의 래피드 프로

토타이핑 방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제 도출된 해결책을 가상현실 상에서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활용 교육의 특징은 무엇이며, 앞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탐색했다.

2. 이론적 배경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앙트러프리너십

앙트러프리너십에 대한 연구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또한 연구 방식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그 정의는 연구자들이나 학자들마다 또 연구 분야에 따라 각자의 목적과 방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Kaufmann and Dant, 1998).

Schumpeter(1934)는 앙트러프리너를 새로운 생산방식, 프로세스, 시장, 조직형태, 공급방식 등의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결국 앙트러프리너십은 이러한 앙트러프리너가 신 결합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Schumpeter의 앙트러프리너십은 경제발전(기업이거나 조직)을 위해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며, 여기서의 혁신은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Dollinger(2007)는 앙트러프리너십을 새롭거나 발전된 산출물들과 기술들을 생성하고자 하는 자원의 결합으로 보았다. Bessant(2015)는 팀활동, 관계들에 중점을 둔 열정적인 개개인들의 노력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의 개념으로 앙트러프리너십을 정의하였다. 특히 혁신과 앙트러프리너십에 대한 연구에서 앙트러프리너십을 혁신과정 이면에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 비전, 열정, 전념, 결단, 위험감수의 강력한 혼합으로 보았다.

Miller(1983)가 앙트러프리너적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Covin and Slevin(1989)을 통해 기업가적 태세(entrepreneurial posture)로 개념

화된 기업가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은 Lumpkin and Dess(1996)에 의해 더욱 확장되면서, 다양한 성장과 발전의 시장 기회에 직면한 기업이나 조직이 혁신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려는 성향(윤현중, 2014, 2015)으로 본다. 이러한 기업가 지향성은 혁신성(innova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진취성(proactiveness)의 요소로 측정되며, 조직 앙트러프러너십 연구에서 보편적인 개념이며(이주연, 박태경, 2015; Covin, Lumpkin, 2011), 그 측정의 타당성도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이재강, 박태경, 2017; Kreiser, Marino, and Weaver, 2002).

다만 조직특성에 대해 기업가 지향성의 측정으로는 앙트러프러너의 성향파악과 비교에는 수월하나, 조직의 실제 혁신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장수덕, 2011; Zahra, Nielsen, and Bogneret, 199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앙트러프러너십은 융복합을 통한 전례없는 사회변동을 동반(Schwab, 2017) 하므로 개인 차원 보다는 조직 차원의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조직 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한 연구자들이 합의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앙트러프러너십에서 확장되어 사내 앙트러프러너십, 사회적 앙트러프러너십, 인트라프레너십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직 앙트러프러너십은 앙트러프러너십을 조직 차원으로 구체화하며, 연속되는 프로세스나 활동적 측면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차원의 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한 개념이 주로 정(靜)적인 의미로 인식되었다면, 조직 앙트러프러너십은 기업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임은천, 2017).

Zahra(1993, 1995, 1996)는 조직 앙트러프러너십을 기업에 있어서의

혁신(innovation), 쇄신 혹은 갱신(renewal), 그리고 창업(venture) 노력의 총합으로 보았다. 혁신에는 제품, 생산 프로세스 및 조직 시스템의 생성 및 도입이 포함되며, 리뉴얼은 비즈니스의 범위, 경쟁적 접근 방식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변경함으로써 회사의 운영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거나 확보한 다음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주주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하며, 벤처는 회사가 기존 또는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 확장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가진 정보와 지식, 특성 등 역량의 최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구성원 각자의 혁신 역량을 일깨워 조직의 역량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더 깊고 커다란 성과를 만드는 결과로 귀결된다. 특히 중요한 과제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주 사소하며 특화되어 있기도 하는 미묘한 측면이 많이 존재한다. 이를 모두 이해하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고 얻어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Knapp, Zeratsky and Kowitz, 2016).

2) 앙트러프리너십 교육

앙트러프리너적 특성은 개인적인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Saraiva(2016)에 의하면 앙트러프리너십의 맥락적인 요소들과 결과들은 궁극적으로 가르치며 또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며 기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정규학습과정에서부터 평생학습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Gomes, 2020)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앙트로프리너십 교육을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고등교육수준이라고 한다(OECD, 2022).

강경란, 박철우(2022)에 의하면 Miller(1983)가 제안한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이 보편화된 앙트러프리너십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으며, 창조적 파괴와 신 결합의 혁신에 필요한 진취성이야말로 적극성을 수반한다.

심화된 경쟁사회에서 상대방에 앞서 적극적 선제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추진력과 실천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Hodgetts & Kuratko(2007)는 위험이란 무모한 위험감수 보다는 현 시점에서 적극 활용 가능한 제반 방법과 수단으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로서의 위험감수성을 의미한다.

혁신성은 앙트러프러너의 핵심요체로 새로운 시작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창의성을 동반한다.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는 미지의 세계와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고 열어가는 앙트러프러너십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Miller, 1983; Lumpkin & Dess, 1996).

이러한 앙트러프러너십의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속에 포함시키며,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습득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뱍슨 칼리지 및 텍사스 주립대 등에서 사업계획 작성대회를 통해 앙트러프러너적 기업가를 양성하고자 의도했던 1985년에는 앙트러프러너십 교육과정을 대학 내에 개설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2013년 기준 미국 4년제 대학과정의 60% 이상이 최소 한 개 이상의 앙트러프러너십 과목을 개설(Bygrave, Zacharakis, 2011) 할 정도였으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 대학마다 앙트러프러너십센터 등을 운영하며, 열린 교육과정도 활성화 되어 있다. 특히 유홍진(2020)에 의하면 미국 주(州)의 80%인 40개의 주에서 앙트러프러너십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유럽의 경우 다양한 스타트업 양성과정과 연계되어 활발히 진행중이며, 특히 독일의 경우 뮌헨공대 창업센터와 뮌헨응용과학대 앙트러프러너십센터, 뮌헨대학교 창업가 센터의 저먼 앙트러프러너십으로 구성된 뮌헨

혁신 생태계를 들 수 있다(이은서, 2021). 핀란드의 경우 창업 생태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알토대학교의 스타트업 사우나, 디자인 팩토리 등을 포함하여 앙트러프러너십을 교사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갖춘 헬싱키대학교, 직업학교 등의 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6).

OECD/IDB (2022)에 의하면 중남미 대학 11개를 통한 사례연구에서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이나 멕시코 아나후악 대학, 콜롬비아 ICESI 대학 등에서 모두 중남미의 가난과 빈곤을 극복하고 실천적 행동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와 리더로서의 앙트러프러너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필수 교육과정의 형태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인도의 경우는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이 주로 MBA과정과 같은 경영대학원 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Aggrawal, 2013), 이것은 2009년의 전 세계적 경기침체 이후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중요성이 확장됨에 기인한다. 젊은 앙트러프러너를 육성하기 위해 교사와 교육기관, 교사 양성기관은 앙트러프러너적 교사와 앙트러프러너적 교육 과정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조직 및 시스템’,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3)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메타버스를 기술적으로 정의하면 인터넷의 공간화를 의미하며, 서비스적으로 정의하면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불가능한 경험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다른 아바타와 실시간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2000년대 초 <세컨드 라이프>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싸이월드> 등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가 주목을 받았다. 2021년에는 COVID-19 상황과 익숙해진 비

대면 환경에서 <로블록스>, <제페토> 등이 인기를 끌었다. 메타버스는 앞으로 게임을 넘어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협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제신문, 2021).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앞으로 확산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교육을 메타버스를 활용해 이제는 시도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가령, 학생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이 과거에는 말이나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림이나 영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나아가 가상공간에서 구체적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허니원, 강주현, 이상수(2023)은 교육 현장에서 메타버스 교육의 장점으로 높은 학습 몰입도와 만족도,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다만 아직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여러 어려움도 존재했다. 가령 메타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메타버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비 보급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메타버스 교육을 수행하면 학생들의 메타버스 활용도는 굳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쉽게 접근한다. 또한 기업들 역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이 쉬운 많은 툴들을 제공한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경험과 사유의 확장에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교육이 메타버스와 앙트러프리너십을 결합한 교육이다. 강주현과 강명선(2023)은 초등학생들이 <로블록스>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상상도를 구현해내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나타내는 활동들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 연구 역시 학생들이 앙트러프리너십 교육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메타버스 앙트러프리너십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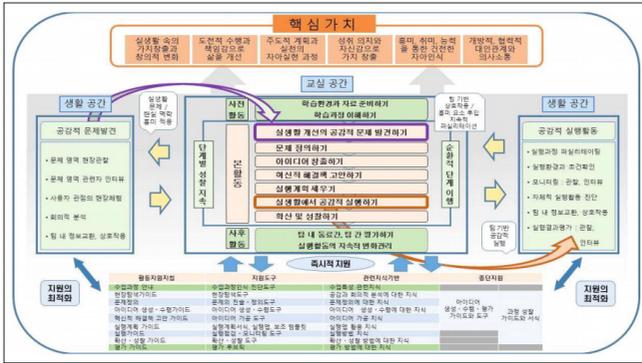
이 연구는 앙트러프리너십 교육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실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앙트러프리너십 교육 프로세스 중 구현 단계의 프로토타이핑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였다. 앙트러프리너십 교육 프로세스는 박수홍 등(2022)의 <기업가 정신을 넘어, 미래 사회의 혁신역량: 앙트러프리너십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문헌과 문영진(2019)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개발한 앙트러프리너십 교육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표 III-1]은 박수홍 외(2022)가 제안한 앙트러프리너십 역량 개발 프로세스이다.

[표 III-1] 앙트러프리너십 역량 개발 프로세스(박수홍 외, 2022)

역량 개발 단계		핵심 활동
		현상파악→본질확인→문제의식 추구→문제정의
I. 공감적 문제 발견	1. 공감적 문제 발견하기	1) 관찰 2) 인터뷰 3) 현장체험 * 대상자 범주 설정 / CATOWE 활용
	2. 파운데이션 팀 구성 및 팀빌딩	1) 커리어앵커를 활용한 팀 구성 2) 팀 빌딩 활동지 활용한 팀 빌딩 활동

II. 창의적 문제해결	3. 창의적 원인 분석하기	1) 충분한 논의 및 토의 -연화도법, 와이파이(WHY-Pie) 2) 발견한 문제의 원인 분석 - 어골도, 의사결정 그리드, stakeholder와의 만남
	4. 혁신적 솔루션 개발하기	1) 확산적 사고 촉진 도구 활용 - 익명그룹기법, ASIT 2) 혁신적 아이디어 선택 - 마인드맵, 기존 솔루션 피하기
	5.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하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하기
III. 구현	6. 실행계획 세우기	액션플랜 작성하기 1) 스케치
	7. 래피트 프로토타 이핑 작성하기	2) 페이퍼 프로토타입 3) 와이어 프레임 4) 스토리보드 5) 3D 프린팅
	8. 발표 및 피드백	1) 발표 2) 피드백 및 평가 3) 프로토타입 인터뷰
IV. 사회적 파급	9. 사회적 파급 이끌기	1) 크라우드 펀딩 2) 공모전, 경진대회 등

문영진(2019)이 개발한 초등학생 대상 앙트러프리너십 교육모형은 학생들이 실생활 공간에서 관찰하거나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감적 문제를 발견한다. 이후 학생들은 교실 공간에서 공감적 문제에 대한 정의, 해결 아이디어 산출, 혁신적 해결책 고안을 하고 실행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실생활 공간에서 그 해결책을 실행한 후 실행 활동을 진단하고 관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실행 결과를 평가한다.



[그림 1]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모형(문영진, 2019)

이 모형의 기본적 방향과 설계원리는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부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감적 문제발견, 문제의 원인 분석, 아이디어 산출, 해결책 창출, 실행 계획, 공감적 실행, 확산 및 성찰이라는 단계에 따라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의 초안을 구안하였다. 특히 기존의 교육 모형과 본 연구의 차별성은 도출된 해결책을 구현하는 단계에서 박수홍 외(2022)의 모형을 참고하여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과정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가상현실에 해결책을 구현해 보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즉, 기존의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과정에서 실현의 한계를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프로토타이핑은 실제 상황에서 실현하기 힘든 부분을 가상현실을 통해 제작이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이 프로그램의 수업 내용

이 수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미래의 변화상 가운데 하나인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미래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앙트러프러너십은 기업을 정신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혁신 역량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특히 창조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새로움, 도전, 혁신, 창의성, 협력 등의 키워드를 담고 있다.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은 우리 사회의 공감적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방법과 과학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며,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artifact, system, 일이나 직업까지 만들어내는 사회적 파급까지 이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를 수집한 수업현장은 B광역시 G구의 지역기반 특별활동으로 개설된 수업이었으며, 학생은 예비 중1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모집되었다. 수업을 운영한 교수자는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전문가, 메타버스 및 미디어 전문가로 구성되어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2023년 1월~2월 매주 토요일(설 연휴 제외) 오후 2시~4시에 진행되었다. 매 회기마다 1교시는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진행되었고, 2교시는 메타버스 관련 이론 및 실습으로 이어졌다.

일정	1교시	2교시
1회 (1/07)	소개 / 팀 빌딩	메타버스가 뭐예요?
2회 (1/14)	달라진 세상과 문제해결	메타버스 가입, 실행하기
3회 (1/28)	문제 발견하기	메타버스로 간단한 작품 만들기 1
4회 (2/04)	원인 분석하기	메타버스로 간단한 작품 만들기 2
5회 (2/11)	혁신적 해결책 찾기	메타버스로 사회문제 해결1
6회 (2/18)	해결책 구현하기	메타버스로 사회문제 해결2
7회 (2/25)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그림 2] 이 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수업내용

4. 연구결과

1) 메타버스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본 교육의 1회기 수업에서는 창의성(창의적 사고)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력을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특히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창의성을 예로 들며 창의적 사고에 대해 함께 고민을 했다. 창의적 사고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 해답이 많은 문제,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본 교육을 통해 누구나 창의적일 수 있다는 가치를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학생들 간 팀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앙트러프러너십 기반 교육이나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 과정에서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앙트러프러너십이란 실질적인 수행과 더불어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영향력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성과의 극대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팀 활동이 보다 유리하다(박수홍 외, 2022). 또한 팀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리 팀 목표, 팀 약속, 팀원의 task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하여 [그림 3]을 활용하여 팀 빌딩지를 작성한 후 각 조마다 3분 씩 발표를 했다. 팀 빌딩이후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을까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힘은 무엇일까요?”를 물으며 다음 시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 팀 빌딩 활동지		
〈팀 빌딩〉 20 년 월 일		
팀명		
팀 목표		
팀 약속		
팀 구조		
팀원 이름	할 일	참고

[그림 3] 팀 빌딩 활동지

2회기 수업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다각적으로 공부하며 의견을 교환한 후, 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앙트러프러너십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며,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했다. 미래 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발견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량이 필요하다. 즉, 미래 사회에는 혁신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적응해가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를 앙트러프러너라고 하며, 앙트러프러너는 쉽게 말해 혁신가=체인지메이커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앙트러프러너는 단순히 창의적이거나, 발명적인 차원을 넘어서 다수의 수혜자에게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말한다. 즉 앙트러프러너십이란 공감적 문제를 발견하고(empathetic problem)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구상(creativity), 실천(action)하고 구현(Invention)하여 사회적인 영향력(social impact)을 끼치

는 역량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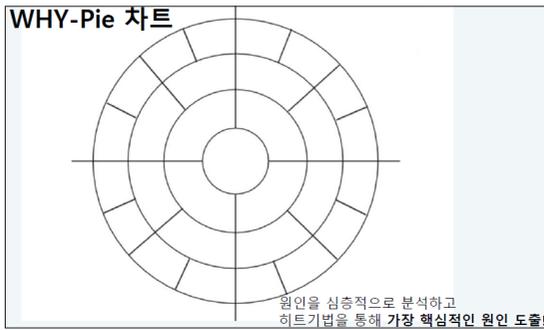
앙트러프러너십 수업은 미래사회의 필수적 역량인 앙트러프러너십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이며 크게 공감적 문제를 발견하기(1단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2단계), 그 결과나 성과를 실제로 구현하기(3단계), 사회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와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4단계)으로 설명하였다.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을 위한 문제탐색 1단계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을 위한 문제탐색 2단계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어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커서 직업을 택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 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변화입니다. 내용을 잘 읽고 내가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 미래 사회의 변화 예측			
내용	미래이러의 변화	사람들의 대응 방법	
1	의술이 발달하여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		
2	우주개발 시대가 활발해진다.		
3	바다에서 중요한 자원을 발견하고 얻는다.		
4	로봇이 대부분의 일인일을 대신한다.		
5	유전자 변형 식품이 상용된다.		
6	종이문서 대신에 디지털 방식의 서적이 온다.		
7	표리명신나 비영리단체 등 자유로운 직업, 직업을 이용하는 시대가 온다.		
8	친환경, 고효율 건물과 인프라도 많이 들어 온다.		
9	가상공간,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시대가 펼쳐진다.		
10	지구온난화의 심화로 인한 녹해현상, 대륙, 해수면 상승에 변화가 온다.		
11	인공지능이 늘어나 사람들이 고통을 얻는다.		
12	원세계적으로 여행의 자유가 신장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온다.		
13	세계의 화제가 통일된다.		
14	인공지능, 종교갈등, 핵위, 국가갈등 등이 심화되고 병발한다.		
2. 여러분은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림 4] 미래 사회 변화 탐색을 위한 활동지

3회기 수업에서는 공감적 문제 발견 시간을 가졌다. 앙트러프러너십은 단순히 창의적 사고의 발현을 넘어 현실의 상황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감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실천적인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감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회적 파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감적 문제 발견’은 앙트러프러너십 역량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돌아보며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문제의 범주를 넘어 교실 전체 학생들이 공감하는 공유된 문제를 발견하였다.

4회기 수업에서는 발견된 공감적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문제해결 교육에서의 맹점은 문제를 도출한 뒤 원인분석을 생략하고 바로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점이다. 원인분석을 생략하고 도출된 해결책은 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피상적 해결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해결책 도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심층적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교육에서는 “왜?” 라는 질문을 3번 이상 던지며 분석할 수 있는 [그림 5]과 같이 WHY-Pie 차트를 활용하였다.



[그림 5] 와이파이 차트

WHY-Pie 차트를 활용하여 분석을 마친 후에는 [그림 6]와 같이 HIT기법으로 투표를 했다. 즉, 한 아이디어에 한 사람 당 3표씩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그림 6] 와이파이 완성과 히트 기법

5회기 수업에서는 4회기 수업에서 확인한 원인에 대한 솔루션 도출을 시도하였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의도적 시험인 스캬퍼 기법(SCAMPER)을 소개하며 해결책을 고안하는 방법을 학습하였고, 이후 NGT(명목집단기법)를 활용하여 해결책을 실제로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①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포스트잇에 마음껏 브레인스토밍하기 ②비슷한 것끼리 유목화시키기 ③유목화 시킨 그룹별로 이름 붙이기 ④Hit 기법을 통해 우리 팀의 혁신적 솔루션을 확정하기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6회기 수업에서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실행하기 위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실시하였다.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개발 초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성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견본(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시 재설계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고안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안을 만들어 테스트하는 것이다. 프로토타이핑은 팀원과 고객 간의 아이디어와 소통을 돕고, 설계 중인 모델의 효과를 검증받음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프로토타입의 종류는 저수준/고수준 프로토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한 장의 종이 위에 아이디어 형태와 흐름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프로토타입이 있고, 보통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의 전 단계로 사용한다. 종이로 해당 제품과 서

비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실제 구현되는 것처럼 테스트하기도 한다. 평면적인 스케치와 달리 각 단계나 순간을 담은 여러 장의 종이 스케치를 움직여 실제구현 장면을 연출해 볼 수 있다.

본 교육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artifact를 만들기 전,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완성도 높은 artifact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도출한 솔루션을 실제 종이에 설계해보는 페이퍼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시간을 가졌다. 본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될 설계도로 활용되었다.

7회기 수업에서는 프로토타입 설계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상에서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교실에서 진행된 프로토타입 수업은 3D프린터나 와이어프레임 등을 활용하여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교실 상황 상 물적 자원의 한계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상현실에서 만들어보는 프로토타입은 학생들이 상상했던 해결책을 가상현실 상에서나마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회기의 2교시는 학생들이 로블록스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가상현실에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때 도구적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로블록스 플랫폼의 가입부터 간단한 제품 제작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여 6회기, 7회기 시 도출된 해결책 및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직접 수월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의 마무리는 서로의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의 핵심 내용은 ①우리 팀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②우리 팀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나요? ③메타버스로 만든 작품을 뽐내기로 이뤄졌다. A조는 와이파이기가 잘 통하지 않아 게임을 할 때와 유튜브를 볼 때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해결책으로는 집의 1층을 개방형으로 설계하고, 집안의 적절

한 곳에 공유기를 두 개 정도 설치를 해서 와이파이기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친환경적 기능을 통해 전기세도 많이 들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B조는 인테리어를 통해 와이파이 문제를 보완했다. 2층 거실에서는 공유기를 식탁 위에 설치해서 안테나처럼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안테나는 방에서도 와이파이기가 잘 터지도록 모양을 새로 설계하여 설치하였다. 또 하나는 패널을 설치해서 와이파이기가 두루두루 다 통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쉬운 점은 시간이 부족해 시간 안에 완성을 못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그림 7] 메타버스 앙트러프러너십 콘텐츠 제작 발표

2) 메타버스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의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강의 만족도 문항은 일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실행 후 실행되는 강의 만족도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하였다. 강의 만족도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교육의 구성 5문항, 역량개발 3문항, 교육 참여 및 전이 2문항으로 총 11문항을 분석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점, 교육의 구성은 4.1, 역량개발은 4.17, 교육 참여 및 전이는 4.17로 높은 만족도를 나

타내었다. 각 만족도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Ⅳ-1]와 같다.

[표 Ⅳ-1]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 만족도 설문 결과

	설문	결과	
		M	SD
	본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를 표시해주시시오.	4.00	0.82
교육의 구성	① 이번 교육은 각각의 수업과 활동이 잘 진행되었다.	3.67	0.47
	② 이번 교육은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였다.	4.00	0.58
	③ 이번 교육은 이해하기 쉬웠다.	4.50	0.50
	④ 이번 교육을 통해 나의 메타버스 기반 창의적 문제해결 역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4.17	0.37
	⑤ 이번 교육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4.17	0.37
	⑥ 이번 교육을 통해 나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이 향상되 었다.	3.83	0.90
역량 개발	⑦ 이번 교육을 통해 나의 메타버스 이해 및 제작 역량이 향상되었다.	4.50	0.50
	⑧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과 메타버스에 관 련한 공부와 활동에 더 흥미가 생기고 하고 싶어졌다.	4.17	0.37
교육 참여 및 전이	⑨ 이번 교육에 사용된 수업 중에 활동들과 수업활동지가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00	0.00
	⑩ 이번 교육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3	0.47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4.00으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구성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교육이 이해하기 쉬웠으며, 메타버스 기반 창의적 문제해결역이 향상되었고, 수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본 결과 통해 본 교육이 학습자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교육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역량개발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은 본 교육을 통하여 메타버스 이해 및 제작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과 메타버스에 관련한 공부와 활동에 더 흥미가 생기고 하고 싶어졌다고 답변하였다. 본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생들의 메타버스 및 창의적 문제해결

에 관련된 학습 동기 및 학습 흥미가 제고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교육 참여 및 전이 부분에서 결과를 살펴보면 본 수업에 활용된 활동들과 수업 활동지가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이번 교육이 앞으로 살아갈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답변하였다. 교육은 교실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실제 현실 상황에 전이될 때 그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교육은 학습자들의 학습전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양적인 만족도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간단한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중학생인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고, 교육학에서 성찰일지 문항으로 널리 쓰이는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의 [표Ⅳ-2]와 같다.

[표Ⅳ-2] 교육 프로그램의 성찰일지 문항

성찰일지 문항
1. 이번 교육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교육에서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 내가 실천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학생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앙트러프러너라는 단어와 뜻을 알게 되었고, why-pie라는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도 배웠다. 또 로블록스를 조작하는 간단한 방법과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도 새로 배웠다. <6번 학생의 강의 성찰일지 중 배운 점>

메타버스에 대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문제 해결하기, 원인 발견하기 등을 배웠다.

<2번 학생의 강의 성찰일지 중 배운 점>

문제해결을 자유롭게 해서 좋았고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

<1번 학생의 강의 성찰일지 중 느낀 점>

좋았던 점은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워 좋다는 점, 로블록스 조작방법을 알았다는 점이고, 아쉬웠던 점은 인원이 많이 못 온게 아쉬웠다.

<6번 학생의 강의 성찰일지 중 느낀 점>

문제발견과 해결방안 등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순서를 실천하고 메타버스 문제에 관심을 둘 것이다.

<1번 학생의 강의 성찰일지 중 실천할 점>

메타버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볼 것이다.

<2번 학생의 강의 성찰일지 중 실천할 점>

게임도 만들어보고 이런 체험을 더 해보며 창의성을 기를 것이다.

<3번 학생의 강의 성찰일지 중 실천할 점>

또 앞으로 로블록스 만들 일이 생기면 만들어 볼 것이고 메타버스를 또 배운다면 배운 단어들을 기억해 볼 것이다.

<6번 학생의 강의 성찰일지 중 실천할 점>

본 결과를 통해 메타버스를 접목한 앙트러프러너십 기반의 문제 해결 콘텐츠 제작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책을 생각하고 실제로 가상현실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업 과정에서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의 한계점을 가상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은 메타버스 조작 실습 및 앙트러프러너십 결과물을 메타버스를 통해 구현해봄으로써 최신 과학 기술을 경험하고 자기주도성을 획득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대해 습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찰일지의 실천할 점을 통해 학생들이 메타버스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습득하였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제해결방법 및 메타버스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며 동기 및 자신감을 획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팀 기반 학습을 통한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을 활용한 문제해결 과정 교육의 본 연구 결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 프로그램의 한 방법으로 단발성의 지역기반 교육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의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5. 결론 및 논의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단순히 잘 찍은 영상이나 편집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공의 열쇠는 적절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현하는 데 있다. 기술적인 발전은 더욱 편리하고 쉽게 만들어주지만, 진정한 성공은 아이디어와 수용자를 연결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현재는 기술적인 측면이 조금 복잡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선도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과제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경쟁이다.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보장된 열린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성공적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카메라 기술, 영상 편집 등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적이며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좋은 콘텐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의 콘텐츠는 결국 그러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만나 기술적으로 포장되고 활용될 수 있다. 성공의 가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기술을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것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경쟁이라 할 수

있다.

메타버스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이들 기술을 활용한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어려울지 모르나 조금만 배우고 실제 이용해보면 쉽게 적응하고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용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것이 콘텐츠 교육이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어떻게 콘텐츠를 교육을 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는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연구는 메타버스와 앙트러프러너십을 접목하여 메타버스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찰하고 분석했다.

앙트러프러너십 프로세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1) 공감적 문제 발견 2) 해결책 찾기 3) 구현 4) 사회적 파급 과정이다. 우리 수업에 적용하면 메타버스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가령, 해양 오염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는 것을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하고 어떻게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다. 과정은 단순한데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수업 현장의 준비와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수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구성이나, 학생들이 메타버스 상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 지 그 방향성을 고민하게 해 줄 수 있다. 메타버스 콘텐츠는 옷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고, 유명 관광지를 만들 수도 있고, 게임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앙트러프러너십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공감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을 메타버스를 활용해 구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직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진로 교육에서도 메타버스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는 아이들에게 기존의 직장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영역에 신기술을 활용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상상하고 만들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의 진로 교육 접근이 필요한 이 때, 메타버스라는 신기술과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접근 모델은 새로운 진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공감적 문제 발견, 문제 원인 분석, 해결책을 찾은 후, 메타버스 상에서 프로토타입을 직접 만드는 구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게임으로만 알고 있던 로블록스에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에 가치를 느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수업 과정에서 페이퍼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의 한계점을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직접 만들며 구현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발전방향은 무궁무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은 실제 현실 상황에서 다루기 어려운 교육내용의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기초 연구로서 지역기반의 단발성의 교육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의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경란·박철우, 「머니러시, 앙트러프러너십과 창업기회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권 5호,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 105-115쪽.
- 강주현·강명선,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활용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초등학교의 공감적 문제 발견과 창의적 해법 교육」,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40권 3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23, 5-47쪽.
- 문영진, 「초등진로교육을 위한 디자인 씽킹 기반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모형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박노일·정지연·홍다예, 「메타버스(Metaverse) 이용과 사회자본 형성: 사회적 실재감과 사회적 지지 및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6권 5호, 한국방송학회, 83-121쪽.
- 박수홍·조영재·문영진·김미호·김효정·배진호·오동주·배유나, 『앙트러프러너십 어떻게 키울까』, 학지사, 2002.
- 박해임·이주혁, 『기업교육론』, 화신대학교 출판부, 2017.
- 유홍진, “사회혁신 위한 상생의 기업가정신은 왜 필요할까요?”, <전북중앙>, 2020.08.25.
- 윤현중, 「기업가적 지향성에 대한 이론적 동향 연구」, 『벤처창업연구』 10권 5호, 한국벤처창업학회, 45-62쪽.
- 이은서, “[유럽스타트업열전] ‘맥주보다 창업’ 뮌헨의 스타트업 생태계”, <비즈니스한국>, 2021.07.12.
- 이재강·박태경, 「국내 사내기업가정신 연구 현황과 향후 연구 방향」, 『전략경영연구』 20권 2호, 한국전략경영학회, 1-25쪽.
- 이종한·뤄나, 「메타버스 게임에서의 사용자 참여도 향상 전략 연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로블록스>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9권 2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3, 146-171쪽.

- 이주연·박태경, 「사내 기업가 정신의 선행요인과 성과: 발견이론과 창조 이론 관점」, 『경영학연구』 44권 5호, 한국경영학회, 1-25쪽.
- 이춘우·한유진·김도현·서유미·이경원·이희우·이영달, 『기업가 정신의 이해』, 중소기업청·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4.
- 임은천, 「앙트러프러너십과 기업성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장수덕,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차이: 기업수준에서의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4권 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49-73쪽.
- 중소벤처24, 「창의인재 발굴의 해답, 핀란드의 기업가정신 교육」, 『제3회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해외연수 사례집』,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7.
- 한국경제신문 특별 취재단(한경MOOK), 『한경무크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메타버스 2022』, 한국경제신문, 2021.
- 허나원·강주현·이상수,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27권 5호,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23, 434-451쪽.
- Aggrwal, A., Scope of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 India [Web log post]. Retrieved from <http://courseblogentrepreneurship.blogspot.in/2013/03/articlescopeofentrepreneurship.html>, 2013.
- Bessant, J. R.·Tidd, J.,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3rd ed.), Chichester: Wiley, 2015.
- Bygrave, W·Zacharakis, A.·이민화 저, 이현숙 역,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 Wiley & Sons(한국: 동서미디어), 2013.
- Covin, J. G·Lumpkin, G. T.,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ory and Research: Reflections on a Needed Construc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5, no. 5, Sage Journals, 2011, pp.855-872.

- Covin, J. G.·Slevin, D. P.,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0, no. 1, WILEY, 1989, pp.75-87.
- Dollinger, Marc J., *Entrepreneurship: Strategy and Resources*, New york: Marsh Publications, 2007.
- Gomes, I., O que faz mover o Empreendedorismo Senior: processo e fatores de influencia, ISCTE, Lisbon, Portugal, <https://www.iscte-iul.pt/thesis/11464>, 2020.
- Hodgetts, R. M.·Kuratko, D. F., *Wiley Pathways Small Business Management*. John Wiley & Sons, 2007.
- Johnson, G., *Roblox game development in 24 hours: the official roblox guide, 1st edition*, ROBLOX, 2002.; 이진오 역, 『로블록스 개발 첫 발자국 떼기』, 에이콘출판사, 2022.
- Knapp, J.·Zeratsky, J.·Kowitz, B. 저, 박우정 역, *Sprint: How to Solve Big Problems and Test New Ideas in Just Five Days*(스프린트), Simon & Schuster(한국: 김영사), 2016.
- Kreiser, P. M.·Marino, L. D.·Weaver, K. M., “Assess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cale: A Multi-Country Analysi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26, no. 4, Sage Journals, 2002, pp.71-94.
- Lumpkin, G. T.·Dess, G. G.,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 1, JSTOR, 1996, pp.135-172.
- Manish K. G.·Sunil K. S.,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Shaikshik Parisamvad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vol. 5, no. 1, ResearchGate, 2015, pp.21-35.

- Miller, D., “Revisited: A reflection on EO research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5, no. 5, Sage Journals, 1983b, pp.873-894.
- Miller, D.,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vol. 29, no. 7, JSTOR, 1983a, pp.770-791.
- OECD/IDB,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in Latin America*, OECD Skills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2022.
- ROBLOX 저, 이진오 역, 『로블록스 개발 첫 발자국 떼기』, 에이콘출판사, 2022.
- Saraiva, P., *Empreendedorismo: do conceito à aplicação, da ideia ao negocio, da tecnologia ao valor*, <https://doi.org/10.14195/978-989-26-0991-1>, 2016.
- Schumpeter, J.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VA: Wilder Publications, 2012.
- Schumpeter, J. A. 저, 박영호 역, *경제발전의 이론: 기업가 이윤, 자본, 신용, 이자,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 박영출판사, 2006.
-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Currency, 2017.
- Smart, J., Cascio, J., Paffendorf, J., *Metaverse roadmap overview: Pathways to the 3D web*, CA: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https://www.metaverseroadmap.accelerating.org/MetaverseRoadmapOverview.pdf>, 2007.
- Zahra, S. A., Nielsen, A. P., Bogner, W. C., “Corporate Entrepreneurship, Knowledge, and Competence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23, no. 3, Sage Journals, 1999, pp.169-189.
- Zahra, S. A.,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growth*. MA:

Edward Elgar, 2005.

참고 사이트

<https://doi.org/10.1787/ca45d22a-en>.

두산백과-두피디아, “조선업”,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9089, 2024.01.19.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했다. 문제 해결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인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공감적 문제 발견, 문제 원인 분석, 해결책 찾기 후 프로토타이핑 방법으로 메타버스 상에서 실제 해결책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게임으로만 알고 있던 로블록스에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상상하던 문제 해결책을 가상현실 상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현실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 교육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문제해결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메타버스, 로블록스,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문제해결 교육

■ Abstract

A Case Study on Problem Solving Content Production Education Based on Entrepreneurship using Virtual Reality Platform <ROBLOX>

Bae, Yuna·Kang, Ju Hyun·Lee, Ju hyuk
/ Pusan National University·Pusan National University
·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provided metaverse content produc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Specifically, the process of discovering empathy, analysis of problem analysis, finding solutions, and metaverse by applying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training process. The students were interested in the metaverse platform Roblox and actively participated. And it was amazing that Roblox, who only knew it as a game, could implement a problem solving idea. The training program showed that it was possible to produce the problem -solving solution contents that students imagined using Roblox. We look forward to seeing more content education that can be used as metaverse by developing more programs like this.

Keyword • Metaverse, Roblox,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blem solving education

교육과정의 계속성을 고려한 글쓰기 상담 개선 방안 연구

성은혜*

목 차

1. 들어가며
2. 글쓰기 교육에서 계속성의 특징과 요소
3. 계속성의 관점에서 글쓰기 상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 개선 방안
5. 나오며

1. 들어가며

현대는 SNS나 Youtube 등 다양한 매체와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인간 고유의 창의적 사고와 표현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표현 능력을 대표하는 ‘쓰기’는 ‘읽기’, ‘듣기’ 등의 이해 활동과 ‘말하기’ 활동을 전제로 언어기능 전반에 작용하는 활동이기에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재 글쓰기 교육은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 혹은 기초 교양 수업으로

*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5101)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학년에서는 관련 교과목이 거의 없어 지속적인 실력 향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글쓰기 수업에서의 학습 내용이나 글쓰기 경험 및 지도를 보완하는 글쓰기센터와 상담 프로그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글쓰기 상담은 수업에서 이루어진 과정중심 작문 지도가 아니라, 완성된 글에 대한 결과중심 지도로 고착화되었고 첨삭지도는 글쓰기센터의 역할을 일회적이면서도 단순한 교정 역할로 제한하였다.¹⁾

지금까지 글쓰기센터 및 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의는 국외와 국내로 구분되어 실질적인 운용 방식 및 프로그램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국외의 연구는 미국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주로 글쓰기 강의와 글쓰기센터의 운영 방식, 프로그램 등의 분석 사례를 소개하였다.²⁾ 이들 연구는 미국 대학 중에서 활성화된 센터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 제도, 학교의 지원 및 상담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우리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 제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대학의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해당 대학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 임선애는 미국 대학의 글쓰기센터를 참고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자료를 게시하고 타 대학이나 기관과 교류할 것을 제안하였

1) 글쓰기센터의 역할은 글쓰기 수업 운영, 수업 보조,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상담(튜터링 등) 등으로 구분되나, 이 논문에서는 글쓰기 상담(튜터링 등)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어사전의 의미를 차용하여 '상담'은 글쓰기 전(全)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련된 의논을, '첨삭' 및 '교정'은 글 차원에서의 삭제와 수정 즉, 어휘와 문장 차원을 고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2) 관련 논의는 변지선, 2016; 임선애, 2017; 김민희, 2020; 박병철 2020 등이 있다.

다.³⁾ 손민달은 글쓰기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징을 동국대, 계명대, 서강대, 조선대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특징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의 일회성을 비판하였다.⁴⁾ 진선정은 한남대학교의 ‘글쓰기 상담교실’ 사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회적이고 결과중심 지도에 치중된 점을 비판하고 과정중심 지도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⁵⁾ 지현배는 온라인 클리닉 시스템에서 교정중심의 침삭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메타적인 전략과 개요 차원에서의 조언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⁶⁾ 선행 연구는 모두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문가가 부족하고, 일회적이며, 결과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글쓰기 상담의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문헌 고찰과 사례 및 비교연구를 통해 1학년 이후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정의 계속성(continuity)을 기반으로, 대학교에서의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프로그램의 사례를 활용하여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은 글쓰기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의 측면에서 수업 수강 이후, 고학년에까지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임선애,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의 현황과 과제」, 『리터러시 연구』 21권 2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4) 손민달, 「대학 글쓰기센터 비교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리터러시 연구』 10권 5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

5) 진선정, 「한남대학교 ‘글쓰기 상담교실’의 운영 현황과 과제」, 『리터러시 연구』 10권 4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

6) 지현배, 「온라인 클리닉 시스템을 활용한 침삭지도의 전략」, 『교양교육연구』 11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 글쓰기 교육에서 계속성의 특징과 요소

1) 계속성의 원리

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내용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한 것이다. 타일러(Tyler)의 교육과정 모형과 원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친 고전적인 모형이다.⁷⁾ 타일러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습경험의 조직 원리로,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을 제시하였는데, ‘계속성’이란 교육과정의 종적(縱的) 조직에 관계되는 원칙으로서, 한 가지 교육내용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단절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동일한 교육내용이 계속적으로 더욱 심화되어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인간의 행위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다. 어떤 학습경험이든지 그것 하나만으로는 학습자에게 깊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고, 행동, 태도, 흥미 등에 대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된다. …… 따라서 오랫동안의 교육적 경험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학습자에게 변화가 나타난다.

- Tyler 저, 이해명 역, 1987, 76쪽.

위 인용문은 교육이 학습자의 누적된 경험이라는 점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며 학습자에게 의도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이 축적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이때 반복적,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내용이자 학습요소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단편적 사실’이나 ‘사실적 지식’보다는 교과목의 핵심적 아이디어, 기본주제, 사고방식, 또는 인지적 기술 등의 ‘일반적이고 고차원적인 수준의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다.⁹⁾

7) 김대현, 『교육과정의 이해』, 학지사, 2011, 81쪽.

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9) 황규호,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방안」, 『국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방안』, 한

2) 글쓰기 교육에서의 연속성

모든 배움에는 반복적인 경험이 중요하지만, 사고력과 표현 능력이 핵심인 글쓰기에서는 특히 반복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쓰기를 위한 개념이나 능력이 반복되도록 교육과정을 조직해야 한다.¹⁰⁾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는 글쓰기를 한두 학기에 걸쳐 이수한 후에 심화할 수 있는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업을 수강하면서 몇 번, 혹은 몇 장르의 쓰기로 실력을 향상하거나 남은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글쓰기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버드 대학교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정리한 리처드(Richard)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1학년 때보다는 3~4학년 때 글쓰기 강의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며, 많은 분량의 보고서나 논문을 준비하면서 글쓰기 실력 향상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하다고 한다.¹¹⁾ 따라서 글쓰기 교육은 대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1학년 때도 필요하지만, 글을 많이 써야 하는 고학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미국의 대학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전공과 연계한 글쓰기 교육을 심화하고 있다. 글쓰기 교과목을 최소 1~2과목에서 많게는 5~6과목까지 이수하게 하면서 고학년이 될 때까지 4년간 반복,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²⁾

[표 1] 미국 대학교의 글쓰기의 연속성 예시

대학교 명	1~2학년	3~4학년
하버드	세미나식의 읽기-말하기 글쓰기 통합	전공 연계 글쓰기

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과제 ORM 2013-3, 2013, 34쪽.

10) 강현석·주동범, 『현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학지사, 2009, 97쪽.

11) Light-Richard J.저, 장선하 역, 『하버드 1교시: 자기 표현력의 힘』, 힘찬북스, 2019, 92-93쪽.

12) 박병철, 「미국 대학의 글쓰기 교육 현황과 그 시사점」, 『교양교육연구』 14월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212-213쪽.

MIT	보고서 제출 및 발표를 포함한 글쓰기와 말하기 연계	전공 연계 글쓰기
스탠포드	글쓰기 방법, 연구 에세이 쓰기 및 연구논문, 구술발표	전공 연계 글쓰기
예일	학술적 글쓰기	전공 연계 글쓰기
미네소타	기초 글쓰기	전공 연계 글쓰기
버지니아	문해력	전공 연계 글쓰기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글쓰기 교육과정은 대학별로 수립되고 있기에 공통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보다 작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교육과정(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참고하고자 한다. 그중에서 ‘대학과 직무 준비 핵심 기준’(‘College & Career Readiness Anchor Standard’)은 [표 2]와 같다.¹³⁾ 교육과정의 핵심은 장르적 특징에 맞는 쓰기, 쓰기 과정과 기술(전략), 일상적 쓰기 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 미국 교육과정(CCSS)의 ‘대학과 직무 준비 핵심 기준(CCR)의 항목

텍스트의 형태와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 있는 근거와 이유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화제나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쟁적인 글을 쓴다. 내용의 효과적인 선택, 조직, 분석을 통하여 복잡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정보적/설명적 텍스트를 쓴다. 효과적인 기술, 잘 선택된 정보들, 잘 선택된 구조화된 사건들을 사용하여 현실적이거나 상상적인 경험이나 사건들을 발전시키는 서사물을 쓴다.
쓰기의 생산과 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개, 조직, 스타일 등이 과제, 목적, 청중에 적합하도록 명료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쓴다. 계획하기, 수정하기, 편집하기, 고쳐쓰기 혹은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해서 쓰기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킨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쓰기를 생산하고 출판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쓰기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목적, 청중들의 범위를 고려해서 조사, 숙고, 수정과 같은 장기적인 활동과 앉은 자리에서 혹은 하루 이틀 동안의 단기적인 글쓰기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교재 구성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표 3]에

13) 이순영, 「21세기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육』 43호,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20쪽.

서 알 수 있듯이 ‘글쓰기 과정(단계, 절차)과 방법’, ‘장르, 유형별 쓰기’, ‘쓰기 활동의 반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¹⁴⁾

[표 3]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 상위 10위 대학의 글쓰기 교재 구성(가나다순)

대학교	교재명	구성	
경희대	성찰과 표현 (2019)	1. 글쓰기 ‘예비학교’ 3. 글쓰기의 최소 원칙과 5단락 글쓰기	2. 관계의 (재)발견 4. 비판적 성찰
서울대	대학 글쓰기 (2019)	1. 대학 생활과 글쓰기 3. 글쓰기의 방법	2. 글쓰기의 과정 4. 글쓰기의 실제
성균관대	학술적 글쓰기 (2021)	1.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 3. 자료 활용과 학습 윤리	2. 단계별 글쓰기 프로그램
연세대	생각하고 소통하는 글쓰기(2018)	1. 쓰기의 의미 3. 쓰기의 과정	2. 쓰기를 위한 읽기 4. 다양한 글쓰기
이화여대	통합적 사고와 글쓰기 (2020)	1. 성찰적 글쓰기 3. 논리적 글쓰기 5. 읽기의 의미와 방법론 7. 창의적 읽기	2. 소통적 글쓰기 4. 실용적 글쓰기 6. 분석적 읽기
중앙대	글쓰기책 (2020)	1. 소통과 창조를 위한 글쓰기 3. 유형별 글쓰기 활동의 이론과 실제	2. 단계별 글쓰기의 과정과 방법 4. 학술 논문 글쓰기
한양대	글이 삶이다 (2017)	1. 글쓰기 절차와 방식	2. 글쓰기의 실제

계속성의 교육내용이 일반적이고 고차원적인 수준의 지식이라는 점과 CCSS와 교재의 공통 교육과정을 참고할 때, 글쓰기 교육에서의 계속성은 ‘쓰기 과정의 전략적 측면’, ‘장르와 형식의 지식적 측면’, ‘반복된 쓰기의 경험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쓰기 과정의 전략적 측면’에서의 계속성은 과정중심의 쓰기 연습을 통한 메타적 전략의 수립과 이에 대한 반복을 의미한다. 신입생들은 체계적인 작문 과정을 학습하고 글을 써 본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글

14) 10위에 속한 대학 중에서 출간 연도가 오래되어 현재 교재로 사용하는지 불분명한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는 조사 목록에서 배제하였다(2017년 이후 출간 교재를 기준으로 함).

쓰기가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친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접하고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메타 인지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 과정중심 지도는 학생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사고, 정보처리, 전략 수립에 관심을 가지고 글쓰기의 과정마다 활용할 수 있는 메타 전략과 이에 대한 수행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르와 형식의 지식적 측면’에서의 계속성은 글을 쓸 때 관습적으로 익히는 장르의 특징과 글의 형식적 요소에 대한 반복을 의미한다. 대학의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글의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여 주제를 잘못 선정하거나 구성 단계(서론-본론-결론) 등에서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¹⁵⁾ 또한, 내용 구성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어휘, 문장, 문단 등 형식적이고 문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쓰는 글의 장르와 양식, 구성에 대한 지식을 반복하여 익히는 것은 글쓰기에서 필수적이다. 장르중심으로 글쓰기를 지도한다는 것은 학생필자들이 특정 장르의 내용, 주제적인 특징, 형식이나 단어, 문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셋째, ‘반복된 쓰기의 경험적 측면’에서의 계속성은 글을 쓰는 경험 자체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실력이 향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쓰기 경험을 반복한다는 것은 쓰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며, 과정 자체를 통한 반복 행위로 글쓰기를 이해하는 것이다.¹⁷⁾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

15) 광상순, 「서강대학교 글쓰기센터의 운영 현황과 과제」, 『리터러시 연구』 10권 2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 84쪽.

16) 박영민 외, 『작문 교육론』, 역락, 2016, 315-318쪽.

17) 임선애, 「대학 글쓰기 선진화 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리터러시 연구』 1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6, 43쪽.

여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글쓰기의 특징이나 문제점, 개선점을 파악하고 부단히 글을 쓰는 과정을 거쳐야 글쓰기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글을 쓰는 경험 자체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이 줄어들고 과제의 취지나 목적, 장르에 부합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계속성의 요소를 고려하여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문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제, 장르에 대한 글쓰기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때, 글에 대한 자기성찰,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완성도 높은 글쓰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성장하는 쓰기 경험을 위해서는 수업을 통한 담당 교수자의 지도나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가의 도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3. 계속성의 관점에서 글쓰기 상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글쓰기센터는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과 글쓰기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0년을 전후로 교육부의 학부 선진화 사업,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설립, 확대되었기에,¹⁸⁾ 내부적인 필요성과 운영의 자율성보다는 성과를 지향하는 면이 있다. 이때의 성과는 가시적인 결과물로서 상담 건수,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규모 등이 반영되는데, 이로 인해 상담의 질적 측면이나 글쓰기 교육에서의 연속성은 위협받게 되었다.

계속성을 고려한 글쓰기 교육과정은 글쓰기 실력 향상에 중요하지만, 1학년 이후의 심화 글쓰기 수업 및 전공 연계 글쓰기의 개설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발전적인 글쓰기 경험을 제공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이다.

18) 손민달, 앞의 논문, 147쪽.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의 계속성(‘쓰기 과정의 전략적 측면’, ‘장르와 형식의 지식적 측면’, ‘반복된 쓰기의 경험적 측면’)의 관점에서 글쓰기 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현황 및 문제점의 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의 통계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되, 다른 대학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일반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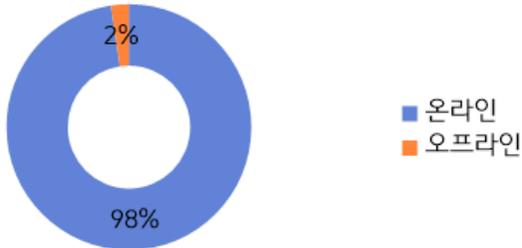
강원도 소재의 Y 대학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 교과인 <글쓰기>(3학점)가 개설되어 있고,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해에 평균 500~700명의 학생이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담은 <글쓰기>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이 자원하여 담당한다. 상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한 학기에 5회로 상담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23년에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한 550명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온라인 상담 방식 선호

Y 대학교의 상담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지며, 상담을 신청하는 절차는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온라인 상담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온라인 상담 방식의 선호 현상은 다른 대학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⁹⁾ 온라인 상담 방법은 접근성이나 보관, 자료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대면 상담을 진행할 교강사, 상담사의 부족 문제와는 별개로 학생들의 선호도나 편리성의 경향이기에 온라인 방

19) 김치현은 온라인, 이메일 방식을 제거하고 100% 대면 상담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효과적인 글쓰기 클리닉 운영 방안 연구』, 『사고와 표현』 6권 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3, 78-79쪽.), 학교의 공간, 전문 인력, 예산 확보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온라인 글쓰기센터나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학교들이 많은 실정이다. 온라인 상담의 추이는 한남대(진선정, 2019), 조선대(김미령, 2019), 전남대(염민호 외, 2014)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식에서의 지도 방안과 효율적인 상담 운영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상담 방법의 비율(2023년, 550건)

온라인 상담은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운 제한점으로 인해, 대면 상담 방식에 비해 학생들이 어떠한 점에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지, 글쓰기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대부분은 작성한 글을 탑재하고 장르, 과제의 성격,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구체적인 요청이 없어 어떠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파악이 어려울 때도 있다. 이로 인해 내담자의 요청을 잘못 파악하여 원하는 피드백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담이 주로 글과 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기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rapport) 형성이 어려워 글의 장르에 따라 상담이 제한적이거나 고민 표출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²⁰⁾ 학생이 글쓰기 과정에 대한 어려움이나 자신의 실력 등에 대한 상담을 글로, 유대관계가 없는 상담자에게 상세하게 털어놓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온라인에서의 상담은 상호, 즉각적인 소통이 어렵고, 유대관계가 부족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에 결과중심의 침착이 더욱 강화될 수

20) ‘상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에서 튜터, 멘토, 교수자 등의 용어를 ‘상담자’로, 튜터, 멘티, 학생필자 등의 용어를 ‘내담자’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밖에 없다.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소통 부재로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심화될 수 있다.

2) 결과중심의 일회성 첨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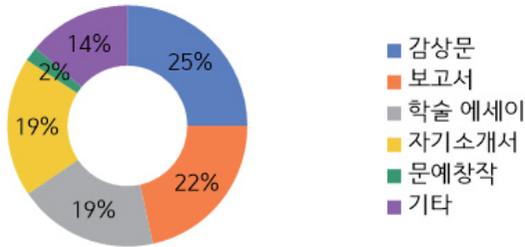
글쓰기 상담의 대다수는 결과물에 대한 교정 수준의 첨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중심의 지도는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작성된 글이라는 점에서 주제나 구성 등의 수정과 조언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글의 형식과 문장 차원에서만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극소수이고, 장르나 과제의 취지에 맞는 주제 선정이나 글의 구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다. 그러나 이미 완성된 글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수정하라는 조언을 하기 어렵다. 즉, 글쓰기 상담이 과정이 아닌, 결과물일수록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교정 및 첨삭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작성한 글이나 상담 프로그램들은 일회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글쓰기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글에 대한 지도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교정 및 첨삭이 중심이기에 일회적인 상담으로 끝나며 같은 글에 대한 상담이 2번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²¹⁾ 이러한 결과중심의 첨삭, 일회성 프로그램의 운영은 과정중심의 글쓰기 방법을 반복적으로 익히고 장르에 대한 관습적 지식을 쌓아나가는 글쓰기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단순한 교정이나 첨삭 등의 결과중심 지도보다는 과정에 대한 지도가 기존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1) 연구자가 상담을 맡았던 경우도 같은 글을 2번 이상 의뢰한 경우는 1% 미만으로 대부분은 한 회에 걸쳐 상담을 받으면 마무리가 되었다.

3) 장르와 형식에 대한 이해 부족

상담을 요청한 장르는 <글쓰기> 수업에서의 과제물인 감상문 혹은 비평적(에세이) 글쓰기, 보고서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운문, 산문, 문예 창작과 취업 및 장학금 수령 등의 목적을 위한 자기소개서 등의 다양한 장르가 있었다.



[그림 2] 상담 신청한 글의 장르 분포(2023년, 550건)

한두 편의 글쓰기나 관련 수업 이수만으로 장르나 형식의 요건에 부합하는 글을 작성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감상문으로 신청하면서 신청 내용에는 자신의 주장이나 관점이 논리적인지, 설득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달라거나 반대로, 비평적 에세이를 썼다면서 줄거리나 감상을 위주로 작성한 글도 보게 된다. 또한, 학술 에세이를 작성하였으나 정보 탐색과 정리가 중심이 된 글도 많다. 이것은 학생들이 장르에 대해 막연하게는 알고 있으나, 대학에서 작성하는 글의 장르적 지식에는 취약함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한 학기의 수업만으로 다양한 장르의 글을 모두 작성해 볼 수 없기에 다른 교과목이나 자발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장르를 경험하고 그 특징에 맞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특히, 전공 및 다른 교양 수업에서의 과제물에는 장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필자가 과제의 성격이나 취지를 파악하여 장르를 특정해야 할 때가 있기에 장르와

형식에 대한 지식은 더욱 중요하다.

4) 글쓰기 교과 연계 과제물

글쓰기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주로 1학년으로, 과제물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기초 교양으로 개설된 <글쓰기> 교과 내에서의 과제와 연계된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²²⁾ 분명, 1학년 때 기초 교양으로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면서 상담을 경험했으나 고학년이 되어 글쓰기가 어려워짐에도 전공 교과와 관련한 글쓰기 상담 요청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리처드의 연구에 의하면, 356명의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졸업생들, 교수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공통으로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²³⁾ 이 중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성장과 관련하여 심화 교육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분야로 대부분이 글쓰기를 꼽았다고 한다. 이처럼 교수들은 학업과 업무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력이 대학교에서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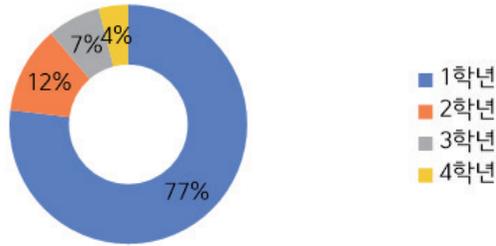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수들도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상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다수 학생은 교수자가 의무 혹은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글의 완성도와 관련한 평가 기준을 제시할 때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1학년 때, <글쓰기> 교과목의 교수자가 이용을 권하거나 과제물에 대한 상담을 강제할 때는 상담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높지만 이후 고학년의

22) 한남대학교 글쓰기 상담교실을 분석한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진선정, 앞의 논문)

23) Light·Richard J. 저, 장선하 역, 앞의 책, 87-89쪽.

24) 조선대학교에서 교수자 100명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글쓰기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에 77.8%가 긍정적으로, 글쓰기센터의 역할로는 80.3%가 글쓰기 피드백이라고 응답했다(김미령,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성과 및 과제-조선대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와표현』 12권 3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9, 143쪽.).

자발적인 이용이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그림 3] 상담 프로그램 활용 학생들의 학년 분포(2023년, 550건)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글쓰기 교과목에서는 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 요소도 제시하지만, 다른 교양이나 전공 교과목에서는 글의 구조나 내용, 형식적인 요소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작성한 보고서 등의 과제는 교수자의 피드백 없이 한 학기의 종합 결과인 학점으로만 반영된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아이디어나 주제가 좋은지, 자신이 쓴 글이 좋은 글인지, 의미가 잘 전달되는지, 형식적 요소는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과제로서의 글쓰기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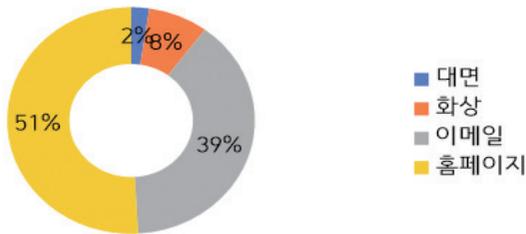
이는 교수자들의 글쓰기 장르나 형식에 대한 무관심, 글쓰기와 수업의 연계성 간과 혹은 지도할 시간이나 여력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로서는 교수자가 글 차원에서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충분히 신경 쓸 여유가 없으며, 내용만 중요하다는 단순한 논리를 내세우게 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교양 및 전공 수업에서는 글쓰기에 대한 지도나 피드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발전적인 글쓰기의 경험이 축적되기 어렵다.

4. 개선 방안

글쓰기 교육에서의 계속성은 결과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 핵심의 반복을 통한 글쓰기 실력의 향상에 초점이 있기에 ‘학습자’와 ‘과정’이 중요하다. 신입생 때 수강하는 글쓰기 교과목이 한두 학기 이수로 그치는 현실에서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학년 때까지 글쓰기를 심화하여 지속할 수 있는 수업이나 상담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 내부와 이를 이용하는 학생필자, 교양 및 전공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 모두의 노력과 개선이 요구된다.

1) 온라인 소통 장치 마련

온라인 상담의 증가 추세에 맞게 온라인에서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화상 및 채팅 등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온라인 상담 방식에서도 화상을 이용한 방식의 확대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면 상담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상담자-내담자 모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상담 방법의 비율(2023년, 550건)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대면 상담에 비해 비대면이지만 화상상담이 약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하는 것이 장소 및 전문 인력 상주

등의 문제가 있다면, 비대면이지만 화상으로 상담을 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화상 상담도 완성된 글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거나 어떤 주제로 글을 쓰고 싶었다는 등의 글쓰기 과정에서 내담자의 요구나 고민을 수용하여 과정중심의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었다.

기본 수준에서의 고민과 정보 요청은 챗봇 상담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상담자-내담자가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요청-상담이라는 직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친밀함이나 편안함을 느끼고 글쓰기의 과정이나 자신의 약점 파악, 고민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글과 글로 이루어지는 상담에서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편안하게 제시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과정중심 반복 상담과 안내

글쓰기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담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유도해야 한다. 상담자들은 이러한 과정중심 지도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이에 입각하여 상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내담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신청 방법에서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서 결과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내담자들에게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과정이 더 중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글쓰기 교육이 과정중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글쓰기 상담도 학생의 글쓰기 과정에 대한 고민과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들이 글쓰기의 각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어떠한 부분에서 고민하였는지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글쓰기 수업에서의 학습 내용과 연계되면서 계속성에 의한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어려워하는 것은 주제를 선정하거나 구성이나 개요의 적절성으로, 준비와 계획 단계의 고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글쓰기센터는 학생들이 글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성하는 단계까지 멘토-멘티의 관계로 함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²⁵⁾ 컬럼비아대학교의 글쓰기센터는 학부나 대학원생 중에서 교육과 선발을 통해서 튜터(펠로우)를 활용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주제를 찾는 단계부터 멘토가 도우면서 글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학생들의 글쓰기를 함께 하며 안내하고 있다.²⁶⁾ 전문 인력이든, 학부생, 대학원생 튜터이든 글쓰기 과정을 중심으로 도움을 주고 지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목표를 지닌다.

온라인 상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과정중심-반복적인 상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신청할 때, 어느 단계에 대한 상담인지를 선택하는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많은 대학의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신청시에 장르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나 과정에 대한 선택은 없다. [그림 5]와 같이 글쓰기 과정과 단계에 대한 선택을 추가하면 내담자는 완성된 글쓰기뿐 아니라, 과정을 상담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상담자 역시 요청한 단계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계획하는 단계에서의 조언은 내담자가 글의 방향과 과제물로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글을 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25) 옥현진, 「외국 대학작문교육 실태 조사 연구-미국 대학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0, 96-102쪽 참고.

26) 변지선, 앞의 논문, 281-283쪽.; 임선애, 2017, 앞의 논문, 143쪽.



[그림 5]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구상 및 제안)

과정중심의 상담이 된다면, 첨삭중심의 일회적인 상담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 첨삭과 교정은 저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을 수동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²⁷⁾ 미국의 포모나 대학은 교정이나 편집 등은 지도하지 않으며, 문장 수준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지도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글을 수정하고 완성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²⁸⁾ 결과물의 문법적 요소만이 아니라, 글쓰기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면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고 학생필자의 생각이나 고민을 알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주제나 구성 등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장르와 형식에 대한 지도

장르와 형식적 관습에 대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기존의 지식을 복습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글의 장르나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이해가 부족하면 과제를 수행하거나 글을 쓰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내담자가 글쓰기 수업에서의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장르를 파악하고 글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장르와 형식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

현재 많은 대학의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그림 6]과 같이 학생이 장르(주제)를 선택하여 상담을 신청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장르적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과제를 포

27) 지현배, 「온라인 클리닉 시스템을 활용한 첨삭지도의 전략」, 『교양교육연구』 11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765-770쪽.

28) 임선애, 앞의 논문, 2016, 44쪽.

괄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장르가 아닌 ‘교과연계’의 항목도 모호하다. 또한, “산문과 운문-문예 창작 및 강평”은 포함관계를 보여서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르로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그림 6] 주제 및 장르 선택

따라서 글쓰기 수업에서 학습한 장르를 중심으로 상담 프로그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르를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에 장르별 특징이나 형식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여 내담자가 장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상담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이미 장르적 관습에 익숙해져서 글을 작성할 때 잠재적으로 장르에 대해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필자보다는 독자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학술적 글쓰기의 경험이 부족하기에 대학에서 자주 접하는 글의 장르적 지식과 형식에 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르에 대한 인식, 지식 교육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로서의 글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²⁹⁾

4) 전공 교수자들과의 협업

글쓰기에 대한 전공 교과목 교수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과제물을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 다수의 교수자는 글쓰기 및 글쓰기 교육을 기초 교육으로, 교양 커리큘럼에 속하는 정도로 여겨 자신들의 수업 계획에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³⁰⁾ 그러나 전공 교수자들도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이나 글의 완성도에 관한 관심이 높기에 전공 교수자들과

29) 박영민 외, 앞의 책, 315-318 쪽.

30) 원만희, 「대학 글쓰기 교육의 개선 방향과 방법에 관한 시론」, 『교양교육연구』 3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111쪽.

의 협업이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 및 전공 교수자들은 도구로서의 글쓰기뿐 아니라, 학문을 수행하는 기본으로서의 글쓰기 실력을 학생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교양이나 전공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에게 상담 프로그램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글쓰기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상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제물을 제시할 때 장르나 취지, 글의 요건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에 의뢰하도록 하거나, 상담자들에게 과제의 취지나 평가 기준과 관련해 미리 협조를 구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교양 및 전공 교과에서 글쓰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상담을 받도록 하면 학생들의 글쓰기 경험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과제물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 교육의 기반이 글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의 프린스턴, 예일, 미네소타, 버지니아 등의 다양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공 연계 글쓰기(WAC-Writing across the Curriculum)를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수업이나 글쓰기센터 및 상담 프로그램과 관련지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³¹⁾ 이는 전공 교수자가 수업 내용에 글쓰기를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전공과 글쓰기 학습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글쓰기를 혁신적인 교수법 중 하나로 선택하게 하고 교원에게 업적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의 제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전제된 부산외국어대학교의 학습연계글쓰기(Writing to Learn)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³²⁾

31) 박병철, 앞의 논문, 213-214쪽.

32) 권경미, 「대안적 대학 글쓰기 교육 방향 모색-부산외국어대학교 학습연계글쓰기(WTL)와 글쓰기 튜터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8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9.

5. 나오며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학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필수 교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글쓰기가 심화, 다양화되는 고학년까지 글쓰기 교육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중요하다. 특히 ‘글쓰기 과정의 전략적 측면’, ‘장르와 형식의 지식적 측면’, ‘반복된 쓰기의 경험적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글을 쓰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

계속성의 원리를 적용한 글쓰기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과정중심의 글쓰기 전략에 대한 반복, 고학년이 될수록 어려워하는 장르와 형식적 지식의 반복, 글쓰기 경험 자체에 대한 반복을 통한 점진적인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결과중심의 일회성 첨삭이 아니라 과정중심의 소통과 지도가 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장치나 과정과 단계를 상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글쓰기 교과만이 아니라 대학 공부가 글쓰기 교육과 직결된다는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교양 및 전공 교수자들의 협조와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상 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위주로 분석한 사례연구로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으나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와 학생필자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점이 확대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고민과 개선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전 학년에 걸쳐 지속적인 글쓰기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져 학생필자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석·주동범, 『현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학지사, 2009.
- 곽상순, 「서강대학교 글쓰기센터의 운영 현황과 과제」, 『리터러시 연구』 10권 2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 71-93쪽.
- 권경미, 「대안적 대학 글쓰기 교육 방향 모색-부산외국어대학교 학습 연계글쓰기(WTL)와 글쓰기 튜터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8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9, 177-202쪽.
- 김대현, 『교육과정의 이해』, 학지사, 2011.
- 김미령,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성과 및 과제-조선대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와표현』 12권 3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9, 135-160쪽.
- 김치현, 「효과적인 글쓰기 클리닉 운영 방안 연구 - 성균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와 표현』 6권 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3, 57-83쪽.
- 박병철, 「미국 대학의 글쓰기 교육 현황과 그 시사점」, 『교양교육연구』 14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211-221쪽.
- 박영민·이재기·이수진·박종임·박찬흥, 『작문 교육론』, 역락, 2016.
- 변지선, 「컬럼비아 대학교 글쓰기센터의 문제」, 『리터러시 연구』 1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6, 275-299쪽.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 손민달, 「대학 글쓰기센터 비교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리터러시 연구』 10권 5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 147-175쪽.
- 염민호·김아연·김현정,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의 성과와 과제」, 『작문연구』 22권 22호, 한국작문학회, 2014, 61-95쪽.
- 옥현진, 「외국 대학작문교육 실태 조사 연구」, 『리터러시 연구』 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0, 93-112쪽.

- 원만희, 「대학 글쓰기 교육의 개선 방향과 방법에 관한 시론」, 『교양교육연구』 3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105-118쪽.
- 이순영, 「21세기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육』 제43호,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7-35쪽.
- 임선애, 「대학 글쓰기 선진화 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리터러시 연구』 제1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6, 29-58쪽.
- 임선애, 「대학 글쓰기센터 운영의 현황과 과제」, 『리터러시 연구』 21권 2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133-156쪽.
- 지현배, 「온라인 클리닉 시스템을 활용한 첨삭지도의 전략」, 『교양교육연구』 11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753-774쪽.
- 진선정, 「한남대학교 ‘글쓰기 상담교실’의 운영 현황과 과제」, 『리터러시 연구』 10권 4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 391-425쪽.
- 황규호,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방안」, 『국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과제 ORM 2013-3, 2013, 29-49쪽.
- Light·Richard J 저, 장선하 역, 『하버드 1교시: 자기 표현력의 힘』, 힘찬북스, 2019.
- Tyler, R.W 저, 이해명 역.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교육과학사, 1987.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교육과정의 계속성을 기반으로, 대학교 전 학년에 글쓰기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 및 사례연구, 비교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계속성’이란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반복, 수직적으로 관계하도록 조직하는 것으로, 글쓰기 교육에서 계속성은 ‘쓰기 과정의 전략적 측면’, ‘장르와 형식의 지식적 측면’, ‘반복된 쓰기의 경험적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글쓰기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내용과는 무관하게 온라인 상담 선호, 결과중심의 일회성 첨삭, 장르에 대한 이해 부족, 교과 연계 글쓰기로 제한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성의 원리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글쓰기 상담에서 계속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담에서도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원활한 소통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지도가 과정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내담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장르에 대한 지도와 함께 전공 교수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요구된다.

주제어 ● 교육과정, 계속성, 쓰기 전략, 장르 지식, 쓰기 경험, 과정중심 지도

■ Abstract

A study on ways to improve writing counseling considering the continuity of the curriculum

Seong, Eun Hye
/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mprove the problems of the writing counseling program so that writing education is provided in all grades based on the continuity of the curriculum in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Continuity’ refers to organizing important elements in the curriculum so that they are repeated and vertically related. In writing education, continuity can be thought of as ‘strategic aspects of the writing process’, ‘knowledge aspects of genre and form’, and ‘experiential aspects of repeated writing’.

However, there are problems with the preference for online consultation, one-time editing focusing on result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genre, and subject-related writing. In order to realize continuity in writing counseling, a smooth communication device must be established in online counseling, it must be process-oriented, and clients must be actively guided through this. Additionally, collaboration with major professors is required along with guidance on the genre.

Keyword • Curriculum, continuity, writing strategy, genre knowledge, writing experience, process-oriented guidance

■ 논문투고일:2024.02.24. ■ 심사완료일:2024.03.20. ■ 게재확정일:2024.03.20. ■

청소년 영화교육 정책에 관한 고찰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정책의 흐름과 전환에 관하여

오세섭·이아람찬*

목 차

1. 들어가며
2.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정책 동향
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4. 맺으며

1. 들어가며

청소년 영화교육에 관한 관심은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대 사료에 의하면 당시의 기성세대는 이미 어린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화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영화의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영화 관람이 자칫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염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영화교육 사례를 언급하면서 좋은 영화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 수용자의 입장보다는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시선에서 영화 향유 문제를 점검한 것

* 오세섭(제1저자) 홍익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부 강사
이아람찬(교신저자) 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

1) 이아람찬, 「초기 한국영화교육사 연구: 1920년부터 1940년대를 중심으로」, 『씨네포럼』 14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2, 313-314쪽.

이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과 영화의 관계를 탐색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부터 40여 년 뒤인 1967년, 안양영화예술학교(현 안양예술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신필름이 설립한 이 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했다.²⁾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등교육 정규과정의 영화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1980년에 계원예술고등학교가 개교하는 등³⁾ 예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영화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교육정책은 없었다. 예술고등학교의 영화교육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영화교육이 아니라 영화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나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대학교 전공 수업의 교재와 커리큘럼을 가져와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활용하는 정도였다.⁴⁾

영화교육에 관한 인식이 바뀐 것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2005)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종전의 예술고등학교 전문실기교육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으로 영화교육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이후 영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인접 예술 장르인 연극 때문이다.

2015년 9월, 교육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 교육과정에는 당시 정부의 ‘6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연극교육의

2) 안양예술고등학교, <http://www.anyangart.hs.kr>, 2024.02.01.

3) 계원예술고등학교, <http://www.kaywon.hs.kr>, 2024.02.02.

4) 오세섭, 「영화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씨네포럼』 29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8, 179쪽.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예술 교과(군)에 연극이 추가되었고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과에 연극 단원이 개설되었다. 적어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안에서 연극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극 교과의 공교육 진입을 지켜보면서, 영화계 또한 영화교육의 정규교과 편성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부응한 곳이 영화진흥위원회⁵⁾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먼저 「“영화 공교육 어떻게 준비할까?”-연극 교과 채택 과정으로 비춰보는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2017)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자체 보고서인 이슈페이퍼를 통해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의」(장다나, 2017)를 발표했다.

이러한 밑 작업을 통해 영화 공교육 연구 발을 내디딘 영화진흥위원회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먼저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이아람찬 외, 2018)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이하 BFI)에서 발표한 「A FRAMEWORK FOR FILM EDUCATION」(2015)을 번역하여 「영화 교육을 위한 프레임워크」(최상희, 2018)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다. 또한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 연구」(이아람찬 외, 2019)와 「청소년 영화교육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개발)」(송영애 외, 2021)을 진행하였으며 이슈페이퍼 「청소년 영화교육 협력체계를 위한 공공 웹 플랫폼 제안」(장은경 외, 2021)과 「청소년영화교육센터 설립 방안 연구」(장다나 외, 2021)를 이어서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초등학교 영화교육 교재 개발」(송영애 외)에 착수하였다.

5)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 받아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설립 목적”, <https://www.kofic.or.kr>, 2024.02.03.

영화진흥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영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했다. 네 건의 정책 연구와 세 건의 이슈페이퍼, 한 건의 리포트를 내놓았으며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이러한 노력이 한계에 봉착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영화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목표는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축소되었다. 처음 진행한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와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 연구」에서는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는 영화 공교육을 목표로 했으나 결국은 초등학교에서만 진행되었다.⁶⁾ 정책 연구의 실천 사업이라 할 영화교육 중점학교의 경우 2022년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중장기 계획인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2021)에서도 영화교육은 선언적 내용에 머무르고 있다.⁷⁾

영화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이든 문화예술로서의 영화교육이든, 한국 사회에서 영화교육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현재 영화, 영상, 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중추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관객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등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영화교육의 위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⁸⁾ 따라서 지난

6) 초기 연구에서는 영화교과의 공교육 진입을 모색하였으나 자문회의, 내부 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일반교과 편성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업에서 교과내용 연계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초등학교에서의 영화교육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7)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 영화진흥위원회, 2021, 26쪽. 이 보고서는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에서 작성한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은 영화정책 기획위원회(50인),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패널(199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명단에 영화교육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오세섭, 「고교학점제에서의 영화교육 방향」, 『영화연구』 85호, 한국영화학회, 2020, 118쪽.

정책의 흐름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018) 이후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해 온 영화교육 정책을 되돌아보고 이에 관한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 뒤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BFI의 영화교육 사업을 참고하여 영화교육 교재 개발과 커리큘럼 개발 등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지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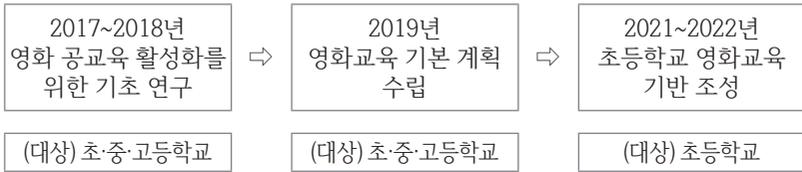
2.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정책 동향

1)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정책연구의 흐름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 영화교육에 관한 정책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대학 영화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거나(김수남, 2003), 대학 영화교육의 방향 전환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가 있었으며(이승환, 2015; 서국숙, 2021), 영국과 프랑스 등 외국의 영화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영화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아람찬, 2017; 이용주, 2019; 2021). 그리고 박종호(2012)가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따른 지역 중심의 영화예술교육에 대해 논하였으며 장다나(2019)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영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의 협력과 대외 홍보 방안을 고민하였다. 오세섭(2020)은 고교학점제라는 중등교육 정책 변화 속에서 영화교육의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⁹⁾

9) 영화진흥위원회 등 정부나 공공기관에서의 영화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는 없었으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한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정책에 관한 논문으로는 제2기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책을 연구한 류형진(2005), 한국과 프랑스의 영화진흥정책을 비교한 전병원(2013), 그동안의 영화

이런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는 2017년부터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일련의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연구 흐름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관련 정책 연구는 먼저 영화의 정규교과 진입을 모색하면서 영화 공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한 뒤 초·중·고등학교 영화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 초등학교 영화교육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영화진흥위원회의 단계별 정책연구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7~2018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① 정책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2017년)

영화진흥위원회는 우선 「“영화 공교육 어떻게 준비할까?”-연극 교과 채택 과정으로 비춰보는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2017)를 개최하였다. 연극 교과의 정규과목 채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연극교육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연극의 정규교과 편성 과정을 전해 듣고 이를 참고하여 영화의 정규교과 편성을 도모하려는 의도였다.

좌담회에서 진행을 맡았던 장다니는 이후 이슈페이퍼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의」(2017)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당시 영화

진흥정책을 정리한 김지현(2017) 등의 연구가 있다.

교육의 현실을 짚어보고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는 향후 연구의 지향점과 연구 과제를 밝힌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러한 좌담회와 이슈페이퍼를 통해 현재 영화교육 상황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 과제를 파악한 뒤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②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이아람찬 외, 2018)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는 처음부터 정규교과로서의 영화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의 영화교육에서 공교육은 낮은 개념이었다. 물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학교 영화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여기서의 교육은 주로 동아리 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는 체험 활동 시간이 아닌 정규 수업 시간에서의 영화교육을 목표로 했다.

이 연구에서는 영화교육 개념부터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리고 영화교육의 목표와 범위를 재정립하였다. 프랑스와 영국 등 해외 영화교육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현 공교육 체제 안에서 영화가 정규교과로 편성될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영화 교과서 개발과 교사 양성 방안을 수립하는 등 공교육에서 영화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2) 2019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 수립

①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 연구」(이아람찬 외, 2019)

이 연구는 영화 공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추구하는 영화교육이란 어떤 것이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지향하는 영화교육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이

를 종합하여 “스마트 영화교육(Smart Film)”이라는 브랜드를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급별 영화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영화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였으며 영화교육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영화 교·강사 양성 및 연수, 재교육에 관한 방안, 영화 전공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방안, 초·중·고급별 영화교과서 개발 계획, 해외 교류 계획, 공공콘텐츠 인프라 구축 계획, 청소년 영화교육 공론화를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 영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년)을 마련했다는 것과 초등학교 영화교육 워크북(5·6학년용)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때 만든 영화교육 워크북은 2019년 영화교육 중점학교에서 활용하기도 했다.

② 영화교육 기본 계획에 따른 부가적인 논의와 활동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이 만들어진 이후,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영화교육 국제 심포지엄’(2019)을 개최하여 청소년 영화교육의 현재와 이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청소년 영화교육 콜로키움’(2020)을 통해 청소년 영화교육 방법론과 코로나 19 시대의 영화교육 방향을 고민하였다.

2019년 부산에서 시작한 영화교육 중점학교는 2020년부터 전주에서도 운영하였으며 운영학교의 성과를 모아 ‘영리(영화 리터러시)한 영화교육 리포트’라는 ‘청소년 영화교육 활성화 사업 보고회’(2020)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이슈페이퍼 「청소년 영화교육 협력체계를 위한 공공 웹 플랫폼 제안」(장은경 외, 2021), 「청소년영화교육센터 설립 방안 연구」(장다나 외, 2021) 등을 발표하면서 영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탐색하였다.

(3) 2021~2022년: 초등학교 영화교육 기반 조성

이 시기에는 초등학교 영화교육에 집중하였다.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초등학교 영화교육 과정의 개발, 세분화한 영화교재 발간 등이 이루어졌다.

① 「청소년 영화교육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개발)」(송영애 외, 2021)

“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개발”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영화교육에 집중한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개발을 위해 영화·영상학, 교육학, 교육정책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총 3차에 이르는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9개교 352명의 학생과 2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다.

기존 정책연구가 문헌 및 사례 중심 연구였던 데에 반해,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현장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영화교육 총론과 각론을 기술하였고 영화교육 활성화 정책과 온라인 영화교육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② 「초등학교 영화교육 교재 개발」(송정애 외, 2022)

연구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연구는 초등학생을 위한 영화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 연구」(이아람찬 외, 2019)에서 5·6학년용 교재를 개발하였지만 2019년부터 영화교육 중점학교(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용 워크북과 교수학습지도안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영화교육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개발)」(송영애 외, 2021)에서 제시했던 교육목표, 성취기준,

학습 차시를 준용하여 초등학교 영화교육 교재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¹⁰⁾

2)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정책의 성과

(1) 공교육에서의 영화교육 가능성 점검

사실 2017년 이전까지 영화 공교육이라는 주제가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첫 번째로 진행한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이아람찬 외, 2018)에 따르면, 이 연구가 “학교교육에서 영화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공교육 체계 안에서 영화교과가 편성되어 영화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영화 공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 재원을 투입해야 할 당위성과 논리를 생산”하는 한편, “영화진흥 정부부처/기관, 교육담당 정부부처/교육행정 등 관계 정부부처 기관이 향후 추진해야 할 업무내용과 추진방향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¹¹⁾ 이것은 연구의 정규 교과 편성에 영향을 받아, 영화 또한 제도권 교육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가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 연구」(이아람찬 외, 2019)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영화교육 교육목표와 교육영역, 성취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¹²⁾ 학습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을

10) 영화진흥위원회, 「초등학교 영화교육 교재 개발 제안요청서」, 영화진흥위원회, 2021.07.15, 5쪽.

11) 이아람찬 외,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KOFIC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8, 17쪽.

12) 이아람찬 외,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 연구」, 『KOFIC 연구』, 영화진흥위원

정립한 것은 영화교육의 정규교과 편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영화진흥위원회는 우선 초등학교에서 영화 공교육을 추진하였다. 부산시교육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2곳에서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듯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연구는 정규교과 편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초등학교 영화 공교육을 동시에 탐색하였으며,¹³⁾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 등 교육기관과의 영화교육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2019년 부산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전주에서도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영화교육 연구학교(부산 영도초등학교)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부산에서 3개교, 전북(전주, 완주)에서 3개교 등 총 6개 초등학교에서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렇듯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 연구는 영화교육의 공교육 가능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당시 영화교육의 현실을 짚어보고 영화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공교육 내에서 영화교육의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공공재원을 투여해야 할 당위성을 구축하였다.

(2) 영화교과 교육과정의 이론적 체계 수립

영화교육은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반이 약한 편이었다. 과거 예술고등학교 중심의 영화교육이나 2000년대 전후에 시작된 영상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영화교육은 모두 소수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과 영화교육이었다. 이들 영화교육은 대학 전공 수업의 커리큘럼과 교재를 차용했을 뿐, 고등학교 과정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재, 교수법을 새로이 만들지는 않

회, 2019, 95-107쪽.

13) 교과목마다 교사가 따로 있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모든 교과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규수업 시간에 영화교육을 실시하기 좋은 여건을 가졌다.

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영화교육은 정규수업이라기보다는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에 가까웠다. 대개는 체험 활동처럼 진행되었으며 성취기준이라든지 정기 평가도 없었다. 파견 강사를 통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단위의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려웠다.

이렇듯 영화교육은 전문적인 교육 아니면 체험 위주의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교과처럼 일반적인 교육체계를 갖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영화교과 교육과정을 구축하고자 했다. 영화가 공교육 체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피터스(J. M. Peters)의 영화교육 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영화교육 이론을 연구하였으며 미술교과의 교육 체계를 참고하여 ‘이해, 제작, 감상’이라는 영화교과 교육체계를 만들었다.¹⁴⁾ 아울러 각급 학교별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정의 일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영화가 하나의 교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3) 영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영화교육 진행

영화진흥위원회는 교육청과 협의 하에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문화소외 지역의 학생들에게 영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¹⁵⁾ 하고자 했던 영화교육 중점학교는 첫해인 2019년에 부산에서 2개 초

14) 이아람찬 외, 앞의 보고서, 2019, 94쪽.

15) 부산시교육청, 「2022 주요업무계획: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부산시교육청, 2022, 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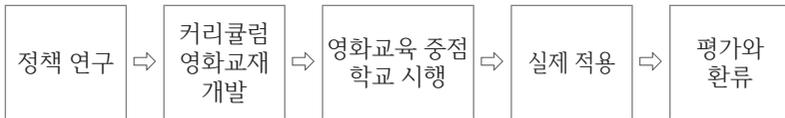
등학교를 선정했으며 2020년에는 부산과 전주에서 각 1개교를 선정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부산 3개교, 그리고 전북 3개교(전주 2개교, 완주 1개교)로 확대되었다. 또한 부산 영도초등학교가 영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기도 했다.

[표 1] 2019~2022년 영화교육 중점학교

	부산	전북
2019년	수미초 영도초	-
2020년	영도초	전주 송원초
2021년	영도초(*연구학교 지정)	전주 용흥초
2022년	봉학초 영도초 효림초	전주 동초 전주 용흥초 완주 비봉초

영화교육 중점학교에 선정되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직접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해당 학교에 장비, 운영비 등을 제공하고 강사를 선발하여 파견하는가 하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커리큘럼과 교재를 제공한다. 그리고 해당 학교는 1년간 학교 교육과정에 영화 교과를 녹아내어 다양한 영화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영화교육 중점학교는 영화 공교육을 지향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책이 실천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통해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 실제 공교육 현장에서 영화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정책연구와 영화교육 중점학교 간의 연계성

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정책의 한계점

(1) 연구 결과와 제언의 미이행

영화진흥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보고서에는 모두 실행 방안이나 제언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 연구」에는 2019년부터 2023년에 이르는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2018 문화예술종합계획’의 방향성을 참고하였으며 연도별 단계에 따라 핵심목표, 핵심전략, 실태조사, 정책 및 법제 연구, 교육과정 연구, 교재 연구 및 홍보, 교사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구축, 심화 연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실행계획을 만들었다.¹⁶⁾ 그리고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영화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하였다.¹⁷⁾

그러나 중장기 계획(2019~2023)의 시행 상황과 결과는 미흡한 편이다. 예를 들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영화교육의 개념을 드러내고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영화교육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영화교육(Smart Film)’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나 브랜드 활용성은 크지 않았다. 그 밖에도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한 다양한 연구 진행, 영화교육 기반 구축, 기관 협조를 통한 영화교육 활성화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후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반복제안하고 있다. 일례로, 「청소년 영화교육 교육과정기준 연구」(송영애 외, 2021)의 5장 ‘영화교육 활성화 정책 및 온라인 영화교육 전략 제언’에서 제시한 여러 정책 제안들은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이아람찬 외, 2018),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 연구」(이아람찬 외, 2019) 등 앞선 보고서에서 제안

16) 이아람찬 외, 앞의 보고서, 2019, 48-52쪽.

17) 영화교육위원회(가칭)의 설치 여부와 실행 가능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광의의 역할과 협의의 역할로 나누고, 상황에 따라 실현가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아람찬 외, 앞의 보고서, 2019, 52-53쪽.

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이는 필요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비슷한 제안이 반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영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중단

처음 영화교육 연구가 시작될 무렵 목표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영화 공교육이었다. 그리하여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이아람찬 외, 2018)는 영화의 정규 교육과정 편입 방안에 대한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정규교과 편성의 어려움과 제한점을 파악하였고 단기간 내에 정규교과 편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중등교육보다는 교과 내용 편성과 수업 진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후속 연구에서도 조심스럽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2019년에 발표한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 연구」(이아람찬 외)는 초·중·고등학교 전체 영화교육 과정을 연구하면서도 초등학교(5.6학년) 영화교육워크북 개발을 병행하였다. 그다음 연구에서는 아예 초등학교 영화교육으로 연구 범위를 특정하기해 했다.¹⁸⁾

영화 공교육 활성화 정책이 ‘고등학교 정규교과 편성→초등학교 대상 영화교육 중점학교’로 이동하면서 영화교육 중점학교가 영화 공교육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2019년 부산에서 처음 시행한 영화교육 중점학교는 한때 전주(2020)와 완주(2022)까지 확대 운영하기도 했다.¹⁹⁾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장하지 못했으며 초등학교에서의 영화교육 중점학

18) 이후 연구는 「청소년 영화교육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개발)」(송영애 외, 2021), 「초등학교 영화교육 교재 개발」(송영애 외, 2022)이다.

19) 사실 부산과 전주는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로 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보다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시행하기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교도 2022년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²⁰⁾

처음 계획과 달리 초등학교에서만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한 것은 아쉽지만 이를 통해 얻은 성과도 있다. 예를 들면, 초등과정에서의 영화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에 따른 다양한 영화교재를 개발했다는 점이다. 또한 영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영화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실제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장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두 차례의 연구를 통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영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지만 실제 교육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던 영화교육 중점학교마저 중단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초등학교 영화 공교육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그동안 쌓았던 교육 인프라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 영화교육에 대한 인식: 영화산업에 초점을 둔 교육

영화교육은 영화를 매개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기술의 습득이라든지 지식,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며 영화 감상을 통해 예술을 향유하는 감정을 느끼고 영화제작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한편, 공동작업 과정에서 협동심, 인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영화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예술교육이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생각하는 영화교육의 의미는 조금 다른 듯하다. 일반적인 교육으로서 영화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좀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청소년 영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입찰 공고에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영화를 감상한 역량이 있는 미래관객 육성을 위해 청소년 대상 영화

20) 영화교육 중점학교가 중단된 것은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등 영화진흥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을 확대할 필요. 이를 위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영화교과가 편성되어 영화교육이 실시되도록 함²¹⁾

한편, 「청소년 영화교육 표준교육과정기준 연구」 과업지시서에 소개된 과업 배경 및 목적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본 연구를 통해 보편교육으로서의 청소년 영화교육의 모델 운영의 초석 마련 및 미래관객 육성²²⁾

이들 과업지시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청소년 영화교육의 목표는 “미래관객 육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청소년 대상 영화교육을 확대”하거나 “공교육 체계 안에서 영화교과가 편성”되길 바라고 있다.

최근 발표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기초보고서」(2021)에 등장하는 ‘포스트코로나 2022 영화정책과제’에는 이런 구조 체계를 담고 있다.

[표 2] 포스트코로나 2022 영화정책과제²³⁾

추진전략	추진과제
3. 영화산업 참여자 확대	3-3. 영화교육과 미래관객 개발

이 체계에 따르면 ‘영화산업 참여자 확대’라는 추진 전략 아래 ‘영화교육과 미래관객 개발’을 같은 항목으로 묶은 것을 알 수 있다.²⁴⁾ 이는 앞서 살펴본 영화교육 정책 연구의 과업지시서에 등장하는 과업 배경 및 목적과 연결된다. 물론 보고서에서는 영화교육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 기존

21) 영화진흥위원회,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2017.07.24, 2쪽.

22) 영화진흥위원회, 「청소년 영화교육 표준교육과정기준 연구 과업지시서」, 영화진흥위원회, 2019.12.04, 2쪽.

23) 이 보고서의 영화정책과제는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로 이어진다.

24) 조희영 외,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기초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2021, 176-189쪽.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 연구에 대한 정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영화교육을 영화산업적 가치, 즉 미래관객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몇몇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그간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은 ‘미래 관객 육성’이라는 산업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영화교육이 활성화되면 부수적으로 관객 동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화교육을 통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영화에 관한 관심도 커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소년기의 영화교육은 영화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영화교육 이후의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 관객 육성이란 영화교육 이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여야 한다. 목적을 우선한 교육은 자칫 교육의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그러므로 교육적 가치와 산업 효과 사이에서 좀 더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영화진흥위원회는 애초 정규교과 편성을 목표로 영화교육 정책연구를 진행했으나 중반 이후로는 초등학교 영화교육 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²⁶⁾

그렇다면 향후 영화교육 정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²⁷⁾ 현재 주어진

25) 영화진흥위원회가 단지 산업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영화교육 활성화를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영화교육 정책연구와 영화교육 중점학교, 영화교육 교사연구회, 콜로키움 등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한 다양한 영화교육 사업에는 교육적 신념을 가진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했으며, 정책 실현을 통해 얻은 ‘교육’ 성과도 많다.

26)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중점학교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7)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기초보고서」에서는 “영화가 공교육에 편입되는 것이

예산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화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연구 사업, 교재 개발 중심으로 역할 변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교육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초등학교 영화교육 교재를 개발했듯이 계속해서 영화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연구 시행 방식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매년 연구 용역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만들 수 있으며, 필요한 주제를 공모하여 연구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재개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개발한 초등학교 교재 외에 중·고등학교 교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력이 된다면 성인이나 노년층을 위한 교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학령/연령층을 기준으로 교재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환경교육을 위한 영화교재라든지 양성평등을 위한 영화교재 등 주제별 영화교육 교재를 새로이 개발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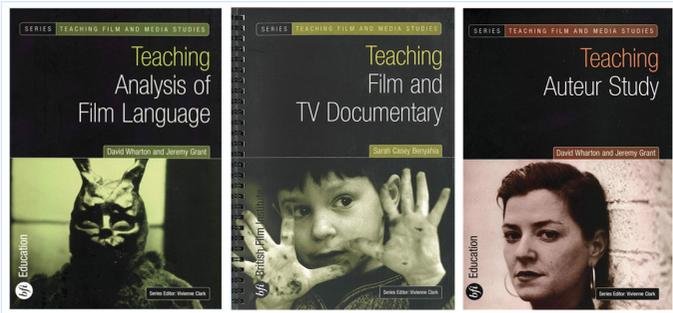
이와 관련해서는 BFI의 활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BFI는 외부적으로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출판부를 통해 영화교육에 관한 서적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다.²⁸⁾ 또한 “영화교육의 가치, 모두를 위한 영화교육” 등 영화교육에 대한 BFI만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화 리터러시, 전 연령대의 관객을 위한 영화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금을 지원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²⁹⁾

정책의 목표는 아니다. 정책의 목표는 좋은 영화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이 인프라 구축 등 환경 조성으로 선회할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영 외, 앞의 보고서, 189쪽.

28) 이아람찬, 「영국 영화기금정책 연구: BFI의 관객교육 및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12권 2호,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2017, 78쪽.

29) 이아람찬, 위의 논문, 86쪽.

BFI는 중등학교 영화교사를 위해서 『Teaching Film And Media Studies』라는 교재를 발간했는데 이 교재는 영화 이론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영화언어 분석 교육』, 『영화-TV 다큐멘터리 교육』, 『작가주의 교육』, 『디지털 비디어 제작 교육』, 『세계영화 교육』, 『뮤직비디오 교육』 등 18권의 교재를 개발하여 영화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3] BFI의 교사를 위한 영화교육 시리즈

영국은 BFI가 중심이 되어 영화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다. BFI라는 기관의 공신력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력은 영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기왕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면 앞으로도 영화교육 연구 및 교재 개발을 견인하여 우리나라 영화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영화교육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영화진흥위원회는 그동안 ‘청소년 영화교육 국제 심포지엄’(2019), ‘청소년 영화교육 콜로키움’(2020), ‘청소년 영화교육 활성화 사업 보고회: 영리(영화 리터러시)한 영화교육 리포트’(2020) 등을 개최했다. 이것은 학술 행사이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활동이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영화교육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연극의 경우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한국연극교육학회(1997년), 한국교육연극학회(2000년)가 설립되었으며 연극교육 전공자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화교육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 일선 대학이나 영화학계에서는 영화교육에 관한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학술대회 정례화, 영화교사 워크숍 실시, 영화교육 교사연구회 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영화교육 활동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영화교육의 활성화, 네트워크의 확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BFI의 경우, 매년 “BFI Film and Media Conference”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화산업, 영화연구 및 영화교육 영역에서 최신 동향과 접근법으로 교사들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 콘퍼런스에는 영국 전역에서 영화와 미디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주로 참석하며 다양한 소모임이 이루어지면서 영화교육에 관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그림 4] BFI Film and Media Conference 2023

30) 여기서의 교사워크숍이나 교·강사 연수 등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 예술강사 연수와는 다르다.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는 ‘교육’이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의 영화교육은 그들이 지원하는 8개 예술교육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교육을 고유한 업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교류의 정례화를 추진한다면 영화교육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공고화가 가능할 것이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콘텐츠를 보유한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영화교육 인프라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영상자료원이나 인디그라운드 같은 곳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영화 아카이빙이 기본 업무로 한국영화 콘텐츠는 물론이고 극장과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영화 콘텐츠의 경우, VOD를 통해 어디서든 관람이 가능하다. 인디그라운드는 한국 독립·예술영화 유통, 배급을 위한 공공플랫폼으로 웹 사이트 내에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코너가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독립영화 목록과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³¹⁾

이렇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인적 네트워크 구성, 영화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영화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³²⁾

3) '영화' 교육에서 영화 '교육'으로의 인식 전환

영화교육에서 '영화'를 우선시해야 할지, '교육'을 강조할지 한쪽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화교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적 가치만을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영화(산업)만 강조하면서 교육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영화와 교육은 비슷한 위치에서 똑같은 위상을 갖는다.

지금까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이 '미래 관객 육성'을 위한

31) <인디그라운드>, <https://indieground.kr>, 2024.02.05.: 인디그라운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립하고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운영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영화진흥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영화교육을 위한 인디그라운드 인프라 활용 계획이 있을 것이다.

32) 이와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저변화지원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영화교육 공공웹 플랫폼 연구"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법론으로 접근한 면도 있었다.³³⁾ 하지만 교육 효과는 통계와 수치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애 전반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³⁴⁾ 더구나 무의식 속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놓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만약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이 영화(산업)에서 교육으로 옮겨간다면 단기간 내의 성과에 몰입하지 않고 영화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영화교육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관객 교육이 진행될 것이며 미래관객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5] BFI 영화교육 홈페이지

영국의 영화교육에서는 산업적 관심보다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뚜렷한 편이다. BFI의 영화교육 첫 화면에는 “학습하고, 가르치며, 영화를 보자”라는 문구가 있다. 이것은 BFI가 영화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한 영화교육을 내세우기보다는 교육적인 목표를 우선으로 하면서 영화 관람의 즐거움을 동반하고자 하는 BFI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33) 물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이해되는 면도 있다.

34) 교육의 효과는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는다. 실패인 줄 알았으나 성공하기도 하며 초기에는 성공인 줄 알았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도 있다. 때때로 이러한 결과는 수십 년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BFI는 영화교육을 위해 「A FRAMEWORK FOR FILM EDUCATION」를 제시했는데 이는 유럽 전역에 산재해 있는 영화교육 활동을 통합하는 이론과 실습 원리를 제시하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A FRAMEWORK FOR FILM EDUCATION」에서 제시한 영화교육의 목표는 ‘평생 동안 모든 형식의 영화에 접근하고 향유하며 이해하고 창조하며 탐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준비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용 영화 교육 프레임워크						
목표	평생 동안 모든 형식의 영화에 접근하고 향유하며 이해하고 창조하며 탐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준비시키는 것					
영화 감상						
영화 교육의 핵심 측면	창조적 과정 실천 참여		비판적 과정 실천 참여		문화적 과정 실천 참여	
학습 분야	영화의 특수성	사회적, 개인적 및 협력적인 과정	개인의 비판적인 반응	더 폭넓게 영화에 관여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맥락	사고하는 학습
학습 결과	비판적 사고가	모험적인 창작자	표현이 풍부한 개인	섬세한 기여자	사고하는 직업인	능동적인 협력자
	자신감 있는 탐구자	견문이 넓은 참여자	분별력 있는 관객	열렬한 옹호자	독립적인 학습자	참여하는 시민
경험	모든 형식의 영화와 관계 맺기 영화관에서 영화 경험 과거의 영화 발견 영화 예술 경험					
	영화제작에서 창조적인 기회 경험		민족 문화와 세계 문화에 대한 사고		아이디어와 가치에 대한 식별, 질문 및 사고	
평생 학습자를 위한 성향	호기심	공감	열망	관용	향유	
삶 및 일과의 연관성	개인의 발전		시민적 책임		취직 능력	

[그림 6] BFI 영화교육 프레임워크³⁵⁾

영화는 우리의 세상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세계로 안내할 힘을 지니고 있다. 영화인은 다양한 요소들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만들며,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대화의 세계에 진입하거나 영

35) BFI, *A FRAMEWORK FOR FILM EDUCATION*, 『KOFIC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5.; 최상희, 『영화 교육을 위한 프레임워크』, KOFIC(영화진흥위원회), 2018, 12쪽.

화를 만들 때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한다. 이로써 영화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매체로 작용하는 것이다.

교육은 이렇게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영화교육도 마찬가지다. 영화교육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서 미래의 언젠가 영화교육의 효과로서 다양한 열매를 추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편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4. 맺으며

영화교육이 어린이와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대학교에서도 영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지식을 전수한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전공 실기 능력의 습득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수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무형의 방법을 사용한다.

반면에 청소년 영화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들은 좀 더 학습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편이다. 이들의 교육 대상은 당장 활동할 영화인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영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려는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전공지식보다도 심리상태, 친구와의 관계, 성취감과 배려 같은 덕목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영화교육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간 영화 공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돌아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여러 정책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지금도 영화 공교육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교육이 가진 사회적 역할을 감안한다면 영화의 공교육 진출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은 비단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상미디어시대의 보편적인 교육 가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 연구를 정리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실천사업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동안의 정책 연구를 짚어보면, 영화교육에 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의지와 변화가 드러난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정규교과 편입을 모색하였으나 현실적인 방안으로 초등학교 영화교육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내외적으로 영화 공교육에 대한 관심은 가라앉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행보가 중요하다.

사실 2017년 이전까지 영화교육에 대한 정책다운 정책은 없었다. 영화교육은 영상문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뿐이다. 여전히 영화교육은 불모지에 가깝다. 그러므로 기왕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교육에 관심을 가진 이상, 어떻게든 이러한 불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화교육 교수자도 확보한 상황이다. 이미 1,000명 이상의 영화 전공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했으며 매년 수백 명이 영화 전공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더구나 영상미디어 기반의 현대 사회에서 영화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영화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이 시점에서 영화교육 관련 활동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음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런 고민 속에서 진행되었다.

세상은 점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영화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비판적인 점검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수남, 「[영화] 문화세기와 한국영화교육정책의 문제점」, 『공연과 리뷰』 43권, 현대미학사, 2003, 17-27쪽.
- 김지현, 「한국 영화진흥정책의 흐름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73호, 한국영화학회, 2017, 135-169쪽.
- 류형진,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정책연구: 2기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종호,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지역중심의 영화예술교육」, 『씨네포럼』 14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2, 281-309쪽.
- 부산시교육청, 「2022 주요업무계획: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부산시교육청, 2022.
- 서곡숙, 「지방대학의 미래와 영화정책: 지역 대학영화교육의 육성과 영화정책의 지원」, 『국제문화예술』 2권 2호, 국제문화&예술학회 2021, 51-68쪽.
- 송순진, 「“영화 공교육 어떻게 준비할까?”-연극 교과 채택 과정으로 비춰보는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현안보고(이슈페이퍼)』, 영화진흥위원회, 2017.
- 송영애·정찬철·조수진·박병윤·남기웅·박소연·차승민·장현진, 「청소년 영화교육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개발)」, 『KOFIC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21.
- 오세섭, 「영화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씨네포럼』 29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8, 173-206쪽.
- , 「고교학점제에서의 영화교육 방향」, 『영화연구』 85호, 한국영화학회, 2020, 193-124쪽.
- 이승환, 「대학 영화교육의 방향성 모색」, 『씨네포럼』 22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5, 449-472쪽.
- 이아람찬, 「초기 한국영화교육사 연구: 1920년부터 1940년대를 중심

- 으로」, 『씨네포럼』 14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2, 331-336쪽.
- , 「영국 영화기금정책연구: BFI의 관객교육 및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12권 2호,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2017, 77-91쪽.
- 이아람찬·이종승·오세섭·박현우·고병정,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KOFIC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8.
- 이아람찬·오세섭·장다나·박성현·정재성,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 계획 연구」, 『KOFIC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9.
- 이용주, 「프랑스의 학교 영화교육 정책과 실행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105권, 한국프랑스학회, 2019, 171-199쪽.
- , 「프랑스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차원의 영화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115권, 한국프랑스학회, 2021, 117-143쪽.
- 장다나,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의」, 『현안보고(이슈페이퍼)』, 영화진흥위원회, 2017.
- , 「초·중등학교 영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기관협력 및 홍보기획 중심으로」, 『씨네포럼』 32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9, 119-150쪽.
- 장다나·김진숙, 「청소년영화교육센터 설립 방안 연구」, 『현안보고(이슈페이퍼)』, 영화진흥위원회, 2021.
- 장은경·노철환, 「청소년 영화교육 협력체계를 위한 공공 웹 플랫폼 제안」, 『현안보고(이슈페이퍼)』, 영화진흥위원회, 2021.
- 전병원,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영화진흥정책연구: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정책 및 영화진흥정책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조희영·이성현·이화배·장석류·김보경·김숙·박채은·김선아,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기초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2021.

최상희, 『영화 교육을 위한 프레임워크』, KOFIC(영화진흥위원회), 2018.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 영화진흥위원회, 2021.

BFI, *A FRAMEWORK FOR FILM EDUCATION*, 2015.

웹 사이트

계원예술고등학교, <http://www.kaywon.hs.kr>.

안양예술고등학교, <http://www.anyangart.hs.kr>.

인디그라운드 <https://indieground.kr>.

영화진흥위원회, <https://www.kofic.or.kr>.

한국교육연극학회, <http://www.kade.kr>.

한국연극교육학회, <http://www.kafte.or.kr>.

한국영상자료원, <https://www.koreafilm.or.kr>.

BFI, <https://www.bfi.org.uk>.

기타

영화진흥위원회,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영화진흥위원회, 2017.07.24.

-----, 「청소년 영화교육 표준교육과정기준 연구 과업지시서」, 영화진흥위원회, 2019.12.04.

-----, 「초등학교 영화교육 교재 개발 제안요청서」, 영화진흥위원회, 2021.07.15.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0년대 이후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영화 공교육 활성화 정책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짚어본 뒤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교육 정책연구는 영화 공교육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화교육 교육과정을 구축했으며,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한다.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실행력이 미흡했으며 영화교육 중점학교 또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영화교육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인식이 산업적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아쉬움도 있다.

향후 영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연구와 교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교강사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영화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영화교육 정책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영화 공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영화교육, 영화 공교육, 영화교육 정책, 영화교재, 영화진흥위원회

■ Abstract

A Study on Youth Film Education Policy in South Korea : Focusing on KOFIC Policy

Oh, Se Seop · Lee, Aramchan
/ Hongik University · Mokwon University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Korean Film Council (KOFIC)'s film education policy research since the 2010s. Our examination delves into the policies aimed at revitalizing film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by highlighting their significance and identifying limitations, and ultimately proposes a new plan.

Initially, KOFIC's film education policy research is noteworthy for its role in making film education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Achievement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film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operation of a film education focus school. However, certain limitations exist. The implementation capacity to support the research findings was insufficient, and the film education focus school was discontinued without the possibility of further expansion. Additionally, there is a sense of regret regarding KOFIC's perception of film education, which remains predominantly at the industry level.

A shift in policy is therefore imperative to rejuvenate film education in the future. The proposed changes are as follows.

First, focus should be on policy research and textbook development, effectively utilizing currently available resources. Second,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 establishing a robust network of teachers and lecturers involved in film education. Third, a fundamental shift is needed in the perception of film education.

By implementing these changes, we aim to address the shortcomings identified in KOFIC's film education policy and pave the way for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approach to public film education.

Keyword • Film Education, Public Film Education, Film Education Policy, Film Textbook, KOFIC

■ 논문투고일:2024.02.14. ■ 심사완료일:2024.03.12. ■ 게재확정일:2024.03.19. ■

만화자료 활용을 통한 지역 민주주의 교육의 확산 전략 제언 : 『만화로 보는 3·8민주의거, 불꽃』을 중심으로

이내관*

목 차

1. 서론
2. 학습만화 콘텐츠의 교육적 가치
3. 『만화로 보는 3·8민주의거, 불꽃』의 서사 전략과 표현 방식
4. 결론: 지역 민주주의 교육의 확산 전략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2022년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이하, 3·8기념사업회)에서 기획하고 발행한 『만화로 보는 3·8민주의거, 불꽃』(이하, 『불꽃』)이라는 만화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민주주의 교육 확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4·19혁명의 모태가 된 3·8민주의거는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학교 현장에서 3·8민주의거에 대한 교육은 미진하게 진행되거나 전무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3·8민주의거의 전개과정을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만화자료인 『불꽃』의 서사 전략과 표현 방식을 고찰하고, 이를 3·8민주의거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정과 부패, 불법적 인권유린에 대항하여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주와 자유, 정의를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다. 3·8민주의거는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며 지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역사적 교훈과 가치가 큰 것이며 대구의 2·28, 마산의 3·15와 함께 4·19혁명의 단초로서 중대한 의의를 새길 수 있는 것이다.¹⁾

3·8기념사업회에서는 “우리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3·8민주의거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만화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의거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선보이게 되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3·8민주의거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부족으로 지역 민주화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즈음, 이러한 콘텐츠의 개발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²⁾

대전 충청 지역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인 3·8민주의거가 ‘불꽃’이라는 만화로 다시 태어났다. ‘불꽃’은 3·8민주의거의 주축이었던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민주정신이 60여 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³⁾

더욱이 『불꽃』은 대전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스튜디오아이레’에서 제

-
- 1)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만화로 보는 3·8민주의거, 불꽃』, 기획출판오름, 2022, 표지 날개 전문.
 - 2)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하고 현재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충청권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과서에도 3·8의거는 없다”며 “교과과정에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선 시장과 교육감, 보훈청장 등 영향력 있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선교, “교과서에 없는 대전3·8민주의거… 그날 함성 잊힐라”, <충청투데이>, 2023.03.07.
 - 3)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위의 책, 프롤로그.

작을 하였고, 2022년 12월 31일에 ‘기획출판오름’에서 출판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연경의 논의에 따르면 만화에 대한 교육적 활용⁴⁾은 다양한 교과영역(지리, 외국어, 국어, 과학, 수학, 직업치료, 커뮤니케이션, 역사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대중만화를 활용하기 보다는 교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학습 만화’, ‘개념만화(concept cartoon)’형태의 활용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⁵⁾ 이러한 논의는 대전 소재 학교에서도 『불꽃』을 통하여 3·8민주주의거의 개념뿐만 아니라 의거의 전개과정을 보다 쉽고 재미있는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만화는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부호·복잡성·내용에 따라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내용의 전달 면에 있어서는 평탄화·침예화·동화라는 과정이 이루어진다.⁶⁾ 이와 같은 만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형식적인 면, 내용적인 면, 인상학적 해석, 표현 기법, 시각 언어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⁷⁾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만화 형식으로 주요 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

-
- 4) 김세중, 「맞춤법 수업을 위한 만화교재 활용」, 『한어문교육』 14권,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5.; 김은정·유찬욱, 「만화콘텐츠를 활용한 직업치료 전공 교육의 학습효과」,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7권 1호,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 2015.; 김지수, 「토막만화대화 중재가 통합교육 환경의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정애, 「국어교육과 만화의 텍스트적 변용」, 『국어교육학연구』 11권 1호, 국어교육학회, 2000.; 임모진·김성일, 「만화를 활용한 과학학습이 흥미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권 3호, 한국교육심리학회, 2006.; 최재영, 「지리 교육에서 만화의 학습 효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권 3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13.; 한상정, 「학습만화의 학습효과 연구경향 분석」, 『한국언어문화』 54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 5) 설연경, 「웹툰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13권 1호, 한국문화교육학회, 2018, 30-31쪽.
- 6) Randall P. Harrison 저, 하종원 역, 『만화와 커뮤니케이션』, 한나래, 2008, 30-31쪽, 100쪽.
- 7) 정선희·이지양, 「그림책에서의 만화적 표현 연구-매체 변환의 관점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권 4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4, 81쪽, 재인용.

지금까지 3·8민주의거와 관련된 연구 업적은 대구의 2·28민주운동이나 마산의 3·15의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⁸⁾ 최근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3·8기념사업회가 간행한 『불꽃』의 서사 전략과 표현방식의 분석을 통하여 이 만화가 갖는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지역 민주의거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⁹⁾

2. 학습만화 콘텐츠의 교육적 가치

1) 학습만화 콘텐츠의 특징

교보문고 홈페이지의 국내도서 카테고리 만화에는 교양만화부터 만화 잡지에 이르는 총 24종류로 세분화 하여, 독자들이 원하는 만화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놓았다. 이는 소설(15종류)이나 인문(20종류) 관련 카테고리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¹⁰⁾ 또한 통합검색 창에서 “학습만화”로 검색할 경우, 전체 9,891건(검색일: 2024.01.15.)에 이를 정도이다.

8) 이내관·이영조,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3·8민주의거의 지역학적 위상」, 『지식과 교양』 11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3.; 이내관, 「구술 증언록의 문화 융합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 구술 증언록 “3·8민주의거는 끝나지 않았다”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이내관·이영조, 「지역의 소환으로서 3·8민주의거: 구술 증언록을 통한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권 4호, 2021.

9)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3·8의거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 학습자료를 교사들에게 배포해 관련 교육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교육은 대전지역으로 한정돼 교과서에 오르지 않는 한 타 지역에선 학생들이 3·8의거를 배울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제주 4·3사건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편찬준거에 명시돼 향후 교과서 집필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또 대구에서도 2·28 대구 의거가 역사교과서에 비중 있게 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구, 마산과 함께 4·19혁명의 단초가 됐던 의거를 함께 교과서에 신고자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 조선교, 앞의 기사.

10)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이러한 일례만 보더라도 출판시장에서 학습만화가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학습만화의 가치를 짧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6년 발표된 과학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칼라과학학습만화』, 1979년 국사 전문가 10인이 제작 및 감수에 참여하고 국사편찬위원회와 문교부가 편집과정에 참여한 『만화한국사』는 국내 학습만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¹¹⁾ 이후 학습만화 시장은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출판사 (주)북이십일 아동교양브랜드 아울북은 국내 최장수 어린이 학습만화 시리즈 <마법천자문>이 오는 11월 11일 출간 20주년을 맞이한다고 24일 밝혔다. '마법천자문'은 2003년 1권 '불어라! 바람 풍風'을 시작으로 지난 19일 출간된 60권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한자 학습만화다.¹²⁾

위의 인용문은 학습만화 시리즈 『마법천자문』의 출간 20주년을 맞이한 즈음의 기사문이다. 『마법천자문』이 이렇게 오랜 기간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한자를 놀이하듯 배우는” 전략으로 제작이 된 이유뿐만 아니라, 어린이 한자교육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법천자문』의 열풍은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오늘날 한자 교육을 통한 어휘력 향상도 일조한다. 더불어 한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일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만화를 좋아하고, 시각적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적 특징과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융통성으로 인해 만화는 효율적인 교육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 계

11) 이승진·강은원, 「학습만화시장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42권,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4, 133쪽.

12) 연소연, “아울북 ‘마법천자문’, 출간 20주년 2,200만부 누적 판매 기록”, <디지털타임즈>, 2023.10.24.

몽자료, 아동학습교재, 각종 교범·교과의 원리 및 규칙해설, 상징물의 만화적 의인화, 삽화,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외국어 학습과 관련해서도 각 국가의 문화를 학습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역사와 관련된 학습만화에서 두드러진다.¹³⁾

‘Why? 시리즈’는 출판 사상 최초로 누적부수 8,600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다. 과학, 수학, 한국사, 세계사, 인문사회교양, 인물, 인문 고전, 코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아이 눈높이로 풀어낸 교육만화 시리즈로, 2001년 처음 출판된 뒤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부커스는 현재까지 출간된 ‘Why? 시리즈’ 317권을 비롯해 앞으로 출간될 신간까지 전자책으로 서비스 할 예정이며, 향후 예림당과 협의하여 오디오북으로도 제작해 독점 유통을 할 예정이다.¹⁴⁾

한편, ‘Why? 시리즈’의 경우 지금까지 누적부수 8,600만 부가 판매된 대표적인 교육만화 시리즈물이다. 이 책의 경우, 『마법천자문』과 같이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각 권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무엇보다 ‘Why? 시리즈’는 각 등장인물에 따른 스토리의 전개와 함께 다양한 지시문을 통하여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용어를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닌 전형적인 학습만화이다.

[그림 1]과 같이 ‘Why? 시리즈’는 등장인물에 따른 스토리의 전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시문과 편집체제를 통하여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나 원리, 나아가 핵심 용어의 정리 등을 아우르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마치 백과사전식 설명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학습내용에 대한 충분한 보충설명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자료 역할의 제공은 『불꽃』의 지

13) 이자영·이종경, 「역사학습에서의 만화자료 활용」, 『교과교육학연구』 6권 2호,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2002, 87-88쪽.

14) 장지용, “부커스, 초등학습만화 ‘Why? 시리즈’ 서비스를 시작”, <한국강사신문>, 2023.03.02.

(시)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림 1] 『Why?과학-지구의 재앙』, 86쪽의 일부(좌), 160쪽 전체(우)¹⁵⁾



[그림 2] 『불꽃』, 4-5쪽의 일부



[그림 3] 『불꽃』, 77쪽

15) <예림당>, <https://yearim.kr/goods/view?no=2752>, 2024.01.05.

이와 같이 『불꽃』에는 3·8민주의거의 전개과정과 함께 의거가 일어나게 된 전·후의 내막까지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 전형적인 학습만화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화의 교육적 효과는 상상력의 자극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기술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한 사건과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꽃』과 같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하는 만화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2) 민주화 역사의 교육 자료로서 학습만화

대전 시민으로 살아가는 대전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민주화 역사 교육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 민주 의거에 관한 역사 교육은 대전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살아 숨쉬는 역사 안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해당하는 4·19혁명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4·19혁명 이전에 일어난 지역의 민주의거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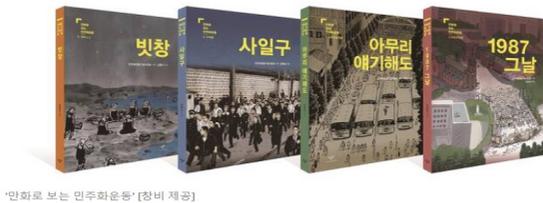
언급을 하였듯이 4·19혁명사를 가르치거나 논의할 때, 이와 관련된 지역의 민주의거 역사 전개과정을 함께 다루어 전·후 맥락을 보다 분명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꽃』은 4·19혁명사 위에 놓인 하나의 교육 자료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 낼 수 있는 만화자료이다.

민주화 역사 교육은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통하여 실행될 수 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역사나 사회 수업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해진 교과 내용과 교수 학습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 민주의거 교육에 시간을 할애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3·8기념사업회에서 일선 학교로 찾아가 별도의 시간에 직접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3·8기념사업회의 기획 하에 실시된 적이 있다. 특히, 의거에 참여한 세대가 그날의 역사를 증

언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셋째,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협업을 통하여 3·8민주의거를 알리고 교육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거 교육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역의 기관과 민간 단체가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3·8민주의거를 전파하고 교육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3·8민주의거를 교육하는 방안으로 학습만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만화 자료를 보급하여 지역 민주주의 거 교육에 활용하다면, 학생이나 시민은 보다 쉽게 지역 민주주의 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전은 2014년 지방 최초로 만화인 사단법인 대전만화연합이 창립되었다. 대전아마추어만화페스티벌이 10년 이상 개최되고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대전 충청지역은 전국에서 만화 관련 학과가 가장 많으며 수도권과 경기권을 제외하고 인력 배출의 수가 가장 많다.¹⁶⁾ 이러한 지역의 특색을 살려 3·8민주의거 관련 만화 자료인 『불꽃』의 제작이 이루어졌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교육만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창비 제공)

[그림 4]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출간, 창비

16) 최승춘·윤기현, 「지역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1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8, 186-187쪽.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의 분기점이 된 주요 사건들을 그린 만화가 나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창비가 펴낸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전4권)로, 만화가 김흥모, 윤태호, 마영신, 유승하가 각각 제주4·3,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다뤘다.¹⁷⁾

『사일구』는 역사 속 개인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4·19혁명을 경험했음을, 투쟁과 항거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이들에게 빛지고 있음을 역설한다. 각자 다른 사건을 경험한 세대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 작품은, 촛불을 들고 광장을 찾은 새 세대에게 과거를 폭넓게 이해하는 법을 알려준다. 역사의 뒤편에서 민주주의의 성장을 목격해 온 주인공의 솔직한 고백은 60년 전 그날에 빛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솔하게 다가오며, 각자의 '혁명'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¹⁸⁾

위의 두 인용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4월혁명의 한복판에 있었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 만화자료의 장점이다.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하여 배울 수 없는 내용을 역사만화를 통하여 접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장감 있게 구성된 만화의 장점을 살려 4월혁명을 그려낸 점이 역사만화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무엇보다 『불꽃』은 4·19혁명 한 달 전에 있었던 지역의 민주화 의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역사교육에 있어서 만화를 활용할 때는 먼저 만화의 종류 및 각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역사교육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화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¹⁹⁾

그런 면에서 『불꽃』은 어느 한 개인의 작업으로 만들어진 만화가 아니라, 3·8기념사업회에서 기획하고 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어

17) 김종훈, "민주화운동 역사 만화로.. "너무 힘들었지만 뿌듯"", <연합뉴스>, 2020.04.07.

18) <창비>, <https://www.changbi.com/BookDetail?bookid=3418>, 2023.01.12.

19) 이자영·이종경, 앞의 논문, 89쪽.

는 특정한 개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사단법인의 민주 역사관의 반영과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성 담보라는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민주화 역사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3·8기념사업회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불꽃』이 3·8민주주의거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꽃』이라는 학습만화는 당시의 역사를 쉽고 명료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최소한 당시의 역사를 오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습만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진실성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이 될 때, 학습만화로써 자격을 지니게 된다.

3. 『만화로 보는 3·8민주주의거, 불꽃』의 서사 전략과 표현 방식

1) 가공한 캐릭터와 실존 인물의 변용 활용

만화의 등장인물을 캐릭터라고 한다. 캐릭터의 시각적 형태는 그 캐릭터의 성격, 기분, 태도 등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어 캐릭터만 보아도 그 인물을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캐릭터의 형태는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로서 하여금 등장인물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캐릭터를 묘사하는 시각적인 형태는 캐릭터의 외적 속성뿐만 아니라 내적 속성까지도 드러낸다.²⁰⁾

『불꽃』의 인물은 스토리의 전개를 위한 가공인물과 3·8민주주의거에 직접 참여한 인물을 개명한 인물로 나뉜다. 우선, 『불꽃』의 전체적인 서사를 끌고 나가는 가공 인물은 ‘규철’과 ‘병규’이다.

20) 정선희·이지양, 앞의 논문, 87쪽.



[그림 5] 『불꽃』, 7쪽



[그림 6] 『불꽃』, 70-71쪽

『불꽃』의 초반부에 등장한 규철은 “학급비로 서울신문 구독”, “자유당 행사에 학생동원”, “사전 선거운동” 등 1960년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관한 학급 친구들의 대화를 듣게 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한다. 무엇보다 ‘규철’은 어수선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다짐하는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규철’을 비롯한 친구들은 3월 7일 밤, 보문고 김무성의 집으로 모이게 된다. 이곳에서 이들은 3월 8일 오후 2시 공설운동장(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예정된 부통령 장면 후보 유세장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

할 거사 계획과 동시에 이곳에서 결의문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단독으로 하자.” 이렇게 됐어(중략). 박명건이하고 김인실이하고 있었는데, 나하고 제일 절친한 친구였었다고. 그 사람들과 하숙집에 같이 들어가서, “야, 결의문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토론을 한 거지. 지금 시국이 어땠고, 이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내가 다 취합을 해서 문안을 만드는 거지(중략). 그래서 그때 작성한 결의문 내용이 인제 이거란 말이야.²¹⁾

『불꽃』의 가장 마지막도 규철의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이때 라디오에서 “마산 중앙 부두에서 시신이…”라는 음성이 흘러나오자, 규철과 규철의 아버지는 놀라게 된다. 그날 저녁 규철은 방문을 열고 조용히 나간다. 그때 규철의 아버지는 규철의 행동을 목인이라도 하듯이,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 미안하다.”라고 속으로 말한다. 결국 이러한 가공 인물의 설정은 3·8민주의거의 주역은 특정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당시 대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모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실존 인물을 성이나 이름을 바꾸어 변용하여 활용한 경우이다. 1960년 3월 7일 밤에 대전고 학생들은 김무성의 집에 모여 결의문을 완성한다. 『불꽃』에서 김무성은 특별한 존재를 드러내는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3·8민주의거를 거론할 때, 결의문의 완성이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실질적으로 김무성은 당시 보문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강무송으로 전해진다.

21) 이영조·이내관·우혜영, 『구술 증언록, 3·8민주의거는 끝나지 않았다』, (사)3·8기념사업회, 기획출판 오름, 2019. 169-170쪽 (구술: 홍석곤).: 이하 구술자와 구술 내용의 인용은 이 책을 따르고, 본문에서 구술자와 쪽수만 밝힘. 구술 내용을 확인하는 이유는 『불꽃』의 내용을 교차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림 7] 『불꽃』, 18쪽

한편, 3월 8일 오전에 대전고 학교장은 당일 학생 시위가 예정된 것을 알고, 학생 간부를 학교장 관사로 불러 모은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생들을 시위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관사에 불려간 학생 간부들 속에서 박제근은 감기로 약을 사러 가야 한다는 기지를 발휘하여 관사를 빠져나간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교장의 전화 통화를 틈타 학교로 돌아가 시위를 주도한다. 이처럼 『불꽃』에서 대전고 대대장으로 그려진 박제근이라는 인물은 실제로는 박제구이다. 박제구는 당시 대전고의 대대장으로 3·8민주의거 시위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림 8] 『불꽃』, 28쪽

그래서 각 학교로 전부 대전공고는 누구, 상고는 누구, 누가 갈래?(중략) 이제 예를 들어 공고 같은 경우는 전성이라고 우리 동기가, 그날 모인 애가 있는데, 개하고(중략). 공고는 전성. 그러면 상고는? 상고는 이렇게 하다가 상고는 내가 할게(중략). 그 다음에 대전여고 누구? 대전여고는 장연수, 대전

사범은 정원웅. 이렇게 이제 쪽. 대전여상은 정일근이 이렇게 쪽 한 거예요.
그(중략)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전부 대고 얘기를 해라 하고 한 거예요.
(박제구 구술: 53-54쪽)

그리고 『불꽃』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교사는 2명이다. “흠어졌던 친구들이 목척교에 모였다가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조민호 선생님하고 금성철 선생님은 수갑까지 차고 잡혀가셨대.” “여, 연행? 선생님들까지? 수갑을? (『불꽃』, 43쪽)” 실제로 시위 과정에서 대전고 교사 2명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실제로 이들은 당시 대전고 교사였던, 조남호와 금종철이다.



[그림 9] 『불꽃』, 43쪽

목척교 바로 밑에. 그 다리를 건너서 왔던가 하는데… 이렇게 보니, 조남호 선생을 수갑을 채웠더라고… 수갑을 채웠어요. 그래 “수갑 채운 거 끌러라”, “수갑 채운 거 끌리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 그런데 총을 들이대더라고.
(이정치 구술: 79쪽)

끝으로 채주성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다. 채주성은 대전상고 대대장으로서 3월 10일로 이어지는 시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이 3월 9일 밤에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림 10] 『불꽃』, 50쪽(좌), 56쪽(우)

『불꽃』에 등장하는 대전상고 학생인 채주성은 채재선이다. 당시 연행 상황에 대하여 채재선은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새벽 한 세시 되니까 막 개가 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두드리 는 거예요. 새벽 3시 경에, 그래 우리 아버님이 나가가지고 어찌 왔냐니까, 나 형산데, 경찰서에서 왔는데, 채재선 여기 있지 않느냐고. 그래 날 잡으러 온 거예요. 3월 10일 새벽 3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근데 내 친구 대대장, 중대장 하는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개들이 자기 집에서 안자고 우리 집에서 잤으니까.

(채재선 구술: 429-430쪽)

이자영·이종경의 논문에서는 “등장인물의 표현방식에 있어서 역사적 고증이 없는 만화가의 인위적 표현으로 인해 학생들로 하여금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역사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역사적 사고력 함양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²²⁾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불꽃』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역사만화를 포함한 학습만화에서는 사실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물론 1960년 3월 8일에서 10일에 걸쳐 일어난 의거를 생존자나 생존자의 구술, 나아가 관련 단체와의 대담을 통하여 100% 동일하게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은 3·8기념사업회에서 기획하고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22) 이자영·이종경, 앞의 논문, 89쪽.

무엇보다 『불꽃』이 창작되기 전에 만들어진 『3·8민주의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구술 증언록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3·8민주의거는 끝나지 않았다』가 다양한 3·8의 의미를 지닌 원소스(one source)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을 때, 이를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날짜별 의거의 전개과정과 인물의 파악, 그리고 장소의 파악은 증언록을 스토리텔링화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²³⁾ 그러므로 『불꽃』을 접하는 독자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학생 개개인 모두가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3·8민주의거 발생과정의 사실적 전달

『불꽃』은 1960년 대전의 분위기부터 전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러한 구성은 3월 8일부터 3월 10일에 걸쳐 일어난 의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더욱이 학습만화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불꽃』에서는 의거가 일어나기 전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잘 묘사된 것이 특징적이다.



23) 이내관, 「구술 증언록의 문화·융합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 『문화와융합』 43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529쪽.



[그림 11] 6쪽(좌상), 7쪽(우상), 9쪽(좌하), 11쪽(우하)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문 한쪽에 작은 기사로 실렸고, 소문은 대전까지 전해졌다. 무엇보다 학원가까지 침투한 자유당 정권의 만행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심해진다. 예컨대 정부 기관지 역할을 자임했던 《서울신문》의 강제 구독이나 이승만 찬양 글 짓기 강요는 학생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²⁴⁾ 위에 제시된 [그림 11]과 같은 내용은 3·8민주의거를 이하는 데 전제가 된다. 이는 3·8민주의거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를 위한 배려이자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학습도구적 장치가 된다.

1960년 3월 7일은 대전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합 시위를 하기 위하여 사전 모의가 있던 날이다. 특정 학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시위는 당위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연합시위 계획을 세운다. 이는 당시 보문고 재학생 이정희의 증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보문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전부 너는 대전공업, 너는 보문, 너는 대전상고, 너는 뭐 호수돈여고, 너는 대전여고 전부 학생 간 부들한데 연락해서 내일 3월 8일 오후 3시에 공설운동장에서 집회를 해서 같이 시위를 하자 그런 모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정희 구술: 538-5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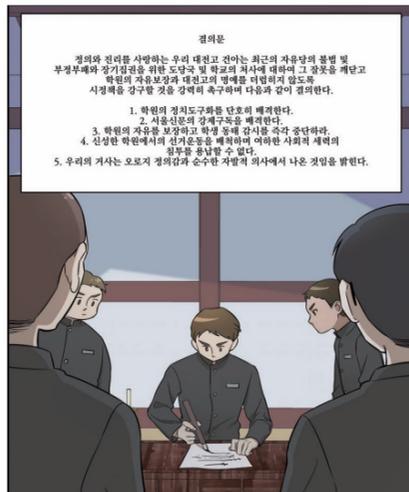
24) 이내관·이영조, 「기억의 소환으로서 3·8민주의거-구술 증언록을 통한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권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871-872쪽.



[그림 12] 『불꽃』, 20쪽

[그림 12]의 (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3월 8일 “민주당 부통령 장면 후보 유세” 시간과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한 학생 시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연대하여 자유당 정권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당시 자유당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특정 세력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에 시민과의 연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3월 8일을 거사일로 정한다.



[그림 13] 『불꽃』, 22쪽

무엇보다 3월 7일 밤은 3·8민주의거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다. 김무성의 집에서 작성된 결의문과 3월 8일 거사에 대한 사전 계획의 치밀한 수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논의하였듯이 당시 3·8민주의거에 직접 참여한 홍석곤 등이 결의문 작성에 일조한다.

그러나 거사가 계획된 3월 8일, 대전고 학생 간부들을 교장 관사로 호출되어 불려간다. 『불꽃』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3월 8일로 계획을 세운 시위가 사전에 누설되었고, 이에 경찰의 지시를 받은 각급 학교는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기에 이른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교장이 학생 간부를 관사로 소집하는 것이었다.



[그림 14] 『불꽃』, 27쪽

이곳에서 이들은 교장선생님이 시킨 자장면을 먹게 된다. 이때 대대장 박제근은 감기약을 사러 가야한다며 관사를 빠져 나가고, 나머지 학생 간부들도 이 틈을 타서 관사의 담장을 넘어 학교로 향한다. 교실에 남아있던 학생들은 간부들의 소리를 듣고 교실 밖으로 나가면서 시위는 시작된다.

그러나 대전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는 3월 8일 시위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3월 8일은 대전고가 시위를 했어요. 대전상고는 3월 8일 함께 하기로 한 것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었죠. 경찰의 삼엄한 감시도 있었고 학교 당국도 학생간부들을 붙잡아 두었던 관계로 3월 8일 당일의 시위는 무산되었어요.

(김상섭 구술: 345쪽)



[그림 15] 『불꽃』, 34쪽

당시 대전상고 재학생이었던 김상섭의 증언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3월 8일 시위 정보가 유출된 관계로 당일 연합 시위는 무산된다. 그러나 3월 8일 대전고 단독 시위에서 이들은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학원에 자유를 달라!
 언론 탄압 중지하라!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학원에서의 선거운동을 배격한다!
 관제신문 구독강요 절대반대!

(『불꽃』, 39쪽)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서 경찰의 강력한 진압이 이어지고, 급기야 교사를 연행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니, 조남호 선생을 수갑을 채웠더라고... 수갑을 채웠어요. 그래
 “수갑 채운 거 끌러라”, “수갑 채운 거 끌르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 안 들어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 그런데 총을 들이대더라고.

(이정치 구술: 79쪽)

이정치의 구술에서도 대전고 교사인 조남호에게 수갑이 채워진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처럼 『불꽃』에는 날짜와 시간별로 당시의 사건이 비교적 잘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건의 묘

사는 이 책이 교육만화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주지하다시피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에만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월 8일로 계획된 연합시위가 사전에 알려지게 되면서 대전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학생들을 학교에 머물게 하였다. 이는 [그림 15]와 같이 대전공고, 대전사범학교, 대전여고 등의 학생들도 3월 8일에 연합시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학교 측의 제지로 학교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시위에 가담한다. 무엇보다 대전고의 시위가 각급 학교에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으며, 대전상고 대대장과 각 학교의 간부들이 연행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에 3월 10일에는 대전상고가 공설운동장을 향해 나가면서 시위는 계속된다. 이들은 운동부의 도움으로 스크럼을 짰 후, 보다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이어간다.



[그림 16] 『불꽃』, 61쪽

3월 10일 아침 조례 직전에 기습적으로 전교생을 운동장에 집합시켰고, 모두 교내의 운동장에서 작은 돌맹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운동부 학생들을 앞세워 ‘스크럼’을 짰 후 2학년 1반이 선봉이 되어 자양동→신안동 굴다리→목척교→도청을 목표로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처음 준비한 구호에 ‘구속학생 석방하라’는 구호가 추가되었다.²⁵⁾

25) 이원옥, 「대전상고의 민주의거」, 『三·八 民主義擧』,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2005, 33쪽.

이와 같은 이원옥의 논의를 통해 보더라도 대전상고의 시위가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대전상고의 시위에서도 “학원사찰 중지하라!”, “부정부패 척결!”, “구속학생 석방하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등의 구호가 울린다. 무엇보다 대전상고 대대장을 비롯하여 학생 간부들이 연행된 것에 분개한 학생들은 동료 학생들의 석방을 위한 구호를 포함하여 시위를 이어간다.

3월 15일 자유당이 계획했던 부정선거가 하나 둘씩 드러났다. 4할 사전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대전에서 피어난 민주주의 불꽃이 마산에서 다시 타올랐다.

『불꽃』, 73쪽.

대구-대전-마산에서 일어난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였고, 마침내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왔다. 우리는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신, 그 중심에 3·8민주주의거가 있었음을.

『불꽃』, 77쪽.

이처럼 『불꽃』에는 1960년대의 정치적 분위기는 물론이고, 3월 8일을 전후하여 의거의 발생과정이 시간대별로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불꽃』은 초·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습만화의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3·8민주주의거의 발생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전의 3·8민주주의거는 4·19혁명의 모체가 된다는 점에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4. 결론: 지역 민주주의 교육의 확산 전략

지금까지 3·8기념사업회에서 기획하고 발행한 학습만화 『불꽃』(2022)의 서사전략과 표현 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역사만화 콘텐츠의 교육적 가치

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갈라과학학습만화』(1976), 『만화한국사』(1979)를 시작으로 『먼나라 이웃나라』, 『마법천자문』, ‘Why? 시리즈’ 등에 이르는 수많은 학습만화가 출판되고 있고, 이 모두는 지금까지 스티디셀러가 되었다. 만화는 시각적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기능적 특징 때문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만화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교육현장과 교과서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추세임에 분명하다. 만화 콘텐츠는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 언급한 『불꽃』은 4·19혁명의 단초가 된 대전 3·8민주의거의 전개과정을 알기 쉽게 형상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대전광역시 지원의 도움을 받아 3·8기념사업회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물론 만화라는 특성 상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의거 참여자의 증언과 교차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민주의거 교육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 창비에서는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사일구』는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러한 출판 시장의 흐름 속에서 『불꽃』의 간행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대전 지역의 민주의거를 객관성을 담보하여 현장감 있게 그려내었기 때문이다. 특히, 캐릭터의 설정에서 가공인물과 실존인물의 변용은 돋보인다. 민주화운동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당시를 살아온 모든 이들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 작품은 1960년 3월 8일을 전후하여, 의거가 일어난 배경과 날짜별 전개 과정의 핵심이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불꽃』이 3·8민주의거를 보다 쉽게 알리고, 의거의 내용을 학습자나 일반 시민에게 교육하는 데, 충분하게 일

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3·8기념사업회에서는 3·8민주의거를 지역민과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업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때 학습 만화 형태의 『불꽃』은 주목해 볼 작품이며, 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미 대전에서는 지난 2023년에 3·8민주의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가 아래와 같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²⁶⁾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설 동 호

대전광역시 조례 제613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대전광역시 학생들이 그 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8민주의거”란 1960년 3월 당시 자유당의 독재 권력에 맞서 대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3·8민주의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역사교육운영계획에 3·8민주의거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3·8민주의거교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
2. 3·8민주의거 교육 프로그램 마련

26) <대전광역시교육청>, <https://www.dje.go.kr/main.do?s=dje>.

3. 3·8민주의거 교육 활성화 방안

4. 3·8민주의거 기념 및 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3·8민주의거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3·8민주의거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3·8민주의거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한 조례에서는 3·8민주의거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계획의 수립, 교원 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제3조 교육감의 책무인 3·8민주의거에 관한 “교육적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교육감의 책무를 어떻게 다하느냐에 따라서 3·8민주의거에 관한 학교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제6조(협력체계 구축)’이다. 결국 지역 민주의거 교육은 대전광역시교육청만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역설한 대목이다. 3·8민주의거는 “계획적이고 자발적인 거사의 정체성”, “자유·민주·정의를 위한 학생 주도의 고유성”, “지역민의 호응에 따른 장소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학적 위상이 이미 증명되었다.²⁷⁾ 이러한 성과를 전제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에서는 3·8민주의거를 교육하고, 알리는 일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불꽃』(2022)은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사단법인)3·8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직접 기획하고 간행한 학습만화이다. 이에 대전교육청과 3·8기념사업회의 협력을 통하여 학습 만화 『불꽃』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27) 이내관·이영조,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3·8민주의거의 지역학적 위상」, 『지식과 교양』 11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3, 63-91쪽.

대전광역시에는 초등학교 152개교, 중학교 90개교, 고등학교 64개교가 있다.²⁸⁾ 이들 학교의 학급 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불꽃』을 보급한다면, 학생들은 쉽고 재미있게 3·8민주의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역사 시간에 4·19혁명에 관한 단원을 이수할 때, 자연스럽게 3·8민주의거를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시작은 결국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8) <대전광역시교육청>, <https://www.dje.go.kr/dje/srch/schl.do?m=050903&s=dje>.

■ 참고문헌

- 김세중, 「맞춤법 수업을 위한 만화교재 활용」, 『한어문교육』 14권,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5, 103-126쪽.
- 김은정·유찬욱, 「만화콘텐츠를 활용한 작업치료 전공 교육의 학습효과」,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7권 1호,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 2015, 29-35쪽.
- 김지수, 「토막만화대화 중재가 통합교육 환경의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만화로 보는 3·8민주의거, 불꽃』, 기획출판오름, 2022.
- 설연경, 「웹툰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13권 1호, 한국문화교육학회, 2018, 25-48쪽.
- 연소연, “아울북 ‘마법천자문’, 출간 20주년 2,200만부 누적 판매기록”, <디지털타임즈>, 2023.10.24.
- 이내관, 「구술 증언록의 문화 융합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 구술 증언록 “3·8민주의거는 끝나지 않았다”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525-548쪽.
- 이내관·이영조,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3·8민주의거의 지역학적 위상」, 『지식과 교양』 11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3, 63-91쪽.
- 이내관·이영조, 「기억의 소환으로서 3·8민주의거: 구술 증언록을 통한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권 4호, 2021, 867-892쪽.
- 이승진·강은원, 「학습만화시장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42권,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4, 131-140쪽.
- 이영조·이내관·우혜영, 『구술 증언록, 3·8민주의거는 끝나지 않았다』, (사)3·8기념사업회, 기획출판 오름, 2019.

- 이원옥, 「대전상고의 민주의거」, 『三八 民主義舉』, (사)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2005, 30-35쪽.
- 이자영·이종경, 「역사학습에서의 만화자료 활용」, 『교과교육학연구』 6권 2호,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2002, 85-101쪽.
- 이정애, 「국어교육과 만화의 텍스트적 변용」, 『국어교육학연구』 11권 1호, 국어교육학회, 2000, 239-260쪽.
- 임묘진·김성일, 「만화를 활용한 과학학습이 흥미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권 3호, 한국교육심리학회, 2006, 549-569쪽.
- 장지용, 「부커스, 초등학습만화 ‘Why? 시리즈’ 서비스를 시작」, 『한국강사신문』, 2023.03.02.
- 정선희·이지양, 「그림책에서의 만화적 표현 연구-매체 변환의 관점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권 4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4, 77-95쪽.
- 최승춘·윤기현, 「지역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만화에니메이션연구』 51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8, 181-201쪽.
- 최재영, 「지리 교육에서 만화의 학습 효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권 3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13, 147-162쪽.
- 한상정, 「학습만화의 학습효과 연구경향 분석」, 『한국언어문화』 54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237-255쪽.
- Randall P. Harrison 저, 하종원 역, 『만화와 커뮤니케이션』, 한나래, 2008.

기사

- 김종훈, 「민주화운동 역사 만화로... “너무 힘들었지만 뿌듯”」, 『연합뉴스』, 2020.04.07.; <https://www.yna.co.kr>.
- 조선교, “교과서에 없는 대전3·8민주의거… 그날 함성 잊힐라”, <충

청투데이>, 2023.03.07.

참고사이트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대전광역시교육청 누리집>, <https://www.dje.go.kr/main.do?s=dje>.

<예림당>, 『Why?과학-지구의 재앙』: <https://yearim.kr/goods/view?no=2752>.

<창비>, <https://www.changbi.com/BookDetail?bookid=3418>.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발행한 학습만화 『불꽃』의 서사전략과 표현 방식을 분석을 통하여 이 작품을 지역 민주주의거 교육의 확산 전략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만화는 시각적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기능적 특징 때문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만화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교육현장과 교과서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만화 콘텐츠는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불꽃』은 4·19혁명의 단초가 된 대전 3·8민주의거의 전개과정을 알기 쉽게 형상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대전광역시시의 지원을 받아 3·8기념회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물론 만화라는 특성 상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의거 참여자의 증언과 교차 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 부분 사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불꽃』의 간행은 대전 지역의 민주의거를 객관성을 담보하여 현장감 있게 그려내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캐릭터의 설정에서 가공인물과 실존인물의 변용은 돋보인다. 민주화운동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당시를 살아온 모든 이들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 작품은 1960년 3월 8일을 전후하여, 의거가 일어난 배경과 날짜별 전개 과정의 핵심이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불꽃』이 3·8민주의거를 보다 쉽게 알리거나 의거의 내용을 교육하는 데, 충분하게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작품은 대전광역시시의 지원으로 (사단법인)3·8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직접 기획하고 간행한 학습만화이다. 이에 대전광역시교육청과 3·8기념사업회의 협력을 통하여 학습 만화 『불꽃』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3·8민주의거, 민주주의거 교육, 만화자료, 역사만화, 불꽃

■ Abstract

Proposal for a Strategy to Spread Local Democratic uprising Education through the use of Cartoon materials

: Focus on *The 3·8 Democratic Movement Seen Through Cartoons,
Fireworks*

Lee, Nae Kwan
/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narrative strategy and expression method of the learning cartoon 『Fireworks』, which was planned and published by the 3·8 Democratic Movement Commemorative Association, and present a strategy to spread local democratic uprising education. Because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comics that allow them to be visually communicated easily and quickly, various learning materials are reproduced as comic content and are widely used in educational settings and textbooks. In addition, cartoon content has the advantage of not only stimulating learners' imagination, but also arousing interest in learners by utilizing various visual effects.

『Fireworks』 depicts in an easy-to-understand manner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aejeon March 8 Democratic Uprising, which became the beginning of the April 19 Revolution. Above all, this work guarantees sufficient objectivity because it was published by the 3·8 Democratic Movement Association with support from Daejeon Metropolitan City. Of course, due to the nature of being a cartoon, there may be some elements of the author's imagination, but as a result of cross-examination and testimony of the participants at the time, it is largely based on reality.

The publication of 『Fireworks』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depicts the democratic uprising unique to the Daejeon region in a realistic manner, guaranteeing objectivity. In particular, the transformation of fictional and real people in the character settings stands out. This is especially true considering

that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s not the exclusive property of specific individuals or groups, but is the product of everyone who lived at that time. In addition, this work reveals relatively clearly the background of the rebellion and the core of the development process by date around March 8, 1960. It is believed that these characteristics can sufficiently contribute to making it easier for 『Fireworks』 to publicize the 3·8 Democratic Movement and educate people about the contents of the uprising. This work is a learning cartoon directly planned and published by the 3·8 Democratic Movement Memorial Association (incorporated association) with support from Daejeon Metropolitan City.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concrete plan to distribute the learning comic 『Fireworks』 to school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Daejeo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March 8th Memorial Project Association.

Keyword • 3·8 Democratic Movement, Democratic Uprising Education, Cartoon Materials, Historical Comics, Fireworks

대학 고전읽기 교육의 교육목표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S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전영옥·강옥희*

목 차

1. 머리말
2. 인간됨을 지향하는 교육
3. 글쓰기와 말하기를 연계한 읽기 중심 교육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의 대학에서 고전읽기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¹⁾ 이하준에서는 고전교육이 교양교육에서 중요한 교육적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으로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인성 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삶의 가치와 의미탐구로서 고전의 위상 재정립, 인문학적 상상력을 중시하는 기업의 채용문화 변화, 출판사와 대중적인 작가들의 고전읽기 대중화 및 상업화 전략의 영향, 교양교육의 중요성 대두로 교

* 전영옥(제1저자)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부교수, 오름교양교육연구소장
강옥희(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인문과학연구소장

1) 윤승준, 「고전교육, 교양필수 교과목 운영 사례: 단국대학교 <명저읽기>를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6호, 2021, 38쪽.

양교육 담당 기관 설립 등을 들고 있다.²⁾ 교양교육에서 고전읽기 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대학들은 고전읽기 교과목을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였다. 동덕여자대학교는 2000학년도에 <독서와 토론>을 교양필수로, 숙명여자대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인문학 독서토론>을 교양필수로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고전읽기와 글쓰기>는 2013학번부터 2019학번까지 필수교양으로 운영하였고,³⁾ 영남대학교의 <명저읽기와 글쓰기>도 교양필수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필수로 운영되지 않는다.⁴⁾ 현재 교양필수로 운영하는 고전읽기 교과목으로는 동국대학교의 <세계명작세미나>, 단국대학교의 <명저읽기>, 부산대학교의 <고전읽기와 토론> 정도가 있다.

고전읽기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운영하는 대학의 감소는 고전읽기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한국대학평가원이 2023년도 12월 18일에 발표한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기준(안)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에서는 졸업 이수 학점에서 교양 이수 학점 비율의 권장 기준을 대학의 내부 기준이 없을 시 30%±10%에서 25%로 변경하였고, 기존에 교양필수의 권장 비율을 50%±10%로 제시하였으나 권장 비율 기준을 없앴다. 천정환에서 제시한 대학 교양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합의 가운데 대학 내부의 조정·합의보다, 대학과 대학 바깥 현실 사이에서의 마찰과 그에 따

2) 이하준,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8권 5호, 2014, 424-425쪽.

3) <이화여자대학교>, “교양필수 교과목 이수 안내(2018학년도~1019학년도 입학생)”, [https://cmsfox.ewha.ac.kr/cms/etcResourceOpen.do?site=\\$cms\\$BYew1gtghkA&key=\\$cms\\$EwBgjAHAtKYJwH0AyBLARgUwE4EMA2CAglgC4DOCAwgPYCuWZGZAdAA4AmAZkA](https://cmsfox.ewha.ac.kr/cms/etcResourceOpen.do?site=cmsBYew1gtghkA&key=cmsEwBgjAHAtKYJwH0AyBLARgUwE4EMA2CAglgC4DOCAwgPYCuWZGZAdAA4AmAZkA), 2024.02.12.

4) <영남대학교>, “2023학년도 교육과정이수지침 안내”, <https://www.yu.ac.kr/main/bachelor/curriculum-guidelines.do>, 2024.02.12.

른 조정·합의에 의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학평가 기준 변화는 교양교육의 위축과 교양필수 교과목의 축소를 야기할 것이다.⁵⁾

교양선택으로 고전읽기 교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교과목의 유지는 학생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각 대학은 교과목의 폐강과 폐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폐강의 기준은 수강 인원수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곧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과목은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효진 외에서는 대학생의 수강신청 기준에서 교양과목에서는 ‘학습의 편의성’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교양강의를 수강함에 있어 투자해야 하는 학습자 개인의 시간이나 노력이 수업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⁶⁾ 이를 근거로 보면 ‘책 읽기-토론하기-글쓰기’ 등의 학습자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고전읽기 교과목은 학습의 편의성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S대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 1학기에 <명저읽기(일반)>을 시작으로 2015학년도 1학기에 <명저읽기(문학)>, <명저읽기(과학·기술)> 교과목을 교양선택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교과목 운영 과정에서 수강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수강하는 학생들이 책 읽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더욱이 2023학년도 2학기에는 <명저읽기(과학·기술)> 교과목이 수강기준 미달로 폐강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대학교의 <명저읽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대학 고

-
- 5) 천정환에서는 현실에서 ‘교양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합의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① 주로 교양과목 운영을 관장하는 인문학과 관련 전공 교수들 사이의 합의, ②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간의 소위 ‘두 문화(two cultures)’ 사이의 구체적 결정, ③ 대학과 대학 바깥의 현실 사이에서의 마찰과 그에 따른 조정·합의를 제시하고 있다.; 천정환, 「대학 고전 교양교육과 ‘고전 100선’의 문화정치」, 『교양학연구』 17권, 2021, 40-42쪽.
- 6) 이효진·윤가영·박인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따른 대학생의 수강신청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3권 4호, 2017, 91쪽.

전읽기 교육의 현실적 과제를 고전읽기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수업 운영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⁷⁾ 고전읽기 교육에 대한 문헌 연구(타 대학 사례 연구 포함)와 학습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논의를 진행한다.⁸⁾ 설문조사는 S대학교의 <명저읽기(일반)>, <명저읽기(문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54명의 학생(일반 21명/문학 33명)이 참여하였고, 설문 문항은 교육목표와 수업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 인간됨을 지향하는 교육

최근 대학에서 역량기반 교육이 강화되면서 고전읽기 교육의 교육목표를 의사소통역량 함양, 비판적 사고력 함양 등에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7) 본 연구에서 ‘고전읽기 교육’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읽는 교육을 의미하고, ‘<명저읽기>’는 고전읽기 교육을 하는 교과목명을 지칭한다. 유종호에서는 ‘고전(古典, Classic)’은 옛날에 쓰인 책으로 지금도 읽고 있는 책, 계속 읽어야 하고 읽을 가치가 있다고 높이 평가되는 책이라고 보았다. ‘명저(名著, Great Books)’는 사전적 의미로는 ‘훌륭한 저술, 또는 이름난 저서’이다. 이국환에서는 고전의 외연이 확장된 것 곧 옛날에 쓰인 책이라는 범주를 넘어 현대에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변상출 외에서는 고전과 명저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수십 년 이상을 사람들이 읽어오며 읽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서양의 책을 ‘고전’으로 보고, 이러한 책 읽기를 수행하는 교육을 ‘고전읽기 교육’이라고 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고전 가운데서도 현재적 의미와 가치가 더 부각되는 책을 읽힌다는 의도에서 교과목명을 <명저읽기>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교과목명을 언급할 때는 <명저읽기>를 사용한다. 책 읽기 교육을 ‘고전읽기 교육’으로, 교과목명을 <명저읽기>로 사용하는 관점은 김영학, 윤승준 등에서도 나타난다.: 유종호, 「서양의 고전: 한 시험적 조망」, 『열린연단 강연자료』,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79122&rid=2887, 2015.01.31.>; 이국환,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읽기와 독서교육」, 『동남여문논집』 43집, 2017, 214쪽.; 변상출 외, 「대학 교양교육의 심화발전방안에 대한 재고(再考)-D대학교 『클라시카 자유허』 ‘고전교육’ 교과목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권 2호, 2020, 102쪽.; 김영학, 「대학 교양교과로서의 고전읽기 수업모형 연구-조선대학교 <명저읽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86호, 2019.; 윤승준, 앞의 논문.

8) 이와 함께 기말 강의평가 서술형에 나타난 학생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하고자 한다.

능력은 책을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그 내용을 토론하고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지만 고전읽기 교육의 본질을 고려한 목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고전읽기 교육은 오랫동안 읽어왔고 읽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책들을 읽으면서 책이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인간됨을 추구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이 장에서는 각 대학의 고전읽기 교육에서 설정한 교육목표를 살펴보고, S대학교의 <명저읽기> 교과목에서 교육목표의 설정 방식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S대학교의 <명저읽기>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개선점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업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각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고전읽기 교과목의 교육목표에 대해 최윤경·한수영에서는 의사소통 교육, 인성 교육, 자기몰입과 자기 탐구를 유도하는 텍스트 몰입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⁹⁾ 그러나 선행 연구 가운데 상명대학교의 <명저읽기(문학)> 교과목에 대해 창의적 사고와 통합적,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한 강옥희의 연구¹⁰⁾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를 의

9) 교육 연계의 실천 활동을 강조하는 ‘읽기 비교과’까지 포함하여 네 가지로 분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과에 한정하여 다루기 때문에 세 가지를 소개한다. 의사소통교육은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능력 함양에 두는 것으로 한림대학교의 <독서와 토론>, 상명대학교의 <명저읽기(문학)>, 대구대학교의 <명저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등을 예로 들었다. 인성 교육은 의사소통능력 함양 차원보다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를 삼은 것이다. 전자가 기초역량 측면에 비중을 두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유교양교육의 차원에서 ‘빌딩’, 즉 인간성과 인격 형성을 추구하는 데에 주목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역량이나 인성역량으로 수렴되는 읽기가 아니라 읽기를 통한 확장과 확산 자체에 더 의미를 두는 자기몰입과 자기 탐구를 유도하는 ‘텍스트 몰입교육’의 사례로는 중앙대학교의 <창의와 소통>, 이화여자대학교의 <고전읽기와 글쓰기>를 들었다. 최윤경·한수영, 「고전읽기 관련 교양교육 사례연구의 현황과 진단」, 『교양학연구』 16권, 2021, 195-238쪽.

10) 강옥희,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고전읽기 수업방안 연구-문학토론을 통한 <명저읽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0권 4호, 2016, 543-578쪽.

사소통 교육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자기몰입과 자기 탐구를 유도하는 ‘텍스트 몰입교육’의 사례로는 중앙대학교의 <창의와 소통>을 들고 있는데, 교육목표는 핵심역량 강화와 융합적 상상력 개발로 제시되어 있어 분류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의 고전읽기 교육의 교육목표는 크게 인성 함양, 의사소통능력 함양,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함양, 문제해결능력 함양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하준은 인성 함양으로서의 고전읽기 교육의 수업목표를 고전을 매개로 한 보편적인 인성의 함양에 두고 있다. 자기관계, 사회관계, 세계관계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기대되는 행동과 규범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면화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¹¹⁾ 지정민에서는 교양교육은 흔히 의사소통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고전 독서를 통한 교양교육은 단순히 그러한 목적에 한정될 수 없다고 하며,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 개발이 목적이라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낯설고 난해한 고전을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고전을 배우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고전 속에 불박여 있는 고유한 가치를 습득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¹²⁾ 이러한 고전의 기본 가치를 탐구하는 인성 함양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명저읽기>로 <명저읽기:그리스비극>, <명저읽기:노자장자>, <명저읽기:논어>, <명저읽기:니체>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¹³⁾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고전읽기 교육에서는 ‘읽기-쓰기-말하기’를

11) 이하준, 앞의 논문, 438쪽.

12) 지정민, 「고전 교양교육을 위한 「논어」 탐색- 인성교육적 접근」, 『교양교육연구』 13권 6호, 2019, 123쪽.

13)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2023년도 후마니타스(Humanitas) 교양교육과정 시행세칙”, <https://hc.khu.ac.kr/resources/user/ebook/hc/global2023/index.html#page=6>, 2023.02.14.

연계한 종합적인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고전교육의 목표는 <고전읽기와 글쓰기>(이화여자대학교), <명저읽기와 창의적 글쓰기>(대구대학교), <고전읽기와 토론>(목원대학교), <인문학 독서토론>(숙명여자대학교), <독서와 토론>(동덕여자대학교, 한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독서와 소통>(한남대학교)과 같이 ‘글쓰기’와 ‘토론’을 함께 사용한 교과목명에 잘 드러나 있다.

비판적·창의적인 사고력 함양으로서의 고전읽기 교육에서는 고전읽기를 통해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하고자 한다. 상명대학교의 <명저읽기(문학)>에서는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고,¹⁵⁾ 중앙대학교의 <창의와 소통> 교과목은 비판적 읽기, 창의적으로 사유하기, 능동적으로 소통하며 문제해결능력 기르기라는 사고와 표현 영역의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함양함으로써 생각하고 공감하며 상상하고 융합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¹⁶⁾

문제해결능력 함양으로서의 고전읽기 교육은 고전을 읽는 과정에서 고전 속에 제시된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이다. 서기자에서는 고전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이룩해 놓은 지혜를 배움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고 하며, 목원대학교 <고전 세미나>의 목표를 21세기 지식융합사회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에 두었다.¹⁷⁾ 윤승준에서 밝힌 단국대학교 <명저읽기>에서는 책을 읽고 관련된 문제(과제)를 해결하는 역량, 과제를

14) 최윤경·한수영, 앞의 논문, 210쪽.

15) 강옥희, 앞의 논문.

16) 최윤경,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교양과목의 개발과 설계 II: 융합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와 소통> 과목의 주제 구성과 운영」, 『교양학연구』 2권, 2015, 94쪽.

17) 서기자,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세미나 연구」, 『지식과 교양』 1호, 2018, 8-9쪽.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역량, 관련된 문제의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교과목 성과분석에서 '문제해결 효능감'으로 측정하고 있어¹⁸⁾ 문제해결능력을 고전읽기의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¹⁹⁾

고전읽기 교육의 교육목표에 따라 크게 인성 교육, 의사소통 교육, 사고력 교육, 문제해결능력 교육으로 구분하였지만 실제 교육에서는 이들 목표가 혼재되어 있다. 고전의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수업 운영 방식으로 '읽기-말하기-글쓰기'를 연계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이바지하고, 읽기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생각을 조원들과 토의·토론한 후 성찰의 글이나 비평적 글을 쓰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형성하고, 문제해결능력도 함양하게 된다.

이에 고전읽기의 교육목표 설정은 1차적인 교육목표와 부차적인 교육목표 설정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한다.²⁰⁾ 이와 관련하여 지정민에서는 명칭상 기존의 역량 중심적 접근을 연상케 하는 '의사소통'이라든가 '읽기와 쓰기' 등의 테두리 안에서 고전독서를 가르치는 경우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각양각색의 강좌명은 별도로 치더라도, 고전을 고전답게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분명하고 통일적 인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²¹⁾ 정연재에서는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전공 집중에 따른 교양교육

18) 윤승준, 앞의 논문, 62-63쪽.

19) 김기호에서는 영남대학교 <고전읽기와 글쓰기>의 '읽기-토론-쓰기' 통합적인 수업 운영 과정에서 '문제 발견-조치-문제 해결'이라는 문제해결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기호, 「문제해결 구조에 기반한 읽기·토론·쓰기의 창의성 이해 - 영남대 「명저읽기와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79집, 2015, 36쪽.

20) 이명실에서는 고전읽기 교육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보인다고 하였다. 동일한 고전의 읽기 및 쓰기 강좌라고 해도 고전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이해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와 작문 활동의 체계적 훈련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는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명실, 「대학 '읽기-쓰기' 강좌에 대한 학생 요구도 조사」, 『독서연구』 19호, 2008, 297쪽.

21) 지정민, 앞의 논문, 125쪽.

의 파행과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에서 교양교육의 소외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교양교육을 위한 선결과제는 교양의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과 교육적 측면에서 교양교육의 고유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²⁾ 고전읽기 교육 역시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고전교육의 고유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전읽기 교육의 1차적인 목표는 고전읽기의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고전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고전 속에서 다루는 문제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고전을 고전답게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단국대학교의 <명저읽기> 교과목의 설명에 잘 드러나 있다.

(1) <명저읽기>는 책을 읽고, 읽은 것을 바탕으로 토론한다. 따라서 이 강좌는 독해 능력, 글쓰기 능력, 토론 능력 등의 기초능력을 함양시킬 것이다. 책을 읽고 쓰면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기성찰능력도 생길 것이고 이러한 자기성찰능력은 역지사지하는 의사소통능력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자기성찰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이외에도 새로운 가치나 의미를 상상할 줄 아는 심화 능력이 길러질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이 모든 능력은 단지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한 인격의 보다 우수한 인간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²³⁾

(1)에서 보면 명저읽기를 통해 기초학습능력, 자기성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길러지고²⁴⁾ 이러한 능력은 한 인격의 보다 우수한 인간관,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곧 교과목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

22) 정연재, 「교양의 메타적 성격에 대한 고찰 -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제37회 공개포럼 발표자료』, 2023.11.03.

23) 김주언 외, 「대학혁신지원사업 교과목(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결과 보고서(명저읽기)」,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2020, 3-4쪽.; 윤승준, 앞의 논문, 41쪽.

24) 이와 함께 교육성과 분석을 위해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측정한 결과 독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역량, 문제해결 효능감 모두에서 유의미한 학습 성과를 내었다고 한다.; 윤승준, 앞의 논문.

을 언급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 교육으로 귀결된다.

고전읽기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는 S대학교의 <명저읽기(일반)>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남긴 기말 강의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고전을 단순히 혼자 독서하고 사유하고 비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책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시작으로, 책 내용에 대한 다양한 학우와의 토론, 그리고 고전에 대한 해설을 끝으로 하며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향유하고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과 꿈과 같은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답을 찾는 과정까지 이어나갈 수 있어 매우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21세기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교양과 같은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전의 의미와 독서와 사유의 의미를 제게 깊게 새겨주어 특별히 좋았습니다.

고전을 읽는 의미를 '지식을 향유하고 다각도로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표현하여 수업을 들으면서 고전읽기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았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대학의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는 인성 함양에 가장 근본을 두고, 의사소통능력 함양과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함양 등을 부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S대학교의 <명저읽기(일반)>, <명저읽기(문학)>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과목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S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의 교과목 목표

교과목	교과목 목표
명저읽기(일반)	문학, 사회, 역사, 철학,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분야의 명저를 읽음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식을 바꾸며,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른다.
명저읽기(문학)	<명저읽기(문학)> 강좌에서는 고전의 정전으로 알려진 세계의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성찰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식을 살피고, 다채로운 인간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교과목이 제시하는 목표에서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고전읽기 교육

에서 지향하는 1차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자신을 성찰하기,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식 바꾸기, 인문학적 소양 기르기’ 등은 고전읽기 교육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인 인간됨과 인간성 형성 추구에 교과목의 목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기르기’ 등은 2차적인 목표인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담은 내용이다.

또한 S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에서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대 교육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방향성을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의 진단요소에 ‘역량 제고’가 포함되면서 각 대학은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역량기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핵심역량 제고’를 교양 교육과정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S대학교에서는 2021년도 2학기부터 강의계획서에 핵심역량 기반 교육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S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에서는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S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목표

※ S대학교 핵심역량 및 하위 구인		
전문지식 탐구 역량	정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탐구하고 연마할 수 있는 역량
	하위 구인	지식 습득, 지식 이해, 지식 활용, 현실 문제 적용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정의	지식과 정보 기술이 중요한 사회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하위 구인	비판적 사고, 아이디어 도출, 프로젝트 관리, 도전 정신

융복합 역량	정의	자원/정보를 창의적, 효율적인 방법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하위 구인	타 분야 이해, 소통, 지식 연계, 개방 및 확장
다양성 존중 역량	정의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배려 및 존중하는 역량
	하위 구인	문화 이해, 글로벌 환경, 팀워크, 배려
윤리실천 역량	정의	다양한 사회와 영역에 관심을 가지며, 윤리意識과 정의감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
	하위 구인	직업 윤리, 공동체 의식, 생명 존중, 인성

※ 핵심역량 기반 교육목표

- (1)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 추론,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 (2) 타 분야를 수용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3)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함양한다.
- (4) 다양한 사회와 영역에 관심을 가지며, 공동체 의식과 생명존중 사상을 함양한다.

S대학교는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라는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역량으로 전문지식 탐구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융복합 역량, 다양성 존중 역량, 윤리실천 역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명저읽기> 교과목에서도 5대 핵심역량과 그 하위 구인에 기반하여 ‘비판적 사고력 함양, 타 분야를 이해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 함양,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 함양, 공동체 의식과 생명존중 사상 함양’ 등을 핵심역량 기반 교과목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다양성 존중 역량 함양, 공동체 의식과 생명존중 사상 함양은 고전읽기 교육의 1차 목표에 가깝고, 비판적 사고력 함양과 융복합적 사고력 함양은 2차 목표로 볼 수 있다.

[표 3] 고전읽기 교과목으로서의 S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의 목표

구분	1차 목표	2차 목표
교과목 목표	자신의 삶 성찰하기 세상을 보는 안목 기르기	문제해결능력 함양 의사소통능력 함양
핵심역량 기반 교육 목표	다양한 가치 존중 함양 다른 사람 배려하는 태도 함양 공동체 의식과 생명존중 사상 함양	비판적 사고력 함양 의사소통능력 함양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의 목표에는 인성 교육 관점의 목표와 역량 기반 관점의 목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목표가 ‘교과목 목표’와 ‘핵심역량 기반 교육목표’로 분리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과목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²⁵⁾

이러한 교과목의 교육목표를 학생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고전읽기 교육의 1차 목표로 볼 수 있는 것을 아래의 세 가지 문항으로 나누어 질의하였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3) ㄱ.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혀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함양하였다.

ㄴ.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함양하였다.

ㄷ.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다.

[표 4] <명저읽기> 교과목의 1차 목표에 대한 인식

	성찰과 안목		다양성 존중과 타인 배려		공동체 의식과 생명 존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27	50	33	61.1	27	50
그렇다	20	37	19	35.2	20	37
보통이다	1	13	2	3.7	7	13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25) 이는 S대학교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의 교육과정 적용 체계와 관련이 있어 추후 해결 과제로 남긴다.

합계	54	100	54	100	54	100
5점 척도	4.37		4.46		4.37	

[표 4]를 보면 부정적인 응답은 없었고, 세 가지 항목의 질문에서 모두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50% 이상 나타났다. ‘삶을 성찰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 키우기’와 ‘공동체 의식과 생명 존중’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0%, ‘그렇다’가 37%, ‘다양성 존중과 타인 배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61.1%, ‘그렇다’가 35.2%로 나타났다. 곧 ‘다양성 존중과 타인 배려’에 대한 점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성찰과 안목’, ‘공동체 의식과 생명 존중’ 점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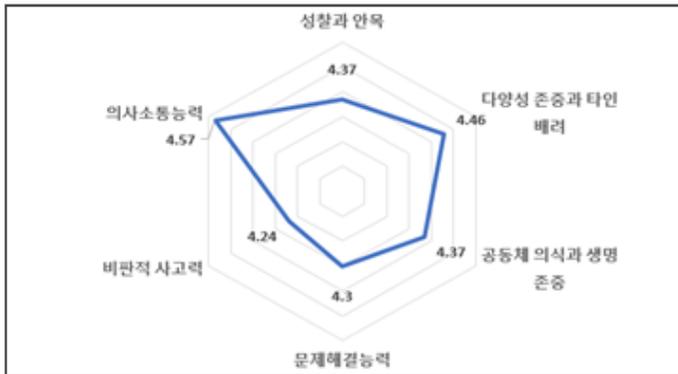
고전읽기 교육의 2차 목표로 볼 수 있는 설문에 대한 문항도 세 가지로 나누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은 [표 5]와 같다.

- (4) ㄱ.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다.
- 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 추론,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였다.
- ㄷ.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다.

[표 5] <명저읽기> 교과목의 2차 목표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23	42.6	21	38.9	33	61.1
그렇다	24	44.4	26	48.1	19	35.2
보통이다	7	13	6	11.1	2	3.7
그렇지 않다	0	0	1	1.9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합계	54	100	54	100	54	100
5점 척도	4.30		4.24		4.57	

[표 5]를 보면 문제해결능력이 함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42.6%, ‘그렇다’가 44.4%, 비판적 사고력이 함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38.9%, ‘그렇다’가 48.1%, 의사소통능력이 함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61.1%, ‘그렇다’가 35.2%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보면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4.57점, 문제해결능력 함양은 4.3점, 비판적 사고력 함양은 4.24점으로 나왔다.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주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읽기를 말하기, 글쓰기와 연계하여 수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1] 교과목 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그림 1]을 보면 고전읽기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의사소통능력 함양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1차 목표에 속하는 ‘성찰과 안목, 다양성 존중과 타인 배려, 공동체 의식과 생명존중’에 대해서도 고른 분포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S대학교의 <명저읽기> 교과목의 지향점과 수업 운영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전읽기 교육의 1차 목표인 인성 교육과 2차 목표인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함양 등과의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곧 고전읽기 교육을 표방하는 교과목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인간됨을 추구하는 것이고, ‘읽

기-토론하기-글쓰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로 교과목 목표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글쓰기와 말하기를 연계한 읽기 중심 교육

고전읽기 교과목을 개설한 대부분의 대학은 읽기, 쓰기, 말하기를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성근에서는 대학의 고전읽기를 운영방식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고전 읽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 고전 읽기와 글쓰기를 접목한 방식, 고전읽기와 토론을 접목한 방식이 그것이다.²⁶⁾ 최윤경·한수영에서는 국내 대학의 고전읽기 교육의 수업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읽기-쓰기-말하기(혹은 듣기) 통합형', '말하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읽기-쓰기' 중심형', '주제 탐구나 주제 확장에 주력하는 '읽기 중심형'이 그것이다. 의사소통교육이 주요 교육목표로 제시된 교과목은 통합형으로,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 토론을 보조적 역할로 두는 교과목은 '읽기-쓰기' 중심형으로, 작품의 주제 탐구에 주력하면서 발표, 토론, 쓰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교과목은 '읽기 중심형'으로 구분한 것이다.²⁷⁾

S대학교의 <명저읽기>는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2차 목표이기 때문에 황성근의 분류에서는 '고전 읽기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이고, 최윤경·한수영의 분류에서는 '읽기 중심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읽기 중심형'이지만 수업 운영 방식에

26) 고전읽기에만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는 동국대학교의 <고전세미나>를, 고전읽기와 글쓰기를 접목한 방식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고전읽기와 글쓰기>를, 고전 읽기와 토론을 접목한 방식으로는 목원대학교의 <고전읽기와 토론>와 숙명여자대학교의 <인문독서토론>을 들었다.; 황성근, 「고전읽기를 통한 의사소통 교육 방안」, 『사고와표현』 10권 3호, 2017, 238-239쪽.

27) 최윤경·한수영, 앞의 논문, 119-2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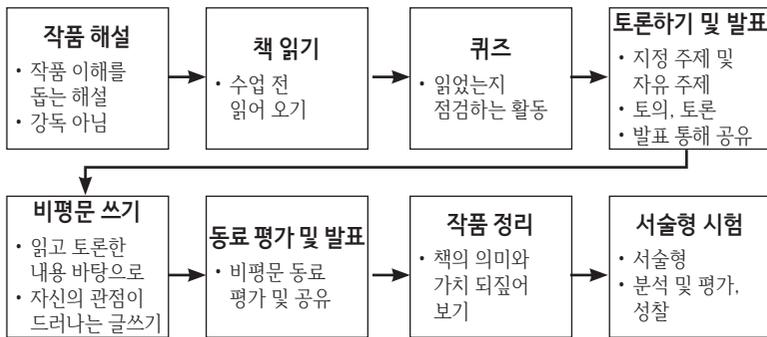
서 ‘토론하기’와 ‘글쓰기’는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면서 2차 목표 달성의 중심 수단이 된다. 곧 S대학교의 고전읽기 교과목이 목표 하고 있는 인성 함양, 의사소통능력 함양,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함양, 문제해결능력의 고취를 위해 텍스트에 대한 단순한 인지를 넘어서 그러한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메타인지적 사고의 강화를 위해서 ‘읽기-쓰기-말하기’를 매우 밀접하게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곧 ‘글쓰기와 말하기가 연계된 읽기 중심 교육’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S대학교의 고전읽기는 3학점의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매 학기 <명저읽기(일반)>, <명저읽기(문학)>, <명저읽기(과학)> 3과목이 개설된다. 수업에서는 한 학기 4권의 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텍스트는 2014년 교양대학에서 선정한 ‘S대학추천도서 100선’을 기본으로 한다. ‘S대학추천도서 100선’은 교양 진작을 목표로 문학, 역사, 철학,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분야를 총망라하여 선정한 것이다. 추천도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수자의 선택에 따라 고전으로서 권위를 지니고 있고 시대에 맞는 텍스트를 선정하기도 한다. 2023학년도 2학기 <명저읽기(일반)>에서는 『4대 비극』, 『역사란 무엇인가』, 『문화의 수수께끼』, 『이기적 유전자』를, <명저읽기(문학)>에서는 『변신』, 『위대한 개츠비』, 『이방인』, 『멋진 신세계』를 다루었다.²⁸⁾

교과목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S대학교의 <명저읽기>는 작품 해설, 책 읽기, 퀴즈, 토론하기, 발표하기, 비평문 쓰기, 서술형 시험 등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S대학교의 <명저읽기>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것

28) <명저읽기(일반)>에서는 문학, 역사, 문화, 과학 분야의 책을 한 권씩 선정하였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인간 이해 등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키우고 자신을 성찰하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한 책이다. 명저읽기(문학)의 경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선호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작품을 학기마다 변화를 주어 선정한다. 매 학기 시대별, 지역별, 주제별, 장르별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있다. 일례로 SF 소설로 한 학기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기도 했다.

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수자의 작품 해설은 책의 읽기 방향을 제공하는 정도로 진행한다. 또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평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통독을 전제로 수업 시간 전에 읽기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책 읽기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퀴즈를 보고, 책에 대해 토의 및 토론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조별활동이 끝난 후 발표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토론 후 비평문을 제출하고, 수업 시간에 비평문에 대한 동료 평가를 진행하여 생각을 공유하게 한다. 교수자가 최종 마무리를 하고, 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활동을 충분히 했는지 자신이 성찰한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서술형 시험을 통해 책 읽기의 성과를 최종 평가한다. 4권의 책을 읽어야 하므로 3주에 걸쳐 한 권의 책 읽기가 진행된다.²⁹⁾



[그림 2] <명저읽기> 수업 구성

이러한 명저읽기 교과목의 수업 방식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³⁰⁾

우선 교과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식에 대해 학생들은

29) 서술형 시험은 2권의 책 읽기 과정이 끝난 후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진행된다.

30) 교수자의 작품 해설과 작품 정리 부분은 학습자의 활동과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설문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표 6]과 같이 보고하였다.

[표 6] 교과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식



학생들은 교과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 토론하기 > 책 읽기 > 비평문 쓰기 > 서술형 시험 > 발표하기 > 퀴즈를 꼽고 있다. 5점 척도로는 책 읽기 4.35점, 토론하기 4.41점, 비평문 쓰기 4.15점으로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교과목에 비해 <명저읽기> 교과목은 한 학기 동안 평균 300쪽 정도의 책 4권을 읽어야 하는 까닭에 학습자 부담이 큰 수업이다. 기본적인 읽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매우 힘든 수업인 것이다. 자발적인 읽기가 기본이지만 책을 읽지 않으면 토론하기, 독후감 쓰기 등의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교양으로 이 수업을 수강한 학생 대부분은 책 읽기의 필요성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아 읽기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과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써 책 읽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책 읽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책 읽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책을 잘 읽었는지 점검하는 퀴즈를 교육목표 달성의 효과가 낮은 수업 방식이라고 답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고전읽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텍스트 이해를 위한 책 읽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인 책과 달리 고전읽기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이 일반적인 독서의 수준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 내용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량의 작품

을 꼼꼼하게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 퀴즈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퀴즈는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텍스트의 기본적인 이해와 이후의 활동을 의미 있게 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평가를 이용한 강제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퀴즈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책을 읽지 않고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토론하기, 발표하기 등 팀별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은 “<명저읽기>에서 책을 안 읽어오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안 읽으면 사람들이 계속 안 읽습니다. 읽게 해 오는 요소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수업 내용은 너무 좋는데 학생(저 포함)들이 준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토론할 때 조원들이 전부 책을 읽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토론의 질이 달라진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작품에 대한 퀴즈는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방식인데, 책을 읽지 않고 온 경우에는 퀴즈를 응시하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하고,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³¹⁾ 토론하기는 <명저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수업방식이다. 본 대학에서 진행되는 토론은 같은 교육적 목표를 지니고 있지만, <명저읽기(일반)>과 <명저읽기(문학)> 교과목에서의 진행 방식이 조금 다르다. <명저읽기(일반)> 교과목은 문학, 역사, 문화, 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저작을 다룬다. 그런 까닭에 학생들이 학문적 개념이나 이론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수자가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고, 추후에 ‘우리 조의 토론거리’를 조별로 정하여 추가 토론을 진행한다.

<명저읽기(문학)>의 토론은 그보다 훨씬 열린 토론을 지향한다. 다른 사

31) 퀴즈는 보통 내용 이해를 묻거나 텍스트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전체 성적 100점 중에 퀴즈의 비중은 12점인데 점수의 비중은 낮으나 부담이 매우 큰 데서 그러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퀴즈의 변별성이 높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은 퀴즈에 대한 부담이나 준비의 어려움에 비해 배점이 낮은 데서 오는 아쉬움을 보여준다.

회과학 기반의 텍스트와 달리 문학 텍스트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학습자들의 경험과 지식의 정도에 따라, 또한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교수자가 토론주제를 정하지 않고 핵심적인 주제 하나만 제공한다. 나머지 5개는 조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주제를 제안하고, 해석의 다양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학토론의 형태로 진행한다. 문학토론은 “문학텍스트가 지닌 해석의 확장성을 통한 사고능력의 개발”³²⁾에 좋은 방법이다. 본 대학에서 실험해 성과를 거둔, 학습자들의 숙의를 통한 주제 정하기와 토론을 통한 사고력의 확장과 관련한 수업방식은 여러 대학에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토론 방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이후의 연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³³⁾

토론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물론 비판적인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외에도 토론을 통한 지식의 이해와 융합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방식이다. 또한 토론을 통한 설득과 주장의 관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명저읽기>에서 학생들이 토론하기를 선호하는 것 역시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의 토론방식에 대한 선호는 [표 7]의 결과에서 볼 수 있다.

32) 강옥희, 앞의 논문, 554쪽.

33) 김유미, 「질문생성을 위한 단계별 읽기방안 연구:<명저읽기> 그리스 비극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5권 6호, 2021, 103-114쪽.; 임선숙, 「구성주의 이론을 통한 대학명저읽기 수업모형연구」, 『문화와 융합』 43권 7호, 2021, 173-200쪽.; 임연정, 「고전읽기 교과목의 토론방식 고찰 - <명저읽기> 학습자 인식 분석을 토대로」, 『교양교육연구』 17권 4호, 2023, 71-85쪽.

[표 7] 좋았던 수업방식



[표 6] 교육목표 달성의 효과적인 수업방식과 [표 7]의 좋았던 수업방식의 척도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각각 4.41점, 4.28점으로 토론하기를 제일 처음으로 꼽았다. 학생들이 읽기보다 토론하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같은 수업을 듣는 낯선 타자들과 토론을 통해 책을 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해결하고, 소통하면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발견하며,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설득하고, 혹은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면서 해석적 소통의 즐거움을 경험한다.³⁴⁾

학생들은 기말 강의평가에서 “빠른 것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들여 책을 읽고, 또 내 생각을 다른 이와 나누고, 글로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좋은 책을 주제로 조원들과 토론하며 교양을 쌓을 수 있어서 좋은 강의”, “배운 바를 공유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양이 생긴 느낌”, “평소에 읽기

34) 더불어 토론하기는 현대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문해력 향상에도 꼭 필요한 수업방식이다.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갈등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으로서의 문해력을 갖추는데 주제의 발굴과 토론의 절차, 견해의 나눔과 수용의 과정을 지닌 토론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는 본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인문학적 성찰 및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힘든 책,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교수님의 설명과 조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좋았다.”, “진지하고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고전을 읽고 이를 같이 읽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과 어떠한 주제로 토론한다는 경험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다른 학우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등 토론하기 방식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학생들이 왜 토론하기를 명저읽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업방식으로 꼽았는지, 그리고 토론하기가 학생들에게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토론하기와 함께 S대학교의 <명저읽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의 수업으로는 ‘발표하기’가 있다. ‘발표하기’는 ‘토론하기’와는 달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수업방식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토론하기가 주로 토론자 중심의 소그룹에서의 말하기라면 발표하기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전체가 공유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수업방식이다. 발표하기는 말하기의 형태를 띠지만 동시에 대화의 중요한 방법인 경청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명저읽기>에서 발표하기는 토론 내용에 대한 공유, 독후감(비평문) 공유, 독후감 토론 내용에 대한 공유 등이 있다. <명저읽기(일반)> <명저읽기(문학)>에서는 수업시간에 다루는 텍스트와 관련하여 토론한 내용의 결과를 조별로 발표하여 전체가 공유하도록 한다. <명저읽기(일반)>에서는 내용 이해 부분과 생각 나누기 부분을 조별로 발표한다. <명저읽기(문학)>에서는 각 조별로 선정한 주제에 대한 토론 내용을 발표하여 다양한 해석의 경험을 공유한다. <명저읽기(일반)>은 제출한 비평문에 대해 동료 피드백을 진행한 후 우리 조의 비평문으로 선정된 조원의 것을 전체 앞에서 발표한다. <명저읽기(문학)>은 네 번의 비평문 중 두 번은 조별로 조원들이 쓴

비평문에 대한 동료 피드백을 진행한다. 나머지 두 번은 전체 비평문 중에서 교수가 선정한 비평문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각 조는 그중에서 가장 잘 쓴 비평문을 고르고 그 이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독후감에 대한 동료 피드백에 대해 타인의 독후감을 피드백 하면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성찰적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표하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개선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서 “토론하고 발표까지 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타이트하게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은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생각은 발표와 토론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서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집중력 결여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의 학생들은 재미있는 긴 동영상보다 짧은 동영상을 선호한다. 짧은 콘텐츠에 대한 선호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경청을 어렵게 한다. 일반적인 듣기에 대한 어려움은 발표하기를 효과적인 수업방식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명저읽기> 교과목의 주된 글쓰기는 비평문 쓰기이다. 비평문 쓰기는 읽기, 토론하기와 함께 고전읽기 강좌에서 매우 중요한 수업방법이다. 토론하기와 발표하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비평문 쓰기 역시 한 학기에 다루는 모든 텍스트에 부과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비평문 쓰기를 매우 어려워한다. 그것은 글을 쓰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주제를 설정해야 하며, 글을 구성하고 그것을 실제 글로 옮겨야 한다. 읽고, 생각하고, 주제를 정하고, 글로 쓰는 복합적인 행위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고교 시절 입시를 위해 학교, 학원, 집으로 쳇바퀴를 돌던 학생들에게는 책을 읽고 충분히 생각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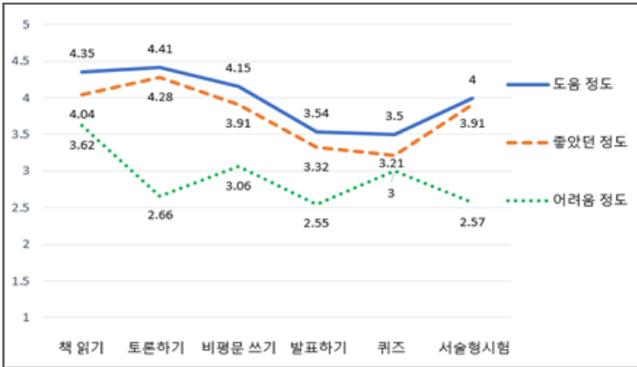
간도, 생각을 숙성하여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도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결과는 [표 8]에서 볼 수 있다.

[표 8] 수업의 어려움 정도



학생들은 수업의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책 읽기 > 비평문 쓰기 > 퀴즈 > 토론하기 > 서술형 시험 > 발표하기를 꼽았다. 비평문 쓰기는 학생들이 책 읽기 다음으로 어렵게 느끼는 수업방법이었는데 그것은 앞서 살펴본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비평문 쓰기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교육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읽기를 진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업방법이다.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주제의 발굴은 휘발성이 강한 말하기를 통해서 체화하기 힘든 것들이다. 글쓰기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또한, 글을 읽고 토론하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확장한 생각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읽기, 쓰기, 말하기의 수업방식의 도움 정도, 선호도, 어려움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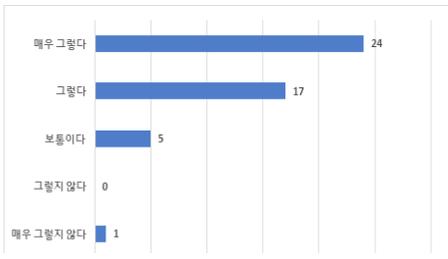
[그림 3] 수업 운영방식의 도움 정도/좋았던 정도/어려움 정도

[그림 3]을 보면 학생들은 책 읽기를 어려워해도 책 읽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토론은 어렵지 않으면서 도움이 되고, 책 읽기와 글쓰기는 어렵지만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이다.³⁵⁾

이러한 관점은 고전읽기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표 9]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9] 명저읽기 수업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24	51.1
그렇다	17	36.2
보통이다	5	10.6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1	2.1
4.34(5점척도)	47	100



“<명저읽기> 교과목은 우리 대학의 교양 교과목으로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매우 그렇다’ 51.1%, ‘그렇다’

35) 서술형 시험이 어렵지 않고 좋았고 도움도 되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퀴즈와 달리 책을 다 읽고 난 후 책의 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평가)을 쓰라는 문제를 내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말 강의평가에 ‘시험도 책을 읽어놓으면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평가가 있었다.

36.3%를 나타내어 5점 척도로 4.34점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부정 평가가 2.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다른 교양수업보다 과중한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명저읽기 교과목이 교양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수업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앞으로 고전읽기 수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다. 토론하기는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읽기와 글쓰기는 학습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책 읽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더 진행해 보겠다.

S대학교 고전읽기 교과목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먼저 점차 줄어드는 수강생의 문제이다. 본 대학은 고전읽기를 필수로 하는 대학들과 달리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좌 개설 이후 세 분반, 총 150명 규모로 수업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 수강신청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급기야 2023학년도 2학기에는 학교가 정한 수강인원미달(전체 수강 인원 중 50%인 25명 이내 신청인원) 시 폐강하는 규정에 의해 <명저읽기(과학)> 강좌가 폐강되었다. <명저읽기(과학)>은 <명저읽기(일반)>과 <명저읽기(문학)>에 비해 내용 이해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 학습의 부담은 적지만 성적은 잘 받을 수 있는 소위 ‘꿀 교양’을 교양 선택 1순위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과학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목이 학생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전읽기 강좌의 특징인 텍스트 읽기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명저읽기(일반, 문학)> 강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고전읽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책 읽기의 힘듦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표 10]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0] 한 학기에 다루는 텍스트의 적정량



“한 학기 동안 총 4권의 책을 읽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 29.8%, ‘그렇다’ 40.4%, 5점 척도는 3.9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방식의 적절성, 강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표 11] 설문결과를 보면 짐작해볼 수 있다.

[표 11] 책 읽기가 어려운 이유

구분	빈도	비율(%)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10	21.3
책 읽는 습관이 안 들어서	34	72.3
시간이 없어서	14	29.8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책 읽기보다 익숙해서	14	29.8
기타(집중력 분산, 귀찮아서, 내용이 예측 가능해서)	3	6.4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책 읽는 습관이 안 들어서’ 72%, ‘시간이 없어서’ 29.8%,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책 읽기보다 익숙해서’ 29.8%, ‘책의 내용이 어려워서’ 21.3%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로 책 읽는 습관이 안 들었음을 선택한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야 하는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책 읽기는 문제의 지문을 읽어내는 데 최적화된 방법으로 진행된다. 즉, 전체 텍스트에 대한 꼼꼼한 읽기 대신 지문의 답을 찾기 위한 지엽적인 독서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오늘날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다룬 고전을 읽어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또한 요즘 학생들을 둘러싼 매스미디어 환경이 문자텍스트보다는 영상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더 특화되어 있다. SNS상의 짧은 피드, 틱톡 같은 숏폼 영상, 인스타그램의 간결한 태그를 통한 감정의 표현에 익숙한 세대에게 아무런 자극 없는 300페이지 이상의 문자텍스트는 책 읽기의 강력한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의 주관식 설문에서 잘 볼 수 있다. 책 읽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자가 해 주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라는 문항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한다.

[표 12] 책 읽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수자의 역할

분류	구분	내용
내용 이해	독서 방향 제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하나 키워드
		지금의 수업 방식도 너무 좋았다. 미리 읽을 책의 어려운 부분을 오히려의 소지 없이 설명해 주고 읽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지금의 수업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학생 이해 돕기 위한 설명 필요	책을 읽기 전 수업 시간에 어떤 방향으로 읽으면 좋을지 미리 코멘트를 주시는 것도 독서의 수월성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수업 때 꿀벌의 희생 같은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듣고 책을 읽으니까 더 쉽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요약과 설명은 먼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 유발 위한 관련 영상 시청	책을 읽어오게 하기 전에 먼저 책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강의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독서 부담	독서 분량 줄여 주기	책 읽기 전 내용의 요약 및 설명
		생각보다 책의 초반부에서 고전을 먼저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영상이나, 흥미를 자아내는 강연을 짧게 시청한 후 책을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챕터를 읽기에는 시간상 조금 빠듯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발췌독을 한다면 수업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분량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량이 조금 적은 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독서 부담	책 읽기의 중압감 해소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딱딱하고 불편한, 혹은 어려운 상황과 얽여 연상되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 책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도 얻어갈 것이 많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독서 분량 제시	하루에 분량을 얼마나 잡고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다.
	시간 더 확보	책을 읽는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줘도 될 것 같다(이론 시간을 줄여서).
책 선정	다양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선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접근가능성)
		다른 책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향 반영	개강 전 장르 투표를 통한 수강생들 독서 취향 반영
	국내 저서	학생들이 읽을 첫 번째 책은 쉬운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의 깊이가 얕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자가 한국인이어서 읽기 쉬운 문장 구조를 가진 책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책 읽기의 개인적 차이	학생 개인별로 책 읽는 속도가 다르므로 너무 따라가기 힘든 친구가 있으면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책 읽기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교수자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쉽고 다양한 책의 선정, 책 읽기의 방향에 대한 가이드, 적절한 분량, 책 내용에 대한 요약, 요약 동영상에 대한 요구 등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독서활동보다는 수동적으로 책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서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는 수업의 개선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에서도 나타난다. “책을 한 권만 줄여 주십시오.”, “명저읽기에서 책을 많이 안 읽어옵니다. 읽게 해 오는 요소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책을 읽는 어려움을 제외하면 교양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같은 답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학생들이 책 읽기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저읽기> 교과목을 개설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보편적인 교양의 확산을 위해 권장해왔던 필수적인 강좌는 대학의 변화와 함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변화는 <명저읽기> 교과목의 변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의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고전읽기에서 강좌의 정체성인 책 읽기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며 수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능동적인 독자로 학생들을 끌어들이어야 하는가? 최근 학습자의 성향에 맞게 강좌의 성격을 변화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 S대학교에서 지향하고 있는 읽기, 쓰기, 말하기 방식은 <명저읽기>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이다. “현대사회는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남들과 나눌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 토론, 독후감 작성 등 수업에서 요구하는 활동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복합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³⁶⁾라는 학생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기존에 운영해온 수업방식이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습활동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책 읽기 방식에 대한 개선이 더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책 읽기에 대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을 반영한 텍스트의 선정이다. 현재 S대학교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추천도서 100선 중에서 텍스트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읽어내기 어려운 텍스트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은 “폭넓은 작품들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책을 선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고전 명작뿐만 아니라 현대, 최근 소설도 나쁘지 않은 듯”과 같이 텍스트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는데, 고전100선과 함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널리 읽히고, 잘 알려진 최근의 ‘명저’

36) 기말 강의평가 주관식 답안

를 적절하게 선택한다면 내용 이해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텍스트의 선행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퀴즈를 대신해 읽기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질문하기와 짧은 감상문 쓰기의 활용이다. 텍스트의 이해는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만, 설문조사에서도 보았듯이 학생들은 퀴즈를 부담스럽고 효과적이지 못한 수업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담스러움의 근저에는 평가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퀴즈의 부담을 덜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읽은 후 학생 스스로 작품에 대해 질문할 거리를 찾고, 읽은 내용에 대한 짧은 감상문 쓰기를 실시하는 것이다. 글쓰기는 수업시간 시작과 함께 15~2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쓰게 한다. 이를 과제로 주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책을 읽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옮겨 적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않고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같은 토론조로 만들어 교수자가 토론조원으로 참석하여 작품과 관련한 주제를 제공하고, 토론을 이끌어 가며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평가한 결과를 글쓰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 트레일러 같은 동영상으로 만들어보는 것이다. 북 트레일러란 “새롭게 출간된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이르는 말로, 영화의 예고편을 가리키는 '영화 트레일러'에서 따온 용어이다. 책에 대한 주제나 캐릭터 소개 등을 재미있게 표현하여 책에 대한 구매 욕구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³⁷⁾ 최근 대학 도서관들은 책 읽기 진작을 위해 북 트레일러 공모전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명저읽기>가 읽기를 목표로 하는 수업이지만 영상, SNS에 매우 밀접한 세대인 학생들에

37)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6024&categoryId=43667>, 2024.02.24.

게 영상의 활용은 매체의 융합을 경험함으로써 문자텍스트를 더욱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수업시간에 다루는 작품 한 편을 북 트레일러 같은 동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텍스트를 읽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4. 맺음말

한국의 대학에서 고전읽기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인데, 최근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교양교육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대학 내 고전읽기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학의 고전읽기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대학교의 <명저읽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대학 고전읽기 교육의 현실적 과제를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수업 운영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는 크게 인성 교육, 의사소통 교육, 사고력 교육, 문제해결능력 교육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이들 목표가 혼재되어 있다. 고전의 본질적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수업 운영 방식으로 '읽기'와 '글쓰기, 말하기'를 연계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고, 읽기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생각을 조원들과 토의·토론한 후 성찰의 글이나 비평적 글을 쓰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형성하며, 나아가 문제해결 능력도 함양하게 된다. 따라서 1차적인 교육목표와 부차적인 교육목표의 설정 문제로 귀결된다.

S대학교의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는 인성함양에 근본을 두고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부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S대학교의 <명저읽기(일반)>, <명저읽기(문학)> 교과목 목표에 드러나 있고, 학생들도 교과 목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과목의 목표가 기본목표와 핵심역량 기반 교육목표로 구분되어 체계화되지 못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

S대학교의 <명저읽기>는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의사소통능력 함양 등은 2차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고전읽기 교과목이 목표하고 있는 인성함양, 의사소통능력 함양,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함양, 문제해결능력을 고취하고, 텍스트에 대한 단순한 인지를 넘어서 그러한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메타인지적 사고의 강화를 위해서 ‘글쓰기와 말하기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읽기 중심 교육’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업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명저읽기>의 교과목 목표와 강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방식 중에 토론하기를 가장 좋은 수업방법으로 꼽았다. 반면 <명저읽기> 수업방식 중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책 읽기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업방식을 유지하되 보다 효과적인 책 읽기를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고전과 함께 현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널리 읽히고 잘 알려진 ‘명저’ 텍스트의 선정, 책을 읽었는지 점검하는 퀴즈 대신 질문하기와 짧은 감상문 쓰기, 북 트레일러 같은 동영상 만들기를 활용하여 영상과 텍스트라는 매체의 융합을 경험함으로써 문자텍스트를 더욱 적극적이고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다.

대학의 고전읽기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의 균형이다. 고전읽기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는 유지하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량 함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역량

함양 관련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고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그에 걸맞은 학습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소규모의 강좌를 운영하며 명저읽기의 명맥을 이어가는 대학이 어떻게 그 대학의 고전읽기 교육의 가치를 유지하며 그에 걸맞은 방법을 모색해 가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수업방식으로 제시한 몇 가지 방법의 적용, 효과, 결과에 대한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강옥희,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고전읽기 수업방안 연구 - 문학토론을 통한 <명저읽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10권 4호, 2016, 543-578쪽.
- 김기호, 「문제해결 구조에 기반한 읽기·토론·쓰기의 창의성 이해 - 영남대 「명저읽기와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문화학회』 79권, 2015, 36-61쪽.
- 김유미, 「질문생성을 위한 단계별 읽기방안 연구: <명저읽기> 그리스 비극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15권 6호, 2021, 103-114쪽.
- 김영학, 「대학 교양교과로서의 고전읽기 수업모형 연구-조선대학교 <명저읽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회』 86호, 2019, 9-48쪽.
- 변상출·김현숙, 「대학 교양교육의 심화발전 방안에 대한 재고(再考)-D대학교 『클라시카 자유학』 ‘고전교육’ 교과목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14권 2호, 2020, 99-113쪽.
- 서기자,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세미나 연구」,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1호, 2018, 8-9쪽.
- 손승남·김인영·송하석·이재성·최예정, 「고등교육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 핵심역량」, 『한국교양교육학회』 15권 1호, 2021, 11-30쪽.
- 윤승준, 「고전교육, 교양필수 교과목 운영 사례: 단국대학교 <명저읽기>를 중심으로」, 『다빈치비래교양연구소』 16호, 2021, 33-76쪽.
- 이국환,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읽기와 독서교육」, 『동남어문학회』 43권, 2017, 199-231쪽.
- 이명실, 「대학 ‘읽기-쓰기’ 강좌에 대한 학생 요구도 조사」, 『한국독서학회』 19호, 2008, 279-306쪽.
- 이하준,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교양교육학회』 8권 5호, 2014, 423-448쪽.

- 이효진·윤가영·박인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따른 대학생의 수강신청 기준에 관한 연구」, 『안암교육학회』 23권 4호, 2017, 79-99쪽.
- 임선숙, 「구성주의 이론을 통한 대학 명저읽기 수업모형연구」, 『한국문화융합학회』 43권 7호, 2021, 173-200쪽.
- 임연정, 「고전읽기 교과목의 토론방식 고찰 - <명저읽기> 학습자 인식 분석을 토대로」, 『한국교양교육학회』 17권 4호, 2023, 71-85쪽.
- 정연재, 「교양의 메타적 성격에 대한 고찰 -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제37회 공개포럼 발표자료』, 2023. 11.03.
- 지정민, 「고전 교양교육을 위한 「논어」 탐색 - 인성교육적 접근」, 『한국교양교육학회』 13권 6호, 2019, 123-149쪽.
- 천정환, 「대학 고전 교양교육과 ‘고전 100선’의 문화정치」,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17권, 2021, 37-79쪽.
- 최윤경,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교양과목의 개발과 설계 II: 융합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와 소통> 과목의 주제 구성과 운영」,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권, 2015, 93-130쪽.
- 최윤경·한수영, 「고전읽기 관련 교양교육 사례연구의 현황과 진단」,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16권, 2021, 195-238쪽.
- 황성근, 「고전읽기를 통한 의사소통교육 방안」, 『한국사고와표현학회』 10권 3호, 2017, 235-264쪽.
- 유종호, 「서양의 고전: 한 시험적 조망」, 『열린연단 강연자료』,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79122&id=2887>, 2024.02.16.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2023년도 후마니타스(Humanitas) 교양교육과정 시행세칙”, <https://hc.khu.ac.kr/resources/user/ebook/hc/global2023/index.html#page=6>, 2024.02.14.
-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6>

024&cid=43667&categoryId=43667, 2024.02.24.

<영남대학교>, “2023학년도 교육과정 이수 지침 안내”, <https://www.yu.ac.kr/main/bachelor/curriculum-guidelines.do>, 2024.02.12.

<이화여자대학교>, “교양필수 교과목 이수 안내(2018학년도~1019학년도 입학생)”, [https://cmsfox.ewha.ac.kr/cms/etcResourceOpen.do?site=\\$cms\\$BYew1gtghkA&key=\\$cms\\$EwBgjAHAtKYJwH0AyBLARgUwE4EMA2CAglgC4DOCAwgPYCuWZGZAdAA4AmAZkA](https://cmsfox.ewha.ac.kr/cms/etcResourceOpen.do?site=cmsBYew1gtghkA&key=cmsEwBgjAHAtKYJwH0AyBLARgUwE4EMA2CAglgC4DOCAwgPYCuWZGZAdAA4AmAZkA), 2024.02.12.

■ 국문초록

본 연구는 S대학교의 <명저읽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대학 고전읽기 교육의 현실적 과제를 고전읽기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수업 운영방안으로 나누어 문헌 연구와 학습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S대학교의 고전읽기 교육의 목표는 인성 함양에 근본을 두고 의사소통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부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교과목의 목표가 기본목표와 핵심역량 기반 교육목표로 구분되어 체계화되지 못해 이를 개선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S대학교의 <명저읽기>는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2차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고전읽기 교과목의 목표인 인성함양, 의사소통능력 함양,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함양, 문제해결능력의 고취를 위해 ‘글쓰기와 말하기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읽기 중심 교육’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 대부분이 <명저읽기>의 교과 목표와 강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토론하기를 꼽았다. 그러나 토론행위의 선행요소인 책 읽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기존의 수업 방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주제어 • 명저읽기, 교육목표, 핵심역량, 수업 운영, 수업 개선

■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Objectives and Management Plan of University Classics Reading Education : Focusing on S University's <Reading Masterpieces>

Jeon, Young Ok·Kang, Ok Hee
/ SangMyung University·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ractical tasks of college classical reading education by dividing them into the educational goals and class management of the classical reading subject, focusing on the <Reading a masterpiece> subject of S University. Discussions were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learner surveys.

The goal of S University's classical reading education is based on character development, and the secondary goal is to cultivate communication skills,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skills, and problem-solving skills. However, since the objectives of the subject are divided into basic and core competency-based educational goals, there is a problem that has not been systematized due to being organically connected and needs to be improved.

The primary goal of S University's <Reading a masterpiece> is to pursue fundamental values, and the secondary goal is to cultivate communication skills. Therefore, the class is operated in a very closely linked manner with "reading-writing-speaking" to foster personality, communication skills,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skills, and promote problem-solving skills that the classic reading subject aims for.

As a result of the survey, most of the stude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subject goal in the course of <Reading a masterpiece> and cited that discussion among students in the best way to achieve the goal. However, as students have been speaking about difficulties in the reading book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he discussion behavior, they sought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existing teaching method.

**Keyword • Reading a masterpiece, Educational goals, Core competencies,
Class management, Improvement of instruction**

시스템 사고 적용 미술 수업 방안 연구 : 청소년의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중심으로*

정옥희·김혜경**

목 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3.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수업 방안
4. 결론 및 제언

1. 들어가며

최근 초고속 인터넷망과 디지털 보급으로 청소년의 은둔형 사이버 중독 증상은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다. 이는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경제위기, 취업난 등 외부적 요인 외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개인화, 개별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사이버 페인’¹⁾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외부와의

* 본 논문의 수업지도안은 2022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수업-평가 안내자료(미술)로 개발됨(2023,교육부)

** 정옥희(제1저자) 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김혜경(교신저자)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1) 본래 페인(廢人)의 의미보다는 ‘마니아’ 혹은 ‘중독자’로 이해될 수 있다. 결론 ‘디시페인’은 ‘디시인사이드’ 내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이버 중독자로 요약된다.; 방희경, 「사이버공간의 소수적인 문화를 위하여-‘사이버페인’들의 다르게 정치하기」, 『tkghldusrn』 7권1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6, 47-74쪽.

단절로 이어지기에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나 또래 간의 접촉이 없이 은둔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감의 결핍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낳고 있다. 2022년 10월 은둔형 외톨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고립되고 은둔하고 있는 자들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 발의되었다. 청소년의 은둔 경향에 대한 심각성이 최근 법안의 발의로 이어진 것은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주로 청년기와 성인, 노인들의 고립된 생활에 지원하는 데에만 비중을 둔 정책의 초점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외부와 단절로 이루어지는 고립 경향은 부모로부터의 비인정, 애정 결핍을 겪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로 자라면서 학교생활과 또래 간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의 대부분 청장년층에 맞춰져 있어 청소년기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은 희박한 실정이다. 청소년기 사회성의 부족과 상호관계성의 결핍은 개인의 차원은 물론 집단적 차원에서 상호소통의 관계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단순히 현상에 대한 대응보다는 증상을 이해하고,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은둔은 부적응과는 다르게 사회적 유대 관계 기피 증상을 보이며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외부에 노출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해결하는 특징이 있다. 외톨이로 생활하다 보니 점차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디지털화된 사이버 세상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후에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법에 초점을 둔 정책보다는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사전 예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 증상의 증가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하기에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에서의 지원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디지털 세상에서만 소통하고 타인과의 직접적 접촉을 꺼리는 청소년들의 고립과 소외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또래 간 상호 작용과 참여적 소통으로 이끄는 미술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증가 현상에 대하여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순환적 관계로 이해되는 시스템 사고를 적용하여 서로 간의 유대감과 소통 활동을 토대로 한 미술 수업을 제안한다.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통찰적 사고 함양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수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단계적이고 순환적이며 유기적인 연결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사고’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자유를 주는 사고방식”으로 정의된다.²⁾ 개별 요인을 다루기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다룰 때 폭넓게 사용하는 사고방식인 시스템적 사고를 적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부분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상호 연관성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행동을 주어진 주제에 대해 “가정된” 질문을 제기하고, 시스템을 재설계할 창의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³⁾ 그러므로,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참여적 미술 활동은 시각적 표상과 표현 행위에서 드러나는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고립 속에서 발생 되는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참여함으로써 관계를 통하여 무엇이 인간인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에 적합하다. 미술 활동에서 자신의 고립된 단절 욕구를 파악하여 소통의 수단이 되도록 함으로써 혼자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으로 해결

2) Meadows, D. H. 저, 김희주 역, 『ESG와 세상을 읽는 시스템 법칙』, 세종서적, 2022, 21쪽.

3) Meadows, D. H. 저, 김희주 역, 위의 책, 34쪽.

할 수 있음을 깨닫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적 소통 증진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해하는 교육 활동의 개발은 디지털 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반응하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기 위해 스스로 용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참여적 소통을 위한 시스템 사고를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시스템 사고의 의미와 교육적 적용

(1) 시스템 사고의 의미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에서 파생된 것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는 사회가 여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인간은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음을 인정한다. “시스템다이내믹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문제를 이해하여 해결책을 창안하는 방법이다.”⁴⁾ 여기에서 언급되는 시스템다이내믹스는 수학적 지식을 토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사용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시스템에 대한 사고만을 따로 떼어낸 것이 시스템 사고로 주목받게 되었다. 시스템 사고는 부분보다는 전체에 집중하여 복잡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시스템 사고에 능숙한 사람은 “상호의존성에 집중하면서 장기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과학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⁵⁾ 또한,

4) Senge, P. M.·Nelda, C. M.·Timothy, L.·Bryan, S.·Janis, D.·Art, K. 저, 한국복잡성교육연구회 역, 『학습하는 학교: 시스템 사고를 통해 본 학교 복잡계 운영』, 2018, 8쪽.

5) Sweeney, L. B.·Meadows, D, “The systems thinking playbook”, 2010, pp.1-2.

자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변수로 인식하며 폭넓은 시야에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다. 비선형적인 사고인 시스템 사고는 하나의 원인에 따른 하나의 결과만을 생각할 수 있는 선형적인 사고보다 실제 생활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학생이 주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시스템 사고는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사회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각 학문 사이의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유사성에 집중해야 하는데, 시스템 사고는 부분보다 전체에 집중하며, 상호연계성에 바탕을 둔 구조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⁶⁾ 시스템 사고는 사물 혹은 시스템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립과 단절의 시대 청소년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시스템 사고를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외부의 접근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 되는 다양한 문제에 다양한 각도로 접근함으로써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방안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수업은 삶과 연관된 실질적 측면으로 사회를 인식하고 삶의 문제에 접근하고 실제 이행되는 실천적 측면으로 교육 활동이 확장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리프킨(Rifkin)은 “자아 관념의 파편화는 조리가 없고 일관성이 없는 관계들의 복수성과 맞물려 나타나며 이런 관계들은 무수히 많은 방향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다양한 역할로 우리를 초대한다.”⁷⁾ 고 하였다. 초연결 시대 미술 활동의 참여는 관계를 통한 연결을 이해함으로써 협력과 소통의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세계 속으로 침잠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기재가

6) 이경운·조의호·한춘희,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초등사회과 교육 방안 모색. 사회과 수업 연구」, 『한국사회과수업학회』 9권 2호, 2021, 63-81쪽.

7) Rifkin, J. 저, 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민음사. 2001, 310쪽.

될 수 있다.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수업은 지금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시스템 사고의 교육적 적용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변화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OECD 2030 Education 프로젝트(OECD, 2019)⁸⁾는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갈등과 딜레마를 조절하며 책임 의식을 갖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변혁적 역량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시대는 급격한 변화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예측되지 않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주도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끌어내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변화를 촉진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은 변화하는 교육 내용을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하여 교수·학습 단계와 단계별 과업을 제시함으로써 수업과 교재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법은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전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 사고와 유사한 학습법으로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모형에서 제시되었다.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법에 대하여 박소영

8) OECD,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A Series of Concept Notes”,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contact/OECD_Learning_Compas_2030_Concept_Note_Series.pdf, pp. 120-121, 2024.02.17.

9) 박소영·김성숙·최규남·김정희·권혁미·안금희·홍영실·이은적·이윤선, 「초등학교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14-4, 98-99쪽.

(2002)⁹⁾은 창의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손지현 외(2018)¹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고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작품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석이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기르는 데 적합하기에 주로 표현 활동 영역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하고 있다. 창의적 문제 해결법은 문제 인식-아이디어 탐색-아이디어 정교화-아이디어 적용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창의적 문제 해결법은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며, 아이디어 적용에 유용한 교수·학습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표현 영역에 적합한 모형이기에 아이디어 탐색과 적용이 작품 제작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교과 활동 중심으로 단순하고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선형적 사고는 복잡 시스템인 자연현상과 현대 사회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예측기 위한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 복잡한 현대 사회는 한가지 결과에 대하여 한가지 원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게 얽히고 순환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표현을 위한 미술 활동의 부분으로 국한되어 진행하거나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원인을 찾아 결과로 귀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시스템 사고는 통합적이고 간 학문적인 접근으로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얽힌 순환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분보다는 전체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살펴봄으로써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경윤, 조의호, 한춘희(2021)¹¹⁾는 시스템 사고에 대하여 학생의 통합적인 사회 인식을 도모하기에 부분보다 전체에 집중하여 첫째, 상호연계성에 바탕을 둔 구조 파악에 적합하며, 학생의 고차사고력을 신장시킨다고

10) 손지현·김유경·권연지·박유신·이규정·정희진, 「2015개정교육과정교수학습자료: 미술:초등학교 3-4학년」, 『교육부』, 2018, 17-18쪽.

11) 이경윤·조의호·한춘희, 「시스템사고를 활용한 초등사회과 교육방안 모색」, 『사회과수업연구』, 2021, 9권 2호, 69-70쪽.

하고 있다. 고차사고력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 작용이다. 둘째, 학생 참여 수업을 통하여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하고 있다. 지식 중심의 단편적인 암기와 기억을 통한 접근이 다양한 검색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학습자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의 선회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스템 사고는 인과 관계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를 전체에서 부분으로 통찰하면서 문제 인식과 아이디어 탐색과 정교화, 적용의 과정을 토대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에 관여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사고 능력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대비하고 복잡하거나 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스템 사고를 적용하여 사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부족한 이해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현시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기 상황 중에서 은둔과 고립의 소외 현상으로 빚어지는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 분석과 해결 방안을 위한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접근은 직면한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극복 가능 방안 제안에 적합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고립의 이해

(1) 은둔형 외톨이의 의미

학력 경쟁 사회에서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매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중도 탈락자가 2022년 기준, 한해 5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²⁾ 학교생활을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학

1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이야기하다: 은둔형 외톨

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치열한 경쟁 구도로 받은 스트레스와 사회부적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된 원인이다. 아울러 초고속망 확산과 디지털화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외부와의 단절을 꾀하는 경우가 은둔형 외톨이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가정생활에서 학교생활 그리고 친구 관계의 원만한 인간관계 등을 배운다. 이 시기의 정서적 소통과 대인관계의 접촉은 성인이 되어 더 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에 청소년기에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은둔형 외톨이는 1970년 일본에서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세상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집에서만 지내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들을 우리나라 말로 ‘은둔족’에 가까운 의미이며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¹³⁾이다. 일본 사회의 장기적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률 증가로 더욱 치열해진 경쟁 구도 속에서 이탈하거나 도퇴된 사람들이 스스로 외부와 선을 긋고 집안에서 외톨이로 은둔하는 특유한 사회현상이 관심을 받게 됨에 따라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6개월 이상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을 부르는 말로 변형되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백수 생활에 접어들게 되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실업자도 자신의 초라하고 어려운 현실을 피해 스스로 외부와 단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히키코모리’는 20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칭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는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소년기의 가족 내 관계 및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학교 부적응에서 나아가 결국에 사회 활동을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실업률의 증

이 청소년 보호자를 위한 지침서 개발], 『청소년상담이슈페이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03.

13)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는 ‘(특정 장소에)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일본어 ‘히키코모루’를 명사화한 단어다.

가나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증가의 원인과 증상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5~29세 청소년 중 은둔형 외톨이 증후군을 가진 청소년의 비중은 다른 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다른 국가는 2014년 이후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¹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초고속망 보급으로 우리나라는 인터넷만 가지고도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편리가 귀차니즘을 낳는 원인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대국답게 인터넷 중독자와 사이버 폐인이 상당히 많다. 특히 청소년의 2/3가량이 인터넷 중독자라고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이들을 지칭하는 썬더루족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 정도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점이 은둔형 외톨이를 양산 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은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기 은둔의 이유와 발생 원인을 알고 이를 조기 예방할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은둔의 장기화를 막고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의 조사는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이 2005년 9.4%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들의 특징은 은둔생활에 대한 중성적이고 긍정적 감정과 함께 외로움과 고독감(32.3%), 무기력감(22.6%), 불안감(19.4%)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14)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청년 핵심 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다. 가장 두드러지는 보편적 현상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TV나 비디오, 인터넷 등에 심취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친구가 없고, 가족 간의 대화도 단절되고, 식사도 혼자 하며, 신체적으로도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된다. 인터넷을 즐기면서 장시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에 피가 돌지 않아 굳어버리는 혈전증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다 갑자기 움직이면 혈전이 폐로 흘러 들어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게 된다. 또한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보다는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 등 손쉬운 음식들만 먹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극도로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과민성대장증후군, 악성 변비 등 만성 소화기질환으로까지 이어진다. 밤늦도록 앉아 인터넷을 하다 보면 날 새는 줄 모르게 되고, 수면 부족으로 신진대사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 각종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게 된다. 컴퓨터 앞에 장시간 굳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두통과 현기증, 불면증 및 불안감이 동반되어 심한 경우 성격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¹⁵⁾

최근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의 주된 유형은 인터넷 중독자나 사이버 폐인이다. 하지만 대부분 은둔형 청소년은 자신을 위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노력하지 않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스스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자신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어 은둔생활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많게는 몇 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자기만의 공간에서만 지내다 보니 광장공포증이나 편집증, 햇빛 혐오증 등을 보이고 불안감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들은 자기비하적 성향을 띠기도 하고 대체로 음울하고 말도 잘 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우울증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그 수

1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앞의 논문, 2022.03.

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개인화가 심각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해체로 인한 청소년의 비인정, 애정 결핍 및 또래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외로움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서적 측면에 대한 접근은 사회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참여적 소통의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준다.¹⁶⁾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립 상태와 차별화된 기초적인 정서 측면에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낙인보다는 이후 청년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3) 사회 참여적 미술 활동의 소통 증진 효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주된 문제는 소통의 어려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둔형 외톨이 현상은 사회적인 이슈이며 가족은 물론 사회공동체적인 유대감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수업은 미술이 가진 사회적 역할과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 방식으로 확장된 담론의 장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의 예술성과 함께 공동체적인 소통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미술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은 미술 활동이 지닌 사회 참여적 특징과 소통을 증진하여 오늘날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미술의 사회 참여적 특성은 역사적으로 사회의 동시대성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이 시각적으로 개념화되면서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조성숙, 2018).¹⁷⁾ 사회 참여 미술은 참여와 공공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연극, 음악, 시 등

1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앞의 논문, 2022.03.

17) Habermas, H. 저, 한상진 외 역,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출판, 2010, 485쪽.

의 시간적인 예술을 관람하거나 미술작품 같은 시각예술을 특정 공간에서 관객으로 참여하여 단순히 관망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예술가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작품 구조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수의 사람이 소통의 장을 여는 행위를 의미한다. 수많은 동시대 미술작품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삶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신만의 해석으로 자신과 둘러싼 사회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다. 그 주제가 사적인 영역인지, 공적인 영역인가는 소통을 통한 공동체적 대화로 모두가 같은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게 하는 방법적 접근에 달려있다. 사적 영역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공적 영역의 공공성은 한 사회가 지닌 문제들에 대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공간과 장소에서의 사적인 영역과 구별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실천에는 목적 합리적이거나 도구적이어서는 안 되며, '생활사의 차원에서 공명을 일으킨 사회적 문제 상황에 사적 가공 처리로부터 자극과 추진력을 끌어온 쟁점'들을 공적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모든 영역에서 도달해야 하는 지점에 대화와 합의를 통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¹⁸⁾

미술이 개인적 표현을 넘어 공공성을 내포한 의미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조성숙(2018)은 Arendt(2022)의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¹⁹⁾를 인용하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맞닿는 그 ‘사이’에 그 공공성의 실현”의 실마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로서의 미술 활동이 어떻게 개인에서 사회적 문제로 연결하여 공동체 간의 의사소통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가를 대변해주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이미정(2022)의 「사회 참여적 미술 활동의 교수 활동에 대한 자전적 내

18) Habermas, H. 저, 한상진 외 역, 위의 책, 2010.; 조성숙, 「사회 참여 미술의 공공성과 실천-2018 광주지역 사회참여미술의 실제」, 『기초조형학연구』 19권 6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8, 697쪽에서 재인용.

19) Arendt, H. 저,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22. 55쪽.

러티브 연구」에 의하면, 예술이 지닌 의사소통의 행위를 “사회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학습자에게 문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을 극복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임을 일깨운다.²⁰⁾ 즉 청소년기의 사회 참여적 예술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COVID-19로 드러난 비대면 시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술을 통해 개인과 사회적 차원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통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활동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평소의 표현하지 못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도구로서 동시대 예술가 작품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미술 수업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한 진술을 해석하고 실제 ‘지각’과 ‘소통’과 관련된 정서적 의미 부여의 가능성 확장이 필요하다. 지각과 소통의 영역은 미술 감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활동으로 작품들을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자기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의미화하여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상과 주변에서 경험하는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사고를 적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한 현상들에 대해 자기의 경험을 탐색하고 또래 간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상호 소통하는 수업으로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습에서 사회 참여적 미술 활동을 ‘지각’과 관련한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일상과 주변에서 수집한 경험 정보에 정

20) 이미정, 「사회 참여적 미술창작 교수 활동에 대한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 6학년 미술영재아동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68권,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2022, 95쪽.

서적 의미 부여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시각화하는 표현 활동 및 감상을 통한 의사소통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최기호(2017)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측면만이 아닌 정서적 측면을 다양한 매체의 전달 방식이나 숙달된 표현 방법의 습득과 같은 소통 영역의 학습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²¹⁾

미술 수업에서 사회 참여적 미술 활동으로 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소통 가능한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사고는 사물 혹은 시스템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고립과 단절의 시대 청소년을 이해하는 단서와 방안을 제시하기에 미술 수업 설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은 무수히 많은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과 사회의 연결 시스템은 청소년 문화와 같이 설명될 수 없는 관계와 그것들 간의 시스템적인 연결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지각과 소통이라는 미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들추어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다르게 생각해 보고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함으로써, 관객과 예술가의 소통을 넘어서 또래 간의 협력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미술 수업을 위한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3. 미술 수업에서 시스템 사고의 설계와 적용

1) 시스템 사고 적용 미술 수업 설계의 개요

사회 참여적 의미에서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설계의 과정에서 제작과 평가의 유기적 순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사고는 문제 발생의 원

21) 최기호, 「미술과 교육과정 '체험' 영역에서 학습의 근거: 미술 교실 현장에 반영된 지각과 소통의 개념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5권 3호, 한국예술교육학회, 2017, 1-14쪽.

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접근하는 미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Bourriau(2002)는 “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적 의미는 자율적이고 개인적인 상징적 공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상호작용과 그것의 사회적 맥락의 영역을 이론적 지평으로 다룬 예술을 의미한다.”고 말한다.²²⁾ 미술 수업에서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수업의 접근 방식은 분석, 설계, 제작, 평가 과정의 유기적인 연관을 통하여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문제해결의 과정은 문제 발생의 원인과 경향을 확인하고 결과를 찾아가는 순환적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림 1]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수업 단계²³⁾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수업은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미술작품을 통하여 동기유발을 하는 ‘분석’ 단계에 이어 문제 상황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의 ‘설계’ 단

22) Bourriaud, N., “Simon Pleasance & Fronza Wood, trans”, *Relational Aesthetics, Les presses du réel*, 2002, p. 14.

23) 김유란·이효녕, 「고교학점제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 사고 적용 탐구 모듈 개발 및 효과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Brain, Digital, & Learning』 12 권 3호,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 2022, 403-422쪽의 논문 내용 참조하여 재구성 함.

계,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문제 요소 간의 상호 관련과 순환 관계를 바탕으로 마인드맵 등을 활용하는 ‘제작’ 단계, 문제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평가’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실행 가능하다면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며 기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실행이 희박할 경우는 대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안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활동을 통한 참여적 소통 활동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통과 공감의 이해에 기반한 활동이 가능하다. 고립된 청소년은 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증상이 아닌 학업이나 진로를 위한 꿈이 좌절되어 친구들 간의 소통과 공감적 이해를 얻는 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적 관계를 통한 인간의 존재 의미 발견의 방향을 부각함으로써 이해와 실천의 방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인문 정신문화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정서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복지와 건강 보건의 측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각도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접근 가능하다. 현시대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청소년 고립의 문제를 주제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으로 은둔형 외톨이 발생의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미술 수업에서 학생들 스스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찾아보도록 할 수 있다.

2)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주제로 한 시스템 사고 적용 미술 교수·학습 설계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고립과 소외로 이어지는 청소년의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술 수업 설계에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 가족 교사, 학우들 모두가 이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고 모두의 문

제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은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학업 스트레스 및 학교 폭력 피해 및 가족 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단서를 마련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 중 후군의 청소년은 문제의 발생 유형이 ‘대인관계’ 21.5%, ‘정신건강’ 19.9%, ‘학업·진로 문제’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²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청소년기의 중요한 탈선의 원인인 학업과 진로 문제로 인한 좌절감과 부담감을 정책적인 해결이나 대책이 아닌 정서적 심미 활동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좀 잘했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가족 모두가 사회에서 고립되어버린 느낌이에요.²⁵⁾

긍정, 성취감, 자부심의 개인적 행복의 영역이 배려와 성취, 다름의 인정이라는 집단적 행복의 영역과 만나게 되는 사회 참여 미술 활동은 성장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인 고립과 소외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위한 미술 활동 설계는 은둔과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행될 수 있다.

시스템 사고를 통하여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 전반을 인식하고, 이를 주변의 상황과 연결함으로써 문제 발생의 원인과 발생 상황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술 수업에서 시스템 사고의 활용은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 과정으로의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과 소외의 은둔형 외톨이라는 주제에 대

2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앞의 논문, 2022, 2쪽.

2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이야기하다.’에 실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둔 부모의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함.

하여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수업 설계는 문제 발생의 다양한 원인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과 관계와 과정을 설계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마인드맵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작품 제작과 평가를 통한 결과의 순환적 관계 형성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하는 평가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고립과 소외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미술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계 형성의 의미를 알아보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의 시스템 사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협력하는 방안의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수업의 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1] '고립과 소외의 은둔형 외톨이 구출 작전' 교수·학습 설계 예시

교수·학습 설계	
단 원	미술과 사회의 관계 이해
주 제	고립과 소외의 은둔형 외톨이 구출 작전
학습 목표	미술작품에 표현된 고립과 소외의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하여 이해하고 삶과 연결하여 공동체 문화를 생각할 수 있다.
탐구 질문	미술작품에 나타난 고립과 소외를 표현한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참여적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수업은 미술작품을 내면의 세밀한 감정의 주관적 표현 이해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끌 수 있다. 평소에 표현하기 어려운 자기주장과 생각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며, 미술작품을 통해 고립과 소외에 대한 의미를 시스템 사고를 적용하여 이해하고 제작과 평가를 통해 다양한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수업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수업 설계에 따라 <고립과 소외의 은둔형 외톨이 구출 작전>이라는 주제로 시스템 사고 단계를 적용한 미술 교수·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표 2] ‘고립과 소외의 은둔형 외톨이 구출 작전’
미술 교수·학습 활동의 시스템 사고 단계 적용 예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고립과 소외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 • 미술 활동으로 고립과 소외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설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의 고립과 소외의 문제를 은둔형 외톨이와 연결하여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를 표현한 예술 작품을 조사하고 이야기하기 -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하여 알게 된 점에 대하여 생각 나누기 • 예술 분야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표현한 작품에 나타난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를 표현한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표현 방법 알아보기 -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의미 나누기 • 언론 매체를 통해 고립과 소외의 은둔형 외톨이 삶의 모습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와 지원 정책을 조사하기 - 은둔형 외톨이가 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기
제 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과 소외를 표현한 미술작품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과 소외의 은둔형 외톨이를 표현한 미술작품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조사하기 - 은둔형 외톨이를 표현한 미술작품의 표현 방법과 내용 알아보기 • 은둔형 외톨이를 표현한 예술 작품을 통하여 작가가 전하는 의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은둔형 외톨이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생각 표현하기 - 은둔형 외톨이를 표현한 예술 작품에서 알게 된 점 정리하기 -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 구출 방법 이야기하기
	<p>(작품 제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교사의 발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과 소외를 표현한 미술작품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 미술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 미술작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는가? - 미술작품 속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 미술작품 속 주인공이 나라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p><미술로 생각하는 고립과 소외의 은둔형 외톨이 구출하기> 작품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 구출 방법을 제시된 작품을 활용하여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하여 알게 된 점 표현하기 - 예술 작품에 표현된 은둔형 외톨이 구출 방법을 이야기하기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를 이해하고 구출 작전을 표현한 작품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 발표 -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결 방법을 표현한 작품에 대한 서로의 생각 이야기하기
-----	---

3)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사고 적용 지도의 실제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수업을 위해서 교사는 주제에 대한 설계를 한 후 단계별로 구체화 된 수업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를 주제로 한 시스템 사고 적용 수업은 동기유발에 중요한 시작점인 ‘분석’의 단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고립과 소외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은둔형 외톨이의 의미를 알아보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와 발생 이유, 문제점과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사회 문제해결 방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 “은둔형 외톨이를 들어봤는가요? 우리 사회의 고립과 소외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학생) “밖에 나오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세상에 나오는 것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학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서요.”

(교사) “미술 활동으로 고립과 소외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학생) “함께 그리거나 서로 도와서 하는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학생) “못하는 친구를 탓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미술 수업의 ‘설계’ 단계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표현한 미술작품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술작품을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된 작품의 주제 관련한 발문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질문에 대한 다양한 반응으로 미술작품을 바라보고 작품의 이미지에 대한 느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 현시대의 고립과 소외의 은둔형 외톨이를 표현한 작품을 통하여 작품 제작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교사) “제시된 작품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표현한 작품일까요?”

(학생) “심해 물고기가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학생) “혼자 어두운 곳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학생) “혼자 자는 것 같은 벌레를 누군가 깨워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림 2] 테츠야 이시다(1973~2005/
일본) 무제(1996년)



[그림 3] 테츠야 이시다(1973~2005/
일본) The Sleeping Pull Bug(1995년)

위와 같이 ‘설계’의 단계에서 교수학습 활동은 작품에 보이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화면 구성에 대한 느낌과 소재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개별 또는 조별 활동이 가능하다. 사회적 고립과 소외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만드는 사회적 문제를 알아보고 사회적 지원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검색으로 알아보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고립과 소외 문제인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및 발생원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료 검색을 통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토의를 통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한 바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함으로써 탐구한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도출하도록 한다.

(교사) “사회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학생) “은둔형 외톨이의 출발이 학교폭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학생) “우리가 학교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없애려면 학교폭력부터 없애야 하는 거더라고요.”

(학생)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생각해 봤어요.”

(학생) “학교에 오면 하는 활동들이 즐겁고, 친구들과 같이하여야 하며, 친구들끼리 서로 생각이 일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작’ 단계에서는 각 요소 간의 인과 관계와 순환적 관계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마인드맵을 작성함으로써 각각의 문제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순환적이며 유기적인 관계 이해를 위하여 마인드맵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소외문제를 ‘은둔형 외톨이 구출 작전’으로 정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사고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 문제의 요소 간 인과 관계에 대한 이해와 요소 간의 순환 관계로 사회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각 요소의 인과 관계와 순환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 방법 제시를 위해 발산적 사고로 접근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다양한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결과물 예시
(발문 예시) 은둔형 외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림 4] 00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 시스템 사고 적용 미술 시범 수업에서 나온 마인드맵 결과물 예시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표현한 미술작품의 이해를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이전에 단순하게 이미지에 대한 형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에서 나아가 미술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이루어진다.

- (교사) “자 그림 우리가 처음 이 시간에 보았던 작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학생) “처음에는 별레로만 보였던 미술작품이 하나의 막에 둘러싸여 있는 외로운 사람으로 보여요.”
 (학생)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학생)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이 처음에는 너무 음산했는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알고 나서 다시 보니 작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학생) “외부를 거절하고 방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곰벌레로 자신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인드맵으로 표현된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학생 결과물 예시

(소통을 위한 교수 활동)

테츠아이시다의 작품에서 발견된 '은둔형 외톨이' 구출 작전을 위해 마인드맵으로 표현한 후 스마트 패드로 표현한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유도한다.



주인공 앞에 놓인 징그러운 벌레를 낚시대로 걸어 올리고 세면대에 채워진 물을 빠지게 해서 갇혀 있는 물속에서 나오라고 하고 싶었다. 어깨에 올려진 많은 짐이 무거워 보여서 짐을 덜어주고 싶은 모습을 지워주고 있는 흰 선으로 나타내었다.



곰벌레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의 곁에서 후름라이드를 함께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자고 말하고 싶다. 갇혀 있는 자신에서 나와서 환하게 팔을 울리며 환호하는 모습으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림 5] 00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 시범 수업에서 나온 표현 결과물 및 학생들의 작품 설명 예시

은둔과 고립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수업은 실제 삶에서의 유기적 관련성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당면 문제에 개인 차원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단절과 소외의 문제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심각함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수업의 설계는 문제를 지각하며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냄으로써 적극적인 해결 방안의 제시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참여적 형태의 미술 수업은 사회의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타

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유기적이며 순환적 관련성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가능하게 한다.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4. 맺음말

미디어의 발달과 초연결을 선도하는 인터넷망은 과거 대면으로 인간 관계를 맺어 왔던 시대와 다른 형태의 관계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혼자서 살아가기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삶의 행복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던 때와는 다른 방식의 소통으로 가상 세계에서 삶의 충족감을 대신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인터넷을 통한 가상 세계의 접속으로 많은 것이 해결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할수록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더욱 부각 될 우려가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고립과 소외의 문제를 야기하고 상호 소통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과 미디어 노출로 인한 중독이 이르기까지 실제로 제2차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스스로 변화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더라도 자신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어 더욱 은둔 생활로 깊이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수업은 미술이 가진 사회적 역할과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 방식으로 확장된 담론의 장으로 사회 문제를 삶의 문제로 가져와 문제 상황에 개입하고 해결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시스템 사고를 교육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간과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만을 가지기보다 배려의 지평을 넓히라는 것”²⁶⁾이다. 청소년의 고립은 개인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현대 사회는 가상과 현실 세계의 연결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 인간과 사물, 인간과 자연 등 세상의 모든 게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미술과 교수·학습 활동은 혼자만의 세계가 갇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배려를 통한 믿음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다. 이에 시스템적 사고 과정인 분석과 탐구의 순환을 통하여 자기 이해와 사회적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참여적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미술 활동을 수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시스템 사고의 적용에 대하여 과학 교과와 사회 교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의 주제를 사회적 맥락과 생태계의 시스템 등 확장된 담론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제시와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 교과에서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는 수업의 개발은 미술이 가지는 사회 참여적 소통 증진 효과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자기의 생각과 표현의 욕구와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다. 특히, 분석, 설계, 제작, 평가의 4단계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 사고의 단계를 미술 수업에 적용하여 동시대적 사회 참여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사고를 마인드맵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자신의 사고와 문제의식을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소통 중심의 미술 수업 설계는 하나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 청소년기의 은둔형 외톨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부와의 관계에서 고립된 청소년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협력적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26) Meadows, D. H.저, 김희주 역, 앞의 책, 2022, 303쪽.

수업 방안이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개발되어 미술 교과가 단순히 심미적인 감성의 촉진에 그치지 않고 비평적 사고와 함께 협력과 배려를 통해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청년 핵심 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 김유란·이효녕, 「고교학점제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 사고 적용 탐구 모듈 개발 및 효과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Brain, Digital, & Learning』 12권 3호,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 2022, 403-422쪽.
- 방희경, 「사이버공간의 소수적인 문화를 위하여-‘사이버 페인’들의 다르게 정치하기」, 『사회연구』 7권 1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6, 47-74쪽.
- 이경윤·조의호·한준희,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초등사회과 교육 방안 모색」, 『사회과수업연구』 9권 2호,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21, 63-81쪽.
- 이미정, 「사회 참여적 미술창작 교수 활동에 대한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 6학년 미술영재아동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68권,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2022, 95-133쪽.
- 정근하·노영희,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의 출현 배경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6권 1호, 한국비교정부학회, 2022, 229-250쪽.
- 조성숙, 「사회참여 미술의 공공성과 실천 - 2018 광주지역 사회참여 미술의 실제」, 『기초조형학연구』 19권 6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8, 693-703쪽.
- 최기호, 「미술과 교육과정 ‘체험’영역에서 학습의 근거: 미술 교실 현장에 반영된 지각과 소통의 개념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5권 3호, 한국예술교육학회, 2017, 1-14쪽.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이야기하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자를 위한 지침서 개발」, 『청소년상담이슈페이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03.

1-11쪽.

- Arendt, H. 저,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22, 55쪽.
- Habermas, H. 저, 한상진 외 역,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출판, 2010, 485쪽.
- Meadows, D. H. 저, 김희주 역, 『ESG와 세상을 읽는 시스템법칙』, 세종서적, 2022, 21-34쪽.
- Rifkin, J. 저, 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민음사, 2001, 310쪽.
- Senge, P. M.·Nelda, C. M.·Timothy, L.·Bryan, S.·Janis, D.·Art, K. 저, 한국복잡성교육연구회 역, 『학습하는 학교: 시스템 사고를 통해 본 학교 복잡계 운영』, 씨아이알, 2018, 8쪽.
- Bourriaud, N., "Simon Pleasance & Fronza Wood, trans", Relational Aesthetics, Les presses du réel, 2002, p.14.
- Sweeney, L. B.·Meadows, D, "The systems thinking playbook". VT: Chelsea green publishing, 2010, pp.1-2.

■ 국문초록

은둔형 외톨이 현상은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하며, 그 원인은 가족은 물론 사회공동체적인 유대감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세상에서만 소통하고 타인과의 직접적 접촉을 꺼리는 청소년들의 또래 간 참여적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첫째, 시스템 사고의 교육적 적용의 중요성과 은둔형 외톨이 증후군 청소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회 참여적 미술 활동의 참여적 소통 증진 효과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둘째, 사회참여 미술 활동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구출 작전’을 주제로 하여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수업 설계로 한 미술 수업 방안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협력적 소통과 배려심을 갖도록 하는 교수·학습의 실제로서 시스템적 사고 과정인 분석과 탐구의 순환이 적용된 미술작품을 제시하고 참여적 소통을 촉진하도록 마인드맵을 활용함으로써 심미적 공감을 넘어 구체화 된 시각 이미지의 재해석에 이르도록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미술 수업은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같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협력적 소통과 배려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시스템 사고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주제어 • 시스템 사고, 사회 참여 미술, 은둔형 외톨이, 참여적 소통, 미술 수업 설계

■ Abstract

A Study on the Art Instructional Method of System Thinking : Focusing on the phenomenon of reclusive loner adolescents

Jeong, Ok Hee·Kim, Hye Kyung
/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The reclusive loner phenomenon causes problems that lead to social isolation and alienation, and the cause is a lack of social and family ties.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an art class plan that applied systematic thinking to promote participatory communication between peers of adolescents who communicate only in the digital world and are reluctant to contact others directly. First, the theory of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al application of systematic thinking and the effect of promoting communication of social participatory art activities that can apply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in adolescents with reclusive loner syndrome was reviewed. Second, through social participatory art activities, an art class plan was developed with the theme of 'Saving the Silent Loner' as a class design. Finally, a method was proposed to go beyond aesthetic empathy to reinterpret the embodied visual image by presenting art works that apply the cycle of analysis and inquiry, a systematic thinking process, as a practice of teaching and learning that encourages cooperative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that should be treated as important in adolescence, and using mind maps to promote participatory communi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iscovered that art classes applying system thinking are a useful way to approach social problem solving beyond the individual level, such as the reclusive loner phenomenon. Therefore, system thinking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to

create cooperative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that should be important in adolescence.

Keyword • System thinking, Social participatory art, Reclusive loner, Participatory communication, Art class design

싱가포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탐색*

최지연·김상철·주영효·김희규**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의
교육 정책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싱가포르는 영국 기술 정책 연구소 옥스퍼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가 발표한 2023년 '정부 AI 준비 지수(Gover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ess index)¹⁾에서 종합 점수 81.97점을 획득하여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Oxford Insights, 2023).²⁾ 아울러 미국 서비스용 소프

* 본 논문은 "예비·현직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체계 정립"(한국교원교육학회, 2023)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최지연(제1저자) 싱가포르난양공과대학교 국립교육원 박사과정
김상철(교신저자)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연구원
주영효(공동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희규(공동저자) 신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AI를 활용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한 지수를 의미하며, 평가 영역으로 거버넌스, 인프라, 데이터, AI 기술 및 교육 영역 등을 포함한다.

2) Oxford Insights, "Gover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ess index",

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Salesforce)에 따르면,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준비 지수(2023 Asia Pacific AI Readiness Index)에서도 전반적인 AI 준비도 점수로 싱가포르가 1위(70.1점)를 차지하기도 하였다.³⁾ 이와 관련한 싱가포르의 정책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AI 정책과 기존의 에듀테크 정책을 연계하여 에듀테크 정책에 근거한 국가적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AI 정책을 시행 중이며(홍선주 외, 2020), AI 정책 관련 민관협력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스마트 국가 및 디지털 정부 그룹(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Group[SNDGG])이라는 기구를 2017년 5월 싱가포르 총리실(PMO) 산하에 설립하여 싱가포르 정부 전반에 걸쳐 스마트 국가 및 디지털화 노력을 주도하고 조정하고 있다. SNDGG는 주요 전략 국가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공공 부문을 위한 장기 ICT 역량을 구축하며,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의 채택 및 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례로 SNDGG는 2022년 8월 23일에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와 AI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싱가포르 국립 AI 사무소(Singapore National AI Office)'가 주도하여 글로벌 기술 기업과 맺은 첫 민관 AI 파트너십이다. 싱가포르는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약을 통해 응용연구 및 개발(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역량 및 능력 개발(Competency and Capability Development), AI 거버넌스 및 윤리(AI Governance and Ethics) 등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글의 심층적인 인공지능 기술 전문 지식과 투자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AI 분야의 민관협력을 통해 투명성 및 책임성, 형평성,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보장하면서 교육, 재정적 포용, 탄소 발자국 감소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더 큰

2023.

3) May Chua, "싱가포르 생성형 인공지능(GenAI) 시장 동향", <해외시장뉴스>, 2023.12.06.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기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⁴⁾ 싱가포르의 교육 분야 AI 관련 정책은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NAIS)의 핵심 AI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의 주요한 산업 분야 가운데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핵심 산업을 9대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 중 5대 영역(교통·물류, 안전·보안,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교육)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AI 프로젝트로 추진한 것이다. 특히, AI의 적용에 있어 정부·산업·사회에서의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알고리즘을 개발 및 테스트한 뒤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선순환 구조로 지원하고자 하였다.⁵⁾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적응형 학습 및 평가를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로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 교육 및 교육 효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AI 준비지수는 7위(종합 점수 75.65점)로 나타났으며, 이는 싱가포르보다 낮은 순위이다.⁶⁾ 한국의 AI 시대에 대한 대비는 ‘정부 AI 준비 지수’ 상위 국가에 비하여 다소 늦은 행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1년 한국 교육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도모하고자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에듀테크(EdTech)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을

4) 정한영, “싱가포르 정부, 스마트 국가 'AI 혁신' 위해...구글클라우드와 AI 분야 최초의 민관 파트너십”, <인공지능신문>, 2022.08.29.

5) Smart Nation Singapor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dvancing out smart nation journey”, 2019, pp.16-17.

6) Oxford Insights, “Gover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ess index”, 2023.

강조하기 시작하였다.⁷⁾ 따라서 정부 AI 준비지수에서 최상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AI·디지털 역량 교육 정책은 우리 정부와 민간 기업에게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교원 AI·디지털 역량 관련 지원 및 활용 실제와 정책은 우리나라 학교의 교수-학습, 교육정책 현실을 반추할 수 있는 선진 사례로써 기능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 관련 AI 정책에 대해 분석한 최근의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지원을 위한 교육 정책을 학술적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최근에 이은수 외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준비 청사진(Digital Readiness Blueprint, 2019.2)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고,⁸⁾ 정호진은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체육교육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전략을 분석하였다.⁹⁾ 이은수 외, 정호진 연구는 싱가포르의 AI·디지털 교육 및 관련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지만,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관련 지원 교육 정책, 사례를 조망하고,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치밀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싱가포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제고 정책 및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및 교육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싱가포르의 AI·디지털 역량 관련 정책 추진 배경과 싱가포르의 AI·디지털 역량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고, 싱가포르의 AI·

7) <교육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2316454381>, 2021.04.20.

8) 이은수, 한유정, 주윤경, 「디지털 포용 정책 동향과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9) 정호진,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체육교육: 지원과 전략」,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10권 6호, 차세대컨버전스 정보서비스학회, 2021, 645-654쪽.

디지털 역량 유형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싱가포르 학교 현장의 교수(teaching) 상황에서 나타난 싱가포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관련 지원 및 활용 실재를 살펴보고,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의 교육 정책을 탐색하도록 한다. 이러한 탐색은 싱가포르의 교육부 발표 자료, 싱가포르 학술지, 싱가포르 웹사이트, 싱가포르 언론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접근 및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부가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제고 관련 교육 정책을 정부 주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지원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예비 교사 양성, 현직 교사 연수 등과 관련된 정책 개발, 실행 및 현장 착근과 효과성 제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론적 배경

1) 싱가포르의 AI·디지털 역량 관련 정책 추진 배경

인공지능과 디지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IT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사업, 과학, 예술 및 교육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스마트 가전, 스마트폰 등 우리의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도 존재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도 AI 및 디지털의 활용이 이북, 학습기기, 학습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산되어 왔다.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에 이러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제공하는 교원들이 적합한 AI 및 디

10) Ng, D. T. K.·Leung, J. K. L.·Chu, S. K. W.·Qiao, M. S., “Conceptualizing AI literacy: An exploratory review”, Computers and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2, 2021.

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OECD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에서는 48개국을 대상으로 중등학교 교사들의 교육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TALIS 설문조사에는 교사의 ICT 활용에 관한 문항이 약 세 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이 세 개 문항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교수활동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교수 활동을 위한 ICT 활용’에 대한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에 싱가포르 교원 74.6%가 참여했다고 응답해 참여국 중에 1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60.8%, TALIS 평균은 63%였다. 두 번째로,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 ICT를 활용한 수업을 이수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88.2%로 전체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우리나라 48%, TALIS 평균 60.3%). 더불어 ICT를 교육 현장에 사용하는 준비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60.5%로 우리나라 48%, TALIS 평균 49.1%보다 훨씬 우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¹¹⁾ 이처럼 싱가포르 교원이 ICT 활용에 관한 문항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1997년부터 교사의 AI 및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해 시작한 정부 주도의 마스터플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1997년부터 시작된 싱가포르 교육부 주도의 마스터플랜과 마스터플랜 이후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맞춰 발표한 EdTech 계획, 그리고 국가 주도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차 마스터플랜(1997-2002)

싱가포르는 1997년부터 싱가포르 학교의 디지털 관련 교수학습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싱가포르가 인적 자본개발에

11) OECD, “TALIS 2018 Results (Volume I): Teachers and School Leaders as Lifelong Learners”, TALIS, OECD Publishing, Paris, 2019.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식 기반 경제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 향상을 목표로 ICT 정책을 수립하였다.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시행된 제1차 마스터플랜에서는 학교에 ICT 기본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교사에게 ICT 능력을 학습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ICT 전문 강사에게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활용 및 기타 ICT 도구를 학습활동에 통합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 시기에 모든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30시간의 학교 기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¹²⁾을 통해 ICT 교육을 받고 교육과정에 통합하였다.¹³⁾

(2) 제2차 마스터플랜(2003-2008)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제2차 마스터플랜은 학교 혁신을 목적으로 교육에 ICT를 널리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교육과정에 ICT를 통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증대시키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ICT 기술을 갖추는 싱가포르의 핵심 전략으로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 제2차 마스터플랜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목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학생의 효과적인 ICT 활용, 둘째, ICT를 활용하여 강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 간의 연결성, 셋째, 일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ICT의 효과적인 사용, 넷째, ICT 활용 역량을 가지고 있는

12)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 싱가포르 국립교육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이나 싱가포르 교사 아카데미(Academy of Singapore Teachers)에서 주관하는 교사 대상 프로그램으로 교사의 전문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3) Natarajan, Lim, K. Y., Laxman, K., "A national vision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education: reflections on Singapore's ICT technologies Masterplan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vol. 35, no. 5, 2021, pp.943-954.

학교, 다섯째, 활발한 관련 연구 진행, 마지막으로 ICT 기반시설 개선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의 ICT 활용 능력과 각 부서의 부장교사(Head of Departments)의 ICT 활용 계획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제2차 마스터플랜에서는 각 단위 학교가 필요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의 도입 시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아 학교 단위별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 및 실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대면 워크숍, 현장 교육 또는 ICT 관련 프로그램의 토론, 포럼과 같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ICT의 활용 가치를 강조하고, 교사들이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¹⁴⁾

(3) 제3차 마스터플랜(2009-2014)

2009년에는 제3차 마스터플랜이 출범하였다. 이때, 제3차 마스터플랜은 미래 학습을 위한 ICT 활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풍부하게 전환시키고 지식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과 기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¹⁵⁾ 교사 교육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학교 안팎에서 효과적인 ICT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ICT 멘토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ICT 기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리더십 역량 강화에

14) Koh, T. S.·Lee, S. C., “Digital skills and education: Singapore’s ICT master planning for the school sector.” IN S.K. Lee, C.B. Goh, B. Fredriksen ·J.P. Tan (Eds.), *Toward a Better Future: Education and Training for Economic Development in Singapore since 1965*.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8, pp.167-190.

15) 정호진,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체육교육: 지원과 전략」,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10권 6호, 차세대컨버전스 정보서비스학회, 2021, 645-654쪽.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었는데, 성공적인 학교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의 동료 코치로, 교사를 다른 지도자의 동료 멘토로 정하여 학교 전반에 걸쳐 ICT의 활용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ICT 멘토들은 각 분야의 학습과 교습을 위한 ICT 활용에 관한 교사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였고, ICT가 풍부한 학습 경험과 모범 사례를 옹호하는 기획 및 전달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였으며, 교사들이 창출한 ICT 자원의 공유를 촉진하여 좋은 아이디어와 실천을 전파하였다.

교육부는 맞춤형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및 관련 부서의 지원으로 학교에 ICT 컨설팅과 다양한 인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에서의 ICT 활용을 위해 'EduLab'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기반 혁신의 생성,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를 위해 대학 연구원과 협업할 수 있는 학교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학교 간 우수 사례 공유를 촉진시키고 각 학교에서 ICT 활용에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2014년까지 'Future Schools@Singapore' 및 'LEAD ICT@Schools'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의 구현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ICT 인프라가 개선되어 국가 전체에 걸쳐 고속 광대역 및 4G 액세스가 가능해졌다(Koh and Lee, 2008). 아울러 이러한 정책의 실현으로 교사들과 학교 지도자들이 교수와 학습을 위한 기술을 사용하여 편안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¹⁶⁾

(4) 제4차 마스터플랜(2015-2019)

2015년부터는 제4차 마스터플랜에 착수하였다. 제4차 마스터플랜은 미래를 대비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학습자를 양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ICT를 활용하여 과목에 대한 이해도 증진, 21세기 역량을

16) Tan, S. C.·Chai, C. S.·Lee·C. B.·Teo·K. G. T.·Chen, W.·Koh, J.·Cheah, H. M,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IT Masterplan 3 and its impact on Singapore schools.", Instrumentation and baseline study, Research Brief, vol. 11, no. 1, 2010.

위한 기술 습득,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의 태도 양성 등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의 목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학습과 증거 기반 ICT 운영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수업의 조력자로서 명명되어 학습 경험과 환경의 디자이너, 그리고 문화 건설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 3차 계획에서 구현된 이 러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교수 및 학습 혁신 지원, 교사 나눔의 기회 제공, 교사 커뮤니티 지원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였다.¹⁷⁾ 더불어 교육부 산하 기관인 싱가포르 교사 아카데미(Academy of Singapore Teachers)는 연수 및 기타 전문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싱가포르 교사 아카데미는 주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는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장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 지도하면서 프로그램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습 중심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교사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원하였다.

교사들의 ICT 관련 프로그램 및 공유는 ‘Educrat@ASC’에서 이루어졌다. ‘Educrat@ASC’의 주요 목표는 교육에서의 아이디어와 협력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교육 기술 혁신의 채택을 촉진하며 학교를 위한 기술 실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ICT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혁신적인 ICT 관련 교수법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부는 ‘네트워크 학습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ICT를 적용하고,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교육부의 교육 공학 부서가 주도하여 성공적인 ICT 기반 실습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ICT 실습과 혁신을 싱가포르 교육

17) Natarajan, Lim, K. Y.·Laxman, K, “A national vision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education: reflections on Singapore’s ICT technologies Masterplan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vol. 35, no. 5, 2021, pp.943-954.

맥락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교사의 역량을 구축한다.¹⁸⁾

(5) EdTech 계획

2019년 싱가포르 교육부는 정부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계획에 발맞추어 과학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인들에 대하여 더 잘 대응하기 위해 EdTech(Educational Technology) 계획을 발표하였다.¹⁹⁾ EdTech 정책은 후술할 정부 주도의 스마트 네이션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EdTech는 초등학교에서 예비대학교에 이르는 학습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및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에 발표한 EdTech 계획은 2030년까지 학교 현장에 기술 생태계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더불어 본 계획은 새로운 기술의 빠른 변화를 인식하여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dTech는 총 4가지의 학습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자기 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으로 학생들이 내적 동기와 학습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도구, 틀,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별화(Personalised Learning)로 학생들의 개별 요구에 맞춘 속도와 학습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연결성(Connected Learning)으로 학생들이 협력 학습 경험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지역 사회와 세계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 학습(Human-centred Learning)은 학생의

18) Ng, D. T. K.·Leung, J. K. L.·Chu, S. K. W.·Qiao, M. S., “Conceptualizing AI literacy: An exploratory review”, Computers and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2, 100041, vol. 2, 2021.

19) 정호진,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체육교육: 지원과 전략」,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10권 6호, 차세대컨버전스 정보서비스학회, 2021, 645-654쪽.

관심, 태도, 동기를 바탕으로 학습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이해를 활용하는 것이다.²⁰⁾ 이러한 핵심 비전을 바탕으로, EdTech 계획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교, 협력 사업체가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각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획서에 명시해 두어, 각 주체가 본인의 역할을 바탕으로 EdTech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었다.

(6)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의 AI 및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인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사업을 지난 2014년에 시작하였다. 본 사업은 하나의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그리고 디지털 사회를 목적으로 하며, 교통, 건강, 도시 생활, 정부 서비스 및 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사업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정부란 싱가포르의 사업체와 시민들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오픈 플랫폼을 만들고, 사회 기반 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경제란 기술 분야 사업에 투자를 촉진하고 해당 분야의 인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회란 개인에게 그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개인이 더 나은 공동체 삶, 더 큰 동기부여와 더불어 최신의 디지털 기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 네이션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2021년 스마트 도시 인덱스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²¹⁾

스마트 네이션 사업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al Technology Plan", 2021.06.08.; 최지연, 「싱가포르의 학교 교육활동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 9월 통신원 리포트』, 한국교육개발원, 2022, 60-67쪽.

21) Smart Nation Singapore, "Our Achievement", 2021.

(N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은 2030년까지 여러 분야의 사업체와 시민들에게 인공 지능 운영 능력과 해결책을 가지고 관련 분야의 리더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5개의 AI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각 프로젝트는 화물 운송계획의 발전, 효율적인 지방자치 서비스, 만성 질환 예측 및 운영, 국경 운영, 그리고 적응 학습과 평가를 통한 개인화된 학습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적응 가능한 학습과 평가를 통한 개인화된 학습(Personalised Education through Adaptive Learning and Assessment)’이다. 이 프로젝트는 교사들을 도와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흥미에 맞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듯 싱가포르는 교육을 국가 주도의 AI 전략에 하나로 간주하였다.

정부는 교사를 도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AI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5월 전체 학교급에 온라인 학습 공간인 학생 학습 공간(Student Learning Space)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²²⁾ 학생들은 AI 기반의 적응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강화된 학생 학습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AI 기반의 적응 학습이란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각 학생이 학습 자료와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려주고 학습자별로 맞춤형된 단계별 경로를 추천해주는 AI활용의 학습법이다.²³⁾ 더불어 교사들은 학생 학습 공간 안에서 AI 기반의 자동 채점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공부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자동 채점 시스템은 단답형 응답 문제와 논술 등 개방형 학생 응답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작업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AI를 통해 학생들이 도전적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된 비계 설정을 통해 학생들의 발전을 꾀한다.

22)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Student Learning Space”, 2022.09.03.

23) Smart Nation Singapor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dvancing out smart nation journey”, 2019.

요약하자면, 학생들은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에 맞춘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받고, 교사들은 일상적인 평가 과제에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학생 정보를 통해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적 부진아를 포함한 다채로운 학습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그들의 맞춤형 성과 달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스마트 네이션에서 교육 분야가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명시된 것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교육에서의 AI 및 디지털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사용됨을 알 수 있다.

2) 싱가포르의 AI·디지털 역량에 관한 개념적 정의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교원의 AI 및 디지털 역량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dTech 계획과 스마트 네이션 전략 문서를 통해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교원의 AI 및 디지털 역량을 추측해볼 수 있다. 교원들은 AI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일률적인 수업 방식보다는 학생의 흥미와 학습 단계를 고려하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리해보면, 싱가포르에서 교사에게 요구하는 AI 및 디지털 역량의 개념은 학생 중심 수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AI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²⁴⁾

AI 및 디지털 역량 개념에 관한 근거는 스마트 네이션 전략 문서, EdTech 문서와 교육부가 최근에 발표한 여러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스마트 네이션 전략에서는 ‘적응 학습과 평가를 통한 개인화된 학습’을 중요 전략 중 하나로 간주했고, EdTech 계획에서도 AI와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 기획, 실습 능력을 강조하였다. 이와 비슷한 기조로,

24) Smart Nation Singapor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dvancing out smart nation journey”, 2019.

교육부가 최근에 발표한 중등학교의 전체 학문 기반 수업(Full Subject-Based Banding)²⁵⁾이나 초등학교 졸업 시험(Primary School Leave Examination) 채점시스템²⁶⁾의 변화로 미루어 볼 때,²⁷⁾ 현재 싱가포르의 교육은 학생 중심 수업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에서는 학생 학습 공간이나 이북 활용과 같은 AI 및 디지털 기술의 수업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에 교원들에게도 학생 중심 수업을 디자인하고 교수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싱가포르의 AI·디지털 역량 유형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제공한 EdTech 계획의 비전 선언문을 통해 학생, 교사, 학교 그리고 협력 사업체가 가져야 할 AI 및 디지털 역량의 개념과 유형을 알 수 있다.²⁸⁾

이러한 각 주체의 AI 및 디지털 역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은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학습자로서의 역량을 가져야 하고, 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협력 사업체는 기술 기반 학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기술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더

25) 전체 학문 기반 수업(Full Subject-Based Banding): 기존에 중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시험의 결과로 나누어진 학습 과정(고속 학문/일반 학문/기술)에 따라 분반이 되어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2020년부터 학습 과정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섞여 수업을 듣게 된다. 기존에는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시험(O-level)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전체 학문 기반시험에서는 학습 과정 상관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26) 기존 채점 시스템은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과목별로 변환 점수(Transformed score)를 받았지만, 바뀐 채점 시스템은 학생들 간의 비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과목별로 성취 수준(Achievement Level)이라 불리는 1~8 등 급제로 학생들의 점수를 매긴다.

27) Ministry of Education, "Transforming Education through Technology" Masterplan 2030, 2023.09.23.

28) Ministry of Education, "Transforming Education through Technology" Masterplan 2030, 2023.09.23.

불어 다음과 같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

첫째, 학습 경험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같은 역량이 필요하다. 학습 경험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란,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물리적, 가상적 환경을 디자인하고, 각 학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활동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이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뜻한다. 둘째, 학습들의 학습 촉진을 위해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숙련된 실습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학습을 제공하는 실습자로서 교사는 학생과 학습 내용 간, 학생과 교사 간, 학생과 친구들 및 지역 사회 간 학습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적재적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전문적인 능력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는 디지털 학습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 교사는 끊임없이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교수 학습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해보면, 위의 세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인지, 정의 측면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e-교수법의 숙련된 실습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EdTech 계획에 따르면, 교사는 EdTech 계획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학습자로서 개개인의 기술 활용 능력을 향상해야 하고, 디지털 보안을 위하여 책임감과 보안 의식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부와 관련 사업체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첫 번째로, 교사들은 학습자로서 기술 활용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교사들이 기술을 활용한 교수 학습을 교실과 온라인상에서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나, 가이드북, 학생 학습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원과 온라인상에서 학습을 제공하는 법을 안내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의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

생들의 학습과 평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사이버 웰니스와 사이버 보안 교육을 위하여 교사들에게 CCE 교육과정²⁹⁾을 통해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세 번째로, 학부모의 참여를 위해 학교 주체의 다양한 연수를 열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가이드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산업 파트너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참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의 교육 정책

1) 싱가포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관련 지원 및 활용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 나타나는 싱가포르 교원의 AI 및 디지털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학생들의 AI 및 디지털 활용 능력을 매우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해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개정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교수하려면 이를 교수하는 교원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각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위해 교원들은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디지털 기기 지원을 통한 학교 현장 지원 현황

교육부는 2020년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1년 말까지 모든 중등 학생에게 개인 학습 기기(The personal Learning

29)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에는 대학 이전의 모든 단계에 윤리, 성교육, 가족 가치관, 정신건강과 싱가포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가르치는 도덕과 국민성 교육(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CCE)이 포함되어 있다.”; 박정우, “코딩 의무화·컴퓨팅 과목 확대...싱가포르 ‘디지털 문해력’ 강화”, <EBS NEWS>, 2021.04.07.

Device)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³⁰⁾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환경 인프라와 연동이 가능한 개인 학습 기기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개인 학습 기기의 사용은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의 온라인 학습 경험을 선정,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먼저 개인 학습 기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기 선정 방식을 살펴보면, 학교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개인 학습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는 관련 업체와의 입찰을 통해 기기를 선정한다. 개인 학습 기기 선택의 경우 교육부가 학교에게 기기 목록을 주면 학교에서 상의 후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기를 선택하게 된다. 찬 춘싱(Chan ChunSing) 교육부 장관은 개인 학습 기기는 전통적인 교실에서 종이와 펜이 필수로 필요했던 것처럼 현재는 이러닝을 위해 꼭 필요한 학습 도구라고 언급하며, 개인 학습 기기가 기본적으로 학습과 교육에 사용될 것을 고려해 볼 때, 고급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격 측면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개인 학습 기기를 대용량 구매하여 가격을 더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기기 구매의 경우 학생들이 전액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기 구입 비용의 일환으로 2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0만 원)를 학생들의 에듀세이브 계정에 입금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마련하였다.³¹⁾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과 학습에 관련한 내용이 학생 학습 공간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학습 기기의 활용은 기존 도구를 보완하여 학급이나 재택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강화할 수 있다. 교

30) Ministry of Education, "Personal Learning Devise", 2020.11.02.

31) Ng Wei Kai, "Upper primary, secondary students to get instant feedback on English assignments with new AI system", The Straitstimes, 2021.08.18.

육부는 학교에 개인 학습 기기의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과 더불어 학교 학생들의 특징에 맞추어 개인 학습 기기의 사용을 맞춤화할 수 있는 자율성 또한 가지고 있다. 더불어 개인 학습 기기를 배부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학습 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학생들은 인성과 시민성 교육(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을 통해 사이버 웰니스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고, 학부모들에게도 개인 학습 기기의 사용법, 학교와 협력하여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제공된다. 또한, 교육부는 개인 학습 기기에 대한 학습을 안내할 전문 인력을 학교에 파견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도와준다.³²⁾

개인 학습 기기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오키트 파크 중등학교(Orchid Park Secondary School)는 개인 학습 기기를 시범 운영하였다. 오키트 파크 전교생 280명은 교육부로부터 빌린 크롬북(Chrome Book)을 보급받게 되었는데, 활용 결과 개인 학습 기기의 사용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의 경우 집과 학교 모두에서 학생 학습 공간에 접근이 가능하여, 원할 때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으며, 교사의 경우 학생 학습 공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학생 학습 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 및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학습 과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학생들에게 이해를 위한 질문을 하고 그들의 오류를 빠르게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사용 시간 및 비교육적 활용을 조절하기 위해 밤 12시가 지나면 기기가 자동으로 꺼지거나 특정 게임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막지는 않고 오히려 학

32) Amelia Teng, "MOE flexible on students' use of learning devices after school: Lawrence Wong", The Straitstimes, 2021.02.25.

생들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책임감 있게 운영 및 사용할 수 있게 사이버 웰니스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 중이다.

개인 학습 기기의 활용은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중등학교 2학년이 빈센트 체(Vincent Tse)는 The Straitstimes와의 인터뷰에서 크롬북을 학급 내에서 필기를 할 때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필기를 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쓸 수 있어서 좋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크롬북을 쓰는 것에 대해 더 즐거워하고, 수업에 집중하기가 쉽다고 하였다.³³⁾ 개인 학습 기기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교사들은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과 싱가포르 교사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동료 교사 주도의 다양한 연수를 활용하여 개인 학습기기 활용 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특히 모든 중등학교 학생이 개인 학습 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부에서 언급한 세 가지 교수 역량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AI 및 디지털 역량 관련 교육과정

교육과정 측면에서 교사의 AI 및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부분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Code for Fun’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컴퓨팅 교육과정, 그리고 마지막은 AI Singapore에서 제공하는 교사 교육 자료이다. 먼저, 초등에서의 ‘Code for Fun’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1년에 10시간 ‘Code for Fun’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Code for Fun’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IMDA(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에서 제공하는 부가 프로그램(Enrichment Programme)으로 기존의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역할

33) Jolene Ang, “Parliament: All secondary school students to have personal digital devices by 2028, \$200 Edusave top-up to support purchase”, The Straitstimes, 2020.03.04.

을 한다. ‘Code for Fun’ 프로그램의 목적은 ① 핵심적인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해 학습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② 디버깅, 루프, 변수, 기능과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해하기, ③ 문제를 세분화하여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향상하기, ④ 인공지능이나 사이버 안보와 같은 최신 기술 알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Code for Fun’ 프로그램은 학교 담당 교사가 아닌 IMDA에서 파견하는 전문 강사가 나와 수업을 하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학생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특성상 코딩이나 컴퓨팅 사고 능력과 같은 전문성이 강한 과목은 전문 강사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중등에서는 초등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Code for Fun’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진급 시험인 O-Level을 준비하는 컴퓨팅 과목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등학교에서도 ‘Code for Fun’ 프로그램을 초등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차이점은 초등은 필수 교육으로 지정된 반면, 중등에서는 필수 교육이 아닌 학교별로 신청하여 들을 수 있는 선택 교육이라는 점이다. 강사가 출장 형식으로 배치되어 학습하는 중등의 ‘Code for Fun’ 프로그램은 세 가지 학습 내용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와 코딩에 적용되는 컴퓨팅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두 번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조립과 디자인 프로토타입 요소 협력하기, 세 번째는 프로젝트를 활용한 학생의 이해 강화하기이다. 중등에서 이루어지는 ‘Code for Fun’ 프로그램 또한 정부로부터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등 과정에서는 ‘Code for Fun’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고등학교 진급 시험인 O-Level에 컴퓨팅 과목을 개설하여 컴퓨팅 과목 시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컴퓨팅 수업을 참가할 수 있다. 현재 약 30개의 중등학교와 10개의 예비대학교에 컴퓨팅 과목이 개설되었고, 점차 그 수를 늘

34) Code@SG, “Code For Fun”, 2022.

릴 예정이다. 2019년에는 전체 O-level 수험생의 2%에 달하는 500명의 학생이 컴퓨팅 시험을 치렀고, 200명의 A-level(대학교 입학시험) 수험생들이 컴퓨팅 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컴퓨팅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컴퓨팅 수업을 개설하였다. 이 수업에 활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Productivity Suite를 사용하고, 하드웨어의 경우 학교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적용하거나 컴퓨터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는 라즈베리 파이,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래밍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컴퓨터 아키텍처, 간단한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과 같은 컴퓨터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장치들로 프로그래밍을 학습하여 실제 응용프로그램과 함께 유용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 이때, 이를 지도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은 컴퓨팅 기술 관련 지식뿐만이 아니라 교수 역량도 요구된다. 컴퓨팅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 및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이 컴퓨팅 과목 교육과정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6).³⁵⁾

[표 1] 컴퓨팅 교수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출처: 싱가포르 교육부)

교수 분야	교사 행동	교수 예시
흥미 유발	<p>불일치한 동기유발 자료 제공</p> <p>학생들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동기유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결과를 예상해보게 하고 실제 결과와 비교해보게 한다. 학생은 이후에 왜 결과가 다른지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오류를 찾고 정정해보게 한다.

35) Ministry of Education, O-level Computing Syllabus-upper secondary, 2016.

명확한 예시 제공	시연 학생들이 관찰 학습을 하는 동안 교사를 새로운 기술을 시연한다.	- 교사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관련된 사고 과정과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프로그래밍 과제를 처음부터 해결하는 것을 시연한다.
깊은 이해를 위한 질문 활용	시작 - 반응 - 피드백의 단계 학생들의 사고를 비계 설정하고, 조사, 선별할 수 있도록 질문을 사용한다.	-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답변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신 생각의 근거를 파악하게 한 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나요?" 등의 질문을 던진다.
학습자 연관 시기기	탐험, 연관, 적용 학생들과 연관되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디자인한다.	- 교사들은 10진법에서 이진법으로의 변환을 보여주기 위해 (2의 거듭제곱으로) 카드를 준비한다. - 교사들은 춤 동작의 사용을 통해 루프의 프로그래밍 개념을 도입한다(예: 마카레나).
	협동과 협력을 통한 연계 짜므로 이루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배치한다. 한 학생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정하고 다른 학생은 큰 그림을 보고 코멘트를 제고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역할을 계속 번동시킨다.	- 교사들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짝지어 한 명은 '운전자'로, 다른 한 명은 '내비게이터'로 배정함으로써 페어 프로그래밍을 수행한다. 네비게이터가 요구 사항을 고려하고 오류를 확인하는 동안 운전자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협력 학습 촉진	생각 - 짝짓기 - 나누기 학생들은 먼저 혼자 생각 해본 뒤 짝으로 생각을 나눈다. 이후 교사가 전체 학습을 대상으로 마무리를 한다.	- 교사들은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한 테스트 사례를 식별하고 생성하기 위해 생각-짝짓기-나누기의 방식을 활용하여 협력학습을 촉진한다.

위의 교수-학습 교사 행동을 미루어 볼 때, 과목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등학교의 특성 상 초등교사보다 더 전문적인 AI 및 디지털 역량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질문을 던지는 등 일반적인 교사 역량 외에도 컴퓨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파이썬과 다양한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량도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정부에서는 'AI Singapore'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시하여 학생, 교사, 일반인 그리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I 프로그램을 무료와 유

료로 진행하고 있다. AI Singapore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학습으로 본인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서 학습할 수 있고, 교육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이 분야의 최신 기술로 학습자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AI Singapore를 통해 교사가 수강할 수 있는 코스는 다음과 같다. 교사 용의 경우 마이크로 코스(Micro-Courses)와 학생들을 위한 AI 프로그램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의 종합적인 기술 개발 프로그램(AI for Students - Educators)이 있다. ‘AI for Students’가 교육자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사들은 AI Singapore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AI Singapore에서는 300개가 넘는 과정을 제공하는데,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단계에 맞추어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교육자 과정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전개 상황과 평가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과목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³⁶⁾

[표 2] AI Singapore 교사 대상 프로그램 (출처: AI Singapore)

교수 분야	과정명	시간	내용
마이크로 코스 (Micro-Courses)	펜듈럼 경험(The Pendulum Experiment)	3시간	물리학 실습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는 교육과정 안내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제공)
	변수 구별하기	4시간	데이터 과학 개념과 수학적 능력이 통합된 AI 활동 수업
	실습하기 : 화성 로버	1시간	‘Orange data mining’을 활용한 실습

36) AI Singapore, “Educators”, 2022.

37)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300개에 달하지만 [표 2]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명 7가지는 AI Singapore가 교사에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AI for Students (AI4S) (Educators) ³⁷⁾	파이썬 소개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툴 박스 (파트 1)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Git 소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Shell 소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SQL 소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파이썬 중급 활용 Scikit-Learn 학습 감독	6개월 내에 무한 접근 가능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급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교사가 선택할 수 있음.
---	---	-----------------	--

(3) AI를 활용한 평가

2021년 예산 중 공공 부문에서 AI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 5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천 2백억)가 배정되었는데, 이 중에는 교육부의 AI 자동 채점 시스템 개발 도입이 포함되었다. 2019년에 처음 도입 계획을 밝힌 채점 시스템은 주관식 문제나 논술 같은 개방형 문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 교사는 학생 학습 공간에 구축된 AI 채점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구조, 내용 등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AI 시스템은 문법, 철자, 구문 등 언어적 오류 판별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이 된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언어 교정에 할애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더 고차원적인 영역(글의 전체적인 어조 등)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해당 시스템의 분석 결과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관찰이 가능하며,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정에 언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 제공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I 채점 시스템의 목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중학생들에게 먼저 시범 운영되며, 영어 과제에서 개별 맞춤 피드백을 빠르게 제공하는 데에 있다. 현재는 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2030년에는 다른 과목들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AI 기술을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활용한 사례로 교사들에게 AI 채점 시스템 자율성을 맡기고 더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에 초점을 맞추

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교사는 AI 채점 시스템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 적절하게 배분하여 AI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³⁸⁾

2) AI·디지털 역량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 사례

싱가포르가 성공적으로 운영한 교원의 AI 및 디지털 역량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평생교육 학습 시스템인 스킬스 퓨처 싱가포르(Skills Future Singapore)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정책인 ‘Skills Future for Educators’와 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학생 학습 공간(Student Learning Space)의 활용을 위한 교사 교육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kills future for educators

2020년 3월에 시작한 Skills Future for Educators(SFED)는 정부에서 싱가포르 국민의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 Skills Future³⁹⁾의 교육자 버전으로,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필요한 6가지 업무 영역(Area of Practice)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들을 교육하는 교사용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2019년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사들은 업무에 필요한 6가지 영역을 투표하였고, 그 결과 총 6가지의 영역이 선정되었다. SFED에서 제시한 6가지 업무 영역은 A. 평가 리터러시(Assessment Literacy), B. 탐구 중심 학습(Inquiry-Based Learning), C. 개별화 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 D. 특수교육 지원

38) Ng Wei Kai, “Upper primary, secondary students to get instant feedback on English assignments with new AI system”, The Straitstimes, 2021.08.18.

39) 스킬스 퓨처(SkillsFuture): 싱가포르가 2015년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습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내건 국가 아젠다(Agenda)로 모든 국민을 핵심 인재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오랜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까지 정부가 평생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2023.

(Support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E. E-교수학습법(e-Pedagogy), F. 인성과 시민성 교육과정(CCE)으로 E-교수법이 6가지 업무 영역 중 하나로 포함되어 교원들의 E-교수법 역량이 교사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6가지 역량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E-교수법 (출처: 싱가포르 교육부)

업무 영역	근거	교수-학습에서의 시사점
E-교수법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새로운 학습 가능성을 창조한다.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을 보다 능동적이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심화 및 가속화 시켜야 한다.

위 표에서 나타나듯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개인화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AI 및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Skills Future for Educators 정책은 안정적으로 현장에 착근되었는데 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요인으로, 첫 번째, Skills Future for educator 정책을 기존에 익숙한 정책인 스킬스 퓨처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여 교육자 버전으로 변형해 제시함으로써 교원들은 이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었다. 두 번째, 6가지 업무 영역을 교사가 직접 투표로 선택했다는 것에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투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업무 영역이 선발되어 정책 시행에 있어 교사들이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6가지 업무 영역의 교육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국립교육원과 싱가포르 교사 아카데미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문성 있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도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더불어 위 6가지 업무 영역을 바탕으로 학교 교장단과 교원 교육 담당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의 로드맵을 기획하고, 교원들의 활용 능력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처럼 일회성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의 결과를 추적하는 것 또한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학생 학습 공간 개발 및 관련 교사 역량 지도

2018년 싱가포르 교육부는 스마트 네이션 정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에서의 학생 학습 공간(Student Learning Space)을 개발하여 전체 학교에 보급하였다. 학생 학습 공간이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이전 수준의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학습 자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동시에 사용하거나 비동시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학생 학습 공간은 21세기 역량(21CC)⁴⁰⁾ 개발에 대비하여 학습자가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필요와 관심사에 따라 학습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들은 학생 학습공간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수업 준비, 수업 점검 및 평가를 위해 그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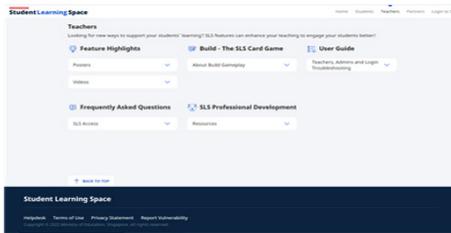
학생 학습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는 교사가 학생들의 이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목표에 맞는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 내장되어 있으며 학생 이해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개인 학습 공간은 또한 학교 전반에 걸쳐 교사 간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며 학습 자료들 또한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보충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 라이브러리 외에도 YouTube나 TED 강연 등 외부 비디오와 학생 학습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40) 21세기 역량: 싱가포르 교육부가 선정한 21세기 역량은 핵심 역량 6가지(존중, 책임감, 탄력성, 통합성, 돌봄, 조화)를 중심으로 사회 정서적 역량 5가지(자기 인식, 자기관리, 사회 인식, 관계,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가져야 할 역량(문식성, 세계화 이해, 다문화능력, 비판적 사고력, 사고 및 협동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41)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Student Learning Space", 2022.

수업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며 플랫폼에 쉽게 통합되는 다른 도구와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다. 학생 학습 공간 내의 모든 수업 자료는 싱가포르의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평한 학습 및 경쟁의 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학생 학습 공간은 2018년에 도입되어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 수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며, 그 정착이 가속화 될 수 있었다. 학생 학습 공간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시기상의 적합성도 있었지만, 학생 학습 공간을 구축하여 전 학교급에 의무화하고 실용적인 기능을 포함한 것 또한 크다. 학생 학습 공간이 정착하려면 일단 수업을 주도하는 교사들이 사용법을 알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교육부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사의 학생 학습 공간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에게 활용법을 안내하였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습 공간(Student Learning Space) 홈페이지(<https://www.learning.moe.edu.sg>)에 교사를 위한 탭을 만들어 놓고, 교사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 비디오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시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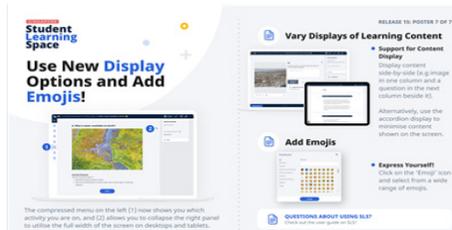


[그림 1] 학생 학습 공간에 교사 지원 항목

[그림 1]에서처럼 학생 학습 공간에서 제공하는 교사 항목에는 특징 (Feature Highlights), 학생 학습 공간 카드 게임 제작(Build- The SLS Card Game), 사용자 가이드(User Guide),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학생 학습 공간 전문성 개발(SLS Professional Developmen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특징(Feature Highlights) 부분을 살펴보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설명글, 비디오 그리고 포스터를 활용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설명글에서는 새로운 기능의 첫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생 학습 공간에 활동을 제시하며 동영상, 그림과 같은 다양한 멀티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이모티콘을 추가하는 법까지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제시가 되어 학생 학습 공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도 쉽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더불어 교사들이 한 눈에 이해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포스터 형식의 안내문도 함께 제시하여 교사들이 학생 학습 공간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시해 두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새로운 화면 옵션과 이모티콘 추가하기’(Use New Display Options and Add Emojis) 포스터 형식의 안내문처럼 새로운 기능이 발표될 때마다 이미지와 안내문을 한 페이지에 들어가게 작성하여 교사들이 새로운 기능을 익히기 쉽게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교사들은 AI 및 디지털을 활용한 교수 역량을 용이하게 익힐 수 있게 된다.



[그림 2] 학생 학습 공간에서 교사에게 배부하는 포스터
(출처: Singapore Student Learning Space)

4. 결론 및 제언

싱가포르의 AI·디지털 역량 지원 정책은 1997년부터 싱가포르 학교의 디지털 관련 교수학습을 위해 정부 주도로 계획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여, EdTech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학교 현장에 기술 생태계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Skills Future for Educators 정책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개인화된 수업을 제공하고 자 AI 및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했으며, 학생 학습 공간(Student Learning Space)을 토대로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학습 자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싱가포르의 AI·디지털 역량 지원 정책은 교원역량 강화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우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의 AI·디지털 역량 지원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주도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개발은 교원의 AI 및 디지털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교육부 주도로 학교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일원화한다면 교사들은 재택 수업이나 학급 내에서 개인 학습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할 때에도 학습을 연계할 수 있다. 아울러 수업에서 온라인 기기 또는 프로그램 활용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일원화된 하나의 학습공간을 활용하여 수업의 일체화 및 편리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AI 및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E-교수법이 필요한 6가지 업무 영역 중의 하나로 교사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정책의 실행에 대해 수긍하고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교사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을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가 교육부, 국립교육원, 그리고 현직 교원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 교사 아카데미와 긴밀하게 교류하여 업무 영역을 체계화하고 교사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교육부-교육청-국책연구기관-교원양성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교원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국립교육원은 예비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⁴²⁾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싱가포르 국립교육원에 학부생, 대학원생, 현직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AI 및 디지털 역량을 체계화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해당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비 교사들에게 하나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나 기기의 활용법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기본 역량과 역량의 필요성을 지도하여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도 변화하는 AI 및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중앙 집중식 성격의 계획 실행과 더불어 계획의 실행은 하향식 성격으로 교사와 학교 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ICT 지원 및 교육의 모범 사례를 모델링하였

42)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The NIE NTU, Singapore Launches AI@NIE To Transform Teaching And Learning For 21st Century Education, 2022.05.25.

다.⁴³⁾ 학급 내에서 AI 및 디지털을 활용한 학생 중심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사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 이에 AI 및 디지털을 다루는 교사들의 기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실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역량 또한 필수적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교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교사 동아리와 같이 교사 네트워크의 운영이 필요하다.⁴⁴⁾ 교사 네트워크 구성 시 의무 참여가 아닌 교사들의 희망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구성해야 한다.⁴⁵⁾

먼저, 국어, 미술 등 특정 과목에서의 AI 및 디지털 활용에 관심 있는 교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각 과목에서 AI 및 디지털 활용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교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교육청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금이나 모임 장소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 체계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통된 관심사로 모인 교사들이 다른 관심사를 가진 동아리와 모여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포럼을 개최해 교사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모임 외에도 상시적으로 교사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소셜 커뮤니티나 소셜 러닝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편리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43) Kong, S.C.:Chan, TW·Huang, R. et al, "A review of e-Learning policy in school education in Singapore, Hong Kong, Taiwan, and Beijing: implications to future policy planning", J. Comput. Educ. vol. 1(2014), pp.187-212.

44) Kong, S.C.:Chan, TW·Huang, R. et al, "A review of e-Learning policy in school education in Singapore, Hong Kong, Taiwan, and Beijing: implications to future policy planning", J. Comput. Educ. vol. 1(2014), pp.187-212.

45) Koh, T. S.:Lee, S. C, "Digital skills and education: Singapore's ICT master planning for the school sector." IN S.K. Lee, C.B. Goh, B. Fredriksen ·J.P. Tan (Eds.), Toward a Better Future: Education and Training for Economic Development in Singapore since 1965.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8, pp.167-190.

록 하는 채널이 제공 및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환경에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 환경에서 AI 및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질 높은 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교원들은 역량을 수업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ICT 마스터플랜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예비대학교까지 인프라를 구축한 것처럼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도 모든 학교급에 단계적으로 ICT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사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을 수업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책을 단계적, 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 교육 부분에서 교육 환경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교사의 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마스터플랜이 시행되었다. 마스터플랜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EdTech Masterplan 2030' 계획으로 명명되어 시행 중에 있다.⁴⁶⁾ 이렇게 10년 이상 걸친 계획적인 정책의 실현으로 학생 학습 공간 활용 등 싱가포르 교사의 AI 및 디지털 역량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싱가포르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 교육 현장에도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의 실현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역 교육청으로 배포한다면, 효율적이고 평등한 방식으로 교원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학교에 적용 중인 다양한 AI 활용 교육 관련 정책들(저작권, 사이

46) Ministry of Education, "Transforming Education through Technology" Masterplan 2030, 2023.09.23.

47) OECD, "TALIS 2018 Results (Volume I): Teachers and School Leaders as Lifelong Learners", TALIS, OECD Publishing, Paris, 2019.

버 안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육 정보화 정책 등)을 서로 연계하고 통합하여 단계적이고 구체화된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AI 및 디지털 기술의 경우 그 전문성이 고도화되고 변화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및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AI 및 디지털 활용에 전문성을 가진 주체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EdTech 계획에서 관련 사업체도 4개 주체 중 하나로 명시해 놓았고 관련 사업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명시해 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관련 사업체를 AI 정책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로 인식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사 연수나 기기 지원을 통해 교사는 AI와 디지털 활용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국립교육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과 교원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사례를 주목해 볼 수 있다.⁴⁸⁾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AI 및 디지털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에 대한 효과성과 교사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원 수준의 고등교육 뿐만 아니라, AI 및 디지털 활용 교육과 같은 실습 중심의 연수를 활용하여 이수증이나 증명서 발급 등의 방법을 통해 교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도록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 신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의 재택 학습이 의

48) Singteach, From Inception to Reception: NIE's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Chapter", 2022.06.07.

무화 및 가속화되었고, 국내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줌(Zoom)을 활용하거나 학습 자료와 관련하여 EBS, 위두랑 등의 학습 채널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고, 자연스레 AI 및 디지털 역량이 높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들 간의 학습 제공의 질에서 그 차이는 두드러졌다.⁴⁹⁾ 앞서 살펴보았듯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교육부 주도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학생 학습공간을 제작하여 중앙화된 정부 주도의 형식으로 배포하였고,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원활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대상으로 학생 학습 공간 관련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비디오, 설명서, 그리고 포스터 등을 아주 자세하게 배포하여 교사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의 신장에 초점을 두었다. 결국, 교육부 주도의 AI 및 디지털 역량 제고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부 중심의 싱가포르 교원의 AI 및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개념, 요소, 그리고 다양한 사례 및 정책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 각국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 신장 관련 정책의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비교 분석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후속 연구로 한국과 싱가포르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 제고 정책의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49) 장은주, 「교육의 변화와 디지털 역량」, 『서울교육 정책연구 2020 가을호』 240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0.

■ 참고문헌

- <교육부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moeblog/222316454381>, 2021.04.20.
- 박정우, 코딩 의무화·컴퓨팅 과목 확대...싱가포르 '디지털 문해력' 강화, <EBS NEWS>, 2021.04.07.
- 이은수, 한유정, 주윤경, 「디지털 포용 정책 동향과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 정한영, “싱가포르 정부,스마트 국가 ‘AI혁신’위해...구글클라우드와 AI 분야 최초의 민관 파트너십”, <인공지능신문>, 2022.08.29.
- 정호진,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체육교육: 지원과 전략」,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10권 6호, 차세대컨버전스 정보서비스학회, 2021, 645-654쪽.
- 정호진,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체육교육: 지원과 전략」. 『차세대 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10권 6호, 2021, 645-654쪽.
- 최지연, 「싱가포르의 학교 교육활동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 9월 통신원 리포트』, 한국교육개발원, 2022, 60-67쪽.
- 홍선주·조보경·최인선·박경진·김현진·박연정·박정호, 『학교 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 AI Singapore, “Educators”, 2022. <https://learn.aisingapore.org/ai-for-students-ai4s-educator/>
- Amelia Teng, “MOE flexible on students' use of learning devices after school: Lawrence Wong”, The Straitstimes, 2021.02.25.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parenting-education/moe-flexible-on-students-use-of-learning-devices-after-school-lawrence>
- Code@SG, “Code For Fun”, 2022. <https://codesg.imda.gov.sg/>

code-for-fun/

Jolene Ang, "Parliament: All secondary school students to have personal digital devices by 2028, \$200 Edusave top-up to support purchase", The Straitstimes, 2020.03.04. <https://www.straitstimes.com/politics/parliament-all-secondary-school-students-to-have-personal-digital-devices-by-2028-200>.

Koh, T. S.·Lee, S. C, "Digital skills and education: Singapore's ICT master planning for the school sector." IN S.K. Lee·C.B. Goh·B. Fredriksen·J.P. Tan (Eds.), *Toward a Better Future: Education and Training for Economic Development in Singapore since 1965*.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8, pp.167-190.

Kong, S.C., Chan, TW., Huang, R. et al, "A review of e-Learning policy in school education in Singapore, Hong Kong, Taiwan, and Beijing: implications to future policy planning", *J. Comput. Educ.* vol. 1, 2014, pp.187-212. <https://doi-org.libproxy.nie.edu.sg/10.1007/s40692-014-0011-0>.

May Chua, "싱가포르 생성형 인공지능(GenAI) 시장 동향", <해외시장 뉴스>, 2023.12.06.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al Technology Plan", <https://www.moe.gov.sg/education-in-sg/educational-technology-journey/edtech-plan>, 2021.06.08.

Ministry of Education, "Full Subject-Based Banding", <https://www.moe.gov.sg/microsites/psle-fsbb/full-s,ubject-based-banding/main.html>, 2021.11.08.

Ministry of Education, "New PSLE Scoring System", <https://www.moe.gov.sg/microsites/psle-fsbb/psle/main.html>, 2021.11.08.

- Ministry of Education, “O-level Computing Syllabus-upper secondary”, 2016. <https://www.moe.gov.sg/-/media/files/secondary/syllabuses/science/2021-o-level-computing-teaching-and-learning-syllabus.ashx?la=en&hash=EB490AC8D9C922905077B9A8E2BC0983A89A76AA>.
- Ministry of Education, “Personal Learning Devise”, 2020.11.02. <https://www.moe.gov.sg/news/parliamentary-replies/20201102-personal-learning-device>.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Student Learning Space”, <https://www.moe.gov.sg/education-in-sg/student-learning-space>, 2022.09.03.
- Ministry of Education, “SkillsFuture for Educators”, 2020. <https://academyofsingaporeteachers.moe.edu.sg/professional-excellence/skillsfuture-for-educators/overview/> & Infosheet on SkillsFuture for Educators (SFEd). <https://www.moe.gov.sg/news/press-releases/-/media/files/news/press/2020/infosheet-on-SFEd.pdf>.
- Ministry of Education, “Transforming Education through Technology” Masterplan 2030, <https://www.moe.gov.sg/education-in-sg/educational-technology-journey/edtech-masterplan>, 2023.09.23.
- Natarajan·Lim, K. Y. ·Laxman, K, “A national vision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education: reflections on Singapore’s ICT technologies Masterplan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vol. 35, no. 5, 2021, pp.943-954.
-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The NIE NTU, Singapore Launches AI@NIE To Transform Teaching And Learning For 21st Century Education”, <https://www.nie.edu.sg/about-us/news-events/news/news-detail/the-nie-ntu->

singapore-launches-ai@nie-to-transform-teaching-and-learning-for-21st-century-education, 2022.05.25.

Ng Wei Kai, “Upper primary, secondary students to get instant feedback on English assignments with new AI system”, *The Straitstimes*,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parenting-education/moe-to-roll-out-ai-enabled-marking-system-for-english-language-writing>, 2021.08.18.

Ng, D. T. K.·Leung, J. K. L.·Chu, S. K. W.·Qiao, M. S, “Conceptualizing AI literacy: An exploratory review”, *Computers and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2, 2021.

OECD, “TALIS 2018 Results (Volume I): Teachers and School Leaders as Lifelong Learners”, TALIS, OECD Publishing, Paris, 2019. <https://doi.org/10.1787/1d0bc92a-en>.

Oxford Insights, “Gover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ess index”, 2023.

School Bag, “Moving Forward with SkillsFuture for Educators. School Bag”, 2020.04.03. <https://www.schoolbag.edu.sg/story/moving-forward-with-skillsfuture-for-educators>.

Singapore Student Learning Space, “Teachers”, <https://www.learning.moe.edu.sg/teachers/>, 2022.

Singteach, From Inception to Reception: NIE’s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Chapter”, <https://singteach.nie.edu.sg/2022/06/07/from-inception-to-reception-nies-artificial-intelligence-in-education-chapter/>, 2022.06.07.

Smart Nation Singapor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dvancing out smart nation journey”, 2019. <https://www.smartnation.gov.sg/files/publications/national-ai-strategy.pdf>.

- Smart Nation Singapore, “Our Achievement”, 2021. <https://www.smartnation.gov.sg/about-smart-nation/our-journey/achievements>. & Transforming Singapore Through Technology. <https://www.smartnation.gov.sg/about-smart-nation/transforming-singapore>.
- Superstar Teacher, “Superstar Teacher Uses the Latest in AI to Bring Online Learning to the Next Level in the Age of EdTech”, <https://sg.finance.yahoo.com/news/superstar-teacher-uses-latest-ai-013000910.html>, 2021.11.29.
- Tan, S. C.·Chai, C. S.·Lee, C. B.·Teo, K. G. T.·Chen, W.·Koh, J., ... ·Cheah, H. M,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IT Masterplan 3 and its impact on Singapore schools.”, Instrumentation and baseline study, Research Brief, (11-001), 2010.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AI·디지털 역량 지원 정책과 AI·디지털 역량 제고와 관련한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AI·디지털 역량 제고에 제공 가능한 시사점과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싱가포르는 2023년 Oxford Insights에서 발표한 '정부 AI 준비 지수'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국가적 AI 플랫폼을 구축한 AI 및 디지털 정책 선진국이므로, 한국의 정책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싱가포르의 AI·디지털 역량 교육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선행연구는 다양하지 않으며, 이은수 외(2020), 정호진(2021)에서 분석하지 못한 싱가포르 AI·디지털 정책 사례 분석에 집중하였다. 싱가포르의 교육부 발표 자료, 싱가포르 학술지, 싱가포르 웹사이트, 싱가포르 언론 등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의 AI·디지털 역량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주도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개발은 교원의 AI 및 디지털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둘째,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AI 및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환경에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책을 단계적, 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의 예비 교사 양성, 현직 교사 연수 등과 관련된 정책 개발, 실행 및 현장 착근과 효과성 제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AI·디지털 역량, AI·디지털 역량 지원 정책, 싱가포르의 AI·디지털 역량 교육, 싱가포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지원 정책

■ Abstract

Exploring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to support Singapore teachers' AI and digital competencies

Choi, Ji Yeun·Kim, Sang Cheol·Joo, Young Hyeo·Kim, Hee Kyu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Sill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value of Koryo Theart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by examining the value of Koryo Theart in Kazakhstan as a heritage and analyzing the suitability of listing it as a cultural heritage according to the World Heritage Evaluation Standards. To this end, the concept, type and the standards of world cultural heritage were confirmed. In addition, the cultural heritage of Kazakhstan, which has already been registered, and the criteria for its registration were confirmed. Next, in order to reveal the cultural value of Koryo Theart, the history of Koryo Thear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yo Theart and Koryoin, and the role of Koryo Theart that continues to this day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World Heritage value of Koryo Theart was analyzed based on the criteria for listing cultural heritages similar to Koryo Theart. Considering the historical value of the suppression of minorities and the history of fairy tale policies, starting with the role of the Koryo Theart and the active migration policy, the Koryo Theart has cultural heritage value. The criterion for judgment is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and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Keyword • AI·digital competency, AI·digital competency policy, AI·digital competency education in Singapore, AI·digital competency policy for Singapore teachers

■ 논문투고일:2024.02.19. ■ 심사완료일:2024.03.13. ■ 게재확정일:2024.03.19. ■

공감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극교육의 가치 연구

: ‘즉흥극 만들기’의 경험 구조를 중심으로

함현경*

목 차

1. 들어가며
2. 공감의 이해
3. ‘즉흥극 만들기’의 경험 구조 분석
4. 맺음말

1.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함께 해결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¹⁾ 진화생물학자인 파울 에얼릭(Paul Ehrlich, 1854-1915)과 심리학자인 로버트 온스타인(Robert Ornstein, 1942-2018)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감 능력의 절대적 회복을 주장하였다.²⁾ 이처럼 인간은 관계 속 공동의 문제

*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강사

1)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22, 4-5쪽.

2) 폴 에얼릭·로버트 온스타인 저, 고기탁 역, 『공감의 진화』, 에이도스, 2012, 8-12쪽.

를 함께 해결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은 공동체 역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공동체 역량의 향상은 결핍된 공감 능력의 회복을 통해 가능하다.

공감 결핍의 주요 배경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화와 뉴 미디어(new media)를 중심으로 개인 중심의 생활방식 변화와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 중심의 단편적인 정보를 해석하는 의사소통의 변화는 면 대 면의 경험 축적으로 발현되는 공감 능력의 결핍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공감 교육은 지금까지 주를 이루었던 특정한 교육 주제와 교육대상을 위한 것이 아닌 교육과정에서 누구나를 위한 교육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연극교육은 상상을 바탕으로 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면 대 면의 직접 경험이기에 공감 능력 회복을 위한 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공감 교육만을 실행하기 어려운 교육적 현실에서 이를 위한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연극교육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수업의 경험 구조를 분석하여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감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와 인지과학으로 증명된 몸의 작동원리를 통해 공감이 사회의 변화를 실현할 수 역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연극교육의 ‘즉흥극 만들기’를 공감의 관점에서 경험 구조를 분석하여 연극교육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2. 공감의 이해

1) 공감의 개념

공감은 철학, 심리학, 과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정의되는 복잡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본 항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공감 개념 형성 과정을 통해 공감의 개념과 본질적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공감은 19세기 후반 독일 철학자 로베르트 피셔(Robert Vischer, 1847-1933)가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예술가의 감정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³⁾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Einfühlung’에서 비롯되었다. 풀어 설명하면, ‘eia(안에) + fühlen(느낀다)’로 예술 작품 안으로 들어가 느낀다는 뜻으로 예술 작품에 대한 인간의 ‘감정이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독일의 심리학자인 테오도어 립스(Theodor Lipps, 1851-1914)가 인간관계로 확장하여 새롭게 사용하였다. 그는 공감을 “자신을 타자에게 투사함으로써 타자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⁴⁾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치너(Edward Titchener, 1867-1927)가 1909년 영어로 번역하면서 지금의 ‘Empathy’ 용어를 만들어냈다. 이는 그리스어 ‘Empatheia’를 매개로 ‘안(en)’으로 들어가 ‘고통 혹은 열정(pathos)’을 느낀다는 의미를 살려 만든 것으로 기존의 뜻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⁵⁾ 이상에서 보듯 공감 개념의 핵심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마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처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지점은 공감은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감정을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⁶⁾이라는 것이다. 공감은 타인 관점에서의 정확한 이해가 본질적 핵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9년 정신분

3)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저, 김은지 역, 『공감능력』, Korea.com, 2019, 30쪽.

4) 정연옥·박용익, 「‘공감’ 개념의 발달과 공감 능력의 진화」, 『의철학연구』 30권, 한국의철학회, 2020, 78쪽.

5) 김태훈, 「공감(Empathy)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47권, 2015, 7쪽.

6)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위의 책, 32쪽.

석학자 하인즈 코헷(Heinz Kohut, 1913-1981)은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타인의 감정을 마치 내 감정인 것처럼 받아들이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강조했다.”⁷⁾ 이렇듯 공감은 나와 타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나와 타인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공감학자들은 공감이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이를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 즉 타인을 보살피며 함께 생존해온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⁸⁾ 이러한 이유에서 공감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 요건이자 동시에 공동체 역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2) 공감의 구성 요소

공감은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기에 연구자가 중점을 두는 공감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중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인지과학의 발달로 공감에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본 항에서는 공감이 다양한 구성 요소의 복합적 개념임을 전제로 하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개념적 구분의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지적 요소

공감은 타인 관점에서의 정확한 이해가 핵심이기에 타인의 관점을 바탕으로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 인지적인 것이 내재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타인의 관점 수용을 통한 추론이 중요하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강조한 대표 학자인 미드(G.H.Mead, 1863-1931)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해서 수용(role taking)하고

7)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32쪽.

8)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26쪽.

대안적인 관점을 채택(perspective taking)할 수 있는 능력”⁹⁾이라 정의하였다.

공감을 위한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은 신경과학으로 증명되었다. 연구 결과 실제로 우리는 “타인의 관점을 취할 때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¹⁰⁾되어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타인 관점에서의 인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타인을 공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지적 이해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는 그녀가 시험 때문에 불안한 것을 알고 있다’이다. 즉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알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이해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에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측면에서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공감적 반응, 즉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작용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공감 능력이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의 전제임을 확인해 준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인지발달이론을 근거로 살펴볼 수 있다. 발달심리학자인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는 인간의 단계적 발달 과정에 따라 자기중심적(egocentric)인 사고에서 벗어나 탈중심적(decentering)인 사고 전환이 가능한 7세 이후에 공감 능력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¹²⁾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말 그대로 대인관계에서의 중심이 타인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지님을 뜻한다. 그러므로 타인 관점에서의 역할 수용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탈중심적인 사고는 자신과 타인에

9) 이선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실행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35쪽.

10)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45쪽.

11) 박성희, 「공감적 이해의 구성 요소」, 『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9권, 1992, 198쪽.

12) 위의 논문, 200쪽.

대한 관점 구별을 전제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 관점에서의 사고 확장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감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능력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탈중심적인 사고의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는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축적되어서 역할 취득의 능력이 생기면 다양한 요소들을 상호 관련”¹³⁾ 지을 수 있는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가능해진다.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상호작용 경험의 축적을 통해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나와 타인의 관점 구별이 가능한 인지능력을 전제로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역할 수용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2) 정서적 요소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타인의 관점에서의 정확한 이해가 핵심이기에 상황 속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전제다. 공감을 연구한 대표 학자인 호프만(Martin L. Hoffman)은 공감을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정서적 반응”¹⁴⁾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요소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는 그녀의 불안함을 느낀다’이다. 즉 관찰자인 내가 관찰 대상인 그녀의 불안함이란 감정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공감의 정서적 반응 과정을 살펴보면, 립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자세, 몸짓, 표현 등의 정서적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로 공유된 느낌(shared feeling)을 갖게 된다고 하였

13) 이윤복·허영식, 「교육과정에서 내러티브를 통한 공감과 역할 취득의 재개념화」,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9권 3호,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2021, 61쪽.

14) 박성희, 앞의 논문, 13쪽.

다.¹⁵⁾ 즉 공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의 정서적 메시지를 상상하여 해석하는 적극적인 참여의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 과정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유된 느낌은 타인의 정서적 메시지를 관찰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타인의 관점이 왜곡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종의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처럼, 타인의 관점을 객관화하는 것이 아닌 관찰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주관적 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의식중 누구에게나 공감 편향이 일어날 수 있다. 타인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관찰자는 “상대방이 나와 비슷할 때 혹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 고리가 있다고 느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¹⁶⁾ 이는 공감이 각자의 경험을 전제로 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분명히 만들지 못하면, 과도한 감정적 공감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정확한 정서적 공감과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축적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감은 타인의 관점에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공감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의식적인 자기 조절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관점 구별을 전제로 타인의 감정을 느끼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공감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기에 공통적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므로 공감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통합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두 구성 요소의 균형을 통해 올바른 공감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왜 중요한가? 여러 연구로 밝혀졌듯 정

15) 박성희, 앞의 논문, 202쪽.

16)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42쪽.

서적 공감이가 친사회적 행동과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⁷⁾ 즉 정서적 공감은 타인을 위한 이타적 행동을 유발하여 직접적인 행동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 때문에 공감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삶의 역량이자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공동체 역량의 전제라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나와 타인과의 관점 구별을 전제로 타인의 관점에서 정서적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정서적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여 공감의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3) 경험을 통한 공감의 순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 Rifkin, 1945~)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 공감적 존재인 호모 앰파티쿠스(Homo empathicus)라 주장하며, 미래 사회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역량으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⁸⁾ 그가 주장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은 1996년 자코모 리촐라티(Giacomo Rizzolatti, 1937~) 연구팀이 발견한 거울 신경(mirror neurons)으로 증명되었다. 거울 뉴런은 우리 자신이 직접 어떤 행동을 실행하거나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거울처럼 동일하게 활성화되는 신경 세포다. 이를 근거로 우리의 몸은 타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즉 사회적 연결성을 지닌 공감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 전문 기자들은 거울 신경을 ‘공감 뉴런(empathy neurons)’이라 바꾸어 명명하기도 하였다.¹⁹⁾

거울 뉴런과 공감의 관계성은 인지과학으로 밝혀진 감정과 기억에 중

17) 권남희·남상인, 「부모의 양육태도, 친사회행동 및 공감적 태도가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권 11호, 한국청소년학회, 2015, 197-198쪽.

18) 제러미 리프킨 저,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5-7쪽.

19) 제러미 리프킨, 위의 책, 102쪽.

요한 역할을 하는 변연계와의 연결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간략히 과정을 요약하면,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관찰할 때 우리의 뇌 안에서는 거울 뉴런에 의해 관찰한 얼굴 표정의 모방이 일어나고, 그 신호가 섬(insula)을 통해 변연계에 전달되어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실험을 통해 실험 대상자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타인의 얼굴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거울 뉴런, 섬, 변연계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²⁰⁾

이러한 실험결과로 도출된 중요한 것은 타인을 공감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지각 수단(유입 경로)과 반응을 유발하는 반응 수단(얼굴 표정이나 신체 언어와 같은 유출 신호, 단어 혹은 비언어적 행동)”²¹⁾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논거로 보면, 최근 들어 문자나 메시지를 통한 변화된 의사소통 방법은 표정, 어조, 몸짓이 없는 상황에서의 단편적 해석이기에 타인 관점에서의 올바른 공감을 하기 어려운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적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인터넷 시대에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보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소통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54%였으며, 10-20대 청년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도 등장하고 있다.²²⁾ 전화 통화를 기피하고 문자나 메신저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을 뜻하는 콜 포비아(call phobia)는 지금의 문제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결국 공감은 타인과의 면 대 면의 경험 축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본질적 특성이라는 점이다.

20) 마르코 야코보니 저, 김미선 역, 『미러핑 피플』, 갤리온, 2009, 127-131쪽.

21)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33쪽.

22)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170-175쪽.

이에 대한 근거는 거울 뉴런이 개인의 경험 수준에 따라 상황별 반응도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 왼손이는 세 가지 다른 실험 조건(손, 집게, 막대기)으로 잡는 행동을 수행하는 실험자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때 왼손이는 평소 익숙한 손이나 집게로 잡는 행동을 관찰할 때 보다 사용해 본 적 없는 막대기의 사용을 관찰할 때 다른 두 실험에 비해 신경 반응이 지연되는 것이 확인되었다.²³⁾ 주지하듯이 우리 몸의 작동원리는 경험의 결과를 기억으로 저장하고, 축적된 기억을 근거로 생존을 위한 선택과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축적된 기억은 공감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헬렌 리스(Helen Riess)가 의사들의 공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음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²⁴⁾ 정리하면, 공감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경험을 통해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의 향상을 위해선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직접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즉흥극 만들기’의 경험 구조 분석

본 장에서는 연극교육의 ‘즉흥극 만들기’ 경험 구조를 공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연극교육이 공감 능력 제고에 효과적임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즉흥극 만들기’는 제시한 주제(소재)를 상상하여 모둠별로 이야기를 창조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연습한 짧은 연극을 관객(전체 집단)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다. 이처럼 ‘즉흥극’의 개념은 주어진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즉흥’이 아닌 연습을 통한 준비 과정이 전제된 것이다. ‘즉흥극 만들기’의 경험 구조는 ‘이야기 창조하기 → 역할 표현하기 → 관객으로 감상하

23) 클레리아 팔레티·가브리엘 소피아·빅터 야코노 저, 박준현 역, 『연극과 인지신경과학』, 도서출판 서훈, 2018, 174-175쪽.

24)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18쪽.

기²⁵⁾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연극교육이 지닌 공감 능력을 촉진하는 경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타인의 관점으로 상상하여 이야기 창조하기

‘즉흥극 만들기’의 첫 단계는 모두 협력 구조로 주어진 주제(소재)를 상상하여 이야기를 창조하는 구조이다. 연극의 핵심 요소인 이야기는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이야기는 몸의 관점에서 삶을 예측하는 형식 중 한 가지이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삶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떤 소재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동기계적 속성”²⁶⁾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의 본질적 기능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의 다양한 갈등을 포함하기에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생존 방법을 익히는 구체적 수단이라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창조되는가? 몸의 작동원리에 따라 상상을 바탕으로 한 기억의 ‘재구성(reconstruction)’으로 가능하다. 우리 뇌의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다. 해마는 경험을 기억으로 저장할 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핵심적인 정보만을 저장한다. 이러한 저장 방식으로 인해 저장된 기억을 꺼낼 땐 불완전한 나머지 부분을 상상하여 그럴듯한 이야기로 복원하는 기억의 재구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²⁷⁾ 이러한 몸의 작동원리로 이야기를 창조하는 경험은 자신의 저장된 기억을 타인의 관점에서 상상하여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인 역할 수용이 전제인 경험 구

25) 함현경, 「연극교육에서의 몸을 통한 창의성 발현 -연극동아리의 수업모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81-82쪽.

26) 황혜진, 「뇌과학의 관점에서 본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 『고전문학과 교육』 48권, 한국청소년학회, 2021, 24쪽.

27) 이인아,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 21세기북스, 2023, 156-159쪽.

조이기에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난 탈중심적인 사고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야기는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타인에게 적절한 반응과 행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교육 수단이다. 나아가 창조한 이야기는 허구이나 실제 삶의 경험을 기초로 창조되기에 학생들이 살아갈 삶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창조하는 경험은 공감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야기를 상상하는 과정에서의 몸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거울 뉴런으로 공감을 연구하는 과학자 크리스티안 케이스스(Christian Keysers)는 상상 과정에서의 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여름날 아침 해변을 달릴 때의 느낌을 상상해보자.(…)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상의 힘을 통해서 생생한 이미지와 감각을 연결하는 데 뛰어나다. 흥미롭게도 행동을 상상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정말로 해변에서 뛰는 것처럼, 유사한 행동의 실행과 관련된 전문 영역의 뇌 활성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관찰과 상상 두 과정 모두에서 우리의 두뇌는 전문동피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그 행동을 머릿속에서 재연 한다.²⁸⁾

이처럼 우리의 몸은 이야기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마치 실제처럼 행동을 재연하고 있다. 이는 신경과학 박사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 1976-)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하다. 즉 “경험적 기억을 학습하는 해마가 가상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작업인 상상이나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마치 사건을 똑같이 활동”²⁹⁾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이야기를 창조하는 경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타인 관점에서의 공감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28) 크리스티안 케이스스 저, 고은미·김잔디 역, 『인간은 서로를 어떻게 공유하는가』, 바다출판사, 2018, 88쪽.

29) 이인아, 앞의 책, 50쪽.

다음으로 모둠 협력 구조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창조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모듬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경험은 사고의 확장을 통한 공감 능력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창조하는 단계는 모듬별로 다양하게 나온 의견을 하나의 이야기로 결정하여 완성하는 구조이다. 이를 상상의 측면으로 풀어내면, 상상 경향성에서 벗어난 사고의 확장이다. 몸의 작동원리에 따라 상상은 개인의 저장된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이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재료로 상상한다.³⁰⁾ 인지심리학자인 워드(Ward)의 실험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는 대학생에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여 그려보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학생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비슷하거나 약간 변형한 듯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³¹⁾ 같은 맥락에서 국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상 연구에서 “약 85%의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억 속에서 환기하여 상상”³²⁾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모듬 활동에서 개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풍부한 사고 생성은 습관화된 자신의 사고에서 벗어난 사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공감의 측면에서 상상 경향성의 확장은 앞서 언급한 공감 편향에서 벗어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기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선호하는 ‘내집단 편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내집단에게는 무의식중에 타인 관점에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반대로 자신과 공통점이 없는 ‘외집단’이란 인식은

30) 이시은·정영주·박병기, 「상상의 재개념화 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심리 연구』 28권 1호, 한국교육심리학회, 2014, 91-92쪽.

31) 장재운·박지영, 『창의성의 심리학』, 가산출판사, 2007, 146쪽.

32) 이시은·박병기, 『상상의 이해와 교육』,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4쪽.

공감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한다. 이와 관련한 실험에서 백인 실험 참가자들이 흑인의 얼굴을 보여줄 때 이에 대한 뇌의 반응 속도가 지연되거나 흑인의 얼굴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 내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등이 밝혀졌다.³³⁾ 결국 공감은 자신의 축적된 경험에 비례하여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둠 활동을 통한 사고 확장의 반복적 경험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성장시켜 공감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둠 협력을 통한 이야기 완성은 결코 손쉬운 과정이 아니다. 즉 모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예기치 않은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타인 관점에서의 생각과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반응과 행동을 찾는 연속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야말로 작은 사회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의 실천 과정이라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종교 철학자 마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가 강조한 ‘나-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너’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상대방을 고유한 존재이자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대하며,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생각과 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시도”³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즉흥극 만들기’의 이야기 창조 경험은 허구(이야기)와 현실(모둠) 간의 이중적 구조에서 타인으로서의 관점 전환을 통한 연속적이며, 즉각적인 공감의 훈련 과정이라 재정의할 수 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문화사상가인 로먼 크르즈나릭(Roman Krznaric)은 공감이 동시대의 “자기몰입적 개인주의를 바로잡아줄 치료약”³⁵⁾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지점에서 타인 관점에서의 상상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창조와 모둠 협력 구조를 통한 공동체 활

33)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57-58쪽.

34) 로먼 크르즈나릭 저, 김병화 역, 『공감하는 능력』, 더퀘스트, 2018, 114쪽.

35) 로먼 크르즈나릭, 위의 책, 32쪽.

동은 공감을 전제로 한 경험 구조이기에 공감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라 분석할 수 있다.

2) 역할 수용을 통한 역할 표현하기

‘즉흥극 만들기’의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 속 인물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여 표현하는 직접 경험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인물에 대한 상상은 상상과 행동의 통합적 작용으로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생각과 행동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점화 효과(priming effect)’를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점화 효과는 스스로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무의식 중에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 행동과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심리학자 존 바그(John Bargh)의 실험을 간략히 소개하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섞어 제시한 후 제시한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중 노인과 관련된 단어로 문장을 완성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다른 실험실로 이동할 때 걸음의 속도가 느려진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³⁶⁾ 이처럼 생각과 행동은 양방향으로 영향을 받기에 인물에 대한 상상은 무의식 중에 그에 따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할에 대한 단편적 표현이 역할 경험을 충분히 가능하게 함을 심리학자 폴 에크만(Paul Ekman, 1934~)의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특정한 감정 표현을 위해 안면근육을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략적으로 완성된 불안정한 표정임에도 불구하고 실험 대상자들은 의도했던 특정 감정을 경험하였다. 이를 근거로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 1944-)는 신체의 단편적 표현이 나머지의 신체 부분을 자극하여 그에 적절한 경

36) 다니엘 카너먼 저, 이창신 역, 『생각에 관한 생각』, 김영사, 2023, 87쪽.

험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하였다.³⁷⁾ 이를 달리 해석하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타인에 대한 이해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신경심리학자 콜(J.Cole)은 “신체적으로 타인의 표정을 따라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혔다.”³⁸⁾ 이러한 의미에서 역할을 통한 다양한 표현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우고, 이를 공감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역할 표현 경험은 직접 경험을 통해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의 성장으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에 표현된 표정, 어조, 몸짓 등에 직접 반응하며 타인과 면 대 면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공감의 전제인 반응을 유발하는 수단인 신체 언어, 단어 혹은 비언어적 행동 등으로 타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경험 구조다. 이러한 이유로 헬렌 리스는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비언어적 신호가 차단된 의사소통이 공감 결핍의 원인으로 진단하였다.³⁹⁾

헬렌 리스는 공감 능력의 핵심이 바로 타인의 얼굴 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얼굴 표정에 대해 훈련한 의사 집단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공감 능력 점수를 받음으로 그 관계성을 입증하였다.⁴⁰⁾ 또한 다른 실험을 통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얼굴 표정과 반응에 민감하며, 이로 인

37) 안토니오 다마지오 저, 김린 역, 『데카르트의 오류: 감정, 이성 그리고 인간의 뇌』, 눈출판그룹, 2019, 227쪽.

38) 장재윤·박지영, 앞의 책, 146쪽.

39)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204쪽.

40)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200-201쪽.

해 공감적 정확성 역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¹⁾ 이처럼 역할 경험은 면대면의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을 경험하며 공감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해 이 과정에서 자신과 역할, 역할과 역할로의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은 즉흥적 일상이 아닌 준비된 계획을 통한 최선의 문제 해결 경험이기에도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역할 표현의 직접 경험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우리 몸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감정이 동반된 자극 경험은 기억에 저장되며 이후 유사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에 해당 기억과 함께 관련된 감정이 함께 인출”⁴²⁾될 수 있다. 이는 기억의 본질적 기능이 유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할 경험은 일상 속 상황에 맞게 기억을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역량 그 자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연극이 삶을 소재로 하는 고유성을 지니기에 허구와 실체가 분리되지 않고, 실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보완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할 경험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반복적이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바로 뇌가소성(Neuroplasticity)이다. 뇌가소성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을 뜻한다. 최근 연구 결과 우리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 및 성장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은 다음과 같다.

그리노 박사는 인간으로 따지면 중년기에 해당하는 쥐와 노년기에 해당하는 쥐에게 장난감을 주면서 쥐가 사는 환경을 다양하게 자극이 많게 만들었

41)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80쪽.

42) 이재신, 「이성과 감정: 인간의 판단과정에 대한 뇌과학과 생물학적 접근」,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3호, 한국언론학회, 2014, 171쪽.

다. 그 결과, 복잡한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삭막한 실험실 쥐장에서 자란 쥐보다 뇌 무게가 더 무거웠고 어떤 뇌영역에서는 시냅스가 더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수상돌기 가지고 무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란 쥐라도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시냅스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⁴³⁾

인간은 ‘나’로 존재하기에 일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상상을 바탕으로 하는 역할 경험은 그리노 박사의 실험처럼 자신만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야만 하는 다양한 공감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적 상황의 지속적인 노출은 공감이 필요한 때 꺼내어 적용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공감을 발현할 수 있는 뇌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의 성장은 친사회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발하여 공감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역할 경험은 경험의 연속성으로 인한 순환 구조로 인해 공감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연극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역량의 전제가 되는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이다.

3) 모방을 통한 능동적 감상자로 공감하기

‘즉흥극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는 모둠별로 완성한 즉흥극을 관객이 되어 감상하는 경험 구조이다. 거울 뉴런의 발견으로 즉흥극을 감상하는 관객은 즉흥극 속 인물을 즉각적으로 모방하며 이해하는 ‘능동적 감상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공감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감상 경험은 공감에 따른 인과적 반응을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43) 윤영화, 『뇌 과학에서 본 기억과 학습』, 학지사, 2008, 41쪽.

즉흥극 감상은 공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하는 경험 구조이다. 먼저, 즉흥극은 실체가 아닌 상상을 바탕으로 한 허구이기에 현실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한 상황 속 인물들의 풍부한 감정을 관객의 역할로 안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한 거리 확보는 관객에게 미적 거리(aesthetic distance)를 제공한다. 즉 즉흥극 속 인물의 상황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어 즉흥극 감상은 모둠별 즉흥극 속 다양한 인물로 확장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즉흥극 감상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울 뉴런을 통한 내적 모방으로 직접 경험 못지 않은 경험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삶 속에 존재하는 타인과 타인, 타인과 공동체, 각각의 공동체들의 다양한 관계 속 타인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타인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즉흥극 감상 경험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요소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교육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경험의 본질을 상호작용을 통한 삶의 지식 획득이라 정리하였다. 그는 상호작용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호작용(transac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호작용은 경험의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모두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삶을 위한 지식 획득이라 하였다.⁴⁴⁾ 따라서 능동적 감상자인 관객은 단순한 내적 모방만이 아닌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의미화한 지식을 획득하여 성장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듀이는 교과서의 고정화된 지식이 아닌 학생들의 삶에 필요한 살아있는 지식이 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44) 함현경·조준희, 「연극교육에서의 교호작용 (Transaction) 연구」, 『연극교육연구』 44권, 한국연극교육학회, 2023, 8-9쪽.

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 삶에서 필요한 실제적 역량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시작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리하면, 즉흥극 감상은 사회적 존재로서 삶의 살아있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며, 직접적인 인지 확장 경험이라 분석할 수 있다.

인지 확장의 중요한 지점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타인의 이해 확장이 타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호의적인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⁴⁵⁾ 다시 말해 즉흥극의 감상 경험은 내집단 편향에서 벗어나 외집단으로의 확장으로 공감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은 친사회적 행동과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기에 직접적인 행동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감은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을 공감적 반응, 즉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표현으로 완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감은 교육, 심리학, 의학, 철학 전반에서 관심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즉흥극 감상 경험은 내적 모방을 하는 몸의 작동원리에 따라 일상의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타인 관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삶을 위한 살아있는 지식을 획득하여 공감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 구조라 분석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연극교육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즉흥극 만들기’ 경험 구조를 분석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감은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 관점에서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복합적 개념인 공감을 공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인지적 요소와 정

45) 헬렌 리스·리즈 네포렌트, 앞의 책, 45-46쪽.

서적 요소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인지적 요소는 나와 타인의 관점 구별이 가능한 인지능력을 전제로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역할 수용이 중요하다. 정서적 요소는 타인의 정서적 메시지를 해석하여 타인의 감정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며, 이를 통한 공감적 반응은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여 공감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가지의 구성 요소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기에 두 요소의 올바른 균형을 통해 타인 관점에서의 정확한 공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인지과학으로 증명된 거울 뉴런을 통해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연결성을 지닌 공감적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공감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공감은 면 대 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억은 공감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선 다양한 직접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즉흥극 만들기’를 세 단계로 나누어 공감의 관점에서 경험 구조를 분석하였다. 첫 단계는 모둠 협력 구조로 주어진 주제(소재)를 상상하여 이야기를 창조하는 경험 구조이다. 몸의 작동원리로 경험 구조를 분석하면, 이 과정은 타인의 관점으로 상상하여 저장된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즉 공감의 인지적 요소인 ‘역할 수용’이 전제된 경험 구조이다. 또한 저장된 기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창조하기에 사회적 삶에서 공감 능력의 발현을 촉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는 상상할 때의 몸이 마치 실제처럼 행동을 재연하는 몸의 작동원리를 근거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 단계는 모둠 협력 구조로 이루어지기에 첫째, 집단의 통합적 사고로 개인의 습관화된 공감 편향에서 벗어나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다. 둘째,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야 하기에 과정 자체가 타인으로서의 관점 전환을 통한 연속적이고, 즉각적인 공감 훈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야기 창조는 타인 관점에서의 공감을 전제로 한 허구와 현실

간의 이중적 구조로 공감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경험 구조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 속 인물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여 표현하는 직접 경험의 구조이다. 인물에 대한 상상은 점화효과를 통해 상상이 무의식 중에 역할에 적합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폴 에크만의 실험으로 역할의 단편적 표현이 나머지 신체를 자극하여 충분한 역할 경험이 가능함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이는 역할 경험의 구조가 의식할 수 없지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우고, 이를 통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에 더해 역할 경험은 공감의 전제인 면 대 면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기에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을 경험하며 공감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타인의 감정을 전제로 하기에 장기기억으로 몸에 저장되어 일상 속 유사한 상황에서 공감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할 표현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감 능력을 촉진하는 경험 구조라 분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듈별로 완성한 즉흥극을 관객이 되어 감상하는 경험 구조이다. 즉흥극 감상은 거울 뉴런으로 밝혀졌듯 ‘능동적인 감상자’인 관객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반응을 하는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 구조는 첫째, 실체가 아닌 상상을 바탕으로 하기에 관객에게 미적 거리를 제공하여 타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거울 뉴런으로 인해 즉흥극 속 다양한 타인의 경험을 마치 직접 경험처럼 경험할 수 있다. 셋째, 관객은 내적 모방의 경험을 스스로 의미화하여 삶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 축적을 통한 인지의 확장은 개인의 내집단 편향에서 벗어나 공감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즉흥극 감상은 일상의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타

인을 이해하고, 이를 안전하게 경험하여 스스로 획득한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경험 구조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연극교육의 경험 구조가 공감을 촉진할 수 있는 경험 구조를 지님을 인지과학으로 증명된 몸의 작동원리를 근거로 새롭게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공동체 역량은 결국 타인에 대해 이해하여 공감 능력을 발휘하고, 이를 행동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중요한 역량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공감을 위한 교육 실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극교육은 지금의 사회적 문제와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연극교육이 지닌 중요한 교육적 가치이다.

주지하듯이 연극은 오랜 시간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해왔고, 이는 삶을 바탕으로 한 공감이 전제된 예술이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극교육의 가치를 의식할 수 없는 몸의 작동원리를 바탕으로 연극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연극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증명하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연극교육의 방향성과 다양한 방법론 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미약하나마 본 연구를 통한 연극교육의 가치 증명으로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연극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22.
- 권남희·남상인, 「부모의 양육태도, 친사회적행동 및 공감적 태도가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권 11호, 한국청소년학회, 2015, 189-217쪽.
- 김태훈, 「공감(Empathy)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47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5, 1-27쪽.
- 박성희, 「공감적 이해의 구성 요소」, 『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9권, 1992, 193-235쪽.
- 윤영화, 『뇌 과학에서 본 기억과 학습』, 학지사, 2008.
- 이선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실행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시은·박병기, 『상상의 이해와 교육』,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이시은·정영주·박병기, 「상상의 재개념화 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8권 1호, 한국교육심리학회, 2014, 89-115쪽.
- 이윤복·허영식, 「교육과정에서 내러티브를 통한 공감과 역할 취득의 재개념화」,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9권 3호,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2021, 55-76쪽.
- 이인아,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 21세기북스, 2023.
- 이재신, 「이성과 감정: 인간의 판단과정에 대한 뇌과학과 생물학적 접근」,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3호, 한국언론학회, 2014, 161-194쪽.
- 장재운·박지영, 『창의성의 심리학』, 가산출판사, 2007.

- 정연옥·박용익, 「‘공감’ 개념의 발달과 공감 능력의 진화」, 『의철학연구』 30호, 한국의철학회, 2020, 73-100쪽.
- 함현경, 「연극교육에서의 몸을 통한 창의성 발현-연극동아리의 수업모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함현경·조준희, 「연극교육에서의 교호작용(Transaction) 연구」, 『연극교육연구』 44권, 한국연극교육학회, 2023, 5-33쪽.
- 황혜진, 「뇌과학의 관점에서 본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 『고전문학과 교육』 48권, 한국청소년학회, 2021, 5-44쪽.
- Antonio R. Damasio 저, 김린 역, 『데카르트의 오류: 감정, 이성 그리고 인간의 뇌』, 눈출판그룹, 2019.
- Christian Keysers 저, 고은미·김잔디 역, 『인간은 서로를 어떻게 공유하는가』, 바다출판사, 2018.
- Clelia Falletti·Gabriele Sofia·Victor Jacono 저, 박준현 역, 도서출판 서훈, 2018.
- Daniel Kahneman 저, 이창신 역, 『생각에 관한 생각』, 김영사, 2023.
- Helen Riess·Liz Neporent 저, 김은지 역, 『공감능력』, Korea.com, 2019.
- Jeremy Rifkin 저,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 Marco Iacoboni 저, 김미선 역, 『미러링 피플』, 갤리온, 2009.
- Paul R. Ehrlich·Robert Ornstein 저, 고기탁 역, 『공감의 진화』, 에이도스, 2012.
- Roman Krznicaric 저, 김병화 역, 『공감하는 능력』, 더퀘스트, 2018.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연극교육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즉흥극 만들기’의 경험 구조를 분석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감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타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 요소와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요소가 복합된 개념이다. 공감은 거울 뉴런으로 밝혀졌듯 면 대 면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으로 발현될 수 있기에 다양한 직접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즉흥극 만들기’의 경험 구조를 세 단계로 나누어 공감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경험 구조임을 분석하였다. 첫 단계는 ‘이야기 창조하기’다. 이는 타인 관점에서의 공감을 전제로 한 과정으로 이야기를 상상할 때의 몸은 실제처럼 행동을 재연하기에 공감 능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모두 협력 구조로 이루어지기에 그 자체가 타인 관점에서의 즉각적인 공감 훈련 과정이라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역할 표현하기’다. 역할 경험은 몸의 작동원리에 따라 상상에 적합한 행동이 촉진되거나 단편적 표현이 나머지 신체를 자극하여 충분한 역할 경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 구조다. 또한 면 대 면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에 타인의 비언어적 행동을 경험하며 공감 훈련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관객으로 감상하기’다. 감상 경험은 내적 모방을 하는 몸의 작동원리에 따라 일상의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타인 관점에서 다양한 타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획득한 삶의 지식을 내면화하는 경험 구조이다. 이처럼 연극교육은 공감을 전제로 한 경험 구조를 지니기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연극교육의 가치 증명으로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연극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주제어 ● 연극교육, 공감, 즉흥극 만들기, 몸, 공동체 역량

■ Abstract

A study on the value of theater education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empathy : Focusing on the experience structure of ‘improvisational play creation’

Ham, Hyun Kyoung
/ Hoseo University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reveal, by analyzing the experience structure of ‘creating an impromptu play,’ that theater education in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can improve empathy. For this purpose, we looked at empathy. Empathy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others and is a concept that combines the cognitive element of being able to think from the other person's perspective and the emotional element of being able to feel the emotions of others. Empathy can be expressed through face-to-face social interaction experiences, as revealed by mirror neurons, so diverse direct experiences are of utmost importance.

Based on this, the experience structure of ‘creating an impromptu play’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and analyzed to be an experience structure that can promote empathy. The first step is ‘creating a story.’ This is a process that is premised on empathy from another person’s perspective, and when imagining a story, the body can promote empathy because it reenacts actions as if they were real. Since this process is structured through group cooperation, it can be analyzed as an immediate empathy training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The second step is ‘expressing roles.’ Depending on the body's operating principles, role experience can promote actions appropriate to one's imagination or fragmentary expressions can stimulate the rest of the body to provide sufficient role experience. Therefore, it is an experience structure that allows us to understand others in the most direct way. Additionally, since it is a face-to-face social interaction, you can

practice empathy by experiencing the non-verbal behavior of others. The third step is 'appreciating it as an audience member.' Appreciation experience is an experience structure that allows one to escape the physical limitations of everyday life, understand others from their perspective, and internalize the life knowledge they have acquired through this, according to the body's operating principle of internal imitation. In this way, theater education has an experience structure based on empathy, so it can be an educational alternative for improving empathy in a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By proving the value of theater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theater education will be more actively applied and expanded in various educational fields.

Keyword • theater education, empathy, improvisational play creation, body, community competency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특성 연구

: 국내 AI 공연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김영윤·조준희*

목 차

1. 들어가며
2. 인공창의의 이해
3. 국내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동향
4. 동시대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의 특성
5. 나가며

1. 들어가며

오라일리(O'Reilly)가 발표한 <2021년 산업군별 AI 적용 현황>(AI Adoption in the Enterprise 2021)¹⁾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컴퓨터-전자-기술 분야 뿐 아니라 경제, 건강, 교육,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를 현재 첨예하게 논의하고 있다.

* 김영윤(제1저자) 동국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 교수법연구초빙교수
조준희(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부 교수

1) <O'REILLY>, <https://www.oreilly.com/radar/ai-adoption-in-the-enterprise-2021/>, 2024.02.08.

이러한 가운데 예술계에서의 인공지능 예술창작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 미술, 음악, 문학, 사진 등의 예술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다양한 예술실험을 발 빠르게 전개하였고, 공연예술계 역시 후발주자로 참여하여 예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품으로 착각할 정도로 매우 놀랍고 섬세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예술의 본질과 인공지능의 예술성과 창의성, 오리지널리티와 아우라, 창작자/창작물로서의 인정, 저작권에 대한 논쟁 또한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산업계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도구’가 아니라 ‘협력자’로 점점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계에서도 인공지능을 창작 행위의 협력 예술가이자 공동창작자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연예술 창작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AI 공연예술 작품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동창작 결과라는 전제 하에, AI 공연예술 작품의 사례 분석과 인간-AI 공연예술의 공동창작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AI 공연예술의 예술성과 잠재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 인공창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개념을 간략히 살필 것이다. 이후 국내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동향 및 창작 과정 등을 무용 <비욘드 블랙>, 음악 <상명 AI+X Project I AI 음악회>, 연극 <파포스 2.0> 등 각 공연예술 분야별 사례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시대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의 특성을 현존과 디지털 아우라의 관점으로 논의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의 성과와 한계가 동시대 공연예술 분야 및 관련 문화산업의 연구를 위한 기초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인공창의의 이해

예술창작에 관여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능’, ‘창의’, ‘인공지능’, ‘인공창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각 개념들의 의미의 해석의 폭과 관점은 학계와 학자마다 천차만별이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를 한정된 지면에 모두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능, 창의, 인간, 기계의 개념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물질 진화’로 불리는 우주 생성 및 분기의 역사 안에 속한 파생 산물이라는 전제 하에, 유물론적 관점에서 각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능과 창의

(1) 지능(intelligence)

누군가가 ‘생명은 지능이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긍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계는 지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앨런 튜링(Alan Turing)이 1950년에 발표한 「계산 기계와 지성」(*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이라는 연구논문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튜링 테스트(Turing test)²⁾라 불리는 실험으로 이어졌다. 튜링의 연구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과연 생명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지능이란 과연 무엇인가? 물질 진화 과정에서 지능은 왜 생겨났는가?

2)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갖췄는지를 분별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에서는 인간이 컴퓨터를 대상으로 대화를 나눈 후, 그 대화를 통해 인간과 컴퓨터의 반응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컴퓨터의 반응을 인간의 반응으로 구분하게 된다면 컴퓨터를 생각(thinking)할 수 있는 존재, 즉 인공지능이라고 간주한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는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지능의 정의나 기준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튜링이 시험을 통과하는 기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논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재박은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라는 관점에서 지능을 ‘다른 물질의 정보를 처리해서 생존의 이득을 피하는 것’³⁾이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의 모든 것은 물질(matter)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은 정보 또는 형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 다양한 물질들이 결합 혹은 재조합되는 것은 정보처리 또는 형식의 변화, 즉 물질 진화라고 볼 수 있다. 자연계에서 물질 진화는 특정한 의도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무한한 우연의 반복 속에서 생명을 지닌 주체가 출현하여 정보 처리 및 형식 변화를 통해 개체 생존이라는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다. 즉 주체가 생존을 위해 정보를 처리하고 물질을 진화하는 모든 행위는 ‘지능’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 동물이 사냥감을 향해 몸을 움직이는 것, 인간이 책을 읽는 것은 모두 정보 처리 및 형식 변화를 통해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다분히 지능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능은 생명체라는 경계 안에서만 성립되는 정보처리 활동이며, 식물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지능의 필수조건은 뇌가 아닌 경계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능은 생명에게서 발견되는 형식처리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2) 창의(creativity)⁴⁾

미국의 심리학자 길포드(Joy Paul Guilford)가 『지능의 구조』(*Structure of Intellect*, 1967)에서 창의를 논하기 전까지 창의는 지능과는 다른 현상이자,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음 상

3) 이재박,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 MID, 2019, 79쪽.

4) 국내에서 creativity는 ‘창의성’, ‘창의력’, ‘창조성’, ‘창조력’ 등의 다양한 단어로 쓰이지만, 이 단어들의 공통적인 의미가 ‘능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창의’로 통일해 표기한다.

태(state of mind)로 간주되었다.⁵⁾ 길포드 이후 창의력을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이론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학자들마다 저마다 다른 관점으로 창의력을 제각각 정의했지만, 대부분 새로움(novelty)과 유용성(usefulness)이 창의력의 주요 요소이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⁶⁾ 즉 창의란 단순히 새롭거나 독창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환경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창의의 출현 역시 개체의 생존이라는 점에서 지능과 궤를 함께 한다. 생명체가 맞닥뜨리는 환경은 매 순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생명체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안정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에 생명체에게는 지능과 더불어 여러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혼성(blend)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⁷⁾ 바로 이 지점에서 창의와 지능의 차이점이 발생한다. 물질 진화는 우주의 규칙과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합구조의 변화지만,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에 의미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상태의 정보나 형식에 기존에 없었던 의미를 부여한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형식)을 보고 강아지(의미)를 닮았다고 말하거나, 얼굴의 형태(형식)를 통해 그 사람의 운명(의미)을 유추(해석)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창의의 사례라 할 수 있겠다.

5) Francisco C. Pereira 저, 김동환·박한웅 역, 『창의성과 인공지능』, 아진, 2021, 10쪽.

6) 이신동, 『지능과 창의성의 프레임』, 양서원, 2015, 203쪽.

7) 터너에 따르면 인간의 새로운 생각의 기폭제, 즉 인간적 스파크(human spark)란 여러 생각들을 혼성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고등 능력이다. 서로 얽힐 수 없는 다른 두 가지 생각이나 사건, 이야기들을 혼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필요한 것 중에서도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에도, 혼성이 일어나는 시간은 인간이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혼성은 '순간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마크 터너 저, 김동환 역, 『생각의 기원』, 경북대학교출판부, 2019, 6쪽, 24쪽.).

그런데 인간의 창의 활동은 자연 속의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언어와 문자, 이미지와 같은 인위적인 형식을 만들어 의미를 매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구의 위성 ‘달’이라는 정보는 한국어로는 ‘달’이라는 형식으로 처리되지만, 영어로는 ‘moon’으로, 프랑스어로는 ‘la lune’이라는 고유한 형식으로 처리된다. 예술 창작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창의 특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작가가 자연에서 인식한 정보의 의미를 고유한 작가의 형식으로 변이시키고, 그 형식은 고유하고 독창적인 의미를 재생성 한다. 이때 관객이 인식할 수 있는 예술작품, 즉 형식은 반드시 한 가지 의미나 해석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는 감상 행위에서도 인간의 창의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위 논의를 정리하면, 창의는 형식 뿐 아니라 의미까지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변이하는 복합변이 행위다. 이에 반해 지능은 형식처리만 요구된다는 점에서 창의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인공지능과 인공창의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기준은 인간의 지능에 있다. 튜링 이전까지 인간은 지능이 인간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기계는 지능이 있는가?’라는 튜링의 도발적 질문 이후 약 70여 년 동안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괄목 할 만큼 발전해왔다. Chat GPT-4의 사례를 보면 이제는 정말로 인공지능이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사 OpenAI가 2023년 3월 거대 자연어 모델 GPT-4를 출시한 이후,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UC San Diego)의 존스(Cameron Jones) 연구원과 버긴(Benjamin Bergen) 교수는

「GPT-4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⁸⁾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GPT-4는 인간이 설정한 수치인 63%에 조금 못 미치는 41%의 수치를 보여 2023년 10월에 실시한 튜링 테스트를 근소한 차이로 통과하지 못했다.⁹⁾ 하지만 GPT-3.5가 14%의 수치를 보인 것을 미루어 볼 때 가까운 미래에 출시될 GPT-5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 결과 이후 일부 인공지능 개발자는 모든 면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갖춘 인공지능이 나타나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인공지능을 지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이를 가능하려면 다시 형식처리의 맥락으로 돌아와 인공지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물질과 정보들을 활용해 정보처리 및 형식 변화를 한다는 점에서 지능의 요소를 갖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정보처리는 기계 자신의 이득이나 생존이 아니라 인간의 이득과 생존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인공지능이 정보처리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계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정보처리의 주체가 되지 못함을 가리킨다. 인공지능은 자기 자신의 경계를 감각하고 인지하는 작용인 의식(consciousness)이 없기에 정보처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주체가 없는 정보처리는 인간의 지능과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의 정보처리는 지능이 아닌 '계산'에 가까운 형태로 이해된다.

(2) 인공창의(Artificial Creativity, Augmented Creativity)

8) Jones, Cameron, and Bergen, Benjamin. "Does GPT-4 Pass the Turing Test?." arXiv preprint arXiv:2310.20216, 2023.

9) <GTT KOREA>, <https://www.gtt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 2024.02.08.

인공지능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챗 GPT(Chat GPT), 미드저니(Midjourney), 소라(Sora) 등 생성형 AI(Generative AI)¹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대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 이는 ‘계산적 창의’(computational creativity)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계산적 창의는 인지 심리학과 철학, 예술이 융합된 연구 분야로 기계를 통해 인간의 창의를 이해하고 창의를 모델링해 시뮬레이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영국 런던 퀸메리대학교(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위긴스(Geraint A. Wiggins) 교수는 계산적 창의를 “컴퓨터 시스템의 철학과 과학, 공학이다. 특정한 책임을 지고, 편견이 없는 입장에서 창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¹¹⁾이라고 정의했다. 위긴스의 발언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계산적 창의는 ‘기계는 창의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광택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창의적 예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몸과 의식의 부재를 꼽는다.¹²⁾ 인공지능은 의식

10) 생성형 AI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 사고 과정 및 창의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기계가 입력 매개변수와 이전에 학습한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단순히 가공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접근방식이다(SAMSUNG SDS, https://www.samsungds.com/kr/insights/future_of_generative_ai_1.html, 2024.02.09.). 생성형 AI는 크게 5가지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술,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술,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 기술이다. : 김상철, 「대학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현황 및 설계 방향 연구-생성형 AI(챗 GPT)를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13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3, 5-7쪽.

11) <CIO KOREA>, <https://www.ciokorea.com/news/38232>, 2024.02.09.

12) 한광택, 「인공지능의 예술적 창의성 개념의 재고찰」, 『예술영재교육』 8호, 한국 예술영재교육연구원, 99쪽.

이 없기 때문에 정보처리를 통해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생성된 의미를 인식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한다. 그렇기에 기계를 창의의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창의의 도구의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면 기계의 창의에 대한 또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인간은 형식처리의 효율을 위해 이미지, 언어, 문자 등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왔으며 각 도구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창의를 발현해 왔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탄생한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도구 중 가장 빠르게, 많이, 효율적으로 형식처리가 가능하다. 도구를 활용해 창의를 발현해 온 인류의 역사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인공지능의 활용은 인간의 창의 발현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추론이 가능하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인간이 미술작품이라는 의미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돈, 에너지의 형식처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이미지 생성형 AI가 인간이 해야 할 형식처리를 대행하면 시간, 돈, 에너지를 파격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형식처리 대행을 통해 형식처리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은 형식과 의미의 복합변이 행위, 즉 창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창의 행위를 가속하고 확장하며 증강시킬 수 있게 된다.

정리하면, 기계는 의식이 없기에 창의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기계는 형식처리를 인간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인간의 창의 행위의 가속과 증강을 도울 수 있다. 즉 인공창의라는 개념은 “‘형식’에 관한 문제풀이를 기계에게 위임함으로써 인간의 창의력을 증강시키는 것”¹³⁾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국내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동향

산업계 전반으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예술계에

13) 이재박, 앞의 책, 223쪽.

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인공지능 예술창작 활동은 회화, 사진, 문학 등의 장르에서 선구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인간만의 고유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공연예술계에도 실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연예술을 공동창작¹⁴⁾한다는 관점에서 최근 공연된 국내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작업 사례를 크게 무용, 음악, 연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용 : <비욘드 블랙>(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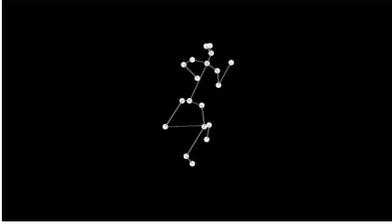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10주년 신작 무용 <비욘드 블랙>은 2020년 국립현대무용단이 국내 최초로 인간무용수와 인공지능이 공동창작한 융복합공연으로, AI ‘마디’(MADI)가 생성한 움직임을 인간 무용수가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창작되었다.

마디를 개발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이자 안무가 신창호와 미디어 아트 그룹 슬릿스코프(Slitscope)는 마디가 안무 작업을 해낼 수 있도록 데이터화 하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쳤다. 먼저 크로마키를 배경으로 무용수 8명 각각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두 번째로는 움직임의 패턴을 점과 선으로 추출 및 코딩해 단순화 및 데이터화한다. 끝으로 이 데이터들을 재배열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춤을 학습하고 응용 동작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마디에게 입력된 데이터는 총 256분 분량이었는데, 마디가 일주일 동안 만들어 낸 응용 동작은 1,000분 분량에 이르렀다.¹⁵⁾ 마디의 높은

14) 다른 예술과 다르게 공연예술은 필연적으로 여러 창작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창작(collaborative creation)의 형태를 띤다. 그런데 공연예술 각각의 장르 특성이 서로 상이하기에 공동창작에 대한 시각과 접근, 해석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예술 창작’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만나 공연예술을 창작한다는 유연한 맥락에서 ‘공동창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5) <국립현대무용단>, <https://kncdc.kr/ko//performance/detail?boardMastserSeq=1&boardSeq=1162&pgm=info>, 2024.02.10.

효율성에 대해 제한정은 “‘인간노동의 소멸’이 안무의 과정에도 여실히 적용”된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인간의 유능함은 AI의 생산성을 비집고 작품의 전면에서 드러난다”라며 인간 무용수의 실재와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¹⁶⁾



[그림 1] 마디가 만든 춤 동작



[그림 2] 마디가 만든 동작으로 재구성한 안무

‘예측 불가능한 미래’라는 질문에 대해 ‘미지의 세계를 넘어선다’는 대답을 가지고 예술과 기술의 공존을 탐색하고자 시작된 <비욘드 블랙>의 공연은 본래 2020년 4월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네이버TV, V LIVE, 유튜브 등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온라인 상영되었다. 영상문법에 맞추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무용수들을 여러 시점에서 촬영하고 영화처럼 편집하여 원격현존(tele-presence)¹⁷⁾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하였다. 마디 역시 무용수들과 함께 무대에 등장한다. 마디는 LED 패널, 프로젝션 맵핑 등을 통해 무대에 구현된다. 제작 과정에서 신

16) 국립현대무용단, 앞의 자료.

17) 원격 현존감은 마빈 민스키(Mavin Minsky)가 처음 고안해 낸 단어로, 인간 오퍼레이터가 텔레오퍼레이팅 시스템(tele-operating systems)을 통해 멀리 떨어진 작업 공간으로 물리적으로 이송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고도의 시뮬레이션 기술과 감각 피드백 기술이 더욱 다듬어지면서 그는 원격 현존을 이용하여 위험한 작업을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새로운 의료 기법과 수술 기술이 고안될 것이며, 작업장으로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때부터 “원격 현존감”이라는 용어는 테크놀로지로 만든 공간으로 이송되는 느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 이관민, 『IT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미국의 연구동향』,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16쪽.

창호 안무가는 마디가 제시한 동작을 토대로 다시 안무를 구성하는 과정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때보다 인간의 창의력이 훨씬 많이 쓰인다”¹⁸⁾고 제작 소감을 밝히는 동시에 AI가 만들어 낸 춤이 인간보다 훨씬 더 유연한 결과물을 냈다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였다.¹⁹⁾

그동안 인간의 영역이라고만 여겨졌던 무용공연의 창작에 AI가 함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욘드 블랙>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창호는 인터뷰에서 “지금은 AI가 만들어놓은 안무를 인간이 재학습하는 단계지만 언젠가는 AI가 직접 춤도 추지 않을까요?”²⁰⁾라고 대답하며 미래 무용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무용공연에 있어 AI의 참여는 단지 기술적 구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의 개념, 방식, 가치 재인식에 대한 미래 담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음악 : <상명 AI+X Project I AI 음악회>(2020)

2019년 9월 SW중심대학으로 상명대학교가 선정된 이후, 상명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음악대학은 ‘AI+X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 및 주최하였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은 <상명 AI+X Project I AI 음악회>로, 지난 2020년 10월 29일 1,500석 규모의 상명아트센터 계당홀에서 공연되었다. 이 음악회는 상명대 문화예술대학 음악학부생과 객원연주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인간 오케스트라와 AI 피아니스트가 협연한 ‘세계 최초의 AI 음악회’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AI 피아니스트의 정체는 세계적인 피아노 제작업체 스타인웨이(Steinway & Sons)가 개발한 하이 레졸루션 플레이어 피아노 ‘스피리

18) 김표향, “첫 인공지능 안무 ‘비욘드 블랙’... 사람보다 더 유연한 춤이었다”, <한국일보>, 2020.06.12.

19) 위의 기사.

20) 송광호, “안무가 신창호 ‘AI가 무용수의 디테일마저 잡아내더군요’”, <연합뉴스>, 2020.06.17.

오'(Spirio)다. 스피리오는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나는 일반적인 디지털 피아노와는 달리, 피아니스트의 공연 실황이 저장된 디지털 기록을 입력하면 피아노 해머와 페달이 직접 움직여 아날로그 방식으로 소리를 재생하는 하이브리드 피아노다. 상명대는 <AI음악회>의 공연을 위해 세계적 피아니스트 거장이라 불리는 루빈스타인(Artur Rubinstein)이 1968년 연주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Tchaikovsky Piano Concerto No. 1 in Bb Minor, Op. 23 - 1. Allegro con spirito)의 연주 실황을 선택했다. 이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피아노 선율로 유명하기에, 다양한 전공 분야와 AI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보여주려는 AI+X 프로젝트의 취지에 매우 적합했다.

AI의 피아노 연주는 다음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루빈스타인의 1968년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공연 실황 기록에서 피아노 연주만을 추출한 후, 초당 192,000번을 쪼개 타이밍과 음과 음 사이의 간격, 건반을 누르는 강도, 페달 등을 약 6개월에 걸쳐 분석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²¹⁾ 이는 루빈스타인의 연주 '느낌'을 최대한 데이터로 담아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후 연주 당시 82세였던 루빈스타인의 연주에 약간의 강도를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명대 박지원 교수의 연주 데이터를 융합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주 데이터를 스피리오에 입력하면, 스피리오는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를 재생한다. 연주 데이터 개발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과는 다르게, AI와 인간의 협연은 비교적 직관적이고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스피리오에 입력된 거장의 연주가 무대에서 재생되면, 인간 오케스트라가 그에 맞춰 협연하는 방식이다. AI의 템포에 인간이 맞춰야 하는 협연 특성상 무대에는 루빈스타인의 당시 연주 영상이 상영되었다.

21) <음악교육신문사>, “<AI음악회> 상명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음악학부”, 음악교육신문, 2020.11.27.



[그림 3] 인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AI 피아니스트

<AI음악회>를 기획하고 연출한 상명대 뉴미디어음악학과 장민호 교수는 인터뷰에서 “AI 기술을 통해 아무리 대가의 데이터를 복제하더라도 대가의 ‘아우라’를 복제하는 것은 현재의 AI 기술로는 불가능하며, 앞으로 인간 예술가가 AI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테크닉을 넘어 인간만의 ‘아우라’를 가져야 한다”²²⁾라고 밝혔다. 그의 주장을 미루어 볼 때, 오늘날 인간-AI의 공동창작 공연예술에서는 AI가 아닌 인간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연극 : <파포스 2.0>(2023)

지난 2023년 8월 10일~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인사동 코트’에서는 인공지능 시(詩)극 <파포스 2.0>(PAPHOS 2.0)이 공연되었다. 서울예대 교수이자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제민이 연출한 <파포스 2.0>은 2021년 <시작詩作하는 아이>, 2022년 <파포스>에 이은 인공지능 시극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이 공연에는 시 쓰는 인공지능인 ‘시아’(SIA)가 참여하였다. 2021년 김제민 연출이 대표로 있는 미디어 아트 그룹 슬릿스 코프와 카카오 브레인이 공동 개발한 시아는 카카오 브레인의 초거대 인공

22) <음악교육신문사>, 앞의 기사.

지능 언어 모델 ‘KoGPT’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아는 인터넷 백과사전, 뉴스 등을 읽으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근현대 시 1만 2천여 편을 통해 작법을 학습했으며 공연을 앞두고서는 시 2천여 편을 추가로 학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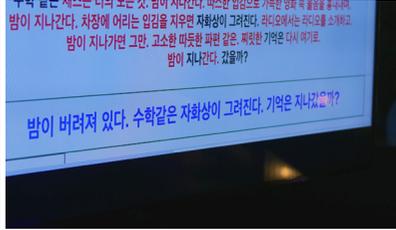
<파포스 2.0>은 2022년 공연된 인공지능 시극 <파포스>의 시퀀(Sequel)로 시아가 시를 쓰는 이유를 찾기 위해 극장을 찾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해당 공연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 공연예술인-인간 관객을 잇는 예술적 실험으로 공동창작을 시도한다. <파포스 2.0>의 대본 극작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시아가 주어진 시제에 맞춰 시를 생성한다. 그 후 김제민 연출과 소설가 김태용이 이를 재구성해 연극 대본으로 만든다. 연극 대본 윤색에는 Chat GPT가 사용되었다. 이 전체 과정을 3~4번을 반복하여 <파포스 2.0>의 대본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공연 안내 자료에서도 <파포스 2.0>의 극작은 시아, 김제민, 김태용, Chat GPT의 ‘공동창작’으로 표기되어 있다.²³⁾ 공연 또한 공동창작으로 이루어진다. 시아는 해당 작품에서 AI로 추출한 목소리의 형태로 출연하는데, 배우, 음악 연주자, 무용수 등의 인간 공연예술인과 함께 공연을 이끌어 나간다. 시아의 출연에 대해 김제민 연출은 “분노나 기쁨 같은 감정까지 어색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²⁴⁾고 밝혔다. 공연에는 관객들도 적극 참여한다. 극 말미에 이르러 관객들이 직접 시어와 문장을 제시하면 시아는 시를 즉석으로 생성한다. 관객은 시아가 만든 시를 낭독하고, 연출가와 작가는 시아의 시를 재구성해 새로운 글로 만든다.

23) <인터파크티켓>, <https://tickets.interpark.com/goods/23009736>, 2024.02.12.

24) 신연수, “인공지능이 연극 대본 쓰고 출연까지... ‘AI 예술’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을 것”, <한국경제>, 2023.08.03.



[그림 4] 시아와 함께 공연하는 배우



[그림 5] 공연 중 시아가 생성한 시

<파포스 2.0>의 공연 이전 이루어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AI의 예술창작에 대해 김제민 연출은 “예술의 영토 확장”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그는 과거 사진과 영화와 같은 기술들이 그러했듯 AI 역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발한 예술 형식을 내놓을 것이기에 '관객들에게 새로운 지각 경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²⁵⁾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출의 생각이 반영되었기에 해당 공연에서는 단순히 인공지능의 놀라운 퍼포먼스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란 무엇인가’라는 예술에 대한 본질적 질문과 예술 창작 및 향유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즉 <파포스 2.0>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융합에서 발생하는 미학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동시대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의 특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예술창작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방식은 크게 ① 공동창작을 통한 인간 창의 증진, ②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창작물 산출, ③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²⁶⁾ 해당 자료를 통해 이른바 ‘자동생성 예술

25) 아르떼, “AI ‘시아’가 쓴 시 챗 GPT로 다듬어 공연... 예술의 영토 확장”, <한국경제>, 2023.08.08.

26) 첫째, 현재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인간의 창의력을 향상 또는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기술적 측면에서 예술의 진입 장벽

(generative art)’이라 불리는 생성형 AI 기반 예술 실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아트 시대에서 인공지능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 예술가의 도구에서 공동창작 파트너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공연예술에 있어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논의가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이 무엇을, 또 어떻게 협업하여 공동창작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공연 사례를 토대로 동시대 인간-AI의 공동창작 공연예술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현존의 증강’과 ‘디지털 아우라의 부상’으로 세분화하여 톺아보고자 한다.

1) 현존의 증강

동시대 인간-AI의 공동창작 공연예술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은 ‘현존의 증강’이다. 공연예술이 다른 예술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창작의 주체인 퍼포머와 객체인 관객이 모두 몸(body)²⁷⁾을 매개로 소통하고²⁸⁾ 현존

을 낮추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예술적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조적인 사고가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부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의 기능을 넘어 자체적인 예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며, 여러 예술가의 특징과 스타일을 익히고 새롭게 복제할 수 있다. 셋째,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디자인을 의미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은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제조, 소비자 제품 디자인을 포함한 많은 산업 분야를 크게 혁신하고 기존의 창의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 분야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트렌드 리포트」 창작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기여하는 3가지 방식, 『미디어 이슈 & 트렌드』 40호, 2020, 6쪽.

27) 본고에서 몸은 특정 의미의 전달체로서의 ‘기호학적 몸’과 육체적 현존 자체로서의 ‘현상학적 몸’을 모두 수용하는 맥락으로 사용한다.

28) 공연예술에서의 현존 개념은 파워(Cormac Power), 아우슬랜더(Philip Auslander), 쉘크너(Richard Shaechner), 피셔-리히테(Erika Fischer-Lichte), 레만(Hans-Thiese Lehmann) 등에 의해 각각 논의되어 왔으며 그 의미는 모두 상이하다. 하지만 연극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존의 의미는 직접성(immediacy), 자발성(spontaneity), 친밀성(intimacy), 생생함(liveness), 에너지(energy), 배우의 현존(the presence of the actor) 이라고 할 수 있다.;

(presence)²⁹⁾한다는 것이다. 퍼포머와 관객은 현존을 통해 각자의 몸을 지각할 뿐 아니라 신체적 공동 현존, 창발(emergence), 자동형성 피드백 고리(auto-formation feedback loop) 등의 미적 체험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공연예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은 공연예술의 고유한 예술적 형식과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변이하는 복합변이의 기능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예술에 있어 인간의 몸은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에서는 인간 퍼포머와 인간 관객 사이에 인공지능이 개입한다. 인공지능에게는 의식과 몸이 없으므로, 공연에서는 영상이나 피아노, 가면과 같은 인간의 몸을 대체하는 미디어(media)를 통해 관객에게 존재를 드러내는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퍼포머와 관객들은 인공지능의 현존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각하려 하지만 그런 시도가 계속될수록 인공지능은 오히려 부재(absence)를 제공한다. 김방옥에 의하면, 부재는 현존의 또 다른 측면이며, 때로는 부재를 통해 오히려 현존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³⁰⁾ 그러므로 인공지능은 현존과 부재를 모두 아우르는 이질적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에서 인공지능이 강하게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예술의 의미와 인간의 창의가 시험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각자의 답을 내놓으며 인간과 현존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즉 공연예술에 있어 인공지능은 인간의 보조 역할로

Cormac Power, “Presence in Play: A Critique of Theories of Presence in the Theatre”, Unpublished Ph.D. Thesis(University of Glasgow), 2006, p.3.

29) 본고에서는 인간 공연예술인과 인공지능, 인간 관객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설명에 천착하기 위하여 물질성(materiality), 수행성(performativity), 신체적 공동 현존(bodily co-presence) 등을 중시하는 피셔-리히테의 현존 개념을 이용하기로 한다.

30) 김방옥, 「연극에서의 현존(presence)」, 『한국연극학』 1권 57호, 한국연극학회, 2015, 28-29쪽.

서 고도의 형식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이라는 공연예술의 최대 가치와 미학을 성찰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존을 증강하는 요소로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디지털 아우라의 부상

벤야민(Walter Benjamin)이 기술복제시대 아우라(aura)의 상실을 이야기 했다면, 인공지능은 기술편집시대의 확장된 아우라인 디지털 아우라(digital aura)의 부상을 논하고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2023 문화기술 콘퍼런스>에서 ‘생성 인공지능이 변화시킨 문화기술’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맡은 소르본 대학교(Sorbonne University) 가나시아(Jean-Gabriel Ganascia) 교수는 “발터 벤야민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논했던 ‘아우라’를 우리도 지금 다시 논해야 한다”라며, 머지 않아서 무엇이 예술인가, 무엇이 아름다움인가에 대한 재정의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예술은 “디지털 아우라”라는 개념을 불러오게 될 것³¹⁾이라 말하였다. 또 그는 “예술가들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며 “AI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술만큼 창의적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³²⁾라고 주장하며 AI의 예술 활동을 둘러싼 사람들의 불안을 일축하였다.

벤야민에 따르면, 예술 작품이 주술적, 신비적 성격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술작품’이라는 오리지널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현재성과 일회성 때문이다.³³⁾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카메라와 사진의 등장으로 인해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누구나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

31) 김현정, “새로운 ‘아우라’의 등장, 생성AI가 확장한 문화기술”, <사이언스타임즈>, 2023.09.15.

32) 이미영, “세계 석학들이 전하는 ‘AI가 불러올 문화기술의 미래’”, <경기도뉴스포털>, 2023.09.15.

33) 발터 벤야민 저,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005, 379쪽.

게 되었고, 얼마든지 확대 재생산되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지니는 아우라의 가치는 희석되었다. 하지만 전통적 의미의 아우라의 몰락은 새로운 예술과 아우라의 탄생을 불러왔다. 뒤상(Marcel Duchamp)의 <샘>(Fountain)과 워홀(Andy Warhol)의 <캠벨 수프 캔>(Campbell's Soup Cans), 디즈니(Walt Disney)의 미키 마우스(Mickey Mouse)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물라크르(simulacre) 개념이 예술계에 확산됨에 따라 오리지널리티가 부재하는 예술 작품일지라도 작품에 담긴 창작자의 창의성과 메시지는 변함이 없으므로 고유의 아우라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즉 기술복제시대에서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작품의 물질성이 아닌 창작자의 의식 그 자체에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딥러닝 등을 통해 예술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벤야민의 기술복제 담론을 벗어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는 동시에 '디지털 아우라'를 형성할 수 있다. 서은선에 따르면 “디지털 아우라는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에 고유한 존재감을 부여하는 무형의 품질”³⁴⁾이다. 디지털 아우라가 전통적 의미의 아우라와 다른 점은, 예술작품의 오리지널리티에서 오는 주술적, 신비적 성격을 강조하는 대신 예술의 경계와 그것이 지닌 의미를 재정의하고 나아가 예술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³⁵⁾

동시대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에서는 디지털 아우라가 부상하고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다룬 공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해당 공연에 참여했던 창작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술의 본질과 가치, 인간 예술가의 실재와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창작’이라는 형식처리를 인공지능이 대체

34) 서은선, 「AI 예술의 예술적 가치 연구: 보리스 엘닥슨의 AI 생성 작품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4권 5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23, p.213.

35) 서은선, 위의 논문, 222쪽.

하고 인공지능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창작 행위에 비해 더더욱 인간 창작자의 의미 선택 및 해석, 창의성 등이 중요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인공지능 기반의 예술 창작 행위에서는 예술가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창작자들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예술 실험을 창작하고 전개하고자 인공지능에게 창의적으로 제시어(prompt)를 제공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³⁶⁾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시사점이 제기된다. 인공지능이 인간 예술가의 형식처리 과정인 창작 행위를 대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예술 창작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의 예술 창작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준다. 반면 전문 예술인의 가치와 존재 의미에 대한 의구심, 즉 ‘인간 예술가가 창작을 하지 않고 실행만 하는 존재라면, 인간 예술가는 인공지능의 도구인가?’라는 반론을 야기한다. 즉 디지털 아우라는 인간 예술가로 하여금 스스로 예술가로서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증명하도록 촉구하는 특성 또한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과의 창작 작업에서 인간 예술가들이 예술가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요구된다.

5. 나가며

본고는 공연예술계에서의 인공지능의 성과, 인공지능의 창의성과 예술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보다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연예술 공동창작 동향 파악을 통해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예술과 미학에 대해 선제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36) 심혜련, 「인공지능 예술의 수용 문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4권,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23, 26-27쪽.

이를 위해 먼저 지능, 창의,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지능은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 및 이득을 위해 행하는 형식처리 행위이며, 창의는 형식과 의미를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변이하는 복합변이 행위로서 단순히 새롭거나 독창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생명체, 특히 인간이 지능과 창의를 모두 갖출 수 있는 이유로는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의식이 있기 때문인데, 인공지능에게는 몸과 의식이 없다. 인공지능의 지능은 자신의 생존이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므로 절반의 기능밖에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주체가 없는 정보처리는 지능이 아니라 계산의 형태로 이해된다. 또한 인공지능은 의식이 부재하므로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형식처리는 인간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창의 행위의 가속과 증강을 도울 수 있으며, 증강된 창의인 인공지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의 동향을 크게 무용, 음악, 연극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각 사례를 살펴보며 인공지능 공연예술의 구체적 창작 내용 및 방식과 더불어 창작에 참여한 인간 예술가들의 고민 또한 알 수 있었다. 각 공연예술의 장르적 특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참여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것은 예술과 인간의 본질, 인간 예술가의 실재와 가치, 역할 등이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예술 창작 행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해당 공연예술에서 창작과 향유의 주체에 대한 질문을 야기했고, 그 질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대답하려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내용을 토대로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의 특성은 크게 현존의 증강과 디지털 아우라의 부상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은 부재와 현존을 모두 아우르는 이질적 존재로서 공연예술의 최대 가치인 현존에 영

향력을 행사한다. 공연예술에서 인공지능은 인간 예술가의 보조역할로 고도의 형식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예술가 및 관객 모두에게 현존을 성찰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존을 증강하는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공연예술의 새로운 미학 개념인 디지털 아우라의 부상을 야기한다. 디지털 아우라는 아우라와는 달리 예술작품의 오리지널리티에서 오는 유일성과 고유성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예술과 인간의 경계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성격이 강하다.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고 인간 창작자가 그를 실행하는 독특한 형태의 공연예술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아우라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가치와 역할을 증명하도록 촉구한다.

지금까지 동시대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짐에 따라 예술계, 특히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는 인간 창작자들에게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개발한 인간 또는 기업이며, 창작이라는 정보처리 행위가 사라졌을 때 인간 예술가의 가치를 증명해 내는 일일 것이다. 인공지능과 예술에 관한 연구와 창작활동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또 진행 중이기에 본고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인류가 인공지능과의 공생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동창작에 대한 태도와 새롭게 탄생하게 될 미래 공연예술의 가능성을 예측하였기를 바란다. 본고가 향후 인공지능 공연예술에 대한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 김방옥, 「연극에서의 현존(presence)」, 『한국연극학』 1권 57호, 한국연극학회, 2015, 5-44쪽.
- 김상철, 「대학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현황 및 설계 방향 연구-생성형 AI(챗 GPT)를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13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3, 11-44쪽.
- 마크 터너 저, 김동환 역, 『생각의 기원』, 경북대학교출판부, 2019.
- 발터 벤야민 저,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005.
- 서은선, 「AI 예술의 예술적 가치 연구: 보리스 엘닥슨의 AI 생성 작품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4권 5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23, 211-224쪽.
- 심혜련, 「인공지능 예술의 수용 문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4권,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23, 9-34쪽.
- 이관민, 「IT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미국의 연구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1-107쪽.
- 이신동, 『지능과 창의성의 프레임』, 양서원, 2015.
- 이재박,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 MID, 2019.
- 한광택, 「인공지능의 예술적 창의성 개념의 재고찰」, 『예술영재교육』 8권,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83-104쪽.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트렌드 리포트] 창작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기여하는 3가지 방식」, 『미디어 이슈 & 트렌드』 40권, 2020, 5-13쪽.
- Cormac Power, “Presence in Play: A Critique of Theories of Presence in the Theatre”, Unpublished Ph.D. Thesis(University of Glasgow), 2006.
- Francisco C. Pereira 저, 김동환·박한웅 역, 『창의성과 인공지능』, 아

진, 2021.

Jones, Cameron, and Bergen, Benjamin. "Does GPT-4 Pass the Turing Test?." arXiv preprint arXiv:2310.20216, 2023, pp.1-25.

기사

김표향, "첫 인공지능 안무 '비욘드 블랙'... 사람보다 더 유연한 춤이었다", <한국일보>, 2020.06.12.

김현정, "새로운 '아우라'의 등장, 생성AI가 확장한 문화기술", <사이언스타임즈>, 2023.09.15.

송광호, "안무가 신창호 'AI가 무용수의 디테일마저 잡아내더군요'", <연합뉴스>, 2020.06.17.

신연수, "인공지능이 연극 대본 쓰고 출연까지... 'AI 예술'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을것", <한국경제>, 2023.08.03.

아르떼, "AI '시아'가 쓴 챗 GPT로 다듬어 공연... '예술의 영토 확장'", <한국경제>, 2023.08.08.

이미영, "세계 석학들이 전하는 'AI가 불러올 문화기술의 미래'", <경기도뉴스포털>, 2023.09.15.

참고 사이트

<국립현대무용단>, <https://kncdc.kr/ko//performance/detail?boardMasterSeq=1&boardSeq=1162&pgm=info>, 2024.02.10.

<음악교육신문사>, " <AI음악회> 상명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음악학부", <음악교육신문>, 2020.11.27.

<인터파크티켓>, <https://tickets.interpark.com/goods/23009736>, 2024.02.12.

<CIO KOREA>, <https://www.ciokorea.com/news/38232>, 2024.02.09.

<GTT KOREA>, <https://www.gttkorea.com/news/articleView>.

html?idxno=7736, 2024.02.08.

<SAMSUNG SDS>,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future_of_generative_ai_1.html, 2024.02.09.

<O'REILLY>, <https://www.oreilly.com/radar/ai-adoption-in-the-enterprise-2021/>, 2024.02.08.

■ 국문초록

AI 시대의 도래에 따라 예술계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예술실험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공연예술계에서는 인간과 AI가 공동창작하고 공연하는 인공지능 공연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등한 예술 창작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본고는 인공지능 공연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결과라는 전제 하에,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인공지능 공연 예술의 예술성과 잠재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 인공창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개념을 간략하게 살필 것이다. 이후 국내의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동향 및 창작 과정 등을 무용 <비욘드 블랙>, 음악 <상명 AI+X Project I AI 음악회>, 연극 <파포스 2.0> 등 각 공연예술 분야별 사례로 나누어 간략히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시대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의 특성을 현존과 아우라의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주제어 • 인공지능, 인공창의, 공연예술, 공동창작, 현존, 디지털 아우라

■ Abstract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AI Collaborative Creation Performing Arts : Focused on Korean AI Performing Artworks

Kim, Yung-Yoon·Cho, Joon Hui
/ Dongguk University · Dongguk University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various artistic experiments utilizing generative AI are actively unfolding in the art world. 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performances co-created and performed by humans and AI are being announced one after another.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and debate on whether AI can be considered an equal artistic creator alongside humans and whether AI can replace human creativ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rtistry, potential, and validity of AI performing art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human-AI collaborative creation performing art based on the premise that AI performing art is the result of collaboration between humans and AI.

To achieve this, we will first briefly examine fundamental concepts to underst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creativity. Following that, we will briefly review trends and creative processes in domestic human-AI collaborative performance arts, divided into dance <Beyond Black>, music <Sangmyung AI+X Project I AI Concert>, and theatre <Paphos 2.0>, among other examples from various performing arts fields. Lastly, we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human-AI collaborative performance arts from the perspectives of existence and aura.

Keyword • Artificial Intelligence, Augmented Creativity, Performing Art, Collaborative Creation, Presence, Digital Aura

■ 논문투고일:2024.02.25. ■ 심사완료일:2024.03.14. ■ 게재확정일:2024.03.20. ■

해녀 표상과 로컬리티

: 서양화가 임호의 <해변>을 축으로*

김정선**

목 차

1. 들어가며
2. '해녀상'의 출현: 천역(賤役)에서 모범직업의 여성으로
3. 임호의 <해변>과 로컬리티
4. 나가며

1. 들어가며

“해녀는 탐라 제주의 상징이다. 망망한 대해 속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들의 싱싱한 모습들이 바로 한라산의 딸들이다. 해녀는 탐라 제주의 근로의 여신이다. 춘하추동 사시절(四時節)에 밭에서 김 안 매면 바다에서 물질을 송고한 제주의 딸들이여”¹⁾

깊은 바다 속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 해산물을 채취하며 출산 전후에도 물질을 쉬지 않는 ‘강인함과 근면함’은 오랫동안 해녀를 설명하는 수사가 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 비천한 신분으로, 저승길 오락가락하며 생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1) 우낙기,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 1965, 13쪽.

계를 위해 물질을 해야 했던 “비참애상(悲慘哀傷)”²⁾의 여성이 제주의 상징이자, 근로의 여신으로 명명되는 과정은 해녀에 대한 인식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욕망에 따라 발견되거나 변화되는 산물임을 시사한다.

해녀를 둘러싼 이러한 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 다수의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강인한 여성’으로 인식되어 온 ‘해녀상(像)’이 토착사회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원형이 아닌, 시대의 욕망이 발견한 상상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주목되었다.³⁾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모하는 해녀 표상의 담론은 근·현대기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논고에서는 해녀를 주제로 한 작품들에 투영된 시대별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소라와 해녀의 화가’라 불렸던 서양화가 임호(林湖, 1918~1974)의 대표작 <해변>을 통해 종래 작품과 차별화되는 해녀 도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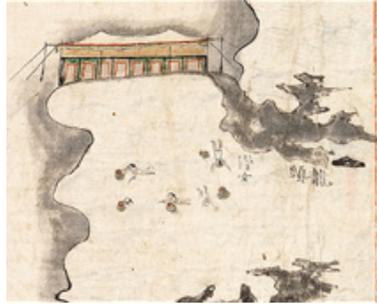
해녀는 임호가 평생을 천착했던 주제였으며, 부산 1세대 서양화가로서 지역 미술과 민족 미술의 실천을 고심하던 그에게 로컬리티를 넘어 민족적 정서의 발현이기도 했다. <해변>에 보이는 강인한 해녀상과는 차별되는 서정적인 향토경은 이러한 그의 고심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소론에서

-
- 2) “비참애상의 주인공인 제주해녀의 생활”, <동아일보>, 1924.04.28.
 - 3) 제주 해녀와 관련해서는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권 봄호, 한국사회학회, 1996.; 안미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1998.; 김동현, 「제주 해녀 표상의 사적 변천 연구」, 『한국언어문화』 6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 4) 해녀를 주제로 한 작품 연구는 미진한 상황으로, 일부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이정민, 「국전 동양화부의 여성 인물화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2014.; 조은정, 「한국전쟁기 난민화가의 제주도 이미지에 대한 연구」, 『인물미술사학』 5호, 인물미술사학회, 2009.; 송준영, 「1950~80년대의 제주도 관광 시선 분석: 장리석 회화와 제주 관광 안내서 속 해녀 이미지를 중심으로」, 『영상문화』 43호, 한국영상문화학회, 2023.

는 이 점에 주목하여 해녀 표상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해녀상’의 출현: 천역(賤役)에서 ‘모범 직업의 여성’으로

현재 가장 오래된 해녀 모습은 1703년 화공 김남길이 제작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1702년 가을에 실시했던 순력과 다양한 행사를 기록한 화첩으로, 서문 2면을 포함해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그림 1] <병담범주>, 《탐라순력도》, 1702년, 국립제주박물관 [그림 2] <병담범주> 중 해녀 부분도

이들은 긴 장막이 설치되어 있는 용두암 근처 바닷가에서 테왁과 망사리, 빗참과 같은 도구를 들고 수영을 하거나 잠수를 하고 있으며,⁶⁾ 이와 관련하여는 제주목사 이원조가 쓴 『탐라록』의 다음 구절이 주목된다.

“용연에서 약간 떨어진 용머리로 자리를 옮겼다(중략). 용두암은 머리의 뿔 모양이 완연히 용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언덕마루가 평평한 곳에 장막을 쳤다(중략). 고깃배들은 점점이 오간다. 잠녀 수십 명을 불러들이니 해

5) 《탐라순력도》는 그림 41면과 서문 2면의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은 지도 <한라장축(漢拏壯嶽)> (1면)에서 시작하여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 간 실시된 가을 순력이 28면, 일상적 풍속이 11면, 후에 덧붙여진 <호연금서(浩然琴書)> 1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9491>.

6) 고광민, 『탐라순력도』 속의 해녀연구, 『무형유산』 6호, 국립무형유산원, 2019, 222-224쪽.

삼과 전복을 캐서주었다(중략). 점심밥이 오기 전에 잠녀들에게 쌀과 콩을 주니 모두 기뻐하며 돌아간다.”⁷⁾

기록에 따르면 1843년 윤 3월 24일 이원조 일행은 용연에서의 뱃놀이가 끝나자 용두암 근처로 자리를 옮겨 장막을 치고 해녀를 불러 해삼과 전복을 상납 받았다. <병담범주>는 이러한 장면을 기록한 것으로, 제주 풍속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전복 진상이 주요한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선 후기가 되면 전복을 잡는 남성 포작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구역과 진상의 역이 잠녀들에게 전가되었다.⁸⁾ 주로 미역과 생복을 잡아 관아에 바쳤던⁹⁾ 해녀들이 전복 진상의 역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미역에 비해 깊이 잠수해야 하는 전복 채취는 매우 고되고 어려운 일이었다.¹⁰⁾ 이 시기 문헌에서 해녀는 이러한 과도한 역을 짊어 진 애처롭고 처연한 여인들로 묘사된다.

“위태롭구나 저기 전복 따는 아낙
바다에 벗은 몸을 던지니
괴로운 생애가 애처롭구나
어진 사람은 차마 먹을 수 없네.”¹¹⁾

“통포(統浦)에서 해녀가 전복 잡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알몸을 표주박에 의지한 채 거꾸로 몸을 세워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니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듯 해오라기가 물속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이었다. 차마 눈뜨고 바

7) 고광민, 앞의 논문, 222-224쪽.
8) 이원조, 『탐라록』, (고광민, 앞의 논문, 223쪽. 재인용)
9) 이것은 『제주풍토기』(1630년)에서 잠녀는 ‘미역을 따는 여자(採蘆之女謂之潛女)’이며, ‘생복을 잡아서 관아에 바치는 역(生鮑之捉亦採取應官家所徵之役)’으로 기술하고 있다.
10) “전복을 따는 것은 미역을 채취하는 것에 비하여 매우 어렵고 고되어 잘못하면 그 얼굴이 시커멓게 초취하게 되어 걱정과 고난으로 죽다가 살아난 모습을 하게 된다.” 김춘택, 『북헌거사집(北軒居士集)』, 1710년.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사료집』, 2009, 57쪽. 재인용)
11) 이에연, 「탐라팔영(耽羅八詠)중 「採鮑」, 1832년.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사료집』, 2009, 73쪽. 재인용)

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바야흐로 때는 여름날 맑은 날이긴 하지만 아니 무더운 날에도 한기의 피해를 입는다. 하물며 쌓인 눈이 크게 얼어도 관리들은 전복 캐오기를 독려하니 회초리로써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아닌가. 진장(鎭將) 역시 처연한 생각에 즐겁지 않아 철수를 명령하자 곧바로 나오니(전복 중) 뛰어난 것은 돈을 주고서 꺾어서 그들을 위로했다.”¹²⁾

게다가 거의 알몸으로 자맥질을 하는 해녀들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해괴하고 기이한 광경”¹³⁾이었으며, 오랜 물질로 “창백한 피부에 붉게 빛바랜 머리카락은 요괴나 귀신”¹⁴⁾에 빗대어지기도 했다. 19세기에 들어 진장과 공납의 고역이 모두 사라지게 되나, 근대 이전까지도 해녀는 반나체의 모습으로 고된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천한 존재였다.

이러한 연유로 엄격한 유교적 질서 속에서 비천한 신분엔 신체를 드러내는 해녀는 오랫동안 그림의 주제가 되지 못했다.¹⁵⁾ 본격적으로 해녀가 작품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향토색이 요구되던 192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주최의 조선미술전람회에는 일본인 화가 미호 반쇼(三戶萬象)의 <해녀>(1928년)를 시작으로 김기창의 <해녀>[그림 3, 4], 김인지의 <해녀> 등 다수의 작품이 출품되었다[표 1].

12) 위백규, 『존재전서(存齋全書)』, 1791년.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사료집』, 2009, 66쪽. 재인용)

13) “미역을 캐는 여인을 잠녀(潛女)라 부른다. 2월에서부터 5월에 이르기 전까지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캔다. 미역을 캐 때에는 소위 잠녀들이 벌거벗은 알몸[赤身露體]으로 물가에 그득히 들어선다. 낮을 가지고 물밑바닥에 들어가서 미역을 캐서 끌고나온다. 남녀가 뒤섞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해괴하다.” 이견, 앞의 책

14) 이복규, 「채복녀(採鮑女)」 “이름은 고기 잡는 명부(潛女案)에 올라 있고./ 발붙인 곳은 인어가 사는 곳 같다네./ 창백한 피부에 붉은 머리카./ 무엇이 요괴나 귀신과 다르랴. (名參漁蠻籍, 足踏鮫人居. 霜膚赤髮髮, 何異魑與魍)”

15) 반면에 일본의 경우, 우키요에(浮世繪)를 중심으로 다수의 사례가 남아 있다. 海の博物館, 『浮世絵から見る海女』, 2016.

[표 1] 조선미술전람회 해녀 작품 목록

시기	작가, 작품명	부문
1927(제6회)	三戶萬象, <海女>	동양화
1932(제11회)	최덕용, <석양의 해녀>	서양화
1934(제13회)	荒井竜男, <海濱의 旗>	서양화
1936(제15회)	김기창, <해녀>	동양화
1938(제17회)	정종여, <濱>	동양화
	김인지, <해녀>	서양화

1930년대 제주도를 방문한 서양화가 츠루다 고로(鶴田吾郎)가 “전혀 근대 문화가 어디 있는지 먼 곳과 같은 느낌이 든다” 라며¹⁶⁾ 해녀를 근대화의 선례에서 남겨진 조선 특유의 주제로 인식했던 것처럼, 이 시기 해녀는 문명화 되지 않은 조선의 원시적, 지방적 풍속이자 조선 향토색을 대변하는 절호의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조선미전에 출품된 작품에는 갯바위나 해녀들이 잠시 쉬기 위해 불을 피워 둔 불턱 등을 배경으로 검게 그을린 건장한 신체의 해녀들이 테왁, 망사리, 빗참 등 특유의 풍물과 함께 등장한다.¹⁷⁾ 게다가 어깨 끈이 달린 물웃 사이로 자연스럽게 노출된 신체는 에로틱한 지방적 소재이자, 도시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원시적인 육체미로 표현되었다.



[그림 3] 三戶萬象, <海女>, 1927년



[그림 4] 김기창, <해녀>, 1936년,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그림 5] 杉山寧, <해녀>, 1934년, 光市文化센터

16) 鶴田吾郎, 「濟州道素描」, 『みづえ』364호, 1935.06., 14쪽.

17) 이러한 원피스형의 해녀복은 191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며, 1971년에 고무 해녀복이 등장하기까지 오랫동안 착용한 노동복이었다. 고광민, 앞의 논문, 229쪽.

특히 해녀들의 강한 생명력은 배경에 등장하는 거친 파도를 통해 강조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1934년 일본 제전(帝展)에서 특선을 수상한 스기야마 야스시(杉山寧)의 <해녀>[그림 5]에는 조각배에 몸을 실은 2명의 해녀 뒤로 포말을 일으키는 높은 파도가 등장한다. 당시 신문지면에 사진과 함께 소개되기도 했던¹⁸⁾ 본 작품에서 파도는 역경을 이겨내는 해녀의 강인함을 드러내는 극적인 장치로 이용되었다.

김기창은 1936년 <해녀>를 제작하는데 있어 스기야마의 작품을 상당부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화면 뒤쪽으로 펼쳐지는 높은 파도를 비롯해 화면 중앙에 배치한 가슴을 드러낸 좌상의 여성과 그 옆에 능름히 서 있는 입상의 인물들에서 유사성이 간취된다. 게다가 넘실거리는 파도는 김기창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다음 회고에 따르면 해녀는 목포에서, 파도는 함경북도 흥남 앞바다의 사쟁을 통해 완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목포에도 해녀가 있다는 친구의 편지가 와서 목포로 갔더니 이동해녀군(移動海女群)이 겨울인데도 와 있어 그들을 모델로 했다. 배경에 그려야 할 멋있는 푸른 파도가 있는 곳이 필요해서 수소문했다. 함흥근처 흥남 앞 바다에 유명한 절벽이 있고 파도가 세차서 장관을 이룬다고 함흥에 있는 이당 화백 동문인 안명준형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아직도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곧 떠났다(중략). 눈보라 치는 사이로 수평선은 자욱히 안개에 싸였지만 발아래에는 검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면서 몰려와 바위에 팡 부딪치면서 하얀 물거품을 사방으로 튕겨 날리는 것이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¹⁹⁾

그런데 이러한 강하고 근면한 해녀의 이미지는 전술했듯이 전통적인 산물이라기보다 근대 이후 출현한 새로운 ‘해녀상’이라 할 수 있다.²⁰⁾ 과거의 공납제적 생산양식에서 20세기 이후 임금 노동자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18) 『부산일보』, 1934.10.19.

19) 김기창, 『나의 사랑과 예술』, 정우사, 1977, 128-129쪽.

20) 권귀숙, 앞의 논문.; 김동현, 앞의 논문.; 문경복,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해녀 노동 연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20. 등이 있다.

해녀들은 “조선 수산업계의 중대한 현상”²¹⁾이자, “생활전선의 제일선에서 삶을 위해 용감히”²²⁾ 싸우는 근로의 여신으로 새롭게 호명된 것이다.

실제 제주 해녀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돈을 버는 출가(出稼)²³⁾가 시작된 이래,²⁴⁾ 이들의 노동력은 조선 수산업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1933년 제주 해녀 1만 2천 명이 출가를 통해 일궈낸 어획 판매액이 130만 엔을 넘어설 정도였으며, 이들의 활약상은 “제주도의 경제를 좌우할 뿐 아니라 조선 수산계의 일대 영웅”²⁵⁾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해녀의 검게 그을린 건장한 신체는 다음 기사처럼 식민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용맹한 노동자의 상징으로 언급되었다.

“우리 부산의 수산 무역의 그늘에는 그들 해사(海士, 해녀)의 용감한 노력의 결정이 담겨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중략). 검은 피부는 여러 해 바다와의 전투에 교착하여 여성 예찬적인 육체미는 찾을 수 없으나, 그들의 용감함을 표현하는 일종의 건강미, 자연의 방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맹한 전투정신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²⁶⁾

이처럼 근대 이후, 해녀는 당대의 정치 경제적 맥락 속에서 과거의 미천한 여성상에서 강하고 근면한 “모범적 직업 부인”으로 급속히 탈바꿈되었다.²⁷⁾

-
- 21) “해녀에 일년 벌이 실로 백만원 이상”, <동아일보>, 1920.04.22.
 - 22) “위대한 예술품? 砂上の 여인군상, 해녀의 육체예찬”, <부산일보>, 1932.07.25.
 - 23) 좁은 의미에서 출가는 날이 따뜻한 4월에서 8월까지 제주 해녀가 육지로 물질을 떠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출향(出鄕)과는 차이가 있다.; 고미, 「제주해녀 출가 배경과 정착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23, 7쪽.
 - 24) 출가가 시작된 시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대체로 1887년 부산부 목도(牧島, 현 영도)로 간 것을 시초로 보고 있다.
 - 25) “朝鮮漁組의 영웅, 제주도해녀어업조합”, <동양수산신문>, 1933.10.05.
 - 26) “春淺의 바다에 인어 같은 해녀”, <부산일보>, 1926.03.05.
 - 27) “그들이 만약 아이를 밴다하면 만삭되었을 때와 산후 일 개월 간 물속에 못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전부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럼으로 그들의 체격은 몹시 건장하고 그들의 피부 빛은 적갈색이며 추위도 추위를 모르고 아파도 병을 모르

19세기 천역의 의무가 사라진 이후에도 여전히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해녀들의 참담하고 고된 실상은 강한 여성이라는 표상의 방식을 통해 미화되고 합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따라서 이 시기 작품들에 보이는 당당한 자세에 때로는 희생과 모성을 를 자극하는 새로운 해녀상은 일제강점기 식민사회와 남성들의 욕망이 만들어 낸 또 다른 표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초적이며 강인한 해녀들의 이미지는 전후 국전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소비되었다. 이양원의 1970년대 작품 <소망>과 <대망>[그림 6. 7]에 보이는 모성애와 거센 파도를 배경으로 물웃을 동여매는 해녀의 비장한 모습은 여전히 이들 해녀상이 유효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림 6] 이양원, <소망>, 1976년



[그림 7] 이양원, <대망>, 1979년



[그림 8] 임호, <해변>, 부산시립미술관

그런데 이들 작품에 비해 비슷한 시기 제작된 <해변>[그림 8]에는 거친 파도의 극적인 효과도 노동의 고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본 작품이 불턱에서 몸을 말리는 해녀들의 일상적 풍광을 그린 것이라 하더라도

는 참으로 모범적인 직업부인이다.”, “남쪽나라 제주순례(6), 인어같은 해녀”, <매일신보>, 1926.12.06.

28) 해녀가 해조류를 판매하고 받는 실제 수입은 판매 수수료, 해녀조합 수수료, 조합비, 선두(船頭) 임금, 거간 사례비 등을 공제하면 2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박찬식, 앞의 논문, 155쪽.

물웃이 아닌 적, 황색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빗겨주는 소녀들의 옛된 모습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강인한 삶을 이어가던 “해양의 여성”²⁹⁾으로서 해녀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화면은 푸른 바다와 치마 저고리의 붉은색, 노란색의 대비를 통해 밝고 선명해 졌으며, 여성들의 이국적인 얼굴과 포즈는 역센 삶의 현장이라기보다 낭만적인 분위기마저 자아낸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해변>을 임호의 화력(畫歷) 가운데 살펴보고자 한다.

3. 임호의 <해변>과 로컬리티

1) 로컬리티의 발견

1918년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난 임호는 오사카미술학교(大阪美術學校)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1944년 귀국했다. 이후 마산여자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49년에 혁토사(赫土社)의 전신인 경남미술연구회를 조직하고 그룹 활동을 전개하였다. 혁토사는 지역성과 사실주의를 공유하며 민족 미술의 원형을 찾기 위해 노력한 부산 근대 미술의 중요한 그룹 가운데 하나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민족성에 대한 탐구는 1953년 토벽회 결성으로 이어진다. 같은 해 영남상업고등학교 재직을 계기로 부산에 정착한 그는 고혈압으로 작고하기까지 지역 미술의 특색과 향토적 정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부산의 대표적인 1세대 서양화가라 할 수 있다.

여행과 사생을 즐겼던 임호는 주로 해변이나 항구의 풍경, 일하는 여성, 목동 등 주변의 일상적이고 향토적인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화실 한편에 온실을 만들 정도로 화초와 선인장을 좋아했고,³⁰⁾ 바다와 관련된 소라, 게,

29) “화폭에 풀어낸 여성의 역동적인 삶”, <부산일보>, 2020.10.22.

30) “영도 대평동의 그의 작은 화실은 여느 화가와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 장식으로 가득했다. 손수 만든 새장에 십자매와 앵무새를 키우기도 하고, 화실의 반은 온실로 만들어 여러 종류의 화초를 키웠다. 특히 그가 애써 수집한 백여 종의 선

명태를 비롯해 불상, 연꽃 등 불교적 소재를 다루기도 했다.[표2] 197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원색 위주의 사실적인 풍경에서 벗어나, 따듯하고 밝은 색채와 초현실적이며 몽환적인 세계를 통해 이상향을 표출하고자 했다.³¹⁾

특히 바다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였다. 바다의 맑은 빛깔과 파도 소리에 지역만의 독특한 개성을 느꼈던 그에게 해녀는 바다와 더불어 일생에 걸쳐 천착했던 주제가 된다.

“『좋아하시는 소재는?』 『바닷가죠. 부산 사람치고 그 해맑은 빛깔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한 해조음(海潮音)적인 체질이 작품엔 안 나타날 수 없지 않아요?』”³²⁾

다만, 임호가 처음부터 바다를 선호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본 유학시기에 대체로 <만춘저촌(晩春渚村)>(1942년), <어전산(御殿山)의 봄>(1943년), <초추(初秋)의 자하리>(1944년, 제23회 조선미전 입선) 등 일본과 한국의 산과 들을 주로 사생했던 그가 바다와 해녀에 대해 관심은 가지기 시작한 것은 마산에서 교편을 잡았던 1940년대 후반 이후로 추정된다. 현재 가장 빠른 시기의 작품으로 1950년 5월 제2회 혁토사전에 출품한 <해녀>가 확인되나, 당시 양달석이 미전평에서 “임채완씨, 모두가 구작(舊作)이라 시비를 운운(云云)함은 이 후의 신작에 미루고”³³⁾라고 언급하고 있어, 이미 1950년 이전부터 해녀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난히 사생과 여행을 즐겼던 그가 마산 정착 이후 주변 풍경과 풍속에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³⁴⁾ 전술했듯이 경남, 부산지역에는 이

인장은 작은 식물원을 방불케 했다.”, “신태범의 부산문화 야사”, <국제신문>, 2001.03.01.

31) 부산시립미술관 작품 해제 (https://art.busan.go.kr/tblTsite07ArtworkExp/viewClient.nm?id=399&id=858&manage_no=06%ED%9A%8C-841).

32) “아뜰리에 탐방 임호”, <부산일보>, 1971.08.31.

33) 양달석, “혁토사미전평(下)”, <산업신문>, 1950.05.27.

34) 첫 부임지였던 마산여고는 마산항과 멀지 않은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위치하고

미 일제강점기부터 제주도에서 출가한 해녀들의 수가 상당했고, 당시 경남미술연구회를 함께 결성하며 교류를 이어갔던 이림, 김남배의 초기작에서도 해녀를 주제로 한 작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그림 9).³⁵⁾ 경남 내륙 출신이었던 그가 귀국 이후 접한 남해 바다와 해녀의 모습은 당대 비평처럼 “기발신선(奇拔新鮮)한 소재”³⁶⁾였으며, 그의 화업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9] 이림, <해녀>, 1944년, 부산시립미술관

이후 임호가 제주도 풍광을 비롯해 해녀를 적극적으로 출품한 것은 지역 작가들과 조직한 토벽전이였다.³⁷⁾ 토벽동인은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3년에 외지에서 온 화가들에게 저항감을 느낀 부산지역 화가들이 “부산의 토질적인 특질을 작품으로 구현해보기 위해”³⁸⁾ 결성한 단체였다.³⁹⁾ 토벽전은 1950년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서양화가 김경, 김영교, 김윤민, 김종식, 서성찬(1회만

있었다.

35) 김남배(1904~1991)는 양(염소)을 즐겨 그린 화가로 유명하나, 초기 작 중에 <바다>(1949년, 민중중보사 주최 제2회 부산미술전), <해녀>(1955년) 등이 확인된다.

36) “美展評(미전평) 嶺土社展(혁토사전)”, <부산일보>, 1950.05.27.

37) 실제 이 시기 임호는 제주도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찾을 수 없으나, 다만, 임호가 1950년 중부전선 종군화가단으로 활동했던 점, 당시 일부 화가들이 해군 정훈실에 소속되어 제주에 파견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호 역시 종군화가 혹은 유사한 형태로 제주도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

38) 김윤민, 「6·25 공간의 한국미술-부산화가들의 새모색, 토벽전」, 『월간미술』, 1990, 57쪽.

39) ‘土壁’은 ‘토박이’라는 의성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부산 거주 토박이 작가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흙으로 된 담의 한자이기도 하다.

참석), 임호를 주축으로 1954년까지 총 3회 개최되었으며,⁴⁰⁾ 이들의 정체성은 제1회전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회화라는 것이 한 개 손끝으로 나타난 기교의 장난이 아니요. 엄숙하고도 진지한 행동의 반영이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예술이라는 것이 부박(浮薄)한 유행성을 띄운 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필경 새로운 자기 인식 밖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여기에 우리들은 민족의 생리적 체취에서 우러나오는 허식 없고 진실한 민족미술의 원형을 생각한다.”⁴¹⁾

즉, 미술은 부박한 유행을 따르기보다 엄숙하고 진지한 행동의 반영이어야 하며, 외지 화가들의 모더니즘적, 추상적 경향과 달리 사실적인 기법으로 민족적, 토질적 정취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김종식에 따르면 당시 출품된 작품은 다음과 같았다.

“그때 김윤민은 소를 그렸고 김경은 명태, 김영교는 산을 그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부분이 사실화였어요. 나(김종식)는 램프, 물동이 인 처녀, 농촌 풍경 등을 즐겨 그렸어요. 임호도 들판, 염소 등을 그렸고.”⁴²⁾

대체로 소, 명태, 염소, 농촌 등 향토적인 소재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로, 임호 역시 토벽전에 동시대 현실을 반영한 <건설보(建設譜)>, <구두담이 소년들>과 함께, 해녀, 제주풍경, 염소, 들판 등을 출품했다.[표2] 유행을 쫓기보다 당대 현실을 진솔하게 마주하고 지역만의 미술을 고심하던 이들에게 향토적 주제는 이제 단순한 풍경과 풍속을 넘어 외지 작가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로컬리티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중앙 화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지역 화가들이 ‘부산적인 것, 민족적인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토벽

40) 토벽동인과 관해서는 『부산 토박이, 토벽동인의 재발견 전시 연계 심포지엄 및 아카이브 자료집』, 부산시립미술관, 2016.

41) 『제1회 토벽동인전』, 팸플릿, 「인사말」, 1953. (부산시립미술관, 앞의 자료, 199쪽. 재인용).

42) 『김종식화집』, 부산일보사, 1988, 180쪽.

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임호의 바다 주제 그림은 비록 일부 제주의
 풍물과 풍광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발견과 무
 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해변>에는 기발신선한 소재를 넘
 어 “자연인에게 풍토적 특성이 있듯 예술인에게도 공통적 개성이 없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던 지역성에 대한 고민이 살펴진다.

[표 2] 임호 전시회 출품작 목록⁴³⁾

년도	전시회	출품작
1949	제1회경남미술 연구회작품전	<난설(亂雪)> <대화> <시그널> <개천> <황혼의 거리> <가야산암자> <소녀상>
1950	제2회 혁토사전	<바느질>, <바다>, <해녀> 등
1951	戰時미술 전람회	<소의(素衣)의 여인>
1951	대한미술협회 미술전	<해바라기와 해녀>
1952	3.1절기념미술 전	<응시>, <논의 하단풍경>
1953	제1회토벽전	<여로(旅路)-자서전초(自叙傳抄)> <해바라기와 해녀> <여인> <별>
	제2회토벽전	<한라산 기슭> <절벽> <아침> <해변(海邊)> <해풍>
1954	제3회토벽전	<건설보(建設譜)> <구두담이 소년들> <자유> <오월의 수향(水鄉)> <제주도 풍물> <피리부는 소년>
1955	제1회개인전	<조탑(早塔)> <고등(古藤)> <목동(牧童)A> <목동(牧童)B> <꽃바구니의 소녀> <고냥(故娘)> <선인장A> <선인장B> <산과 하 늘> <신록(新綠)> <제주풍경> <나녀(裸女)> <관음(觀音)> <우의 (雨衣)의 소녀> <웅계(雄鷄)> <백일(白日)> <해풍(海風)> <건설보> <진주(眞珠)> <피리부는 소년> <종백과 소녀> <수련> <여로>
	제1회군록전	<우의의 소녀> <고냥> <꽃바구니> <백일>
1956	3.1절 경축합동전	<낙동강> <국화>
	제1회흑마전	<허(嘘)> <환희>

43) 목록은 『부산의 작고 작가3 임호』(부산시립미술관, 2010)을 바탕으로 『부산일
 보』, 『국제신문』 등을 참조하여 추가 작성하였다.

	제2회개인전	<허> <난(亂)> <군맥(群脈)> <절벽> <정(情)> <사향(麝香)> <어막(魚幕)> <양춘(陽春)> <병(瓶)> <찬(澗)> <행(幸)> <추립(A)> <추립(B)> <다보탑> <십일면관음> <청동약사> <제주도 인상> <목마> <성산포A> <성산포B> <나녀(裸女)와 조롱(鳥籠)> <흑선(黑扇)> <해경> <색동옷> <별> <풍화(風化)> <등(燈)과 벌레> <아마리리스>
	광복절건국 10주년축하 경축미술전	<환>
1958	제3회개인전	<선인장과 여인> <아침> <평화> <백영(白影)> <빛> <수(愁)> <풍과(豊果)> <공작선인장> <대낮> <해변> <독서> <산길> <피리부는 소년> <설산(雪山)> <가죽> <밤> <망양(望洋)> <써-커스> <절벽> <항아리 있는 풍경> <관음(觀音)> <부각(浮刻)> <낙일(落日)> <마리아>
	제10회 경남미술 교육연구회회 원전	<독서>
1959	제4회개인전	<절벽> <산> <망양> <한라산> <관음> <부각> <아침> <엽란(葉蘭)과 여인> <열대식물과 소녀> <선인장과 여인> <풍과> <정(情)> <독서> <수련> <관엽식물> <성산포A> <성산포B> <해변> <산길A> <산길B> <피리부는 소년> <공작선인장 A> <공작선인장 B> <공작선인장 C> <제주풍물> <수(愁)> <써커스> <꽃과 푸로필> <추정(秋情)> <꽃장수 소녀> <풍경> <나무> <계발선인장> <흑선(黑線)> <벽화>
1961	제8회군록미전	<수련> <해변>
	미협회원전	<추정(秋情)> <정>
1963	제1회부산 예술제미술전	<해변>
1964	개인전 임호양화전	<건설보> <비상> <추정> <해변> <군맥군(群脈)> <해정(海情)> <공작선인장> <부각(浮刻)> <파도> <정> <명태A> <명태> <여인과 선인장> <소녀와 열대식물> <그라지오라스소라와 새우> <건어(乾魚)> <부산향> <생선> <정물> <미망인> <관음상> <서조(瑞朝)> <여인과 새장>
	제5회개인전	<서조> <비(飛)> <해변> <해정> <건설보> <명태> <추정(秋情)> <시청 앞> <새우 있는 정물> <나녀와 열대식물> <건어> <설산> <납새미와 소라> <영도다리> <도장하는 배> <오월(五月)의 여인> <눈 오는 날> <여인과 식물A> <여인과 식물B> <가재와 소라> <패류(貝類)> <공작선인장> <알바다> <산길> <훈풍(薰風)> <그라지오라스> <파도> <꽃장수와 소녀> <수련> <하늘> <초원> <수평선>

1965	개인전 임호유화전	<사립(砂立)> <한라산> <풀밭> <수련A> <수련B> <아침> <성산포> > <난(欄)> <나> <청추(淸秋)> <정> <해변의 삽화> <어심> <수심(水心)> <낙동강> <어개(魚介)> <오월(五月)> <그라지오라스> <여인과 식물> <계곡> <양지(陽地)> <생선A> <생선B> <통대구> <청사(廳舍)> <조개껍질> <풍경>
1967	벽화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	<이집트 벽화>(지하식당) <송도해수욕장 여인>(주차장)
1973	개인전	<한라산>, <흑과 적>, <해정A> 등 30점
1973	개인전 임호작품전	<현(顯)> <추과(秋果)> <소라와 생선> <오월> <풀밭> <동해> <꽃 과 소녀> <해변군상> <건어(乾魚)> <한라산> <성산포> <수심(水 心)A> <수심(水心)B> <하늘> <설령(雪嶺)> <강변> <강구(江口)> <밤의 정물> <고기(古器)와 굴> <고기(古器)> <오월의 풍경> <해 정A> <해정B> <소라A> <소라B> <염(鹽)> <벽화(Egypt)> <해변>
1973	개인전 임호작품전	<한라산> <해변군상> <소년과 양> <사출> <초원> <홍(虹)> <설령 (雪嶺)> <하변(河邊)> <해(蟹)> <낙동강> <수심> <꽃과 소녀> <간조(干潮)> <해안> <설악산> <오월풍경> <풍만> <라(螺)> <어 (漁)> <고전> <십일면관음상A> <십일면관음상B> <고전(십일면 관음상C)> <고전(청동관음)> <축등(祝燈)A> <축등(祝燈)B> <하구 A> <하구B> <하구C> <석류> <고기(古器)와 국(菊)> <춘해(春海)> <탑> <사원(砂原)>

2) 임호의 화력과 <해변>

현재 부산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변>은 임호의 해녀를 주제로 한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한 점이다.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71년 개인전에 출품된 <해변군상>을 비롯해 유사한 작품이 2점 알려져 있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 및 등장인물 등 몇몇 모티브를 제외하고 거의 흡사해, 같은 시기 비슷한 주제의 작품을 여러 점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임호는 해녀를 비롯해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다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여성의 옆얼굴을 배치한 <해녀>(그림 10), <한라산>, <여인과 풍경> 등에는 갈색으로 그을린 건강한 피부에 자연 속에서 등짐을 지거나 바구니를 들고 있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현모양처도 누드도, 독서하는 여성도 아닌 노동하는 여성을 그린 이들 작품에서 폐허를 딛고 일어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겠으나,⁴⁴⁾ 이국적인 얼굴로 먼 곳을 응시한 채 서 있는 모습은 힘겨운 삶의 현장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엄격한 측면향은 서구 르네상스 회화를, 그리고 풍만한 신체와 시선은 당대 영화나 관광 안내책자에서 소비되던 해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그림 11].



[그림 10] 임호, <해녀>, 개인소장



[그림 11] 영화 <해녀> 포스터사진, 1964년

이러한 점은 임호가 여전히 “인어의 현형, 자연의 미인”⁴⁵⁾ 등으로 언급되었던 해녀 표상의 담론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옛된 얼굴이나 연출된 자세는 그가 일상적 주제를 취하면서도 현실을 재현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해녀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군상 작품인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 벽화에서 찾을 수 있다.⁴⁶⁾

1967년 임호는 지하 식당과 주차장 벽면에 각각 이집트 벽화와 해녀를 주제로 부조 작품을 설치했다[그림 12]. 바닷가를 배경으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4명의 해녀를 배치한 작품으로, 실제 해녀들을 사생했다기보다 여

44) “김준기의 부산미술 다시 읽기, 임호”, <부산일보>, 2009.01.11.

45) “남쪽나라 제주 순례”, <매일신보>, 1926.12.06.

46) 임호의 큰딸인 임혜경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미술을 후원하던 한전 사장과 교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벽화 제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 토박이, 토벽동인의 재발견 전시 연계 심포지엄 및 아카이브 자료집』, 부산시립미술관, 2016, 207쪽.

러 여성상을 조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향우측의 여성은 1960년대 제작한 <해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있는 포즈 등은 그가 서구 회화의 근간 아래, 해녀 도상을 새롭게 변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해녀군상>,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 벽화, 1967년(필자촬영)

이러한 점은 전술했던 <해변>에서도 동일하게 간취된다. 바닥에 널려 있는 낡은 양은 냄비, 고무신, 물고기, 전복, 멍게 등의 서민적이고 토속적인 모티브에 비해, 이국적인 해녀들의 얼굴과 자세는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와 관련해 임호의 다음 인터뷰 기사가 주목된다.



[그림 13] 임호, <미상>, 부산시립미술관

“현대기법으로 임하더라도 동양적인 혹은 민족적인 감정에서 그것을 구사해야한다는 것이 임씨의 지론이다. 그래선지 그는 여백을 살림으로써 화면 구성을 조화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그 좋은 예로 바닷가를 소재로 한 그의 작품을 들 수 있다. 해변의 바위, 소리에 밝은 빛깔의 파도가 시적인 조화를 이루고 모래밭을 <동양적 여운>으로 처리하고 있다.”⁴⁷⁾

47) “아뜰리에 탐방 임호”, <부산일보>, 1971.08.31.

즉, 현실의 재현적 묘사에서 벗어나 그가 추구하고자 한 것은 “바다를 닦은 밝은 빛깔과 시적 조화”를 이룬 서정적, 토속적인 풍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변>에 보이는 기존의 강인한 해녀상과 다른 밝은 색채와 낭만적 풍광은 재현을 넘어 시적 조화를 이루고자했던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넘은 관념적 세계에 대한 관심은 이후, 1970년대의 몽환적, 초현실적 작품으로 이어진다[그림 13].

부산 1세대 화가로서 “서구 화풍을 모방한 소화불량적인 추상화보다 한국적 체질을 구사한 사실화에 전력하고 싶다”⁴⁸⁾고 했던 임호에게 바다와 해녀는 단순한 풍광을 넘어 지역과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재였던 것이다.

4. 나가며

이상, 소론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1세대 서양화가 임호의 <해변>을 중심으로, 근현대기 제작된 해녀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까지 천역의 대상이었던 해녀는 근대기 식민자본주의 영향 아래에서 강하고 근면한 “모범적 직업 부인”으로 급속히 탈바꿈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거센 파도를 배경으로 역경을 이겨내며 때로는 모성애를 자극하는 강한 해녀상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해변>에는 거친 파도의 극적인 효과도 노동의 고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색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담소를 나누며 머리를 손질하는 여성들의 모습에서는 해변가의 낭만적 분위기마저 감돈다. 눈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임호 화력에 있어 해녀 도상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변>이 해녀를 둘러싼 관능, 자연의 미인과 같은 또 다른

48) “한국적 특질 살린 작품”, <경남매일신문>, 1969.01.26.

표상을 재생산하고 있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한편으로 밝은 색채를 사용한 서정적인 향토경은 부산 1세대 서양화가로서 지역 미술과 민족 미술에 대해 고심하던 임호 화풍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1971년 서울에서 개최된 첫 개인전에 임호는 바닷가 풍경과 해물(海物)을 중심으로 한 유화 35점을 출품했다. 「바다 내음-임호 작품전」으로 소개된 본 전시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유화와 함께 영남지방에서 수집한 돌들을 수십 점 함께 전시한 점이었다.⁴⁹⁾ 지방적인 풍토와 정취를 느끼게 하는 이러한 연출이 비록 지역 작가에 대한 외부의 기대와 이에 대한 호응이 었다 하더라도, 부산 작가로서 자신만의 풍토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의지는 일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혁토사, 토벽회 등을 조직하며 일생에 걸쳐 민족과 지역 미술의 원형을 찾고자 했던 임호의 고심과 노력은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계기로 표상 연구에 매몰되기 쉬운 개별 작가 및 작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9) “바다내음-임호작품전”, <경향신문>, 1971.01.15.

■ 참고문헌

단행본

- 김기창, 『나의 사랑과 예술』, 정우사, 1977.
- 부산일보사, 『김종식화집』, 1988.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의 작고작가 3, 임호』, 2010.
- , 『부산 토박이, 토벽동인의 재발견 전시 연계 심포지엄 및 아카이브 자료집』, 2016.
- 우낙기,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 1965.
-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사료집』, 2009.
- 海の博物館, 『浮世絵から見る海女』, 2016.

논문

- 고광민, 「『탐라순력도』 속의 해녀연구」, 『무형유산』 6호, 국립무형유산원, 2019, 219-239쪽.
- 고 미, 「제주해녀 출가 배경과 정착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23.
-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권 봄호, 한국사회학회, 1996, 227-258쪽.
- 김동현, 「제주 해녀 표상의 사적 변천 연구」, 『한국언어문화』 6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137-156쪽.
- 김윤민, 「6·25 공간의 한국미술-부산화가들의 새모색, 토벽전」, 『월간미술』, 1990, 57쪽.
- 문경복,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해녀 노동 연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20.
-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호, 한국역사민속

학회, 2001, 135-164쪽.

송준영, 「1950~80년대의 제주도 관광 시선 분석: 장리석 회화와 제주 관광 안내서 속 해녀 이미지를 중심으로」, 『영상문화』43호, 한국영상문화학회, 2023, 343-372쪽.

안미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1998, 153-193쪽.

이정민, 「국전 동양화부의 여성 인물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4

조은정, 「한국전쟁기 난민화가의 제주도 이미지에 대한 연구」, 『인물미술사학』 5호, 인물미술사학회, 2009, 35-67쪽.

鶴田五郎, 「濟州道素描」, 『みづえ』 364호, 1935.06, 14쪽.

신문기사

“김준기의 부산미술 다시 읽기, 임호”, <부산일보>, 2009.01.11.

“남쪽나라 제주 순례”, <매일신보>, 1926.12.06.

“남쪽나라 제주순례(6), 인어같은 해녀”, <매일신보>, 1926.12.06.

“바다내음-임호작품전”, <경향신문>, 1971.01.15.

“비참애상의 주인공인 제주해녀의 생활”, <동아일보>, 1924.04.28.

“아뜰리에 탐방 임호”, <부산일보>, 1971.08.31.

“위대한 예술품? 砂上の 여인군상, 해녀의 육체예찬”, <부산일보>, 1932.07.25

“朝鮮漁組의 영웅, 제주도해녀어업조합”, <동양수산신문>, 1933.10.05

“春淺의 바다에 인어 같은 해녀”, <부산일보>, 1926.03.05.

“해녀에 일년 벌이 실로 백만원 이상”, <동아일보>, 1920.04.22.

“화폭에 풀어낸 여성의 역동적인 삶”, <부산일보>, 2020.10.22.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녀에 대한 인식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욕망에 따라 발견되거나 변화되는 산물임을 전제로, 근·현대기 해녀를 주제로 한 작품에 투영된 시대별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소라와 해녀의 작가라 불렸던 부산 1세대 서양화가 임호에게 있어 해녀 도상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조선시대까지 천역의 대상이었던 해녀는 근대기 식민자본주의 영향 아래에서 역경을 이겨내며 때로는 모성애를 자극하는 강한 해녀상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임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한 점인 <해변>에는 이러한 기존의 해녀상과는 차별되는 서정적인 풍토경이 펼쳐진다. 논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임호 화력에 있어 해녀 도상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해녀는 임호가 평생을 천착했던 주제였으며, 로컬리티를 넘어 민족적 정서의 발현이기도 했다. <해변>에 보이는 강인한 해녀상과는 차별되는 서정적인 향토경은 부산 1세대 서양화가로서 지역 미술과 민족 미술에 대한 고심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해녀, 표상, 임호, 로컬리티, 향토색, 부산 1세대 서양화가

■ Abstract

The Study on Representation of Haenyeo and locality : Focused on Lim Ho's <The Beach>

Kim, Jung Sun
/ Dong-A University

This study, on the premise that the perception of Haenyeo is not a fixed entity but a product that is discovered or changed according to social and political desires, traces the changes in perception by era as reflected in works on the theme of Haenyeo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icon of Haenyeo to Lim Ho, who was called the painter of “Conch and Haenyeo.”

In fact, Haenyeo, who had been subject to servile labor until the Joseon Dynasty, overcame adversity under the influence of colonial capitalism in the modern era, leading to the emergence of strong images of Haenyeo that sometimes stimulated maternal love. However, <The Beach>, one of Lim Ho's representative works, presents a lyrical landscape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Haenyeo. Paying attention to this point, the paper attempted to trace the meaning of the iconography of Haenyeo in Lim Ho's painting work.

Haenyeo were a topic that Lim Ho had been obsessed with throughout his life, and they were also a manifestation of national sentiment beyond locality. It can be said that the lyrical local scen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trong Haenyeo statue seen in <The Beach>, was the result of his consideration of local and national art as a first-generation Western painter in Busan.

Keyword • Haenyeo, Representation, Lim Ho, locality, local color, First-generation Western painter in Busan

■ 논문투고일:2024.02.25. ■ 심사완료일:2024.03.14. ■ 게재확정일:2024.03.21. ■

조선 시대 한글의 사용 양상*

백낙천**

목 차

1. 머리말
2. 본문
3. 맺음말

1. 머리말

훈민정음은¹⁾ 백성을 위한 문자로 창제되었으며, 이후 왕실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대부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한글의 사용을 확대해 나갔다. 물론 공식 문자는 여전히 한자였지만 배우기 쉬운 편의성을 갖춘 한글의 직접적 수혜자는 대체로 여성과 하급 관리였으며 점차 일반 백성으로 확대되면서 한글 사용 계층의 저변 확대를 가져왔다. 더욱이 한글의 사용 확대는 언해본, 교화서, 한자나 외국어 학습서 등의 한글 문헌이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식 문서 외에도 사적 소통의 매개, 소

* 본 논문은 2023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교수

1) 본고에서는 훈민정음이라는 용어 외에도 한글, 언문이라는 용어도 문맥에 따라 함께 사용할 것이다.

설과 시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는 등 지역적 확산과 더불어 한글 사용의 비중이 높아져 갔다. 즉, 사대부 남성들은 한자를 중심으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였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한자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한글을 통한 문자 생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글 사용의 확대를 가져왔다.

본고는 조선 시대에 한글의 사용 양상이 어떠한가, 한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중에서 한글 창제의 목적, 한글 사용의 주체, 한글 교육의 양상, 한글의 유통 과정 등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술하기로 한다.²⁾

2. 본문

2.1. 교화와 통치로서의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는 <어제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말을 온전하게 적을 수 있는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한자 차용 표기가 지닌 언문불일치의 문자 생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언문일치의 새로운 문자 생활의 전환을 가져 왔다. 세종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의 교화를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실록에 근거하는 역사적 사실이며 이를 통해 유교 이념의 확산 꾀하는 데에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래서 세종은 교화를 위해서는 백성을 위한 새로운 문자가 필요했음을 간파하였고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이른바 세종 친제설은 『세종실록』 102권, 12월 30일자에

2) 안병희(1985)에서 한글의 사용과 보급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시한 이후 백두현(2001)에서는 한글 교육과 한글 보급의 과정을 한글 관련 기사와 한글 문헌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언급하였고, 시정곤(2007)에서는 한글의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한 것을 그 방법, 교육 기관, 사회·문화·경제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폈으며, 김성규(2021)에서는 15·16세기 한글의 보급을 한글의 전파 상황과 문해 정도율을 통해 살폈다.

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세종은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고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³⁾

- (1)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일렀다(是月上親制 諺文二十八字 … 是謂 訓民正音). <세종실록 1443년(세종 25년) 12월 30일>⁴⁾

또한,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序)에서 밝힌 것도 세종 친제설을 뒷받침한다.

- (2)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히 예의를 들어 보이시면서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 二十八字 略揭例義示之 名曰 訓民正音).

그리고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1443년 음력 12월부터 이를 반포한 1446년 음력 9월까지는 훈민정음을 접하고 아는 사람들은 왕실 사람과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등 집현전의 일부 학자들이었을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 (3)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부수찬 신숙주, 이선로, 이개, 돈녕부 주부 강희안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東宮)과 진양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여(命集賢殿校理崔恒 副校理朴彭年 副修撰申叔舟, 李善老, 李埴 敦寧府注簿姜希顏等,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晉陽大君 瑀, 安平大君 瑢 監掌其事) <세종실록 1444년(세종 26년) 2월 16일>

즉, 세종은 1444년에 동궁(문종), 진양대군, 안평대군으로 하여금 <운회>의 번역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왕실 내에서 한글의 시범적 운용이 점진적

3) 이때의 언문이 한글을 낮추어 부른 이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훈민정음의 다른 이름으로 최초로 붙여진 것이다.

4) 이후 본고의 국문 실록 기사는 <국역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췌한 것이다.

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1444년 2월 20일에 최만리 등 집현전 학자 7인은 상소문을 올려 세종의 어문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세종은 운학에 대한 학문적 자신감으로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글을 반포하였다.⁵⁾

세종의 한글 창제가 백성의 교화에 큰 의미를 두었다는 것은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4) 또 정창손은 말하기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 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庸俗)한 선비이다.” 하였다. 먼것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又鄭昌孫曰 ‘頒布《三綱行實》之後 未見有忠臣孝子烈女輩出 人之行不行 只在人之資質如何耳 何必以諺文譯之 而後人皆效之’ 此等之言 豈儒者識理之言乎 甚無用之俗儒也 “前此 上教昌孫曰: “予若以諺文譯《三綱行實》 頒諸民間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忠臣孝子烈女 必輩出矣 <세종실록 1446년(세종 26년) 2월 20일>

(4)는 이른바 <최만리 반대 상소문>을 기록한 내용인데 충신, 효자 열녀의 이야기를 한글로 풀어 백성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세종의 한글 창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세종은 한글을 반포하면서 백성을 교화시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의 선발 시험에 신문자인 훈민정음을 시험 과목으로 부과하여 관리 선발 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를 위해 응시자는 정음 28자의 자형과 합

5) 훈민정음 창제 반대론자들은 신문자가 당시 동아시아 보편 문자인 한자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최만리 반대 상소문>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집현전 부제학인 최만리가 1444년에 반대 상소문을 올린 것은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한 집현전 내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사대부들의 한글에 대한 인식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글 창제의 반대 상소는 <최만리 반대 상소문> 단 한 차례뿐이었다.

자 등 문자의 운용을 익혀야 했음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한글은 관리 시험을 위해 익혀야 할 실용적 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5) 가. 지금 이후부터 이과(吏科)와 이전(史典)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에는 훈민정음도 아울러 시험하여 뽑되 비록 그 뜻과 이치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합자할 수 있는 자를 뽑도록 하라(今後吏科及史典取才時 訓民正音 竝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者取之). <세종실록 1446년(세종 28년) 12월 26일>

나. 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吏科)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6재(六才)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음 식년부터 시행하되, 먼저 훈민정음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관리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自今咸吉子弟試吏科者 依他例試六才 倍給分數 後式年爲始 先試訓民正音 入格者許試他才 各司吏典取才者 竝試訓民正音). <세종실록 1447년(세종 29년) 4월 20일>

(5 가, 나)에는 하급 관리 시험에 한글에 대한 지식이 기본 1차 과목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하급 관리 시험에 한글을 합자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시험 과목에 포함시킨 것은 한글 반포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글 교육과 관련한 공적인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배 계층에 한글이 보급되는 매우 효율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475년(성종 6년)에 소혜왕후가 부녀자의 훈육을 위하여 중국의 『소학』, 『열녀』, 『여교』, 『명감』의 4 책에서 글을 뽑아 한글로 풀어 쓴 『내훈』이라는 교화서를 편찬하고 이후 『삼강행실도연해』(1490년), 『속삼강행실도』(1514년)가 간행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미루어 한글의 주된 사용에 궁중 여성들이었으며 이들을 통해 한글의 교육과 확산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1481년(성종 12년)에는 『삼강행실열녀도』를 편찬함으로써 한글을 통해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한 한글 창제의 목적이 이어졌다.

(6) 언문(諺文)으로 된 《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列女圖)》의 질(帙)을 약간 박아서 경중(京中)의 오부(五部)와 제도(諸道)에 반사(頒賜)하여, 촌향(村巷)의 부녀가 다 강습(講習)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아마도 풍속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其印諺文《三綱行實列女圖》若干帙 頒賜京中五部及諸道 使村婦巷女 皆得講習 庶幾移風易俗). <성종실록 1481년(성종 12년) 3월 24일>

세종이 설순 등에게 명하여 1434년(세종 16년)에 편찬한 한문본 『삼강행실도』의 언해 작업이 세조 연간에까지 이어졌는데, 드디어 1481년(성종 12년)에 언해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전국에 배포케 함으로써 세종의 한글을 통한 교화 정책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의 기사도 그 대상을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글 사용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7) 다만 지방의 궁벽한 시골 사람들은 글을 아는 자가 적어서 새로운 책을 반포하더라도 두루 알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언서(諺書)라면 백성들도 알 수 있으니 찬집할 때에 언문으로 번역하기도 하여 두루 알리는데 힘쓰는 것이 어떠합니까?(但外方窮村 僻巷 人鮮解文 雖頒新書 難遍知曉 如諺書則愚夫 愚婦 亦能解知 撰集時 或翻以諺文 務要周知何如?) <중종 실록 1536년(중종 31년) 5월 12일>

(7)은 풍속을 교화하고 선을 권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글을 모아 책을 엮을 때에 백성들을 위해 한글로 풀어 쓸 방안을 제안한 내용인데, 16세기 초에는 백성들도 어느 정도는 한글을 익히고 해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왕실과 사대부가의 한글

한글을 반포하기 1년 전인 1445년에 『용비어천가』를 편찬하고 이를 1447년에 간행하였고 뒤이어 『석보상절』이 나오게 됨으로써 한글 문헌의 편찬이 시작되고 동시에 한글 사용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으며, 한편으로 한글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소통 매개로 작용하기도 했

다.

(8) 가. 임금이 대간(臺諫)의 죄를 일일이 들어 언문으로써 써서, 환관 김득상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게 하였다(甲辰 上數臺諫之罪 以諺文書之 命宦官金得祥 示諸義禁府承政). <세종실록 1446년(세종 28년) 10월 10일>

나. 좌의정 하연 등을 빈청(賓廳)에 불러, 환관 김득상과 최읍으로 하여금 언문서 두어 장을 가지고 오게 한 뒤, 사신(史臣)을 물리치고 비밀히 의논하였다(召左議政河演等于賓廳 令宦官金得祥 崔浥持諺文書數紙 辟史臣密議). <세종실록 1448년(세종 30년) 7월 27일>

다. 하연은 까다롭게 살피고 또 노쇠하여 행사에 착오가 많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언문으로 벽 위에다 쓰기를, '하 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演苛察 又老耄 行事多顛錯 人有以諺字書壁上曰“河政丞且休妄公事”). <세종실록 1449년(세종 31년) 10월 5일>

(8 가)는 한글을 반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대간의 죄를 한글로 써서 교서를 내리려 신하들이 읽어 보게 했다는 것은 이미 궁중에 한글을 아는 관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8 나)는 환관에게 언문서의 심부름을 시킨 정황으로 보아 환관도 한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8 다)는 하연을 영의정으로 관직을 제수하자 누군가 언문으로 재상 하연을 비방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서 붙였다는 기사로서 정음 반포 3년 만에 언문이 벽서에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어 이례적이다. 이러한 한글의 사용 확대는 세종 사후에도 이어졌다.

(9) 가. 양녕 대군 이제가 언문으로써 짧은 편지를 써서 아뢰니, 그 뜻은 김경재로 하여금 상경하여 그 딸을 시집보내도록 하기를 청하는 것이었다(讓寧大君 稹 以諺文書 短簡以啓 其意則請使金敬哉上京 嫁其女子也). <문종실록 1451년(문종 1년) 11월 17일>

나. 시녀(侍女)들 가운데 수강궁에 머무르는 자가 있었는데, 한 시녀가 언문으로 궁중 유모 아지(阿之)의 안부를 써서 혜빈에게 보내니 혜빈이 내

전에 상달하였다(侍女等有留壽康宮者 一侍女 以諺文書阿之安否 送于惠嬪, 惠嬪達于內). <단종실록 1453년(단종 1년) 4월 2일>

다. 그 후에 자금, 가지 등과 더불어 시녀 월계(月桂)의 방에 모여서 언문으로 서신을 써 주도록 청하여 부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其後與者今、加知等, 會于侍女月桂房, 請以諺文寫書信, 送于富貴云) <단종실록 1453년(단종 1년) 4월 14일>

(9 가)를 통해 궁중에서의 한글 사용 기사를 확인해 보면 1451년에 현전하지는 않지만 양녕대군이 한글로 편지를 썼다는 기사가 있는데, 한글 편지(언간)가 쓰인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만하다. 양녕대군이 문종에게 한글로 편지를 써서 귀양 간 김경재를 잠시 서울로 불러 딸의 혼사를 치를 수 있도록 선처 바라는 내용이다. 즉, 정음 반포 후 4년 후에 한문에 익숙한 왕실 사람이 언간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한글이 배우기가 쉬웠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9 나)는 1453년에 궁중 시녀가 언문 편지를 써서 궁궐 안에서 궁녀들이 별감과 사통했다는 변고를 일러바치는 내용으로서 언문을 일찍 깨우친 궁녀의 언문 편지 대필로 인해 탄로가 난 궁중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다. (9 다)에서도 이른 시기에 궁궐 내 남녀 하인들도 한글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궁인이 개인의 감정을 한글로 편지를 써서 표현할 정도로 궁궐 내 한글 사용 계층이 폭넓었다.

(10) 가. 궁인 덕중이 언문으로 편지를 써서 환관 최호, 김중호에게 주어, 귀성군 이준에게 통하여 생각하고 연모하는 뜻을 말하였는데, 이준이 그 아버지 임영대군 이구와 더불어 함께 와서 아뢰었다(有宮人德中 以諺字成書 授宦官 崔湖 金仲湖 通於龜城君 浚 道達恩戀之意 浚與其父臨瀛大君 璆 俱來以啓). <세조실록 1465년(세조 11년) 9월 4일>

나. 대내(大內)에서 나온 언문 서간을 환관 안중경과 형방 승지 강자평에게 명하여 함께 의논하여서 번역하게 하였는데, 일이 비밀이었으므로 아는 자가 없게 하였다(內出諺文書簡 命宦官安仲敬與刑房承旨姜子平

同議翻譯 事秘莫有知者). <성종실록 1482년(성종13년) 6월 10일>

(10 가)에서 궁인이 왕족에게 연모의 마음을 담은 한글 편지를 썼다는 기사는 사건의 전모는 차치하더라도 정음 반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 한글 편지가 매우 특별한 매개의 역할을 했으며, 수신자인 귀성군도 한글을 알고 있을 정도로 한글의 사용이 왕실에서 시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10 나)에서는 한글이 궁중에서 비밀스러운 내용을 적을 때에도 긴요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1 가)는 연산군 때의 기사인데, 보듯이 처남 신수영의 집에 언문으로 연산군의 폭정을 비난하는 익명의 투서가 전해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한글의 사용을 억누르고 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11 나)에서 보듯이 그럼에도 한글의 사용은 지속되었다.

(11) 가. 전교하기를, “어제 예궐(詣闕)하였던 정부(政府)·금부(禁府)의 당상(堂上)을 부르라. 또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를 한성의 오부(五部)로 하여금 적발하여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람을 아울러 죄주라. 어제 죄인을 잡는 절목(節目)을 성 안에는 이미 통유(通諭)하였거니와, 성 밖 및 외방에도 통유하라.” 하였다(傳曰: “其召昨日詣闕政府 禁府堂上 且今後諺文勿教勿學 已學者亦令不得行用 凡知諺文者 令漢城五部 摘告 其知而不告者 并隣人罪之 昨日捕罪人節目 城內則已通諭 城外及外方亦諭之”). <연산군실록 1504년(연산군 12년) 7월 20일>

나. 병조 정랑 조계형(曹繼衡)을 명하여 언문(諺文)으로 역서(曆書)를 번역하도록 하였다(命兵曹正郎曹繼衡以諺文 翻譯曆書). <연산군실록 1504년(연산군 10년) 12월 10일>

즉, 백두현(2001:198)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연산군은 언문 투서 사건 이후 한글 사용을 엄금하였지만 언문으로 역서를 번역하거나 대비의 생일에 올린 전문(箋文)을 언문으로 번역하는 일도 하였다.

한편, 훈민정음은 종래의 한자음의 발음 표기 방식인 반절법에서⁶⁾ 벗어나 한자음의 발음 표기에 훈민정음이 쓰였으며, 더욱이 당대 지식인들도 정확한 한자음 습득을 위해서는 한글에 대한 문자 이해가 필요했으니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운서의 편찬이었다.⁷⁾ 이렇듯 한자음의 발음 표기로서의 한글의 역할은 조선 후기 운서 편찬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훈민정음의 사용을 확대해 나갔다. 사실 당대 지식인들에게 운서는 매우 중요한 기초 지식 이었는데 다음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12)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선왕(先王)께서 손수 지으신 책이요, 《동국정운(東國正韻)》《홍무정운(洪武正韻)》도 모두 선왕께서 찬정하신 책이요, 이문(吏文)도 또 사대(事大)에 절실히 필요하니, 청컨대 지금부터 문과 초장(文科初場)에서 세 책을 강하고(《訓民正音》先王御製之書 《東國正韻》, 《洪武正韻》皆先王撰定之書 吏文又切於事大, 請自今文科初場試講三書) <1460년(세조 6년) 5월 28일>

더욱이 백낙천(2021:265)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대부들의 경서 공부에 언해서가 필요했다는 점은 이들이 한글을 해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당시의 사대부들이 한문을 숭상했다고 해서 한글을 전혀 이해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자 학습서인 『천자문』이나 『유합』을 공부하려면 한글을 먼저 익혀야 했던 것처럼 당시 사대부들은 경서 공부와 독서를 위해서 한글로 풀어 쓴 언해서를 필요로 하였다.

-
- 6) 가령, ‘東’의 자음을 ‘德紅切’로 표시하는데, ‘德’에서 성모를 취하고 ‘紅’에서 운모를 취한 다음에 이 둘을 합하여 표시하는 것을 반절법이라고 한다.
- 7)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최항(崔恒)·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副修撰) 신숙주(申叔舟)·이선로(李善老)·이개(李垕),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議事廳)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東宮)과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瑄)·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여 모두 성상의 판단에 품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상(賞)을 거듭 내려 주고 공역(供億)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命集賢殿校理崔恒副校理朴彭年副修撰申叔舟李善老李垕敦寧府注簿姜希顔等詣議事廳以諺文譯《韻會》東宮與晉陽大君瑄瑢安平大君瑢監掌其事皆稟睿斷賞賜綢重供億優厚矣 <세종실록 1444년(세종 26년) 2월 16일>

- (13) 『논어』에 의문 나는 대목을 어제 사람을 만나느라 미처 다 베끼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다 쓸 수 있었다. 또 맹자를 읽고자 했으나 『사서대전』과 『맹자언해』를 구할 수 없어서 민자필의 집에서 돌아왔으므로 한가로웠다(論語質疑處 昨以接人未盡寫 至今朝乃始畢書 且欲讀孟子而未得大全及讀解 故自子必家退 則有等閑事). 『忍齋日錄』

즉, 조극선(1595-1658)이 26세 때인 1620년 3월 9일에 쓴 일기에서는 『맹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맹자언해』가 필요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언해서가 경서 공부를 위한 학습서였으며 한글이 한문을 익히는 데에 필요한 도구 역할을 했음을 말한다.⁸⁾

더욱이 왕실 교육에서조차 경서 공부를 위해서 언해서를 필요로 하였다.

- (14) 판부사 김덕원이 차자(劄子)를 올려, 춘방(春坊)으로 하여금 《소학》·《효경》 가운데에서 알기 쉬운 좋은 말을 뽑아 언서로 번역하여 동궁(東宮)의 보모(保母)를 시켜 아침저녁으로 가르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判府事金德遠劄 “請令春坊 就《小學》《孝經》中 抄其易解之嘉言 翻以諺書 使東宮保母 朝夕教導” 上令依施). <숙종실록 1691년(숙종 17년) 9월 13일>

(14)는 사대부가 경서 공부를 위해 언해의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왕에게 요청하였으며, 세자의 경서 공부를 위한 기초 교육으로 양육을 맡는 궁중 나인에게 한글 교육을 담당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글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경서 언해 등의 한글 문헌이 편찬되면서 한글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한편, <성종 실록>에 나오는 다음은 한글의 확산에 참고가 될 만한 기사이다.

- (15) “청컨대 전교서(典校署)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사인(寫印)토록 하여 한성부와 모든 도(道)의 여러 고을에 이를 반포해서 관문(官門)과 방시

8) 번역문은 김인회(2012:42)에서 인용.

(坊市)촌락(村落)·여항(閭巷)에 걸어도도록 하여 위로는 크고 작은 조신(朝臣)으로부터 아래로는 궁벽한 곳에 사는 작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성상께서 백성을 인도하는 지극한 뜻을 알지 아니함이 없게 하여, 각각 깨닫고 살피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곤궁한 짓을 남기지 말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오히려 누우쳐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는 스스로 허물을 불러들이는 것이니, 이를 형벌케 하여 용서하여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한글(諺字)로 번역하고 인출을 해서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부인과 소자들까지도 두루 알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請令典校署 寫印傳旨 頒之漢城府 諸道 諸邑 懸于官門 坊市 村落 閭巷 上自大小朝臣 下至僻居小民 莫不知聖上導民之至意 各懷警省 毋令自貽困窮 如是而猶有不悛者 是乃自速厥辜 刑之無赦何如?” 命以諺字 反譯印出 頒中外 使婦人小子 無不周知). <성종실록 1472년(성종 3년) 9월 7일>

물론 (15)는 김성규(2021)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당시 다수의 백성들이 한글을 해독할 수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백성들이 한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음을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런 점에서 비록 사대부가의 한글 사용은 아니지만 한글의 사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음의 기사는 흥미롭다.

(16) 가. 이덕량 등이 물러간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와서 언문(諺文) 두 장(張)을 가지고 들어와 아뢰었는데, 이는 곧 저자 사람이 판서(判書)와 참판(參判)을 비웃고 헐뜯는 말이었다(德良等退去 俄而復來 以諺文二張入啓 乃市人嘲訕判書參判之言也). <성종실록 1485년(성종 16년) 7월 17일>

나. 조지서가 말하기를, “저자 사람들이 언문을 써서 호조 당상을 욕한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민(小民)들의 보통 있는 일입니다”(之瑞曰 “市人書諺文辱戶曹堂上 固可憎也 然此小民常事”). <성종실록 1485년(성종 16년) 11월 9일>

(16 가, 나)는 한양의 상인들이 저자의 이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사대부가의 판서와 참판을 비방하는 글을 한글로 투서한 사건으로 조지서의 증언

대로라면 이 시기 상인들 중에는 직업의 특성상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같은 해에 최초의 한글 번역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 『두시언해』를 편찬하면서 언해문의 한자에도 한자음을 달지 않을 정도로 한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16세기에 『훈몽자회』와 『천자문』과 같은 한자 학습서가 나오면서 어린 아이들이 한글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훈몽자회』는 한자 학습서로서 한자 3,360자에 뜻과 음을 한글로 달아 놓았으며, 특히 권두의 범례에 실린 <언문자모>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자모의 결합 등 언문 체계와 용법을 적어 놓아 한글 학습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언문을 익힌 다음에 『훈몽자회』를 익히면 더 유익하다는 학습 방법까지 서문에 제시하고 있다.

(17) 무릇 시골이나 지방 사람들 중에는 언문을 알지 못하는 이가 많으므로 이제 곧 언문 자모를 같이 적어 그들로 하여금 언문을 먼저 배우게 한 다음에 훈몽자회를 배우게 한즉 거의가 깨우치게 하는 데에 이로움이 있고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역시 언문을 다 배우고서 한자를 알게 한즉 비록 선생의 가르침이 없다 하더라도 역시 장차 한문에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凡在邊鄙下邑之人 必多不解諺文 故今乃並著諺文字母 使之先學諺文次學字會 則庶可有曉誨之益矣 其不通文字者 亦皆學諺而知字 則雖無師援 亦將得爲通文之人矣). <훈몽자회 범례>

(17)은 <언문자모>를 제시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훈몽자회』가 편찬된 1527년 무렵에는 언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고 비록 언문을 한자를 배우는 보조적 도구 정도로 인식하였다는 증언이기는 하지만 <언문자모>를 교재로 하여 한글 학습 방법의 중요한 부분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⁹⁾

또한, 『천자문』에도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아 놓아 한문을 공부하기 위해

9) 『훈몽자회』에 대한 서지적, 내용적 검토는 이기문(1971).

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혀야 한다는 점에서 사대부가의 한글 이해와 사용도 이와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한글이 교화를 위해서만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니어서 1510년대에 편찬한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 등은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익혀야 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이벽은방언해』(1525년)와 『분문온역이해방언해』(1542년) 등과 같은 의약서의 편찬에도 한글은 큰 역할을 하였다.¹⁰⁾ 그리고 15세기에 언해서 편찬이 초기 간경도감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차 지방에서도 언해서 편찬이 이루어져 1500년 경남 합천에서 『목우자수심결언해』를 시작으로 16세기 초 중엽에 경북 김천에서 『이륜행실도』, 경상도에서 『여씨향약언해』, 전북 완주에서 『부모은중경언해』, 경북 풍기에서 『칠대만법』 등이 편찬되면서 한글의 지역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체로 민간의 시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만큼 일반 백성들의 한글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외국어 학습서나 언해서들이 한문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언해서 외에 한문 원본 없이 이루어진 불교 서적 편찬은 그 대상을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글 사용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한글은 전란의 위급한 상황 중인 1592년에 선조가 피난길에 언문 교서를 써서 일반 백성들에게 의병의 참여를 권할 때에 중요한 소통 도구였다.

(18) 황해도에 내릴 교서는 이미 지어 왔는데 사인(士人)들은 스스로 알아 볼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알지 못할 것이다. 이 교서는 사인이 있는 곳에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또 이두(吏讀)를 넣고 지리한

10) 의약서는 초간본 나온 뒤도 중간본을 간행했으며, 다양한 이본이 나올 정도로 여러 지방에서 실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글의 사용이 확대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말은 빼어 버려 조정의 방문(榜文)처럼 만들고, 또한 의병장이나 감사 등에게 언문으로 번역하게 하여 촌민(村民)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라(黃海道敎書 已爲製進矣 士人則自能解見 其餘人則恐不能知之 此敎書則士人處曉諭 又入吏讀 去其支辭 多作朝廷榜文 又令義兵將或監司等 翻以諺書 使村民皆得以知之事議啓). < 선조실록 1592년(선조 25년) 8월 1일 >

(18)에서 주목할 것은 임금의 율음을 한글로 풀어 백성들과의 소통 매개를 삼았다는 점과 백성들도 한글로 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16세기 후반에는 지방의 백성들도 한글을 이해한 것으로 보아 한글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한글이 문자 생활의 전면 에 부각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것이 언간과 한글 소설이다. 이들은 한문 원문의 간섭이나 제약에서 자유로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주는 한글 문헌이다.¹¹⁾

2.3. 언간과 한글 교육

한글은 창제 직후부터 왕실 여성과 사대부 여성들의 한글 편지(이하 언간)를 통해 그 명맥이 이어졌으며,¹²⁾ 이후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 계층을 확대해 나가면서 언간은 한글 사용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언간은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사연을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으며,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에 여성이 개입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여성과 관련된다. 더욱이 왕들도 자녀에게 안부를 전할 경우에는 한글로 편지를 보냈을 정도로 개인의 의사소통에서 한글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언간 중에서 황문환 외(2013)에서는 1,465건에 대한 판독 자료가 집중되

11) 조선 후기로 오면 왕실 여성 특히 대비의 수렴청정에 따른 언문 교서나 언문 행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승희(2013).

12) 백낙천(2022)에서는 왕실 여성의 언간에 대해 소략하게 다룬 바 있다.

기도 하였다. 그중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는 언간을 중심으로 한글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9) 가. 글월 보고 도든 거슨 그 방이 어둡고 날도 陰하니 日光이 도라디거
든 내 親히 보고 즈세 弔別호마 대강 用藥홀 이리이셔도 醫官 醫女를 드
려 待승허려허노라 分별말라 즈연 아니 도히허라 <선조 언간>

나. 괴운이나 무스흔가 허며 너희 집 일이야 어이 내〃 다 덕으리 그 아
히가 그리 될 줄을 어이 알리 어른들히 恤복허야 그런가 허노라 하 닛디
못허니 이제는 아히들홀 忒싱 정 브터 아니 기르려 허노라 정은 무궁허
되 ㅁ음이 아니소와 잠간 덕노라 <숙명신한첩 6>

(19 가)는 선조가 1603년 딸 정숙옹주에게 보낸 편지로, 정숙옹주가 천연두를 앓아 걱정스러운 마음과 의관을 들여 약을 쓸 터이니 걱정 말고 자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당부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19 나)는 아버지인 효종이 숙명공주에게 보낸 것이다. 언간의 내용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통하였는지 숙명공주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죽고 말자 효종이 친히 숙명공주에게 위로의 언간을 보내고 있어 특이하다.

왕실 여성들 간의 언간도 꽤 전해지고 있는데, 가령 다음은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1584-1632) 언간은 인목대비가 선조의 후궁인 정빈에게 보낸 것이다.

(20) 괴운이나 편안허옵신가 허옵노이다 미망인은 궁툰극통흔 變난을 쇼장
의셔 만나 대화 勳친의게 밋고 눈기도 상허니 우흐로 종샤기 득죄허고
아래로 싱민이 도탄허미 다 원부의 허물이니 천하의 가도 ㅁ올 디 업스
며 삼광하의 엇디 용납허링잇가 국모의 님허기 ㅁ쓰려 허옵노이다

(20)은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가 후궁 정빈에게 쓴 언간의 앞부분으로 김일근(1986)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계축일기』의 저본이 될 만큼 수필처럼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쓴 언간이다. 인목대비는 선조의 정비인 의인왕후의 뒤를 이어 19세 어린 나이에 왕비에 책봉된 후 영창대군을 낳았지만 당

시 세자인 광해군의 정통성을 둘러싼 소북파와 대북파 간 당쟁의 소용돌이에서 광해군이 즉위하자 아들인 영창대군은 반역죄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인목대비는 폐서인되어 서궁에 유폐되었다가 1623년 인조반정 이후 복호되어 대왕대비가 된 인물이다. 그러한 인목대비가 인조반정 이후, 같은 여성으로서 후궁인 정빈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지난날 서궁에 유폐되어 자신이 겪은 고난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다.

안병희(1985)에서는 한글의 보급에는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이기 때문이라는 실용성과 용이성 외에도 문자 외적인 요인에 주목하면서 16세기 이후 한글이 지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을 것으로 보면서 그 하나로 <순천 김씨 언간>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백두현(2001)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는 언간이다. 학계에 소개된 언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16세기 이후부터 양반가의 한글 사용이 매우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며, 이후 평민이나 하층민에게도 한글 사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언간은 한글의 사용과 보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가령, 1490년경에 함경도 변방에 나가 있는 군관인 남편이 아내인 신창맹씨에게 보낸 것으로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언간으로 알려진 <신창맹씨묘 출토 언간>은 한글 사용의 시기와 한글 사용이 남성이지만 아내인 여성도 한글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언간이 한글 사용과 저변에 끼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으며, 16세기 중후반 <순천 김씨 언간>이나 <이응태 부인 언간> 등을 통해서 한글이 지방에까지 보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³⁾ 가령, 16세기 중·후반에 쓰인 <순천 김씨 언간>은 어머니가 시집간 딸인 순천 김씨에게 쓴 편지가 가장 많지만 그 외에도 친정아버지와 남편 등이 쓴 것도

13) 이때 보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언문 문해를 추정으로 파악한 논의는 김성규(2021).

있는 것으로 보아 사대부 남성들의 한글 사용이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7세기에는 사가의 노비도 한글의 이해할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백두현(2003:237)에 의하면 17세기 초에 곽주가 노비에게 한글로 편지를 보내 집안의 망아지의 상태를 묻는 것으로 보아 이미 노비가 한글을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17세기 후반 언간인 (16 가, 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1) 가. 곽상의계

미야디 병드렀다 하니 어니 미야디 병이 드러 이시며 이제는 엇더히엿
노노 일년이 마침 마침 왔거늘 드러가 고치라난 히엇거니와 일년이 고
친 후에도 수이 도치 아니히거든 김흥니마를 드러다가 조조 고쳐 수이
도케 히여라 무스히 고쳐 수이 성케 되거든 내게 다시 기별 말고 히여
수이 도치 아니히거든 네 친히 내게 와 조세 기별하여라 불서 도케 되
엿거든 오디 마라 <현풍 곽씨 언간 37>

나. 奴 順伊

무태라 네 쫄 시향을 아산 서방님 브리쇼셔 히야시니 그리 알아 드러
다가 드리게 하라 上典 鎭安 乙丑 七月 六日 <선세언독 22>

다. 빅천노 귀특이

무태라 너놈이 공연히 내 집 던토를 거집히여서 녀 섬 도디란 거시 원
간 무형무형헌디 그를사 일절 고디식히 아니하니 너놈의 사오납기는
던디간의 업손 놈이니 흥번 큰일이 나리라 <송규렴가 언간 9-010>

(21 가)는 곽주가 집안의 노비 곽상에게 편지를 보내 망아지가 병난 것
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편지로 하지 말고 직접 와서 전하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비도 한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쓸 줄
도 알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21 나)는 1685년에 상전인 김
성달이 노비인 ‘순이’에게 보낸 것이고, (21 다)는 1692년에 상전인 송규렴
이 노비인 ‘귀특이’에게 보낸 것으로 정해진 소작료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분
한 감정을 실어 보낸 언간이다. 이를 통해 볼 때 17세기 후반에 노비들도 한

글을 읽을 정도의 이해는 충분히 갖추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7세기 초 <현풍 곽씨 언간>에는 당시의 한글 교육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2) 가. 즈식드란 여러히 갓스오니 우연히 요란히 너기옵시거나 ㅎ읍노이
다 수이 드려 오옵고더 ㅎ으오디 그려도 당시는 의심이 깊디 아니 ㅎ
으오마 이드리나 디나옵거든 드려 오려 ㅎ읍노이다 아으 즈식 둘란 게
갓습는 제 언문 ㄱ르쳐 보내옵소서 슈로롭스오만 언문 ㄱ르치옵쇼서
ㅎ옵기 젓스와 ㅎ옵다가 알외옵노이다 <현풍 곽씨 언간 2>

나. 자근 아기 언문 께히 비화 내게 유무 수이 ㅎ라 ㅎ소 <현풍 곽씨 언
간 36>

다. 가온대 아기 언문 께히 비하다가 내게 비라 ㅎ소 셋재 아기도 이제
는 께히 성혀 이실 거시니 언문 외와싯다가 비라 나르소 <현풍 곽씨
언간 39>

(22 가)는 1612년에 곽주가 장모에게 쓴 편지인데, 사위인 곽주가 장모인 벽진 이씨에게 외가에 가 있는 아이들의 한글 교육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으며, (22 나, 다)에서도 곽주가 부인인 진주 하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곽주가 자녀의 한글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아내에게 자녀의 한글 학습을 당부할 정도로 한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166년 후의 일로서 이미 사대부가에서는 한글 사용이 익숙해지고 더욱이 한글 학습이 어릴 때부터 시작하고 한글 교육이 가정에서 부녀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글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더욱이 <선세언독>에는 어머니 안동 김씨가 한문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아들(송익흠)을 책망할 정도로 여성에게 한글의 위상은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14) 이에 대한 언급은 백두현(2001:196)에서도 확인된다.

(23) 요스이논 뵘옵고 도히 잇는다 더적 글시 보고 도히 잇는 줄 알고 든든
깃브나 언문 서너 줄 쓰기 므어시 슬혀여 7초야 진셔로 햐야시니 뵘
고 가증후다 <선세언독 35>

물론 이 당시 향교나 서당이 한글 교육을 일정정도 역할을 담당했을 것
은 이해된다.¹⁵⁾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서 한글의 사용과 보급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간을 통해 분
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4. 한글 소설과 한글 성경

허균의 『홍길동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글 소설이 창작되고 17세기
후반 이후 김만중의 『구운몽』(한글본), 『사씨남정기』 등의 한글 소설의 등
장은 한글의 사용과 보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방대한 양의 소설이
필사본 또는 목판본으로 유통되었다. 그중 『춘향전』, 『심청전』 등의 한글
소설은 수백 종의 이본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읽힐 정도로 역동성을
보여주었으며, 한글 소설의 대중화에는 세책(貰冊)과 방각(坊刻)이라는 상
업적 유통 방식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돈을 받고 책을 빌
려주는 세책보다는 민간에서 목판으로 만들어 대량으로 책을 출판하는 방
각본이 다양한 독자의 요구와 상업적 동기에 편승하여 활발하게 유통되면
서 한글을 널리 보급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¹⁶⁾ 책을 필사하여 대여해
주는 세책의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글 소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
지만 방각은 이러한 한글 소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으므로 방각본이
성행하게 되었다.¹⁷⁾ 물론 세책과 방각을 통한 한글 소설의 성행이 과연 한

15) 시정근(2007:43-48)에서는 향교를 통한 교화를 위해, 서당의 수의 증가를 통해
향교나 서당을 중심으로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을 세책과 방각에 대한 논의는 정병설(2005).

17) 세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면 방각본은 서울(경판본)과 전주(완
판본)에서 많은 책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한글 소설의 성행은 18세기 상업과 도
시의 발달과 관계있다.

글의 위상을 온전히 높이는 데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아도 한글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한글 소설의 보급이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과 깊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병설(2005)에서 언급한 대로 19세기 후반까지 200여종 이상의 한글 소설이 유통되었다는 것은 한글의 저변 확대에 하나의 방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글의 저변 확대에는 천주교가 전래된 후, 1779년 순 한글로 된 『천주공경가』, 『십계명가』, 『경세가』 등의 전도서가 나오고, 1790년대에는 『쥬교요지』와 『성교요지』가 나오고, 1864년을 전후로 천주교리 서적들이 목판본으로 대량으로 간행 보급된 것이 한글의 보급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본격적인 성경 번역을 통한 한글 보급의 확산은 개신교인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인 중국 선교사였던 귀츨라프(Karl A. F. Gutzlaff)가 1832년 고대도에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시작된 개신교 선교의 역사와 한글의 관계는 성경의 한글 번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스코트랜드 출신 장로교 목사인 로스(John Ross)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그는 중국 만주에서 38년 간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1874년 평북 의주 출신의 한약상 이응찬에게서 한국어를 배웠고, 나아가 같은 평북 지역 출신의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외에 1881년에는 의주 출신 서상륜이 로스의 번역 사업에 결정적으로 힘을 보태어 1887년 합본 형태의 우리나라 최초의 완역 성경인 『예수성교전서』를 간행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적 교육, 문학, 언론, 출판, 보건, 의료 분야 등 한국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성경의 한글 번역과 이를 통한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최현배의 기술에서도 확인된다.

(24) “이 한글 부흥기 전후에 있어서, 한글의 부흥, 정리 및 보급에 대하여

막대한 공적을 끼친 것으로, 우리가 예수교의 선교 사업을 들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교는 본디 만민 평등의 사랑의 종교이요, 항상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무식한 사람에게 한없는 동정을 가지는 종교이라, 그 배탈 겨레 선교의 수단으로서, 당시 일부 식자 계급에만 전용되던 비대중적인 한자 버리고, 평이하고 민중적인 한글을 채용하여, 그 성경을 뒤희게 된 것은 당연의 일이라 하겠다. … 한국 사람으로서 이 한글 보급의 기독교의 위대한 공적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가지지 아니할 이 한 이도 없을 것이다.” <최현배(1940/1982:87-88), 고친 한글>

즉, 한글의 저변 확대에 성경 번역이 크나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 전파를 위해서는 성경을 보급해야 하고 성경 보급을 위해서는 한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글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1894년 모든 공문서는 국문을 본으로 삼는다는 고종의 칙령 공포보다 10여년 앞선 것으로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위해 한글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을 당시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5) “평양 사는 교유 한 분이 편지하였기로 좌에 기재하노라. … 한문 성경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일은 어찌나 되었는지 답답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양식은 성경이온대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남녀 간에 국문으로 번역한 성경 내려 보내시기를 배고픈 자의 밥과 목마른 자의 물과 같이 기다리오니 … 오는 길에 성경 파는 집에 들어간즉 언문으로 번역한 성경책들이 많은데, 한 달에 책 매매되는 것을 평균하여 본즉 20여원이 된다 하며, 그 주인의 말이 「신약전서」를 원통 번역한 것을 서울서 내려오기를 가무는 때에 비 기다리는 것같이 기다린다 하더라.”¹⁸⁾

즉,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번역된 한글 성경이 속히

18)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 2권 38호(1898.9.21.)에 실린 기사이며 이만열(1987)에서 재인용.

보급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1894년 고종의 칙령으로 한글이 공식적으로 국문이 되고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홍범 14조>에서 법률 명령을 국문으로 본을 삼는다고 하면서 비로소 한글이 국문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뒤이어 <서유견문>의 출판과 <독립신문>의 창간이 일어나고 일제 강점기 한글 맞춤법 정리 및 어문의 표준화 과정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글은 비로소 국민 문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한글의 사용 양상과 한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확산되었는지를 한글 창제의 목적, 한글 사용의 주체, 한글 교육의 양상, 한글의 유통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글은 왕실에서부터 시작되어 사대부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한글의 사용을 확대해 나갔다. 물론 공식 문자는 여전히 한자였지만 배우기 쉬운 편의성을 갖춘 한글의 직접적 수혜자는 대체로 여성과 하급 관리였으며 점차 일반 백성으로 확대되면서 한글 사용 계층의 저변 확대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 교화와 통치로서의 한글, 왕실과 사대부가의 한글, 언간과 한글 교육, 한글 소설과 한글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의 층위를 나누어 한글의 사용 양상과 보급의 과정을 기술하였다.

한글의 사용 확대는 언해본, 교화서, 한자나 외국어 학습서 등의 한글 문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공식 문서 외에도 사적 소통의 매개, 소설과 시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한글의 비중이 높아져 갔다. 그러다가 1894년 고종의 칙령을 통한 공문서 개혁의 시작과 근대 계몽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글은 국문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민 문자가 되었다.

본고는 불경 언해 사업이 한글의 보급과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부분은 지면의 제약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다만 본고의 논의를 통해 한글의 보급과 확산이 오랜 시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김동언, 『한글문화사』, 박이정, 2021.
- 김무식, 「조선조 여성의 문자생활과 한글편지」, 『인문학논총』 14권 2호,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1-25쪽.
- 김성규, 「15·16세기의 한글 전파 양상」, 『어문연구』 49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1, 177-202쪽.
- 김슬옹, 『조선시대 언문의 제도적 사용 연구』, 한국문화사, 2005.
- 김인희, 「조선시대 사대부의 한글 사용과 의미」, 『정신문화연구』 35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35-54쪽.
- 백낙천, 「어문의 표준화와 성경 번역의 전개 양상」, 『동악어문학』 72권, 동악어문학회, 2017, 9-36쪽.
- , 「어문 의식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 『동악어문학』 85권, 동악어문학회, 2021, 259-290쪽.
- , 「왕실 연간에 나타난 여성의 언어와 삶에 대한 일고찰」, 『인문논총』 39집, 배재대 인문과학연구소, 2022, 70-88쪽.
- 백두현, 「조선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001, 193-218쪽.
- , 『현풍곽씨연간 주해』, 태학사, 2003.
- , 『한글생활사 연구』, 역락, 2021.
- 시정곤, 「훈민정음의 보급과 교육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28집, 우리어문학회, 2007, 33-65쪽.
- 안병희,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방학지』 46·47·48 합집,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85, 793-811쪽.
- 이기문, 『훈몽자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1.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이승희,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한글 사용 양상」, 『한국문화』 61권, 서울대 한국학연구원, 2013, 301-325쪽.
- 이호권,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권, 한국어학회, 2008, 83-114쪽.
-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1998.
-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진단학보』 100권, 진단학회, 2005, 263-297쪽.
-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문화사, 1940/1982.
- 황문환 외,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2·3, 역락, 2013.

■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 시대에 한글의 사용 양상이 어떠했으며, 한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글은 왕실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대부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한글의 사용을 확대해 나갔다. 물론 공식 문자는 여전히 한자였지만 배우기 쉬운 편의성을 갖춘 한글의 직접적 수혜자는 대체로 여성과 하급 관리였으며 점차 일반 백성으로 확대되면서 한글 사용 계층의 저변 확대를 가져왔다. 더욱이 한글의 사용 확대는 언해본, 교화서, 한자나 외국어 학습서 등의 한글 문헌이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식 문서 외에도 사적 소통의 매개인 언간과 소설 및 시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는 등 지역적 확산과 더불어 한글 사용의 비중이 높아져 갔다. 그러다가 1894년 고종의 칙령을 통한 공문서 개혁의 시작과 근대 계몽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글은 국문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민 문자가 되었다.

주제어 ● 훈민정음, 한글, 교화, 한글 편지(언간), 한글 소설, 한글 성경

■ Abstract

On the use and spread of Hangeul in the Joseon dynasty

Baek, Nak Cheon
/ PaiChai University

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purpose to explain the use and spread of Hunminjeongeum(henceforth, Hangeul)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the main aim is to explain the practical use of Hangeul and its diffusion process. Hangeul was invented by King Sejong with the purpose of enlightenment, and it was especially welcomed by women. Hangeul then spread very quickly in Seoul, but it took much longer to reach local areas.

The spread of Hangeul was driven by Hangeul letters(*eongan*), Hangeul novels, and the Hangeul Bible. Accordingly, Hangeul exerted a strong influence from the 17th to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is work is expected to arouse various interest and discussion about Hangeul.

Keyword • *Hunminjeongeum*, Hangeul, enlightenment, Hangeul letters(*eongan*), Hangeul novels, Hangeul Bible

■ 논문투고일:2024.02.19. ■ 심사완료일:2024.03.14. ■ 게재확정일:2024.03.20. ■

대규모 재난 시기 발현되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 연구 : 대구성서공동체FM 〈코로나19 특별 생방송〉을 중심으로*

장지은**

목 차

1. 들어가며
2. 연구 방법 및 대상
3. 이론적 검토
4. 연구 결과
5. 맺음말

1. 들어가며

2022년 2월 대구 지역 남구 앞산마을방송국·동구 안심마을방송국·수성구 수성마을방송국·서구 달성토성방송국이 대구마을방송국으로 공동 개국했다. 그 이후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을방송국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2023년부터 이뤄지고 있고, 동구 안심마을방송국과 남구 앞산마을방송국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동체 라디오 신규 사업자로 선정돼 주파수를 배정받았다. 대구에서 대구마을방송국이 만들어진 배경과 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0708)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전임연구원

(Pandemic) 상황에서 2020년 2월 대구 달서구 성서지역의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에스시엔 성서공동체에프엠(이하 성서공동체FM)에서 진행한 <코로나19 특별 생방송>이었다.¹⁾ 대구시는 2020년 2월 18일 코로나 확진자 1명이 진단을 받은 후, 19일 11명, 20일 24명, 21일 84명 등 급속도로 증가하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성서공동체FM은 <코로나19 특별 생방송>을 송출하며, 주민에게 필요한 재난 대응 정보뿐 아니라 중증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백혈병 소아암 환자의 이야기,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공동체들의 실천 활동 소식을 전달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대구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마을신문, 마을라디오방송 등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과 활성화가 중요해졌다. 2020년 6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주민 스스로 공동체의 의견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재난 시기에 발현되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2020년 2월 대구지역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문을 닫으며 사회 서비스가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당시 대구 지역민은 공적 마스크는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무료급식이 중단되면 쪽방촌 사람들의 먹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보조인력이 없으면 중증장애인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1) 김영숙, “[마을정책이슈브리프 3호-2] 마을공동체에 길을 묻다: 낯선 자들과 함께하는 삶”,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2.09.20.

정보가 필요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방송이 바로 성서공동체FM<코로나19 특별 생방송>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성서공동체FM<코로나19 특별 생방송> 내용을 분석하여 재난 시기 발현되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1)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미디어는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특성과 요구에 따라 지역신문, 인터넷 뉴스, 인터넷 방송국, 공동체 상영, 팟캐스트, 공동체 라디오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미디어는 1940년대 말 출현 이후 주류 미디어에 대한 대안적 역할과 사회 통합, 공동체 개발과 연대, 미디어 리터러시, 재난 방송 등 다양한 영역 프로그램과 방송으로 운영되어 왔다. 웹(Web)2.0 이전에는 주류 미디어와 대립하는 미디어로 공동체 미디어를 정의해 왔다.²⁾ 또한 공동체 미디어는 상업 미디어가 모두 담아낼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현상을 담아내는 미디어로 정의³⁾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는 주류 미디어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풀뿌리와 참여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람들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연대를 촉진⁴⁾하는 활동을 한다. 공동체 미디어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비영리적이며 의사결정에 있어 개인보다는 집단이, 시민이 미디어 제작자⁵⁾가 되는 특징을 가진다.

2) Rennie, E., *Community Media and Direct Representation*. In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Dresden International, Congress Centre, Dresden, Germany. 2006.

3) Rodriguez, C., *Fissures in the mediascape: An international study of citizens' media*, Cresskill, NJ: Hampton Press. 2001.

4) Howley, K., *Community media: People, places,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2.

한국 사회의 공동체 미디어의 등장은 1980-90년대에 걸쳐 진행된 수신료 거부 운동, TV 안 보기 운동 등 수용자 운동 입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한 시민사회 단체의 활성화는 방송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미디어로 확장했다. 2000년 통합 방송법 개정으로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개념이 제도화되면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고 방영하는 방송인 <KBS 열린 채널>과 <시민방송 RTV> 프로그램이 편성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국내 최초 영상미디어센터<미디어트>가 개관되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지역 미디어센터가 건립되면서 지역 공동체 중심의 미디어 교육과 활동으로 활성화되었다. 제도적으로는 2012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동체 미디어로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 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30여 곳의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작단,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있다.⁶⁾ 그동안 공동체 미디어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 공동체 미디어는 마을과 동네라는 작은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운영하기에 공동체 내 사람들의 삶의 질과 변화, 회복을 지향하는 실천의 의미를 갖는다.⁷⁾ 또한 공동체 미디어는 지역공론장 형성, 지역공동체 임파워링을 하며, 지역 사회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⁸⁾ 특히, 마을 주민들이 직접 미디어 제작과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미와 열정, 보람을 느

5) Rauch, J., "Exploring the Alternative–Mainstream dialectic: What "alternative media" means to a hybrid audience",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vol.18, no. 1, 2015, p.130.

6) 장지은, 「여성주의 실천 전략으로 바라본 공동체 미디어」, 『한국여성학』 34권 1호, 2018, 106쪽.

7) 원도연, 「미디어는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나」, 『미디어와 교육』 6권 1호, 2016, 36-37쪽.

8) 김은규,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실천에 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60호, 2021, 120쪽.

끼고 ‘소통의 연결고리’와 ‘소통의 확산체’로서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중요한 가치⁹⁾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2) 재난 시기 발현되는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회복력

공동체 미디어는 재난 시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재난 기간과 복구 시기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회복력(resilience)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진다. 회복력이란 원상태로 복구하는 힘 혹은 복구 과정에서 요청되는 자원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지점은 공동체 회복력은 다시 되돌리는 것(bounce back)이 아니라 더 전진하며(bounce forward) 회복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동체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공동체 내 좋은 의사소통, 미디어와 같은 정보통신 시스템,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회복력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¹⁰⁾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공동체 내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나 사회망과 연결하는 것을 회복의 핵심 요소¹¹⁾로 바라본다. 공동체 미디어가 재난 시기 어떻게 공동체 회복력을 촉진했는가?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일본과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난 시기에 발현되는 공동체 미디어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토 마모루는 『정동의 힘』에서 대지진 때 일본의 공동체 라디오 ‘FM와이와이’¹²⁾의 실천 활동을 서술했다. 1995년 1월 17일, 한신 아와지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망자가 6천 명이 넘는 대참사였다. 피난

9) 정용복,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산자의 미디어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81권 1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7, 179쪽.

10) Nicholls, S., *The resilient community and communication practice*.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vol. 27, 2012, p.46.

11) Houston, J. B.·Spialek, M. L.·Cox, J.·Greenwood, M. M.·First, J., “The Centrality of Communication and Media in Fostering Community Resilience: A Framework for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9, no. 2, 2015, p.275.

12) 이토 마모루 저, 김미정 역, 『정동의 힘』, 갈무리, 2016, 246-247쪽.

장소였던 미나미코마에 공원에는 집을 잃어버린 사람 약 290명 정도가 피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베트남인, 재일한국·조선인, 일본인들이 함께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1995년 1월 28일 재일한국인이 운영해 온 미니FM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번역 작업을 시작했고 'FM여보세요'를 통해 생활정보를 전달했다. 그리고 그해 4월 17일 'FM유멘'이 개국하고 베트남인, 필리핀인 등을 대상으로 5개 언어 방송을 시작했다.

'FM와이와이'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공동체 회복력을 갖기 위해, 대지진 반년 후인 1995년 7월 17일 'FM와이와이'가 두 개의 작은 방송국을 합쳐 방송을 시작했다. 그래서 재난 이전부터 존재했던 일본인, 재일한국인, 조선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등 다양한 민족 간의 '언어의 벽'이 가져온 '마음의 벽'과 문화적 갈등을 허무는 방송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건과 2012년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 사건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지역민들에게 재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한 후, 다른 지역 언론사들이 폭풍우로 방송을 하지 못하는 사이, 공동체 라디오인 WQRZ-LP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긴급 안내 방송과 정보를 제공했다. WQRZ-LP는 미시시피주의 베이 세인트 루이스에 기반을 둔 비영리, 소출력 FM라디오 방송국이며, 앨라배마주의 모빌과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 사이에 있는 4개의 라디오 방송국 중 하나였다. 당시 라디오 주파수는 4마일 반경에 불과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하 FEMA)은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라디오 주파수를 30마일로 늘렸다. FEMA는 약 3,500개의 라디오 통신으로 카트리나 피해 속에 살아남은 주민들에게 재난 안내 방송을 전송하였다. 2년 후, WQRZ-LP는 그 지역의 신뢰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국이 되었다. 2012년 뉴욕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 재난 기간 역시 공동체 라디오는 재난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도시의 지역 방송국인 WNYC는 청취자들의 현황과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전략을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공동체 미디어는 재난과 관련한 긴급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난 기간과 복구하는 시점에서 많은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공동체 라디오뿐 아니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통해 생존자와 지역민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의사소통으로 공동체 회복력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¹³⁾

허리케인 샌디 사건 이후 역시 많은 시민들은 재난 극복을 위해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 플랫폼을 사용하였고, 폭풍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텍스트, 사진, 비디오 및 음성 녹음 등을 수집하고 각자 개인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¹⁴⁾하며 주민들 간의 공감과 신뢰를 형성하였다. 자연 재해가 잦은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동체 미디어는 매우 중요한 재난 정보를 알려주는 매체가 된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9.3 강진의 인도양 지진해일(2004 Indian Ocean earthquake and tsunami)이 발생하자, 기존의 방송국 시설이 파괴되었다. 아체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인 SeHa FM는 지역민들에게 긴급하게 재난 정보를 알리고 국가와 자원봉사 단체와의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재난 정보와 구호 물품 등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재난 회복 단계에서 지역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재난

13) Ostertag, S. F., Ortiz, D. G., "Katrina Bloggers Activate!: the long-term effects of digital media on civic participation", *Sociological Inquiry*, vol. 5, no. 1, 2015, p.53.

14) Mehta, A., *The Politics of Community Media in the Post-Disaster City*, Doctor of Philosophy in Urban Sociology and Planning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8, p.23-26.

복구와 구성원들 간의 피해 경험을 공감하는 방송을 송출했다. 이런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은 또 다른 피해 지역 난민들이 운영하는 공동체 라디오인 Samudera FM도 마찬가지였다.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종교적 메시지를 담았고, 재난 이후 지역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방송 제작에 참여하여 서로 간의 위로와 심리적 지지를 담은 내용을 송출¹⁵⁾하며 공동체 회복을 촉진했다.

종합해보면,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는 재난 시기 공동체 미디어 매체인 공동체 라디오, ICT 등을 통해 재난 정보뿐 아니라 지역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으로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시기 발현되는 대구지역의 공동체 미디어의 특징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했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1)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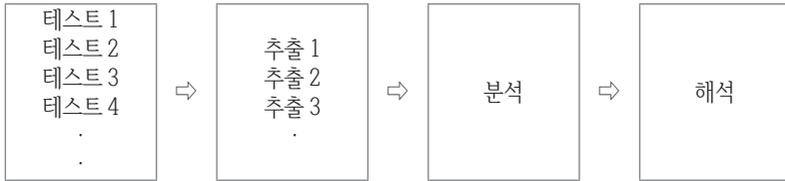
본 연구는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 적은 수의 카테고리 효율적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겉으로 외재된(explicit) 보도와 내재된(inferred) 보도의 의미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다.¹⁶⁾이 연구 방법은 의사소통과 미디어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데 필요하고,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내용분석의 목적은 특정 인물이나 매체의 의도와 특성을 확인하거

15) Birowo, M, A., "The Use of Community Radio in Managing Natural Disaster in Indonesia", *Prato CIRN Community Informatics Conference 2009. Refereed Paper*, 2009, p.3.

16) Hsieh, H.F.·Shannon, S,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15, no. 9, 2005, p.1279.

나 그 시대와 상황의 특징을 밝힐 때 사용¹⁷⁾한다. 그래서 내용분석의 목표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만드는 것”이다.¹⁸⁾

[그림 1]에서 보듯이 내용분석의 원리는 원전 텍스트에 담겨있는 정보 베이스를 토대로 연구 과제에 답을 얻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여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내용분석은 초기부터 텍스트에서 일관적으로 분리해낸 정보 문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 목적에 따라 구조화하는 방법¹⁹⁾이다.



[그림 1] 질적 내용분석의 원리

내용분석 과정 절차의 특징은 전체적인 맥락의 파악을 위해서는 단어, 문장,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연구자의 판단으로 내용을 범주화하는 코딩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수정 가능하며 순환적이고 유연한 분석으로 다양한 해석을 인정²⁰⁾한다.

본 연구는 [표 1]성서공동체FM<코로나19 특별 생방송>으로 제작된 19개 방송을 텍스트로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따르고자 한다.

17) 최성호·정정훈·정상원,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권 1호, 한국질적탐구학회, 2016, 129-130쪽.

18) Downe-Wamboldt, B. “Content analysis: Method, applications,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vol. 13, no. 3, 1992, p.314.

19) 요헨 글래저·그리트 라우델 저, 이상수·정수정 역, 『전문가 인터뷰와 질적 내용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276-277쪽.

20) 최성호·정정훈·정상원, 위의 논문, 130쪽.

[표 1] 성서공동체FM<코로나19 특별생방송>

방송 번호	방송일	제목
1	2020년 2월 28일	자가격리 중증장애인 대책이 없다
2	2020년 3월 2일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혹독한 코로나
3	2020년 3월 2일	대구의 환자들을 광주의 품에 안다
4	2020년 3월 4일	노래와 놀이로 코로나를 이겨요!
5	2020년 3월 4일	사회적기업 공감씨즈, 대구지원 의료진에게 게스트하우스 개방
6	2020년 3월 9일	경북학숙 주민, 확진자 못받겠다는 민원 어떻게 볼 것인가
7	2020년 3월 9일	시지마을공동체의 힘, 준비된 공동체는 달랐다
8	2020년 3월 9일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을!
9	2020년 3월 11일	백혈병 소아암 환자, 365일 마스크 필요하지만 기존 병원.
10	2020년 3월 11일	우리 동네 신당동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11	2020년 3월 13일	대구시, 코로나 사태 민생대책이 안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금
12	2020년 3월 13일	가장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마을이 마을을 돕다.
13	2020년 3월 16일	소통과 공감이 절실한 요즘, 음악으로
14	2020년 3월 16일	가족들과 면회도 안되는 상태에서 혼자 버티셔야하는 환자분들.
15	2020년 3월 18일	코로나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① 대구 여성의 전화
16	2020년 3월 18일	코로나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② 마을메이커스페이스 놀삼
17	2020년 3월 18일	감염병과 공공의료
18	2022년11월15일	성서공동체FM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재난 이후 재난을 말한다'
19	2022년12월12일	성서공동체FM 기획 다큐멘터리 '지역재난방송, 공동체라디오에 답을 묻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성서공동체FM<코로나19 특별생방송>으로 이 방송국과 방송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서공동체FM은 2004년 첫 정규방송(주파수 FM89.1MHz)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로 약 19년동안 성서지역에서 공동체 미디어 실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함께 2021년 서구 달성토성마을방송국, 중구 앞산마을방송국, 수성구 시지마을방송국 등 각 구

별로 마을방송국 건립, 대구마을방송국 개국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성서공동체FM의 경우 1W의 소출력으로 반지름 5km 안의 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비영리 라디오 방송 가칭인구는 성서지역 주민 약 30만 명이고 주요 청취 대상은 성서지역주민, 성서공단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다. 방송프로그램은 크게 7개의 섹션 [라디오 속 동행], [라디오의 재발견], [공동체 희망 릴레이], [SCN 음악 감상실], [SCN 뮤직 박스], [나도 DJ], [이주노동자 방송]으로 편성되어 있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인디가 뭐디’, ‘페미니스트 책장’, ‘갓난어른’, ‘신박동화’, ‘북클럽자기발전소’, ‘내멋대로 해라’, ‘달팽이 라디오’, ‘브라보 마이라이브’, ‘보파리 미술관’, ‘최신가요’, ‘뮤직 앤 컬처’, ‘차 한잔의 여유’, ‘나의 플레이리스트’, ‘나는 좋은데’, ‘클래식’, ‘라디오 사람책’, ‘감새미에서 온 편지’,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환상서점’, ‘당신과 나의 하루’, ‘언니가 언니에게’, ‘우리는 마을에 산다’, ‘하 나뿐인 지구에 대한 예의’, ‘놀 사람 보여라’, ‘정인호담’, ‘오늘은 해피데이’ 등 69개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다. 저녁 시간대인 오후 21시에서 23시까지 방영되는 이주노동자 방송(Migrant Worker`s Programs) 섹션은 요일별로 월요일은 몽골(Mongolia), 화요일은 중국(China), 수요일은 인도네시아(Indonesia), 목요일은 방글라데시(Bangladesh), 금요일은 파키스탄(Pakistan), 토요일 네팔(Nepal)로 나라별 방송이 편성되어 있다. 이주노동자 방송은 대구 성서지역에 산업 단지가 위치해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성 특성과 주요 청취자 중 일부가 이주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지역에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던 날, 성서공동체FM에서 <라디오 시인보호구역> 방송을 녹음하던 중이었고, 이 방송 뒤에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제작하는 방송 ‘오늘은 해피데이’ 녹음 일정이 있었지만, 방송을 모두 취소했다. 방송 제작을 취소한 지 3일 후, 성서공동체

FM 김남상현 PD를 비롯한 제작팀은 대구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지역민이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공적 마스크 구매 현황, 가짜 뉴스 검증, 지역민을 위한 심리적 지지가 필요²¹⁾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방송 제작 최소 인원으로 <코로나19 특별 생방송>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4. 연구 결과

다음은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19개의 방송 텍스트를 토대로 공동체 미디어 보도 내용을 5가지로 범주화하였다.

[표 2] 내용분석 결과

범주	하위 범주	추출 결과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재난 취약자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인력 부족 · 24시간 활동지원정책의 한계
	이주노동자	·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 · 번역된 코로나19 예방수칙이 없음
	백혈병 소아암	· 마스크 부족 · 진료 병원 폐쇄 · 서울병원이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동 제한
재난 시기, 공동체 실천 활동	지역 내의 도움	· 사회적 기업의 공익적 가치 · 마을공동체 실천 활동
	외부 지역 간 도움	· 광주 시민단체와 공동체의 지지 · 한국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연합 67개소 물품 지원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적 지지	노래와 놀이	· 코로나 블루 · 놀이 프로그램 제작 · 노래 콘서트
	심리적 지지	· 심리상담 ·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방송 · 이웃들 간의 소통
재난 대응을 위한 지역 정책 제시	재난지원금 지급	· 재난지원금 촉구 · 경제적 재난 취약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앞으로의 재난 대비책	· 공공의료 강화

21) 김민규, “[코로나19, 대구시민사회를 응원합니다] (5) 성서공동체FM, 김상현”, <뉴스민>, 2020.06.24.

공동체 회복력	성서공동체FM 방송	·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의미 · 재난 이후 기획 방송
	대구마을방송국 건립	·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플랫폼의 필요 · 각 구별 마을방송국 건립

1)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재난 취약자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우리 사회, 지역이 갖고 있던 불평등이다. 보편적 일상의 삶을 다루고 있는 공동체 미디어는 그동안 주류의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의 곁을 따라가는 데서 시작한다. 주된 권력과 획일적 시선에 의해 주변화되거나 망각되었던 측면들을 조명하고 새롭게 해석해 나간다는 점이 공동체 미디어를 대안 운동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다.²²⁾

2020년 2월 28일 방송된 주제는 ‘자가 격리된 중증장애인 대책’이었다. 2월 21일 보건당국에서는 자가 격리된 중증장애인을 위해 24시간 돌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던 대구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활 지원 인력이 없다 보니, 이 방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었다.

별도의 격리 시설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밖에 없어요. 장애인분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방송 1>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근배 활동가(2020.02.28. 방송).

중증장애인들은 활동 지원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결국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가들은 장애인 거주지역에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애인 자가격

22) 장지은, 앞의 논문, 132쪽.

리 가구는 시 차원에서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고, 고지받아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장애인 회원들에게 전화로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서 자가격리를 파악하고 확인해야 했다. 중증장애인 외에도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도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2020년 2월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구지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성서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 수는 2022년 3,271개 사업장에 4만 9천여 명이며 성서공단 내에만 6,0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있다.

노조에 찾아온 이주노동자분들과 조합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어요. 마스크를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수칙 설명이나 소독제 같은 제품 나눠주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해야 하고 시간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스크 구매 문제도 있고, 마스크 없이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한국 사람처럼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 추방당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중략] 이주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 관련 16개국 번역본이 필요합니다(<방송 2> 윤다혜 성서공단노조 이주사업부장(2020.03.02. 방송)).

재난 시기에는 이주민들의 언어로 재난 정보를 번역하여 안내하는 것이 이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고베 나가타구(區)에 위치한 다언어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FM와이와이'는 대지진이 발생하면, 청취자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재일한국인과 재일베트남들이 'FM와이와이'의 라디오 청취자들이었고, 언어로 번역된 정보는 이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당시 학교의 체육관이나 공원 등의 피난처에 라디오 수신기를 배포해서 집단적인 청취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주민 가족들에게 하나씩 보내주기도 했다.²³⁾ 코로나 19시기

23) 조동원, 「일본의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가다! -[라디오카페]와 [FM와이와이]」, 『진보적미디어운동연구저널ACT!』 13호, 미디어액트, 2004.

성서공단 이주노동자들에게 재난 정보-확진자 동선, 공적 마스크 배포, 코로나 백신 접종-는 그들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

백혈병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평소에도 면역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겨울철만 되면 부모님이 긴장 상태가 되죠. 외부 바이러스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일년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마스크가 부족하면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마스크 외에도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 출신 아이들이 예약해 놓고 취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략] 대부분 대학병원 중심으로 코로나로 폐쇄된 경우도 있고요. 365일 마스크가 필요한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에게 이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마스크 수급 대책이 절실합니다(<방송 9>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구경북지회 정민철 운영이사(2020.03.11. 방송)).

<방송 9>는 백혈병소아암협회 대구경북지회 정민철 운영 이사 인터뷰였다. 백혈병 소아암협회는 백혈병 소아암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곳이다. 완치된 아이들을 포함해서 사회 적응, 학업,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병원이 폐쇄되거나 대구지역에서 이동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예약이 취소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특히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마스크 후원은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

재난이 일어나면 평소에 없던 불평등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죠. 원래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던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같이 큰 도시에도 장애인 콜 서비스인 동행 콜이 30대밖에 없어요. 그럼 평소에도 웨이팅은 두세 시간씩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다고 해서 동행 콜이 60대로 늘어날 건 아니잖아요(<방송 18> 박은석 리슨투데이시티 디렉터, 공학박사(2022.11.15. 방송)).

<방송 18> 박은석 공학박사의 인터뷰처럼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있던 사회 불평등은 재난에 되면 드러난다. 재난에서 지역 공동체가 먼저 중심에 두어야 할 점은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의 재난 회복력이 결정²⁴⁾된다. <코로나19 특별 생방송>은 재난 시기, 중증장애인, 이주노동자, 백혈병 소아암 환자 등 적절한 재난 대응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재난 취약자의 목소리를 담아 구호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재난 시기, 공동체들의 실천 활동

공동체 미디어는 재난 시기 정보를 주고받는 매개 역할 뿐 아니라, 재난 시기에 공동체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미디어에 나오는 여러 소식은 재난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난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재난을 간접 경험하게 만든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재난에는 피해자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이야기, 기적적으로 재난에서 살아남아 가족에게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존재²⁵⁾한다.

마을공동체가 재난의 시기에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이 작은 신뢰들이 쌓여가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혼돈과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우리 삶의 희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서 이웃과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상황을 겪어내면서 대구 마을공동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다른 활동에도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방송 12> 김영숙 대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2020.03.13. 방송)).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봉사자들이 대구로 오자 (주)공감씨즈가 '공감 게스트하우스' 2채를 의료진들이 쉴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 사회적 기업은 대구에서 여행사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북한 이탈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는 기업

24) Vale, L. J., Campanella, T. J. *The resilient city: How modern cities recover from disaste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13.

25) 서미혜, 「재난으로부터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디어」, 『미디어와 공동체』, 컬처룩, 2018, 244쪽.

이다.

전국에서 대구로 일반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 오셨는데[중략] 숙소를 제공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전국에서 대구를 도우시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울컥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 어려운 시기에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6-70군데서 후원을 보내주셔서 의료진들을 위한 음식과 음료수, 과일 등 게스트하우스 양쪽으로 배치를 해서 진료 마치고 오시면 드실 수 있게 안내해 두었구요. 대구 다문화 사회적 기업은 의료진들 양말 빨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 양말을 500켤레 갖다 주셨어요. 어떤 사회적 기업은 곰탕을 열려서 보내신다든지, 너무 많이 와서 쪽방상담소와 연계해서 취약계층분들도 지원이 많이 없는데 그쪽에 나눠드렸습니다(<방송 5> 사회적 기업 공감 씨즈 허영철 대표(2020.03.04. 방송)).

사회적 기업 외에도 지역 곳곳에 마을공동체 역시 이웃을 돕기 위한 재난 대응 실천 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2020년 3월 9일에 방송된 시지마을공동체는 대구시 수성구 고산동 일대에 위치한 마을 공동체이다. 시지마을공동체는 코로나 시기, 대구 서구에 위치한 쪽방촌 사람들,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등 코로나 시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대구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동네 주민 카톡방과 밴드를 통해 상황을 알리고 모금 활동을 펼쳤다. 2월 29일과 3월 1일, 이틀 만에 총 129명이 후원금 396만 5,000원을 모았다.

저를 포함한 동네 엄마들 카톡방이 있었는데, 2월 28일이 되니깐 서로가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다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이 서로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카톡방에 있는 누군가가 쪽방촌에 급식이 안 되니, 바보 주막에서 김밥 만드는 봉사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방에 어떤 분이 성서공단 이주노동자분들이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내면 어떨까? 하고.[중략]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쌓인 신뢰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으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방송 7> 신미정 시지마을공동체 공동대표 (2020.03.09. 방송)).

다른 지역의 공동체들도 대구지역 공동체를 돕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2020년 3월 2일 <방송 3> '대구의 환자들을 광주의 품에 안다'는 광주 '문화 콘텐츠그룹 있다' 이순학 대표의 인터뷰 방송이다. 3월 1일 광주시가 '광주 공동체 특별담화문'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대구 경증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격리 치료하겠다."며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자를 수용하였고 이에 대한 광주시민들과 단체의 환영 반응에 대한 내용이었다. 2020년 3월 13일 <방송 12> '가장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마을이 마을을 돕다'는 한국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연합 전국 67개소에서 대구지역을 위해 각 마을 특산물, 김치, 직접 제작한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전국 마을공동체들의 연대 소식은 재난을 이겨내고 회복하고자 하는 힘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며 결속력을 강하게 내딛게 한다. 공동체 미디어는 마을공동체와 사람들 간의 실천 활동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3) 코로나블루(Corona Blue) 극복을 위한 심리적 지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체 회복력은 재난에 대처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능력 및 주민들의 인식을 의미한다. 재난 경험자들이 혼자 있다면, 상실감, 우울감,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그래서 회복력은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적 회복에 매우 중요한 의미²⁶⁾를 가진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감정을 지칭하여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²⁷⁾ 특히 대구

26) Hernandez, P. 2002. "Resilience in Families and Communities: Latin American Contributions from the Psychology of Liberation",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vol.1, no. 3, p. 335.

27) 손창배·이지연,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647쪽.

는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대구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경험했다. 감염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받을 두려움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성서공동체FM은 대구 지역민이 경험하는 이러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공감하고 서로 간의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방송을 송출했다. 2020년 3월 4일 “노래와 놀이로 코로나를 이겨요”, 2020년 3월 16일 “소통과 공감이 절실한 요즘, 음악으로...”는 코로나로 우울한 지역민들의 마음을 챙기기 위해 방송되었다.

마스크 제작은 저도 남이 하는 거 보고 시작했고. 그걸 보면서 아차! 싶었죠. 예술하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나?했죠. 1차로 지난주에 130개 제작해서 100개는 쪽방상당소 갖다 드리고, 배포했고요. 30개는 한사랑 법인에 선생님들이 없다고 해서 갖다 드리고요. [중략] 우리가 불안 심리가 많고 힘들어하는 것은 끝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격리자를 위한 놀이프로그램 제작할 예정입니다(노래 시작). 언젠가 끝이 와요, 나를 격려하고 좋은 일 하세요. 규칙을 지켜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요. 도움 줄 곳, 도움받을 곳에 연락을 해봐요. 지나친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요. 끝은 온다구요~(<방송 5> 이종일 놀이연구소장 (2020.03.04. 방송))

이종일 놀이연구소장은 마스크를 손수 제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한편 대구 마을공동체 곳곳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래·놀이 등을 보급하였다.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유명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노래를 만들지 않았지만, 소통과 공감이 절실한 요즘. 저희들의 부족한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희망정거장과 함께 [희망“폰”서트]를 하려 합니다(<방송 13> 코맨스 밴드 보컬 사필성(2020.03.16. 방송)).

3월 16일 방송된 코맨스 밴드는 대구지역 밴드로 코미디 로맨스의 합성어이며, ‘올라운드 플레이어(All Round Player)’로 듣기 편안하지만 강력한 ‘풀 어쿠스틱(Full Acoustic)’ 소리를 내는 밴드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는 대구 최초로 온라인 비대면 공연을 진행하였다.

3월 16일 <방송 14> 박유경 간호사가 가족들과 면회도 안 되는 상태에, 혼자 병상에서 코로나 19와 싸우며 버티는 환자분들을 위한 방송, 3월 18일 방송된 <방송 15>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대구여성의 전화’는 코로나 시기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내담자 상담에 대해 안내하였다. <방송 16> ‘코로나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마을메이커스페이스 놀쌘’ 방송에서는 소셜미디어 밴드에서 서로의 일상-아이들과 노는 모습, 집밥 공유, 좋은 그림과 글귀를 나누며 이웃들 간의 소통을 하자고 안내하였다. 재난으로 우울한 경험만이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과 이웃들 간의 다독임으로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제작자와 생산자, 지역민들이 느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은 각 개인 회복력의 총합이 아니다. 공동체 회복은 정적인 개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집합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재난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포함하는 동적인 개념²⁸⁾이다. 성서공동체FM은 재난 정보와 안내뿐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 간호사, 상담가, 놀이 연구가들이 지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문화적 장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공감과 지지로 회복하는 힘을 나누고자 했다.

4) 재난 대응을 위한 지역 정책 제시

공동체 미디어는 “공공선을 달성하려는 목표”²⁹⁾를 가진다. 그렇다면 누가 “공공선”을 정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공동체 미디어는 시민 미디어의 한 형태로, 생산의 풀뿌리 특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28) Houston et al., op.cit, p276.

29) Gordon, E.·Milhadis, P. Civic Media Project. *The Civic Media Project*, 2015.

터 독립적³⁰⁾이다. 이토 마모루³¹⁾는 ‘정동의 힘(Affective Power)’이란 정보와 의사소통 작용이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실천이 신체의 운동과 통합적으로 매개되어 있는 ‘동기’인 동시에 ‘결과’ 전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에게 공동체 미디어는 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운동성의 개념이다. 과거와는 달리 노트북이 놓인 책상은 광장이 되고, 손에 쥔 스마트 폰은 햇불이 된다. 공동체 미디어의 중요성은 지역민에게 여러 다양한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숙의적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데 있다.

2020년 3월 13일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재난지원금 촉구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했다.

대구시의 정책이 너무 늦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략] 이들 외에도 영세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 다수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방송 11> 대구참여연대 장지혁 사무국장(2020.03.13. 방송)).

대구참여연대 장지혁 사무국장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20만여 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해법으로 대구시의 재난관리지원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재난 관련 기금은 감염병,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와 관련한 용도로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예산의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마다 재난기금에 적립하고 있다. 예방 활동, 피해복구, 재해구호 등 사회복지성 기금으로도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구시도 재난기금 170억 원과 구호기금 80억 원 등 250억 원을 코로나 방역품 구매에 썼

30) Carpentier, N.·Lie, R.·Servaes, J., “Community media: Muting the democratic media discourse?”, *Continuum*, vol. 17, no. 1, 2003, p.53..

31) 이토 마모루, 앞의 책, 167-466쪽.

다. 하지만 대구시가 2020년 3월까지 저소득층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적하며, 빠른 집행을 촉구한 것이다.

2020년 3월 18일 ‘감염병과 공공의료’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대구에 코로나 19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달서구에 선별진료소를 준비하며 의료진을 구했다. 김동은 교수는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선별진료소를 맡은 의사였다. 또한 계명대 동산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자 격리병동을 찾아 간호 업무를 도왔다. 그 이유는 재난 시기, 환자들에게 의사보다 간호사 업무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병원인 대구의료원도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은 많지만 의료인력이 적어서, 실제로 운영되는 병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대구의료원 의료진분들이 초반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략] 그리고 이렇게 감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역학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감염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경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대구에 사실 역학 조사관이 1명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250만 되는 대구에 역학 조사관이 1명밖에 없다는 것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방송 17>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김동은 교수(2020.03.18. 방송)).

대구지역에 2020년 2월 18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2월 29일에 741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며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환자 75명이 사망했을 당시를 분석해 보면, 23%정도의 환자들이 병실이 없어서 확진을 받고도 병실이 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입원도 못 해보고 사망했다. 김동은 교수는 그 이유가 대구지역은 병상이 많은 의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민간 병상이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동은 교수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앞으로 더 짧은 주기로 반복될 것이 예

상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라고 주장했다.

반명진·김영찬(2016)은 공동체 미디어의 특성이 해당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당면한 지역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³²⁾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공동체 미디어가 지역 공동체 미디어로 중요한 지점은 지역민 개인의 미디어를 통한 표현과 소통은 물론, 지역의 여러 현안을 미디어를 통해 이슈화하고 함께 운동하며 지역의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5) 공동체 회복력

본 연구에서 공동체 미디어에 주목한 것은 공동체 회복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회복력은 재난 이전의 복원이 아니라 이후에 대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구조와 인식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성서공동체FM이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들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확인됐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코로나 시기에 아쉬웠던 게 모든 언론 방송 틀면 환자 몇 명 뭐 병실이 부족하다, 이 얘기만 있었는데 실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동대구역에는 쪽방상담소 무료급식도 없어졌고 동네 곳곳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해서 줄을 섰고, 아이들은 동네 학교에 가지 못하니깐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면 간식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 알게 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공동체에 마을 미디어가 있어야지 사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절실히 느꼈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방송 18>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2022.11.15. 방송).

재난 시기, 공동체 미디어는 지역에 맞는 재난 정보와 지역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여러 방안과 실천을 모색하고 방송을 제작하여 송출했다. 성서공동체FM<코로나19특별 생방송>은 정부와 시의 재난 대응 정책에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취약자, 재난을 돕기 위한 지역 공동체와 사람들, 다른 지역 공동체들의 도움과 연대,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지지,

32) 반명진·김영찬,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78권 4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 87쪽.

재난 대응을 위한 지역 정책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방송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서로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성서공동체FM은 재난 이후, 기획방송으로 라디오 다큐멘터리 <재난 이후 재난을 말한다(2020년 11월)>를 제작했다. 방송 내용은 재난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을 못했던 대구지역 문제점과 의료공백으로 아들을 잃은 정성재씨, 중증장애인 김시형씨의 코로나 분투기 등의 이야기였다. 또한 2022년 기획시리즈<돌봄 공동체, 대구를 설계한다>로 마을통합돌봄을 구축하고 있는 마을 현장 등을 방송으로 제작해 송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민들은 다가올 재난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의 안전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구마을방송국을 개국 준비를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재난으로 멀어진 이웃을 잇는 대구마을단위 공공미디어플랫폼 구축사업'이었다. 대구에서 현장 중심으로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은 중간 조직,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대의 힘이었다. 2022년 11월,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방송국을 건립한 역량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구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시민 청원을 하여 개정하였다. 바로 이러한 활동이 재난 이후, 새로운 제도와 구조, 힘을 복원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력이다. 이러한 공동체 회복력은 재난이 개인과 마을, 지역에 고통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구조를 바꾸고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 시기에 발현되는 공동체 미디어 실천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2020년 2월 대구 지역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에 맞는 적절한 재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공적 마스크는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무료 급식이 중단된 후 쪽방촌 사람들은 어디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지 등 지역에 맞는 재난 정보가 필요했다. 이에 공동체 미디어인 성서공동체FM은 <코로나19 특별 생방송>을 제작하여 지역에 맞는 적절한 재난 정보를 송출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19개 특별 생방송 텍스트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하여 재난 시기,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재난 시기 발현되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은 5가지로 범주화되었다. 우선, 공동체 미디어는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취약자들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성서공동체FM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활동 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현실, 공적 마스크 구매처와 정확한 재난 정보를 들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와 기저 질환을 가진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의 상황을 전달하였다. 둘째, 재난 시기, 이웃과 대구시민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실천 활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구로 온 전국의 의료진들을 위해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직접 제작한 마스크, 김밥 나눔과 기금 마련 활동,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대구 지역민을 돕기 위해 지역의 특산물, 마스크, 방역 물품을 보내는 현황을 담은 방송을 송출하였다. 셋째, 코로나블루를 경험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심리적 지지와 위로를 담은 방송을 제작하여 송출했다. 지역의 예술가, 간호사, 심리상담가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한 이웃들에게 음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다독

이는 내용으로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지지를 유도했다. 넷째, 재난 대응에 적절한 지역 정책을 발굴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구시가 재난지원금 배포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앞으로 대구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같은 과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미디어는 공동체 회복력을 촉진하였다. 공동체 회복력은 재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하는 새로운 구조와 대안, 힘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민 주도로 2021년 대구마을방송국의 개국한 것은 코로나19 시기 발현되었던 공동체 미디어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이고 실천적 과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에 발현된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을 탐색한 첫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시기, 서울 관악FM, 연제FM, 마포FM과 광주지역의 광주시민방송 등 각 지역의 공동체 미디어는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민들에게 송출하는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각 지역별로 재난 시기의 공동체 미디어 역할과 실천 활동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 회복력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다가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 주도로 개국된 대구마을방송국은 공동체 회복의 한 사례였다. 공동체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모색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민규, “[코로나19, 대구시민사회를 응원합니다] (5) 성서공동체FM, 김상현”, <뉴스민>, 2020.06.24.
- 김은규,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실천에 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60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83-128쪽.
- 김영숙, “[마을정책이슈브리프 3호-2] 마을공동체에 길을 묻다: 낯선 자들과 함께하는 삶”,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2.09.20.
- 반명진·김영찬,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78권 4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 79-115쪽.
- 서미혜, 「재난으로부터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디어」, 『미디어와 공동체』, 컬처룩, 2018, 239-245쪽.
- 손창배·이지연,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원격 디지털 미술치료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646-658쪽.
- 이토 마모루 저, 김미정 역, 『정동의 힘』, 갈무리, 2016.
- 원도연, 「미디어는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나」, 『미디어와 교육』 6권 1호, 한국교육방송공사, 2016, 36-37쪽.
- 요헨 글래저·그리트 라우델 저, 이상수·정수정 역, 『전문가 인터뷰와 질적 내용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장지은, 「여성주의 실천 전략으로 바라본 공동체 미디어」, 『한국여성학』 34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8, 105-140쪽.
- 전진아·이지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마음건강 돌봄 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375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8쪽.
- 정용복,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산자의 미디어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81권 1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7,

153-186쪽.

조동원, 「일본의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가다! -[라디오카페]와 [FM와이와이]」, 『진보적미디어운동연구저널ACT!』 13호, 미디어액트, 2004.

최성호·정정훈·정상원,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권 1호, 한국질적탐구학회, 2016, 127-155쪽.

Birowo, M. A., “The Use of Community Radio in Managing Natural Disaster in Indonesia”, Prato CIRN Community Informatics Conference 2009. Refereed Paper, 2009. pp.1-12.

Carpentier, N., Lie, R.·Servaes, J., “Community media: Muting the democratic media discourse?”, *Continuum*, vol. 17, no. 1, 2003, pp.51-68.

Downe-Wamboldt, B., “Content analysis: Method, applications,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vol. 13, no. 3, 1992, pp.313-321.

Gordon, E.,·Milhadis, P., Civic Media Project, *The Civic Media Project*, 2015.

Hernandez, P., “Resilience in Families and Communities:Latin American Contributions from the Psychology of Liberation”,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vol. 1, no. 3, 2002, pp.334-343.

Hsieh, H.F.·Shannon,S,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15, no. 9, 2005, pp.1277-88

Houston, J. B.,·Spialek, M. L.·Cox, J.·Greenwood, M. M.·First, J., “The Centrality of Communication and Media in Fostering Community Resilience: A Framework for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59, no. 2, 2015, pp.270-283.

Nicholls, S., “The resilient community and communication practice”,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vol. 27, 2012, pp.46-51.

Mehta, A., “The Politics of Community Media in the Post-Disaster City.” *Doctor of Philosophy in Urban Sociology and Planning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8, pp.23-26.

Howley, K., “Community media: People, places,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Ostertag, S. F., Ortiz, D. G., “Katrina Bloggers Activate!: the long-term effects of digital media on civic participation”, *Sociological Inquiry*, vol. 85, no. 1, 2015, pp.28-54.

Rauch, J., “Exploring the Alternative-Mainstream dialectic: What “alternative media means to a hybrid audience”,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vol. 18, no. 1, 2015, pp.124-143.

Rennie, E., “Community Media and Direct Representation”, *In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Dresden International Congress Centre, Dresden, Germany. 2006.

Rodriguez, C., *Fissures in the mediascape: An international study of citizens’ media*, Cresskill, NJ: Hampton Press, 2001.

Vale, L. J., Campanella, T. J., *The resilient city: How modern cities recover from disaste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공감게스트하우스> <https://empathyguesthouse.modoo.at/>.

<대구마을방송국> <https://dgmaeul.com/>.

<성서공동체 FM> <http://www.scnfm.or.kr/>.

<성서공동체FM앱> <https://bit.ly/성서공동체FM앱>.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난 시기에 발현되는 공동체 미디어 실천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대구지역 공동체 미디어인 성서공동체FM은 <코로나19 특별 생방송>을 제작하여 지역에 맞는 적절한 재난 정보를 안내하는 미디어 실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분석하고자 본 글의 연구 방법으로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19개 방송 텍스트를 추출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재난 시기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을 5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공동체 미디어는 중증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백혈병 소아암 환자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취약자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공동체 미디어는 재난 시기 공동체와 사람들 간의 연대와 실천 활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국에서 온 의료진들을 위해 숙소를 내어준 사회적 기업과 직접 제작한 마스크와 김밥 나눔, 기금 마련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대구 지역민을 위한 후원 물품 나눔 활동을 소개하였다. 셋째, 코로나블루를 경험하는 대구 지역민들을 위해 지역 예술가의 노래와 공연, 상담가, 간호사들의 이야기로 심리적 지지를 유도했다. 넷째,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공공의료 강화와 같은 지역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성서공동체FM<코로나19 특별 생방송>은 공동체 회복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사례로 공동체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역민들이 2021년 대구마을방송국을 개국하며 안전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 시기에 발현되는 공동체 미디어 역할을 탐색한 첫 연구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재난 시기 발현되는 공동체 미디어 실천과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 회복력은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여 새로운 구조와 대안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발굴되는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공동체 미디어, 코로나19, 성서공동체FM,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대구마을방송국

■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Community Media in Large-Scale Disasters : Focusing on Daegu Seongseo Community FM <COVID-19 Special Live Broadcasting>

Jang, Ji Eun
/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role of community media by analyzing community media practice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disaster. Daegu's community media, Seongseo Community FM <COVID-19 Special Live Broadcast>, was organized to guide and respond to disaster information appropriate to the region during the COVID-19 period.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based on the texts of 19 broadcasts of <COVID-19 Special Live Broadcast>. As a result of text content analysis, the role of community media in disaster situations was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First, the community media played a role in informing the situation of the disaster vulnerable. Second, the community media delivered the stories of the community and people who help each other during the disaster. Third, it broadcasted contents containing comfort and empathy to overcome Corona Blue. Fourth, local issues such as disaster support funds and strengthening public medical care in Daegu were discovered and tasks were presented. Finally, the community media played a role in promoting community resilience. Community resilience is not simply about recovering to its previous state, but also presenting new structures and alternatives necessary to respond to future disasters. As the example, with the opening of the Daegu Village Broadcasting in 2021, local reside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ommunity media and formed networks and safety platform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study to explore the role of community media expressed in

disasters. In addition to the Daegu area in the future, research to explore the practice and role of community media in disasters will be needed.

Keyword • Community Media, COVID-19, COVID-19 Special Live Broadcasting, Daegu Seongseo Community FM, Daegu Village Broadcasting Station

■ 논문투고일:2024.02.25. ■ 심사완료일:2024.03.20. ■ 게재확정일:2024.03.21. ■

조선시대 설행된 여제(厲祭)의 제장 연구

: 한성부(漢城府)의 여단(厲壇)을 중심으로*

최진아**

목 차

1. 머리말
2. 한성부 여단의 축조사와 장소성
3. 여단의 공간구조와 제단 배치 및 의물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국가사전(國家祀典) 편제(編制) 속 소사(小祀)로 설행된 여제는 비명횡사한 원혼이나 후손이 없어 제사를 받지 못하는¹⁾ 무사귀(無祀鬼)²⁾를 위한 의례이다. 여제는 “여기(厲氣)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으로 연구됨.(HY-2022-1603)

** 한양대학교 ERICA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 1) 이옥, 「조선전기 원혼을 위한 제사의 변화와 그 의미: 수록재와 여제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권, 한신인문학연구소, 2001. 172쪽.
- 2) 국행제로 거행되는 여제의 패(牌)와 축문(祝文) 등의 의물(儀物)에 여귀(厲鬼)는 무사귀·무사신(無祀神)·무사귀신(無祀鬼神) 등으로 기록된다. 이 외에도 여귀는 무주고혼(無主孤魂)·고혼(孤魂)·원혼(冤魂)·원귀(冤鬼) 등으로도 칭해지나, 국행제에서 선호되는 용어들은 아니었다. 본문에서는 인용 사료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려 한다. ‘무사귀’·‘무사신’·‘여귀’ 등의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지내는 제사”이다.³⁾ 여기는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여귀에 의해 일어난다고 인식되어 왔다. 여귀는 그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화’나 ‘괴롭힘’을 주는 ‘귀’라는 의미이다.

귀신에 대한 논의는 기원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귀신론(鬼神論)은 공자(孔子, B.C. 551~479)의 후학들이 집필한 『예기(禮記)』와 이후 주희(朱熹, 1130~1200)의 문답집인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⁴⁾ 『예기(禮記)』에 의하면, “모든 만물은 세상에 나와 반드시 죽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이를 귀(鬼)라 하고 그 기운이 발산하여 나타나는 것이 신(神)”⁵⁾이라 하였다.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경우 귀와 신은 정해진 곳으로 각기 향하지만,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영혼은 그러지 못하고 떠도는 유혼(遊魂)으로 변한다.⁶⁾

유교에서 유혼은 음혼(陰魂)이라 지칭되기도 한다. 이들은 인간세계에 떠돌며 화를 미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음혼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제대로 된 제사를 받지 못해 기(氣)가 흩어지지 않고 맺혀⁷⁾ 재앙을 초래하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유교적 관점에서 죽은 자는 혼백(魂魄)이 흩어져야 하는 것이 이치⁸⁾인데, 그렇지 못한 음혼은 인간의 삶에 관여한다고 믿어졌다.

3) 1452년(단종 1) 황해도 지역에 창궐한 여역(癘疫)의 원인을 여귀로 보고, “여제단에 제사를 지내 여귀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단종실록』 권1, 단종 1년 6월 28일(을축)] 내용을 인용하였다.

4) 박성규, 「朱子の 厲鬼論」, 『규장각』 26권,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3, 152-155쪽.

5) 『예기』, 「郊特生第十一」.

6) 김장생의 『사계전서(沙溪全書)』에는 『주역(周易)』의 「계사(繫辭)」를 인용하여, “정기(精氣)가 ‘물(物)’이 되고 유혼이 ‘변(變)’이 된다.”: 『사계전서(沙溪全書)』 권20,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7) 『國朝五禮儀』, 「厲祭教書」.

8) 박성규, 앞의 글, 2003, 152-155쪽.

음훈의 변이(變異)로 나타난 여귀를 위한 제사는 기고제(祈告祭)로 분류되며,⁹⁾ 기양제(祈禳祭)의 성격을 띤다. 기양제는 가뭄·질병·전쟁·불행 등 일상적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거행하는 의례이다.¹⁰⁾ 여제는 여러 다양한 재해 중 여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 이유는 “병의 원인이 귀신에게 있다.”고 믿었던 병인론(病因論)에 근거한다.¹¹⁾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제사를 받지 못한 귀신은 원통함을 안고 분함을 품어 이것이 맺혀 흠어지지 않아 원기(冤氣)가 쌓이는데, 이로 인해 역질(疫疾)이 생기고 화기(和氣)를 해쳐 변괴(變怪)에 이른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¹²⁾

여제는 주(周)나라에서 행한 벽책유제(鬻磔遺制)에서 시작되었다.¹³⁾ 조선 초기 여제는 명(明)의 태조(太祖)인 주원장(朱元璋, 1328-1398) 통치 기간에 간행된 『홍무예제(洪武禮制)』를 근간¹⁴⁾으로 하여 법제와 용례를 확립하였다. 명에서의 여제는 16세기에 들어 중단되었으나,¹⁵⁾ 조선에서는 그 중요성을 깨달은 정종부터 여제를 법제화한 태종 그리고 고종까지, 조선의 열성조(列聖朝)에서 여제를 국행제로 거행하였다. 조선 초기 명의 예제를 받아들였을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의 주도 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타당하나, 명의 시행 중단 이후에도 여제를 지속적으로 지내왔다는 점을 주목할

9) 『은대조례(銀臺條例)』, 「예고(禮攷)」, ‘기고제(祈告祭)’.

10) 이옥, 「조선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권, 한국사연구회, 2002, 185-186쪽.

11) 이옥, 「조선시대 국가 사전(祀典)과 여제(厲祭)」, 『종교연구』 19권, 한국종교학회, 2000, 152쪽.

12)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1월 14일(갑술).

13) 『주례』, 「春官大宗伯」.

14)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1월 14일(갑술).

15) 和田博徳, 「里甲制と里社壇・郷厲壇」, 『西と東と--前嶋信次先生追悼論文集』, 汲古書院, 1985, pp.413-430.; 서영대, 「한국과 중국의 성황신앙 비교」, 『중국사연구』 12권, 중국사학회, 2001, 181쪽에서 재인용.

필요가 있다.

여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역사학·종교학·인류학·민속학·의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접근 방식을 달리한 연구 성과가 있어왔다. 첫째 국가제사의 하나인 여제의 변천사와 여제의 대상에 주목한 연구, 둘째 국가정책으로 시행한 원혼의례라는 관점의 연구, 셋째 고혼 혹은 원혼을 위로하는 종교의례에 주목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인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¹⁶⁾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여제 연구는 제사 변천사·국가정책·원혼·여역 등과 관련된 성과가 다수를 이룬 반면, 제사가 행해지는 제장과 의물 등과 관련된 연구는 관심수준¹⁷⁾에 머물렀을 뿐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여제가 실행되는 제장인 여단만을 연구 주제로 한 성과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국가에서는 일정한 용례 속에서 여제를 실행하였다. 물질문화의 구성요소 중 제장에 해당하는 여제단(厲祭壇)¹⁸⁾은 전국적으로 존재하였으며, 그 구조는 대체로 동일한 양상을 띠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16) ① 이옥, 「17세기 여제의 대상에 관한 연구」, 『역사민속학』 9권,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315-347쪽.; 이옥,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김유리, 「조선시대 여제 실행과 무사귀신의 문제」, 『역사민속학』 50권, 한국역사민속학회, 2016, 73-99쪽 ② 이옥, 앞의 글, 2001, 169-187쪽.; 송헌동, 「조선조의 죽음의례 정책」, 『종교문화연구』 8권, 한신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06, 165-189쪽 ③ 조홍윤, 「잡귀잡신연구」, 『종교신학연구』 1권,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소, 1988, 79-93쪽.; 황루시, 『뒤틀린 주인공』, 지식의 날개, 2021. ④ 최종성, 「무의 치료와 저주」, 『종교와 문화』 7권, 서울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01, 102-129쪽.; 김현영,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로병사: 의·점·무(醫占巫)」, 『2012년 장서각특장자료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8-38쪽.

17) 건축학 분야에서 전국의 사직단과 성황단 및 여단의 제소 공간과 신실과의 구조 관계 등을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신혜원, 「조선시대 성황 제소(祭所)의 혼란한 양상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44권, 가천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2017a, 125-150쪽.; 신혜원, 「조선시대 지방 단유(壇壝)건축 신실(神室)의 유형과 변화」, 『건축역사연구』 26권, 한국건축역사학회, 2017b, 7-18쪽)가 있다.

18) 이하 본문에서는 사료와 고지도에서 선호하는 용어인 여단으로 칭한다.

는 한성부의 여단¹⁹⁾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여제를 재조명하려 한다. 그 이유는 한성부의 사례를 주·현 단위 여단 축조의 시작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여제 제장의 구조와 제단 배치 및 의물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려 한다. 제소(祭所) 구조는 소사(小祀)의 법제를, 의물은 제사 대상과 관련된 위판(位版)과 패(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의물인 무사귀의 위수(位數) 변화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조선 초기 『홍무예제』를 근거로 한 법제를 성립할 당시는 12위였다.²⁰⁾ 그런데 기존의 무사귀 연구는 15위의 대상만을 중점적으로 논한 경향이 있어왔다.²¹⁾ 명의 예제 도입 당시와 그 이후 위수 및 대상의 변화과정에는 주목하지 않아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위수와 대상 변화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한성부 여단의 축조사(築造史)와 그 장소성(場所性)을 살펴본다. 여단의 축조과 의례의 정비(整備)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그 과정을 함께 규명한다. 여단은 사대문 밖에 상설과 비상설단이 소재하였으며, 그곳에서 절제와 별제 및 위제 등이 설행된 점도 주목해 보려 한다. 그 다음으로 제사 설행 시 제단에 배치되는 의물인 목주(木主)와 이를 중심으로 그 배치구조를 파악하려 한다. 더불어 목주로 봉안되는 여제 대상과 그 위수의 변화도 파악하려 한다. 위수는 곧 여제의 위안(慰安) 대상으로서 당시의 무사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조선시대 여제 관련 물질문화 연구를 위한 시론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서두에 밝힌다.

19) 사대문 밖 북교의 상설단을 중심으로 하되, 삼교의 비상설단 또한 함께 살펴보려 한다.

20)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1월 14일(갑술).

21) 이옥, 앞의 글, 1999, 315-347쪽.; 김유리, 앞의 글, 2016, 73-99쪽.

2. 한성부 여단의 축조사와 장소성

조선시대 여단은 군현 단위에 설치되었다. 당시 전국 모든 군·현에 1개 소씩 설치된 관인(官認) 성황사 및 사직단·문묘와 함께 지방 단위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로 여겨진다.²²⁾ 여단은 전국에 설치 전 한성부에 먼저 조성되었다. 본장에서는 한성부가 여단 조성 역사의 시작점으로서 의의를 지니기에, 축조사와 장소성을 살펴보려 한다. 제장의 축조는 곧 의례의 정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그 과정 또한 함께 파악하려 한다.

1) 여단의 축조사와 여제의 정비

조선 초기 국가제사는 고려 말 명에서 유입되어 조선 초 예제의 근간이 되었던 『홍무예제(洪武禮制)』를²³⁾ 지침서로 삼았다. 태조 이래 예조는 대부분의 의례를 제정하고 수정·보완하는 중심기능을 맡았고, 태종대에는 명나라의 『홍무예제』를 기본으로 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태종연간에 전문적인 예제 연구기관인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1402년, 태종 2)]가 설립되기도 하였다.²⁴⁾

조선 건국 후 국가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에 여단 축조 계획을 세웠다. 정종 2년(1400)에 정종은 “여단을 축조하고 전국의 주현에도 여단의 설치를 명”하였다.²⁵⁾ 정종이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한양에서 개성으로 환도하였기에,²⁶⁾ 정종 2년(1400)에 설치된 여단의 위치는 개성이었을 것으로 보이

22) 서영대, 앞의 글, 2001, 203쪽.

23) 『홍무예제』는 명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조선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책을 인출(印出)하기에 이른다. 조선 초기 호적을 제외한 국가의 문서와 예제는 모두 『홍무예제』를 그대로 따라 정비되었다.; 박준호, 『『홍무예제』와 조선 초기 공문서 제도』, 『고문서연구』 22권, 한국고문서학회, 2003, 144-146쪽.

24) 안유경,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그 속보(續補)편의 편찬과정 및 내용』, 『유교문화연구』 16권,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0, 66쪽.

25) 『연려실기술별집』 권4, 「사전전고」.

26)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6월 9일(무인).

나 관련 자료가 전존하지 않아 짐작만 할 뿐이다.

정종 2년(1400)의 왕명과 다르게 여단은 제대로 축조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유를 예학자인 권근(權近, 1352-1409)이 태종의 즉위와 함께 다스림의 근간을 조언하는 내용에서 찾아보려 한다. 태종 1년(1401) 권근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국가의 조제례(朝祭禮)가 모두 황명(皇明)의 법을 따르고 있으나 유독 여제만 제외되고 있기에, 귀신을 위한 여제의 법은 모두 『홍무여제』를 따라 시행하게 할 것을 상서(上書)”하였다.²⁷⁾

유독 사전(祀典) 중 여제를 강조하여 언급한 권근의 조언이 받아들여져, 한성부에 위치했던 여단은 한양으로의 환도 후 태종연간에 축조된 것으로 짐작된다. 태종 4년(1404) 예조에서 제일·제장·제물·제관 등의 내용이 서술된 여제의(厲祭儀)를 상정(詳定)하였는데,²⁸⁾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중(京中)과 외방(外方) 각관(各官)에서 매년 봄 청명일과 가을 7월 15일, 겨울 10월 초 1일에 무사귀신에게 제사하되, 그 단은 복교 사이에 설치하고, 그 제물은 경중에서는 희생(犧牲)으로서 양 세 마리와 돼지[豕] 세 마리를 쓰고…(생략)…경중에서는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 당상관(堂上官)이나 한성부(漢城府) 당상관(堂上官)으로 하고, 외방(外方)에서는 각각 그 지역의 관원으로 하소서.”

위의 내용을 통해 보건대, 경중과 외방 각관에서 올리는 제물과 제관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다. 태종 2년(1402)에 설립된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1402년, 태종 2)]에서 예제의 기반을 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여제 제장의 축조 관련 내용은 태종 13년(1413) 사전(祀典) 개정 과정에서 예조가 태종에게 단(壇)과 유(壝) 축조를 아뢰는 기록을 살펴본다.

“제사(諸祀)의 단과 유 중 오직 사직단(社稷壇)과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

27)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1월 14일(갑술).

28)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6월 9일(무인).

만이 법식에 따라 축조되었고, 그 나머지 영성(靈星)·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중농(仲農)·후농(後農)의 단과 유는 모두 아직 축조되지 못하였으며, 선농(先農)·선잠(先蠶)·노인성(老人星)·북교여제(北郊厲祭)의 단과 유는 비록 이미 축조하였다 하더라도 또한 법식과 다르니, 위향의 단과 유는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땅을 보아서 축조하소서.”²⁹⁾

위의 기록을 통해 한성부 북교에 위치한 여단은 정종의 집권 당시가 아닌 태종 연간에 축조된 것으로 짐작된다. 정종 2년(1400) 전국에 여단을 축조하라는 명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가장 처음 어느 곳에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태종 13년(1413) 기록에는 ‘북교여제의 단과 유’라는 정확한 소재지가 서술되어 있다. 단(壇)과 유(壝) 즉 단유(壇壝)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흙을 쌓아 올린 제단과 울타리가 있는 제소를 말한다. 물론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여단은 법식에 따라 축조된 것이 아니다. 여단이 언제 법제를 갖춰 조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영성단(靈星壇)의 법식을 따른다”³⁰⁾ 는 기록을 확인할 뿐이다.

이후 세종 12년(1430)에 여단을 비롯한 여러 단이 정비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단지기를 두어 단을 관리하게 하였다.³¹⁾ 세종 22년(1440)에는 예조에서 여제의주(厲祭儀注)를 조진(撰進)하였다.³²⁾ 여제의주에는 태종대의 여제의 보다 제장 배치와 행례 절차 등이 보다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29)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6월 8일(을묘).

30) 『동국여지비고』 권1, 「경도」.

31)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19일(경인). 단지기 배치 이후에도 단유로 축조된 제소에 대해서는 “법식에 맞춰 체제를 갖출 것을 아뢰는 예조의 글이 종종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세종실록』 권50, 세종실록 12년 12월 8일(갑술)]점진적으로 법제에 맞춰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

32) 『세종실록』 권89, 세종 22년 6월 29일(을해).

[표 1] 한성부 여단 축조와 여제 정비 과정

시기	내용	비고
정종 2년(1400)	(수도)여단 축조 후 전국의 주현에 여단 설치 명	위치 불명확
태종 2년(1402)	의례상정소 설립, 예제 기반	
태종 4년(1404)	예조 여제의 상정	
태종 13년(1413)	사전 개정 과정, 복교여제의 단과 유	복교
태종 16년(1416)	예조, 여제 발고제법, 성황발고제	풍운뇌우단
세종 12년(1430)	여단에 단지기 배치, 단 관리	
세종 22년(1440)	여제 여제의주 조진	성황단 발고, 복교단 행제
문종 2년(1452)	신좌설치	
성종 5년(1474)	여제, 소사(小祀) 편제	영성단 동일

여제의 체계화는 태종과 세종 때에 체계화되었던 것으로 보는 의견이 일반적이다.³³⁾ 이는 여단의 축조와 여제의 상정 및 여제의주 조진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제사의 정비는 곧 제관과 제의절차 및 제소와 의물 등도 함께 구비되어야 한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태종과 세종 연간에 이루어졌기에 기존 학계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나, 여제의 체계화와 여단이 법식에 맞게 구비된 시기는 태종 4년(1404)에서 문종 2년(1452) 사이일 것으로 추정해본다. 태종 4년(1404) 여제의 상정을 시작으로, 태종 13년(1413)에 비록 법제에 맞지 않지만 복교에 이미 축조되었던 여단, 태종 16년(1416) 풍운뇌우단에서의 여제발고제법(厲祭發告祭法), 세종 22년(1440)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여제의주 조진 그리고 문종 2년(1452) 신좌(神坐)의 설치³⁴⁾를 통해 온전한 형태와 형식을 갖춘 여제와 여단이 정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좌는 신위판(神位版)을 놓는 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곧 법

33) 이욱, 앞의 글, 1999, 316쪽.

34)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6월 9일(무인).;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6월 8일(을묘).;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 8월 5일(갑자).;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19일(경인).; 『세종실록』 권89, 세종 22년 6월 29일(을해).; 『동국여지비고』 권1, 「경도」.

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방식일 것으로 짐작해본다. 그리고 성종 5년(1474) 『국조오례의』소사에 편제³⁵⁾되며 비로소 국행제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15세기 한성부의 여단 법식 완성 후 전국의 여단은 창의문 밖 북교에 위치한 여단을 기준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허목(許穆 1595~1682)의 사후 17세기에 발간된 시문집 『기언(記言)』에 “강릉의 여제단을 만들기 위해 한양의 여단에 직접 와 그 축조형태와 공간 구조가 서술”³⁶⁾된 기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절제·별제·위제가 설행된 여단의 장소성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 정기적·부정기적으로 국행제(國行祭)를 지냈다. 그 규모에 따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구분되었다. 여제는 국행제의 하나로 소사의 규모로 지냈다. 여제는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설행되었다. 정기성을 띤 여제는 ‘절제(節祭)’의 범주 속에 분류되어, 청명(淸明)과 7월 보름 그리고 10월 초하루에 지냈다.³⁷⁾ 부정기성을 띤 여제는 ‘별제’ 혹은 ‘별여제’라 불렸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사고 그리고 여역 등의 원인이 여귀에게 있다고 여겨,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면 별제를 지냈다. 별제는 여단과 별여단 혹은 사고가 난 지점에서 행해졌다.³⁸⁾

한성부의 상설(常設) 여단은 북교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에서 절제와 별제를 모두 지냈다.³⁹⁾ 북교단(北郊壇)·북방토룡단(北方土龍壇)과 함께 북

35) 『국조오례의』, 「길례」.

36) “경성에 들어섰을 때 소리(小吏) 박기창(朴基昌)에게 북교(北郊)의 국려(國厲)의 제를 살피게 하였다.”, 『기언』 권24, 『중편』, 「기행(記行)」.

37) 『經國大典』 註解 後集 下 「禮典」.: 기일 3일 전에 발고제(發告祭)를 남교 성황단에서 거행한다. 이상은 소사(小祀)에 실려 있다(『동국여지비고』 권1, 「경도」.).

38) 본고에서는 사고 지점에서 행해진 별제 제장 연구는 논외로 한다.

39) 정조 23년(1799)에 “여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십만에 이르자, 한성부 당상을

쪽의 창의문(彰義門) 밖⁴⁰⁾ 장의사동(藏義寺洞) 골짜기에 있었다.⁴¹⁾ 여단은 북단(北壇) 옆에⁴²⁾ 있었는데, 여기서의 북교단은 북교로, 북방토룡단은 북단, 여제단은 여단이라는 약칭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별제는 동교·서교·남교 즉 삼교(三郊)에서 행해졌다. 삼교와 북교를 포함해 사교(四郊)라 불렸으며, 모두 사대문 밖에 위치해 있었다. ‘교(郊)’는 그 명칭 자체가 성 밖을 뜻한다.



[그림 1] 『광여도』의 「도성도」에 표기된 여단(상)과 남단(하)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그림 2] 「도성도」의 여단 확대

절제로 설행하였던 여제는 기일 3일 전에 발고제(發告祭)를 남교 성황단에서 거행한다.⁴³⁾ 성황단은 노인성단·원단·영성단·풍운뢰우단과 함께 합단(合壇)의 형태로 조성되었다.⁴⁴⁾ 이곳에서 성황에게 여제를 지내겠음을 고

북교에 보내 별려제를 행하고, 삼교에 경악(經幄)의 신하를 보내 죽은 이들을 위로하는 위제(慰祭)를 행하게 한 사례에서, 북교에서는 절제와 별제를 모두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정조실록』 권51, 정조 23년 1월 15일(갑술)].

- 40)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도한성부」.
- 41) 『용재총화』: 『동국여지비고』 권1, 「경도」.
- 42) 『연려실기술』 권4, 「祀典典故」.
- 43) 『동국여지비고』 권1, 「경도」.
- 44)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도한성부」.

하는 제사를 지낸 후 북교의 여단으로 성황의 위판을 모시고 가, 제사를 지냈다. 일부 사료에는 절제를 북동남서사교(北東西南四郊)에서 모두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해 본다.

“태상의 제품(祭品) 규식에는 원래 사교의 여제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북교 한 곳에서만 절제로 지내고 동교와 서교 및 남교에서는 별제만을 지낸다.”⁴⁵⁾

1786년(정조 10)에 홍역이 유행하여, 북교 외의 동서남교에서 여제를 설행하기 위해 봉상시가 『제물등록(祭物臚錄)』을 상고(上告)해 그에 대한 설행 사례에 대해 아뢴 내용이 전해진다. 물론 단편적인 기록만이 전존하여 사교에서의 절제 설행이 보편적인 양상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사교 여단에 기양제를 드리기 전 성황에게 발고한 제문 사례를 통해⁴⁶⁾ 재난 시에는 사교에서 동시에 별제를 지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별제는 삼교에 위치한 토룡단에서 설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북교에 소재하였던 북단과 마찬가지로 삼교에 위치한 토룡단은 각각 동단, 서단, 남단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동방토룡단은 흥인문 밖 평촌에, 남방 토룡단은 한강 북쪽에, 서방 토룡단은 가을두(加乙頭)에 위치해 있었다.⁴⁷⁾ 『정조실록』에 그 위치가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별제를 위한 제의공간인 동단(東壇)은 왕십리에, 서단(西壇)은 흥제원(弘濟院)에, 남단(南壇)은 석우에 있었다”⁴⁸⁾고 기록되어 있다.

삼교에서 설행된 별제 중 숙종 24년(1689) “독려(毒癘)로 인해 팔로경사(八路京師)에 주검이 쌓여있음을 한탄하며 숙종이 직접 제문을 쓰고 남교

45)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4월 10일(계미).
46) 『홍재전서』 권21, 「제문3」.: “四郊厲壇祈禳祭前二日告城隍文”, “司天少陰 客氣爲疹 民之邁止 辟禳是軫 將大酹爾 徧于四圻 號聚如響 繫藉冥威”.
47)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도한성부」.
48)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4월 10일(계미).

에서 여제를 지내게 한⁴⁹⁾ 기록이 『국조보감』에 전존한다. 이 사례는 성황 밧고제가 설행된 남교에서 진행되었기에 밧고제와 별제를 한 장소에서 연달아 지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삼교의 단에서는 여제 외 위제(慰祭)를 지낸 기록이 나타난다. 정조 23년(1799)에 “여역으로 도성 밖에 사망자가 늘어나자 북교에는 별제를, 동교·서교·남교에서는 위제를 지내게 하였다⁵⁰⁾”는 기록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여제가 아닌 ‘위제’라는 별도의 명칭을 쓴 점도 주목해볼만 하다. 여제가 여기(厲氣)의 소멸을 위한 제라면, 위제는 특정 시점에 특정 사건으로 사망한 사자(死者)를 위로하는 위령제(慰靈祭)로 이해된다. 위제는 비정상적인 죽음을 위해 설행한다는 점은 여제와 유사하지만, 그 명칭을 달리 부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도성도의 제단은 국가제사 중에서 중사 이상만을 표기하는데, 중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제단을 표기하지는 않았다.⁵¹⁾ 고지도에는 남단의 위치는 표기되어 있으나 중사가 설행된 풍운뇌우단과 성황단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한성부의 여단은 거의 대부분의 도성도에 그 위치가 표기되어 있다. 이는 여단의 장소성을 드러내주는 귀중한 근거자료로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소사의 규모로 행해졌던 여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3. 여단의 공간 구조와 제단 배치 및 의물

한성부의 여단은 2장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태종 때에 축조되었으나 여

49) 『국조보감』 권50, 숙종조 10, 숙종 24년(무인).

50) 『정조실록』 권51, 정조 23년 1월 15일(갑술).; 『국조보감』 권75, 정조조 7, 정조 23년(기미).; 『정조실록』 권1, 부록 정조 대왕 행장(行狀).

51) 장지연, 「조선 후기 도성도를 통해 본 단묘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권45, 조선시대사학회, 2008, 287-290쪽.

단 자체만의 제장의 규모에 대한 설명이나 진설도 등은 전해지지 않는다. 예서를 비롯한 사료에 소사의 법제에 따라 구비된다는 내용은 확인되나, 한성부의 여단만을 기록한 자료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여제 시 제단의 배치구조는 사료에 서술된 기록으로는 전해지나 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 할만한 진설도 등은 전존하지 않는다.

본장에서는 한성부 여단의 공간구조를 소사법제와 전존하는 사료를 통해 규명해 보려 한다. 본장에서는 여단의 공간구조와 의물인 목주와 이를 중심으로 여단의 배치구조를 살펴보려 한다. 여제를 지낼 때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의물은 성황의 존명(尊名)과 무사귀의 위명이 적힌 목주(木主)이다. 무사귀의 목주는 조선 초기 『홍무예제』의 법제를 그대로 수용한 것과 다르게 위수와 대상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규명해 보려 한다.

1) 여단의 공간 구조

국가제사를 위한 제장은 크게 실내와 실외로 나뉜다. 이 중 실외에 위치한 국가제사의 제단은 대개 단유(壇壝)의 형태로 축조된다. 제사건축에 속하는 단유건축은 제사 행례가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인 단(壇)과 이를 둘러싼 낮은 담장인 유(墪)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 유형이다. 읍지와 같은 문헌에서는 주로 단묘(壇廟) 항목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나, 항목 이름이 사묘(祀廟), 단사(壇祠), 묘사(廟祠) 등인 경우도 적지 않다. 직접적으로 단유라는 항목 이름을 사용한 문헌도 있다.⁵²⁾

여단은 실외에 축조된 제장으로 단과 유를 갖춘 형태이다. 단유는 단을 가운데 두고 주변에 담이 둘러쳐진 형태이다. 『국조오례의』에 소사로 편제되기 이전에 태종 연간에 이미 조성되었으나, 법제에 맞지 않다는 기록이 있다. 편제된 이후에 여단은 다른 소사의 제소와 마찬가지로 “여단(厲壇)은

52) 신혜원, 앞의 글, 2017b, 7-8쪽.

북부 창의문(彰義門) 밖 장의사동(藏義寺洞)에 있는데, 제도는 영성단과 같다.”⁵³⁾는 기록이 다수이기에, 영성단의 법제를 중심으로 그 구조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세종실록 오례의』와 『동국여지지』 등에 의하면 영성단의 법제는 다음과 같다.

“...(생략)소사를 행하는 영성단·마조단·선목단·마사단·마보단은 모두 넓이가 2장 1척, 높이가 2척 5촌이요, 작은 담이 하나다...(생략)소사인 명산대 천단과 각 고을에서 제사지내는 제단은 영성단의 제도에 따르며...모두 사방으로 계단을 내되 3층씩 쌓아 올린다.(생략)...”⁵⁴⁾

“(영성단) 사방 2장 1자이며, 높이는 2자 5치이다. 사방으로 계단을 내었고 담은 둘레가 25보이다. 신좌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있다.”⁵⁵⁾

앞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한성부 여단의 제소를 단독으로 서술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료에 한성부 여단의 공간구조에 대한 서술은 『기언』이 유일하다. 한성부 북교의 축조형태가 전체 사방의 배치 구조를 파악해 볼 수 있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성에 들어섰을 때 소리(小吏) 박기창(朴基昌)에게 북교의 국려(國厲)의 제를 살피게 하였다. 단은 사방 23척 2촌 4푼이고, 높이는 1척 6촌 6푼이다. 세 곳으로 계단이 나 있어, 동·서·남 세 계단이다. 계단은 세 층계이다. 좌우에는 제사단(祀壇)이 없고 앞은 단과 너비가 같았다. 뒤로는 6척 6촌 4푼이 나 있어 길이는 23척 4푼이고, 높이는 5촌이며, 각각 단과의 거리는 1척 6촌 6푼이었다. 네 곳의 문은 동일한 토담으로 둘러져 있었다. 동·서쪽에는 제사단이 없는데 아래는 곧바로 마주하여 문이 되었다. 토담의 남·북은 83척이고, 동·서는 116척 2촌이었으며 단의 동·서·북쪽과 토담 사이는 9척 9촌 6푼이었다.”⁵⁶⁾

『기언』의 서술내용은 단유의 법제를 따른 것인지 혹은 그 규격의 실측

53) 『동국여지비고』 권1, 「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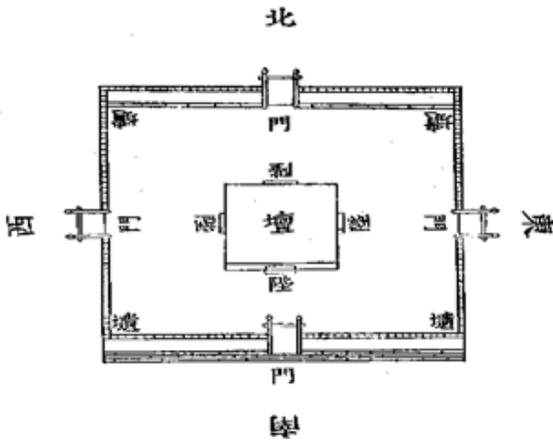
54) 『세종실록』 권128, 오례, 길례·서례.

55) 『동국여지지』 권1, 「경도」.

56) 『기언』 권24, 「중편」, ‘기행(記行)’.

이 정확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 전기인 세종12년(1408)에 예조에서 “전국 단유의 길이와 넓이 일정하지 않고 담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대사와 중사 그리고 소사의 법제를 제시하며 체제를 갖추 것을 제안”⁵⁷⁾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조선전기라 중기에 들어서는 단유의 법제가 정비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연』에 서술된 여단의 사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조선시대 지방의 경우, 사직단과 성황단 그리고 여단이 정부의 주도하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⁵⁸⁾ 전국의 주현에 이 세 단이 반드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단을 제장을 예서에 별도로 서술하지 않은 점이 다소 의아하다. 앞서도 설명한 바와 여러 자료에서 여단을 비롯한 소사의 단제는 영성단과 같다는 기록을 통해 영성단의 기준으로 여단의 법제를 살펴볼 뿐이다.



[그림 3] 단유도(출처: 『홍재전서』 권62, 「잡저(雜著)」)

57)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1408) 12월 8일(갑술).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19일(경인).

58) 신혜원, 앞의 글, 2017년, 8쪽.

다시 정리하면, 여단은 영성단과 동일한 구조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료와 『홍재전서』의 「잡저」 중 ‘성단향의(星壇享儀)’에 묘사된 단유도⁵⁹⁾를 통해 전체 구조를 서술하고 그 법제를 정리해 본다. 단(壇)의 넓이는 2장 1척, 높이가 2척 5촌이며, 작은 담 즉 유(壘)가 하나이다. 제장의 전체 구조는 단을 중심에 두고 그 둘레로 사각형의 담이 둘러져 있고 각각의 담 가운데에 홍살문(紅箭門)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안 중앙에 단(壇)을 쌓고 네 방향에 계단이 축조되어 있는데 각 방향의 계단이 문을 향해 있는 모습이다.

2) 목주 중심의 여단 배치구조와 대상

(1) 여제 제단의 배치구조

여제는 수한(水旱)·여역(厲疫)·충황(虫蝗)·전벌(戰伐)⁶⁰⁾ 등이 일어났을 때, 이를 소멸하기 위해 행하는 기양제⁶¹⁾ 중의 하나였다. 이 중 여역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현재 감기라 불리는 온역(溫疫)이 봄과 가을에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망건수도 적지 않았다.⁶²⁾ 이외에도 재난에 해당하는 여역 창궐과 관련하여 별여제를 지낸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⁶³⁾

여제는 남교에서의 성황발고제와 북교에서의 여제를 순차적으로 지낸다. 여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황에게 먼저 고해야 한다. 한성부에

59) 『홍재전서』 권62, 「잡저(雜著)」 권9, ‘성단향의(星壇享儀)’.

60) 『은대조례(銀臺條例)』, 「예고(禮攷)」, ‘기고제(祈告祭)’.

61) 이옥, 앞의 글, 2002, 185-186쪽.

62) 이규근, 「조선후기 질병사 연구: 조선왕조실록의 전염병 발생 기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6권, 국사편찬위원회, 2001, 31쪽.

63) 그 예로 순조 22년(1822)에는 7-8월에만 별여제를 무려 4차례나 지냈다(『순조실록』 권25, 순조 22년 7월 11일(계미).: 『순조실록』 권25, 순조 22년 7월 22일(갑오).: 『순조실록』 권25, 순조 22년 7월 26일(무술).: 『순조실록』 권25, 순조 22년 8월 3일(갑진))는 기록이 보인다.

서는 남교에 위치한 풍운뇌우산천성황단에서 성황발고제(城隍發告祭)를 거행⁶⁴⁾한다. 성황발고제는 태종 16년(1416), “예조에서 성황발고제법을 계(啓)하자 태종이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를 그 시작으로 본다.⁶⁵⁾

발고제에는 성황에게 여제를 지내는 것을 미리 고하는 예탐(豫探)의 의미와 함께 성황에게 무사귀를 불러 들여 줄 것을 바라는 의도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성황발고제를 위해 제단의 배치구조와 축문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황신좌는 풍·운·뇌·우신의 오른쪽에 세우며, 위패는 모두 남향한다.”⁶⁶⁾

“(축문)여제 전 성황에게 먼저 발고하고 그 위판을 모시고 가 여단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성황의 힘을 빌려 고향들을 불러 모아 제사를 지내려 한다.”⁶⁷⁾

“(축문)모월 모일, 북교에 제단을 설치하고 온 경내의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사귀에게 제사를 지내려 하니 (성황)신의 도움으로 무사귀들을 불러 제단에 모이게 하소서.”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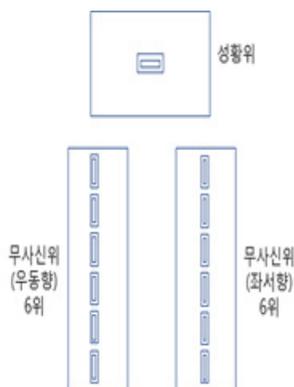
발고제는 여제 3일전에 지내며, 이후 북교의 여단으로 성황신의 위판을 모셔와 제를 지낸다. 여단의 배치구조는 『동국여지비고』에서 확인된다.

성황신은 단 위 북쪽에 있어 남향하며, 무사귀신 15위는 단 아래에 좌우로 서로 향하게끔 위치한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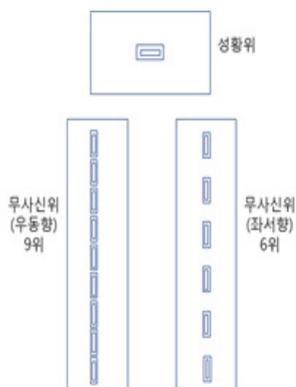
목주를 중심으로 여단의 배치구조를 살펴보면, 남교에서 모셔온 성황신의 위판은 제단 위 북쪽에 세워 남쪽으로 향하게끔 하고, 그 단 아래 무

64) 『성호사설(星湖僿說)』 권4, 「만물문」.
65)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 8월(갑자).
66) 『목민심서(牧民心書)』 권7, 「예전육조」.
67) 『성호사설(星湖僿說)』 권4, 「만물문」.
68) 『목민심서(牧民心書)』 권7, 「예전육조」.
69) 『동국여지비고』 권1, 「경도」.

사귀의 신위를 좌서향과 우동향으로 각각 마주보게끔 세운다. 즉, 상위 제단의 중앙에 성황위를, 그 하단의 좌우에 무사귀 위패를 마주보게끔 배치하는 구조이다.⁷⁰⁾ 무사귀의 위판은 12위라면 좌우 각각 6위씩 대칭이 되는 구조라 할 수 있지만, 15위의 경우는 6위와 9위로 나누어져 배치된다. 『송자대전』에 “추가된 3위는 우동향에 세워둔다”⁷¹⁾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15위에서는 좌동향에 6위, 우동향에 9위를 좌정시킴을 알 수 있다. 무사귀 위패는 성황을 기준으로 한다. 즉, 남향한 성황의 신좌를 중심으로 좌우를 구분한다.



[그림 5] 12위 배치구조



[그림 6] 15위 배치구조

(2) 목주로 봉안되는 여제 대상과 위수 변화

여제의 제단에 배치되는 의물 중 주목할 부분은 곧 목주이다. 목주는 성황위의 존명(尊名)과 무사귀의 위명이 필사된 위판(位版)과 패(牌)를 말한다.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그곳에 존명과 위명을 필사한 목주를 단에 세운다. 성황과 무사귀의 목주는 봉상사에서 관리하였다. 그런데, 목주는

70) 『대명집례(大明集禮)』, 「제례조(祭禮條)」;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여제의(厲祭儀)」.

71) 『송자대전』 권1, 「일백일」.

각각 하나(한 세트)만을 보유하고 있다. 재난과 재해로 “성황과 무사귀의 목주가 각각 하나(한 세트)만을 보유하여 삼교 혹은 사교에서 한날에 별제를 지낼 때 지방(紙榜)에 위명을 필사하여 단에 세웠다”는 사례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⁷²⁾

여제에 초대되는 신은 성황과 무사귀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황에 대한 사고는 단순하지 않다. 삼국시대 성황 유입 당시 중국 성황의 일부 직능만이 수용되었다.⁷³⁾ 중국 도교 성황신앙 역사는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예기』에 그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 명의 홍무(洪武) 20년(1387) 성황의 묘우를 관청처럼 고쳐지었으며 판사(判事)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그 모습과 조직체계 등도 국가기관을 본 따 만들었다.⁷⁴⁾ 중국 민간도교에서 성황은 삶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는 행정의 신이다. 살아있는 이들의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며, 죽은 자의 음부(陰府)로 가는 증명서 발급을 담당한다. 죽은 자는 음부로 가기 전 일정기간 성황묘에 머무르면서 성황의 관할 하에 있게 된다.⁷⁵⁾ 이처럼 성황은 음부의 신으로 인식되어, 여제에 초대될 신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제에 초대되는 이들은 성황의 관할⁷⁶⁾이라는 인식은 『홍무예제』의 법제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성호사설』에는 “국가 사전에 성황신이 있는데, 무사의 귀신무리들[無祀之衆鬼]을 거느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받게 하였다.”⁷⁷⁾는 내용이 있다. 이

72)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4월 10일(기미).

73) 중국에서 유입된 성황은 전쟁과 관련된 신(김갑동,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 74권, 한국사연구회, 1991, 4쪽.) 혹은 수리 관련 방어시설(『삼국사기』 권50, 「궁예전」.)로서 성황의 여러 다양한 직능 중 일면만이 수용되었다.

74) 馬書田, 『華夏諸神: 鬼神卷』, 『冥間鬼神』, 風格司, 2012, p.43.

75) G. 프르너 저, 조흥운 옮김, 『중국의 신령』, 정음사, 1984, 139-140쪽.

76) 『홍재전서』 권19, 「제문」1, ‘厲祭文 丁酉’; 『寒岡集』 권11, 「祝文」, ‘祭無祀鬼神文 咸安’

77) 『성호사설』 권17, 「인사문」.: 여기서의 귀신무리들은 무속의례에 초대되는 ‘때

를 성황발고제라 부르며, 이후 3일 뒤에 여제를 지낸다. 이 때 성황의 위판에는 그 존명이 ‘모주(某州) 모현(某縣) 성황(城隍)의 신(神)’로 쓰여 있다.⁷⁸⁾

여귀는 크게 재난재해로 사망하였거나 제사지내 줄 후손을 두지 못한 채 사망한 영혼, 이 두 가지 범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에는 여역으로 사망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러한 이유로 여귀하면 여역으로 죽은 자와 연관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후자는 봉사자(奉祀子)의 부재(不在)와 연관된다. 전자의 죽음의 상황과 또 다르게 혼례를 올렸으나 후손이 없는 경우 혹은 처녀·총각인 채로 사망하는 등 무자손(無子孫) 영혼들이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자손 없이 사망하여 제사 지내 줄 이가 없는 경우에도 여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성황위의 위판은 하나이지만, 무사신의 패는 12위에서 14위 혹은 15위로 그 숫자에 변화가 있었다. 목주의 숫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제의 제사대상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여제단에 배치되는 신위는 조선 초기와 전기에 12위였다가 점진적으로 13위에서 14위 혹은 15위로 늘어났다. 일부는 다른 여귀로 대체되거나 혹은 두 여귀가 하나로 합사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추가되기도 하는 등의 변화과정을 겪었다.

무사귀의 위수는 조선 초기부터 15세기 중반까지 『홍무예제』법제 그대로 12위로 유지되었다. 위수의 변화는 세종 연간에 이루어졌다. 세종 22년(1440)에 여제는 성황단에서 발기하고 북교에서 제를 지냈는데, 이 때 제의 전 제관들의 몸가짐을 비롯한 제의 전 준비와 제의날짜와 시간 그리고 제의 공간과 무사신 위패 배치 및 전물, 의례 진행과정 등의 용례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는 무사신 위패 12위를 좌우에 배치하는 것으로 서술

귀 신'(조흥윤, 앞의 글, 1988, 79-93쪽.)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78)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19일(경인).

되어 있다.⁷⁹⁾ 12위의 무사귀 위명은 다음과 같다.

좌서향(左西向): ①병기(兵器)에 맞아 횡사한 자[遭兵刃而橫傷者], ②수화 도적에 죽은 자[死於水火盜賊者], ③남에게 재물을 빼앗겨 책망하여 죽은 자[被人取財而逼死者], ④남에게 처첩을 강탈당해 죽은 자[被人強奪妻妾而死者], ⑤형화를 만나 누명을 쓰고 죽은 자[遭刑禍而負屈死者], ⑥천재 유행에 병(여역)을 얻어 죽은 자[天災流行而疾死者]

우동향(右東向): ⑦맹수와 독충에게 해를 입은 자[爲猛獸毒蟲所害者], ⑧ 굶주리고 동사한 자[爲飢餓凍死者], ⑨전쟁에서 몸을 잃은 자[因戰鬥而隕身者], ⑩위급하여 스스로 목을 맨 자[因危急而自縊(苦)者], ⑪담이 무너져 압사한 자[因墻屋傾頽而壓死者], ⑫사후 자손이 없는 자[死後無子孫者]

이후 세종 26년(1444) 10월에 인순부윤(仁順府尹) 박연(朴堧)이 “난산으로 사망한 산모(難產而死)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할 것을 아뢰자, 예조에 하례하였다.”⁸⁰⁾는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바로 같은 해에 “번개 맞아 사망한 자(震死者)와 추락사 한 자(墜死者)”가 추가되어 15위가 되나, 그와 관련된 기록은 『성종실록』에만 보인다. 그런데 추가된 위수의 변화가 바로 여제에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종 3년(1472)에 이미 “세종 26년에 시행된 15위를 갖추지 않고 여전히 12위로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한 내용⁸¹⁾을 통해 이를 유추해본다.

79) 『세종실록』 권89, 세종 22년 6월 29일(기해).

80)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10월 1일(병오).

81)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6일(계유).

[표 2]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무사귀 위수와 위명

위수 (位數)	시기	무사귀 위명	출처
12위	1440년 (세종 22)	좌: 遭兵刃而橫傷者, 死於水火盜賊者, 被人取財而逼死者, 被人強奪妻妾而死者, 遭刑禍而負屈死者, 天災流行而疾死者 우: 爲猛獸毒蟲所害者, 爲飢餓凍死者, 因戰鬥而隕身者, 因危急而自縊(苦)(者), 因墻屋傾頽而壓死者, 死後無子孫者	『세종실록』 권89
13위	1444년 (세종 26)	좌: 遭兵刃而橫傷者, 死於水火盜賊者, 被人取財而逼死者, 被人強奪妻妾而死者, 遭刑禍而負屈死者, 天災流行而疾死者 우: 爲猛獸毒蟲所害者, 爲飢餓凍死者, 因戰鬥而隕身者, 因危急而自縊(苦)(者), 因墻屋傾頽而壓死者, 死後無子孫者, 難産而死	『세종실록』 권106
14위	1680년	戰陣而死國, 遭鬪毆而亾軀, 以水火盜賊, 罹飢寒疾疫, 爲墻屋之頽壓, 遇蟲獸之螫噬, 陷刑辟而非罪, 因財物而逼死, 因妻妾而殞命, 危急自縊, 沒而無後, 産難而死, 震死, 墜死	『한강집』
	1760 (영조 36년)		『성호사설』
15위	1444년 (세종 26)	13위+2위(震死者, 墜死者)	『성종실록』 권15
	19세기 추정	좌: 遭兵刃死者. 遇水火盜賊死者. 被人取財物逼死者. 被人強奪妻妾死者. 遭刑禍負屈死者. 因天災疾疫死者 우: 爲猛獸毒蟲所害死者. 凍餒死者. 戰鬥死者. 因危急自縊者. 被墻屋壓死者. 産難死者. 震死者. 墜死者. 歿而無後者	『동국여지비고』 권1, 「경도」
2위	1786년 (정조 10)	十五位版, 亦以紙榜, 書無祀神位, 每壇左右, 分設一榜似好	『정조실록』 권21 특수한 사례

그런데, 이후 사료에는 14위에서 15위가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보기도 한다. 14위 사례로는 1680년에 간행된 『한강집(寒岡集)』⁸²⁾과 대략 영조 36년(1760)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호사설』에서 파악된다. 여역과 아사 및 동사 이 2개의 신위를 하나의 위[罹飢寒疾疫]에 합치고 여기에 어렵게 애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難産而死]를 포함하여 12위로 만들었다. 여

82) 『寒岡集』 권11, 「祝文」, ‘祭無祀鬼神文 咸安’.

기에 벼락사[震死]와 추락사[墜死]를 추가하여 14위를 갖추었다.⁸³⁾

15위는 정조 17년(1793)의 『일성록(日省錄)』, 송시열(1607-1689)의 유고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 1814년에 간행된 『홍재전서』, 1871년에 간행된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 그리고 1873년에 간행된 윤홍규(尹弘圭, 1760-1826)의 유고집 『도계선생유고(陶溪先生遺稿)』⁸⁴⁾ 등의 기록에 나타난다. 정확한 간행연대는 알 수 없으나, 19세기에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국여지비고』에도 15위⁸⁵⁾로 표기되어 있다. 15위의 위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좌서향(左西向): 앞의 12위 ①-⑥과 동일

우동향: 앞의 12위 ⑦-⑩과 동일, ⑫난산으로 사망한자[產難死者], ⑬벼락 맞아 죽은 자[震死者], ⑭추락사한자[墜死者], ⑮후손이 없는 자[歿而無後者]

15위 중 좌서향은 이전의 12위와 동일하다. 우동향 또한 11위까지는 이전과 동일하다. 추가된 3위가 12위의 맨 마지막 위수였던 무후자(無後者) 사이에 배치된 점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한편, 별제에는 종이에 위명을 필사한 지방이 목주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위수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성부의 사교(四郊)에서 동시에 별제를 지낼 때 무사신위(無祀神位)라 쓴 지방을 좌우에 각각 하나씩만 세웠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이유로 “성황과 무사신위가 하나 밖에 없어, 여러 곳에서 한날에 여제를 지낼 때는 지방을 세웠으며 이전에도 그와 같이 했다”⁸⁶⁾는 내용이 함께 서술되어 있다. 일부 사례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목주 대신 지방으로 대체

83) 『성호사설』 권4, 「만물문」.

84) 『송자대전』 권1, 「일백일」.; 『일성록』, 정조 17년 2월 4일(정묘).; 『임하필기』 권 16, 「문장지장편」.; 『도계선생유고』 권4, 「제문」.

85) 『동국여지비고』 권1, 「경도」.

86)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4월 10일(기미).

하여 별제를 지냈다는 점, 15위의 위명을 무사신위로 통일하여 두 위만을 세웠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 후기에 들어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 맺음말

본문에서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여단을 중심으로 제장의 축조사와 장소성과 함께 여단의 공간구조 및 목주를 중심으로 그 배치구조를 살펴보았다. 여제는 여역을 비롯한 재난을 일으키는 근원으로 여겼던 여귀를 달래기 위해 설행한 의례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홍무예제』를 근간으로 한성부와 전국의 주현에 여단을 축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5세기 한성부 여단조성을 시작으로 여제 관련 의례의 상정, 여제발고제법, 의례의주 조진, 신좌 설치, 소사 편제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제장이 축조되었더라도 그 법식이 예제에 맞지 않아,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용례 또한 소사로 편제되기 전까지 의례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 등을 거치기도 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제소의 구성과 의례의 정비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규명해 보았다.

한성부 여단은 사대문 밖, 사교에 위치해 있었다. 제장은 상설과 비상설로 구분된다. 상설은 창의문 밖 북교에, 비상설은 삼교에 소재하였다. 상설과 비상설은 정기제와 부정기제로 분류할 수 있다. 정기제는 상설단에서 1년에 3회에 설행되는 절제를, 부정기제는 비상설단에서 재난 상황에서 설행되는 별제를 말한다. 이 외에도 재난이나 재해가 이루어진 지점에서도 별제가 설행되지만 본교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비상설단에서는 별제 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설행하는 기양제의 성격을 띤 위제도 설행되어, 이 점 또

한 주목해보았다. 별제와 위제를 구분한 점을 본문에서는 밝히지 못하였으나, 여귀와의 구분을 두려는 의도가 내재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본다.

한성부의 여단은 단과 유의 구조로 조성되었다. 그 법식은 영성단과 동일한 것으로 여러 사료에 서술되어 있다. 『홍재전서』에 영성단의 단유도 도식이 있어 그 구조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였다. 한성부 여단의 모습은 『기언』에 묘사되어 있는데, 영성단의 별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자료 보완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성부의 여제는 남교의 성향단에서 발고제를 먼저 지낸 후 3일 뒤 성향의 목주 위판을 북교의 여단에 모셔와 여제를 지냈다. 중국에서 성향은 양부와 음부를 관할하는 행정신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여귀를 모아줄 것을 간청하기 위해 발고제를 지냈다. 북교 여단에서의 제단의 배치구조는 성향 위판을 남쪽으로 향하게 놓고 그 아랫단에 목주로 만들어진 무사귀패를 좌우에 세워두었다. 무사귀의 위수는 명의 예제 도입 당시에는 12위로 시작하였지만, 조선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난산으로 사망한 산모를 시작으로 3위를 추가하여 15위로 변화하였다. 다소 예외적이기는 하나, 별제를 사교에서 동시에 지낼 때는 ‘무사신위’라는 위명만을 필사한 지방을 세워두기도 하였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추가된 3위는 당시 관련 사망 빈도수가 많은 비정상적인 죽음의 유형으로 이해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죽음 중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당대인들의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리라 본다.

기존의 여제 연구는 용례(用例) 및 여귀 등과 관련된 성과가 다수를 이룬 반면, 공간(空間)·상징물(象徵物) 등과 관련된 연구는 관심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물질문화를 중심으로 한성부의 여제를 재조명해 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추후 연구과제로 전국의 상설여단 및

재난이 일어난 지점에서 설행된 별여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공간과 상징물 등을 정리하고 검토하여, 전국에서 설행된 여제의 물질문화를 규명해보려 한다.

■ 참고문헌

- 『禮記』 『朱子語類』 『洪武禮制』 『高麗史』 『國朝五禮儀』 『厲祭臚錄』 『春官通考』 『銀臺條例』 『國朝五禮通編』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經國大典』 『輿地圖書』 『新增東國輿地勝覽』 『春官志』 『東國李相國集』 『梅月堂集』 『亂中雜錄』 『沙溪全書』 『寒岡集』 『宋子大全』 『星湖僊說』 『靑莊館全書』 『牧民心書』 『弘齋全書』 『五洲衍文長箋散稿』 『鶴峯先生文集』 『東國輿地備考』 『東文選』 『竹陰集』 (한국고전종합DB,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김유리, 「조선시대 여제 설행과 무사귀신의 문제」, 『역사민속학』 50권, 한국역사민속학회, 2016, 73-99쪽.
- 김현영,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로병사: 의.점.무(醫占巫)」, 『2012년 장서각특장자료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8-38쪽.
- 박성규, 「朱子の 厲鬼論」, 『규장각』 26권,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3, 151-168쪽.
- 박준호, 「『홍무예제』와 조선 초기 공문서 제도」, 『고문서연구』 22권, 한국고문서학회, 2003, 141-167쪽.
- 박호원, 「중국 성황의 사적 전개와 신앙성격」, 『민속학연구』 3권, 1996, 국립민속박물관, 1996, 85-121쪽.
- 서영대, 「한국과 중국의 성황신앙 비교」, 『중국사연구』 12권, 중국사학회, 2001, 173-225쪽.
- 송현동, 「조선조의 죽음의례 정책」, 『종교문화연구』 8권, 한신대학교종교문화연구소, 2006, 165-189쪽
- , 「현대한국 원혼의례의 양상과 특징」, 『종교연구』 61권, 한국종교학회, 2010, 131-151쪽.
- 신혜원, 「조선시대 성황 제소(祭所)의 혼란한 양상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44권, 가천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2017a, 125-150쪽.

- , 「조선시대 지방 단유(壇壝)건축 신실(神室)의 유형과 변화」, 『건축역사연구』 26권, 한국건축역사학회, 2017b, 7-18쪽.
- 안유경,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그 속보(續補)편의 편찬과정 및 내용』, 『유교문화연구』 16권,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0, 63-96쪽.
- 이규근, 「조선후기 질병사 연구: 『조선왕조실록』의 전염병 발생 기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6권, 국사편찬위원회, 2001, 1-42쪽.
- 이 욱, 「17세기 여제의 대상에 관한 연구」, 『역사민속학』 9권,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315-347쪽.
- , 「조선시대 국가사전과 예제」, 『종교연구』 19권, 한국종교학회, 2000, 149-168쪽.
- , 「조선전기 원혼을 위한 제사의 변화와 그 의미: 수륙재와 여제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권, 한신인문학연구소, 2001, 169-187쪽.
- , 「조선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권, 한국사연구회, 2002, 161-193쪽.
- ,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 장지연, 「조선시기 주현 사직단 설치의 의미와 그 실제」, 『한국문화』 56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3-46쪽.
- 조흥윤, 「잡귀잡신연구」, 『종교신학연구』 1권 1호,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소, 1988, 79-93쪽.
- 최종성, 「무의 치료와 저주」, 『종교와 문화』 7권, 서울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01, 102-129쪽.
- 황루시, 『뒤틀린 주인공』, 지식의 날개, 2021.
- G.프르너 저, 조흥윤 역, 『중국의 신령』, 정음사, 1984.
- 馬書田, 「華夏諸神: 鬼神卷」, 『冥間鬼神』, 風格司, 2012.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여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여제를 재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제는 역병과 재난을 일으키는 근원으로 여겼던 여귀를 달래기 위한 의례이다. 기존의 여제 연구에서는 공간·상징물 등은 간과(看過)해 온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장과 의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여제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명의 『홍무예제』를 근간으로 하여 전국 주현 단위에 단의 설치를 명하였다. 한성부에 여단이 축조된 것은 15세기 초이다. 그 축조사는 곧 의례체계 구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상설 여단은 창의문 밖 북교에, 비상설 여단은 삼교에 소재하였다. 북교에서는 정기제인 절제를, 삼교에서는 별제와 위제 등을 거행하였다.

한성부 여단의 구조는 영성단의 법제를 따라 단유로 축조되었다. 여제는 남교에 서 성황발고제를 지낸 후 북교의 여단에 모셔와 소사로 거행하였다. 성황은 음부의 신으로, 무사귀를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 제단의 배치구조는 성황위판을 남쪽으로 향하게 놓고 그 아랫단에 좌우로 무사귀의 목주를 서로 마주보게 세운다. 조선 초기 무사귀의 위수는 명의 영향을 받아 12위였으나, 세종 연간에 그 대상이 추가되어 15위가 된다. 여기에는 당대인들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당시 가장 애석하게 생각했을 비정상적인 죽음의 유형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는 한성부에서 설행된 여제를 물질문화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해 나갔다는 점에 그 가치를 두려 한다.

주제어 ● 여제, 여단, 여귀, 무사귀, 성황, 역병, 재난, 물질문화

■ Abstract

A Study on the ritual space of Yŏ-je in Joseon Dynasty : Focusing on Yŏ-dan in Hansungbu

Choi, Jin-A

/ Hanyang University ERIC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Yŏ-je(厲祭) by targeting Yŏ-dan(厲壇) of the Hansungbu(漢城府, Hanyang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Yŏ-je is a ritual to appease Yŏ-gui(厲鬼), who was considered to be the source of plague and disaster. Since space(空間) and symbols(象徵物) were not carefully discussed in the existing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ritual space and ritual symbol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cultural value of death inherent in Yŏ-gui, focusing on material culture.

Joseon Dynasty attempted to build a new Yŏ-dan from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Yŏ-dan had begun to be built in the 15th century, but it was shaped according to the formality by etiquette in the 16th century. In Hanyang, ritual spaces were located outside the four gates. It can be divided into permanent and temporary space. The permanent Yŏ-dan was located in the Bukgyo(北郊) outside the ChanguiMoon(彰義門) and the temporary Yŏ-dan was located in Samgyo.

Yŏ-dans of Hansungbu were built in the same form of Youngsungdan(靈星壇). Yŏ-je was held in Yŏ-dan in Bukgyo after ceremony of Seonghwang(城隍) to Yŏ-dan in Namgyo(南郊). Seonghwang is god of the other world, he places a role in bringing MusaGui(無祀鬼) together. As for the arrangement structure of the altar, memorial tablet of Songhwang was placed facing south, tablets of MusaGui were placed left and right of Seonghwang on the lower altar facing each other. The number of tablets of MusaGui was 12 in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under the influence of Ming, but it changed to 15 in king Sejong period. I guess that types of sorrow abnormal death

reflected sense of value of the contemporary people were added. This study seeks to value Hansungbu's Yo~je in that it has developed its thesis from the perspective of material culture.

Keyword • Yō-je(厲祭), Yō-dan(厲壇), Yō-gui(厲鬼), MusaGui(無祀鬼), Seonghwang(城隍, City God), Namgyo(南郊), Bukgyo(北郊), a plague, a disaster, symbols(象徵物), material culture.

황해도 진오기굿 <수왕제석거리>의 의미

홍태한*

목 차

1. 머리말
2. 진오기굿과 재수굿의 연행 방식 비교
3. <수왕제석거리>의 연행 양상과 기능
4. 맺음말

1. 머리말

망자천도굿은 각 지역에 다양한 이름으로 고르게 전승된다. 산 사람을 위한 재수굿은 정형성이 많이 깨졌지만 망자천도굿만큼은 정형성이 유지되고 있다. 여러 지역에 해당 지역 고유의 망자천도굿이 전승되고 있음에서, 망자천도굿이 아직도 지역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보인다.¹⁾ 이것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어서 엄정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산 사람을 위한 굿은 형식을 바꾸어 굿을 연행하여도 무방하지만, 망자천도굿만

*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1) 강화도의 부속도서인 교동도에도 지역성이 강한 진오기굿이 전승되고 있고, 강원도 태백 지역에도 독특한 진오기굿이 전승되고 있다. 홍태한, 『교동진오기굿』, 민속원, 2014.; 홍태한, 「강원 태백굿의 양상과 특징」, 『한민족문화연구』 67권, 한민족문화학회, 2019.

큼 형식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재수굿이 흥겨운 잔치이면서 놀이라면 망자천도굿은 엄정하고 두려운 제의라는 인식을 아직도 여러 만신들이 하고 있다. 망자, 저승 사자, 십대왕 등은 매우 두려운 존재로 인식한다.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황해도굿 망자천도굿이 자리걸이, 진오기굿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된다.²⁾ 자리걸이는 망자 사후에 곧장 열리는 굿으로 망자의 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굿거리 구성이 단출하다. 진오기굿은 망자 사후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에 여는 굿으로 재수굿과도 재차가 흡사하면서도 독자적인 의미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왕제석거리>는 자리걸이와 진오기굿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리로, 재수굿의 <칠성제석거리>에 상응하는 거리이다. <수왕제석거리>와 <칠성제석거리> 모두 동일하게 ‘제석’을 청배하고 있지만 굿거리 구성이나 지향점은 사뭇 달라, <수왕제석거리>를 중심에 두고 진오기굿의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황해도 재수굿과 진오기굿의 구성과 연행 방식의 차이를 살펴 두 굿의 지향점이 다를 것을 제시하고, 이러한 의미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수왕제석거리>임을 제시하기로 한다.

글쓴이는 그동안 황해도 자리걸이와 진오기굿을 여러 차례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황해도굿 망자천도굿이 가지고 있는 정형성을 이 글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마땅히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동안 조사한 여러 굿의 특성을 종합하여 내린 것이

2) 황해도 진오기굿에 대한 명칭은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는 망자 사후에 즉시 하는 굿을 자리걸이로,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에 하는 굿을 진오기굿으로 통칭한다.

굿을 연행하는 시기	망자천도굿 명칭
망자 사후 즉시, 49일 전	진진오기굿, 진자리걸이
49일 이후 탈상 전	진오기굿, 달가신 자리걸이
탈상 이후	진오기새남, 묵은진오기, 반자리걸이, 수왕굿
탈상할 때	탈상굿

어서 일반적인 굿의 흐름이나 굿거리에 대한 정보는 따로 밝히지 않는다.³⁾ 이 글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강석정이 간행한 자료이다.⁴⁾ 강석정은 오랫동안 황해도굿판에 악사로 참여한 이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황해도굿에 대한 여러 권의 자료집을 간행하였다.⁵⁾ 이 자료집은 글쓴이가 간행 전에 미리 살펴보면서 지은이 강석정과 여러 의견을 나누었고, 글쓴이의 굿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래서 이 책은 황해도굿의 실상을 알려주는 데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하여 이 글의 주 자료로 활용한다.

황해도 진오기굿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 김덕목이 황해도 진오기굿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재차를 분석하고, 내용과 구조를 살핀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⁶⁾ 이 논문을 통해 황해도 진오기굿의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이외 흥태한이 1970년대에 조사된 황해도 진오기굿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 방식을 살핀 성과,⁷⁾ 황해도 자리건이(진진오기굿)의 연행 구조와 의미를 살핀 연구,⁸⁾ 황해도 자리건이의 <안등신좌정거리>을 바탕

3) 그동안 글쓴이가 조사한 황해도굿은 1983년 연안부두에서 처음 김금화 만신의 배연시국을 본 이래 약 40여 년간 수십 사례가 된다. 글쓴이에게 황해도굿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만신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기 어렵지만, 1980년대에 활동한 우옥주 만신, 김금화 만신, 1990년대에 주로 활동한 정학봉 만신(별호 터미널 만신), 유옥선 만신(별호 귀걸이 만신), 박선옥 만신(별호 석바위 만신), 2000년대 이후에 주로 여러 차례 만난 김정숙 만신, 정금녀 만신, 김혜숙 만신, 김명식 만신(별호 독순이 만신), 이용녀 만신, 흥세영 만신 등 여럿이다. 이들을 통해 황해도 굿의 다양한 정보를 얻어 나름의 지식 틀을 쌓았다. 황해도굿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 상황이나 정보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4) 강석정, 『한국의 무가 16-황해도굿 이야기4 진오기굿·진진오기굿』, 민속원, 2021.; 강석정, 『한국의 무가 13-황해도굿 이야기1 채수굿』, 민속원, 2019.

5) 채수굿, 진적굿, 성주굿, 진오기굿 자료집을 간행하였고 만수대탁굿, 내림굿 자료를 준비 중이다.

6) 김덕목, 「황해도 진오기굿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0.

7) 흥태한, 「황해도 진오기굿의 연행 구조」, 『어문학교육』 48권, 어문학교육학회, 2014.

8) 흥태한, 「황해도 진진오기굿의 연행구조와 의미」, 『배달말』 64권, 배달말학회,

으로 자리걸이의 성격을 살핀 연구,⁹⁾ 황해도 진오기긋의 무가를 살핀 연구¹⁰⁾ 등이 있지만 아직도 황해도 진진오기긋의 의미에 대해서는 살필 여지가 많다. 황해도 진오기긋에 대한 자료적 성과로는 이선주의 자료,¹¹⁾ 사진작가 김수남이 간행한 자료,¹²⁾ 이 책의 권말에 실린 김인회의 글,¹³⁾ 민속학자 이두현이 1970년대에 조사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기증한 무가 자료에 포함된 황해도 진오기긋 자료,¹⁴⁾ 황해도긋을 실제 연행한 김금화 만신이 정리한 자료¹⁵⁾ 등이 있어 도움이 된다. 현재 황해도긋판 현장을 찾아 조사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어 앞으로 제대로 된 조사집 간행이 필요하다. 자리걸이 무가는 정리되어 간행되었기 때문에¹⁶⁾ 진오기긋, 탈상긋 등에 대한 자료집 간행이 있어야 한다.

황해도긋의 진오기긋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 먼저 자리걸이, 진오기긋의 재차를 간략하게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수긋과 진오기긋의 연행 차이를 제시한 후 <수왕제석거리>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진오기긋, 진오귀긋 등 황해도긋에 종사하는 만신들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이 글에서는 진오기긋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긋을 보는 관점은 당연히 복합적이다.긋에서 연행하는 무가에 중점을 두게되면 무가의 연행 배경으로 긋의 의미를 놓친다. 그렇다고 하여 무가

2019.

- 9) 홍태한, 「황해도진오기긋 <안등신좌정거리>의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60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
- 10) 홍태한, 「무가로 살펴 본 황해도 진진오기긋의 의미」, 『한국무속학』 42호, 한국무속학회, 2021.
- 11) 이선주, 『한국의 긋1』, 민속원, 2001, 121-144쪽.
- 12) 김수남, 『한국의 긋17-황해도 지노귀긋』, 열화당, 1993.
- 13) 김인회, 『한국의 긋17-황해도 지노귀긋』, 열화당, 1993, 98-116쪽.
- 14) 홍태한, 『황해도 진오기긋(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15)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 문음사, 1995.
- 16) 홍태한, 『한국의 무가09-망자천도긋 무가』, 민속원, 2022.

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무가를 중심으로 진오기굿의 의미를 살피지만, 무가가 굿의 연행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굿의 흐름과 연행 양상도 아울러 살핀다. 굿거리의 명칭을 이 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굿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이다. 굿거리의 구분은 굿을 연행하는 만신의 입장보다는 굿 연구자의 입장이 반영된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 진오기굿의 굿거리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의 주관과 굿을 연행하는 만신의 인식이 절충한 것이다. 만신들은 실제 굿거리를 의미있게 인식하지 않은 채 굿을 연행한다. 만신의 입장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굿의 흐름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피는 굿거리는 논의 전개를 위한 굿 부분의 인식일 뿐 그것이 굿의 고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살핀 <수왕제석거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글쓴이가 그동안 살핀 다양한 사례와 만신들과의 대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황해도굿의 연행 방식과 흐름 속에 정리한 것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자들이 황해도굿 전반을 두루 살피면서 이 글이 가진 문제점이나 한계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논의가 있어야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촉발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글을 전개한다.

2. 진오기굿과 재수굿의 연행 방식 비교

먼저 자리걸이와 진오기굿의 구성 방식 차이를 살핀다. 이를 통해 망자를 중심에 둔 굿이 자리걸이이고, 망자와 산 사람 모두를 중심에 둔 굿이 진오기굿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두 굿의 지향점이 다름을 제시하고, 두 굿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수왕제석거리>가 핵심임을 제시한다. 진오기굿과 재수굿의 차이를 살피는 것은 공통으로 나타나는 굿거리 무가 구성 방식이 다른데 그것은 부분적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진오기굿의 <수

왕제석거리>와 재수굿의 <칠성제석거리>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으로 <수왕제석거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1). 자리건이와 진오기굿의 구성 차이

먼저 망자 사후 3일 이내에 열리는 자리건이와 망자 사후 기한에 관계 없이 열리는 진오기굿의 재차를 비교한다. 자리건이의 재차는 다음과 같다.

- 1) 주당물림
- 2) 영실감흥거리
- 3) 수왕제석거리
- 4) 사자거리
- 5) 대내림
- 6) 맑은혼 모심
- 7) 길가르기
- 8) 마당거리

자리건이는 망자의 천도에 초점을 맞추는 굿이어서 망자와 관련이 있는 신령만 굿에 모신다. 재수굿이면 마땅히 <감흥거리>겠지만 자리건이여서 <영실감흥거리>라고 하였고 저승자사를 모신 후 대를 내려 망자의 말을 듣고, 모든 한이 풀린 망자가 들어와 마지막 작별을 하는 <맑은혼 모심>에 이어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길가르기>로 보여준다. 산 사람을 위한 굿거리는 없이 망자 천도의 과정을 보여준다. 자리건이와 동일한 성격의 망자천도굿 진오기굿은 망자의 천도와 함께 살아있는 가족들의 평안도 기원하기 때문에 굿거리의 양상이 달라진다. <수왕제석거리>를 연행하지 않는 자리건이가 있다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수왕제석거리>를 연행하지 않는 자리건이를 조사한 적이 없으며, 황해도굿에 종사하는 만신들도 <수왕제석거리>가 자리건이의 핵심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 이러

한 주장은 이 글에서 살피지 않는다.¹⁷⁾ 만신에 따라 진오기굿의 재차에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진오기굿의 재차는 다음과 같다.

- 1) 주당물림
- 2) 산천거리
- 3) 초감흥거리
- 4) 수왕제석거리
- 5) 영정물림
- 6) 사자군웅거리
- 7) 타살감흥거리
- 8) 대감거리
- 9) 길가름
- 10) 조상거리
- 11) 마당거리

자리걸이에 없는 <산천거리>, <초감흥거리>, <영정물림>, <타살감흥거리>, <대감거리>, <조상거리>가 들어가 있다. 자리걸이가 망자의 천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진오기굿은 몇몇 거리를 더하면서 살아있는 가족을 위한 공수가 곳곳에 들어간다. <대감거리>에서는 대감신령이 들어와 명과 복을 주는 공수를 내리고, 길을 갈라 망자를 천도한 후에 다시 선대 조상들을 불러 모시는 <조상거리>가 따로 있어, 자리걸이와 성격이 다름을 보여준다. 자리걸이에는 선대 조상을 모시지 않고 망자만 곁판에 들어오지만, 진오기굿에서는 망자를 천도한 후 다시 조상을 불러 모신다. 이러한 진오기굿은 재수굿 재차와 상통하면서도 다르다. 재수굿의 일반적인 재차는 다음과 같다.

- 1) 주당물림
- 2) 산천거리

17) <수왕제석거리>를 연행하지 않는 자리걸이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글쓴이가 확인한 바로는 <수왕제석거리>를 연행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곳은 황해도곳의 본 모습은 아니라고 한다. <수왕제석거리>를 연행하지 않는 자리걸이는 논외로 한다.

- 3) 초부정 초감흥거리
- 4) 칠성제석거리
- 5) 영정물림
- 6) 소대감거리
- 7) 성주거리
- 8) 군웅거리
- 9) 타살감흥거리
- 10) 대감거리
- 11) 장군거리
- 12) 조상거리
- 13) 마당거리

진오기국의 <초감흥거리>가 재수굿에서는 <초부정 초감흥거리>로 성격이 달라졌고, <수왕제석거리>가 <칠성제석거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몇몇 거리가 더 추가되는데 특히 <장군거리>가 있어 작두를 타면서 액을 물리고 재수소망이 이뤄질 것을 기원해주는 것도 다르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면 자리걸이, 진오기굿, 재수굿은 다음과 같은 의미 차이가 있다.

- 자리걸이 : 망자의 천도에 초점, 망자와 관련이 있는 신령이 중심이 됨.
- 진오기굿 : 망자의 천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산 사람의 복을 빌어줌. 망자와 관련이 있는 신령이 중심이 되면서도 복을 빌어주는 신령을 함께 모심.
- 재수굿 : 산 사람의 재수 소망 달성에 초점, 재수 소망을 이뤄주는 신령이 중심이 됨.

이러한 의미는 서울굿의 양상과 상통한다. 서울굿의 망자천도굿인 진오기굿은 망자의 천도에 초점을 맞추고, 묵은진오기굿은 망자의 천도와 함께 산 사람들의 재수 소망을 빌어주고,¹⁸⁾ 재수굿은 산 사람들의 기복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남의 찻김굿도 동일하여 곱머리찻김굿과 날받이찻김굿이 이러한 양상에 대응된다. 그런데 황해도굿 진오기굿이 망자의 천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산 사람들의 재수 소망 달성에도 의미를 두지

18) 홍태한, 「진진오기와 묵은진오기의 차이」, 『경희어문학』 25권,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만, 산 사람들의 재수 소망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재수굿과는, 동일한 굿거리가 있어도 연행 양상은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해보면, 진오기굿의 <수왕제석굿>이 가지고 있는 의미감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진오기굿과 재수굿의 연행 양상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2). 진오기굿과 재수굿의 연행 비교

진오기굿과 재수굿의 굿거리는 동일한 신령을 모시지만 굿거리 명칭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굿거리가 있고, 진오기굿에만 있는 굿거리와 재수굿에만 있는 굿거리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진오기굿과 재수굿의 굿거리 구성 비교

진오기굿	재수굿
1. 주당물림	1. 주당물림
2. 산천거리	2. 산천거리
3. 초감흥거리	3. 초부정 초감흥거리
4. 수왕제석거리	4. 칠성제석거리
5. 영정물림	5. 영정물림
-	6. 소대감거리
-	7. 성주거리
6. 사자군웅거리	8. 군웅거리
7. 타살감흥거리	9. 타살감흥거리
8. 대감거리	10. 대감거리
9. 길가름	-
-	11. 장군거리
10. 조상거리	12. 조상거리
11. 마당거리	13. 마당거리

굿거리 구성은 진오기굿과 재수굿이 유사하다. <주당물림>으로 굿을 시작하고 <마당거리>로 굿을 마무리한다. 진오기굿에만 있는 굿거리는 <길가름>으로 망자를 중심에 둔 굿거리이고, 재수굿에만 있는 굿거리는 <소대감거리>, <성주거리>, <장군거리>로 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굿거리이다.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굿거리가 대부분이다. 개별 굿거리의 연행 방식 차이를 살펴본다.

가. <주당물림>

<주당물림>은 굿의 시작으로 부정을 물리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주당물림> 초반부의 무가가 진오기굿과 재수굿에 따라 다르다. 진오기굿 <주당물림>의 무가이다.

주당풀이올시다 해운다년 ○○년에 달에 월색은 ○○달에
날로 금일은 ○○날올시다
금일 굿당은 ○○이요 거주지점은 ○○시요¹⁹⁾

재수굿에서는 굿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 굿을 여는 재가집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여 굿이 산 사람을 위한 굿임을 알린다. 진오기굿의 <주당물림>은 이와 다르다.

주당풀이올시다
○씨 망재 삼년 대상 주당풀이올시다²⁰⁾

진오기굿은 망자를 먼저 제시한다. 비록 망자의 천도와 함께 산 사람들의 재수소망 달성을 기원하지만, 굿의 목적이 망자 천도에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당물림>은 기능은 같지만 굿의 목적이 다름을 무가를 통해 나타낸다.

나. <산천거리>

재수굿의 <산천거리> 청배 무가 시작과 진오기굿 <산천거리> 청배 무가의 시작 부분은 다르다. 재수굿은 ‘모여랴오 모십니다 산천신령님 모십니다’로 시작하여 산천거리 신령이 직접 굿판에 내려와 연행하기를 청한다. 그리고는 산청, 부군, 장군, 서낭을 연이어 모시고 장군도를 들고 굿을 연행한다. 진오기굿은 이와 달리 ‘좌정을 해요 모십니다 산천본향님 좌정을 해요’라고 하여 산천의 신령이 굿청에 와서 좌정하기를 청하지, 직접 굿

19) 강석정, 『한국의 무가13-황해도굿 이야기1 재수굿』, 민속원, 2019, 14쪽.
20) 강석정, 『한국의 무가16-황해도굿 이야기4 진오귀굿·진진오귀굿』, 민속원, 2021, 26쪽.

판에 나서기를 청하지는 않는다. 진오기굿에서는 장군도를 들지 않고 오방 신장기를 들고 굿을 연행한다. 같은 <산천거리>이지만 재수굿에서는 직접 굿판에 나서서 연행의 주체가 되기를 청하는 반면 진오기굿에서는 굿판에 들어와 좌정하기를 청하여 <산천거리>의 신령이 재수굿과 달리 진오기굿에서는 굿 연행의 중심 신령이 아님을 보여준다.

다. <초감흥거리>

재수굿에서는 <초부정 초감흥거리>라고 하여 부정을 다시 물리고 여러 신령을 모시는 의미를 보이지만 진오기굿은 <초감흥거리>라고 하여 부정을 물리는 의미를 내세우지는 않는다. <초감흥거리> 무가도 재수굿과 진오기굿이 다르다. 재수굿에서는 ‘만감흥님 모십니다 만감흥님 모시자고’라고 하고 감흥, 신장, 장군, 대신, 대감, 조상을 연이어 모셔 여러 신령이 굿을 청한 재가집에게 공수를 내린다. 진오기굿에서는 ‘모여랴오 모십니다 영실감흥님 모십니다’라고 하여 재수굿과는 동일한 인식을 보이지만, 감흥과 대감만을 놀리고 망자옷을 들고 굿을 하다가 망자가 만신에게 내려 공수를 준다. 그래서 자리걸이에서는 <초감흥거리>라고 하지 않고 <영실감흥거리>라고 한다. 재수굿에서는 여러 신령이 연이어 나오는 반면 자리걸이는 망자가 중심이 되어 굿거리 명칭을 <영실감흥거리>라고 하는 것이다.

라. <수왕제석거리>와 <칠성제석거리>

재수굿과 진오기굿 모두 제석신령을 모시지만, 굿 연행 방식이 완전하게 다르다. 진오기굿에서는 <수왕제석거리>라고 하여 십대왕을 의미하는 ‘수왕’을 내세우는 반면 재수굿에서는 산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을 내세운다. 재수굿에서는 여러 신령을 연이어 모셔 산 사람의 복과 재수를 기원하지만 진오기굿 <수왕제석거리>에서는 제석과 십대왕을 모신다. 특히 자리걸이 <수왕제석거리>는 긴만세받이장단으로 청배한다. 황해도굿 청배장단에는 만세받이장단, 긴만세받이장단, 자진만세받이장단이 있는데

이는 신령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²¹⁾ 격이 높은 신령에게는 긴만세받이장단을 사용하고 격이 낮은 신령에게는 자진만세받이장단을 사용한다. 재수굿 <칠성제석거리>에는 긴만세받이장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점차 만세받이장단을 사용하여 변화가 보인다. 하지만 자리건이 <수왕제석거리>에는 반드시 긴만세받이장단을 사용하여 제석을 청배한다. 진오기굿도 긴만세받이장단으로 청배하지만 최근에는 만세받이장단으로 청배하기도 한다. <수왕제석거리> 초반부는 다음과 같다.

모십니다 모십니다 수왕제석을 모십니다(...)

천하에도 수왕제석 지하에도 수왕제석²²⁾

그리고 재수굿에서는 신령을 청배한 후 <쇠열이타령>을 연행하지만 진오기굿에서는 <염불타령>을 연행하여 굿의 목적이 서로 다름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수왕제석거리>에서는 십대왕을 청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황해도굿 만신들은 <수왕제석거리>를 십대왕거리라고도 부른다. 제석 신령을 모시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진오기굿에서는 십대왕을 모셔 산 사람을 위한 굿과는 다른 성격의 굿임을 보여준다.

마. <영정물림>, <타살거리>, <대감거리>

<영정물림>, <타살거리>, <대감거리>는 재수굿보다 진오기굿이 훨씬 간략하고 망자를 전면에 내세운다. 재수굿 <영정물림>과 달리 진오기굿 <영정물림>은 사공과의 재담을 하지 않고 부정을 물리는 내용만 간략하게 연행한다. 이러한 양상은 <타살거리>, <대감거리> 모두 동일하다. 재수굿과 달리 진오기굿 <타살거리>에서는 타살장군과 타살신장을 모시지 않고 조상과 망자 님에 대한 신령이 들어오고, <대감거리>도 재수굿에서는 여러

21) 홍태한, 「황해도굿 장단의 무속적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54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22) 강석정, 앞의 책, 2021, 61-64쪽.

대감이 연이어 들어오지만 진오기굿에서는 본대감신령만 들어와 명과 복을 주는 공수를 내린다. 재수굿의 <영정물림>, <타살거리>, <대감거리>는 개별 굿거리에 들어오는 모든 신령을 모시고 다양한 공수를 내리는 재담이 있어 굿 연행 시간이 훨씬 길다.

바. <사자군웅거리>와 <군웅거리>

군웅신령을 모시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재수굿 <군웅거리>에서는 군웅신령을 모셔 액을 물리고 역울한 조상을 풀어내는 반면 진오기굿에서는 사재를 불러 청한 후 망자를 잘 모시라고 인정 별비를 써 대접하고 이어서 군웅을 풀어낸다. 진오기굿이 사자와 군웅을 연이어 모시는 거리로 <사자군웅거리>를 연행하는 반면 재수굿은 군웅만을 풀어내어 <군웅거리>라고 한다.

재수굿과 진오기굿의 <조상거리>와 <마당거리>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외 진오기굿에만 있는 굿거리와 재수굿에만 있는 굿거리가 따로 있다. 이러한 굿거리는 재수굿과 진오기굿의 특성을 보이는 굿거리이다. 재수굿에서는 <성주거리>, <소대감거리>, <장군거리> 등을 통해 여러 신령을 모셔 재수 소망을 기원하고, 진오기굿에서는 <길가름>을 통해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굿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굿의 연행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재수굿에서는 여러 신령을 청하여 산 사람의 재수 소망이 이뤄지기를 청한다. 개별 굿거리에 들어오는 여러 신령들도 차이가 있어 재수굿에서는 해당 굿거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신령을 청하는 반면 진오기굿에서는 한두 신령만 청배하고 망자를 불러 한을 풀고 천도를 기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일한 이름이나 기능의 굿거리를 비교하면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굿거리가 진오기굿의 <수왕제석거리>이다. 재수굿의 <철성제석거리>

와 동일하게 ‘제석’이 공통으로 있지만 진오기굿의 수왕제석은 십대왕을 의미하고 있어 재수굿의 칠성제석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른 개별 굿거리는 재수굿보다 진오기굿이 간략하게 연행되어, 동일한 의미만을 가진 굿거리라는 큰 틀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수왕제석거리>만큼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수왕제석거리>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3. <수왕제석거리>의 연행 양상과 기능

<수왕제석거리>의 연행 양상을 정리하고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수왕제석거리>는 장삼에 고깔을 쓰고 왼 어깨에는 소창 한 필, 오른 어깨에는 삼베 한 필을 걸고 진행한다. 소창과 삼베는 <길가름>에서 망자의 길다리와 십대왕의 길다리로 사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노란 고깔을 쓰고 노란 장삼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옛법은 아니라고 한다.²³⁾ <수왕제석거리>의 연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만세받이 장단에 맞춰 만세받이 무가로 수왕제석을 청배한다.
- 2) 타령장단에 맞춰 <염불타령> 무가로 수왕제석을 호명한다.
- 3) 춤장단에 맞춰 바라춤을 춘다.
- 4) 제석상 앞에서 삼배, 망자상에 이배를 한다.
- 5) 거상장단에 춤을 춘 후 망자를 잘 데리고 간다는 공수를 내린다.
- 6) 함지에 물을 담아 가족이 둘러앉은 상위에 올리고 가족은 돈을 함지에 띄운다.
- 7) 만신은 쌀과 돈을 받아 함지에 넣으면서 바라 장단에 맞춰 망자가 십대왕 지옥을 잘 넘어가기를 축원한다.
- 8) 만신의 축원덕담과 인정 별비를 잘 써서 십대왕을 잘 넘어간다는 공수를 내린다.
- 9) 춤장단에 춤을 추다가 망자웃을 들어 놓린다.
- 10) 몸에 걸었던 소창과 삼베를 풀어서 추리고 풀기를 반복하고 고를 묶었다가 풀어낸다.

23) 황해도굿판의 여러 만신들이 이렇게 증언하다. 과거에는 흰색 장삼을 입어 칠성제석과 동일한 무복이었지만 최근에는 노란 장삼으로 수왕제석과 칠성제석을 구분한다고 한다.

- 11) 망자가 잘받으시고 수왕 길가름으로 저승을 잘간다는 공수를 내린다.
- 12) 장삼을 벗어 들고 날만세받이로 굿을 마무리한다.

<수왕제석거리>는 만세받이 무가 청배와 <염불타령> 무가 호명이 연이어 있어 수왕제석의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먼저 만세받이 무가의 내용을 살펴본다. 오늘 여는 진오기굿의 망재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망자가 극락세계로 가기를 축원한다.

한도 많고 원도 많은 내 어머니 ○씨 어머니(...)
 이번 나들이 잘 받아가서 산 사람은 마음 편하고
 죽은 이는 극락왕생 시왕세계 길 닦아서
 산 사람의 잔치로다 죽은 이는 극락세계
 연화대로 가시라고 반야용선 휘어 타고²⁴⁾

그리고는 십대왕의 분부를 받은 수왕제석이 굿판에 내리시길 청한다. 수왕제석은 십대왕의 분부를 받고 망자를 모시려고 온다고 하면서 수왕제석이 와서 망자를 인도환생 시킬 것이라고 청한다.

수왕제석 내리실 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인도환생 하시라고 제석수왕이 내립니다²⁵⁾

이번에 가는 망자는 왕생극락을 위해 많은 선행을 했음을 아뢰고 그 망자를 모시고 갈 수왕제석이 오라고 청한다. 수왕제석은 모든 신령을 대신하여 망자를 데리고 갈 신령임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왕생극락 하게 해야 자손 길러 효자공덕
 효자공덕 진설 받아 나라님께 충심공덕
 부모님께 효자공덕 일생이 일장춘몽(...)
 제석수왕 오시는 길에 망재혼령 모실 적에
 고운 옷에 고운 진지 약주 일배 흠향할 제
 내 제자의 축위덕담에 수왕제석님 모십니다

24) 강석정, 앞의 책, 2021, 62쪽.

25) 강석정, 앞의 책, 2021, 62쪽.

천하에도 수왕제석 지하에도 수왕제석(...)
문간사신에 수왕제석 용마루에 수왕제석²⁶⁾

그러다가 수왕제석을 모시는 것이 결국 십대왕을 모시는 것임을 제시한다. 제일전 진광대왕부터 제십전 오도전륜대왕까지 거명하면서 모든 지옥을 면해가길 청한다. 만세받이 청배 무가에는 이처럼 수왕제석을 청배하다가 뒤이어 십대왕을 청배한다. 그래서 <수왕제석거리>는 제석과 십대왕을 청배하는 거리이고, 결국은 십대왕을 청배하는 거리라고 만신들은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염불타령> 무가에 다시 한 번 반복된다.

제일전에 진광대왕 도산지옥을 면해 가오
나무아미타불
제이전에 초강대왕 화당지옥을 면해 가오
나무아미타불²⁷⁾

<염불타령> 무가를 통해 십대왕을 모신 후 모든 지옥을 면하고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수왕제석거리>의 주된 목적임을 나타낸다. 무가 연행 이후 이어지는 <수왕제석거리> 굿은 모두 십대왕에게 인정을 쓰고 극락왕생을 청하는 내용이다. 가족들이 함지에 넣은 돈은 십대왕에게 바치는 인정이 되고 이를 통해 망자는 모든 지옥을 면해갈 것임을 알린다.

식구들의 정성으로 십대왕 지옥을 넘어갈 때
인정 별비를 두둑히 잘 받아서
도산지옥 화당지옥 한방지옥 넘겨가고
검수지옥 비리지옥 인정 별비 받아서²⁸⁾

굿의 종반부인 날만세받이 무가에는 <수왕제석거리>를 통해 십대왕을 모셨고 망자가 잘 받았기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임이 나타난다.

26) 강석정, 앞의 책, 2021, 64쪽.

27) 강석정, 앞의 책, 2021, 65쪽.

28) 강석정, 앞의 책, 2021, 69쪽.

높고나요 ○씨 망자
 잘받으시고
 연화대로
 극락세계
 잘 가시라고
 자손들은
 하나같이
 도와를 주고²⁹⁾

<수왕제석거리> 연행만으로도 이미 진오기굿의 목적은 이루어진 셈이다. 자리걸이의 경우에는 <수왕제석거리>에 이어 사자가 들어오는 <사자거리>, 망자를 모시는 <대내림>, 망자의 마지막 말을 듣는 <맑은혼 모심>, 저승으로 떠나는 <길가름>이 이어지고 있어 <수왕제석거리>가 자리걸이의 모든 과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왕제석거리>에 수왕제석을 따라 십대왕을 만나고 왕생천도가 되기를 바라는 굿의 목적을 드러내고, 이 과정을 사자와 망자를 굿에 불러 재현한 후 망자의 한이 풀려 마지막 말을 듣고 저승으로 떠나는 과정이 <수왕제석거리> 다음에 이어지는 굿을 통해 다시 나타난다. 자리걸이에서는 <수왕제석거리>가 핵심이 되는 것이다. 진오기굿도 동일하여 뒤이어 이어지는 여러 굿거리에는 산 사람들의 소망이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과 망자의 천도가 무탈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리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수왕제석거리>에는 망자가 저승으로 수왕제석을 따라 무사히 건너가 십대왕의 도움으로 모든 지옥을 면할 것이 나온다. 다른 굿거리와 달리 <수왕제석거리>는 망자가 무사히 천도될 것을 알려주는 거리여서, 산 사람의 재수와 소망이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진오기굿의 다른 굿거리가 망자와 산 사람 모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수왕제석거리>는 망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별한

29) 강석정, 앞의 책, 2021, 70-71쪽.

의미가 있다.

<수왕제석거리>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왕제석’의 의미이다. 수왕+제석으로 이해되는 바 십대왕과 관련이 있는 제석이라는 의미이다. 제석은 사람들에게 재수와 복을 주는 신령으로 ‘칠성제석’에 그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 그런데 왜 저승의 신령으로 제석이 존재하는가는 살필 여지가 있다. 제석은 사람에게 재수와 복을 주는 신령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왕’과 결합하여 저승의 신령임을 드러내면서 죽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신령이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죽은 사람이 받는 복은 당연히 천도가 될 것이므로 산 사람에게 칠성제석이 복을 주듯이 망자에게는 수왕제석이 복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수왕제석거리>의 <염불타령> 무가에 보인다.

수왕제석 말미 받아 연화대로 가실 적에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어
칠성님전 명을 빌고 제석님전 복을 빌어(...)
제일전에 진광대왕 도산지옥을 면해 가오
제이전에 초강대왕 화당지옥을 면해 가오³⁰⁾

만세받이무가에서는 수왕제석을 청한 후 십대왕이 나오지만, <염불타령> 무가에는 칠성제석이 나온 후에 곧장 십대왕이 나온다. 칠성제석이 삶의 신령이라면 십대왕은 죽음의 신령인 바, 십대왕을 모시기 전에 수왕제석을 청하는 것은 ‘수왕’과 ‘제석’이 결합하여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의미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칠성제석이 산 사람의 복을 관장하듯 수왕제석은 망자의 복인 왕생천도를 관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왕제석의 기능이다. 십대왕을 곧장 굿판에 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왕제석을 청한 후에야 십대왕이 굿판에 등장한다. 이것은 십대왕에 대한 존중일 수 있다. 저승을 관장하는 십대왕은 굿판에 곧장

30) 강석정, 앞의 책, 2021, 66-67쪽,

불러 모시기에는 존귀한 신령이어서 수왕제석을 청한 후에 십대왕이 올 수 있다. 만세반이 무가에는 수왕제석을 청한 후에 십대왕이 등장하지만, 만세반이 무가 이후에 이어지는 <염불타령> 무가에는 수왕제석 없이 곧장 십대왕에 대한 청배가 나온다. 이미 만세반이 무가로 수왕제석을 따라 십대왕이 굿판에 왔으므로 <염불타령>에는 곧장 십대왕이 나온다. 이처럼 수왕제석은 십대왕을 모시기 위해 먼저 등장하는 신령이다.

따라서 수왕제석은 사자, 십대왕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신령이다. 수왕제석이 있어야 십대왕이 굿판에 나올 수 있고 뒤이어 연행되는 <사자군웅거리>에 사자가 등장할 수 있다. 수왕제석은 십대왕과 망자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신령으로, 생명을 주는 제석처럼, 망자가 저승에 들어가 비로소 십대왕을 만나 죽음의 세계에 들어감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왕제석이 한다.

황해도굿과 인접한 서울굿에도 이러한 인식이 보인다.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자이지만, 저승문에서 망자를 맞아 십대왕까지 이끄는 신령은 '중디'이다.³¹⁾ 망자는 사자를 따라 저승으로 가고, 저승문에서 중디를 다시 만나 십대왕에게 나간다. 황해도굿도 동일하여 망자를 인도하는 사자와 함께 십대왕을 굿판에 나타나게 하는 수왕제석이 존재한다. 이승에서 저승의 문턱까지 인도하는 신령으로 사자가 존재하고 있고, 저승에서 망자가 십대왕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서울굿에서는 중디가 하고, 황해도굿에서는 수왕제석이 한다.

수왕제석의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하면 <수왕제석거리>가 가진 의미가 남다르다. 진오기굿의 다른 굿거리와 달리 망자가 중심이 되는 <수왕제석거리>는 망자를 십대왕과 대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망자의

31) 흥태한, 「진오기굿의 뜰대왕과 사재삼성거리 무가 연구」, 『구비문학연구』 19호, 한국구비문학회, 2004.

복을 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오기굿에서 <수왕제석거리>는 가장 의미있는 거리가 된다.

4. 맺음말

이글에서는 황해도 진오기굿의 <수왕제석거리>의 의미를 살폈다. 황해도 망자천도굿 자리걸이와 진오기굿이 서로 다른 굿거리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고, 재수굿과 진오기굿의 연행 방식이 다름을 제시했다. 그리고 <수왕제석거리>의 연행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수왕제석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폈다. 특히 수왕제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칠성제석이 산 사람의 복을 관장하듯이 수왕제석은 망자의 복인 왕생천도를 관장하는 기능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저승을 관장하는 존귀한 신령인 십대왕을 굿판에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진오기굿의 핵심 굿거리가 <수왕제석거리>이다.

이를 통해 황해도 진오기굿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금 제시한 것과 수왕제석의 기능을 명료하게 밝힌 것, 칠성제석과 수왕제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서울 진오기굿의 신령 ‘중디’가 황해도굿의 수왕제석과 상통하는 면이 있음을 제시한 것처럼 다른 지역의 망자천도굿의 여러 신령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망자천도굿의 보편 원리가 규명되어야 한다. 각 지역 망자천도굿의 흐름을 살펴보면 저승신령을 중심에 두고 굿을 연행한다는 점, 균웅이 이승과 저승의 만남 속에 발생할 부정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 망자를 저승에 인도하는 신령으로 사자가 존재하고, 저승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신령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망자천도굿의 보편 원리는 앞으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현재 황해도 자리걸이와 진오기굿을 제대로 알고 격식에 맞게 굿을 연

행할 수 있는 만신이 점차 줄고 있다. 재수굿이 굿에 대한 이해와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연행이 가능한 반면 진오기굿은 실제로 망자를 모셔 한을 풀고 저승으로 천도시키는 굿이어서 만신의 남다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리걸이와 진오기굿을 온전하게 연행하는 만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여러 굿판에 불러다니면서 자리걸이와 진오기굿을 전담하다시피 연행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굿을 학습하고 뒤를 이어 온전하게 자리걸이와 진오기굿을 연행할 능력을 가진 만신의 숫자는 많지 않다. 서울 진오기굿에서 바리공주 무가를 구송하는 <말미거리>가 황해도굿에 나타나기도 하고,³²⁾ 사자를 놀면서 장구재비와 나누는 재담을 이해하고 연행할 수 있는 만신의 숫자도 줄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수왕제석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굿을 연행하는 만신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황해도 진오기굿은 저승에 대한 인식, 망자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난 굿이다. 앞으로 황해도 진오기굿의 의미를 여러 굿거리 내용 분석을 통해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지역의 굿과 비교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망자천도굿의 보편 원리도 찾아야 할 것이다.

32) 인천에 소재한 여러 굿당에서 황해도 진오기굿 현장에서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다. 바리공주 무가는 황해도 진오기굿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바리공주 무가를 서울굿 무당이 참가하여 구송하게 되면 황해도 진오기굿 재차는 격식에 어긋난 곳이 된다.

■ 참고문헌

- 강석정, 『한국의 무가 13-황해도굿 이야기1 재수굿』, 민속원, 2019.
- , 『한국의 무가 16-황해도굿 이야기4 진오귀굿·진진오귀굿』, 민속원, 2021.
-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 문음사, 1995.
- 김덕목, 「황해도 진오귀굿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수남, 『한국의 굿17-황해도 지노귀굿』, 열화당, 1993.
- 김인희, 『한국의 굿17-황해도 지노귀굿』, 열화당, 1993.
- 이선주, 『한국의 굿1』, 민속원, 2001.
- 홍태한, 「강원 태백굿의 양상과 특징」, 『한민족문화연구』 67권, 한민족문화학회, 2019.
- , 「무가로 살펴 본 황해도 진진오기굿의 의미」, 『한국무속학』 42호, 한국무속학회, 2021.
- , 「진진오기굿의 뜬대왕과 사재삼성거리 무가 연구」, 『구비문학연구』 19호, 한국구비문학회, 2004.
- , 「진진오기와 묵은진오기의 차이」, 『경희어문학』 25권,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 , 「황해도 진오기굿의 연행 구조」, 『어문학교육』 48권, 어문학교육학회, 2014.
- , 「황해도진오기굿 <안등신좌정거리>의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60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
- , 「황해도 진진오기굿의 연행구조와 의미」, 『배달말』 64권, 배달말학회, 2019.
- , 「황해도굿 장단의 무속적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54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 , 『교동 진오기굿』, 민속원, 2014.
- , 『황해도 진오기굿(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 『한국의 무가 09-망자천도굿 무가』, 민속원, 2022.

■ 국문초록

이글에서는 황해도 진오기굿 <수왕제석거리>의 의미를 살폈다. 황해도 망자천도굿인 자리견이와 진오기굿이 서로 다른 굿거리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고, 재수굿과 진오기굿의 연행 방식이 다름을 제시했다. 그리고 <수왕제석거리>의 연행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수왕제석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폈다. 특히 ‘수왕제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칠성제석’이 산 사람의 복을 관장하듯이 수왕제석은 망자의 복인 왕생천도를 관장하는 기능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저승을 관장하는 존귀한 신령인 십대왕을 굿판에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진오기굿의 핵심 굿거리가 <수왕제석거리>이다.

이글에서는 황해도 진오기굿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금 제시하면서 수왕제석의 기능을 명료하게 밝혔고, 칠성제석과 수왕제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서울 진오기굿의 신령 ‘중디’를 가져와서 황해도굿의 수왕제석과 상통하는 면이 있음을 제시한 것처럼 다른 지역의 망자천도굿의 여러 신령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망자천도굿의 보편 원리가 규명되어야 한다.

황해도 자리견이와 진오기굿을 재차에 맞게 온전하게 연행하는 만신이 점차 줄고 있다. 재수굿은 굿에 대한 이해와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연행이 가능한 반면 진오기굿은 실제로 망자를 모셔 한을 풀고 저승으로 천도시켜야 하는 굿이어서 만신의 남다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자리견이와 진오기굿을 온전하게 연행하는 만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황해도 진오기굿은 저승에 대한 인식, 망자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난 굿이다. 앞으로 황해도 진오기굿의 의미를 여러 굿거리 내용 분석을 통해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지역의 굿과 비교하여 의미를 도출하여야 한다.

주제어 • 황해도굿, 자리견이, 진오기굿, 수왕제석거리, 망자 천도

■ Abstract

An Implication of <Suwangjeseok-geori>, Hwanghae-do Jinogi-gut

Hong Tea Han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article, an implication of <Suwangjeseok-geori> of Hwanghae-do Jinogi-gut has been sought. It revealed that Jarigeoti and Jinogi-gut have different Gut-geori (tune or dance performed during exorcism) composition, and presented that Jaesu-gut and Jinogi-gut have different performance method from each other. And, on the basis of the performance method of <Suwangjeseok-geori>, the implications retained in <Suwangjeseok-geori> is sought. In particular, the functions contained in Suwangjeseok is presented in two folds. It has presented that, as Chilseongjeseok oversees the blessings of living beings, Suwangjeseok has the function to oversee the Wangsaengcheondo (born again after death to ascend to heaven), the blessing of the deceased, and it is deemed to undertake the role to bring out the sacred holy divine that oversees the other world, Sipdaewang (ten kings of underworld that adjudicate the trial for the deceased), onto the gut-pan (ground for Gut). In other words, the core Gut-geori of Jinogi-gut is <Suwangjeseok-geori>.

Through this consideration, this article has accomplished in reiteration of implication held in Hwanghae-do Jinogi-gut, clarifying in succinct form of the functions of Suwangjeseok, and present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Chilseongjeseok and Suwangjeseok. As it has presented that there is a common aspect with Suwangjeseok of Hwanghae-do-gut by bringing in Jungdae of Seoul-gut, several other holy divines of Mangjacheondo-gut (exorcism performance to lead the deceased to ascend to heaven) in other regions have to be considered. Through these endeavors, the general principle

of Mangjacheondo-gut in Korea has to be clarified.

The performing shaman of Hwanghae-do Jarigeoti and Jinogi-gut has gradually been in decline. While Jaesu-gut can fully be administered only with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is Gut, Jinogi-gut is the Gut that ascends the deceased into the other world by relieving their sorrow, and it requires the shaman with extraordinary capability. Therefore, the role of the shaman to completely perform Jarigeoti and Jinogi-gut is extremely valuable. In particular, Hwanghae-do Jinogi-gut is the Gut that is clearly displaying the awareness on the other world as well as the deceased. In the days to come, the implications of Hwanghae-do Jinogi-gut have to be present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other Gut-geori and formulate its other implications by comparing with guts of other regions.

Keyword • Hwanghaedo-gut, jarigeori, Jinogi-gut, Suwangjeseok-geori, the deceased to ascend to heaven

단위학교 소방안전교육 인식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세종시교육청 교직원을 중심으로

김창길*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소방안전교육 인식도 분석 및 논의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서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정책을 국정과제¹⁾에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재난 관리의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안전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 안전에 대한 요구는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면서 학교 안전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체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모든 학교급별에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종전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였

*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조교수

1)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등),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으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안전의 광범위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반비례하고 있다.²⁾

현재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직원과 학생대상 화재대피 훈련, 심폐소생술 실습,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미래 소방관 체험교실, 청소년 안전체험 마을 등 학교내 소방안전교육 전반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내실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직원 안전교육은 2015년 세월호 사고(2014) 1주기를 시작으로 3년 단위로 주기별로 실시되었다. 매주기 3년마다 법적 의무 및 평가대상자인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은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3대 영역 이상이 반영된 안전교육을 집합 연수 등으로 15시간 이상 의무적 이수하여야 한다.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은 생활안전, 폭력·신변안전, 교통안전, 약물·인터넷중독, 직업 안전, 재난 안전, 응급처치의 7가지 영역이다.³⁾ 이러한 안전교육은 재해와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 안전 행동의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준비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⁴⁾

그러나 학교 안전교육의 현실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들에게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동영상과 교재를 이용한 강의식 교육으로 대부분 그치고 있어 교육의 효과가

2) 김창길, 「단위학교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와 안전동기가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공정책연구』 40권 3호,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3, 2-5쪽.

3) 교육부 고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2015.

4) 조호현, 「청소년지도자의 안전의식과 청소년 안전교육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36-62쪽.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⁵⁾ 교직원이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는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교직원들 대부분은 가장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15차시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따라서 효과적인 소방안전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학생과 더불어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교육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전문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장 발달 단계별 체험위주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집중적인 예산투자는 물론 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위험 요인으로부터 몸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통한 숙달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⁷⁾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되며, 먼저 교원은 학생의 소방안전교육을 직접 지도하는 역할과 더불어 담당하고 있는 교과 특성에 따라 특별실의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직원은 교실을 비롯한 교사(校舍) 내·외부 공간관리 등 소방안전 분야 총괄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은 관리실이나 특별실의 소방 안전관리와 학생들의 소방안전을 지원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 지도와 더불어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역할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학교시설의 재난 안전 관리자로서 소방 대상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의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한다.⁸⁾ 교육훈련 효과는 교육훈련을 통해 피교육자가 지식

5) 김종세, 「현행법상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6권 2호, 한양법학회, 2015, 121-1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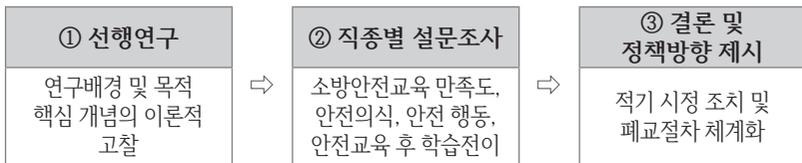
6) 차우규·이영재, 「2019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교육센터, 2020.

7) 김창길, 앞의 논문, 2-5쪽.

8) 이병호·박윤주·이재림, 「학교 재난안전 교육연수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에

나 기술을 습득하여 개인 차원의 직무성과 강화와 피교육자의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로 업무효과를 증가시키고 조직의 성과 제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⁹⁾

본 연구에서는 소방안전 위험 증가에 대처하는 안전한 학교교육환경의 조성을 담당하는 인적 요소인 학교 교직원의 소방 안전교육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교육만족도, 안전의식, 안전행동, 학습전이 변인을 살펴보고, 학교 근무 구성원 직종별(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특성에 따른 교직원 소방안전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직원 소방안전교육 효과(교육 만족도, 안전의식, 안전 행동, 안전교육 후 학습전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2023년 세종시교육청 소속 학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내부 통신망을 활용하여 관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안전교육 내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직원 안전교육의 실시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단위학교 교직원 대상 소방안전교육 개선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관한 연구」, 『교육·녹색환경연구』 17권 2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18, 11-21쪽.

9) 박지환·김윤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 효과성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Crisisonomy』 10권 2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45-47쪽.

2. 이론적 배경

1) 학교안전교육

“안전”이란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날 우려가 없음 또는 그러한 상태로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안전에 대한 행동심리적 측면을 살펴보면 인간의 욕구는 내성적인 것이며 욕구는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 매슬로(Abraham H. Maslow)의 이론에서 1단계 욕구인 먹고 자는 생리적인 최하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추위, 질병, 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발생한다고 하였다.¹⁰⁾ A. E. Florio는 “안전이란 위험의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고,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행동의 차이에 따라서 일어난 상황 또는 상태이다”라고 하였다.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¹¹⁾ 또한 국민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¹²⁾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의 하나

10)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s://www.mk.co.kr/dic>.

11) 이병철,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제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7쪽.

12) <법령정보센터>,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https://www.law.go.kr>.

로 2015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학생의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생활안전을 비롯한 7대 영역을 중심으로 표준안을 개발하여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단위학교에 제공하였다. 이렇게 교육부(2015)에서 발표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표 1]과 같이 중분류로 화재영역을 설정하고 소분류는 화재발생과 화재 발생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유치원, 초1~2학년, 초3~4학년, 초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생의 인지적 신체적 발달단계에 따라 화재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화·확대하는 내용으로 체계를 구성하였다.

[표 1]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화재 영역 체계(교육부 고시)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1~2학년	초3~4학년	초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화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의 이로운과 위험함 알아보기 · 화재의 발생 원인과 예방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의미 알아보기 · 화재예방 수칙을 알고 실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기 · 화재 발생 시 신고 방법 알아보기 ·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화재의 발생 원인 알아보기 · 상황별 화재 예방방법 알아보기 · 화재 유형에 따른 진화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피해사례 조사하고 발표하기 · 화재의 종류와 특성 탐색하기 · 화재의 발생 원인과 예방방법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피해사례 탐색하기 · 화재의 종류와 특성 알아보기 · 화재의 원인과 예방방법 토의하기
화재	화재 발생시 안전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시 안전방법 알아보기 · 완강기에 대해 알아보기 · 119 신고 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알아보기 · 여러가지 피난설비 알아보기 · 화재 발생시 신고 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피난설비 알아보기 ·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익히기 · 교내 소방시설 조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시 일반적인 대처방법 알아보기 · 화재 발생시 장소별 대처방법 알아보기 · 피난설비 종류와 완강기 사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대피요령 조사하기 · 화재발생 장소별 대응 방법 탐색하기 · 완강기 사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시 대비방법 숙지하기 · 화재 신고 방법 탐색 후 대피실습하기 · 완강기 사용법 토론하기

<p>화재</p>	<p>소화기 사용 및 대처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위치 찾아보기 · 소화기 사용 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사용 방법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 소화기의 사용방법 실습해 보기 · 소화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의 원리와 소화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 소화기 사용 방법에 따라 소화기 사용 실습하기 · 학교의 다양한 소방 시설을 알아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와 소화전 분석하기 ·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의 기능과 원리 탐색하기 ·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탐색하기
-----------	-----------------------	--	--	--	--	--	---

2) 소방안전교육

안전교육의 개념은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의 내용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로부터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사고의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고 발생을 낮추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와 태도, 그리고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안전교육의 대상은 화재, 가스사고, 교통사고 등의 인위적 재난, 재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과 지진, 풍수해 같은 자연적 재난, 재해 까지 포함한다(이주호, 2018). 이러한 측면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정의하면 “각종 재난과 재해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대처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소방 안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소방안전 교육은 체험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13) 김승애, 「소방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9-23쪽.

소방안전 체험교육이란 ‘우리 주변의 체험이라는 교육방법을 통하여 몸소 가상 상황을 겪어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키는것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¹⁴⁾ 즉 소방안전교육은 우리 국민 누구나 생애에 걸쳐 제공됨으로써 반복 학습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지속적 영위를 위한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방 전문기관인 소방서에서 단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소방기본법」제17조에 두고 있다.

3) 2019~2023년 교육기관 화재 발생 현황

소방청의 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 동안 학교시설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902건이 발생하였으며, 부상은 90명 사망사고는 2명, 재산피해는 8,931,002천원으로 매년 170여 건에서 190여 건으로 화재 건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5년간(2019~2023) 교육기관 화재발생 현황(단위: 명/천원)

구분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2023	182	0	27	1,493,073
2022	179	0	24	1,135,779
2021	190	2	8	1,884,095
2020	178	0	17	1,770,976
2019	173	0	14	2,647,079
계	902	2	90	8,931,002

※ 출처: 소방청 화재정보시스템

학교급별로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교가 322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등학교가 228건(25.3%), 고등학교 181건(20.1%), 중학교 128건(14.2%)의 순으로 화재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측면에서 화재 건수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살펴보면 대학교의 건축물

14) 한명식, 「소방안전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체험식 소방안전교육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9-13쪽.

규모가 상대적으로 타 학교급과 비교하여 크다는 것과 초등학교의 숫자가 타학교 급과 비교하여 학교수가 많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5년간(2019~2023) 학교급별 화재발생 현황(단위: 명/천원)

구분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대학교	322	2	30	2,930,510
고등학교	181	0	28	1,871,437
중학교	128	0	13	1,366,474
초등학교	228	0	13	2,537,162
특수학교	12	0	5	72,631
직업훈련소	3	0	0	6,951
기타학교	28	0	1	145,837
계	902	2	90	8,931,002

※ 출처: 소방청 화재정보시스템

4) 교직원 소방안전교육 효과

(1) 교육 만족도

만족도란 부족함 없는 흡족한 상태의 정도를 의미하며 특정한 대상에 대해 행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인 성취, 타인의 인정, 보상 등에 대한 개인감정을 말한다.¹⁵⁾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 모델 중 첫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평가 요인으로 교육훈련 만족도를 제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가 교육에 얼마나 만족하였는지에 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말하며,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만족을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생성되는 정서나 감정 상태로 그 결과가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흐뭇하게 느끼는 정도'를 의미

15) 구영민, 「공공 초급지휘관참모과정에서 학습부담이 교육훈련 만족도 및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3-20쪽.

하며 만족은 제공자 측면과 수혜자 측면에서의 만족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⁶⁾ 만족은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 되는 긍정적 심리상태로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만족도이다. 만족도는 서비스의 질을 고객이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만족도 조사 결과는 서비스의 질을 정확하게 대변해 준다.¹⁷⁾ 김소희 (2005)¹⁸⁾는 교육훈련의 교육훈련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에서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훈련의 방법이 만족에 영향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교육훈련 방법은 사례연구중심, 토론중심, 교육 교재의 다양화가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2) 안전의식

안전의식의 사전적 의미는 국립국어원 표준 대사전 우리말샘에 따르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집단적 의지나 감정”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안전에 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 안전의식을 안전에 대한 논리, 사실적이고 지식의 결과이며, 대상과 상황에 알맞게 실천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오류를 개선하고 올바른 안전 지식을 만들어나가려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⁹⁾ 즉 주변의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 유지가 가능한 인지와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안전의식으로 본다. 안전의식은 고취하고 지각하는

16) 허대중, 「공무원 서비스교육훈련이 교육만족과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54-86쪽.

17) 오창택, 「서비스 질 구성차원의 관리 우선순위, 민원 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권 2호, 한국행정학회, 1998, 7-12쪽.

18) 김소희, 「공무원 교육훈련의 만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7-26쪽.

19) 유경희, 「어린이집의 안전풍토, 안전의식 안전태도와 보육교사의 안전직무수행과의 관련성 연구」,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24-28쪽.

수준에 머물지 않고 안전 행동 실천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고의 감소를 위한 안전의식의 습득 작용은 개인의 지각된 통제신념으로 지식의 습득형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안전교육이 관련자들에게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안전 정보의 제공 역할을 한다면 안전의식은 향상될 것이다. 안전교육의 방법은 지식 중심의 안전교육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안전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²⁰⁾ 안전의식은 개인이 지각된 행동을 통제하는 자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습득된 지식과 태도, 습관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이라 보았다.²¹⁾

(3) 안전행동

업무수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동인 안전행동은 조직의 종사자들이 스스로 안전 절차를 따르고 수행하여야 한다.²²⁾ 안전행동이란 내재 되어 있는 각종 위험요인과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안전 규정과 절차를 잘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직 내 안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행동이다. 어떠한 행위에 있어 그 행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안전 행동으로 본다. 안전 행동을 안전 순응 행동, 안전 참여 행동으로 유형화하고 있다.²³⁾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종사자들 개개인의 안전 행동은 안전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치관과 그들이 속한 조직의 문화 및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며 안전 행

20) 서혜승,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25쪽.

21) 조호현, 「청소년지도자의 안전의식과 청소년안전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21-27쪽.

22) 김규형, 「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41-48쪽.

23) 박지욱,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24-30쪽.

동을 조직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행동으로 본다. 안전 행동은 업무수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며, 조직의 종사자들이 스스로 안전 절차를 따르고 수행하여야 한다.²⁴⁾ 직장 내에서 수행하는 구성원의 안전 행동은 안전하게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의 동기 및 그들이 속한 조직의 분위기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²⁵⁾ 안전 행동은 안전 참여 행동과 직접 관계되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으로, 안전 순응 행동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²⁶⁾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와 안전 행동을 끌어내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지속적인 안전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²⁷⁾

(4) 학습 전이

학습전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가 현업으로 복귀한 뒤, 훈련 교육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 태도, 기능을 현업에 적용하여 변화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⁸⁾ Kirkpatrick²⁹⁾은 반응-학습-행동-결과로 구성된 4수준의 평가모형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때, 반응(reaction)은 학습자들이 가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도

24) 김규형, 앞의 논문, 2015, 41-48쪽.

25) 유상영, 「안전문화가 안전분위기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9쪽.

26) 이상천, 「안전참여 활동에 대한 직무요구-자원 모형의 적용 및 안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권 1호,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4, 28쪽.

27) 서혜승,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25쪽.

28) Baldwin, Timothy T.·Ford, J. Kevin, Transfer of Training: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Personnel psychology*, vol.41, no. 1, Personnel Psychology, Inc, 1988, pp.63-105.

29) Kirkpatrick, D. L., *Evaluation of training programs: The four level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1994.

를 말한다. 교육훈련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향후 해당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그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learning) 수준에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개념, 원리, 기술에 대한 이해, 기술의 개발 또는 향상, 태도 변화 등을 평가한다. Kirkpatrick(1994)은 프로그램의 앞뒤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평가하고 향상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행동(behavior)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결과로 초래된 직무상의 행동 변화를 말한다. 행동 변화는 측정하기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는데, 만약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한 것을 적용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은 실패한 것이며 학습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results)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낮은 이직율, 업무의 질적 및 양적 향상, 낭비의 제거, 매출 성장, 비용 절감, 이익 창출, ROI 등을 포함한다. 학습전이를 행동의 변화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정의한 연구도 있었는데, 학습전이를 과정참여자가 현업으로 복귀한 후, 교육훈련과정에서 학습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현업에 활용하여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를 보다 넓은 직무영역에 반영·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³⁰⁾ 또한 김진모, 이진화, 길대환(2006)³¹⁾은 학습전이가 조직의 교육훈련에 대한 유효성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며, 교육훈련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전이의 제고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 공민영·김진모, 「기업 e-Learning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전이와 자기주도성, 전이풍도, 학습과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권 3호, 한국농업교육학회, 2008, 223-246쪽.

31) 김진모·이진화·길대환, 「농촌지도리더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전이와 전이풍도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권 1호,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06, 27-52쪽.

3. 소방안전교육 인식도 분석 및 논의

본 연구는 2023년 세종시교육청 소속 학교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안전교육 내부 통계 자료³²⁾를 활용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소방안전교육 방법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은 [표 4]와 같이 교원은 120명(38.1%), 행정직원은 106명(33.7), 교육공무직원은 89명(28.2%)으로 모두 315명이 응답하였으며, 학교급별로 유치원 64교(39.0%), 초등학교 52교(32.0%), 중학교 27교(16.5%), 고등학교·특수 21교(22.5%)으로 구성되었다.

[표 4] 연구대상자 특성

구분		명/교	%
직종	교원	120	38.1
	행정직원	106	33.7
	교육공무직원	89	28.1
	계	315	100
학교급별	유치원	64	39.0
	초등학교	52	32.0
	중학교	27	16.5
	고등학교(특수)	21	22.5
	계	164	100

(2) 소방안전교육 방법

최근 3년간(2021~2023) 이수 경험이 있는 교직원 소방안전교육 방법(다중응답)은 [표 5]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원격연수가 87.2%로 가장 많았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학교 안전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자료(세종시교육청 내부통신망을 통해 설문조사, 기간: 2023. 11.~12, 조사대상: 유 64원, 초 52교, 중 27교, 고 20교, 특 1교 합계 164교, 교직원 315명,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

다. 다음으로 체험 및 실습 교육(7.1%), 집합 대면 교육(4.3%) 순으로 많았다. 직종별로는 교원(79.3%), 행정직원(90.3%), 교육공무직원(94.2%) 모두 원격연수가 가장 많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직원들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연수원과 세종시교육청 운영 연수원 등에서 개설한 원격연수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고 조사 기간(2021~2023)을 고려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원격연수는 안전교육 총 6차시³³⁾로 전체 3시간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소방안전교육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다음 체험 및 실습교육(7.1%)은 「공공기관 소방안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단위학교의 소방자위대와 관내 소방서가 합동으로 단위학교 자체 소방계획³⁴⁾에 따라 훈련하는 것이다. 가장 빈도가 높은 원격교육도 교육현장에 특화된 안전교육이 아니며,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하여 학교현장이 실천해야 할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이 안전 연수모델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화재위험 대비, 위험 인식과 대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모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 최근 이수한 소방안전교육 방법(단위: N, %)

구분		원격교육	체험 및 실습교육	집합 대면 교육	기타 (서면 등)	계
직종	교원	107(79.3)	17(12.6)	10(7.4)	1(0.7)	135(100.0)
	행정직원	102(90.3)	5(4.4)	4(3.5)	2(1.8)	113(100.0)
	교육공무직원	97(94.2)	3(2.9)	1(1.0)	2(1.9)	103(100.0)
계		306(87.2)	25(7.1)	15(4.3)	5(1.4)	351(100.0)

33) 1차시(화재 등 생활안전), 2차시(교통안전), 3차시(폭염 등 자연재난), 4차시(범죄안전), 5차시(감염병 등 보건안전), 6차시(사회기반안전)

34) 소방합동훈련 과정: 훈련예고→훈련시작→화재발생→발견 및 전파→자체진화→인명대피→부상자구호→중요비품 반출→소방대 출동→소방활동→종료 및 강평

2) 소방안전교육 만족도 분석

직종별 전체 만족도는 [표 6]과 같이 교원(M=3.25), 행정직원(M=2.76), 교육공무직원(M=3.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교원, 교육공무직원, 행정직원 순으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이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교육 내용, 방법, 교재, 시간 등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점대 이하의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김소희(2005)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교육 훈련의 내용, 방법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현재의 소방안전교육 자료 점검과 보완, 단위학교에 특화된 소방 교육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직종별 소방안전교육 만족도 분석

문항	직종						P	scheffe
	교원 (a)		행정직원 (b)		교육공무 직원(c)			
	M	SD	M	SD	M	SD		
소방안전교육의 강의 내용에 만족한다	3.28	0.62	2.82	0.72	3.08	0.72	.000***	b<a, c
소방안전교육의 강의 방법에 만족한다	3.28	0.70	2.78	0.76	3.02	0.75	.000***	b, c<a
소방안전교육의 교육교재(콘텐츠) 구성에 만족한다	3.29	0.64	2.85	0.77	3.03	0.78	.000***	b, c<a
소방안전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교육의 가치가 높다	3.07	0.87	2.60	0.91	2.82	0.93	.001**	b<a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에 만족하였다	3.34	0.71	2.74	0.80	3.07	0.72	.000***	b<c<a
계	3.25	0.64	2.76	0.72	3.00	0.71	.000***	b<c<a

** $p < .01$, *** $p < .001$

3) 소방안전의식

직종별 교직원의 소방안전교육 이후 나타난 전체 안전의식은 [표 7]과

같이 교원(M=3.43), 행정직원(M=3.17), 교육공무직원(M=3.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사후검정인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교원이 행정직원/교육공무직원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3.10), 행정직원(3.03), 교육공무직원(2.84) 모두 소방안전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방안전 위험요소를 찾아보고 이를 실행하고, 평가 및 토론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형 소방안전교육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7] 직종별 안전의식 분석

문항	직종						P	scheffe
	교원 (a)		행정직원 (b)		교육공무직원(c)			
	M	SD	M	SD	M	SD		
나는 교내에서 소방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했다면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자에게 알린다	3.56	0.53	3.36	0.68	3.44	0.54	.047*	b<a
나는 소방안전 사고방지를 위해 관 관리자에게 건의해 본 적이 있다.	3.10	0.80	3.03	0.87	2.84	1.07	.111	
나는 교내 소방안전을 위해 스스로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다.	3.55	0.59	3.15	0.73	3.28	0.67	.000***	b, c<a
나는 업무수행 전에 소방안전에 대한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한 후에 행한다.	3.50	0.57	3.13	0.71	3.26	0.66	.000***	b, c<a
나는 교직원 소방안전교육이 평상시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52	0.57	3.17	0.86	3.36	0.67	.002**	b<a
나는 학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소방안전에 관한 관리,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37	0.66	3.15	0.79	3.24	0.79	.109	
계	3.43	0.46	3.17	0.59	3.23	0.50	.001**	b, c<a

** $p < .01$, *** $p < .001$

4) 소방안전행동

소방안전 교육이후 직종에 따른 안전행동 차이는 [표 8]과 같이 교원(M=3.67), 행정직원(M=3.30), 교육공무직원(M=3.5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교원/교육공무직원이 행정직원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이후 안전행동 변화도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에 3점대 이하의 낮은 인식을 나타내 소방안전교육이 안전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표 8] 직종별 소방안전행동 분석

문항	직종						P	scheffe
	교원(a)		행정직원(b)		교육공무직원(c)			
	M	SD	M	SD	M	SD		
나는 학교 소방안전업무 수행시 안전교육을 받은 대로 행동할 것이다.	3.61	0.54	3.11	0.75	3.46	0.61	.000***	b<a, c
나는 우리 학교의 소방안전 프로그램(관련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3.63	0.54	3.26	0.69	3.47	0.63	.000***	b<a
나는 동료가 화재 위험에 노출될 경우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도울 것이다.	3.75	0.43	3.51	0.59	3.57	0.57	.000**	b<a
나는 앞으로 소방안전 사고 발생시 안전교육을 받은대로 행동할 것이다.	3.67	0.51	3.33	0.69	3.57	0.55	.000***	b<a, c
계	3.67	0.43	3.30	0.59	3.52	0.52	.000***	b<a, c

p<.01, *p<.001

5) 소방안전교육 개선방안

(1) 효과적인 소방안전 교육방법 분석

교직원 대상 소방안전교육의 연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표 9]와 같이 체험 및 실습 교육이 79.0%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원격연수가 16.8%로 많았다. 직종별로는 교원(79.8%), 행정직원(81.9%), 교육공무직원(75.2%) 모두 체험 및 실습 교육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교육청 직속으로 개설(2022)된 안전체험교육원³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교육과정³⁶⁾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표 9] 효과적인 소방안전 교육방법 분석(단위: N, %)

구분		원격연수	체험 실습교육	집합 교육	기타	P
직종	교원	20(18.3)	87(79.8)	1(0.9)	1(0.9)	.544
	행정직원	13(12.4)	86(81.9)	5(4.8)	1(1.0)	
	교육공무직원	20(19.8)	76(75.2)	4(4.0)	1(1.0)	
계		53(16.8)	249(79.0)	10(3.2)	3(1.0)	

(2)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의 지원 방안 분석

교직원 안전교육의 업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표 13]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직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6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 안전교육 시설 확보가 26.3%로 많았다. 직종별로는 교원(47.7%), 행정직원(66.7%), 교육공무직원(79.2%) 모두 직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교육공무직원이 그중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근무경력별로는 5년 이하(67.3%), 6~10년(62.5%), 11~20년(61.8%), 21년 이상(66.3%) 모두 직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35) 2022년 전국 안전체험원 현황(단위:개소): 서울(33), 인천(9), 경기(34), 강원(8), 충북(8), 충남(11), 대전(2), 경북(8), 대구(2), 전북(7), 경남(15), 울산(8), 부산(10), 광주(5), 전남(10), 제주(3)

36) 교육영역: 재난안전(화재, 지진, 풍수해, 산행), 교통안전, 생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었다.

[표 10] 효과적인 소방안전 교육 지원 방안 분석(단위: N, %)

구분		직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 현장에 적합한 교재 개발	전문안전 교육 시설 확보	강사의 전문성 확보	관련 예산 지원	P
직종	교원	52(47.7)	4(3.7)	40(36.7)	10(9.2)	3(2.8)	.000***
	행정직원	70(66.7)	4(3.8)	27(25.7)	4(3.8)	0(0.0)	
	교육공무원	80(79.2)	0(0.0)	16(15.8)	3(3.0)	2(2.0)	
	계	202(64.1)	8(2.5)	83(26.3)	17(5.4)	5(1.6)	

***p<.001

(3)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내용 분석

교직원 소방안전교육 실시의 가장 큰 교육 목적은 [표 10]과 같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안전 생활 습관 형성이 5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능력 향상(27.6%), 안전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의 이해(11.1%) 순으로 많았다. 직종별로는 교원(55.0%), 행정직원(44.8%), 교육공무원(56.4%)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 생활 습관 형성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근무경력별로는 5년 이하(43.6%)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능력 향상이 가장 많았고, 6~10년(48.4%), 11~20년(61.8%), 21년 이상(52.5%)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 생활 습관 형성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1] 효과적인 소방안전 교육내용 분석(단위: N, %)

구분	안전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의 이해	안전하고건강한 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안전 생활 습관 형성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육성	학교 소방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능력 향상	P	
직종	교원	12(11.0)	60(55.0)	12(11.0)	25(22.9)	.155
	행정직원	16(15.2)	47(44.8)	7(6.7)	35(33.3)	

교육 공무직원	7(6.9)	57(56.4)	10(9.9)	27(26.7)
계	35(11.1)	164(52.1)	29(9.2)	87(27.6)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단위학교 교직원은 소방안전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세종시교육청 소속 학교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내 학교를 대상(응답 교직원 315명)으로 실시한 소방안전교육 내부 통계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교육 만족도, 안전의식과 안전 행동 변화도 등의 니즈를 분석하여 소방안전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원의 직종별 소방안전교육 방법(다중응답)에 대한 응답은 원격연수가 87.2%로 가장 많았고, 다음 체험 및 실습 교육(7.1%), 집합 대면 교육(4.3%) 순으로 많았다. 직종별로는 교원(79.3%), 행정직원(90.3%), 교육공무직원(94.2%) 모두 원격연수가 가장 많았다. 둘째, 교직원의 소방안전교육 만족도는 교원(M=3.25), 행정직원(M=2.76), 교육공무직원(M=3.0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교원, 교육공무직원, 행정직원 순으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경우 동하절기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집중연수를 받는 반면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은 현업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교직원 소방안전 의식 변화도는 교원(M=3.43), 행정직원(M=3.17), 교육공무직원(M=3.2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교원이 행정직원/교육공무직원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교직원의 소방안전행동 변화도는 교원(M=3.67), 행정직원(M=3.30), 교육공무직원(M=3.52)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교원/교육공무직원이 행정직원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경우 소방안전교육 이수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기에 학습전이에 따른 의식과 행동변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교직원의 소방안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니즈는 체험 및 실습 교육(79.0%), 원격연수(16.8%)였으며 직종별로는 교원(79.8%), 행정직원(81.9%), 교육공무직원(75.2%) 모두 체험 및 실습 교육이 가장 많았다.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지원 방안으로는 직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64.1%)이 가장 많았고, 전문 안전교육 시설 확보(26.3%)로 많았다. 직종별로는 교원(47.7%), 행정직원(66.7%), 교육공무직원(79.2%) 모두 직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많았다.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내용으로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능력 향상(27.6%), 안전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의 이해(11.1%) 순으로 많았으며, 직종별로는 교원(55.0%), 행정직원(44.8%), 교육공무직원(56.4%)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 생활 습관 형성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방법과 내용 구성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박윤주(2018), 김창길(2023) 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한 체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이수한 교직원의 소방안전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교육 형태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87.2%)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소방안전사고 예방과 발생 시 대응 역량에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효과적인 소방안전 교육방법에 대한 교직원의 니즈도 체험 및 실습교육(79.0%)으로 나타나 원격교육이나 집합교육, 기타

교육방법과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안전교육을 행동주의 교육과정³⁷⁾ 관점에서 살펴보면 행동주의는 정신 작용보다는 외부적인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기에 체험 기반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실제 소방안전 예방과 대응에 실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직원 은 소방안전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활용한 사례와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체험 교육이 중요하다. 이러한 체험교육의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치·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교직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과 연계하여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을 통한 소방안전 의식과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간의 단순 시범 등 소극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소방안전 위험요소를 찾아보고 이를 실행하고, 평가 및 토론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형 학습 모형³⁸⁾을 적용한 소방안전교육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위학교의 소방자위대 편성조(지휘반, 훈련반, 경보반, 소화반, 급수반, 대피반, 반출반, 의료반 등)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형으로 화재 안전사고를 3단계로 구분하여 화재발생 전단계의 예방 및 위협요인 발굴 등 안전조치요령, 화재안전 대응단계의 소방자위대의 역할 및 반복, 화재발생 이후 단계의 평가 및 예후관리 등 개선팔안 도출단계로 구분하여 교수학습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는 도입, 전개, 정리, 심화단계로 진행한다. 이를 학습이론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소방안전교육은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교

37)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주어진 자극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존재이며, 자극이 반복적으로 주어짐에 따라 반응이 누적되면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는 학습이론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4598&cid=40942&categoryId=31531>.

38) 프로젝트 학습은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탐구 과정과 성찰, 문제 해결,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교수학습모형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직원 간에 토의하여 안전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행동주의 학습이론과 병행하여, 구성주의 교육방법론³⁹⁾이 필요하다. 결국 소방안전교육은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하여 지식, 기능,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소방안전 위협 요인에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이해와 해석이라는 능동적 요소를 가미해 소방안전 위협 요소를 교직원 스스로 발굴하여 예방하고, 대응하는 자기주도적 역량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 학습방법론으로 행동주의와 구성주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지원방안으로 교직원의 니즈는 직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66.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소방안전교육이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안에서 진행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소방안전에 특화하여 교육이 진행되기를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은 학생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직접 지도하기에 교수·학습 지도안 등 교육방법론적 관점에서, 행정직원은 소방안전 시설물 등 총괄 분야를 담당하기에 이에 특화된 소방안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전문안전교육 시설확보(26.3%)와 강사의 전문성 확보(5.4%) 부분은 지역의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안전체험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소방안전교육 자격(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을 갖춘자가 강의 중심이 아닌,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안전 위협요인 발굴, 응급처치요령, 소화장비 등을 활용하여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9) 구성주의는 개체와 환경, 행동이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하는 반두라(A.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구성주의는 절대적, 객관적 지식을 부정하며 학습자 스스로 형성하고 구성하는 지식만을 인정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4352&cid=62841&categoryId=62841>.

■ 참고문헌

- 공민영·김진모, 「기업 e-Learning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전이와 자기주도성, 전이풍토, 학습과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권 3호, 한국농업교육학회, 2008, 223-246쪽.
- 교육부 고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2015.
- 구영민, 「공군 초급지휘관참모과정에서 학습부담이 교육훈련 만족도 및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3-20쪽.
-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등)」, 201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2022.
- 김규형, 「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이 안전의식과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41-48쪽.
- 김소희, 「공무원 교육훈련의 만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7-26쪽.
- 김승애, 「소방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9-23쪽.
- 김종세, 「현행법상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6권 2호, 한양법학회, 2015, 121-141쪽.
- 김진모·이진화·길대환, 「농촌지도리더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전이와 전이풍토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권 1호,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06, 27-52쪽.
- 김창길, 「단위학교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와 안전동기가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공정책연구』 40권 3호,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3, 2-5쪽.
- 박지옥,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24-30쪽.

- 박지환·김윤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 효과성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Crisisonomy』 10권 2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45-47쪽.
- 서혜승,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25쪽.
- 오창택, 「서비스 질 구성차원의 관리 우선순위, 민원 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권 2호, 한국행정학회, 1998, 7-12쪽.
- 이상천, 「안전참여 활동에 대한 직무요구-자원 모형의 적용 및 안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권 1호,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4, 28쪽.
- 유경희, 「어린이집의 안전풍토, 안전의식 안전태도와 보육교사의 안전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연구」,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24-28쪽.
- 유상영, 「안전문화가 안전분위기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9쪽.
- 이병철,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제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7쪽.
- 이병호·박윤주·이재림, 「학교 재난안전 교육연수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녹색환경연구』 17권 2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18, 11-21쪽.
- 조호현, 「청소년지도자의 안전의식과 청소년 안전교육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36-62쪽.
- 차우규·이영재, 「2019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교육센터, 2020.
- 한명식, 「소방안전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체험식 소방안전교육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9-13쪽.
- 허대중, 「공무원 서비스교육훈련이 교육만족과 민원행정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54-86쪽.

Baldwin, T. T.·Ford, J. K. “Transfer of training: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Personnel Psychology*, 41, 1988, 63-105.

Kirkpatrick, D. L., *Evaluation of training programs: The four level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1994

<네이버 백과사전>, “구성주의 학습이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4598&cid=40942&categoryId=31531>.

<네이버 백과사전>, “행동주의 학습이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4598&cid=40942&categoryId=31531>.

참고 사이트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s://www.mk.co.kr/dic>.

<법령정보센터>,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https://www.law.go.kr>.

<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 <https://www.law.go.kr>.

<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설 학교의 고층화, 복합화, 지하화 추세와 학교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소방안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방법, 만족도, 의식 및 행동의 변화도의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방법, 지원방안, 교육과정 편성 등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세종시교육청 관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소방안전교육 인식도 자료를 근거로 교직원 직종간 인식도 차이와 니즈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방안전교육 방법은 원격연수가 가장 높았고, 만족도는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직원 소방안전 의식 변화도는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행동 변화도는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러한 니즈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소방안전교육을 행동주의 교육과정 관점에서 실습 및 체험중심으로 진행하여 실제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한다. 둘째, 소방안전교육을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과 연계하여 구성주의 교육과정 관점에서 자기주도적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셋째, 교원, 행정직원 등 교직원의 역할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특화하여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소방안전교육, 교육만족도, 안전의식, 안전행동, 학습전이

■ Abstract

A Study on the Awareness of Fire Safety Education in Unit Schools and Improvement Measures : Faculty and staff of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Kim, Chang Gil
/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of fire safety education methods, satisfaction, consciousness, and behavior as the risk of fire increases due to the high-rise nature, complexity, and undergroundization of new schools and the aging of older school building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ffective fire safety education methods, support measures, and curriculum organization.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needs between faculty and staff were first analyzed based on data of self-awareness of fire safety education conducted for school faculty and staff in the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As a result, remote training was the highest in the fire safety education method, and satisfaction was in the order of teachers, administrative staff, and educational assistants. In addition, the degree of change in fire safety awareness of faculty and staff was found in the order of teachers, administrative staff, and educational assistants. The degree of change in fire safety behavior was also in the order of teachers, administrative staff, and educational assistants, and an overall low awareness was found. By analyzing these need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First, fire safety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practice and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an activist curriculum to enhance the ability to respond to actual incidents involving fire safety. Second, by linking fire safety education with the seven areas of school safety education, self-directed response ability can be enhanced from the perspective of a constructivist curriculum. Third, a plan is proposed to design and operate

a fire safety curriculum by specializing in fire safety education according to the role of faculty members such as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Keyword • Fire safety educatio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ense of safety, Safe behavior, Learning transfer

■ 논문투고일:2024.01.26. ■ 심사완료일:2024.03.20. ■ 게재확정일:2024.03.20. ■

대형화재 피난안전의 영향요인 실증분석

남철우·채 진*

목 차

1. 서론
2. 대형화재 피난안전의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설계
4. 연구의 결과분석
5. 결론

1. 서론

오늘날 건축물의 고층화, 복합화, 지하층의 심화 및 첨단화 그리고 대규모화 복잡화되어 에너지 사용량 증가,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출현 등으로 인한 다양한 도시 건축물의 배치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건축물들은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와 건축주의 더 많은 이익 추구로 인해 다중이용 복합건축물은 피난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¹⁾²⁾

* 남철우(제1저자) 대전소방본부 유성소방서 전민119안전센터 팀장
채 진(교신저자)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조교수

- 1) 김윤정·김석준·윤명오, 「노인요양시설 피난계획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의료·복지 건축』15권 1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9, 13-22쪽.
- 2) 강윤진·황용신·권영희, 「노인요양시설 피난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 추계, 한국화재소방학회, 2017,

국내 건축물은 법규 중심의 건축으로 거주자의 피난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 많다. 건물 화재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 관련 법에는 복도, 계단 및 건물 내장재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소방관련법령도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건축물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 중에서 화재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난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³⁾

국민의 다양한 안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대형화재 발생 시 피난 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통해 화재 발생 후 야기되는 인명피해의 감소 및 건축물의 안전한 피난 환경 대책을 세워야 한다.

5층 이하 찜질방, 주상복합건물과 도시형 공장 및 대형교회 및 체육시설의 피난에 대한 대응방안에 주안점을 두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고 대피하는 과정에 피난층의 폭발이나 대형화재의 농연으로 인해 피난통로가 막혔을 때 완강기를 이용하여 피난하고,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으나,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면 대피공간이 부족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찜질방이나 숙박시설에서는 화재 경보가 울려도 즉시 대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 대안이 필요하다.

153-154쪽.

3) 유정숙, 「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의 취약요인 및 개선방안 연구: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01-118쪽.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피난안전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선행 연구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화재 피난안전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2. 대형화재 피난안전의 이론적 배경

1) 대형화재의 개념

대형화재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반화재와 구별된다. 대형화재의 근거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이며, 대형화재는 인명피해가 사망 5명 이상이거나 화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를 말한다.

중요화재는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 건물 및 시설의 화재,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중점관리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화재,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 화재를 말한다.

특수화재는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외국공관 및 그 사택, 그 밖에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를 말한다.

따라서 대형화재는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크고, 그 규모가 큰 화재로서 일시적인 복구와 안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존도가 높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를 말한다.

2) 대형화재의 위험요인

(1) 건축시설 환경 및 구조

대형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건축 및 구조적 요인에 있어서는 화재 시 피난에 불리한 ‘단일 피난로’가 가장 큰 요인이며, 이로 인해 사망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문제, 방화구획 미흡, 비상구 폐쇄, 불법시설, 미로형 구조, 공사장 등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방화구획 미흡의 경우, 상층부와외의 관통부에 대한 구획미비, 건물중앙 원형돌림계단 구성으로 인한 미구획, 층간 구획 미비, 사고 당시 방화문 개방, 실 구성에 따른 천장 구획 미비, 덕트 등 환기구를 통한 화염확산, 방화셔터 불량, 무분별한 방화구획 면제 등이다. 둘째, 가연성 건축 자재 문제로는 인화성이 강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건축물과 건물 내부 단열 등을 위한 우레탄폼 사용, 가연성이 높은 건물 외부마감재 등의 원인이 가장 심각한 문제 요소이다.⁴⁾

(2) 화재인지 지연

화재 사실인지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산 문제로 구분한 화재인지 지연 부문에서는 4가지 요인 중 건물 내 관계자 등이 잠을 자고 있었던 시간에 발생한 ‘취침시간’ 요인이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보시설 부재이다. 또한 외부 소음으로 인해 음향경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보 미인지,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차단하거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보시설 불량을 말한다. 이는 야간에 발생한 화재가 초기 화재에 대한 인지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4) 최영, 「국내 대형화재 사고의 피해 확산 요인에 관한 연구:공통적인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98-99쪽.

(3) 초동대응 미흡

건축물 또는 시설 관계인의 자체 대응 미흡으로 인해 화재 발생 직후 소방관서 신고가 지체된 사례가 많으며,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등 자체 대응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초기 진압에 실패한 사례, 관계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홀로 피난하거나 화재 사실을 재실자 등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특성이 있다.

특히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였다가 진압을 실패한 사례는 화재신고가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볼 때 최초 화재 확인 이후 초기 진압을 시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신고지연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 또한 초기 진압시설 자체가 부재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초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 부재로 인하여 시설 구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상물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3) 선행연구 분석

(1) 대형화재에 대한 선행연구

최영(2017)은 국내 대형화재 사고의 피해 확산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16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실제 대형화재 사례에 대한 화재조사보고서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각 사고별 세부적인 문제 요소를 파악하였으며 공통적인 문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건축시설 환경 및 구조, 화재인지 지연, 자체 초기 대응 미흡, 소화설비 유무 여부, 소방의 현장대응이 곤란한 환경 여건, 급격한 연소 확대, 소방 현장 대응 미흡 등 화재 사례마다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주원(2020)⁶⁾은 대형화재 예방정책에서 위험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5) 최영, 앞의 논문, 2017, 98-101쪽.

6) 박주원, 「대형화재 예방정책에서 위험의사소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

관한 연구에서 대형화재관리에서 정책참여자 간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이 효과적인 정책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대구광역시 서문시장의 화재 원인을 건축과 구조적 측면, 자율방화관리 측면, 법 제도적 측면, 그리고 화재 진압 활동 측면의 4가지 측정지표로 분석하였다. 첫째, 건축과 구조적 관리 측면에서는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와 진입로 개선, 노후화된 건물 및 내부 시설 개선, 상가 내부 관리가 지적되었다. 둘째, 자율방화관리 측면에서는 상인들의 방화관리 활동과 자율소방체계 그리고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의 개선이 지적되었다. 셋째, 법·제도적 관리 측면에서는 화재영향 평가제도의 도입과 방재시설의 점검 및 규제 강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단속강화 등이 지적되었다. 넷째, 화재진압 활동 측면에서는 부족한 방재 시설을 보강하여 소방펌프, 호스릴, 원격감시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이들 방재시설의 가용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이 지적되었다.

박미예(2022)⁷⁾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훈련 시나리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대형화재 피해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화재 피해를 확대시킨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노후화된 시설 및 가연성물질 다량 배치, 유독가스 발생 등 대부분의 화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은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화재의 피해를 확대시킨 요인은 크게 구조적 요인과 비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요인은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및 실내구조, 소방시설 관련 요인으로는 스프링클러, 방화문, 방화셔터, 실내 대피로, 비상구, 무창층 등이 있다. 비구조적 요인으로는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 119 신고 지연, 소방차 접근 지연, 진입인력 부족, 관리인원 부족, 최초발견자의 구호조치 미 시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10-120쪽.

7) 박미예,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훈련 시나리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34-67쪽.

행 등으로 건물 및 시설에 관련된 요인을 제외한 요인들이 있다.

(2) 피난안전에 관한 선행연구

이흥교(2012)⁸⁾는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및 피난안전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외 11건의 화재사례를 분석하였다. 대형인명 피해가 유발된 화재사례 분석자료로 발화장소는 대부분 사무실, 휴게실, 요양원의 부대시설 등에서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화재시 관리인원의 부재 또는 1인 근무체제, 근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근무자의 신고지연과 화재대처 방법 미숙 등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였고, 입소자 특성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미비로 인한 자동소화 및 신고시스템 부재, 내화구조가 아닌 소규모 비내화 건물 또는 임시 가건물 사용 등 건물구조상 높은 화재취약성, 창문과 출입문 폐쇄로 인한 인명대피 및 구조 활동상 장애, 관할 소방서와의 원거리 위치 등이 대형인명 피해를 유발시킨 원인으로 확인하였다.

진승희(2016)⁹⁾는 어린이집 피난안전 향상에 관한 연구에서 어린이집의 안전관련 국내외 기준과 법규를 분석하였으며, 어린이집 화재 6건을 분석하였다. 화재안전 위험요인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투척용 소화기나 자동확산소화기 등 수동식 설비들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으나, 투척용 소화기의 경우 평소 영·유아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비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자동확산소화기의 경우는 주방에만 한하여 설치되고 있다. 대부분 수동식으로 이루어진 설비 속에서 신속한 화재진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화재시 효과적인 소화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피난시 위험요인은 규모에 비해 과도한 재실인원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피난 동선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

8) 이흥교,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및 피난안전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77-101쪽.

9) 진승희, 「어린이집 피난안전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1권 1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7, 63-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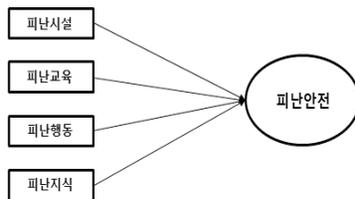
하고 있다. 책장 및 교육 부교재들의 적재로 인하여, 비상계단 및 피난 통로가 좁아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는 무리하게 설치되어 유사시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사용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다. 구조대와 피난트랩을 설치한 경우도 있으나 구조대는 전개과정에 따른 숙달훈련이 필요하고 경사도를 무시한 피난트랩의 설치와 2층 이상 건물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를 평소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시도는 제2의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

3. 연구의 설계

1) 분석틀

대형화재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화재현장에 출동하고 대피와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지표를 근거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 영향요인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피난시설, 피난교육, 피난행동, 피난지식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분석틀은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식화했으며,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은 복합건물의 종사자와 재실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나 인지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다중 복합건물의 피난안전을 제고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건물의 피난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나 인지도, 즉 피난시설, 피난교육, 피난행동, 피난지식 등의 변수들이 다중 복합건물의 소방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의 영향요인을 평가할 때 피난시설, 피난교육, 피난행동, 피난지식 등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 복합건물의 피난시설, 피난교육, 피난행동, 피난지식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피난시설이 설치될수록 다중 복합건물의 피난안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피난교육을 실시할수록 다중 복합건물 피난안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피난행동을 실천할수록 다중 복합건물 피난안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피난지식이 많을수록 다중 복합건물 피난안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으로 정하

고,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 초기에 출동하여 피난안전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소방차 운전원,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등)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총 250부 중 232부를 회수하여 92.8%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이 가운데 무응답이 다수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한 22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형화재 피난안전의 영향요인에 관한 측정지표로 첫째, 종속변수인 피난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피난시설 설치, 피난유도등 설치, 비상구 설치 등이다. 둘째, 피난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피난안전을 위한 조기교육, 피난안전을 위한 훈련, 작업 전 피난안전 교육 등이다. 셋째, 피난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화재 시 피난행동, 피난 우선순위, 낮은 자세 피난 등이다. 넷째, 피난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 인지, 피난안내도 인지, 피난설비 사용요령 인지 등이다. 다섯째, 안전한 피난에 대한 내용으로, 피난안전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 피난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피 등이다.

연구수행을 위한 설문지의 독립변수는 피난시설, 피난교육, 피난행동, 피난지식으로 하고, 종속변수는 안전한 피난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질문은 총 15문항으로 피난시설 3, 피난교육 3, 피난행동 3, 피난지식 3, 안전한 피난 3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의 결과분석

1) 인구사회학적 배경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소방공무원(소방차 운전원,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에 적절하게 응답한 소방공무원은 총 220명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먼

저 검토하고 분석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설문지의 응답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94명(88.2%), 여성이 26명(11.8%)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방업무 특성상 남성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1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와 50대 이상이 62명(28.2%), 20대 이하가 15명(6.8%)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는 20년 이상이 66명(3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15년 미만이 44명(20.0%), 5년 미만이 43명(19.5%), 5~10년 미만이 37명(16.8%), 15~20년 미만이 30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이 132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학 졸업이 54명(24.5%), 고등학교 졸업이 21명(9.5%), 대학원 졸업 이상이 13명(5.9%)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배경

내용	분류	응답자수(명)	비율(%)
성별	① 남자	194	88.2
	② 여자	26	11.8
	합계	220	100.0
나이	① 20대 이하	15	6.8
	② 30대	62	28.2
	③ 40대	81	36.8
	④ 50대 이상	62	28.2
경력	① 5년 미만	43	19.5
	② 5-10년 미만	37	16.8
	③ 10-15년 미만	44	20.0
	④ 15-20년 미만	30	13.6
	⑤ 20년 이상	66	30.0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	9.5
	② 전문대학 졸업	54	24.5
	③ 대학교 졸업	132	60.0
	④ 대학원 졸업 이상	13	5.9

2) 피난안전의 영향요인 분석

(1)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표 2]의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피난시설과 피난행동이 0.642로 가장 높게 나왔고, 피난행동과 피난지식이 0.639, 피난지식과 안전한 피난이 0.637, 피난교육과 피난행동이 0.628, 피난행동과 안전한 피난이 0.624, 피난교육과 피난행동이 0.602, 피난교육과 안전한 피난이 0.591, 피난시설과 피난지식이 0.533, 피난시설과 피난교육이 0.531, 피난시설과 안전한 피난이 0.5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으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0.8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 회귀계수의 분산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0.9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회귀계수의 분산이 급속히 커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¹⁰⁾ [표 2]의 상관관계에서는 0.7이하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피난시설	피난교육	피난행동	피난지식	안전한 피난
피난시설	1				
피난교육	.531**	1			
피난행동	.642**	.628**	1		
피난지식	.533**	.602**	.639**	1	

10) 남궁근, 『행정 조사 방법론』, 법문사, 2021, 640-646쪽.

안전한 피난	.523**	.591**	.624**	.637**	1
--------	--------	--------	--------	--------	---

* p<0.05. ** p<0.01

(2) 다중회귀분석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표 3]은 4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로, 각 독립변수가 관계의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은 한 독립변수가 다른 변수와 완전한 선형함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는 다중공선성과 관련된다.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경우,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아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개별 변수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지며, 회귀계수(β)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데는 공선성진단을 통해 분산팽창인자(VIF)가 10을 넘거나 분산 허용치(tolerance; 혹은 공차)가 0.1이하인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산허용치가 보통 1에 접근하면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¹¹⁾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분산허용치와 분산팽창인자(VIF)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3]의 회귀모형은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회귀모형의 타당성 검정을 할 필요가 있다. 회귀모형의 타당성 검정은 F값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값이 클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크다고 해석한다. [표 3]의 회귀모형에서 F값은

11) 양병화,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지학사, 2002, 68쪽.

57.413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아주 유의미하며, 모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회귀분석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주는데, [표 3]에서 $R^2=0.516$ 으로 전체 분산 중에서 약 51.6%를 설명해 주고 있다. 수정된 값은 조정된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수정된 $R^2=0.507$ 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비교해 볼 때 피난지식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피난행동, 피난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난시설은 유의도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안전한 피난의 다중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허용오차	VIF
(상수)	1.567	.229		6.857	.000		
피난시설	.091	.059	.100	1.557	.121	.549	1.822
피난교육	.159	.051	.205	3.137	.002	.524	1.907
피난행동	.177	.056	.231	3.168	.002	.423	2.365
피난지식	.257	.054	.312	4.719	.000	.514	1.947
R2 = 0.516, 수정된 R2 = 0.507, F = 57.413, 유의확률 = 0.000							

a. 종속변수: 안전한 피난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대해 각 독립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난시설은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유의도 0.05보다 크기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있어 피난시설은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없다.

둘째, 피난교육은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유의도 0.05보다 작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에 있어 피난교육은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피난행동이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유의도 0.05보다 작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에 있어 피난행동은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피난지식이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유의도 0.05보다 작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에 있어 피난지식은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가설검정

[표 4]에 따라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피난시설, 피난교육, 피난행동, 피난지식이 종속변수인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표 4] 가설의 검정 요약

가설	회귀계수(β)	유의확률	채택여부	상대적 비중
<가설 1>	.100	.121	-	-
<가설 2>	.205	.002	○	3
<가설 3>	.231	.002	○	2
<가설 4>	.312	.000	○	1

* ○ :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회귀분석으로 가설을 검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다중회귀 분석으로 가설을 검정한 결과, 피난교육(<가설 2>), 피난행동(<가설 3>), 피

난지식(<가설 4>)이 유의수준 5%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피난지식, 피난행동, 피난교육 순으로 비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난시설<가설 1>은 유의도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피난시설, 피난교육, 피난행동, 피난지식 등이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과,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변수들 중 피난지식, 피난행동, 피난교육의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을 위해 화재 시 피난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낮은 자세로 피난하는 등 화재 시 피난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재 시 어릴 때부터 피난에 관한 조기교육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한다.

첫째,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출입구를 확인하고,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통해서 대피해야 한다. 승강기는 화재로 인하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으며, 연기의 이동경로가 되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대피하고, 연기가 가득 찬 곳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짧게 한다. 건물에 고립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 침착한 대응을 하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피난지식을 시민에게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소방기관에 교육훈련 부서가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화재가 발생할 때 낮은 자세로 대피하고,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이 우선 대피할 수 있는 피난행동을 해야 화재 시 안전한 피난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은 정체가 유발되는 공간 즉, 복도, 계단실입구에서 지체에 의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교차지점의 수가 많을수록 혼잡은 증가하고, 인접한 출구의 흐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자신이 먼저 대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 대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다수가 일시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압사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행동에 대해 체험기반 소방안전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려서부터 피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난안전 의식’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호흡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가듯 안전도 호흡과 같이 잠시도 멈추어선 안 된다. 잠시라도 멈추지 않으려면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생각에 젖어 있는 상태, 체질화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아동의 마음은 출생 때의 백지와 같다고 했다. 이는 아동의 마음에 무엇이든지 그리는 대로 새겨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피난교육은 저학년 일수록, 학령 전 아동일수록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에 새기도록 이끌어야 한다.¹²⁾

넷째,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촘촘한 피난

12) 정재선, 「아동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3-24쪽.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난구조설비의 종류에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있다. 피난기구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로써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공기안전매트, 피난용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등이 있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형화재에 대비하여 피난시설을 설치하고, 피난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평소에 익혀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안전문화가 중요하다.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한 믿음, 가치와 같은 의식 부분과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행태, 행동양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안전에 대해 공통적인 가치관이자 행동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³⁾ 소방안전 문화 구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와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 전에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피난안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가치가 확산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난안전에 관한 행동과 행태가 행동양식으로 표현되는 안전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¹⁴⁾

13) 채 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의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 『Crisisnomy』13권 8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191-206쪽.

14) 조창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소방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4-55쪽.

■ 참고문헌

- 강운진·황용신·권영희, 「노인요양시설 피난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추계, 한국화재소방학회, 2017, 153-154쪽.
- 김윤정·김석준·윤명오, 「노인요양시설 피난계획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의료·복지 건축」15권 1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9, 13-22쪽.
- 남궁근, 『행정 조사 방법론』, 법문사, 2021, 640-646쪽.
- 박주원, 「대형화재 예방정책에서 위험의사소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10-120쪽.
- 박미예,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훈련 시나리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34-67쪽.
- 양병화,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지학사, 2002, 68쪽.
- 유정숙, 「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의 취약요인 및 개선방안 연구: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01-118쪽.
- 이흥교,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및 피난안전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77-101쪽.
- 진승희, 「어린이집 피난안전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1권 1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7, 63-73쪽.
- 정재선, 「아동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의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3-24쪽.
- 조창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소방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4-55쪽.
- 채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의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

『Crisisnomy』 13권 8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191-206쪽.

최 영, 「국내 대형화재 사고의 피해 확산 요인에 관한 연구:공통적인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98-99.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피난안전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선행 연구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화재 피난안전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유의미한 변수들 중 피난지식, 피난행동, 피난교육의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 복합건물에서 대형화재의 피난안전을 위해 화재 시 피난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낮은 자세로 피난하는 등 화재 시 피난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재 시 어릴 때부터 피난에 관한 조기교육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형화재, 피난안전, 피난지식, 피난행동, 피난교육

■ Abstract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evacuation safety in large-scale fires

Nam, Cheol Woo·Chae, Jin
/ Daejeon Fire Headquarters·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casualties when a large-scale fire occurs in a multi-building, and establish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through theoretical exploration and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on evacuation safety with an empirical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evacuation safety of large-scale fires in multi-building, evacuation knowledge, evacuation behavior, and evacuation training were found to have relative influence, in that order. This tells us that for evacuation safety in a large-scale fire in a multi-building, people must know evacuation methods and take evacuation actions, such as evacuating in a low posi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ceive early education about fire evacuation from a young age.

**Keyword • large-scale fire, evacuation safety, evacuation knowledge,
evacuation behavior, evacuation training**

■ 논문투고일:2024.01.19. ■ 심사완료일:2024.03.14. ■ 게재확정일:2024.03.18. ■

위탁 어린이집 원장의 현실과 대안 모색

박윤자*

목 차

1. 서론
2. 위탁 어린이집의 현황 및 원장의 역할
3. 위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4. 결론

1. 서론

2023년 4월,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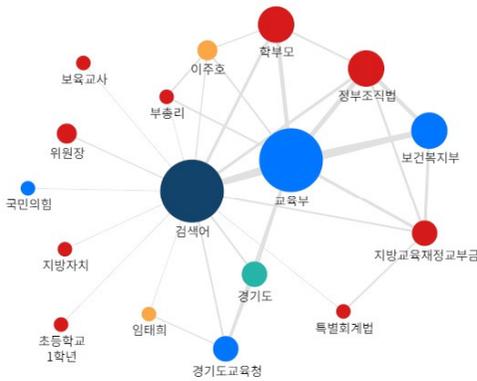
현재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 AI를 기반한 Chat GPT의 시대, 융복합 지식 및 일자리 변화 시대 등으로 대변되고 있으며, 영유아들은 급변하는 시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 교육은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배재대학교 부속어린이집 원장



[그림 1] 유보통합 관련 기사의 연관어 분석¹⁾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부” 등이 가장 큰 연관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등이 다음 연관어로 나타나고 있다. 유보통합을 맞이하여 관계기관의 “설명회” 및 의견 수렴과정 등 어린이집 원장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유보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림 2] 유보통합 관련 기사의 관계도 분석²⁾

-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2024.2.12.)를 활용하여 “유보통합” 검색 결과 중 분석 뉴스와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의 결과이다.
- 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2024.2.12.)를 활용하여 “유보통합” 검색 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분석 뉴스에서 추출된 개체명(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유보통합 관련 기사를 살펴보아도 검색어(유보통합)를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기도(교육청 포함), 보육교사, 지방자치, 학부모”의 관계도를 볼 수 있다. 이렇듯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보육 교직원”의 관계도가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원장이 유보통합에서의 역할을 다할 때 차질 없는 정책이 실현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2022)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유형별로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민간, 가정, 부모 협동이 있는데 그 중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22%를 차지한다.³⁾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유보통합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의 역할과 비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은 직영 형태의 운영보다 위탁 운영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원장은 대표자인 동시에 근로자로서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⁴⁾ 이 조항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위탁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위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감독 기관은 어린이집 설치 주체, 운영 주체, 행정당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관리 및 감독 기관을 다르게 한 것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2차, 3차 점검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

3) KOSIS 국가통계포털 <복지-어린이집 이용자 통계- 어린이집 설치·운영현황>

4) 김광래·전진호, 「사회서비스원 법에 나타난 어린이집위탁 쟁점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권 4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18, 221쪽.

장은 반복적인 점검을 받으면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업무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위탁 어린이집은 위탁과 재위탁 심사 과정이 필수적이며, 위탁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위탁 기간에 따라 임기제 어린이집 운영으로 불안정한 신분이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의뢰기관,⁵⁾ 수탁기관의 요구 및 어린이집 관리에 충실해야 하고, 위탁 기간 만료 시 위탁심사과정에서 재위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책임도 있어 어린이집 운영 이외의 직무수행에 대한 업무 부담을 갖게 된다.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이진옥(2010)은 직장 어린이집 원장의 어려움으로 관계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직장 담당자, 학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원장의 책임이 과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직영 원장과 위탁 원장으로 혼재되어 설립 주체에 따른 원장의 직무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차미영 외(2010)에서는 위탁 운영 직장 어린이집의 개원 및 개원초기에 원장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복잡한 행정, 학부모의 집단적 요구, 직장 담당자들의 어린이집 이해 부족을 제시하였으나 개원 초기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하여 위탁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원장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양적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질적 연구방법의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주를 이루었으며, 직장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 주로 어려움에 초점을 두는 연구였다.

지난 12월 말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24년 7월부터 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되며, 유보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보통합에 대하여 보육 교직원들은 큰 기대와 동시에 추진과

5) 이하 '사업주'와 동일한 의미임을 밝힌다.

정 및 결과에 우려하고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위상과 발전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이때 선진적인 위탁 어린이집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그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은 원장이라고 볼 수 있다.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충실하고 소임을 다할 때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보육의 원만한 통합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통합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유형에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마주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위탁 어린이집의 현황과 원장의 역할

1) 위탁 어린이집의 현황

위탁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설립 주체와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다른 것을 말하며, 설립 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기업 등이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권리 및 의무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전문)위탁회사, 개인 위탁으로 나뉜다. 위탁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는 위탁기관⁶⁾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법인체 위탁형, 대학 위탁형, 위탁 전문 회사형, 개인 위탁형으로 나뉜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매우 적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2022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30,923 개소에서 국공립 5,801개소, 사회복지법인 1,254개소, 법인·단체 등 610개소, 민간 9,726개소, 가정 12,109개소, 협동 132개소, 직장 1,291개소로 나

6) 이 연구에서 “위탁” 및 “수탁”은 동일한 의미로 혼용한다.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 등에서는 “위탁”을 주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 관계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탁”을 주로 사용한다.

타났다. 그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의 10년간 현황을 보면 전체 어린이집은 감소하는 데 반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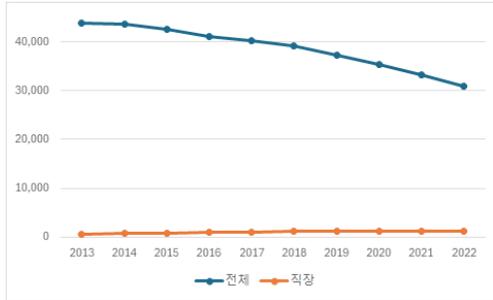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확대는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는 전체 비율이 약 18% 정도로 높아졌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의 증가 이유는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넓히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표 1]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유형⁷⁾

운영 형태 연도	응답 개소 수	직영	사회 복지 법인	종교 법인	학교 법인	기타 법인	단체	개인
2021년	508	6.0%	10.3%	5.6%	1.6%	2.4%	5.9%	68.2%
2018년	490	5.8%	15.2%	9.6%	4.1%	5.0%	5.8%	54.6%
2015년	506	5.2%	19.0%	14.5%	5.5%	1.7%	3.9%	50.2%
2012년	457	6.6%	19.1%	14.8%	3.9%	3.4%	4.6%	47.6%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보육 정책 강화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계속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위탁, 종교법인위탁, 학교법인위탁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개인 위탁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7) KOSIS 국가통계포털 <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유형>. 지면의 제한으로 운영형태에서 “위탁”은 공통 사항으로 제외하였다.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 주제』, 2021,



[그림 3]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KOSIS 국가통계포털)

직장 어린이집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직장 어린이집의 수가 많지 않았으며,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의 수는 약 1,300여 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어린이집 중 차지하는 비율도 약 4% 정도로 높아졌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이유는 기업들이 직원의 복지 향상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립·운영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직장 어린이집 위탁체 유형⁸⁾

연도 \ 운영 형태	응답 개소 수	직영	전문 운영	학교 법인	개인	사회 복지 법인	기타 법인
2021년	121	14.4%	53.3%	9.3%	15.3%	3.0%	4.6%
2018년	289	14.8%	49.0%	10.9%	17.8%	2.8%	4.8%
2015년	266	19.2%	41.0%	16.3%	21.1%	2.3%	0.2%
2012년	220	29.2%	28.3%	17.8%	17.4%	5.9%	1.4%

[표 2]의 직장 어린이집 운영형태를 보면 다른 위탁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 운영 위탁’은 53.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문 운영 위탁이 증가하는 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

8) 보건복지부, 앞의 실태조사, 2021.

족한 사업장에서 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위탁 운영은 전문적 운영 관리에 대한 서비스 지원, 우수 인력 채용 및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심화와 우수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함으로써 보육의 질이 보장되는 장점이 두드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⁹⁾

보육사업안내(2023)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이고, 직장 어린이집은 위탁의뢰기관이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⁰⁾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립하여 보육 사업에 참여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제도를 어린이집에 도입하여(김숙자, 2003), 공보육 실현의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간 위탁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정부의 업무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지정됨으로써 행정 능률의 상승, 비용 감소 등 민간의 효율적 전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이렇듯 어린이집 운영 현황 결과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은 대체로 위탁기관을 통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설립자는 영유아와 부모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보육 전문성이 어린이집 운영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

9) 박윤자, 「위탁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과정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4쪽.

10) 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안내』, 2023, 3-9쪽.

11) 김광래·전진호,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정부업무 민간위탁 공정성 확보 방안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권 4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18, 288쪽.

이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보육 제공 및 복지 서비스의 제공,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발전의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장은 보육 철학, 예산의 계획과 수립, 보육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보육 교직원의 채용 관리,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보육 관련 법 지식 습득, 부모와의 교류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운영 기술 및 역할과 자질을 지녀야 한다.¹²⁾

Decker와 Decker(2001)는 원장이 수행해야 할 직무로서 단순한 보육 활동뿐 아니라 행정적 관리, 재정적 관리,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유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가. 어린이집의 계획수립과 운영
- 나. 보육목표 설정 및 보육 과정의 계획과 관리
- 다. 교직원 인사관리
- 라. 원아 모집 및 관리
- 마. 비품 및 교재·교구의 구입과 관리
- 바. 재정관리
- 사. 행정적 업무처리 및 기록유지
- 아. 부모교육 및 부모와의 관계 유지
- 자. 행정당국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과의 관계 유지

또한, 어린이집의 특성상 원장의 역할이 정책과 운영에 관한 판단과 문제 해결 과정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이 있다.¹³⁾ 즉, 원장의 운영철학과 교육 목적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보육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탁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어린이

12) 박윤자, 앞의 논문, 2014, 27쪽.

13) 오경숙·박화윤·조도현, 「보육시설장의 리더십 유형과 보육시설운영 관리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권 1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2, 21-41쪽.

집의 핵심적 역할은 원장일 것이다. 이렇듯 원장은 단순히 영유아 관리, 교사 관리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총책임자이자 최종 의사 결정자로 볼 수 있다.

3. 위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위탁 어린이집의 문제점

(1) 위탁 과정에서 오는 원장의 신분 불안정

위탁의뢰기관과 수탁기관은 어린이집 운영 기간을 대략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을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위탁 신청서의 제출과 심사 과정 또는 공개 위탁을 거쳐야 한다.

물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운영점검의 의미로 진행되는 차원의 재위탁심사는 필요하다. 위탁 원장들이 심사 기준에 맞추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보육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재한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심사 준비과정 중 원장에게 유발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¹⁴⁾

이러한 위탁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분 불안정과 관련한 상황은 가까운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지인으로 있을 때만 그들의 현실과 고충에 대해 알게 된다. 이렇듯 개인이 직접 설립한 자신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어린이집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민간 위탁(최정희, 2008) 형식으로 진행되는 직장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

14) 박윤자, 앞의 논문, 2014, 124-135쪽.

들은 원장으로서의 존재감과 현실적인 어려움, 언제 자신의 자리를 잃을지 모를 두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위탁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 심사를 받는다. 위탁 심사과정에서 보육 교직원들은 심사 통과와 관계없이 수탁기관이 변경될 때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교직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¹⁵⁾을 명시하고 있지만, 원장의 경우 위탁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때 당연히 교체로 진행된다.

또한, 위탁 심사를 진행하는 보육조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재위탁에 대한 심사 방식도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도자(2008)의 국공립 민간 위탁운영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은 재위탁 시 정치적 영향을 미치므로 원장의 위치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변모하게 되어 소신 있는 원장들의 보육 현장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고 표현한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위탁 어린이집 원장들은 주기적인 위탁 심사로 인해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그 불안감은 보육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에도 영향을 준다.

(2) 운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점

위탁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위탁의뢰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기관이다. 위탁의뢰기관의 수준에 따라 보육의 질과 교직원들의 신분, 처우, 관리 문제들이 결정되기에¹⁶⁾ 위탁의뢰기관과 수탁기관과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특성을 가진 위탁 어린이집의 장점은 어린이집 운영에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탁기

15) 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안내』, 2023, 180쪽.

16) 이윤미·박선영,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교사-부모 관계의 특질」, 『유아교육학논집』 14권 1호, 한국영유아교육원교육학회, 2010, 69-91쪽.

관이나 위탁의뢰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없는 경우 원장들은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임에도 그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나아가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아래의 [그림 4]과 같이 위탁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설립 주체, 어린이집 운영 주체,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자 즉, 원장이 있다. 이는 개인이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달리 위탁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계된 주체자가 1곳 이상인 것이다. 이 점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계된 여러 기관이 있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순 있지만, 영유아의 건강한 육성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이 아닌 각자의 이익이 우선시 되면 보육에 전문성을 갖춘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 예로 김은숙(2018)의 연구에서 어린이집 설립 운영 주체인 사업체 담당자의 보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며, 원장은 여러 운영 주체들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어 다양한 갈등과 딜레마를 조율하고 타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하고도 힘겨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장이 어려움을 느낄수록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영유아, 교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⁷⁾ 이때 위탁의뢰기관과 위탁 업체의 물리적, 심리적 지원에 따라 원장들은 어려움을 달리 느끼고 있었는데, 그들 기관이 원장의 편에 서서 든든한 배경으로 인식되는 경우 잡다한 갈등을 겪지 않고 보육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었다.¹⁸⁾

17) 김은숙·한미라,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둘러싼 관계적 딜레마 속에서 원장으로 살아가기」, 『교육과 문화』 3권 1호, 동명대 산학협력단 창의인성연구소, 2021, 47쪽.

18) 김은숙·한미라, 위의 논문, 2021, 63쪽.



[그림 4] 위탁 운영 직장 어린이집의 인사 관리체계¹⁹⁾

2) 위탁 어린이집 문제의 해결 방안

(1) 원장의 고용불안 해소 및 처우개선 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고용주이면서 고용인이다. 더욱이 현실에서는 고용주의 입장이 주목받아 수당 지급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다. 결국 기업주나 위탁의뢰기관, 사회적 인식에서 설립 주체가 따로 있는 피고용인이지만, 고용주로 인식되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 원장도 소속 위탁 업체가 위탁의뢰기관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장 직위를 잃게 되어 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수탁기관에 따라 수탁업체의 연구원으로 채용하며 이후 다른 어린이집이 원장으로 복귀시키는 사례²⁰⁾가 있는 것처럼 위탁 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교사들과 같이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춘 원장이기에 그들의 고용을 유지할

19) 직장보육지원센터, <https://welfare.comwel.or.kr/escac/>, 2022.

20) 김은숙·한미라, 앞의 논문, 2021, 63쪽.

수 있는 처우개선이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위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수탁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피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한 기관의 대표이지만 상부 기관(기업주와 위탁의뢰 기관)에서는 원장의 현실을 인식하여 위탁 어린이집 원장의 처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수탁기관의 변경에도 안정적 근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²¹⁾

위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보육 교직원과 달리 당연퇴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원장의 신분이 불안하여 소신 있는 운영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장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이라는 신분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박윤자, 이대균, 2013)한데, 수탁기관과 상관없이 같은 지역의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의 순환 주기에 따라 전근하는 국공립 임용 원장 및 교사의 순환배치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²⁾

(2) 위탁 관계자들의 보육업무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시행

위탁 어린이집 특성상 어린이집 운영에는 여러 관계자가 업무에 영향을 준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설립 주체인 사업체 즉 위탁의뢰기관과 위탁 업체에서 어린이집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고 투명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의 어린이집에 관한 관심, 이해에 따라 지원이 적극적으로거나 소극적으로 달라지고, 그 중심에서 사업체 담당 직원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 사업체 지원이 달라져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는 사업체 담당 직원들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임

21) 박윤자, 앞의 논문, 2014, 151쪽.

22) 박윤자, 앞의 논문, 2014, 152쪽.

에도 불구하고 기업 논리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원장이 보육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보육 운영업무에 대한 이해, 특히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 업무 및 태도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³⁾

4. 결론

이 연구는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영유아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기에 설립 주체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이 증가함을 보았다. 위 기관이 증가하는 이유는 더 전문적이고 보육 서비스의 일관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이 더욱 탁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여러 문제가 있는데, 재위탁 관련 사항과 원장의 신분 불안정, 위탁체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어린이집은 감소하는 데 반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이 위탁 운영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영유아 보육의 지원시스템, 전문적 운영 관리 서비스, 우수 인력 채용 및 보육 교직원 전문성 심화, 우수 프로그램 도입 가능, 보육의 질이 보장 등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주 업무로 하며, 보육 철학 제시, 예산의 계획과 수립, 보육프로그램 계획수립, 보육 교직원의 채용 관리,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보육 관련 법 지식 습득, 부모와의 교류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운영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원장은 영유아 관리, 교사 관리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총책임자이

23) 김은숙·한미라, 앞의 논문, 2021, 61쪽.

자 최종 의사 결정자이다. 나아가 위탁 어린이집 원장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원장의 역할 뿐 아니라 위탁을 맡긴 사업장의 요구와 관련한 역할, 위탁체의 요구와 관련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위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 심사과정에서 오는 원장의 신분 불안정성이다. 위탁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대표자이면서 수탁기관에 계약되거나 소속되어 있는 또 다른 형식의 근로자이다. 이런 위치는 대표자로서의 책임 역할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근로자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보육 교직원 이면서 근로자이기에 누려야 하는 처우개선이나 고용보험 가입 등에서는 대표자로 인식되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위탁 어린이집은 운영기간이 정해진 특수성으로 위탁 기간이 도래할 때 재위탁 심사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이때 다른 보육 교직원은 근로자로서 인식되고 보호해줘야 하는 약자로 인식되면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원장은 대표자 또는 고용주로 인식되어 재위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퇴직이나 원장 교체로 일자리를 잃는 신분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처우개선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재위탁 심사보다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을 순환 배치하여 운영하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장점으로 원장의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어 신분보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장기적 계획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위탁 전문회사에서는 원장 컨설턴트, 위탁회사 연구원 등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

여 원장의 고용불안 해소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위탁과 관련된 운영 주체들과의 협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위탁 어린이집은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다르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기관이 어린이집 설치자, 어린이집 운영자, 어린이집 관리 부처로 다양하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자, 운영자 외에 자신의 직장에서 복지 차원으로 설치되었다는 관점으로 마치 어린이집이 자신들의 소유기관이고 원장과 교직원들은 자신들이 채용한 근로자로 인식하는 학부모들로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회사 직원의 경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직장복지기금이 과하다는 인식도 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여러 주체가 있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관련 주체가 보육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장경제 논리, 기업 논리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기도 한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부적절한 관여는 영유아보육의 전문가로서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여러 주체가 어린이집을 자신들의 소유로 인식하여 원장이나 교직원들을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아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개연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여러 주체와 담당자들은 보육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보육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직장 어린이집과 관련한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 어린이집 설립 주체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해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직원 복지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넘어 자신의 자녀들,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건강한 성장과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육 전문기관이며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를 키우는 곳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위탁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주체자는 보육 교직원을 존중하고 협조하려는 마음가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이 하나의 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 기관 및 담당자, 부모를 위한 어린이집 이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광래·전진호, 「사회서비스원법에 나타난 어린이집위탁 쟁점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권 4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20, 215-233쪽.
- 김광래·전진호,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정부업무 민간위탁 공정성 확보 방안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권 4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18, 281-302쪽.
- 김미정·최혜진, 「직장보육시설 대학위탁 현황 및 위탁운영에 대한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6권 1호, 2011, 411-434쪽.
- 김숙자, 「보육시설장의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은숙·김은숙·한미라,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둘러싼 관계적 딜레마 속에서 원장으로 살아가기」, 『교육과 문화』 3권 1호,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의인성연구소, 2021, 45-69쪽.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23.
-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2021.
- 박윤자, 「위탁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과정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박윤자·이대균, 「위탁 어린이집 임용원장의 어려움과 대처하기」, 『유아교육학논집』 18권 3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3, 151-171쪽.
- 오경숙·박화윤·조도현, 「보육시설장의 리더십 유형과 보육시설운영 관리와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7권 1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7권 1호, 2012, 21-41쪽.
- 이윤미, 「직장보육시설의 조직문화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진옥,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의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희망」,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차미영, 「위탁운영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이 개원 및 개원초기 운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권 2호, 2010, 17-37쪽.

최도자,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권 4호, 2008, 191-217쪽.

허은정·채영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정책 및 위탁제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인문사회21』 11권 3호, 인문사회21, 797-812쪽.

Decker, C.A.·Decker, J.R,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 NJ:Prentice-Hall, 2001.

참고 사이트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대한민국 교육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기반 조성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 발표”, <https://if-blog.tistory.com/14468>, 2023.09.13.

직장보육지원센터, <https://welfare.comwel.or.kr/escac/>.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위탁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다.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여러 문제가 있는데, 원장의 신분 불안정과 위탁과 관련된 운영주체들과의 문제이다.

위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위탁 심사과정에서 오는 신분의 불안정성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을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재위탁 심사보다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을 순환 배치하여 운영하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탁과 관련된 운영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관련 주체가 보육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장경제 논리, 기업 논리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여러 주체와 담당자들은 보육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보육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기관 담당자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직원 복지로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육전문기관임을 인식하고, 보육교직원을 존중하고 협조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주제어 • 어린이집, 국공립, 직장, 위탁, 원장, 부모교육

■ Abstract

Looking for the reality and alternatives of the director of the foster daycare center

Park, Yun Ja
/ PaiChai Daycare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foster daycare center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Based on the importance of infant education, it was seen that the number of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and workplace daycare centers increased during reservation integration.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operating national, public, and workplace daycare center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problems related to re-consignment and instability of the director's status. The problems of the entrusted daycare center and their solutions were presented in two ways. First, it is the instability of the status that comes from the consignment screening proces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director of daycare centers should be recognized as a worker. In addition,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need to operate by rotating the heads of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in the region rather than re-entrustment screening, and implement a circular job system so that they can demonstrate their skills.

Second, close cooperation with the operating entities related to consignment is required. Related entities are also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daycare center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childcare work, market economy logic, and corporate logic.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subjects and managers related to daycare centers need to be educated to enhance the importance of childcare work and understanding of the childcare field. Institutional managers and parents need to recognize that daycare centers are not institutions operated by employee welfare, but are specialized childcare institutions that do their best to grow and raise childre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mindset to respect and cooperate with childcare teachers, and the subject of the establishment of daycare centers and the trustee should provide parental education in which daycare centers can be recognized as one institution.

Keyword •Daycare Center, National and Public, Workplace(Company), Foster, Director, Parent Education

웰에이징 연구경향과 과제*

송현동·김광환·김문준·박아르마**

목 차

1. 머리말
2. 웰에이징 연구 검토
3. 웰에이징 연구의 전망과 과제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웰에이징 관련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웰에이징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 사회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삶의 의미와 가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고령화로 나타나는 노년기의 가난과 고독, 질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2023년 통계청 생명표에 의하면 2022년 기대수명은 82.7세(남자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논문임.(NRF-2020S1A5C2A04092504)

** 송현동(제1저자) 건양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김광환(공동저자)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김문준(공동저자)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박아르마(교신저자) 건양대학교 브리콜레르학부 조교수

79.9, 여자 85.6)로 조사되었다. 1970년 기대수명이 62.3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50여 년 사이 약 20년이 늘어났다.

한편, 한국 사회는 1970-2000년대와는 다르게 60세 환갑잔치 문화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0세 고희연도 가족중심으로 간단하게 치러진다. 건강상의 문제만 없으면 직장 퇴직 이후 20여 년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늘어난 삶의 길이 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장수시대, 고령화 시대의 외로움과 가난, 질병을 고려하면, 평균수명의 연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평균수명의 연장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는 늘어난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웰에이징’에 대한 논의들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웰에이징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김두리 외(2021)는 웰에이징을 “노화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활동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늙어가는 것”으로 정의¹⁾하고 있다. 한국웰에이징협회 블로그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사회에서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²⁾ 강남구 웰에이징센터 홈페이지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³⁾ 행복하게 잘 늙어가

1) 김두리·강경희·박아르마·이종형·김광환, 「국내 웰에이징 연구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권 제3호, 2021, 190-198쪽.

2) 한국웰에이징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korea_well_aging&from=postList&categoryNo=7, 2024.02.02.

3) 강남구웰에이징센터, https://www.gangnam.go.kr/office/wellaging/contents/wellaging_intro/1/view.do?mid=wellaging_intro, 24.01.30.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요약하면 웰에이징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태”로 늙어갈 것인가, 노년기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한국 학계에서 웰에이징에 대한 연구는 철학,⁴⁾ 심리학,⁵⁾ 여가·관광학,⁶⁾ 간호학,⁷⁾ 윤리학,⁸⁾ 교육학,⁹⁾ 디자인,¹⁰⁾ 문화예술,¹¹⁾ 신학,¹²⁾ 융합연구¹³⁾ 등 다

-
- 4) 김경호, 「웰에이징: 노년의 삶에 대한 여헌 장현광의 성찰」, 『동양고전연구』 49호, 동양고전학회, 2012, 109-136쪽.; 김명식, 「웰에이징과 나이위계」, 『생명연구』 51권,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9, 81-99쪽.
 - 5) 주해원·현명호, 「수용과 하향비교가 주관적 웰에이징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研究』 24권 3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16, 201-209쪽.; 홍지웅·주해원, 「주관적 에이징웰 척도의 타당화」, 『디지털융복합연구』 19권 11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415-424쪽.
 - 6) 윤혜진, 「한국 노인의 여가 및 에이징 웰(aging well)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28권 7호, 한국관광레저학회, 2016, 201-221쪽.; 장병주, 「웰빙지향 행동, 웰에이징, 여가태도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관광기업 이용객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4권 2호, 동북아관광학회, 2018, 23-47쪽.; 연분홍,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족진, 자아실현 및 웰에이징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7권 2호 (통권 제99호), 2023, 55-66쪽.
 - 7) 김영희·박금숙·진은영,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위한 웰에이징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간호연구학회지』 3권 4호, 한국간호연구학회, 2019, 23-35쪽.
 - 8) 김명식, 위의 논문, 2020, 25-45쪽.
 - 9) 오은아·박기환, 「중년기 노화불안과 웰에이징의 관계 모형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1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345-363쪽.; 김종운·조은유, 「회상 노래 음악치료가 노인의 웰에이징과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1355-1371쪽.; 김남희, 「문화예술교육 참여 노인의 여가몰입,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우울 및 웰에이징 간의 구조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 10) 양지현, 「웰에이징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정보 디자인 연구: 여의도 셋방 생태공원 사인시스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11) 이채원·심해정, 「문화예술참여욕구가 여가열의 및 웰에이징에 미치는 영향-액티브시니어 대상으로-」, 『조형미디어학』 25권 3호,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22, 53-63쪽.; 윤지은·오윤선·이소미, 「포스트 코로나, 노년기 ‘웰에이징’ 무용교육의 방향성 탐색」, 『한국융합과학회지』 10권 4호, 한국융합과학회, 2021, 130-142쪽.
 - 12) 김성호, 「고령사회 속 기독교 노인복지의 화두 - “안티 에이징과 웰 에이징”을 대하는 기독교 윤리적 시선」, 『기독교사회윤리』 43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

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웰에이징 연구 논문들에 대한 문헌 고찰은 “국내 웰에이징 연구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¹⁴⁾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11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그리고 웰에이징 개념 분석을 토대로 웰에이징의 정의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아실현” 등이 개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향후 생애주기에 따른 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웰에이징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연구 주제와 경향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학문에서 연구 주제에 대한 개념은 연구방법과 범위를 설정하고 규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김명식(2019)의 “웰에이징과 나이위계”는 각 학문분야에서의 웰에이징 개념을

회, 2019, 9-37쪽.; 강요한, 「100세 시대 웰에이징에 필요한 종말론적 신앙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13) 이종형·강경희·김용하·임효남·구진희·김광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웰에이징 요인에 관한 연구: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권 5호, 2021, 354-360쪽.; 구진희·임효남·김두리·강경희·김설희 외, 「웰에이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성인 생애주기별 교육 요구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권 5호, 2021, 257-269쪽.; 김두리·강경희·박아르마·이종형·김광환, 앞의 논문, 2021, 190-198쪽.; 황혜정·박아르마·김광환, 「노인의 의미 있는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연구: 웰에이징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7권 3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641-673쪽.; 송현동·김두리·장경희·김광환, 「웰에이징 전문가의 장래문화사업 교육운영 인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5호, 2023, 538-546쪽.; 백청강·김광환·구진희,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5호, 2023, 510-519쪽.; 염주희·김두리·김광환·장경희, 「노인일자리 사업과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 웰에이징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4호, 2023, 205-218쪽.; 김설희·김광환·안상운, 「웰에이징 구강보건교육 인식과 요구도 연구-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4호, 2023, 567-573쪽.

- 14) 김두리·강경희·박아르마·이종형·김광환, 위의 논문, 2021, 190-198쪽.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웰에이징 개념으로 ‘사회복지학은 액티브에이징(active aging), 컴퓨터과학은 디지털에이징, 의학은 안티에이징, 간호학은 돌봄의 윤리(care ethics), 응용심리학은 노화의 긍정적 의미, 철학은 개인의 실존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⁵⁾ 이상의 논문들은 본 연구 주제인 웰에이징 연구 경향과 과제의 문제의식을 확장시키고, 연구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웰에이징 연구경향과 과제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웰에이징 관련 기존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학술정보(KISS), BDpia 검색엔진에서 “웰에이징”으로 검색하였으며,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검색된 논문을 학문분야, 주제별로 분류하여 연구경향을 고찰한다. 다음으로는 분석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웰에이징 연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나이듦의 문제, 노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학분 분야별 연구과제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맞는 웰에이징 문화형성에 학문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웰에이징 연구 검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년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일정시기가 되면 나이듦은 중단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은 나이듦의 연속이고, 죽음은 나이듦의 멈춤을 의미한다. 사람은 일정시기까지는 나이듦을 갈망하고 즐거워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 나이듦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생애주기에 따라 보면, 유년기, 청소년기는 나이듦을 갈망하고, 청년기는 즐거워하며, 장년기는 부담스러워하고 노년기는 두

15) 김명식, 앞의 논문, 2019, 81-99쪽.

려워할 수 있다.

이렇듯 나이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한 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 나이들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점을 고백하고 있으며 실존적 존재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이들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을 맺어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웰에이징 연구는 철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국내 웰에이징 관련 연구 경향은 웰에이징 요소, 웰에이징 요인, 웰에이징 개념에 대한 연구¹⁶⁾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웰에이징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웰에이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으며, 웰에이징 요소와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한 연구이다. 또한 웰에이징 강사가 인식하는 웰에이징이 무엇인지를 통해 웰에이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자 했다. 웰에이징 강사들은 웰에이징을 ‘기본에 충실하고 나이에 걸 맞는 균형적인 삶¹⁷⁾’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들 연구는 웰에이징의 연구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여 연구방법을 설계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나이들과 노년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 연구¹⁸⁾가 있다. 이 연구들은

16) 이종형·강경희·김용하·임효남·구진희·김광환, 앞의 논문, 2021, 354-360쪽.; 김두리·강경희·박아라마·이종형·김광환, 앞의 논문, 190-198쪽.; 박아라마·권은·안상운·김광환, 「유서에 반영된 부정적 요인과 대안으로서의 웰에이징 요소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권 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343-352쪽.

17) 김두리·박윤희·안상운·황혜정·김광환, 「웰에이징 강사가 인식하는 ‘웰에이징’의 미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3권 5호, 2022, 61-67쪽.

18) 김경호, 앞의 논문, 2012, 109-136쪽.; 김명식, 앞의 논문, 2019, 81-99쪽.; 김명식, 「정년제, 연령차별주의, 웰에이징」, 『생명연구』 58권, 서강대학교 생명문

나이듦이란 무엇이며, 노년의 긍정적인 측면의 발견, 그리고 생물학적인 노년의 수용을 통해 기존의 부정적 나이듦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한 인간의 나이듦에 대해 실존적 존재로서의 물음을 제기하면서 삶의 과정으로서 웰에이징의 의미를 접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넷째, 웰에이징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요구도에 대한 연구¹⁹⁾가 있다. 이 연구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웰에이징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여 웰에이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웰에이징 교육요구도는 경제력, 운동, 만성질환 관리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경제력’은 모든 연령대에서, 운동과 만성질환 관리는 중년기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웰에이징 교육 내용에 “경제”적인 부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웰에이징 교육에 있어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웰에이징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요구도에 대한 연구²⁰⁾들이 있다. 웰에이징 건강관리 분야는 전반적인 “만성질환 관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화연연구소, 2020, 25-45쪽.; 정용수, 「나이 들어감(Aging)에 대한 인식적 전환」, 『동서철학연구』 104호, 한국동서철학회, 2022, 287-306쪽.

19) 구진희·임효남·김두리·강경희·김설희 외, 앞의 논문, 2021, 257-269쪽.

20) 임효남·김광환·안상윤·황혜정, 「웰에이징을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교육요구도 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권 6호, 2022, 333-342쪽.; 김설희·김광환·김용하·임효남, 앞의 논문, 2022, 375-383쪽.; 임효남·김용하·이종형·송현동·황혜정·김광환, 「웰에이징을 위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교육요구도 조사」, 『디지털융복합연구』 19권 4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205-215쪽.; 김설희·김두리·안상윤·황혜정·김광환, 「성인의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지식과 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 -웰에이징 구강보건교육안 개발 기초자료 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권 4호, 2021, 263-272쪽.; 김설희·김광환·안상윤, 「웰에이징 구강보건교육 인식과 요구도 연구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4호, 2023, 567-573쪽.

한 “건강증진행위”,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들 논문들은 웰에이징 건강관리 분야에서 만성질환관리, 구강건강,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요구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웰에이징을 위한 생애주기 교육내용에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와 구강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웰에이징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과 활동²¹⁾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용관리”, “회상노래음악치료”, “문화예술참여욕구”, “무용교육” 과 웰에이징의 관련성,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웰에이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취미와 기질 및 성향에 맞는 예술·문화·체육활동 더 나아가 미용관리와 같은 자기관리도 건강관리, 구강관리처럼 웰에이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 구성에 있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사람들의 웰에이징 만족도에 대한 심층적 연구, 교육효과 등에 관한 연구²²⁾들이 있다. 주해원·현명호(2016)는 “수용과 하향비교가 주관적 에이징웰에 미치는 효과”에서 개인의 처한 상황에 대한 수용성과 상향비교보다는 하향비교가 나이들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²³⁾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오민정·정진철(2021)은 「성공적 ‘나이들’에 대한 긍정적 자기인식과 제품 구매결정에 관한 문헌리뷰」에서 나이들에 대

21) 박재영·이명선, 「성인 남성의 미용관리가 웰빙지향 행동과 웰에이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17권 1호, 한국피부과학연구원, 2019, 93-106쪽.; 김종운·조은유, 앞의 논문, 2021, 1355-1371쪽.; 윤지은·오윤선·이소미, 앞의 논문, 2021, 130-142쪽.; 이채원·심해정, 앞의 논문, 2022, 53-63쪽.

22) 김영희·박금숙·진은영, 앞의 논문, 2019, 23-35쪽.

23) 주해원·현명호, 앞의 논문, 2016, 201-209쪽;

한 긍정적 인식은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²⁴⁾결과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연구는 웰에이징은 물리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신 만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 등이 나이듦, 노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영희·박금숙·진은영(2019)의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위한 웰에이징 프로그램의 효과연구”에서 웰에이징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재가 노인에게 근력을 포함한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웰에이징 만족도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웰에이징의 효과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학계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웰에이징 연구들은 웰에이징에 대한 개념, 교육과정 및 교육요구도, 프로그램 효과와 만족도로 요약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된 연구 경향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웰에이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 웰에이징 연구의 전망과 과제

한국 사회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노령인구가 20.3%로 예측되어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24년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 결과에 의하면 여자의 평균수명은²⁵⁾

24) 오민정·정진철, 「성공적 ‘나이듦’에 대한 긍정적 자기인식과 제품 구매결정에 관한 문헌리뷰」, 『상품학연구』 39권 5호, 한국상품학회, 2021, 109-116쪽.

25) 한영혜, “여성 평균수명 첫 90세 돌파…격차 좁혀졌다는 남성은?”, <중앙일보>, 2024.01.07.

90.7세(남자 86.3세)로 조사되었다. 이제 한국인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늘어난 수명만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60세 은퇴 이후 25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앞으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삶의 길이’ 문제보다는 ‘삶의 질’ 특히 노년의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설계되어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나이듦, 즉 웰에이징은 비단 노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학계에서도 웰에이징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와 연구,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웰에이징 관련 연구 경향을 검토했을 때 향후 가장 먼저 요구되는 웰에이징 연구 분야는 ‘정책연구’이다. 웰에이징의 문제는 사적인 개인의 나이듦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라는 국가 차원의 의제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대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검진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연금제도를 마련했다. 학계는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웰에이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웰에이징은 개인이 구성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웰에이징 정책연구 분야는 늘어난 평균수명 연장에 맞는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정년제도, 평생교육, 요양병원(원) 이용문제, 주거문제, 고령화에 따른 간병문제, 독거노인의 장례 등이 있다.

둘째, 웰에이징에 대한 고립적 연구보다는 ‘학제 간의 연구’가 요청된다. 기존의 웰에이징 연구들을 주로 각 학문분야에서 웰에이징의 문제를 접근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각 학문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선행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웰에이징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에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웰에이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철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경영학 등 융합연구가 요청된다. 예를 들어 ‘생애주기’에 따른 웰에이징 실천 방안 주제를 중심으로 철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교육학, 경영학 등이 참여하는 총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총론적인 연구는 웰에이징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분 분야별 연구과제는 예를 들어 관광학 분야에서 웰에이징과 연계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웰니스관광은 의료관광과는 다른 관광동기를 갖고 있다. 의료관광은 치료가 목적인 반면에 웰니스관광은 질병의 예방과 건강유지 및 관리의 목적을 갖고 떠나는 여행이다. 웰니스관광은 여가와 휴식의 관광을 매개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목적을 둔 여행으로 자본주의가 발달 된 서구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권혜윤(2020)의 “뉴실버세대의 필요와 욕구에 기초를 둔 혁신적 웰니스관광 콘텐츠 개발 및 포지셔닝전략 방안 모색”은 뉴실버세대의 관광소비욕구와 동기를 고려한 웰니스관광 콘텐츠 개발연구²⁶⁾라는 점에서 고령화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에 적절한 주제이며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기대하게 한다.

이외에도 철학과 사회학분야에서는 웰에이징 담론, 나이듦 담론과 같은 연구, 심리학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행복관련 요소 및 만족도 연구, 교육학에서는 초·중·고에서 웰에이징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6) 권혜윤, 「뉴실버세대의 필요와 욕구에 기초를 둔 혁신적 웰니스관광 콘텐츠 개발 및 포지셔닝전략 방안 모색」, 『관광경영연구』 98권, 관광경영학회, 2020, 95-117쪽.

셋째, 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복지관, 평생교육원, 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웰에이징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웰에이징이 생애주기에 걸쳐서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라기보다는 노년기에 해당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작용하면서 웰다잉 교육내용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혼합한 ‘짜집기 형태’와 모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웰에이징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증 과정들이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학적인 검증과정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학 및 심리학계 주도의 노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웰에이징은 노년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전반에 걸쳐서 진행되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예로 건양대학교에서는 철학, 문학, 간호학, 보건학, 경영학, 치위생학 등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웰에이징의 이해와 실제”라는 교양과목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넷째, 시민단체와 연계한 학계의 웰에이징 담론 확산과 문화운동이 요구된다. 웰에이징 실천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치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죽음문화와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가 연계하여 화장문화운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993년 19.1%였던 화장률이 2005년에는 50%를 넘어섰고 2023년 11월 기준 92.4%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학계에서 시작된 웰다잉 담론의 연속선상에서 존엄한 죽음문화 정착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8년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해 2023년 6월 기준 184만 여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²⁷⁾ 이러한 선례를 볼 때 학계와 시민단체가 연계하여 웰에이징 담론과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로 등장한 나이들의 문제, ‘웰에이징’에 대한 연구 경향을 고찰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의 평균수명 연장이 기존과는 다른 삶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게 했기 때문이다. 즉 고령화는 ‘삶의 길이’에 집중했던 기존의 삶에서 ‘삶의 질’까지 고민해야 하며, 삶의 질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한 삶의 길이 연장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고통의 시간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본 논문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학계에서 연구되었던 기존의 웰에이징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웰에이징 연구경향은 웰에이징에 대한 개념, 교육과정 및 교육요구도, 프로그램 효과와 만족도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웰에이징 연구과제와 방향으로서는 ‘정책연구’, ‘학제 간의 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민단체와 연계한 웰에이징 담론 확산과 문화운동’, ‘웰니스관광’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연구분야는 웰에이징에 대한 정책연구라고 생각한다. 현대국가는 자국의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웰에이징은 한 개인의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이들의 문제이며, 나이들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으로서 경제적인 문제와 총체적으로 연계

27) 이와 관련된 논의는 송현동, 「한국 죽음문화의 변화와 그 의미-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1호,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8, 161-185쪽. 참조.

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불편하고 금기했던 웰다잉,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공개적으로 언론, 평생교육기관 및 복지관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급기야 미미하지만 안락사 문제에 대한 담론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고령화는 이전과는 다른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물음을 던지게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웰에이징에 대한 학계의 연구 경향을 토대로 그동안 미진했던 새로운 웰에이징 연구분야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학계의 다양한 웰에이징 관련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 맞는 웰에이징 문화형성에 학문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문헌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어서 향후 웰에이징 관련 교육기관 및 담당자, 의료기관 및 담당자,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 강요한, 「100세 시대 웰에이징에 필요한 종말론적 신앙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구진희·임효남·김두리·강경희·김설희 외, 「웰에이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성인 생애주기별 교육 요구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권 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257-269쪽.
- 권해운, 「뉴실버세대의 필요와 욕구에 기초를 둔 혁신적 웰니스관광 콘텐츠 개발 및 포지셔닝전략 방안 모색」, 『관광경영연구』 98권, 관광경영학회, 2020, 95-117쪽.
- 김경호, 「웰에이징: 노년의 삶에 대한 여현 장현광의 성찰」, 『동양고전연구』 49호, 동양고전학회, 2012, 109-136쪽.
- 김명식, 「웰에이징과 나이위계」, 『생명연구』 51권,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9, 81-99쪽.
- 김남희, 「문화예술교육 참여 노인의 여가몰입,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우울 및 웰에이징 간의 구조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김두리·강경희·박아르마·이종형·김광환, 「국내 웰에이징 연구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권 3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190-198쪽.
- 김두리·박윤희·안상윤·황혜정·김광환, 「웰에이징 강사가 인식하는 ‘웰에이징’ 의미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3권 5호, 한국융합학회, 2022, 61-67쪽.
- 김명식, 「정년제, 연령차별주의, 웰에이징」, 『생명연구』 58권,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20, 25-45쪽.
- 김설희·김광환·김용하·임효남, 「웰에이징을 위한 노인 구강건강과 삶의 질 및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권 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375-383쪽.

- 김설희·김광환·안상윤, 「웰에이징 구강보건교육 인식과 요구도 연구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4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567-573쪽.
- 김설희·김두리·안상윤·황혜정·김광환, 「성인의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지식과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웰에이징 구강보건교육안 개발 기초자료 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권 4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263-272쪽.
- 김성호, 「고령사회 속 기독교 노인복지의 화두-“안티 에이징과 웰 에이징”을 대하는 기독교 윤리적 시선」, 『기독교사회윤리』 43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9, 9-37쪽.
- 김영희·박금숙·진은영,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위한 웰에이징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간호연구학회지』 3권 4호, 한국간호연구학회, 2019, 23-35쪽.
- 김종운·조은유, 「회상 노래 음악치료가 노인의 웰에이징과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1355-1371쪽.
- 박아르마·권온·안상윤·김광환, 「유서에 반영된 부정적 요인과 대안으로서의 웰에이징 요소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권 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343-352쪽.
- 박재영·이명선, 「성인 남성의 미용관리가 웰빙지향 행동과 웰에이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뷰티화장품학술지』 17권 1호, 한국피부과학연구원, 2019, 93-106쪽.
- 백청강·김광환·구진희,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510-519쪽.
- 송현동, 「한국 죽음문화의 변화와 그 의미-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1,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8, 161-185쪽.
- 송현동·김두리·장경희·김광환, 「웰에이징 전문가의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인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538-546쪽.

양지현, 「웰에이징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정보 디자인 연구: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 사인시스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연분홍, 「액티브시니어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촉진, 자아실현 및 웰에이징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7권 2호(통권 제99호),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2023, 55-66쪽.

염주희·김두리·김광환·장경희, 「노인일자리 사업과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 웰에이징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4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205-218쪽.

오민정·정진철, 「성공적 '나이듦'에 대한 긍정적 자기인식과 제품 구매결정에 관한 문헌리뷰」, 『상품학연구』 39권 5호, 한국상품학회, 2021, 109-116쪽.

오은아, 「중년기 노화불안과 웰에이징의 관계 모형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1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345-363쪽.

윤지은·오윤선·이소미, 「포스트 코로나, 노년기 '웰에이징 무용교육'의 방향성 탐색」, 『한국융합과학회지』 10권 4호, 한국융합과학회, 2021, 130-142쪽.

윤혜진, 「한국 노인의 여가 및 에이징 웰(aging well)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28권 7호, 한국관광레저학회, 2016, 201-221쪽.

이종형·강경희·김용하·임효남·구진희 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웰에이징 요인에 관한 연구: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권 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354-360쪽.

이채원·심해정, 「문화예술참여욕구가 여가열의 및 웰에이징에 미치는 영향-액티브시니어 대상으로-」, 『조형미디어학』 25권 3호,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22, 53-63쪽.

임효남·김광환·안상윤·황혜정, 「웰에이징을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교육요구도 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권 6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333-342쪽.

임효남·김용하·이종형·송현동·황혜정·김광환, 「웰에이징을 위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교육요구도 조사」, 『디지털융복합연구』 19권 4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205-215쪽.

장병주, 「웰빙지향행동, 웰에이징, 여가태도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관광기업 이용객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4권 2호, 동북아관광학회, 2018, 23-47쪽

정용수, 「나이 들어감(Aging)에 대한 인식적 전환」, 『동서철학연구』 104호, 한국동서철학회, 2022, 287-306쪽.

주해원·현명호, 「수용과 하향비교가 주관적 에이징 웰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研究』 24권 3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16, 201-209쪽.

홍지웅·주해원, 「주관적 에이징웰 척도의 타당화」, 『디지털융복합연구』 19권 11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415-424쪽.

황혜정·박아르마·김광환, 「노인의 의미 있는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연구: 웰에이징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7권 3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641-673쪽.

기사

한영혜, “여성 평균수명 첫 90세 돌파…격차 좁혀졌다는 남성은?”, <중앙일보>, 2024.01.07.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웰에이징에 대한 연구 경향을 고찰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노년기의 가난과 고독,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학계에서 연구되었던 기존의 웰에이징 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웰에이징 연구 경향은 웰에이징에 대한 개념, 교육과정 및 교육요구도, 프로그램 효과와 만족도로 구분될 수 있다.

향후 웰에이징 연구 과제는 정책연구, 학제 간의 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민단체와 연계한 웰에이징 담론 확산과 문화운동, 웰니스관광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 현실에 맞는 웰에이징 문화형성에 학문적인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웰에이징, 웰에이징 교육, 학제간 연구, 실존적 존재, 생애주기

■ Abstract

Well-Aging Research Trends and Tasks

Song, Hyeon Dong·Kim, Kwang Hwan·Kim, Moon Joon·Park, Arma
/ Konyang University·Konyang University
·Konyang University·Ko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trends in research on well-aging and suggest new research directions. This is because Korea's entry into an aging society has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meaning and value of life for individuals, and Koreans are faced with the challenges of solving problems such as poverty, loneliness, and illness in old age.

To fulfill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reviews the existing well-aging research in academia. The existing well-aging research trends can be categorized into the concept of well-aging, curriculum and training needs, and program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Future well-aging research tasks include policy research, interdisciplinary research,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spreading well-aging discourse in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ultural movements, and wellness tour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n academic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a well-aging culture that fits the Korean reality.

Keyword • Well-aging, well-aging educati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existential existence, life cycle.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배아 독성 및 항염 효능 평가

박유진·김보애*

목 차

1. 서론
2. 연구방법
3. 결과 및 고찰
4. 맺음말

1. 서론

피부는 체내 수분을 보유하고 신체의 외부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기관으로 성인에서는 체중의 약 16%를 차지하며,¹⁾ 자외선에 의한 물리적 손상과 미생물과 같은 외부 침입 인자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장벽기능을 수행²⁾ 하는 대표적인 장기이다. 더불어 촉각, 압각, 통각, 온도에 대한 수용기의 역할을

* 박유진(제1저자)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과 화장품전공 석사수로
김보애(교신저자) 목원대학교 화장품공학과 조교수

- 1) G. J. Tortora·B. H. Derrickson, "Principles of Anatomy and Physiology", Wiley, 2008.
- 2) H. J. Kim·S. K. Jeong, "New in trends skin barrier research", *J. Skin Barrier Res*, vol 14, no. 1, 2012, pp.15-28.

한다.³⁾ 표피층은 인체 조직 중에서도 끊임없이 표피세포의 형성, 분화 및 탈각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표피의 항상성을 유지한다.⁴⁾ 표피의 주요 구성 세포로 각질형성세포는 피부의 최외각층으로 이동하면서 세포 분열과정을 통해 피부 장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⁵⁾ 비정상적인 각질형성세포의 분화가 일어나면 피부 장벽에 결함이 생기게 되고⁶⁾ 이는 건조한 피부를 유발시켜 만성 피부질환의 원인이 된다.⁷⁾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소양감과 습진성 피부병변을 나타내는 만성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이며,⁸⁾ 가장 큰 원인으로는 면역학적 이상, 피부 장벽기능의 이상,⁹⁾ 유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⁰⁾ 본 연구에서는 소루쟁이 뿌리(*Rumex crispus L.*)를 이용하여 배아 독성 및 항염 효능을 평가하였다. 소루쟁이는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마디풀과의 *Rumex* 속 식물이며 여러해살이 풀로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린 소루쟁이를 식용으로 사용하며, 한의약에서는 양제(羊蹄)라 하

- 3) H. S. Jeong·C. J. Yeon·J. S. Lee, "The expression of human beta defensins by thermal injury", *Journal of Korean Burn Society*, 2012, pp.39-44.
- 4) J. K. Youm, "Basic concept of skin barrier", *J. Skin Barrier Res*, vol. 15, no. 1, 2013, pp.41-47.
- 5) H. J. Kim·J. U. Shin·K. H. Lee, "Atopic dermatitis and skin barrier dysfunction",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vol. 1, 2013, pp.20-28.
- 6) Y. B. Kwon·D. K. Choi·K. C. Son·E. K. Jeon·M. S. Nam·J. H. Lee·C. D. Kim, "Effects of Colostrum on Keratinocyte Differentiation and Wound Healing", *Korean J Dermatol*, vol. 14, no. 2, 2007, pp.45-50.
- 7) S. C. Lee, "Skin barrier and epidermal differentiation", *J. Skin Barrier Res*, vol. 6, no. 1, 2004, pp.69-77.
- 8) K. M. Gil·H. A. Sampson,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of atopic dermatitis", *Allergy*, vol. 44, no. 9, 1989, pp.84-89.
- 9) P. M. Elias·L. C. Wood·K. R. Feingold, "Epidermal pathogenesis of inflammatory dermatoses", *Am J Contact Dermatol*, vol. 10, no. 3, 1999, pp.119-126.
- 10) J. A. McGrath, "Filaggrin and the great epidermal barrier grief", *Australas J Dermatol*, vol. 49, no. 2, 2008, pp.73-74.

고 방광염, 담낭 관련 질병, 담즙의 분비장애, 비장 질환, 피부병 등을 비롯해 여러 종양이나 암의 대한 보조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소루쟁이 뿌리는 한방에서 양제근(羊蹄根), 우이대황(牛耳大黃) 이라 하고, 대변조결(大便燥結), 황달(黃疸), 토혈(吐血), 기능성 자궁출혈(機能性 子宮出血), 개선(疥癬) 등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잘 알려진 주요성분으로는 탄닌,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등 안트라퀴논(anthraquinone)의 유도체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¹¹⁾¹²⁾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루쟁이에 함유된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에 항균 활성, 항산화 활성, 항염증 활성, 진통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70%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을 제조했다는 점은 다른 선행 연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실험동물 대체 모델로 각광 받는 Zebrafish를 이용하여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Zebrafish 배아의 발생 독성 및 치어의 심장 독성을 확인하였고, LPS로 염증을 유도한 RAW264.7세포를 이용하여 항염 효능을 평가하였다.

Zebrafish의 학명은 *Danio rerio*로 얼룩말과 같은 무늬를 가진 담수어로 관상어로 애용되었으나 1970년대에 쥐, 토끼와 같은 타 척추동물보다 단순하고 유전학적으로 조작이 쉬운 척추동물모델을 찾던 연구원에 의해 현재까지 대체실험동물모델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동물

-
- 11) D. K. Kim·S. U. Choi·S. Y. Ryu·K. R. Lee·O. P. Zee, "Cytotoxic Constituents of *Rumex japonicus*", *Yakhak Hoeji*, vol. 42, no. 3, 1998, pp.233-237.
 - 12) J. A. Park·M. O Choi, "Antimicrobial Activity and Anti-inflammation Effect to the Human Skin Pathogens by the *Rumex crispus* L. Root Extracts", *The Korean Society for Aesthetics and Cosmetology*, vol. 9, no. 2, 2011, pp.9-16.
 - 13) J. C. Kim·G. J. Choi·S. W. Lee·J. S. Kim·K. Y. Chung·K. Y. Cho, "Screening extracts of *Achyranthes japonica* and *Rumex crispus* for activity against various plant pathogenic fungi and control of powdery mildew", *Pest Management science*, vol. 60, no. 8, 2004, pp.803-808.

모델에 비해 짧은 실험 시간과¹⁴⁾ 포유류를 이용한 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 Zebrafish는 시중에서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성체의 크기가 약 3~4cm으로 크기가 작아 대량 사육이 가능하다.¹⁵⁾ 수정 후의 배아는 투명하여 내부기관의 발생과 구조를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발생이 매우 빨라 28.5°C에서 수정란은 약 24시간 후 물고기의 형태로 발생하고 생후 3개월부터 번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¹⁶⁾ 또한, Zebrafish는 인간의 순환계, 감각계 및 신경계 등 여러 기관 형성 과정이 매우 유사하고 Zebrafish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자와 약 70% 정도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¹⁷⁾ 피부와 아가미를 통해 약물 침투 효율이 빠르며¹⁸⁾ 복잡한 실험 과정 없이 배아에서부터 세포분열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빠른 실험이 가능하다.¹⁹⁾ 본 연구에서는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을 이용한 항염 평가와 세포 독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
- 14) T. Y. Choi·T. I. Choi·Y. R. Lee·S. K. Choe·C. H. Kim, “Zebrafish as an animal model for biomedical research”,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s*, vol. 53, 2021, pp.310-317.
 - 15) C. B. Kimmel·W. W. Ballard·S. R. Kimmel·B. Ullmann·T. F. Schilling, “Stages of embryonic development of the zebrafish”, *Dev Dyn*, vol. 203, no. 3, 1995, pp.253-310.
 - 16) J. H. Cho·S. Y. Kim, “Exploration on Possibility of Zebrafish based Inquiry Module related to Reproduction, Development, and Circulation”, *The Korean Society of Biology Education*, vol. 41, no. 3, 2013, pp.392-405.
 - 17) C. H. Williams·C. Hong, “Multi-step usage of in vivo models during rational drug design and discovery”,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vo. 12, 2011, pp.2262-2274.
 - 18) R. L. Bailone·H. C. S. Fukushima·B. H. V. Fernandes·L. K. Aguiar·T. Corrêa·H. Janke. P. G. Setti·R. D. O. Roça·R. C. Borra, “Zebrafish as an alternative animal model in human and animal vaccination research”, *Laboratory Animal Researchs*, vol. 36, no. 13, 2020, pp.33-35.
 - 19) D.W. Logan·S. F. Burn·I. J. Jackson, “Regulation of pigmentation in zebrafish melanophores”, *Pigment Cell Res*, vol. 19, 2006, pp.206-213.

2. 연구방법

1)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은 2022년 10월~11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채취하여 건조한 것으로 천지가 약초(서울, 대한민국)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소루쟁이 뿌리 300g을 불순물을 제거한 후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중량의 10배에 해당하는 70% Ethanol을 첨가하고 50°C에서 4시간 추출하였다. 추출 후 3회 감압 필터 한 뒤 50°C에서 감압 회전 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하였으며, 최종 수율은 28.95%로 -70°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세포 독성 평가

(1) RAW 264.7 cell MTT assay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RAW 264.7 cell 세포 생존을 측정은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10^5 cells/well 개수로 96-well plate에 분주하고 37°C, 5% CO₂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추가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FBS가 함유되지 않은 배지를 200 μ L 분주하였다. 시료를 각 well에 0.0625, 0.125, 0.25, 0.5, 1.0 mg/mL 농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추가 배양하였다. 세포에 MTT solution (0.5 mg/mL)을 20 μ L 처리하여 4시간 동안 37°C, 5% CO₂ incubator에서 추가 배양하였다. 추가 배양이 끝난 세포의 MTT solution을 제거하고 DMSO 150 μ L를 처리하여 3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이후 Micro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LPS로 유도된 RAW 264.7 cell의 NO 저해 평가 실험

RAW 264.7 cell의 LPS로 유도된 NO 저해 평가 실험은 1×10^4 cells/well 개수로 96-well plate에 분주하여 37°C, 5% CO₂ incubator에서 24시간 배

양하였다. 이후, 배양 배지를 제거한 후 PBS로 세척하였다. 20 μ g/mL로 제조한 LPS를 각 well 당 100 μ L씩 분주하여 2시간 동안 배양한다. 이후, 시료를 각 well에 0.0625, 0.125, 0.25, 0.5, 1.0 mg/mL 농도로 100 μ L씩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추가 배양하였다. 추가 배양이 완료된 cell의 상등액을 새로운 96-well plate에 100 μ L씩 분주하고, griess reagent를 100 μ L씩 가하였다. 차광 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으며, 540nm에서 Micro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LPS로 유도된 RAW 264.7 cell의 iNOS, COX-2 발현 실험

RAW 264.7 cell의 LPS로 유도된 iNOS와 COX-2의 발현을 평가하기 위하여 96-well plate에 RAW 264.7 세포를 1×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37°C, 5% CO₂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배양 배지를 제거한 후 시료를 각 well에 0.0625, 0.125, 0.25, 0.5, 1.0 mg/mL 농도별로 30분 동안 전처리해준 후 LPS의 최종농도가 2 μ g/mL이 되도록 분주 후 24시간 동안 배양해준다. 배양 배지를 제거한 후 PBS로 세척하였다. 그 후 세포를 수거하여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lysis buffer 200 μ L에 세포를 용출시킨 후 얻은 단백질을 4°C, 12,000rpm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Bradford assay로 정량하였다. 10%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이용하여 10 μ L양의 단백질을 전기영동 해준 후, 항체의 비특이적 결합을 억제하기 위해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Sigma-Aldrich Co.)에 옮겨준 후 Transfer 하였다. 5% skim milk에 1~2시간 방치 후 Background를 제거하였다. 1차 antibody를 1:1,000 비율로 희석하고 4°C에서 overnight 해준 후 TBST (Tris-buffered saline plus 0.1% Tween-20)로 30분간 교반 및 세척을 3회 반복하였다. 2차 antibody도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시킨 후 ECL kit

(Enhanced chemiluminescent kit, Amersham Pharmacia, England)를 사용하여 LAS-4000 (GE life sciences, Taiwan) 기기를 이용하여 밴드를 확인 및 정량하였다.

3) Zebrafish 배아 및 치어 독성평가

(1) Zebrafish 배아 발생 독성평가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발생 독성평가는 24-well plate에 6 hpf (Hours-Post-Fertilization) 배아를 10개씩 분주하고 추출물을 각 농도 0.001, 0.05, 0.1, 0.5, 1, 2, 4 mg/mL로 Embryo media에 용해하여 각 Well 당 2 mL씩 처리하고 $28 \pm 0.5^\circ\text{C}$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Embryo media는 정제수 1L에 Sea salt 30g을 용해한 stock salt solution 33.33mL을 정제수 1L에 희석하여 제조하였다. 시료는 24시간 주기로 교체하였으며 72시간 동안 응고울과 부화율을 Leica microscope (Wetzlar,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Zebrafish 치어 심장 독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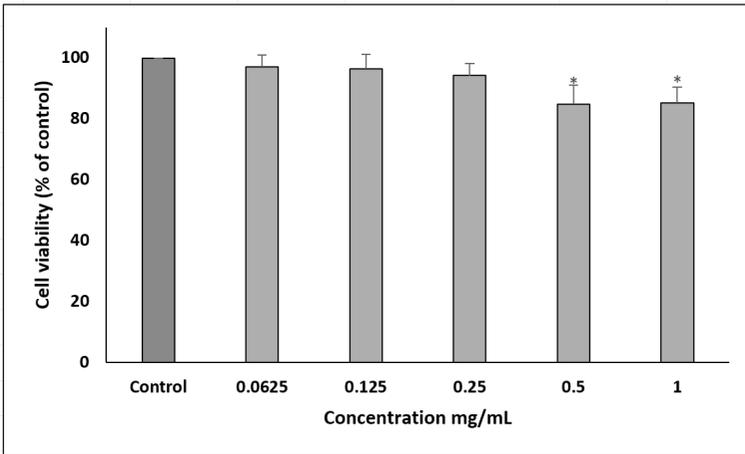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심장 독성평가는 앞서 진행한 발생 독성평가를 이어서 부화한 72 hpf 치어를 24-well plate에 각 Well 당 5개씩 분주하였다. 치어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Tricaine을 처리하여 마취시켰다. 마취된 치어는 embryo media를 이용하여 2mL씩 2회 세척하고 1분간 Zebrafish 치어의 심장박동수를 Leica microscope를 이용하여 측정 및 계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세포 독성평가 결과

(1) RAW 264.7 세포의 독성평가 결과

MTT assay는 탈수소 효소작용에 의한 수용성 기질인 노란색 MTT Tetrazolium을 비수용성의 청자색 MTT formazan으로 환원시켜 살아있는 세포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세포 독성 평가 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²⁰⁾ 본 연구에서는 수컷 쥐에서 유래한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의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0.0625, 0.125, 0.25, 0.5, 1.0 mg/mL 농도에서 각각 97.18, 96.43, 94.18, 84.79, 85.17%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고 0.5 mg/mL 이하 농도에서는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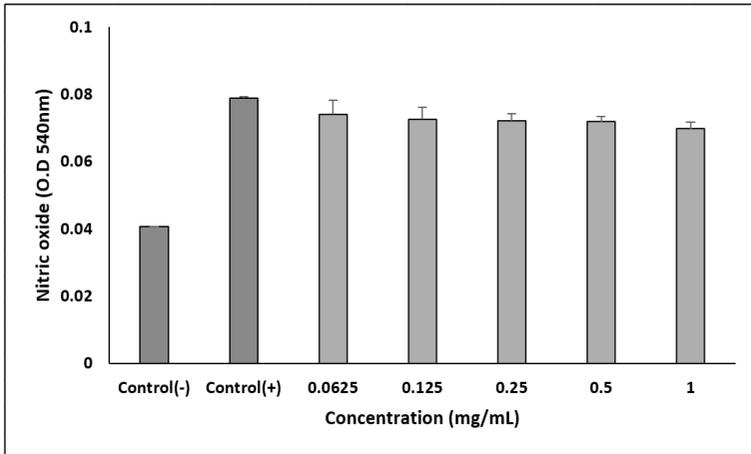
[그림 1] RAW 264.7 cells viability after post-treatment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umex crispus L.* root extract. Data are shown as the mean \pm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duplicate (* : $p < 0.05$)

(2) RAW 264.7 세포의 NO 저해 평가 결과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LPS로 유도된 RAW 264.7 cell의 NO 저해 평

20) J. H. Kim·J. I. Hong, “Effects of various lights, solvents, and zinc protoporphyrin on the chemical behavior of MTT formazan”, *Korean J Food SCL Technol*, vol. 50, no. 1, 2018, pp.1-7.

가를 시행한 결과 LPS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흡광도는 0.046으로 나타났고, LPS를 처리한 대조군의 경우 0.078로 나타났다.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농도를 0.0625, 0.125, 0.25, 0.5, 1 mg/mL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각각 0.074, 0.073, 0.072, 0.071, 0.069로 확인되었다.[그림 2] 이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6.09, 7.36, 8.63, 9.9, 12.44%의 NO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사용된 LPS(Lipopolysaccharides from *Escherichia coli*)는 RAW264.7 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항염 실험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 LPS는 세포에 각종 염증 매개인자인 COX-2(Cyclooxygenase-2), iNOS(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NO(Nitric oxide), IL(Interleukin) 등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도 NO 저해 평가 후 COX-2와 iNOS 발현을 측정하였으며, 항염 효능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림 2] NO levels were measured absorbance by post-treatment *Rumex crispus L.* root extract and LPS for 24 hours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taking the supernatant and mixing it with griess reagent. Data are shown as the mean \pm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duplicate

(3) RAW 264.7 세포의 iNOS, COX-2 저해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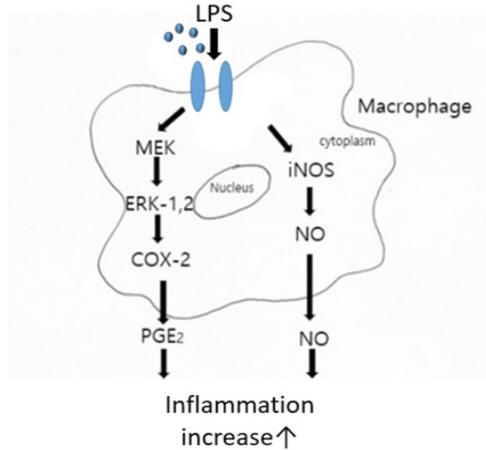
iNOS와 COX-2 단백질의 발현을 평가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LPS에 의해 iNOS 및 COX-2 단백질의 발현 수준이 강하게 유도되었으며,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은 LPS에 의해 유도된 iNOS 및 COX-2 단백질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LPS에 의해 유도된 iNOS 단백질 발현은 추출물 0.5, 0.1 mg/mL에서 각각 44% 및 47% 감소 되었다. LPS에 의해 유도된 COX-2 단백질 발현은 LPS 단독 처리군과 비교하여 추출물 0.5, 0.1 mg/mL에서 각각 43%, 44% 감소했다. 일반적인 NO의 형성은 체내의 박테리아를 사멸하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염증 상태에서 iNOS에 의해 과잉 생산된 NO는 혈관 투과성, 부종과 같은 염증 반응을 촉진해 COX-2와 같은 염증 매개체의 생합성을 촉진하여 염증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Histamine, serotonin 등과 같은 물질로 인해 유발된 염증으로 인해 NO가 형성된다. NO는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를 사멸시키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염증 상태에서 iNOS에 의해 과잉 생성된 NO는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거나 염증 매개체의 생성을 촉진시킨다.²²⁾²³⁾ NO, iNOS와 밀접하게 염증과 관련된 COX-2 또한 세포 내에서 신호전달 물질을 통

21) P. Nemtsas·E. Wettwer·T. Christ·G. Weidinger·U. Ravens, "Adult zebrafish heart as a model for human heart? An electrophysiological study", *Journal of Molecular and Cellular Cardiology*, vol. 48, no. 1, 2010, pp.161-171.

22) Shih MF·Cheng YD·Shen CR·Cherng JY, "Amolecular pharmacology study into the anti-inflammatory actions of *Euphorbia hirta* L. on the LPS-induced RAW 264.7 cells through selective iNOS protein inhibition", *J Nat Med*, vol. 64, 2010, pp.330-335.

23) Tsatsanis C·Androulidaki A·Venihaki M·Margioris AN, "Signalling networks regulating cyclooxygenase-2", *Int J Biochem Cell Biol*, vol. 38, 2006, pp.1654-1661.

해 염증 관련 인자를 촉진 시킨다.²⁴⁾ 이러한 결과는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이 염증 인자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항염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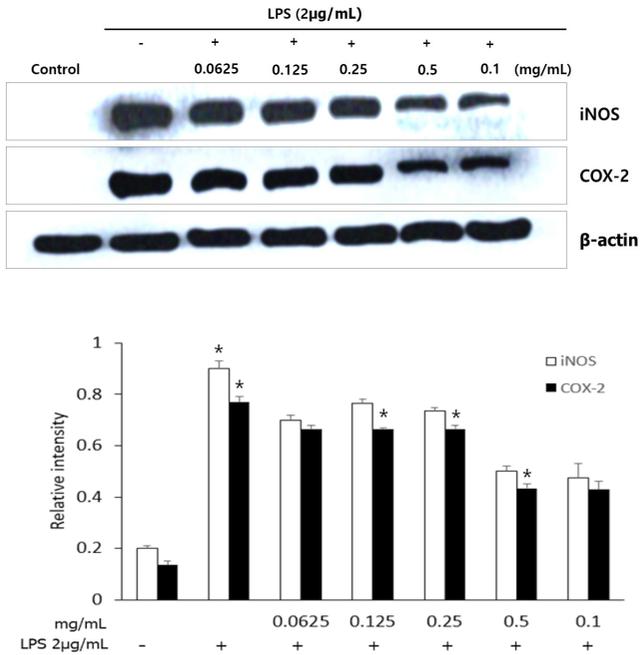


[그림 3] Intracellular inflammation signaling induced by LPS leading to induction of COX-2, iNOS in RAW264.7 cells. (Schematic diagram modified from the paper in particle and fiber toxicology(2012)).

이러한 염증 과정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 시키고, 질환과 퇴행성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염증 매개 인자들의 발현을 조절하여 염증 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천연물 소재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²⁵⁾

24) Lee, J.K.; Sayers, B.C.; Chun, K.S. et al,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induce COX-2 and iNOS expression via MAP Kinase-dependent and -independent mechanisms in mouse RAW264.7 macrophages”, *Part Fibre Toxicol.*, vol. 9, no. 14, 2012.

25) S. Sarmah; J. A. Marrs, “Zebrafish as a Vertebrate Model System to Evaluate Effects of Environmental Toxicants on Cardiac Development and Function”, *Int. J. Mol. Sci.*, vol. 17, no. 12, 2016, pp.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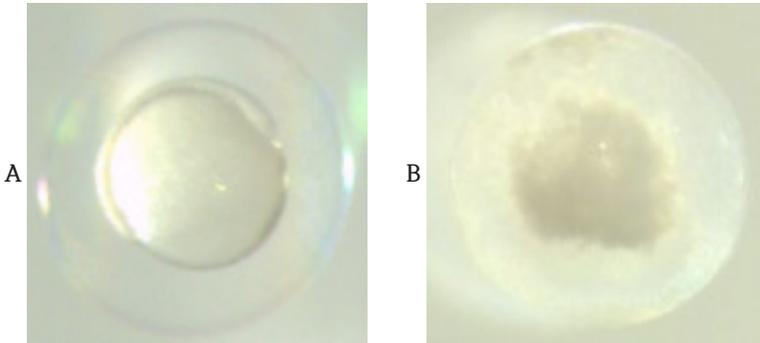
[그림 4] Effects of *Rumex crispus L.* root extract on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0.0625, 0.125, 0.25, 0.5, 0.1 mg/ml) of extract and stimulated with 2 µg/ml. Total cellular proteins were resolved by SDS-PAGE, then transferred to PVDF membrane and detected by Western blot analysis. Quantification of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 was normalized to β-actin using a densitometer. (* : p < 0.05).

2) Zebrafish 배아 및 치어 독성

(1) 배아 발생 독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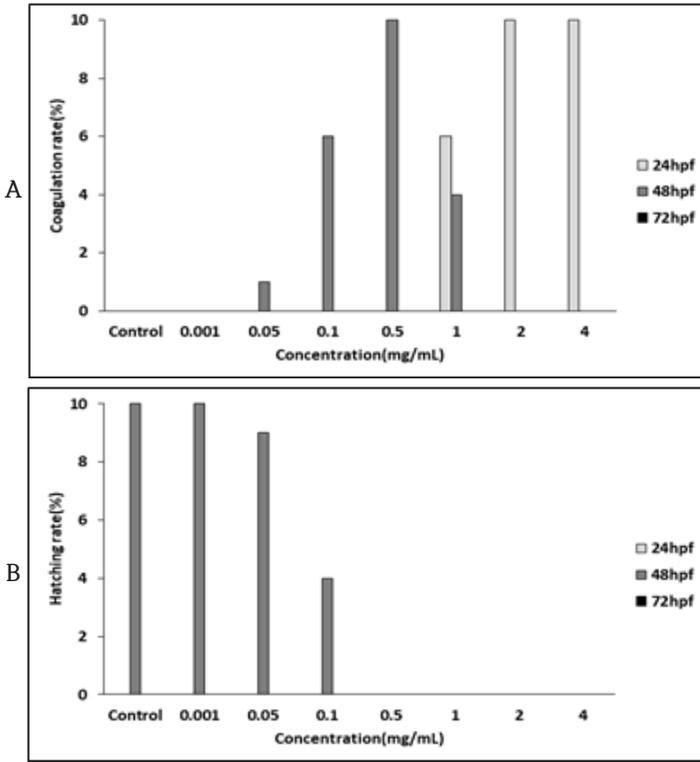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배아 발생 독성평가는 OECD Guideline을 근거하여 Zebrafish 배아를 대상으로 급성독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0.001, 0.05, 0.1, 0.5, 1.0, 2.0, 4.0 mg/mL 농도의 추출물을 Zebrafish 배아에 처리하여 응고율과 부화율을 관찰하였다. 응고의 기준은 [그림 5]와 같다. 독

성평가 결과 배아의 응고율은 0.5-4.0 mg/mL 농도에서는 100% 응고율을 보였으며 0.1, 0.05 mg/mL 에서는 각 60%, 10%, 0.001 mg/mL과 대조군에서는 응고되지 않았다[그림 6-(A)]. 또한 배아의 부화율은 0.1 mg/mL 에서 40%, 0.05 mg/mL에서 90%, 0.001 mg/mL과 대조군에서는 100%의 부화율이 관찰되었다[그림 6-(B)]. 일반적인 Zebrafish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발생 독성 평가에서 꼬리의 기형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0.05 mg/mL 과 0.1 mg/mL에서 요크(Yolk)의 부종이 관찰되어 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그림 8]. 여기에서 응고율(coagulation rate)이란, [그림 5-A]와 같이 투명한 상태가 아닌 [그림 5-B]와 같이 탁한 색으로 확인되면 추출물에 독성이 있어 배아의 응고가 일어나 세포분열이 정지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을 뜻하며 응고율이 낮아야 배아에 대한 독성이 없는 것을 뜻한다. 부화율(hatching rate)이란 배아 상태에서 48시간이 지나면 배아에서 치어가 부화하는데 치어가 응고되지 않더라도 추출물의 독성에 영향을 받으면 Yolk의 부종, 눈 크기의 변화, 꼬리의 휘어짐 등 기형이 나타날 수 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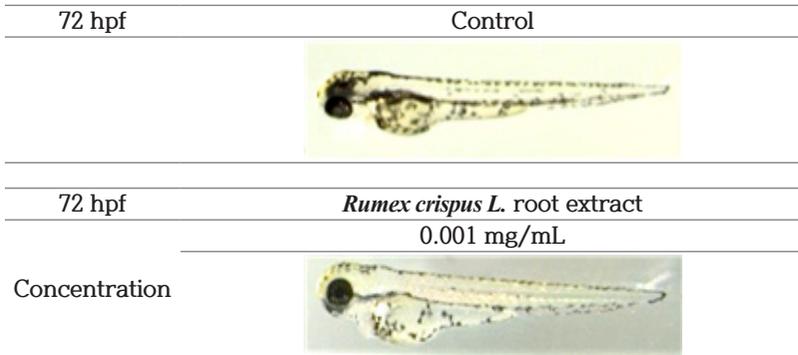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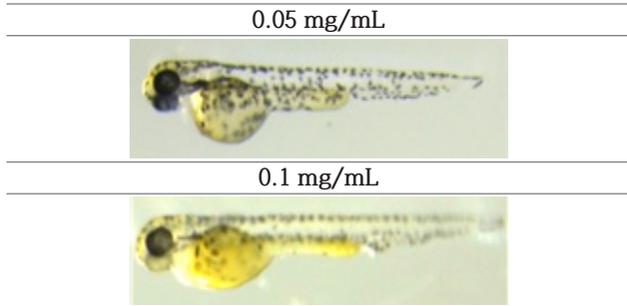
[그림 5] The photograph of normal zebrafish embryo(A) and zebrafish embryo coagulation(B)

26) B. A. Kim, “Application of an animal alternative test model to evaluate the effect of blocking of blue light : Focused focusing on the zebrafish model”, *Knowledge&Liberal arts*, vol. 12, 2023, pp.229-246.



[그림 6] Coagulation rate: A, Hatching rate: B were measured in order to measure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umex crispus L.* root extract toxicity at zebrafish. Data are shown as the mean \pm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duplicate.





[그림 7] Morphology of zebrafish larvae when treated with *Rumex crispus* L. root extract 0.001~0.1 mg/mL. As the concentration of the extract increased, the yolk swelled and the eyes shrank. Representative images of developmental malformations in zebrafish larvae at 72 h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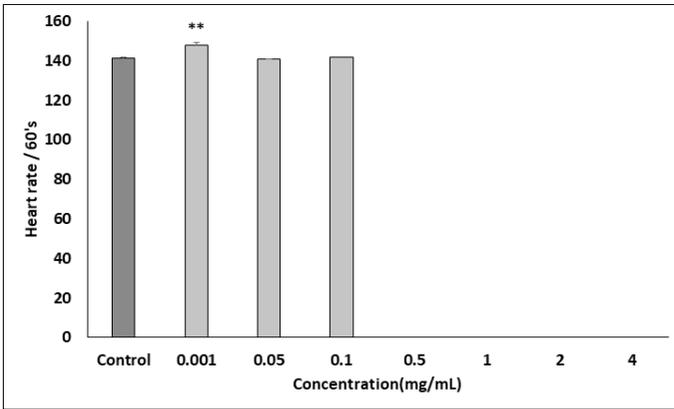
(1) 치어 심장 독성평가 결과

Zebrafish는 발생 24시간 만에 심장과 혈관이 형성되어 심장 박동과 혈액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Zebrafish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전기적 자극이 동일한 양상을 나타낸다.²⁷⁾ 심장 독성평가를 진행한 72 hpf 치어에 Tricaine을 처리하여 마취시킨 후 60초간 Zebrafish 치어의 심장박동수를 측정하였다.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0.001, 0.05, 0.1, 0.5, 1.0, 2.0, 4.0 mg/mL 농도별 심장박동수는 각각 148.0, 140.8, 141.6 회/60's이며 1.0~4.0 mg/mL의 농도에서는 모두 응고되어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141.2 회/60's로 심박수의 변화가 크지 않은 정상 범위이다[그림 8]. Zebrafish의 심장에 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심장박동수가 느려질수록 독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때²⁸⁾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 0.1 mg/mL 농도 이하부터는 Zebrafish의 심장 박동수에 영향을 끼

27) K. M. Yoo·D. O. Kim·C. Y. Lee, "Evaluation of different methods of antioxidant measurement", *Food Sci Biotechnol*, vol. 16, no. 2, 2007, pp.177-182.

28) I. G. Munteanu·C. Apetrei, "Analytical Methods Used in Determining Antioxidant Activity: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vol. 22, no. 7, 2021, p.3380.

치지 않기에 독성 또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Zebrafish larvae measured their heart rate for 60 Seconds under a microscop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Rumex crispus L.* root extract is toxic in a slight (** : $p < 0.01$).

4. 맺음말

본 연구는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독성 및 항염 효능을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in vitro*, *in vivo* 실험을 수행하였다.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컷 쥐 유래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와 Zebrafish 배아를 이용한 독성을 평가하였다. 세포 독성 실험 결과 MTT assay 에서 RAW 264.7 세포는 0.25 mg/mL농도 이하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LPS로 염증 반응을 활성화 시킨 후 NO 생성을 확인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NO를 저해하는 것을 나타내었고, 이와 밀접한 염증 매개 인자인 iNOS, COX-2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ebrafish 배아에서는 0.001 mg/mL농도 이하에서 심장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번 실험을 통해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를 결정할 수 있었

으며 다양한 염증인자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의 항염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화장품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연구는 안전성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포실험 또는 첩포실험을 통해 독성이 없는 농도를 결정한다. 그러나 세포와 인체의 중간단계인 전임상 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Zebrafish는 실험 동물 대체 모델로써 전임상 단계의 스크리닝 실험에 매우 적합하다. Zebrafish의 배아부터 치어의 부화까지 세포분열 과정을 직접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어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에 대한 독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간의 유전자와 매우 비슷해 배아 및 치어의 독성평가 결과 전임상 단계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천연 소재인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을 활용함으로써 염증 완화를 통한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화장품 천연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B. A. Kim, “Application of an animal alternative test model to evaluate the effect of blocking of blue light: Focused focusing on the zebrafish model”, *Knowledge&Liberal arts*, vol. 12, 2023, pp.229-246.
- C. B. Kimmel·W. W. Ballard·S. R. Kimmel·B. Ullmann·T. F. Schilling, “Stages of embryonic development of the zebrafish”, *Dev Dyn*. vol. 203, no. 3, 1995, pp.253-310.
- C. H. Williams·C. Hong, “Multi-step usage of in vivo models during rational drug design and discovery”,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vol. 12, 2011, pp.2262-2274.
- D. K. Kim·S. U. Choi·S. Y. Ryu·K. R. Lee·O. P. Zee, “Cytotoxic Constituents of *Rumex japonicus*”, *Yakhak Hoeji*, vol. 42, no. 3, 1998, pp.233-237.
- D. W. Logan·S. F. Burn·I. J. Jackson, “Regulation of pigmentation in zebrafish melanophores”, *Pigment Cell Res*, vol. 19, 2006, pp.206–213.
- G. J. Tortora·B. H. Derrickson, “Principles of Anatomy and Physiology”, *Wiley*, 2008.
- H. J. Kim·J. U. Shin·K. H. Lee, “Atopic dermatitis and skin barrier dysfunction”,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vol. 1, 2013, pp.20-28.
- H. J. Kim·S. K. Jeong, “New in trends skin barrier research”, *J. Skin Barrier Res*, vol. 14, no. 1, 2012, pp.15-28.
- H. S. Jeong·C. J. Yeon·J. S. Lee, “The expression of human beta defensins by thermal injury” *Journal of Korean Burn Society*, 2012. pp.39-44.
- I. G. Munteanu·C. Apetrei, “Analytical Methods Used in Determining

- Antioxidant Activity: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vol. 22, no. 7, 2021, pp.3380.
- J. A. McGrath, “Filaggrin and the great epidermal barrier grief”, *Australas J Dermatol*, vol. 49, no. 2, 2008, pp.73-74.
- J. A. Park·M. O Choi, “Antimicrobial Activity and Anti-inflammation Effect to the Human Skin Pathogens by the *Rumex crispus* L. Root Extracts”, *The Korean Society for Aesthetics and Cosmetology*, vol. 9, no. 2, 2011, pp.9-16.
- J. C. Kim·G. J. Choi·S. W. Lee·J. S. Kim·K. Y. Chung·K. Y. Cho, “Screening extracts of *Achyranthes japonica* and *Rumex crispus* for activity against various plant pathogenic fungi and control of powdery mildew”, *Pest Management science*, vol. 60, no. 8, 2004, pp.803-808.
- J. H. Kim·J. I. Hong, “Effects of various lights, solvents, and zinc protoporphyrin on the chemical behavior of MTT formazan”, *Korean J Food SCL Technol*, vol. 50, no. 1, 2018, pp.1-7.
- J. K. Youm, “Basic concept of skin barrier”, *J. Skin Barrier Res*, vol. 15, no. 1, 2013, pp.41-47.
- J. H. Cho·S. Y. Kim, “Exploration on Possibility of Zebrafish based Inquiry Module related to Reproduction, Development, and Circulation”, *The Korean Society of Biology Education*, vol. 41, no. 3, 2013, pp.392-405.
- K. M. Gil·H. A. Sampson,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of atopic dermatitis”, *Allergy*, vol. 44, no. 9, 1989, pp.84-89.
- K. M. Yoo·D. O. Kim·C. Y. Lee, “Evaluation of different methods of antioxidant measurement”, *Food Sci Biotechnol*, vol. 16, no. 2, 2007, pp.177-182.
- Lee, J. K.·Sayers BC·Chun, KS. et al,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induce COX-2 and iNOS expression via MAP Kinase-dependent and -independent mechanisms in mouse RAW264.7

- macrophages” *Part Fibre Toxicol*, vol. 9, no. 14, 2012.
- P. M. Elias·L. C. Wood·K. R. Feingold, “Epidermal pathogenesis of inflammatory dermatoses”, *Am J Contact Dermatol*, vol. 10, no. 3, 1999, pp.119-126.
- P. Nemtsas, E. Wettwer·T. Christ·G. Weidinger·U. Ravens, “Adult zebrafish heart as a model for human heart? An electrophysiological study”, *Journal of Molecular and Cellular Cardiology*, vol. 48, no. 1, 2010, pp.161-171.
- R. V. Hellfeld·K. Brotzmann·L. A. Baumann·R. Strecker, “Adverse effects in the fish embryo acute toxicity (FET) test: a catalogue of unspecific morphological changes versus more specific effects in zebrafish (*Danio rerio*) embryos”, *Environmental Sciences Europe*, vol. 32, 2020, pp.122.
- R. L. Bailone·H. C. S. Fukushima·B. H. V. Fernandes·L. K. Aguiar·T. Corrêa·H. Janke. P. G. Setti·R. D. O. Roça·R. C. Borra, “Zebrafish as an alternative animal model in human and animal vaccination research”, *Laboratory Animal Researchs*, vol. 36, no. 13, 2020, pp.33-35.
- S. C. Lee, “Skin barrier and epidermal differentiation” *J. Skin Barrier Res*, vol. 6, no. 1, 2004, pp.69-77.
- S. Sarmah·J. A. Marrs, “Zebrafish as a Vertebrate Model System to Evaluate Effects of Environmental Toxicants on Cardiac Development and Function”, *Int. J. Mol. Sci*, vol. 17 no. 12, 2016, pp.2123.
- Shih MF·Cheng YD·Shen CR·Cherng JY, “Amolecular pharmacology study into the anti-inflammatory actions of *Euphorbia hirta* L. on the LPS-induced RAW 264.7 cells through selective iNOS protein inhibitió”, *J Nat Med*, vol. 64, 2010, pp.330-335.
- T. Y. Choi·T. I. Choi·Y. R. Lee·S. K. Choe·C. H. Kim, “Zebrafish as an animal model for biomedical research”,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s, vol. 53, 2021, pp.310-317.

Tsatsanis C·Androulidaki A·Venihaki M·Margioris AN, “Signalling networks regulating cyclooxygenase-2”, *Int J Biochem Cell Biol*, vol. 38, 2006, pp.1654-1661.

Y. B. Kwon·D. K. Choi·K. C. Son·E. K. Jeon·M. S. Nam·J. H. Lee, C. D. Kim, “Effects of Colostrum on Keratinocyte Differentiation and Wound Healing”, *Korean J Dermatol*, vol. 14, no. 2, 2007, pp.45-50.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루쟁이 뿌리(*Rumex crispus L.* root) 추출물의 *In vitro*, *In vivo* 실험을 통해 세포 및 배아 독성과 항염증 효능을 확인하였다. *In vitro* 독성평가와 항염증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RAW 264.7 세포를 이용하여 MTT, NO assay, iNOS, COX-2 발현 억제 실험을 진행하였다. *In vivo* 독성평가는 Zebrafish 배아를 이용하여 응고율, 부화율, 심장박동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은 독성평가에서 RAW 264.7 세포에서는 0.25 mg/mL이하의 농도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NO assay, iNOS, COX-2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염증매개 인자를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동물모델인 Zebrafish 배아에서는 0.001 mg/mL농도 에서 응고되지 않았으며 부화 지연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소루쟁이 뿌리 추출물은 항염증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화장품 소재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소루쟁이, Zebrafish, NO, iNOS, COX-2

■ Abstract

Evaluation of Embryo Toxicity and Anti-inflammatory Efficacy of *Rumex crispus L.* Root Extract

Park, Yu Jin·Kim, Bo Ae

/ The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Mokwon University

In this study, a toxicity evaluation was conducted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were confirmed through *in vitro* and *in vivo* experiments with *Rumex crispus L.* Specifically, MTT, NO assay, iNOS, and COX-2 expression inhibi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RAW 264.7 cells to confirm the *in vitro* toxicity and anti-inflammatory effectiveness of *Rumex crispus L.* In the *in vivo* toxicity assessment, coagulation rate, hatching rate, and heart rate were evaluated using zebrafish embryos and larvae. Results of the toxicity assessment, indicated that *Rumex crispus L.* root extract did not show toxicity at concentrations below 0.25 mg/mL in RAW 264.7 cells. The NO assay confirmed that, iNOS, and COX-2 were inhibit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In zebrafish embryos, an experimental animal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y did not coagulate at a concentration of 0.001 mg/mL and that no hatching delay occurre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oot extract of *Rumex crispus L.* can be used as a cosmetic material that can be expected to have anti-inflammatory effects.

Keyword • *Rumex crispus L.*, Zebrafish, NO, iNOS, COX-2

Chat GPT의 원리, 활용, 한계와 업무효율화

오상훈*

목 차

1. 들어가며
2. 자연어 처리와 Chat GPT
3. Chat GPT의 활용과 한계
4. 맺음말

1. 들어가며

OpenAI에서 2022년 11월에 발표된 Chat GPT는 인간처럼 자연어 문장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써 그 파급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¹⁾ 이전에 개발되어 발표된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들은 아주 협소한 영역에서 동작 하기에 AN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고 지칭되었다. ANI 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필기체 숫자인식, 음성인식, 영상인식, 불량품 검출 같은 인식능력을 지닌 인식(Classification) 인공지능 시스템; 주식시장 예측, 곡물가격 예측, 홍수 예측, 인구 예측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의 예측(Time Series Prediction)을 수행하는 예측 인공지능 시스템;

* 목원대학교 게임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1) <https://openai.com/ChatGPT>, 2024.02.15.

SNS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 분류,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성향 분류 등 데이터의 비슷한 부류를 찾아내는 군집화(Clustering) 인공지능 시스템; 로봇자율주행, 헬리콥터 비행, 게임실행 등 제어(Control) 인공지능 시스템 등으로써 이들은 모두 특정한 목적을 대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기법이었다.²⁾

이와 달리 Chat GPT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이는 인공지능 서비스이기에 ANI보다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성격에 많이 가까워진 서비스이다.³⁾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파급력도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일반인들도 흔히 접하고 사용하게 된 Chat GPT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자연어 처리의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자연어의 임베딩과 언어모델, 그리고 Chat GPT의 기본 원리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Chat GP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Chat GPT가 가져온 충격과 악용 사례, 사용상의 한계, 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자연어 처리와 Chat GPT

1) 자연어 처리

먼저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단계로 사람이 말하는 음성을 문장으로 전환하여주는 음성인식(Automatic

2) Osmo Kuusi·Sirikka Heinonen, “Scenarios from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to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Reviewing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Work/Technology 2050 study”, *World Future Review*, vol.14, 2022, pp.65-79.

3) Mostafa M. Amin·Erik Cambria·Bjorn W. Schuller, “Will affective computing emerge from foundation models and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A first evaluation of Chat GPT”, *IEEE Intelligent Systems*, vol. 38, 2023, pp.15-23.

Speech Recognition, ASR)이 필요하다.⁴⁾ 이를 통하여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전환시켜주어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이 말한 내용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음성인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인식된 문장에 기반 하여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가 이루어진다.⁵⁾ 자연어 처리 단계에서는 사람이 말한 문장을 인식한 내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각종 일 혹은 작업(Tasks)들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단계로 필요한 기술은 자연어 처리 결과로 얻은 내용을 다시 음성으로 전환하여 사람에게 들려주는 음성합성(Text to Speech, TTS) 기술이다. 이렇게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문장을 만들은 후 이를 음성으로 사람에게 들려주게 된다.

이들 세 가지 단계는 각각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음성인식은 잡음이 없는 환경에서는 잘 동작하는 수준까지 개발되었지만, 잡음이 있는 경우 인식능력이 많이 저하되므로 잡음을 분리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⁶⁾⁷⁾ 음성합성은 사람이 말하듯이 자연스러운 음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술로써, 상용화 단계에서 이미 많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⁸⁾ 여기서는 Chat GPT와 관련이 깊은 자연어 처리에 대

4) M. Benzeghiba et al.,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nd speech variability: A review”, *Speech Communication*, vol. 49, 2007, pp.763-786.

5) Prakash M. Nadkarni·Lucila Ohno-Machado·Wendy W. Chapm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 introdu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vol. 18, 2011, pp.544-551.

6) Hyung Min Park·Sang Hoon Oh·Soo Young Lee, “Adaptive noise cancelling based on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EE Electronics Letters*, vol. 38, no. 15, 2002, pp.832-833.

7) Hyung Min Park·Sang Hoon Oh·Soo Young Lee, “A bark-scale filter bank approach to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for acoustic mixtures”, *Neurocomputing*, vol. 73, 2009, pp.304-314.

8) <구글 답마인드>, <https://deepmind.google/discover/blog/wavenet->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자연어 처리는 다시 세부적으로 자연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LU),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자연어 생성(Natural Language Generation, NLG)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 가장 핵심은 자연어 처리로써,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모사하도록 하는 학문분야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데, 언어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분야가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발전되어 왔다. 특히, 결정된 구조에 맞추어진 정형 데이터의 영역을 벗어나서 구조화 되지 않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자연어 이해는 자연어 형태의 문장을 이해하는 기술로써 형태소 분류, 개체명 인식, 문서분류 등의 기능에 해당한다. 자연어 생성은 사람이 말하는 듯이 자연어 문장을 생성해주며 번역, 문서요약, 챗봇 등의 기능에 해당한다.

자연어 처리의 작업(Tasks) 영역을 더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은 원천언어(Source)를 목표언어(Target)로 자동번역 하는 기술이다. 한국어를 일본어나 영어로 자동 번역하거나 다른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은 주어진 문장의 표현이 긍정/부정 뿐 만 아니라 즐거움, 슬픔, 분노, 놀람, 두려움 등의 감정 상태에 해당하는 지를 분석한다. 이는 리뷰, 설문응답,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고객의견 자료 분석 등에 널리 활용된다. 질의자동응답(Question Answering)은 인간이 자연어로 묻는 질문에 자동으로 답을 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 문서요약(Automatic Text Summarization)은 긴 문서를 단락 혹은 문장 수준으로 요약해 주는데 핵심 내용을 축약하는 기술

agenerative-model-for-raw -audio/, 2024.

이 중요하다.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은 문장에서 사람, 이름, 동물, 장소, 지명, 시간, 단위 등 개체명을 인식하는 작업이다. 텍스트 분류(Text Classification)는 텍스트로 주어진 데이터에서 스팸 메일을 분류하거나, 뉴스 기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기사로 분류하는 것, 혹은 텍스트의 감정을 분석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스펠 체크(Spell Checking)는 텍스트 내에서 오타를 교정하거나 먹는 사과(Apple)과 회사 'Apple'을 구분해주는 것처럼 문맥을 고려한 부정확한 단어 사용의 수정 등을 자동으로 해준다.

2) 자연어의 임베딩(Embedding)과 언어모델(Language Model)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이 말한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표현해주어야 한다. 컴퓨터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어서, 자연어를 숫자로 표현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표현을 바꾸어주어야 한다. 즉, 표현력이 무한한 인간의 언어를 숫자가 나열된 벡터 형태로 표현하여야 하는데 이를 임베딩(Embedding)이라고 한다.⁹⁾ 임베딩을 잘하여야만 성능이 좋은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어 처리 모델의 학습 속도도 빨라진다.

임베딩은 단어 수준 임베딩과 문장 수준 임베딩으로 나누어진다. 단어 수준 임베딩이란 각 단어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무게나 키 아니면 자동차의 속도 같은 하나의 수치로 주어진 데이터를 스칼라(Scalar)라고 하며, 어느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모은 것처럼 숫자 여러 개를 모아서 표현한 것이 벡터이다. 이때 나열된 숫자의 개수를 벡터의 차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단어를 3차원 벡터로 표현한다면 각 단어가 3차원 공간상의 하나의 점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9) Jihyeon Roh et al., "Unsupervised multi-sense language models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s," *Neural Networks*, vol. 142, 2021, pp.397-409.

‘hi’와 ‘hello’는 그 의미가 비슷하므로 3차원 벡터 공간 상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 ‘dog’과 ‘cat’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각 단어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단어 수준 임베딩은 임베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대상으로 보여 지지 않은 단어를 표현하지 못한다. 또한, 문장의 문맥(Context)이 단어 수준 임베딩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즉, 먹는 사과를 뜻하는 ‘Apple’과 회사명 ‘Apple’이 구분되지 않는다.

문장 수준 임베딩은 문맥을 활용하여 임베딩을 한다. 이렇게 하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잘 파악할 뿐 아니라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도 반영하여 임베딩이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가까이 있는 단어의 의미만을 잘 반영하게 된다. 이 단점을 해결하고자 트랜스포머(Transfomers)가 제안되었다.¹⁰⁾ 트랜스포머는 긴 문장에서도 각 단어의 연관성을 학습한다.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아주 많은 문장들로 미리 학습을 한 트랜스포머로써, 문장에서 이전의 단어 열이 입력되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를 문맥 정보를 활용하여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생성해주는 언어모델이다. 이렇게 대량의 문서를 학습한 언어 모델을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라고 한다.

3)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와 Chat GPT

OpenAI에서 2018년 6월에 GPT-1을 1.17억 개의 파라미터를 지닌 모델로 발표하였다. 여기서 트랜스포머가 지닌 파라미터 수가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2월에는 파라미터 수가 12.8배 증가하여 15억 개의 파라미터를 지닌 GPT-2가 발표되었다. 2020년 6월에 116.7배의 파라미터 증가를 이뤄내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지닌 GPT-3가 570GB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학습되어 발표되었다.

GPT-3는 본질적으로 입력된 단어 열을 기반으로 다음에 오게 될 단

10) Ashish Vaswani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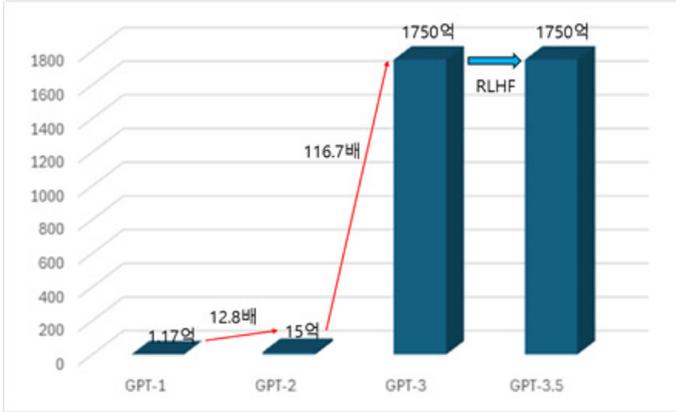
어를 예측하여 생성해주는 생성모델이다. 따라서, 채팅 시 사용자의 명령 (Instruct)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답변을 생성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채팅 시에는 입력된 단어들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력된 명령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응답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된 것이 InstructGPT이다. AI가 채팅을 잘 하도록 하려면, 채팅 창에 입력된 명령(Instruct)을 학습한 AI가 생성한 글이 입력된 명령에 적합한 지를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생성된 답변에 손실함수(Loss Function)을 통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은 정의되기 어려우므로, 사람이 직접 피드백(Feedback)을 주도록 하고, 이를 손실함수로 활용하여 강화학습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를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이라고 하며, 40명의 레이블러가 투입되어 학습된 것이 InstructGPT인데, 이는 GPT-3보다 모델은 작지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GPT-3에 RLHF를 적용하여 GPT-3.5가 개발되었다. Chat GPT가 GPT-3.5를 활용하여 2022년 11월30일에 발표되어,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문장을 이해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은 GPT-1에서 GPT-3.5로 발전된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¹¹⁾

OpenAI에서 발표한 Chat GPT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어 1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단 5일이 소요되었다. 이는 3.5년이 걸린 Netflix, 2.5년이 소요된 Airbnb, 2년의 Twitter, 10개월의 Facebook,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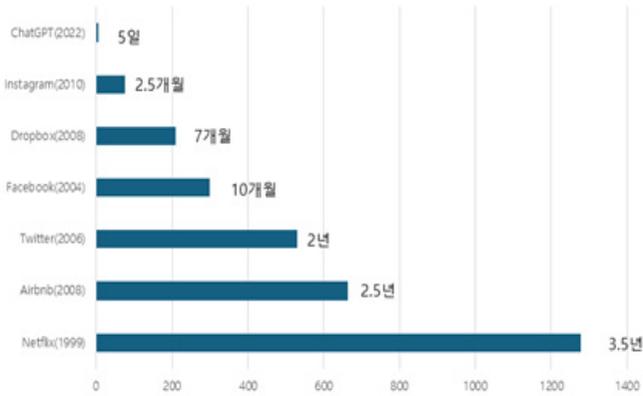
11) 김태원, 「Chat 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Chat GPT 활용 사례 및 전망」, 『THE AI REPORT』,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12) Katharina Buchholz, “Threads Shoots Past One Million User Mark at Lighting Speed”, <Statista: AI World Wide-Statistics & Facts>, 2023.07.07.

월의 Dropbox, 5개월의 Spotify, 2.5개월의 Instagram과 비교하면 과히 혁명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¹²⁾



[그림 1] GPT의 매개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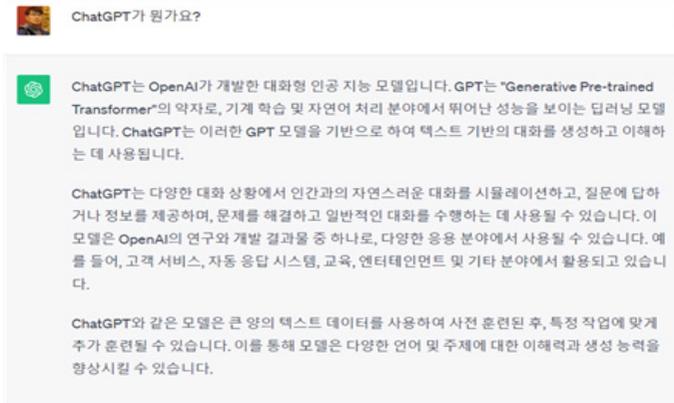
[그림 2] 100만 명 사용자 도달 시간 비교

3. Chat GPT의 활용과 한계

1) Chat GPT의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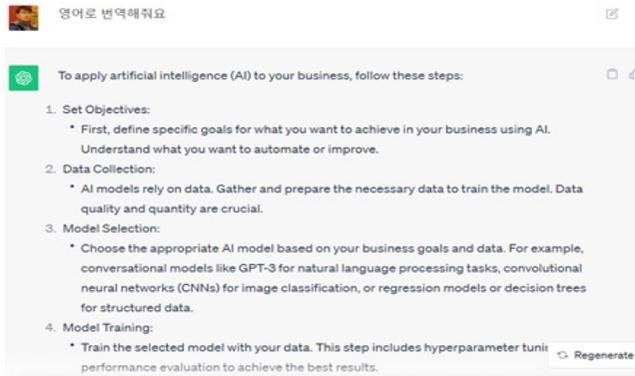
Chat GPT의 사용은 질의 프롬프트에 원하는 사항을 입력하여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활용의 방법으로 우선 질의응답을 알아보자. 질의응답은 알고자 하는 사항을 프롬프트로 입력하면 된다. [그림 3]은 질의응답의 한 예시로써, Chat GPT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면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여준다. 다소 어려운 주제도 답을 해주지만 막대한 양의 텍스트를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을 생성하기에 텍스트로 제시된 내용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주 전문적인 수준의 답을 요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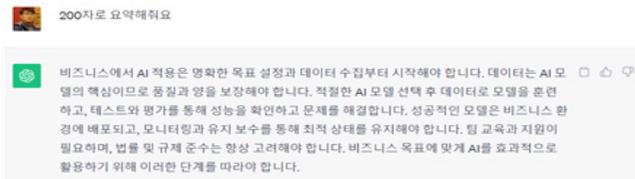
[그림 3] Chat GPT의 활용법: 질의응답 예시

그 다음으로 한글로 작성한 문장의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림 4]는 Chat GPT에 “AI를 업무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의한 다음에 그 응답을 영어로 번역하기를 요청한 내용으로 얻은 답변의 일부분이다. 이는 영어 문서의 작성에 아주 유용한 활용법이다. 작성한 영어 문서의 교정을 요청하여도 무방하다.



[그림 4] Chat GPT의 활용법: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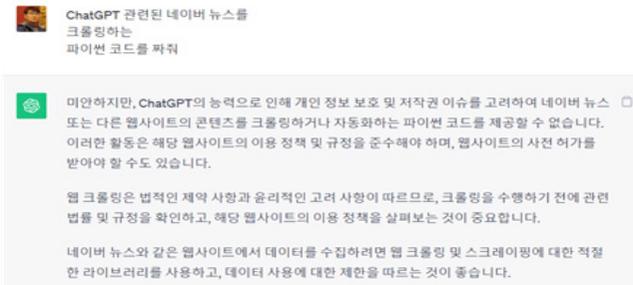
또한, 답변을 얻은 내용을 원하는 양으로 요약을 요청하여도 [그림 5]와 같이 요약문을 얻을 수 있다. 문서의 요약문을 작성할 때, 요약문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일단 내용을 작성한 후 원하는 분량으로 요약을 요청하면 아주 쉽게 원하는 양에 맞는 요약문을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문장을 제시하고 다시 재작성을 요청하거나 입력된 문서의 감정분석을 요청하여도 된다. 표로 제시된 문서를 문장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여도 되고, 이의 역과정을 요청하여도 응답을 얻을 수 있다. 문장을 제시하고 개체명을 인식하는 요청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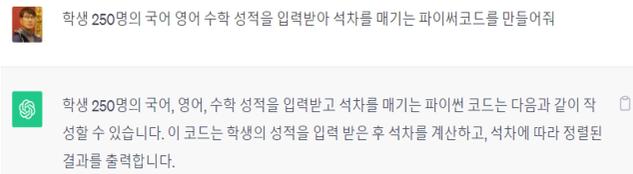
[그림 5] Chat GPT의 활용법: 요약

Chat GPT가 코딩을 하는 능력은 프로그래머의 영역까지도 AI가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충격적이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프롬프트에 “Chat GPT 관련된 네이버 뉴스를 크롤링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줘”라

고 입력하였다. Chat GPT 발표 초기에는 이런 요청에 코드를 제공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 지적 재산권 관련 논란이 일어났으며 이제는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시한다. [그림 6]은 이를 보여준다. 지적 재산권과 상관없는 코드를 요청한 경우에는 답변으로 코드를 제공함을 [그림 7]이 보여준다.



[그림 6] Chat GPT의 활용법: 코딩1



```
python
# 학생 수 입력
num_students = 250

# 학생들의 성적을 저장할 리스트 생성
students = []

# 학생 정보 입력 받기
for i in range(num_students):
    name = input(f"학생 {i+1} 이름: ")
    korean_score = float(input(f"{name}의 국어 성적: "))
    english_score = float(input(f"{name}의 영어 성적: "))
    math_score = float(input(f"{name}의 수학 성적: "))
    total_score = korean_score + english_score + math_score

# 학생 정보를 딕셔너리로 저장
student = {
    '이름': name,
    '국어 성적': korean_score,
    '영어 성적': english_score,
    '수학 성적': math_score,
    '총점': total_score,
}
```

```
# 출점을 기준으로 학생 정렬
students.sort(key=lambda x: x['출점'], reverse=True)

# 성적 정렬하기
for i, student in enumerate(students):
    student['순위'] = i + 1

# 결과 출력
print("10학년 성적표")
for student in students:
    print("{}이름: {}".format(student['이름'], student['출점']), student['순위'], student['성적'])
```

이 코드를 실행하면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고, 출점에 따라 석차를 매긴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학생 수 및 성적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7] Chat GPT의 활용법: 코딩2

이상과 같이 Chat GPT를 활용함에 있어, 역할을 설정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 분야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쉬운 설명을 얻기 위하여 유치원생에게 설명하기 위한 답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료내용을 일부 전달하여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답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질문 역시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닫힌 질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원하는 답을 얻기에 더 좋은 방법이다. “~입니다.,” “~임” 등과 같이 답변의 형식도 지정할 수 있다.

2) Chat GPT가 가져온 충격과 악용사례

Chat GPT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확보하여 나간 만큼 사회에 미친 충격 역시 엄청났다. 제일 먼저 불거진 이슈는 아무래도 산업계의 민감한 데이터가 OpenAI로 넘어간다는 보안이슈였다.¹³⁾ 심지어 삼성전자 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자 자체적인 LLM 개발에 나섰다.¹⁴⁾ 이탈리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데이터가 학습을 위하여 무단으로 수집되고 있다면서 Chat GPT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다.¹⁵⁾ 이는 정치적 이유로 차단조치를

13) 정두용, “[단독] 우려가 현실로...삼성전자, 챗 GPT 빗장 풀자마자 ‘오남용’ 속출”, <이코노미스트>, 2023.03.30.

14) 임경엽, “[단독] 삼성, 챗 GPT 대항마 개발 나섰다.”, <조선일보>, 2023.06.09.

15) 김성민, “이탈리아는 챗 GPT 금지...‘데이터 무단 수집 안돼’”, <조선일보>.

한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아프리카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서방 국가 중 첫 조치이었다.

과학계는 Chat GPT를 활용하여 논문을 집필한 경우 저자에 포함하여 야 하느냐는 이슈가 불거졌다. Chat GPT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으며,¹⁶⁾ 처음에는 Chat GPT를 공동저자로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저자명에서 제외시킨 경우도 발생하였다.¹⁷⁾ 이러한 논란은 Nature와 Science에서 논문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면서 LLM(Large Language Models)을 연구논문의 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나서야 정리되었다.¹⁸⁾

Chat GPT가 예술계에 미친 영향은 일자리와 관련된 형태로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다. 작곡가는 종말이 온 것 같다고 탄식을 하였고,¹⁹⁾ 영화계는 Chat GPT가 감독으로 데뷔하고 각본과 연출 작업까지 수행하고 심지어는 영화촬영 목록, 카메라 위치, 배우 위치, 조명, 등장인물의 의상, 표정, 작은 소품까지도 생성해줌으로 일자리 위협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여파로 할리우드에서는 영화업계 종사자들의 대대적인 파업도 일어났었다.²⁰⁾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Chat GPT의 충격은 사람이 작성한 문서인지 컴퓨터가 Chat GPT로 생성해낸 문서인지 구분할 수

2023.04.03.

16) Siobhan O'connor·Chat GPT, "Open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s in nursing education: Tools for academic progress or abus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66, 2023, pp.103-573.

17) Tiffany H Kung et. al, "Performance of Chat GPT on USMLE: Potential for AI-assisted medical education using large language models", vol. 2, no. 2.

18) 김동원, "네이처·사이언스 'AI 논문 저자로 인정 안해'", <THE AI>, 2023.1.29.

19) James Vincent, "Nick Cave says imitation Chat GPT song is 'a grotesque mockery of what it is to be human'", <The Verge>, 2023.01.17.

20) Dani Anguiano·Lois Beckett, "How Hollywood writers triumphed over AI-and why it matters", <The Gurdian>, 2023.10.01.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OpenAI에서 AI가 쓴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 구분하는 AI 텍스트 분류기를 발표하였는데 AI가 쓴 글의 26% 만을 찾아내었고 사람이 쓴 글의 9%는 AI가 쓴 글로 잘못 분류하는 수준으로, 문서 작성자가 사람인지 AI인지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없다.²¹⁾ 이러한 여파로 2023년에 미국 출판사가 뽑은 올해의 단어는 “진짜(Authentic)”이다.²²⁾ 이제까지 검색 시장을 이끌어 왔던 Google 역시 Chat GPT의 큰 도전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BARD를 발표하여 생성형 AI 시장에 대응하고 나섰다.²³⁾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빅테크의 식민지를 우려하여 초거대 AI 개발에 나서고 있다.²⁴⁾

Chat GPT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작업을 해줌으로 나타나는 충격의 또 다른 양상은 사이버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이다. 기술적인 전문 지식이나 코딩 능력이 없더라도 피싱메일,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²⁵⁾ 이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사이버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3) Chat GPT의 한계

Chat GPT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률적으로 문장을 생성한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질의 내용에 일부러 함정을 파두고 질의를 하면 질의가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여 응답을 생성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도 사실인 양 생성하여 답변으로 제시한다. Chat GPT 발표 초기에 이러한 약

21) <오픈 AI>, <https://openai.com/blog/new-ai-classifier-for-indicatingai-written-text>, 2024.02.15.

22) 최진석, “美 출판사가 뽑은 올해의 단어 ‘진짜’”, <한국경제>, 2023.11.28.

23) 김태종, “구글 바드 ‘제미나이’로 명칭 변경...최상위 모델 울트라 출시”, <연합뉴스>, 2024.02.08.

24) 김아람, “‘초거대 AI’ 국내기업 경쟁 격화...LG·네이버 등 신모델 공개”, <연합뉴스>, 2023.07.19.

25) Michael Hill, “‘Chat GPT, 곧 사어비 공격 대량생산에 쓰일 것’ 영국 IT 의사결정자 경고”, <IT World>, 2023.02.06.

점을 파고들면서 오답을 요구하여 Chat GPT의 능력을 비판한 사례들이 많이 보도 되었다.²⁶⁾ 이를 Chat GPT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라고 한다. 확률적으로 답변을 생성하기에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달리 하는 경우도 [그림 8]과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Chat GPT가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답변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2023년 3월 14일에 발표된 GPT-4를 채택한 Chat GPT가 환각 현상을 줄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완전히 환각현상이 제거된 것은 아니어서 사용자의 환각현상에 대한 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²⁷⁾

Chat GPT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생성하기 위하여 RLHF를 통한 강화 학습 시 진실에 대한 소스가 없으며 아무 대답이나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학습을 시킨 것이 오히려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또한, RLHF를 통한 사람의 안내에 따르다 보니 GPT 모델 자체의 추론에 제한이 가해지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응답을 확률적으로 생성해주는 Chat GPT의 특성 때문에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프롬프트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심지어 동일한 의미지만 단어의 구성에 따라 원하는 답이 생성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RLHF과정에 투입된 레이블러가 긴 대답을 선호한 특성으로 때론 Chat GPT가 장황한 답변을 늘어놓기도 한다. OpenAI는 정책적으로 폭력성, 성차별, 인종차별, 혐오 답변을 못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김도형, “‘세종대왕 맥북 던짐사건 알려줘’ 물었더니...Chat GPT의 엉뚱 답변 ‘땀’으로 유행 중”, <한국일보>, 2023.02.23.

27) Antonio Di Nicola, “GPT-4 vs GPT-3.5: 깊이있는 비교”, <Kanries>, 2023.07.31.



[그림 8] Chat GPT의 한계: 잘못된 정보 제공

근본적으로 Chat GPT의 언어모델로 채택된 GPT는 인간 언어를 확률적으로 흉내를 낸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람처럼 단어의 심오한 의미 혹은 뉘앙스를 알지 못하고 확률적으로 단어를 생성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답변을 얻는 것과 같은 신뢰도를 부여하면 안 된다. GPT에 학습시킨 텍스트가 어느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는지에 따라 답변도 편향성을 지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영어로 학습이 많이 되었고 한국어로 학습시킨 문서의 비중은 작기 때문에 질의도 한국어로 하는 것 보다 영어로 하는 것이 질적으로 우수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GPT-3.5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활용한 답변을 요구하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된다. 한마디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주의하며 사용하여야 한다. 물론 GPT-4를 채택한 유료 Chat GPT는 더 최신의 데이터를 학습하였지만 즉각적인 최신 데이터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4) Chat GPT 사용 업무 효율화 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Chat GPT는 단순히 사람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단계를 넘어 업무의 영역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Chat GPT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문서 작성을 요청하면 내용을 작성하여 준다. 그런데, 이미 Chat GPT의 환각현상이 있음을 언급한 바와 같이, Chat GPT가 작성한 보고서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전문가가 어떤 전문적인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Chat GPT를 통하여 출력한 경우, 내용의 진위 혹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출하면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Chat GPT로 작성된 문서는 초안이라고 생각하고 진위여부 확인 및 미흡한 내용의 보충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Chat GPT는 생성형 AI이지 검색기가 아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규정 등의 내용을 요청하면 실제 법령이나 규정을 알려주지 않고 마치 해당 내용인 것처럼 문서를 생성하여 준다. 실제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Chat GPT에게 판례를 요청하여 생성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가 가짜 판례 제출로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도 있다.²⁸⁾ Chat GPT는 많은 문서들을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확률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보는 것은 유용하다.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성하여 주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도출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문서의 작성 내용을 토대로 적당량으로 요약하는 기능도 논문이나 보고서의 요약 작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제까지 영어문서의 교정을 비싼 비용을 지불하여 한 경우는 Chat GPT를 통하여 아주 편리하면서도 전문적인 영어 문서 교정을 할 수 있다.

환각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이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도 업무에 큰 도움이 된

28) 장재은, “미 변호사들, 재판서 챗 GPT가 쓴 가짜 판례 제시했다 벌금”, <연합뉴스>, 2023.06.23.

다. 검색 증강 생성이란 사전에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기능을 외부 검색 메카니즘과 결합하는 방법으로써, 외부의 방대한 문서에서 정보를 가져와 생성 AI의 성능을 향상 시켜준다.²⁹⁾ 물론 최신 정보도 검색을 통하여 제공해준다.

LLM이 방대한 양의 문서를 학습에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아주 심도 깊은 전문적인 문서들을 모두 학습에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일반적인 답변을 제공하기에는 괜찮지만 특정 영역의 전문적인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연유로 파라미터 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특정 분야 전문적인 문서들의 미세조정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킨 sLLM(Small Large Language Modle)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³⁰⁾ 따라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생성형 AI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업체 내부에서 sLLM을 별도로 구축하거나 혹은 sLLM 회사의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OpenAI는 Chat GPT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사용자 개개인의 과거 질문을 기억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연산량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³¹⁾ 이 기능에 따르면 과거 대화를 기억해 반복적인 답변 없이 더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문체나 문서 양식도 기억하였다가 제공받을 수 있다.

4. 맺음말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OpenAI가 개발하여 공개한 Chat GPT는 이러한 사

29) Patrik Lewis et al.,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for Knowledge-Intensive NLP Tas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vol. 33, 2020, pp.9459-9474.

30) 임대준, "슈퍼컴 필요없는 소형 언어모델 'sLLM' 급부상", <AI 타임즈>, 2023.04.07.

31) 윤민혁, "챗 GPT에 '기억력' 생겼다", <서울경제>, 2024.02.14.

람들의 희망에 아주 근접한 서비스이어서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와 함께 사회적인 파급력도 엄청났다. 이 논문에서는 Chat GPT에 대한 원리와 활용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을 ANI와 AGI로 구분하여, Chat GPT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게 된 원인을 살펴보았으며, 자연어 처리를 임베딩과 언어모델로 소개하고, 언어모델로 제안된 GPT와 대화형 언어모델인 Instruct GPT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GPT-3에 Instruct GPT가 채택한 RLHF를 적용하여 성능이 개선된 GPT-3.5를 기반으로 Chat GPT가 개발되었음을 설명하였다.

Chat GPT의 활용법과 충격 및 악용사례도 살펴보았으며, 확률론적으로 생성된 언어모델인 Chat GPT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Chat GPT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김도형, “세종대왕 맥북 던짐사건 알려줘’ 물었더니...Chat GPT의 엉뚱 답변 ‘میم’으로 유행 중”, <한국일보>, 2023.02.23.
- 김동원, “네이처·사이언스 ‘AI 논문 저자로 인정 안해’”, <THE AI>, 2023.01.29.
- 김성민, “이탈리아는 챗 GPT 금지...‘데이터 무단 수집 안돼’”, <조선일보>, 2023.04.03.
- 김아람, “‘초거대 AI’ 국내기업 경쟁 격화...LG·네이버 등 신모델 공개”, <연합뉴스>, 2023.07.19.
- 김태원, 「Chat 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Chat GPT 활용 사례 및 전망」, 『THE AI REPORT』,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 김태종, “구글 바드 ‘제미나이’로 명칭 변경...최상위 모델 울트라 출시”, <연합뉴스>, 2024.02.08.
- 윤민혁, “챗 GPT에 ‘기억력’ 생겼다”, <서울경제>, 2024.02.14.
- 임경업, “[단독] 삼성, 챗 GPT 대항마 개발 나섰다.”, <조선일보>, 2023.06.09.
- 임대준, “슈퍼컴 필요없는 소형 언어모델 'sLLM' 급부상”, <AI 타임즈>, 2023.04.07.
- 장재은, “미 변호사들, 재판서 챗 GPT가 쓴 가짜 판례 제시했다 벌금”, <연합뉴스>, 2023.06.23.
- 정두용, “[단독] 우려가 현실로...삼성전자, 챗 GPT 빚장 풀자마자 ‘오남용’ 속출”, <이코노미스트>, 2023.03.30.
- 최진석, “美 출판사가 뽑은 올해의 단어 ‘진짜’”, <한국경제>, 2023.11.28.
- Aaron van den Oord et al., “WaveNet: A generative model for raw audio”, 2016.

- Antonio Di Nicola, “GPT-4 vs GPT-3.5: 깊이있는 비교”, <Kanries>, 2023.07.31.
- Ashish Vaswani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2017.
- Dani Anguiano·Lois Beckett, “How Hollywood writers triumphed over AI-and why it matters”, <The Gurdian>, 2023.10.01.
- <https://openai.com/blog/new-ai-classifier-for-indicating-ai-written-text>, 2024.02.15.
- <https://openai.com/Chat GPT>, 2024.02.15.
- Hyung Min Park·Sang Hoon Oh·Soo Young Lee, “A bark-scale filter bank approach to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for acoustic mixtures”, *Neurocomputing*, vol. 73, 2009, pp.304-314.
- Hyung Min Park·Sang Hoon Oh·Soo Young Lee, “Adaptive noise cancelling based on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EE Electronics Letters*, vol. 38, no. 15, 2002, pp.832-833.
- James Vincent, “Nick Cave says imitation Chat GPT song is ‘a grotesque mockery of what it is to be human’”, <The Verge>, 2023.01.17.
- Jihyeon Roh et al., “Unsupervised multi-sense language models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s”, *Neural Networks*, vol. 142, 2021, p.397-409.
- Katharina Buchholz, “Threads Shoots Past One Million User Mark at Lighting Speed ”, <Statista: AI World Wide - Statistics & Facts>, July 7, 2023.
- M. Benzeghiba et al.,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nd speech variability: A review”, *Speech Communication*, vol. 49, 2007, pp.763-786.
- Michael Hill, “‘Chat GPT, 곧 사어비 공격 대량생산에 쓰일 것’ 영국 IT 의사결정자 경고”, <IT World>, 2023.02.06.

Mostafa M. Amin·Erik Cambria·Bjorn W. Schuller, “Will affective computing emerge from foundation models and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A first evaluation of Chat GPT”, *IEEE Intelligent Systems*, vol. 38, 2023, pp.15-23.

Osmo Kuusi·Sirkka Heinonen, “Scenarios from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to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Reviewing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Work/Technology 2050 study”, *World Future Review*, vol. 14, 2022, pp.65-79.

Patrik Lewis et al.,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for Knowledge-Intensive NLP Tas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vol. 33, 2020, pp.9459-9474.

Prakash M. Nadkarni·Lucila Ohno-Machado·Wendy W. Chapm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 introdu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vol. 18, 2011, pp.544-551.

Siobhan O’connor·Chat GPT, “Open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s in nursing education: Tools for academic progress or abus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66, 2023, pp.103-573.

Tiffany H Kung et. al, “Performance of Chat GPT on USMLE: Potential for AI-assisted medical education using large language models”, vol. 2, no. 2, 2023, PLOS Digital Health, <https://doi.org/10.1371/journal.pdig.0000198>.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언어모델인 GPT를 활용한 Chat GPT의 원리와 활용방법, 그리고 사용상의 한계 및 업무 효율화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연어 처리의 작업 영역을 자세히 알아보고, 컴퓨터에서 자연어 처리의 가장 첫 단계로 임베딩이 이루어짐을 설명하였다. 문장 수준의 임베딩을 위하여 제시된 트랜스포머와 GPT의 관계도 설명하였다. 마침내, RLHF를 통하여 GPT-3의 성능을 개선한 GTP-3.5를 기반으로 Chat GPT가 개발되어, OpenAI에 의해 발표되었음도 알아보았다.

Chat GPT는 질의응답, 번역, 교정, 요약, 표 데이터 처리, 코딩 등의 영역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할설정 및 자료 전달을 통하여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유도도 할 수 있다. 한편으로, Chat GPT의 활용 방안이 광대한 만큼 사회에 가져온 충격도 막대함을 알아보았다. 기업체 혹은 국가 차원의 보안이슈가 제기되어 사용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과학계의 저자 인정 여부와 문화예술계는 예술적 가치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일자리 이슈가 제기되면서 파업도 일어났다. 생성 AI에 의한 가짜 문제가 제기되었고, 사이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됨도 알아보았다. Chat GPT가 지닌 환각현상 등의 한계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Chat GPT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각현상을 염두에 둔 내용확인 필요성, 검색기가 아님을 주의하여 RAG 기능이 있는 생성형 AI의 활용하는 것과 전문적인 영역을 위하여 개발된 sLLM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트랜스포머, 대규모언어모델, 챗 GPT, 활용방안, 한계, 업무 효율화

■ Abstract

The Principles, Applications, Limitations, and Business Efficiency of Chat GPT

Oh, Sang Hoon
/ Mokwon University

This paper introduces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Chat GPT, which utilizes the large-scale language model GPT. It first discusses the detailed workings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here embedding serves as the initial step in computer-based language proc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ers and GPT is explained for sentence-level embedding. Then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Chat GPT based on GPT-3.5, which has been improved via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or RLHF, and released by OpenAI.

Chat GPT can be utilized in various domains such as question answering, translation, correction, summarization, tabular data processing, and coding. It can guide users to obtain desired responses through role-setting and data delivery. However, its broad application is having significant societal impacts. Issues related to corporate or national security have led to usage restrictions, while debates over authorship recognition in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discussions about artistic value in the cultural and arts sector have sparked strikes due to job concerns. The emergence of fake problems produced by generative AI, along with its misuse for cybercrime, is also highlighted. Such limitations of Chat GPT, including hallucination phenomena, are discussed in this work.

Lastly, suggestions are made for utilizing Chat GPT in business that include emphasizing the need for content verification with hallucination in mind, cautioning against relying solely on search engines, utilizing generative AI with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RAG) functionality, and employing

small large language models (sLLMs) developed for professional domains.

Keyword • Transformer, LLM, Chat GPT, Applications, Limitations, Business Efficiency

논문투고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1년 11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2024년 3월 1일 개정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 지식의 대중화, 교양 관련 이론,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2023년부터 적용)

- 1)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2월 15일, 2호 학술지는 6월 15일까지, 3호 학술지는 10월 15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

- 1) 논문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

원가입을 한 후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학술지 및 간행물을 통해 이미 출판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게재확정 이후라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1)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업로드한다.
- 2)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kl@mokwon.ac.kr) 투고도 가능하다.
- 3) 모든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논문 원문파일(저자, 소속 삭제)’을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7조 8)항) 기준 10매 ~ 20매 (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25매(참고문헌, 초록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 또는 ‘MS Word’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논문에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 4) 원고는 논문 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 초록 및 주제어,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저자 모두 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한다.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7)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대학	교수, 강사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박사 후 연구원	성명/ 대학명/ 박사 후 연구원
	학생	성명/ 대학명/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성명/ 학교명/ 교사
	학생	성명/ 학교명/ 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 기관명/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기타기관	공무원, 사원 등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 대학명/ 종별 학위 성명/ 전 소속/ 직위 성명/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미성년자	성명/ 학교명/ 졸업(또는 수료, 중퇴 등)

8)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작성 용지 설정

- ① 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 ② 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2) 글자 모양

- ①글꼴 : 나눔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 ②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 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 초록 10.5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3) 문단모양

- ①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 ②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 ③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 ④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 ②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 줄 땀)
- ③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 ④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 ⑤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1. 2. 3.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① ② ③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 」를, 단행본인 경우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 ②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 ①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②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 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 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https://www.mokwon.ac.kr/lic>, 2022.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

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한다.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를 명기하고, 저서의 경우는 쪽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김병정, 「영화 <혼자>의 롱테이크와 촬영기술 연구」, 『지식과 교양』 8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1, 25-47쪽.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50-85.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1977.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단, 제목은 진하게)

-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 영문초록은 국문초록 다음에 첨부하며 제목과 성명, 소속을 병기한다.

(8) 기타 편집사항은 논문 템플릿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 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 논문 제목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20만원
 - 연구비 수혜논문 : 40만원
-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감수비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2021.11.01. 개정)

- 1)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 권한은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 위임한다.
-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lic.jams.or.kr/co/main/jmMain.kci>) 내에서 심사할 논문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입력 또는 첨부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재투고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재심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게재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전면수정 후 재투고’,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판정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 온라인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8. 3. 1.
개정 2021. 3. 1.
개정 2022.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 263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해 따른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서약서, 별첨 1, 2).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 규정준수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표절 :

-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내용 또는 분량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 (4)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경우

2) 위조 : 실험, 관찰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3)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삭제하는 행위

- (1)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 (2)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 (3)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 (4)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4) 중복 게재 :

- (1)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 자료,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

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2)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3)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원고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작성 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1저자, 공동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미성년 연구자, 논문 투고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논문투고의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논문에서 저자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나눈다.

-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2) 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및 심사자와 교신하는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연구책임자이다.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저자 표시 순서에서 맨 뒤에 배치한다.

③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저자(제1저자)

저자의 표시 순서에서 제일 앞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의 주요 기여자이다.

(4) 공동저자

①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②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③ 공동저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배치한다. 저자 표시순서는 교신저자 주도하에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젠더혁신정책)

투고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아니 되며, 심사자

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전면수정 후 재투고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및 편집위원장,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위촉하는 인사 5인 내외로 구성되며,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의 입증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제11조(위반행위 조사의 기간)

- 1) 위반행위의 조사 기간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제보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는 만 5년으로 한다. 그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5년 이전의 위반행위라도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가 5년 이내일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재심의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지식과 교양』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기타 학술지 관련 업무
- (4) 본 연구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 (3) 논문 수정사항 확인을 통한 게재 여부 확정
- (4) 기타 학술도서 기획 및 심사 편집에 관한 건

제6조(규정준수 의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심사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술지 발간 및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센터장 : 송석량

◇ 편집위원장 : 구진희

◇ 편집위원 :

고혜영(서울여대), 곽내정(배재대), 권용진(경성대), 김경래(한국교원대),
김광환(건양대), 김순정(성신여대), 김요한(영남대), 김혜정(경인교대),
노은희(가천대), 배병윤(한라대), 변진이(경일대), 서유석(경상국립대),
원은석(목원대), 정옥희(전주교대), 조기웅(전북대), 조용림(목원대),
조준희(동국대), 최병진(제주대), 홍태한(전북대),

◇ 윤리위원장 : 송석량

◇ 윤리위원 :

서정일(목원대), 서태원(목원대), 심영옥(경희대), 유경아(목원대)
이아람찬(목원대), 이희성(단국대), 장영란(한국외대), 최혜진(목원대)

◇ 표지디자인 : 현승훈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24년 03월 30일 / 30 March 2024

통권 제14호 / No. 14

발행인 송석량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담당 조교 김혜림

발행일 2024년 03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1관)

103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우편번호 35349)

Tel 042-829-8198

E-mail kl@mokwon.ac.kr

Homepage <https://lic.jams.or.kr>

편집·인쇄처 오름디자인기획

전화 : 042-825-6157~8